

ETHER LIBRARY

0026

모비 딕

Moby-Dick

허먼 멜빌

Herman Melville · 1851

문학 · 소설

모비 딕

Moby-Dick; or, The Whale

허먼 멜빌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Moby-Dick; or, The Whale

지은이 허먼 멜빌(1819~1891)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851년, 런던 리처드 벤틀리 출판사(『The Whale』)와 뉴욕 하퍼 앤드 브러더스 출판사(『Moby-Dick; or, The Whale』)에서 펴냈다. 이 책은 에필로그가 실린 1851년 미국판 계열의 본문을 영어 원전에서 직접 옮겼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허먼 멜빌**의 《모비 딕(Moby-Dick; or, The Whale)》을 영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소설은 1851년 10월 런던의 리처드 벤틀리 출판사에서 『고래(The Whale)』라는 제목의 세 권짜리 책으로 먼저 나왔고, 한 달 뒤 뉴욕의 하퍼 앤드 브러더스 출판사에서 『모비 딕, 또는 고래』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런던판에는 에필로그가 빠져 있고 신앙과 몸에 관한 몇몇 대목이 깎여 있습니다. 이 책은 **1851년 미국판 계열의 본문**을 옮겨 적은 퍼블릭도메인 영어 전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으므로, 에필로그를 옮기고 깎인 대목도 모두 살렸습니다.

앞부분의 「어원」과 「발췌」, 135장, 「에필로그」까지 원문 2,498문단을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고 옮겼습니다.

각주

멜빌은 본문 곳곳에 스스로 각주를 달았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각주가 본문 중간에 끼어 있지만, 이 책에서는 각 장의 끝으로 옮겼습니다. **표시가 없는 각주 22개는 모두 멜빌이 쓴 원주입니다.**

옮긴이가 단 주는 제27장의 하나뿐이고, 첫머리에 「(옮긴이)」라고 적어 원주와 구별했습니다. 그 밖의 낯선 말은 본문 안에서 풀어 읽히게 했습니다. 멜빌이 일부러 라틴어로 남겨 둔 몇 대목은 한국어로 옮기고 원문을 괄호 안에 두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 여러 가지 말투

이 소설은 화자 이슈메일 한 사람이 모험담, 해부학 논문, 설교, 법률 해설, 셰익스피어풍 희곡, 뱃노래를 번갈아 입는 책입니다.

이슈메일의 서술은 해라체로 옮겼습니다. 지난 항해의 일은 과거형으로, 이슈메일이 지금 독자에게 들려주는 생각과 고래에 관한 해설은 현재형으로 적어서, 한 문단 안에서 시제가 바뀌기도 합니다. 학술 한자어와 뱃사람의 거친 입말이 한 문단에 섞이는 것도 원문 그대로입니다.

매플 목사의 설교(제9장)는 회중에게 하는 말이라 합쇼체로 옮겼습니다.

극 형식의 장(제36~40장, 제108장, 제119~122장, 제127장 등)은 원문처럼 희곡으로 짰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문단 첫머리에 적고 따옴표 없이 대사를 이었으며, 무대 지시문은 현재형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에이해브의 말은 장중하되 옛 임금의 말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게는 낱말과 리듬, 명령의 짧음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선장과 항해사, 선원 사이의 높임말은 관계마다 정해 두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퀴퀘그와 플리스의 말

작살잡이 퀴퀘그는 포경선에서 배운 서툰 영어를 씁니다. 원문 독자에게도 서툰 말로 들리지만 뜻은 늘 분명하고, 사람은 위엄 있습니다. 이 책은 퀴퀘그의 말을 **몇 가지 정해 둔 규칙으로만** 옮겼습니다. 반말 기본형으로 끝맺고, 조사를 자주 빼고, 부정은 「안」 만 씁니다. 소리 나는 대로 틀리게 적거나 외국인 흉내를 내는 말투는 쓰지 않았고, 맞춤법은 바르게 두었습니다.

늙은 요리사 플리스가 상어에게 설교하는 제64장의 말은, 원문이 당시 흔하던 흑인 말 흉내에 기대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책은 그것을 **한국의 어느 지방 방언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소」「-구려」「-구먼」 같은 몇 가지 말끝과 「죄다」「암」 같은 낱말만 정해 두고, 쉽게 읽히는 노인의 말로 옮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음거리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으로 읽히기를 바랐습니다.

원문 시대의 인종 표현은 화자의 시대 말로 옮기되 덧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물이 남을 모욕하려고 쓴 말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 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포경 용어와 장 제목

포경 용어는 책 전체에서 **한 낱말에 한 글자**로 고정했습니다. 고래를 찌르는 harpoon은 「작살」, 숨통을 끊는 lance는 「창」, 작살에 매인 line은 「작살줄」, 그것을 던지는 사람은 「작살잡이」 입니다. spermaceti는 「경랍」, blubber는 「지방층」, try-works는 「기름 솥」입니다. 원문이 스스로 풀이하는 뱃말(갬, 브릿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었습니다.

고래 이름은 멜빌이 부른 이름을 옮겼습니다. 오늘날의 분류와 맞지 않는 이름(참고래, 그린란드고래 등)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흰 고래의 이름은 「모비 딕」으로 띄어 적었습니다.

장 제목은 원문의 제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목이 말장난이거나 배 이름이면 본문과 같은 글자로 맞추었습니다.

그 밖의 것

연도와 거리·무게·돈은 「1851년」「60피트」「1,000배럴」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나이와 햇수, 시각, 사람 수는 「스무 살」「석 달」「아홉 시」처럼 한글로 적었습니다. 원문이 말로 쓴 큰 수는 「만」「천」 처럼 한글로 두었습니다.

성경의 인명과 지명은 개역 성경의 표기를 따랐지만, 인용문은 새로 옮겼습니다.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로 이었으며, 말이 끊긴 자리만 말줄임표로 옮겼습니다. 원문의 기울임 강조는 대부분 강조 표시로 살렸습니다.

원문이 가린 욕은 가리지 않고 옮겼습니다.

등장인물

항해가 시작될 무렵의 모습만 적었습니다.

화자와 벗

이슈메일 ·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 학교 교사와 상선 선원을 지낸 젊은이로, 포경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퀴퀘그 · 남태평양 코코보코 섬 왕의 아들. 온몸에 문신을 새긴 작살잡이로, 작은 우상 「요조」를 모신다. 뉴베드퍼드의 여인숙에서 이슈메일과 한 침대를 쓰게 된다.

피쿼드호

에이해브 · 낸터킷 포경선 피쿼드호의 선장. 한쪽 다리가 고래뼈 의족이다.

스타벅 · 일등 항해사. 낸터킷 퀘이커 출신의 진중한 사내.

스터브 · 이등 항해사. 케이프코드 출신, 파이프를 문 태평한 사내.

플래스크 · 삼등 항해사. 마서스비니어드 섬 출신의 땅딸막하고 성미 급한 사내. 별명은 「킹포스트」.

태시테고 · 게이헤드 출신 원주민 작살잡이. 스터브의 보트를 탄다.

다구 · 아프리카 출신의 거구 작살잡이. 플래스크의 보트를 탄다.

페달라 · 에이해브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파시교도.

핍 · 앨라배마 출신 흑인 소년. 탬버린을 친다.

플리스 · 늙은 흑인 요리사.

도우보이 · 선장실 급사. 이름은 「반죽 소년」이라는 뜻이다.

목수, 대장장이 퍼스, 맨섬 노인 · 그 밖의 선원들.

뭍의 사람들

피터 코핀 · 뉴베드퍼드 「물 뿜는 고래 여인숙」의 주인.

매플 목사 · 뉴베드퍼드 포경선원 예배당의 목사. 젊어서 작살잡이였다.

허시 부인 · 낸터킷 트라이팟 여관의 안주인.

펠레그, 빌대드 · 은퇴한 선장이자 피쿼드호의 선주. 둘 다 퀘이커 교도다.

채리티 아주머니 · 빌대드의 누이.

엘리야 · 낸터킷 부두를 떠도는 누더기 차림의 사내.

흰 고래

모비 딕 · 머리와 혹이 하얀 거대한 향유고래. 포경선원들 사이에 이름이 알려져 있다.

차례

어원 16

발췌 18

제1장 어렴풋한 것들 31

제2장 융단 가방 38

제3장 물 뿜는 고래 여인숙 43

제4장 조각 이불 61

제5장 아침 식사 66

제6장 거리 69

제7장 예배당 72

제8장 설교단 76

제9장 설교 80

제10장 마음의 벗 93

제11장 잠옷 99

제12장 내력 102

제13장 외바퀴 손수레 106

제14장 낸터킷 112

제15장 차우더 115
제16장 배 120
제17장 라마단 139
제18장 그의 표시 147
제19장 예언자 152
제20장 분주한 채비 157
제21장 승선 160
제22장 즐거운 성탄 165
제23장 바람받이 해안 171
제24장 변호 173
제25장 덧붙임 179
제26장 기사와 종자 181
제27장 기사와 종자 186
제28장 에이해브 192
제29장 에이해브 등장, 이어 스터브 197
제30장 파이프 201
제31장 매브 여왕 203
제32장 고래학 206
제33장 스펙스나이더 223
제34장 선장실 식탁 227
제35장 돛대 꼭대기 235

제36장 뒷갑판 244
제37장 해 질 녘 255
제38장 땅거미 258
제39장 첫 야간 당직 260
제40장 한밤의 앞갑판 262
제41장 모비 딕 269
제42장 고래의 흰빛 282
제43장 쉿! 294
제44장 해도 296
제45장 진술서 303
제46장 짐작 314
제47장 거적 짜는 사람 318
제48장 첫 보트 내리기 322
제49장 하이에나 336
제50장 에이해브의 보트와 선원들, 페달라 339
제51장 유령 물줄기 343
제52장 앨버트로스호 349
제53장 갬 352
제54장 타운호호 이야기 358
제55장 괴물 같은 고래 그림에 대하여 384
제56장 덜 틀린 고래 그림과 참된 포경 장면 그림에 대하여 390

제57장 그림 속 고래, 이빨과 나무와 철판과 돌 속 고래, 산과 별 속 고래에 대하여 395
제58장 브릿 399
제59장 대왕오징어 403
제60장 작살줄 407
제61장 스터브, 고래를 잡다 412
제62장 작살 던지기 419
제63장 작살 받침 421
제64장 스터브의 저녁 423
제65장 고래 요리 433
제66장 상어 학살 437
제67장 해체 작업 439
제68장 담요 442
제69장 장례 446
제70장 스핑크스 448
제71장 여로보암호 이야기 452
제72장 원숭이 밧줄 460
제73장 스터브와 플래스크가 참고래를 잡고 그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466
제74장 향유고래의 머리: 대조 473
제75장 참고래의 머리: 대조 478

제76장 공성 망치 482
제77장 하이델베르크의 큰 술통 485
제78장 저수조와 두레박 488
제79장 대초원 494
제80장 머릿골 498
제81장 피쿼드호, 처녀호를 만나다 501
제82장 포경의 명예와 영광 515
제83장 역사로 본 요나 519
제84장 창 날리기 522
제85장 분수 525
제86장 꼬리 532
제87장 대함대 538
제88장 무리와 무리의 선생 553
제89장 매인 고래와 풀린 고래 557
제90장 머리냐 꼬리냐 562
제91장 피쿼드호, 장미꽃봉오리호를 만나다 566
제92장 용연향 575
제93장 표류자 579
제94장 손을 쥐다 585
제95장 사제복 590
제96장 기름 솥 592

제97장 등잔 598
제98장 기름 싣기와 뒷정리 600
제99장 금화 604
제100장 다리와 팔 612
제101장 술병 622
제102장 아르사키데스 제도의 정자 628
제103장 고래 뼈대 재기 634
제104장 화석 고래 637
제105장 고래는 작아지는가? 사라질 것인가? 642
제106장 에이해브의 다리 647
제107장 목수 651
제108장 에이해브와 목수 655
제109장 선장실의 에이해브와 스타벅 661
제110장 관 속의 퀴퀘그 665
제111장 태평양 673
제112장 대장장이 675
제113장 대장간 679
제114장 도금장이 684
제115장 피쿼드호, 총각호를 만나다 687
제116장 죽어 가는 고래 691
제117장 고래 곁 불침번 694

제118장 사분의 697
제119장 촛불 701
제120장 첫 야간 당직이 끝나 갈 무렵의 갑판 710
제121장 한밤, 앞갑판 뱃전 711
제122장 한밤, 돛대 위, 천둥과 번개 714
제123장 머스킷총 715
제124장 나침반 바늘 720
제125장 측정판과 측정줄 725
제126장 구명부표 730
제127장 갑판 735
제128장 피쿼드호, 라헬호를 만나다 738
제129장 선장실 743
제130장 모자 746
제131장 피쿼드호, 기쁨호를 만나다 752
제132장 교향곡 754
제133장 추격, 첫째 날 760
제134장 추격, 둘째 날 773
제135장 추격, 셋째 날 785
에필로그 801

어원

(어느 문법 학교의 폐병 걸린 고(故) 보조 교사 제공)

그 창백한 보조 교사는 웃옷도 마음도 몸도 머리도 다 해어져 실밥이 드러난 사람이었다. 지금도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는 늘 낡은 사전과 문법책의 먼지를 털었는데, 그때 쓰는 손수건이 묘하게도 세상에 알려진 모든 나라의 화려한 국기로 놀리듯 꾸며져 있었다. 그는 낡은 문법책의 먼지 털기를 좋아했다. 왠지 그 일을 하면 자기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 부드럽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남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 고래라는 물고기를 우리말로 무어라 부르는지 일러 줄 때, 무지한 탓에 그 낱말의 뜻을 거의 혼자서 떠맡고 있는 H 자를 빼먹는다면, 그대는 참되지 않은 것을 전하는 셈이다." (해클루트)

"고래(WHALE). …… 스웨덴어와 덴마크어로 *hval*. 이 짐승의 이름은 둥근 모양 또는 뒹구는 모양에서 왔다. 덴마크어 *hvalt*는 '활처럼 휜', '둥근 천장 같은'을 뜻하기 때문이다." (「웹스터 사전」)

"고래(WHALE). …… 더 직접적으로는 네덜란드어와 독일어 *Wallen,* 앵글로색슨어 *Walw-ian,* 곧 구르다, 뒹굴다에서 왔다." (「리처드슨 사전」)

ιη, 히브리어.

κητος, 그리스어.

CETUS, 라틴어.

WHŒL, 앵글로색슨어.

HVALT, 덴마크어.

WAL, 네덜란드어.

HWAL, 스웨덴어.

WHALE, 아이슬란드어.

WHALE, 영어.

BALLENA, 에스파냐어.

PEKEE-NUEE-NUEE, 피지어.

PEHEE-NUEE-NUEE, 에로망고어.

발췌

보면 알겠지만, 이 보조의 보조라는 가련한 친구는 그저 부지런히 땅을 파고 다니는 굼벵이 같은 사람이라, 세상의 기다란 바티칸 서고들과 길거리 헌책 좌판을 샅샅이 뒤지며 성서든 속된 책이든 가리지 않고 어떤 책에서든 찾아낼 수 있는 고래 이야기라면 닥치는 대로 주워 모은 모양이다. 그러니 이 발췌에 실린 뒤죽박죽 고래 이야기를, 아무리 근거가 확실하다 해도, 적어도 모든 경우에 그대로 고래학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림없는 일이다. 옛 저자들 대개와 여기 등장하는 시인들에 관해 말하자면, 이 발췌가 값지거나 재미있는 까닭은 오로지 우리 시대를 포함한 수많은 민족과 세대가 리워야단에 대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노래한 것을 높은 데서 내려다보듯 한눈에 훑어보게 해 준다는 데 있다.

그러니 잘 가게, 가련한 보조의 보조여. 나는 그대의 주석자다. 그대는 이 세상 어떤 포도주로도 끝내 데워지지 않을 가망 없고 누렇게 뜬 족속에 속한다. 그대들에게는 연한 셰리주조차 너무 붉고 독할 것이다. 그래도 사람은 이따금 그런 이들과 마주 앉아 함께 가련한 기분에 젖어 보고, 눈물을 안주 삼아 흥겨워지고, 눈에는 눈물이 그득하고 잔은 텅 빈 채, 아주 불쾌하지만은 않은 슬픔 속에서 그들에게 대놓고 말해 주기를 좋아한다. 그만두게, 보조의 보조들이여! 그대들이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만큼 더 영영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살테니! 그대들을 위해 햄프턴 궁전과 튈르리 궁전을 비워 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눈물을 꿀꺽 삼키고 마음을 추슬러 맨 꼭대기 돛대로 올라가게. 그대들보다 먼저 간 벗들이 그대들이 올 날에 대비해 일곱 겹 하늘을 비우고, 오래도록 호강하던 가브리엘과 미카엘과 라파엘을 피난민으로 내몰고 있으니. 여기서 그대들은 산산이 금 간 마음끼리 부딪칠 뿐이지만, 거기서는 결코 깨지지 않는 잔을 부딪치게 되리라!

발췌.

"하나님이 큰 고래들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리워야단이 지나가면 뒤에 빛나는 길이 남으니, 사람들은 깊은 바다가 백발이 되었다고 여기리라." (「욥기」)

"주께서 큰 물고기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서」)

"거기 배들이 오가고,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닌다." (「시편」)

"그날에 주께서 날카롭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사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서」)

"그 밖에 무엇이든 이 괴물의 아가리 속 혼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짐승이든 배든 돌이든 그 더럽고 커다란 목구멍으로 사정없이 넘어가 배 속의 바닥 모를 구렁에서 없어지고 만다." (「홀랜드 역 플루타르코스 모랄리아」)

"인도양에는 세상에서 가장 많고 가장 큰 물고기들이 산다. 그 가운데 발라이나라 불리는 고래와 소용돌이고래는 길이가 땅 4에이커, 곧 4아르팡에 이른다." (「홀랜드 역 플리니우스」)

"바다로 나선 지 이틀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해 뜰 즈음에 수많은 고래와 그 밖의 바다 괴물이 나타났다. 고래 가운데 한 마리는 크기가 참으로 엄청났다. …… 놈은 아가리를 벌린 채 우리 쪽으로 다가오며

사방으로 물결을 일으키고 앞의 바다를 두들겨 거품으로 만들었다." (「투크 역 루키아노스」, 「진실한 이야기」)

"그는 또한 바다말고래를 잡으려고 이 나라를 찾아갔다. 그 고래의 이빨은 뼈가 몹시 값진 것이어서 그는 그 가운데 몇 개를 왕에게 가져왔다. …… 가장 좋은 고래는 그의 고향에서 잡혔는데, 어떤 것은 길이가 48야드, 어떤 것은 50야드나 되었다. 그는 자기가 이틀 동안 예순 마리를 잡은 여섯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다." (「오테르, 또는 오테르가 입으로 들려준 이야기를 서기 890년 앨프레드 왕이 받아 적은 것」)

"짐승이든 배든 이 괴물(고래)의 무시무시한 아가리 속 구렁으로 들어가는 다른 모든 것은 곧바로 길을 잃고 삼켜지지만, 바다모샘치만은 아주 태평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 잠을 잔다." (몽테뉴, 「레몽 스봉을 위한 변호」)

"달아나자, 달아나자! 저게 고귀한 예언자 모세가 참을성 많은 욥의 생애를 이야기하며 묘사한 리워야단이 아니라면 마귀가 나를 잡아가도 좋다." (「라블레」)

"이 고래의 간은 수레로 두 대분이었다." (「스토 연대기」)

"끓는 솥처럼 바다를 들끓게 하는 거대한 리워야단." (「베이컨 경의 시편 번역」)

"고래, 곧 오크라는 그 괴물 같은 덩치에 관해서는 확실히 전해 들은 것이 하나도 없다. 놈들은 엄청나게 살이 찌므로 고래 한 마리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기름을 짜낸다." (같은 책, 「삶과 죽음의 역사」)

"속으로 멍든 데에는 이 세상에서 경랍만 한 명약이 없지." (「헨리 왕」)

"고래와 아주 닮았군요." (「햄릿」)

"그 상처를 고치는 데에는 어떤 의사의 의술도 소용이 없으니, 다시 그 상처를 낸 자에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자가 낮게 던진 화살이 그의 가슴을 패어 쉼 없는 고통을 낳았으니, 마치 상처 입은 고래가 큰 바다를 건너 뭍으로 달아나듯." (「선녀 여왕」)

"고래처럼 거대한 것들, 그 커다란 몸이 움직이면 고요한 바다조차 휘저어 끓어오르게 할 수 있다." (「윌리엄 대버넌트 경, 『곤디버트』 서문」)

"경랍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 학식 높은 호스마누스조차 서른 해를 들인 저작에서 '그게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Nescio quid sit*)'고 솔직히 말했으니." (「토머스 브라운 경, 『경랍과 경랍고래에 대하여』. 그의 『널리 퍼진 오류』를 보라」)

"스펜서의 탈루스가 요즘 쓰는 도리깨를 들고 그러듯, 놈은 그 육중한 꼬리로 파멸을 위협한다. …… 놈은 사람들이 던져 박은 투창을 옆구리에 꽂은 채 다니고, 등에는 창 자루가 숲처럼 솟아 있다." (「윌러, 『서머 제도의 싸움』」)

"기술로써 저 거대한 리워야단이 창조되니, 그것을 국가 또는 나라(라틴어로 키비타스)라 부른다. 그것은 다만 사람이 만든 인간일 뿐이다." (「홉스 『리바이어던』의 첫 문장」)

"어리석은 맨소울은 그것을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다. 고래 입 속에 들어간 청어 새끼라도 되는 듯이." (「천로역정」)

"저 바다 짐승 리워야단,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대양의 물줄기를 헤엄치는 가장 거대한 것." (「실낙원」)

"거기 리워야단, 살아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거대한 것이 깊은 바다에서 곶처럼 몸을 뻗고 잠들거나 헤엄치니, 움직이는 땅처럼 보인다. 아가미로는 바다를 들이켜고 숨결로는 바다를 뿜어낸다." (같은 책)

"물의 바다를 헤엄치며, 제 몸속에는 기름의 바다를 헤엄치게 하는 거대한 고래들." (「풀러, 『속된 나라와 거룩한 나라』」)

"이처럼 어느 곶 뒤에 바싹 붙어, 거대한 리워야단이 먹이를 기다리며 누워 있다. 놈은 기회를 주지 않고 새끼 물고기들을 삼켜 버리니, 새끼들은 쩍 벌린 턱을 길로 잘못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 (「드라이든, 『경이의 해』」)

"고래가 배 고물에 떠 있는 동안 사람들은 그 머리를 잘라 보트로 끌고 될 수 있는 대로 물가 가까이 간다. 그러나 머리는 물 깊이 12피트나 13피트 되는 데서 바닥에 걸리고 만다." (「퍼처스 총서에 실린 토머스 에지의 『스피츠베르겐 열 차례 항해기』」)

"가는 길에 그들은 많은 고래가 바다에서 노니는 것을 보았다. 고래들은 자연이 어깨에 달아 준 관과 구멍으로 장난삼아 물을 푸푸 뿜어 올렸다." (「해리스 총서에 실린 토머스 허버트 경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항해기』」)

"여기서 그들은 어찌나 엄청난 고래 떼를 보았던지, 배를 고래 위로 몰아 부딪칠까 겁이 나서 몹시 조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스하우턴의 여섯 번째 세계 일주」)

"우리는 바람이 북동풍일 때 '고래 배 속의 요나호'라는 배를 타고 엘베강을 떠났다. …… 고래가 입을 벌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꾸며 낸 이야기다. …… 그들은 고래가 보이는지 살피려고 자주 돛대에 올라간다. 고래를 처음 찾아낸 사람이 그 수고의 대가로 두카트 금화 한 닢을 받기 때문이다. …… 셰틀랜드 가까이에서 잡힌 고래 배 속에 청어가 한 배럴 넘게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우리 작살잡이 하나는 스피츠베르겐에서 온몸이 하얀 고래를 한 마리 잡은 적이 있다고 내게 말했다." (「그린란드 항해기, 서기 1671년. 해리스 총서」)

"1652년에 이 해안(파이프)으로 고래 여러 마리가 밀려 들어왔다. 그 가운데 길이가 80피트나 되는 수염고래 종류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내가 듣기로는) 엄청난 양의 기름 말고도 고래수염이 500웨이트나 나왔다. 그 턱뼈는 지금 피트페런의 정원에 대문으로 서 있다." (「시볼드, 『파이프와 킨로스』」)

"나는 이 경랍고래를 내 힘으로 다루어 죽일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종류의 고래를 사람이 죽였다는 이야기를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놈은 그만큼 사납고 날래다." (「 리처드 스트래퍼드의 버뮤다 편지. 『철학 회보』, 서기 1668년」)

"바다의 고래들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른다." (「 뉴잉글랜드 초급 독본」)

"우리는 큰 고래도 무척 많이 보았다. 말하자면 그 남쪽 바다에는 우리 북쪽보다 고래가 백 배는 많았다." (「카울리 선장의 세계 일주 항해기, 서기 1729년」)

"…… 그리고 고래의 숨에서는 흔히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서 머리가 이상해지기까지 한다." (「우요아, 『남아메리카』」)

"특히 이름난 공기 요정 쉰을 골라 우리는 그 중요한 임무, 페티코트를 맡긴다. 그 일곱 겹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다. 비록 둥근 테로 부풀리고 고래 갈빗대로 무장했어도." (「 머리카락을 훔친 자물쇠」)

"크기를 놓고 뭍의 짐승들을 깊은 바다에 사는 것들과 견주어 보면, 뭍의 짐승들은 그 앞에서 하찮아 보일 것이다. 고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창조된 것 가운데 가장 큰 동물이다." (「골드스미스, 『자연사』」)

"선생이 작은 물고기들을 위한 우화를 쓴다면, 물고기들이 큰 고래처럼 말하게 만들 겁니다." (「골드스미스가 존슨에게」)

"오후에 우리는 바위로 여겨지는 것을 보았는데 알고 보니 죽은 고래였다. 아시아 사람 몇이 그 고래를 잡아 뭍으로 끌고 가던 참이었다. 그들은 우리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고래 뒤에 숨으려 애쓰는 것 같았다." (「쿡의 항해기」)

"그들은 큰 고래에게는 좀처럼 덤비지 않는다. 몇몇 고래를 어찌나 무서워하는지 바다에 나가면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를 꺼리며, 고래가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겁주어 쫓으려고 보트에 똥, 석회석, 노간주나무 같은 것들을 싣고 다닌다." (「우노 폰 트로일, 『1772년 뱅크스와 솔랜더의 아이슬란드 항해에 관한 편지』」)

"낸터킷 사람들이 찾아낸 경랍고래는 날쌔고 사나운 동물이라 고래잡이에게 엄청난 솜씨와 담력을 요구한다." (「토머스 제퍼슨이 1778년 프랑스 장관에게 보낸 포경 진정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그것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에드먼드 버크가 의회에서 낸터킷 포경업을 두고 한 말」)

"에스파냐, 유럽 해안에 좌초한 거대한 고래." (「에드먼드 버크」, 어딘가에서)

"왕의 통상 수입 가운데 열 번째 갈래는 왕이 해적과 도둑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이유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왕의* 물고기, 곧 고래와 철갑상어에 대한 권리다. 이것들은 뭍으로 밀려 올라오든 해안 가까이에서 잡히든 왕의 재산이다." (「블랙스톤」)

"곧 선원들은 죽음의 사냥터로 나선다. 로드먼드는 한 치 어긋남 없이 미늘 달린 쇠를 머리 위로 치켜든 채 고래가 몸을 트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간다." (「팰코너, 『난파선』」)

"지붕들이, 둥근 지붕들이, 뾰족탑들이 환히 빛났고, 저절로 날아오른 폭죽들은 하늘의 둥근 천장 둘레에 찰나의 불꽃을 걸었다.

"그러니 불을 물에 견주자면, 바다도 하늘 높이 한몫을 하니, 고래가 공중으로 뿜어 올린 물줄기가 그 굼뜬 기쁨을 드러낸다." (「쿠퍼, 여왕의 런던 행차에 부쳐」)

"한 번 박동할 때마다 엄청난 속도로 10갤런 내지 15갤런의 피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다." (「존 헌터의 고래 해부 기록」, 작은 놈이었다)

"고래의 대동맥은 구멍이 런던 다리 상수도의 큰 관보다 굵고, 그 관을 지나며 콸콸 울리는 물도 고래의 심장에서 솟구치는 피만큼 세차고 빠르지 못하다." (「페일리의 신학」)

"고래는 뒷발이 없는 젖먹이 동물이다." (「퀴비에 남작」)

"남위 40도에서 우리는 경랍고래를 보았으나 5월 1일이 되어서야 처음 잡았다. 그때는 바다가 고래로 뒤덮여 있었다." (「콜넷, 『경랍고래 어장을 넓히기 위한 항해』」)

"내 발아래 자유로운 물결 속에서 온갖 빛깔과 모양과 종류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허우적대고, 자맥질하며 놀고, 쫓고, 싸웠다. 그것들은 말로는 그려 낼 수 없고 뱃사람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무시무시한 리워야단부터 물결마다 득시글거리는 벌레 같은 수백만 마리까지, 떠다니는 섬처럼 엄청난 떼를 이루어 신비로운 본능에 이끌려 그 길 없는 황량한 바다를 건너가니, 사방에서 탐욕스러운 적들이 덤벼들었다. 고래와 상어와 괴물들, 저마다 이마나 턱에 칼이나 톱이나 나선형 뿔이나 갈고리 송곳니로 무장한 것들이." (「몽고메리, 『홍수 이전의 세계』」)

"이오! 파이안! 이오! 노래하라. 지느러미 족속의 임금님께. 이보다 힘센 고래는 저 너른 대서양에 없고, 이보다 살찐 물고기는 북극 바다를 헤엄치지 않는다네." (「찰스 램, 『고래의 개선』」)

"1690년, 몇 사람이 높은 언덕 위에서 고래들이 물을 뿜으며 서로 노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우리 아이들의 손주들이 빵을 구하러 갈 푸른 목장이 있다고." (「오베드 메이시, 『낸터킷의 역사』」)

"나는 수전과 나를 위해 오두막을 짓고, 고래의 턱뼈를 세워 고딕식 아치 모양으로 대문을 만들었다." (「호손, 『두 번 들려준 이야기』」)

"그 여자는 무려 마흔 해 전에 태평양에서 고래에게 목숨을 잃은 첫사랑을 위해 기념비를 주문하러 왔다." (같은 책)

"아닙니다, 나리, 그건 참고래예요." 톰이 대답했다. "물 뿜는 걸 봤거든요. 기독교인이 보고 싶어 할 만큼 고운 무지개를 한 쌍이나 뿜어 올리더라고요. 저놈은 진짜 기름통이에요!" (「쿠퍼, 『수로 안내인』」)

"신문이 들어왔는데, 「베를린 신문」을 보니 그곳 무대에 고래가 등장했다고 했다." (「에커만, 『괴테와의 대화』」)

"맙소사! 체이스 씨, 무슨 일이오?" 나는 대답했다. "고래에게 배가 박살 났습니다." (「『태평양에서 큰 향유고래의 공격을 받아 끝내 부서진 낸터킷 포경선 에식스호의 난파 이야기』, 그 배의 일등 항해사였던 낸터킷 사람 오언 체이스 지음, 뉴욕, 1821년」)

"어느 밤 뱃사람 하나가 돛대 밧줄에 앉아 있었네. 바람은 거침없이 피리를 불고, 희미한 달빛은 밝았다가 흐려지고, 고래가 바다에서 허우적댈 때 그 지나간 물길에 인광이 번득였네." (「엘리자베스 오크스 스미스」)

"이 고래 한 마리를 잡는 데 매달린 보트들에서 풀려 나간 작살줄은 모두 합쳐 10,440야드, 곧 거의 6영국마일에 이르렀다. ……

"이따금 고래는 그 엄청난 꼬리를 공중에서 휘두르는데, 꼬리가 채찍처럼 찰싹 소리를 내며 3, 4마일 밖까지 울린다." (「스코스비」)

"새로 공격을 받아 몸부림칠 만큼 고통스러워진 향유고래는 미친 듯 성이 나서 몸을 이리저리 뒤집고, 엄청나게 큰 머리를 쳐들며, 턱을 쩍 벌린 채 주위의 모든 것을 물어뜯는다. 놈은 머리로 보트를 들이받고, 보트는 놈의 머리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떠밀리다 때로는 박살이 난다. …… 이토록 흥미롭고 장사의 관점에서도 이토록 중요한 동물(향유고래)의 습성을 살피는 일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무시되었거나, 근래에 놈의 습성을 지켜볼 더없이 넉넉하고 편리한 기회를 누렸을 것이 틀림없는 수많은 관찰자, 그 가운데 상당수는 자격도 충분한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은 몹시 놀라운 일이다." (「토머스 빌, 『향유고래의 역사』, 1839년」)

"카샬롯(향유고래)은 참고래(그린란드고래)보다 무장이 잘되어 있어, 몸의 양쪽 끝에 무시무시한 무기를 하나씩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무기를 공격에 쓰려는 기질을 더 자주 드러낸다. 그 쓰는 솜씨가 교활하고 대담하고 짓궂기까지 해서, 알려진 고래 종족 가운데 덤비기에 가장 위험한 종류로 여겨진다." (「프레더릭 데벨 베넷, 『포경선을 타고 한 세계 일주』, 1840년」)

10월 13일. "저기 물을 뿜는다!" 돛대 꼭대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쪽이냐?" 선장이 다그쳤다. "바람 불어 가는 쪽 뱃머리에서 3포인트 벗어난 곳입니다." "키를 바로잡아라. 그대로!" "그대로 갑니다." "어이, 돛대 꼭대기! 고래가 아직 보이나?" "예, 예! 향유고래 떼입니다! 저기 물을 뿜는다! 저기 솟구친다!" "외쳐라! 뿜을 때마다 외쳐라!" "예, 예! 저기 물을 뿜는다! 저기, 저기, *저어기* 물을 뿜는다, 뿜는다, 뿜는다아!" "얼마나 떨어져 있나?" "2마일 반입니다." "벼락 맞을! 그렇게 가까워! 전원 집합!" (「J. 로스 브라운, 『포경 항해 스케치』, 1846년」)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포경선 글로브호는 낸터킷 섬 소속이었다." (「『글로브호 반란 이야기』, 생존자 레이와 허시 지음, 서기 1828년」)

한번은 자기가 상처를 입힌 고래에게 쫓기게 되었는데, 그는 한동안 창으로 공격을 막아 냈다. 그러나 성난 괴물이 마침내 보트로 달려들었고, 그와 동료들은 들이받히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물로 뛰어든 덕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 (「타이어먼과 베넷의 선교 일지」)

"낸터킷 자체는," 하고 웹스터 씨가 말했다. "나라의 이익에서 매우 두드러지고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곳 바다 한가운데에 팔구천 명이 살면서, 더없이 대담하고 끈질긴 노동으로 해마다 나라의 부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낸터킷 방파제 건설 청원에 관한 대니얼 웹스터의 미국 상원 연설 보고, 1828년」)

"고래가 그의 위로 곧장 덮쳤으니 아마 그는 순식간에 죽었을 것이다." (「『고래와 그 사냥꾼들, 또는 포경선원의 모험과 고래의 일대기, 코모도어 프레블호의 귀항길에 모으다』, 헨리 T. 치버 목사 지음」)

"요만큼이라도 빌어먹을 소리를 냈다간," 새뮤얼이 대답했다. "지옥으로 보내 줄 테다." (「『새뮤얼 콤스톡(반란자)의 생애』, 그의 동생 윌리엄 콤스톡 지음. 포경선 글로브호 이야기의 또 다른 판본」)

"네덜란드와 영국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북쪽 바다를 지나 인도로 가는 뱃길을 찾으려고 그 바다로 항해했다. 그 항해는 주된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고래가 자주 드나드는 곳을 드러내 놓았다." (「매컬럭, 『상업 사전』」)

"이런 일은 서로 주고받는 법이다. 공은 되튀어 오르지만 다시 앞으로 튀어 나가기 위해서일 뿐이다. 이제 고래가 드나드는 곳을 드러내

놓으면서, 포경선원들은 간접으로나마 바로 그 신비로운 북서 항로로 가는 새 실마리를 찾아낸 것 같다." (아직 펴내지 않은 「어떤 글」에서)

"바다에서 포경선을 만나면 그 가까운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돛을 줄여 달고 돛대 꼭대기마다 망꾼을 세워 둘레의 넓은 바다를 뚫어지게 살피는 그 배는, 정규 항해를 하는 배들과는 사뭇 다른 기운을 풍긴다." (「『해류와 포경』, 미국 탐험대」)

"런던 근처나 그 밖의 곳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면, 땅에 똑바로 세워 둔 크게 흰 뼈들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대문 위에 아치를 이루거나 정자의 들머리를 이루는 그 뼈들이 고래의 갈비뼈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북극해 포경 항해자의 이야기」)

"보트들이 이 고래들을 쫓다가 돌아오고 나서야 백인들은 선원으로 들어와 있던 야만인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배를 차지한 것을 보았다." (「포경선 호보맥호의 피탈과 탈환에 관한 신문 기사」)

"포경선(미국 배) 선원 가운데 떠날 때 탔던 배를 타고 돌아오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포경 보트 항해」)

"갑자기 거대한 덩어리가 물 위로 솟아오르더니 공중으로 곧게 치솟았다. 고래였다." (「『미리엄 코핀, 또는 고래잡이』」)

"물론 고래에게 작살을 꽂기는 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길들지 않은 힘센 망아지를 꼬리뿌리에 맨 밧줄 하나만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 (「『갈빗대와 돛대 머리』에 실린 포경에 관한 한 장」)

"한번은 이런 괴물(고래) 두 마리가, 아마 암수였을 텐데, 너도밤나무가 가지를 뻗은 물가에서" (티에라델푸에고)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도 안 되는 곳을 천천히, 하나가 다른 하나를 따라 헤엄치는 것을 보았다." (「다윈, 『박물학자의 항해기』」)

"'모두 뒤로 저어!' 항해사가 외쳤다. 고개를 돌려 보니 커다란 향유고래가 쩍 벌린 턱이 보트 머리 바로 앞에서 당장이라도 보트를

박살 낼 듯 덤벼들고 있었다. '모두 뒤로 저어, 살고 싶으면!'" (「『고래 사냥꾼 와튼』」)

"그러니 기운 내라, 얘들아, 결코 기죽지 마라, 용감한 작살잡이가 고래를 찌르는 동안!" (「낸터킷의 노래」)

"오, 멋진 늙은 고래여, 폭풍과 질풍 속에서도 바다의 집에 머물리라. 힘이 곧 정의인 곳에서 힘센 거인, 끝없는 바다의 임금으로." (「고래의 노래」)

제1장 어렴풋한 것들

이슈메일이라고 불러 다오. 몇 해 전, 정확히 얼마나 되었는지는 묻지 말기를. 지갑에는 돈이 거의 아니 아예 없었고 뭍에는 딱히 마음을 끄는 일도 없어서, 나는 잠시 배를 타고 나가 세상의 물로 된 부분을 둘러보리라 마음먹었다. 그것이 내가 울적한 기분을 쫓아내고 피가 제대로 돌게 하는 방법이다. 입가가 험악하게 굳어 갈 때마다, 내 영혼에 축축하고 진눈깨비 내리는 11월이 찾아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관 파는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마주치는 장례 행렬마다 맨 뒤에 따라붙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울증이 나를 단단히 휘어잡아서 일부러 거리로 걸어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자를 하나하나 쳐서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굳건한 도덕 원칙이 필요할 지경이 될 때마다, 나는 되도록 서둘러 바다로 나갈 때가 왔다고 여긴다. 이것이 내게는 권총과 총알을 대신한다. 카토는 철학자다운 멋을 부리며 제 칼 위로 몸을 던졌지만, 나는 조용히 배에 오른다.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뿐, 거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정도로, 언젠가 한 번쯤은, 바다를 두고 나와 거의 같은 감정을 품는다.

자, 여기 그대들의 섬 도시 맨해토스가 있다. 인도의 섬들이 산호초에 둘러싸이듯 이 도시는 부두에 빙 둘러싸여 있고, 상업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도시를 에워싼다.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거리는 그대를 물가로 데려간다. 도시의 맨 끝 시내에는 배터리 공원이 있는데, 그곳의 웅장한 방파제는 파도에 씻기고, 몇 시간 전만 해도 뭍이 보이지

않는 바다 위를 불던 산들바람에 식는다. 거기 모여 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라.

꿈결 같은 안식일 오후에 이 도시를 한 바퀴 돌아보라. 콜리어스 훅에서 코엔티스 슬립까지 가고, 거기서 화이트홀을 지나 북쪽으로 가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말 없는 보초처럼 도시 둘레 곳곳에 자리 잡고, 바다를 꿈꾸며 넋을 잃은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서 있다. 더러는 말뚝에 기대어 있고, 더러는 부두 끝에 앉아 있고, 더러는 중국에서 온 배의 뱃전 너머를 내다보고, 더러는 바다 쪽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려고 애쓰는 듯 돛대 밧줄 높이 올라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뭍사람이다. 평일에는 왓가지와 회반죽으로 지은 벽 안에 갇혀 계산대에 묶이고, 걸상에 못 박히고, 책상에 꽉 붙들려 지내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푸른 들판이 사라졌단 말인가? 저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또 몰려온다. 곧장 물가로 걸어오는데 아무래도 물에 뛰어들 작정인 것 같다. 이상한 일이다! 저들은 뭍의 맨 끝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한다. 저기 창고 건물들이 드리운 그늘 아래서 어슬렁거리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그렇다. 물에 빠지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물에 바싹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 저들이 서 있다. 몇 마일씩, 몇 리그씩 늘어서서. 모두 내륙 사람들인데, 좁은 길과 골목에서, 거리와 큰길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다. 그런데도 여기서 모두 하나가 된다. 말해 보라, 저 모든 배에 실린 나침반 바늘의 자력이 저들을 그리로 끌어당기는 것인가?

하나 더 보자. 그대가 시골에 있다고 해 보자. 호수가 많은 어느 높은 고장에 있다고 하자. 어느 길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골라 걸어 보라. 십중팔구 그 길은 그대를 골짜기로 이끌어 내려가 개울이 고인 웅덩이 곁에 데려다 놓을 것이다. 거기에는 마법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넋이

빠진 사람을 가장 깊은 몽상에 잠기게 해 두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발을 떼게 해 보라. 그 고장 어딘가에 물이 있기만 하면 그는 틀림없이 그대를 물가로 이끌 것이다. 언젠가 아메리카의 큰 사막에서 목이 마르거든, 그대의 대상(隊商)에 마침 형이상학 교수가 끼어 있다면 이 실험을 해 보라. 그렇다, 누구나 알듯이 명상과 물은 영원히 짝지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 화가가 한 사람 있다. 그는 소코 골짜기를 통틀어 가장 꿈결 같고, 가장 그늘지고, 가장 고요하고, 가장 매혹적인 낭만의 풍경 한 조각을 그대에게 그려 주고 싶어 한다. 그가 쓰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무엇인가? 저기 그의 나무들이 서 있다. 나무마다 줄기가 비어 있어 그 속에 은자와 십자가가 들어 있을 것만 같다. 여기에는 그의 풀밭이 잠들어 있고 저기에는 그의 소들이 잠들어 있으며, 저쪽 오두막에서는 졸음에 겨운 연기가 피어오른다. 구불구불한 길이 먼 숲 깊숙이 감돌아 들어가, 산비탈의 푸른빛에 잠긴 채 겹겹이 포개진 산줄기에 닿는다. 그러나 그림이 이처럼 넋을 잃은 듯 고요하고, 이 소나무가 이 양치기의 머리 위로 한숨을 나뭇잎처럼 흔들어 떨어뜨린다 해도, 양치기의 눈길이 그의 앞을 흐르는 마법의 개울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되리라. 6월에 대초원에 가 보라. 수십 마일, 또 수십 마일을 참나리 사이로 무릎까지 빠지며 헤치고 걷게 될 텐데, 거기에 없는 매력 하나는 무엇인가? 물이다. 거기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나이아가라가 모래 폭포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그것을 보려고 천 마일을 여행하겠는가? 테네시의 가난한 시인은 느닷없이 은화를 두 줌 손에 쥐게 되자, 몹시 아쉽던 외투를 한 벌 살지 아니면 그 돈을 들여 로커웨이 해변까지 걸어서 다녀올지 왜 망설였을까?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며 그 안에 튼튼하고 건강한 영혼을 지닌 소년이라면 거의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바다로 나가고 싶어 안달하는데, 왜 그럴까? 그대도 처음 승객으로 배를

탔을 때 이제 그대와 그대의 배가 뭍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나왔다는 말을 처음 듣고는, 왜 그토록 신비로운 떨림을 느꼈는가? 옛 페르시아 사람들은 왜 바다를 신성하게 여겼는가? 그리스 사람들은 왜 바다에 따로 신을 두고, 그 신을 제우스의 친형제로 삼았는가? 이 모든 것에 틀림없이 뜻이 있다. 나르키소스 이야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 그는 샘물에 비친 애타게 하는 부드러운 모습을 붙잡을 수 없자 그 속으로 뛰어들어 빠져 죽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을 우리도 모든 강과 바다에서 본다. 그것은 붙잡을 수 없는 삶의 환영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다.

그런데 내가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폐가 지나치게 의식되기 시작할 때마다 바다로 나가는 버릇이 있다고 해서, 승객으로 바다에 나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말기를. 승객으로 가려면 지갑이 있어야 하는데, 지갑이란 안에 무언가 들어 있지 않으면 걸레 조각일 뿐이다. 게다가 승객들은 뱃멀미를 하고, 걸핏하면 다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대체로 그다지 즐겁게 지내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승객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 또 내가 바다 물을 꽤 먹어 본 사람이긴 해도 함대 사령관이나 선장이나 요리사로 바다에 나가는 일도 결코 없다. 그런 직책에 따르는 영광과 명예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준다. 나로 말하자면, 명예롭고 남부끄럽지 않은 온갖 수고와 시련과 고난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질색이다. 배며 바크선이며 브리그선이며 스쿠너선이며 그 밖의 무엇이든 돌보지 않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다. 요리사로 가는 일로 말하자면, 요리사는 배에서 일종의 간부이니 거기에 상당한 영광이 따른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어쩐지 나는 닭을 굽는 일이 내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구워서 버터를 알맞게 바르고 소금과 후추를 신중하게 뿌린 구운 닭이라면, 그 닭을 나보다 더 정중하게, 아니 경건하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옛

이집트 사람들이 구운 따오기와 구운 하마를 우상처럼 떠받들었기에, 오늘날 그 거대한 빵 굽는 집인 피라미드 속에서 그 짐승들의 미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바다로 나갈 때면 평범한 선원으로 간다. 돛대 바로 앞, 앞갑판 선원실 바닥까지 곧장 내려갔다가 맨 꼭대기 돛대 끝까지 올라가는 선원으로. 물론 사람들은 나를 이리저리 부려 먹고, 5월 풀밭의 메뚜기처럼 이 활대에서 저 활대로 뛰어다니게 만든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꽤나 불쾌하다. 명예심이 상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 땅에 오래 뿌리내린 가문, 이를테면 밴렌슬리어 가나 랜돌프 가나 하디카누트 가 출신이라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타르 통에 손을 넣기 바로 전까지 시골 학교 교사로 거드름을 피우며 키 큰 사내아이들까지 쩔쩔매게 만들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장담하건대 학교 교사에서 선원으로 넘어가는 일은 몹시 쓰라리며, 그것을 웃으며 견디려면 세네카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진하게 달인 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어떤 고약한 늙은 선장이 나더러 빗자루를 들고 갑판을 쓸라고 한들 그게 어떻단 말인가? 그런 모욕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울에 달아 본다면, 얼마나 되겠는가? 그 경우에 내가 그 고약한 늙은이의 말을 즉시 공손하게 따른다고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를 조금이라도 덜 대단하게 여길 것 같은가? 노예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말해 보라. 그렇다면 늙은 선장들이 나를 아무리 부려 먹든, 나를 아무리 치고 쥐어박든, 나는 그것이 다 괜찮다는 것을 알기에 흡족하다. 다른 사람도 모두 이렇게든 저렇게든 거의 같은 대접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육체의 관점에서든 형이상학의 관점에서든. 그렇게 보편의 주먹질은 돌고 돌며, 모든 사람은 서로의 어깨뼈를 문질러 주고 만족해야 한다.

또 나는 늘 선원으로 바다에 나간다. 선원에게는 수고한 대가를 꼬박꼬박 치러 주지만, 승객에게는 내가 듣기로 한 푼도 치러 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승객은 스스로 돈을 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내는 것과 돈을 받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 돈을 내는 일은 아마 과수원의 두 도둑이 우리에게 물려준 고통 가운데 가장 불편한 것일 터이다. 그러나 *돈을 받는 일*, 그것에 무엇을 견주겠는가? 우리가 돈을 이 세상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토록 진지하게 믿고, 돈 많은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돈을 받을 때 보이는 그 공손하고 날렵한 몸놀림은 참으로 놀랍다. 아!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스스로를 지옥에 넘기는가!

끝으로, 나는 늘 선원으로 바다에 나간다. 앞갑판에서 몸에 좋은 운동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뒤에서 부는 바람보다 맞바람이 훨씬 잦으니(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격언을 결코 어기지 않는다면), 뒷갑판의 함대 사령관은 대개 앞갑판의 선원들을 한 번 거친 공기를 마시게 된다. 사령관은 자기가 그 공기를 맨 먼저 들이마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와 거의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일에서도 평민이 지도자를 이끄는데, 지도자는 그런 줄을 꿈에도 모른다. 그런데 상선 선원으로 여러 차례 바다 냄새를 맡아 본 내가 왜 이번에는 포경 항해를 떠날 마음을 먹었는지, 그 물음에는 운명의 여신들이 보낸 보이지 않는 경관이 누구보다 잘 대답할 수 있다. 그는 늘 나를 감시하며 몰래 뒤를 밟고, 영문 모를 힘으로 나를 움직인다. 그리고 내가 이번 포경 항해를 떠난 것은 틀림없이 오래전에 짜 둔 섭리의 거대한 공연 계획표의 한 대목이었다. 그것은 더 큰 공연들 사이에 끼워 넣은 짤막한 막간극이자 독주쯤이었다. 그 공연 안내문의 이 부분은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미합중국 대통령 선거, 대접전.*" "이슈메일이라는 자의 포경 항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

다른 사람들은 고상한 비극의 장엄한 역이나 점잖은 희극의 짧고 쉬운 역이나 소극(笑劇)의 유쾌한 역을 맡았는데, 왜 하필 무대 감독인 운명의 여신들이 나에게는 포경 항해라는 이 초라한 역을 맡겼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때의 사정을 모두 떠올려 보면, 갖가지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나타나 내가 맡은 역을 하도록 이끈 원동력과 동기를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그것들은 그 선택이 편견 없는 내 자유 의지와 분별 있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착각까지 내게 슬그머니 심어 주었다.

그 동기 가운데 으뜸은 거대한 고래 그 자체라는 압도적인 생각이었다. 그토록 불길하고 신비로운 괴물이 내 호기심을 송두리째 일깨웠다. 다음으로는 그 고래가 섬 같은 덩치를 뒤척이는 거칠고 머나먼 바다, 고래가 불러오는 피할 수 없고 이름 없는 위험, 이런 것들이 파타고니아의 수많은 경이로운 광경과 소리와 어우러져 내 소망 쪽으로 나를 기울게 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것들에 끌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먼 것을 향한 끝없는 근질거림에 늘 시달린다. 나는 금지된 바다를 항해하고 야만의 해안에 내리기를 좋아한다. 좋은 것을 모른 체하지는 않지만 끔찍한 것을 재빨리 알아보고, 그래도 그것과 사귈 수 있다. 저쪽에서 허락만 한다면. 묵고 있는 곳의 식구들과 모두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 좋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런 까닭으로 포경 항해는 반가웠다. 경이로운 세계의 거대한 수문이 활짝 열렸고, 나를 그 목적으로 기울게 한 거친 공상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고래의 행렬이 둘씩 둘씩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떠 들어왔다. 그리고 그 모든 행렬 한가운데에, 하늘에 걸린 눈덮인 언덕 같은, 두건을 쓴 거대한 환영 하나가 있었다.

제2장 융단 가방

나는 낡은 융단 가방에 셔츠 한두 벌을 쑤셔 넣어 옆구리에 끼고 혼곶과 태평양을 향해 길을 나섰다. 정든 옛 도시 맨해토스를 떠나 예정대로 뉴베드퍼드에 닿았다. 12월의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낸터킷으로 가는 작은 정기선이 벌써 떠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곳에 갈 길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나는 몹시 실망했다.

포경이라는 고생과 형벌을 지원하는 젊은이들은 대개 바로 이 뉴베드퍼드에 들렀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므로, 적어도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밝혀 두는 편이 좋겠다. 나는 낸터킷 배가 아니면 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그 유명한 옛 섬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에나 근사하고 떠들썩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어서 그것이 놀랄 만큼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 들어 뉴베드퍼드가 차츰 포경업을 독차지하고, 이 일에서는 가엾은 옛 낸터킷이 이제 한참 뒤처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낸터킷은 뉴베드퍼드의 위대한 원조였다. 말하자면 이 카르타고의 티레였고, 죽은 아메리카 고래가 처음으로 떠밀려 올라온 곳이었다. 그 토박이 포경선원들, 곧 홍인종이 리워야단을 쫓으러 처음 카누를 타고 나선 곳이 낸터킷 말고 어디였던가? 그리고 이야기에 따르면, 고래가 뱃머리 기움 돛대에서 작살을 던져 볼 만큼 가까이 왔는지 알아보려고 고래에게 던질 자갈을 다른 데서 들여와 반쯤 싣고 처음으로 모험에 나선 작은 슬루프선도 낸터킷 말고 어디서 떠났던가?

그런데 정해 둔 항구로 가는 배에 오르기까지 뉴베드퍼드에서 하룻밤과 하루 낮과 또 하룻밤을 보내야 했으니, 그동안 어디서 먹고 잘지가 걱정거리가 되었다. 몹시 수상쩍어 보이는, 아니 몹시 어둡고 음산한 밤이었고, 살을 에듯 춥고 쓸쓸했다. 나는 그곳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근심스러운 갈고리 닻으로 주머니 속을 더듬어 보았지만 건져 올린 것은 은화 몇 닢뿐이었다. 그래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쓸쓸한 거리 한복판에 서서 북쪽의 음울함과 남쪽의 어둠을 견주어 보며 나는 혼잣말을 했다. 어디로 가든, 이슈메일, 네 지혜로 오늘 밤 어디에 묵기로 하든, 친애하는 이슈메일, 꼭 값을 물어보고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라.

나는 머뭇거리는 걸음으로 거리를 걷다가 '엇갈린 작살'이라는 간판을 지나쳤다. 그러나 거기는 너무 비싸고 너무 흥겨워 보였다. 더 가니 '황새치 여관'의 새빨간 창에서 어찌나 뜨거운 빛살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 빛이 집 앞에 다져진 눈과 얼음을 녹여 버린 것 같았으니, 다른 곳에는 어디나 얼어붙은 서리가 10인치 두께로 깔려 단단한 아스팔트 포장길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장화 밑창은 모질고 무자비하게 혹사당한 탓에 아주 비참한 꼴이었으므로, 부싯돌처럼 단단하게 솟은 데에 발을 부딪칠 때면 나는 꽤나 지쳤다. 이번에도 너무 비싸고 너무 흥겹다고 생각하며, 나는 잠시 멈춰 서서 거리를 환히 비추는 불빛을 바라보고 안에서 짤랑거리는 술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혼잣말을 했다. 그만 가자, 이슈메일. 안 들리느냐? 문 앞에서 비켜라. 기운 장화가 길을 막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계속 걸었다. 이제 나는 본능대로 물가로 이어지는 거리를 따라갔다. 가장 즐거운 여관은 아니라도 가장 싼 여관이 틀림없이 거기 있을 터였다.

얼마나 쓸쓸한 거리였던가! 양쪽에 늘어선 것은 집이 아니라 시커먼 덩어리였고, 여기저기 촛불이 하나씩 있었는데 무덤 속을 돌아다니는

촛불 같았다. 한 주의 마지막 날 밤 이 시각, 시내의 그 구역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곧 나지막하고 넓은 건물에서 연기 낀 불빛이 새어 나오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어서 들어오라는 듯 열려 있었다. 아무렇게나 둔 듯한 모양새가 누구나 쓰라고 만든 곳 같았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은 현관에 놓인 재 상자에 걸려 비틀거린 것이었다. 하! 하고 나는 생각했다. 흩날리는 재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게 멸망한 도시 고모라의 재란 말인가? 그런데 '엇갈린 작살'에 '황새치'라니, 그렇다면 여기는 '덫'이라는 간판을 단 집이겠군. 아무튼 나는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안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오기에 계속 밀고 들어가 안쪽의 두 번째 문을 열었다.

도벳에서 열린 거대한 흑인 의회 같았다. 줄지어 앉은 백 명의 검은 얼굴이 뒤를 돌아보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고, 그 너머 설교단에서는 검은 멸망의 천사가 책을 탕탕 두드리고 있었다. 흑인 교회였다. 설교자가 고른 성경 구절은 캄캄한 어둠과 그곳에서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가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 하, 이슈메일, 하고 나는 뒷걸음질 쳐 나오며 중얼거렸다. '덫' 간판 집의 대접 한번 형편없구나!

계속 걸어가다가 마침내 부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 비슷한 것을 만났고, 허공에서 쓸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올려다보니 문 위에 간판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간판에는 흰 물감으로 물안개 같은 물줄기가 높이 곧게 치솟는 모습이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다. "물 뿜는 고래 여인숙. 피터 코핀."

코핀(관)이라고? 물 뿜는 고래라고? 둘을 나란히 놓으니 어쩐지 불길하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도 낸터킷에서는 흔한 이름이라고들 하니, 여기 이 피터라는 사람도 그곳에서 옮겨 온 사람이겠지. 불빛이 그렇게 희미하고, 그곳이 당장은 꽤 조용해 보이고, 다 쓰러져 가는 그

작은 목조 집이 어느 불탄 동네의 폐허에서 수레에 실어 여기로 옮겨 온 것처럼 보이고, 흔들리는 간판이 가난에 찌든 소리로 삐걱거렸으므로, 나는 여기야말로 싼 숙소와 가장 맛좋은 완두콩 커피가 있을 바로 그 자리라고 생각했다.

묘한 곳이었다. 박공지붕을 얹은 낡은 집이었는데, 한쪽이 마비라도 된 듯 처량하게 기울어 있었다. 집은 바람이 살을 에는 모퉁이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는 사나운 바람 유라굴로가, 가엾은 바울이 탄 배가 이리저리 휩쓸릴 때보다도 더 고약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그러나 집 안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벽난로 선반에 발을 올려놓고 조용히 발을 녹이는 사람에게는 유라굴로도 더없이 상냥한 산들바람이다. "유라굴로라 불리는 저 사나운 바람을 판단할 때," 어떤 옛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그의 저작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내 책 한 권뿐이다). "서리가 모두 바깥에만 낀 유리창을 통해 내다보느냐, 아니면 창틀도 없는 창, 서리가 안팎으로 끼고 오직 죽음이라는 자만이 유리를 끼워 넣는 그 창을 통해 바라보느냐에 따라 놀라운 차이가 생기는 법이다." 정말 그렇다, 이 구절이 떠오르자 나는 생각했다. 고딕 활자로 찍힌 옛 책이여, 그대 말이 옳다. 그렇다, 이 눈이 창이고 내 몸이 집이다. 그렇다면 틈과 구멍을 막고 여기저기 보풀 솜이라도 좀 쑤셔 넣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이제 와서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 우주는 다 지어졌다. 갓돌까지 얹었고, 부스러기는 백만 년 전에 수레에 실어 치워 버렸다. 저기 가엾은 나사로는 연석을 베개 삼아 이를 딱딱 부딪치며 덜덜 떨다가 누더기마저 털어 내고 있는데, 그가 두 귀를 넝마로 틀어막고 입에 옥수수 속대를 물린다 해도 저 사나운 유라굴로를 막아 내지는 못하리라. 유라굴로라고! 늙은 부자 디베스는 붉은 비단 실내복을 걸치고 말한다(나중에 그는 그보다 더 붉은 옷을 걸치게 되었다). 흥, 흥! 서리 내린 멋진 밤이로구나. 오리온자리가 저리도

반짝이다니, 저 북극광 좀 보아라! 영원한 온실 같은 동방의 여름 날씨 이야기는 남들이나 하라지. 나에게는 내 석탄으로 나만의 여름을 만드는 특권이나 다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생각할까? 퍼렇게 언 두 손을 장엄한 북극광 쪽으로 쳐든다고 그 손이 데워질까? 나사로는 여기보다 수마트라에 있고 싶지 않을까? 이 서리를 막을 수만 있다면 적도를 따라 길게 드러눕고 싶지 않을까? 아니, 신들이여! 불타는 구덩이 속으로라도 내려가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나사로가 저렇게 디베스의 집 문 앞 연석 위에 좌초해 누워 있다니, 이것은 빙산이 몰루카 제도의 어느 섬에 닻을 내리고 매여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디베스 자신도 얼어붙은 한숨으로 지은 얼음 궁전에서 차르처럼 살고, 금주회 회장이기에 고아들의 미지근한 눈물만 마신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질질 짜는 소리(blubbering)는 그만두자. 우리는 고래를 잡으러 가는 길이니, 질질 짤 일도 지방층(blubber)도 앞으로 넘치도록 남아 있다. 서리 앉은 발에서 얼음을 긁어내고, 이 '물 뿜는 고래'가 어떤 곳인지 들어가 보자.

제3장 물 뿜는 고래 여인숙

박공지붕을 얹은 물 뿜는 고래 여인숙에 들어서면, 넓고 낮고 어수선하게 뻗은 현관이 나온다. 구식 징두리 벽판을 댄 현관은 폐선 처분을 받은 어느 낡은 배의 뱃전을 떠올리게 했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그을음이 속속들이 배고 어디 할 것 없이 망가져 있어서, 엇갈려 비치는 고르지 않은 빛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여러 차례 체계적으로 찾아가 보고 이웃들에게 꼼꼼히 물어보고 나서야 겨우 그 그림이 무엇을 그리려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어찌나 영문 모를 그늘과 그림자 덩어리였는지, 처음에는 뉴잉글랜드에 마녀들이 날뛰던 시절에 어느 야심만만한 젊은 화가가 마법에 걸린 혼돈을 그려 보려 애쓴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오래도록 진지하게 바라보고 몇 번이고 거듭 곰곰이 생각한 끝에, 특히 현관 뒤쪽의 작은 창을 활짝 열어젖힌 끝에, 그런 생각이 아무리 엉뚱해도 아주 근거 없지는 않으리라는 결론에 마침내 이르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을 어리둥절하고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것은, 그림 한가운데 이름 모를 거품 속에 떠 있는 희미한 푸른 세로줄 세 개 위로 길고 낭창낭창하고 불길한 검은 덩어리 같은 것이 떠 있는 모습이었다. 참으로 질척하고 축축하고 철벅거리는 그림이라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미쳐 버릴 만했다. 그런데도 그 그림에는 어딘지 모호하고, 반쯤 이루어지다 만, 상상할 수 없는 숭고함 같은 것이

있어서, 보는 사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고, 마침내 그 놀라운 그림이 무슨 뜻인지 기어코 알아내겠다고 저도 모르게 스스로 맹세하게 만들었다. 이따금 밝지만, 아아, 그릇된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꿰뚫고 지나갔다. 한밤의 폭풍 속 흑해다. 네 가지 원소가 벌이는 괴이한 싸움이다. 벼락 맞은 황야다. 북극 너머 땅의 겨울 풍경이다. 얼어붙은 시간의 강물이 갈라져 깨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공상은 그림 한가운데의 그 불길한 무언가 앞에 물러났다. *그것*만 알아내면 나머지는 다 분명해졌다. 그런데 잠깐, 그것이 어렴풋이 거대한 물고기를 닮지 않았는가? 바로 그 거대한 리워야단을?

사실 화가의 의도는 이랬던 것 같다. 이것은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눈 여러 노인의 의견을 모은 데에 얼마쯤 근거를 둔 나 나름의 최종 이론이다. 그림은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린 혼곶 항로의 배를 그린 것이다. 반쯤 가라앉은 배가 거기서 뒹굴고 있고, 돛을 다 잃은 돛대 세 개만 보인다. 그리고 성난 고래 한 마리가 배를 훌쩍 뛰어넘으려다가 그 세 돛대 꼭대기에 제 몸을 꿰려는 엄청난 순간이다.

현관 맞은편 벽에는 괴물 같은 곤봉과 창이 이교도답게 빽빽이 걸려 있었다. 어떤 것에는 상아 톱처럼 생긴 반짝이는 이빨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어떤 것에는 사람 머리카락 뭉치가 술처럼 달려 있었다. 하나는 낫 모양이었는데, 엄청나게 큰 자루가 휘어 돌아간 모양이 팔이 긴 풀베는 사람이 갓 벤 풀밭에 낸 반달 모양 자국 같았다.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몸서리쳤고, 대체 어떤 괴물 같은 식인종과 야만인이 이렇게 마구 찍어 대는 끔찍한 연장을 들고 죽음을 거두러 나갔을까 궁금해했다. 그것들 사이에는 녹슨 낡은 포경용 창과 작살이 섞여 있었는데, 모두 부러지고 일그러져 있었다. 어떤 것은 내력이 있는 무기였다. 한때 길었으나 지금은 마구 휘어 버린 이 창으로, 쉰 해 전 네이선 스웨인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고래 열다섯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지금은 꼭 코르크 마개뽑이처럼 생긴 저 작살은 자바 바다에서 던져졌는데, 고래가 그것을 꽂은 채 달아났다가 몇 해 뒤 블랑코곶 앞바다에서 죽임을 당했다. 처음 꽂힌 쇠는 꼬리 가까이로 들어갔다가, 사람 몸속을 떠도는 바늘처럼 꼬박 40피트를 여행하여 마침내 혹 속에 박힌 채 발견되었다.

이 어둑한 현관을 지나, 옛날에 사방에 벽난로가 딸린 커다란 중앙 굴뚝이었을 것이 틀림없는 곳을 뚫어 만든 저 낮은 아치 통로를 지나면 공용 휴게실로 들어선다. 여기는 한층 더 어둑하다. 머리 위에는 낮고 육중한 들보가 있고 발밑에는 쭈글쭈글한 낡은 널빤지가 깔려 있어서, 특히 모퉁이에 닻을 내린 이 낡은 방주가 몹시 흔들리는 이런 울부짖는 밤이면, 어느 낡은 배의 선실 바닥을 밟고 있는 것만 같다. 한쪽에는 길고 낮은 선반 같은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 금 간 유리 상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넓은 세상의 가장 외진 구석구석에서 모아 온 먼지 쌓인 진기한 물건이 가득 들어 있었다. 방의 저쪽 구석에서 시커먼 굴 같은 것이 툭 튀어나와 있으니, 그게 술집 계산대다. 참고래 머리를 엉성하게 흉내 내 보려 한 것이다. 어쨌든 거기에는 고래 턱의 거대한 아치형 뼈가 서 있는데, 어찌나 넓은지 마차 한 대가 그 밑을 지나갈 수 있을 만하다. 그 안에는 허름한 선반들이 있고 그 둘레에 낡은 술병과 병과 휴대용 술병이 늘어서 있다. 그리고 순식간에 파멸로 삼키는 그 턱 안에서, 또 하나의 저주받은 요나처럼(실제로 사람들은 그를 그 이름으로 불렀다) 쪼그라든 작은 노인 하나가 바삐 움직이며 선원들에게 돈을 받고 섬망과 죽음을 비싸게 판다.

그가 독을 따라 주는 술잔은 고약하기 짝이 없다. 겉으로는 반듯한 원통형이지만, 안쪽은 그 악랄한 초록빛 퉁방울 유리가 밑으로 갈수록 교묘하게 좁아져 바닥이 사람을 속인다. 노상강도 같은 이 잔에는 경선처럼 나란한 줄이 유리에 투박하게 쪼아 새겨져 빙 둘러 있다. *이*

금까지 채우면 1페니, *이* 금까지는 1페니 더, 그렇게 가득 찬 잔까지 이어진다. 가득 찬 잔은 혼곳 한 잔이라고 하는데, 1실링이면 단숨에 들이켤 수 있다.

안으로 들어서니 젊은 선원 여럿이 탁자에 둘러앉아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고래뼈 공예품, 곧 *스크림샌더* 견본 여러 점을 살펴보고 있었다. 나는 주인을 찾아가 방 하나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주인은 집이 꽉 차서 빈 침대가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잠깐," 주인이 이마를 톡톡 두드리며 덧붙였다. "작살잡이와 담요를 나눠 쓰는 건 싫지 않겠지? 고래잡이 떠나는 길인 것 같은데, 그런 일엔 미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요."

나는 한 침대에서 둘이 자는 것은 딱 질색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 그 작살잡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고, 그(주인)에게 정말 나를 들일 다른 자리가 없고 그 작살잡이가 아주 못 봐줄 사람만 아니라면, 이렇게 매서운 밤에 낯선 도시를 더 헤매느니 점잖은 사람의 담요 반쪽이라도 참고 쓰겠다고 했다.

"그럴 줄 알았지. 좋소, 앉으시오. 저녁? 저녁 드실 거요? 저녁은 곧 차려지오."

나는 낡은 나무 긴 의자에 앉았다. 배터리 공원의 벤치처럼 온통 칼자국 조각이 새겨진 의자였다. 한쪽 끝에서는 생각에 잠긴 뱃사람 하나가 주머니칼로 그 의자를 더 꾸미고 있었다. 그는 몸을 숙인 채 다리 사이의 자리를 부지런히 파고 있었다. 돛을 활짝 편 배를 새겨 보려는 중이었지만, 내가 보기에 그리 진척이 없었다.

마침내 우리 네댓 명이 옆방으로 불려 가 식사를 했다. 아이슬란드처럼 추웠다. 불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주인 말이 불을 땔 형편이 못 된다고 했다. 음울한 수지 양초 두 자루가 전부였는데, 양초마다 촛농이 흘러내려 수의를 두르고 있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짧은 선원 외투의 단추를 채우고, 반쯤 언 손가락으로 펄펄 끓는 차를 입술에 갖다 댔다. 그러나 음식은 더없이 실했다. 고기와 감자뿐 아니라 경단까지 나왔다. 세상에! 저녁에 경단이라니! 초록색 박스 코트를 입은 젊은이 하나가 이 경단에 아주 무시무시하게 덤벼들었다.

"이봐, 젊은이," 주인이 말했다. "그러다간 틀림없이, 꼭 가위눌릴 거요."

"주인장," 나는 속삭였다. "저 사람이 그 작살잡이는 아니겠지요?"

"아, 아니오." 그가 어딘지 악마처럼 우스운 얼굴로 말했다. "그 작살잡이는 얼굴이 시커먼 친구요. 경단은 절대 안 먹지. 그 친구는 스테이크만 먹는데, 덜 익힌 걸 좋아하오."

"이런 젠장, 그렇단 말이오." 내가 말했다. "그 작살잡이는 어디 있소? 여기 있소?"

"머잖아 올 거요." 그런 대답이 돌아왔다.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이 '얼굴이 시커먼' 작살잡이가 수상쩍어지기 시작했다. 아무튼 정말로 그와 같이 자게 된다면, 그가 나보다 먼저 옷을 벗고 침대에 들어가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술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달리 할 일도 없어서 남은 저녁 시간을 구경꾼으로 보내기로 했다.

곧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났다. 주인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그램퍼스호 선원들이오. 오늘 아침에 앞바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소. 삼 년 항해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지. 만세, 얘들아. 이제 피지 제도의 최신 소식을 듣겠구먼."

현관에서 바다 장화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활짝 열리고 거친 뱃사람 한 패가 우르르 굴러 들어왔다. 덥수룩한 당직 외투를 뒤집어쓰고, 온통 기운 자국투성이에 너덜너덜한 털목도리로 머리를 감싸고, 수염에는 고드름이 뻣뻣하게 달려 있어서, 래브라도에서 곰

떼가 쏟아져 나온 것 같았다. 그들은 방금 보트에서 내렸고, 이 집이 처음 들어온 집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고래의 입, 곧 술집 계산대로 곧장 물길을 내며 나아간 것도, 거기서 일을 보는 쪼그라든 작은 늙은 요나가 금세 모두에게 넘치도록 잔을 채워 준 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하나가 머리가 무겁도록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고 투덜대자, 요나는 진과 당밀을 섞어 송진처럼 끈적한 물약을 만들어 주며, 아무리 오래 앓았든, 래브라도 앞바다에서 걸렸든 빙산의 바람 불어오는 쪽에서 걸렸든, 어떤 감기와 코감기에도 그만한 명약이 없다고 맹세했다.

술은 곧 그들의 머리로 올라갔다. 바다에서 막 뭍에 오른 사람이라면 아무리 지독한 술꾼이라도 대개 그러기 마련이다. 그들은 몹시 시끄럽게 껑충거리며 날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자기의 굳은 얼굴로 동료들의 흥을 깨고 싶지는 않은 듯했지만, 대체로 다른 사람들처럼 떠들지는 않았다. 이 사람이 곧바로 내 관심을 끌었다. 바다의 신들은 그가 곧 나의 동료 선원이 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이 이야기에 관한 한, 함께 자기만 한 동무에 지나지 않지만), 여기서 그를 조금 묘사해 보겠다. 그는 키가 꼬박 6피트였고, 어깨가 훌륭했으며, 가슴은 물막이 둑처럼 넓었다. 그렇게 근육이 우람한 사람은 좀처럼 본 적이 없었다. 얼굴은 짙은 갈색으로 깊이 그을려 있어서 흰 이가 대조로 눈부셨다. 그의 눈 깊은 그늘 속에는 그에게 그다지 기쁨을 주지 않는 듯한 기억들이 떠 있었다. 목소리를 듣자 곧 남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훤칠한 키로 보아 버지니아의 앨러게니산맥에서 온 키 큰 산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았다. 동료들의 흥청거림이 절정에 이르자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갔고, 나는 그가 바다에서 나의 동료가 될 때까지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러나 몇 분도 안 되어 동료들이 그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다. 무슨 까닭인지 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모양으로, 그들은 "벌킹턴! 벌킹턴! 벌킹턴 어디 갔어?" 하고 외치며 그를 찾아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제 아홉 시쯤이었고, 그 난장판이 지나간 뒤라 방이 거의 초자연스러울 만큼 조용해 보였으므로, 나는 선원들이 들어오기 바로 전에 떠오른 작은 계획 하나를 두고 스스로를 축하하기 시작했다.

한 침대에서 둘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친형제와도 같이 자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잠잘 때는 혼자 있고 싶어 한다. 게다가 낯선 도시의 낯선 여관에서 모르는 낯선 사람과, 그것도 그 낯선 사람이 작살잡이인데 함께 자야 한다면, 싫은 이유는 한없이 불어난다. 또 내가 선원이라고 해서 다른 누구보다 남과 한 침대에서 자야 할 까닭도 세상에 없었다. 선원들이 바다에서 한 침대에 둘씩 자지 않는 것은 총각 임금들이 뭍에서 그러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물론 선원들은 모두 한방에서 자지만, 저마다 자기 해먹이 있고, 자기 담요를 덮고, 자기 살갗 속에서 잔다.

이 작살잡이를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와 같이 잔다는 생각이 더 끔찍해졌다. 작살잡이이니 그의 아마포 옷이든 털옷이든 그다지 깔끔하지는 않을 것이고 고급일 리는 더더욱 없다고 짐작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나는 온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밤이 깊어 가고 있었으니, 점잖은 작살잡이라면 이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였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내 위로 굴러떨어지듯 들어온다면, 그가 어떤 더러운 구멍에서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주인장! 그 작살잡이 일은 생각이 바뀌었소. 그 사람하고는 안 자겠소. 여기 이 긴 의자에서 자 보겠소."

"좋으실 대로. 매트리스 대신 깔 식탁보 하나 내드릴 형편이 못 돼서 미안하구려. 여긴 지독하게 거친 널빤지인데." 그는 옹이와 칼자국을

더듬어 보며 말했다. "그런데 잠깐만, 스크림샌더 양반. 술집에 목수 대패가 하나 있소. 잠깐 기다려 보시오, 아늑하게 만들어 드리리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대패를 가져오더니, 먼저 낡은 비단 손수건으로 의자의 먼지를 털고는 원숭이처럼 히죽거리며 내 침대를 힘차게 대패질하기 시작했다. 대팻밥이 좌우로 날렸다. 그러다 마침내 대팻날이 도무지 깎이지 않는 옹이에 탁 부딪쳤다. 주인은 손목을 삘 뻔했고, 나는 제발 그만두라고 말했다. 그 정도면 내게는 충분히 부드러운 침대이고, 세상의 대패질을 다 동원한들 소나무 널빤지를 오리털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 번 히죽 웃으며 대팻밥을 그러모아 방 한가운데의 커다란 난로에 던져 넣고 제 볼일을 보러 갔고,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남겨졌다.

이제 의자의 길이를 재 보니 한 자가 모자랐다. 그것은 의자 하나를 덧대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폭도 한 자가 좁았고, 방에 있는 다른 긴 의자는 대패질한 것보다 4인치쯤 높았으므로 둘을 이어 붙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의자를 벽에 붙은 유일한 빈자리에 길게 놓고, 벽과의 사이에 등을 붙이고 누울 만큼 조금 틈을 두었다. 그러나 곧 창문 문턱 밑에서 찬바람이 어찌나 세게 몰려드는지 이 계획은 도무지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덜컹거리는 문에서 들어오는 또 다른 바람이 창에서 들어오는 바람과 만나, 둘이 함께 내가 밤을 보내려던 자리 바로 근처에서 작은 회오리바람을 줄줄이 일으켰다.

악마나 그 작살잡이를 잡아가라,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잠깐, 내가 그 친구보다 한발 앞설 수는 없을까? 안에서 그의 방문에 빗장을 지르고 그의 침대로 뛰어들면, 아무리 사납게 문을 두드려도 깨지 않을 텐데.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았지만 다시 생각해 보고 그만두었다. 이튿날 아침 내가 방에서 튀어나오자마자 그 작살잡이가 나를 때려눕힐 채비를 하고 현관에 서 있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그래도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남의 침대가 아니고서는 견딜 만한 밤을 보낼 길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나는 결국 이 모르는 작살잡이에게 근거 없는 편견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좀 기다려 보자, 하고 생각했다. 머잖아 들어오겠지. 그때 잘 살펴보면 되고, 어쩌면 우리는 결국 아주 사이좋은 잠자리 동무가 될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다른 하숙인들은 하나씩, 둘씩, 셋씩 계속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나의 작살잡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주인장!"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친구요? 늘 이렇게 늦게 다니오?" 이제 거의 열두 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다.

주인은 또다시 메마르게 킬킬거렸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가 몹시 우스운 듯했다. "아니오." 그가 대답했다. "보통은 일찍 일어나는 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그렇소, 벌레를 잡는 바로 그 새요. 그런데 오늘 밤엔 보다시피 행상을 나갔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구려. 혹시 머리를 못 팔고 있는 거라면 몰라도."

"머리를 못 팔다니? 지금 무슨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요?" 나는 불같이 화를 냈다. "주인장, 그러니까 그 작살잡이가 이 축복받은 토요일 밤에, 아니 일요일 새벽에, 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제 머리를 팔고 있다는 말이오?"

"바로 그렇소." 주인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선 못 판다고 했지. 시장에 물건이 넘쳐 난다고."

"무슨 물건이?" 나는 소리쳤다.

"그야 머리지. 세상에 머리가 너무 많지 않소?"

"이것 보시오, 주인장." 나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나한테 그런 허풍은 그만 늘어놓는 게 좋을 거요. 나는 풋내기가 아니오."

"아닐지도 모르지." 그는 나무 막대를 꺼내 이쑤시개를 깎으며 말했다. "그래도 그 작살잡이가 댁이 제 머리를 헐뜯는 소리를 들었다간, 댁은 아마 노릇노릇 *구워질* 거요."

"그놈 머리를 내가 박살 내 주겠소." 나는 주인의 이 영문 모를 횡설수설에 다시 울화가 치밀어 말했다.

"벌써 박살 났소." 그가 말했다.

"박살 났다고?" 내가 말했다. "*빈털터리*가 됐다는 말이오?"

"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지, 아마."

"주인장." 나는 눈보라 속의 헤클라 산처럼 차분하게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주인장, 칼질 좀 그만하시오. 당신과 나는 서로 똑똑히 알아들어야겠소. 그것도 지금 당장. 나는 당신 집에 와서 침대를 달라고 하오. 당신은 침대 반쪽밖에 줄 수 없고, 나머지 반쪽은 어느 작살잡이 것이라고 하오. 그리고 내가 아직 보지도 못한 그 작살잡이에 관해, 당신은 내 잠자리 동무로 정해 둔 그 사람에게 내가 불편한 마음을 품게 만들 만한, 더없이 알쏭달쏭하고 약 오르는 이야기만 줄곧 늘어놓고 있소. 주인장, 잠자리 동무란 더없이 친밀하고 은밀한 사이요. 이제 분명히 말해 주기를 요구하오. 이 작살잡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와 밤을 보내도 모든 면에서 안전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머리를 판다는 그 이야기를 거둬 주시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작살잡이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나는 미친 사람과 잘 생각이 조금도 없소. 그리고 선생, *당신*, 그러니까 주인장, *당신* 말이오, 선생은 그걸 알면서도 나를 그렇게 하도록 꾀니, 그로써 형사 소추를 당할 수도 있소."

"거참," 주인이 길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따금 조금씩 성질을 부리는 친구치고는 꽤 긴 설교로구먼. 그래도 진정하시오, 진정해. 내가 말한 이 작살잡이는 남양에서 막 돌아왔는데, 거기서 방부 처리한

뉴질랜드 사람 머리를 잔뜩 사 왔소(대단한 골동품이지, 알다시피). 그걸 하나만 빼고 다 팔았는데, 그 하나를 오늘 밤에 팔려는 거요. 내일이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날 거리에서 사람 머리를 팔고 다니면 곤란하니까. 지난 일요일에도 그러려고 했는데, 머리 네 개를 끈에 꿰어 들고 문을 나서는 걸 내가 막았소. 영락없이 양파 꿰미 같더구먼."

이 설명으로 하마터면 영문 모를 수수께끼로 남을 뻔한 일이 풀렸고, 결국 주인에게 나를 놀릴 생각이 없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그러나 동시에, 토요일 밤에 나가 거룩한 안식일 깊숙이까지 들어오지 않고 죽은 우상숭배자들의 머리를 파는 식인종 같은 장사를 하는 작살잡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한단 말인가?

"틀림없소, 주인장. 그 작살잡이는 위험한 사람이오."

"돈은 꼬박꼬박 내지." 그런 대꾸가 돌아왔다. "그건 그렇고, 지독하게 늦었으니 이제 꼬리지느러미를 뒤집고 잠수할 때요. 좋은 침대요. 우리 샐하고 내가 혼례 올린 날 밤에 그 침대에서 잤지. 그 침대라면 둘이 발길질을 해 대도 자리가 넉넉하오. 어마어마하게 큰 침대거든. 아, 우리가 그 침대를 내놓기 전에는 샐이 우리 샘하고 꼬마 조니를 발치에 재우곤 했소. 그런데 어느 날 밤 내가 꿈을 꾸면서 팔다리를 쩍 벌리는 바람에 샘이 어쩌다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져 팔이 부러질 뻔했지. 그 뒤로 샐이 그러면 안 되겠다고 하더구먼. 이리 오시오, 금방 불을 밝혀 드리리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초에 불을 붙여 내게 내밀고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결정을 못 하고 서 있자, 그는 구석의 시계를 보더니 외쳤다. "맹세코, 일요일이 됐구먼. 오늘 밤엔 그 작살잡이를 못 볼 거요. 어디선가 닻을 내렸겠지. 자, 그러니 갑시다. *어서* 오시오. 안 *오실* 거요?"

나는 잠깐 생각해 보았고, 이윽고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조개처럼 차가운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과연 엄청나게 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정말이지 작살잡이 넷이 나란히 누워 자도 될 만한 크기였다.

"자," 주인이 세면대 겸 탁자로 쓰는 다 망가져 가는 낡은 선원용 궤짝 위에 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 이제 편히 쉬시오. 잘 자구려." 침대를 살펴보다가 돌아서니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조각 이불을 젖히고 침대 위로 몸을 숙였다. 아주 근사하지는 않았지만 꼼꼼히 살펴보아도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다음 방 안을 둘러보았다. 침대 틀과 탁자 말고 이 방에 딸린 가구라고는 엉성한 선반 하나, 네 벽, 그리고 고래를 찌르는 사람을 그린 종이를 바른 벽난로 가리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방에 원래 딸리지 않은 물건으로는 한쪽 구석 바닥에 둘둘 말아 묶어 던져 둔 해먹이 있었고, 커다란 선원용 자루도 하나 있었는데, 틀림없이 작살잡이가 뭍사람의 여행 가방 대신 옷가지를 넣어 두는 자루였다. 그리고 벽난로 위 선반에는 이상한 뼈로 만든 낚싯바늘 한 묶음이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키 큰 작살 하나가 서 있었다.

그런데 궤짝 위에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집어 들고 불빛 가까이 대 보고, 만져 보고, 냄새를 맡아 보며 그것에 관해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으려고 온갖 수를 다 써 보았다. 커다란 현관 깔개 말고는 견줄 것이 없었다. 가장자리에는 짤랑거리는 작은 장식 술이 달려 있었는데, 인디언의 모카신 둘레에 단 물들인 고슴도치 가시 같은 것이었다. 깔개 한가운데에는 남아메리카 판초에서 보듯 구멍인지 틈인지가 하나 나 있었다. 그러나 정신이 멀쩡한 작살잡이가 현관 깔개를 뒤집어쓰고 기독교 도시의 거리를 그런 차림으로 활보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시험 삼아 걸쳐 보았더니, 유난히 털이 덥수룩하고 두꺼워서 커다란

바구니처럼 나를 짓눌렀고, 이 수수께끼 같은 작살잡이가 비 오는 날 입고 다녔던 것처럼 조금 축축한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입은 채 벽에 붙은 거울 조각 앞으로 다가갔는데, 평생 그런 꼴은 처음 보았다. 어찌나 허겁지겁 그것을 벗어 던졌던지 목을 삐끗하고 말았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파는 이 작살잡이와 그의 현관 깔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침대 가에서 한참 생각한 뒤, 일어나서 짧은 선원 외투를 벗고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생각했다. 그다음에는 웃옷을 벗고 셔츠 바람으로 조금 더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반쯤 옷을 벗고 있자니 이제 몹시 추워지기 시작했고, 밤이 이렇게 깊었으니 작살잡이가 오늘 밤에는 아예 안 들어올 거라던 주인의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더 꾸물대지 않고 바지와 장화를 훌훌 벗어 던진 다음, 불을 끄고 침대로 굴러 들어가 하늘의 보살핌에 몸을 맡겼다.

그 매트리스에 옥수수 속대를 채웠는지 깨진 그릇을 채웠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한참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얕은 졸음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꿈나라를 향해 거의 먼바다까지 나가 있었을 때,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고 문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방 안에 비쳐 드는 것이 보였다.

주여, 살려 주소서,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 작살잡이, 그 지옥 같은 머리 장수가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꼼짝 않고 누워서 그가 말을 걸기 전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낯선 사람은 한 손에 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바로 그 뉴질랜드 머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침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게서 한참 떨어진 구석 바닥에 초를 내려놓더니, 앞서 말한 방 안의 커다란 자루의 매듭진 끈을 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안달했지만, 그는 자루 아가리를 푸는 동안 한참이나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치자 그가 돌아섰는데, 세상에! 그런 광경이라니! 그런 얼굴이라니! 검붉은

보랏빛이 도는 누런 얼굴에 여기저기 거무스름한 커다란 네모가 붙어 있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았다. 끔찍한 잠자리 동무다. 싸움을 하다가 지독하게 베여서 지금 막 의사한테서 오는 길이다. 그런데 그때 그가 마침 얼굴을 불빛 쪽으로 돌렸고, 나는 그의 뺨에 있는 그 검은 네모들이 반창고일 리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무언지 모를 얼룩이었다.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곧 진실의 실마리가 떠올랐다. 식인종들 사이에 떨어져 그들에게 문신을 당한 백인, 그것도 포경선원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나는 이 작살잡이도 먼 항해를 하다가 비슷한 일을 겪은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게 결국 뭐 어떻단 말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건 겉모습일 뿐이다. 사람은 어떤 살갗을 하고 있든 정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피부색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문신 네모들 둘레에 있고, 네모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 말이다. 물론 열대의 햇볕에 잘 그을린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뜨거운 햇볕이 백인을 보랏빛 도는 누런 사람으로 그을렸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남양에 가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곳 햇볕은 살갗에 이런 놀라운 조화를 부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이 번개처럼 나를 스쳐 가는 동안, 이 작살잡이는 나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애를 써서 자루를 연 다음 그 속을 더듬기 시작하더니, 곧 손도끼 같은 것 하나와 털이 붙은 바다표범 가죽 지갑 하나를 꺼냈다. 그것들을 방 한가운데의 낡은 궤짝 위에 올려놓고, 이번에는 그 뉴질랜드 머리를 집어 들더니 (정말 섬뜩한 물건이었다) 자루 속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모자를 벗었는데, 새 비버 모자였다. 그때 나는 또 한 번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었다. 적어도 머리카락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고, 이마 위에 작은 상투 매듭 하나가 꼬여 있을 뿐이었다. 보랏빛 도는 그의 대머리는 이제 영락없이 곰팡이 핀 해골

같았다. 그 낯선 사람이 나와 문 사이에 서 있지 않았다면, 나는 저녁밥을 먹어 치울 때보다 더 빨리 문밖으로 뛰쳐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막혀 있었는데도 나는 창으로 빠져나갈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지만, 그 방은 이 층 뒤쪽이었다.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그러나 머리를 파는 이 보랏빛 악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도무지 내 이해를 넘어섰다. 무지는 두려움의 어버이다. 나는 이 낯선 사람 앞에서 완전히 갈피를 잃고 어리둥절해 있었으니, 고백하건대 이제 그가 한밤중에 내 방에 쳐들어온 악마 그 자체라도 되는 것처럼 두려웠다. 사실 어찌나 무서웠던지, 그때는 그에게 말을 걸어 그에게서 영문 모를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요구할 배짱이 없었다.

그동안 그는 옷 벗는 일을 계속하더니 마침내 가슴과 팔을 드러냈다. 맹세코, 그의 몸에서 가려져 있던 이 부분도 얼굴과 똑같은 네모로 바둑판처럼 덮여 있었다. 등도 온통 똑같은 검은 네모투성이였다. 삼십 년 전쟁에 나갔다가 반창고 셔츠를 입은 채 막 빠져나온 사람 같았다. 그뿐 아니라 다리에까지 무늬가 있었는데, 짙은 초록색 개구리 떼가 어린 야자나무 줄기를 타고 기어오르는 것 같았다. 이제 그가 남양에서 포경선에 올라 이렇게 기독교 나라에 내린 지독한 야만인임이 아주 분명해졌다. 그 생각을 하니 몸이 떨렸다. 게다가 머리 장수였다. 어쩌면 제 형제들의 머리를 팔았는지도 모른다. 내 머리에 마음이 동할지도 모를 일이다. 세상에! 저 손도끼를 보라!

그러나 몸서리칠 틈도 없었다. 이제 그 야만인이 내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을 보고 나는 그가 정말 이교도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앞서 의자에 걸어 둔 두꺼운 선원 외투, 혹은 덧옷, 혹은 비바람막이 외투로 가서 주머니를 뒤지더니, 마침내 등에 혹이 달린 기묘하고 작은 일그러진 형상 하나를 꺼냈다. 색깔은 태어난 지 사흘 된 콩고 아기와 꼭 같았다. 방부 처리한 머리가

떠올라, 처음에는 이 검은 꼬마 인형이 그렇게 보존한 진짜 아기인가 생각할 뻔했다. 그러나 전혀 낭창거리지 않고 윤을 낸 흑단처럼 번들거리는 것을 보고 나무로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으리라고 결론 내렸는데, 실제로 그랬다. 이제 그 야만인은 빈 벽난로로 다가가 종이를 바른 벽난로 가리개를 치우더니, 이 작은 꼽추 형상을 볼링 핀처럼 쇠 받침 사이에 세운다. 벽난로 양옆 기둥과 안쪽 벽돌이 모두 그을음투성이였으므로, 나는 이 벽난로가 그의 콩고 우상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작은 사당이나 예배당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내심 몹시 불안한 채로, 반쯤 가려진 형상 쪽으로 눈을 바짝 찡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았다. 먼저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대팻밥을 두 줌쯤 꺼내 우상 앞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그다음 그 위에 선원용 비스킷 한 조각을 올려놓고 등잔불을 갖다 대어 대팻밥에 제물을 태우는 불길을 지폈다. 곧 그는 불 속으로 몇 번이고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가 더 다급하게 손가락을 빼내더니(손가락을 지독하게 데는 것 같았다), 마침내 비스킷을 꺼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고는 열기와 재를 조금 불어 내고 그것을 작은 흑인 인형에게 공손하게 바쳤다. 그러나 그 작은 악마는 그런 메마른 음식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입술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기묘한 짓에는 신자가 내는 더 기묘한 목구멍 소리가 따랐는데, 그는 노래하듯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교의 찬송가를 부르는 것 같았고, 그동안 그의 얼굴은 더없이 부자연스럽게 씰룩거렸다. 마침내 그는 불을 끄더니 아무렇게나 우상을 집어 들고, 사냥꾼이 죽은 멧도요를 자루에 넣듯 무심하게 다시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이 모든 괴상한 절차에 나는 더 불편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볼일을 마치고 내 침대로 뛰어들 기색을 강하게 보이자, 불이 꺼지기 전에,

지금이 아니면 영영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토록 오래 나를 얽어매고 있던 주문을 깨뜨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지 궁리하며 보낸 그 짧은 틈이 치명적이었다. 그는 탁자에서 손도끼를 집어 들고 잠깐 그 머리를 살펴보더니, 그것을 불빛에 대고 자루 끝을 입에 문 채 담배 연기를 뭉게뭉게 뿜어냈다. 다음 순간 불이 꺼지고, 이 거친 식인종이 손도끼를 이에 문 채 내 침대로 뛰어들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놀라서 갑자기 끙 소리를 내더니 나를 더듬기 시작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를 소리를 더듬더듬 내뱉으며 그에게서 벽 쪽으로 굴러 피했고, 그가 누구든 무엇이든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고, 내가 일어나 다시 등잔불을 켤 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의 대답을 듣자, 그가 내 말뜻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너 누구냐, 귀신이냐?"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너 말 안 한다, 젠장, 나 죽인다." 그러면서 불붙은 손도끼를 어둠 속에서 내 둘레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주인장, 제발, 피터 코핀!" 나는 고함을 질렀다. "주인장! 순찰대! 코핀! 천사들이여! 살려 주시오!"

"말한다! 너 누군지 나한테 말한다, 아니면 젠장, 나 죽인다!" 식인종은 다시 으르렁거렸고, 그가 손도끼를 끔찍하게 휘두르는 바람에 뜨거운 담뱃재가 내 둘레에 흩뿌려져 셔츠에 불이 붙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때 주인이 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고, 나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그에게 달려갔다.

"이제 겁낼 거 없소." 그가 또 히죽 웃으며 말했다. "여기 퀴퀘그는 댁의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요."

"그 히죽거리는 짓 좀 그만두시오!" 나는 소리쳤다. "그 지옥 같은 작살잡이가 식인종이라고 왜 말하지 않았소?"

"아는 줄 알았지. 그 친구가 머리를 팔러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소? 그건 그렇고 다시 꼬리지느러미를 뒤집고 잠이나 주무시오. 퀴퀘그, 이것 봐. 너 나 안다, 나 안다. 너 이 사람 같이 잔다. 알겠지?"

"나 많이 안다." 퀴퀘그가 침대에 일어나 앉아 파이프를 뻐끔뻐끔 빨며 끙 하고 대답했다.

"너 들어온다." 그는 손도끼로 내게 손짓하고 이불을 한쪽으로 젖히며 덧붙였다. 그는 정말로 정중할 뿐 아니라 참으로 친절하고 너그럽게 그렇게 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문신투성이였지만 대체로 깨끗하고 잘생긴 식인종이었다. 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법석을 떨었단 말인가,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 내가 저 사람을 무서워할 까닭이 있는 만큼 저 사람도 나를 무서워할 까닭이 있다. 술 취한 기독교인보다 술 안 취한 식인종과 자는 편이 낫다.

"주인장," 내가 말했다. "저 사람한테 손도끼인지 파이프인지 뭐라고 부르든 그걸 저기 치워 두라고 하시오. 한마디로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하면 같이 자겠소. 하지만 침대에서 나랑 같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싫소. 위험하니까. 게다가 나는 보험도 안 들었소."

이 말을 전해 듣자 퀴퀘그는 곧 그대로 따랐고, 다시 공손하게 내게 침대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며 한쪽으로 몸을 굴렸다. 마치 "나 너 다리 하나 안 건드린다" 하고 말하는 듯이.

"잘 자시오, 주인장." 내가 말했다. "가 봐도 좋소."

나는 잠자리에 들었고, 평생 그렇게 잘 자 본 적이 없었다.

제4장 조각 이불

이튿날 아침 날이 밝을 무렵 잠에서 깨어 보니, 퀴퀘그의 팔이 더없이 다정하고 애틋하게 내 몸 위에 걸쳐져 있었다. 누가 보면 내가 그의 아내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불은 조각보로 지은 것이라 알록달록한 작은 네모와 세모가 기묘하게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이 팔은 끝없는 크레타의 미궁 같은 무늬로 온통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어느 두 군데도 정확히 같은 빛깔이 아니었다. 아마 그가 바다에서 셔츠 소매를 그때그때 아무렇게나 걷어 올린 채 팔을 햇볕과 그늘에 되는대로 내놓고 다닌 탓이리라. 그러니까 그의 이 팔이 영락없이 바로 그 조각 이불의 한 줄처럼 보였다. 실제로 내가 처음 깨어났을 때 팔이 이불 위에 반쯤 걸쳐져 있었는데, 둘의 빛깔이 어찌나 한데 어우러졌는지 팔과 이불을 거의 구별할 수 없었고, 오직 무게와 짓누르는 느낌으로만 퀴퀘그가 나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느낌이 묘했다. 설명해 보겠다. 어렸을 때 이와 얼마쯤 비슷한 일을 겪은 기억이 또렷하다. 그것이 실제였는지 꿈이었는지는 끝내 확실히 가리지 못했다. 그 일은 이랬다. 나는 무슨 장난인가를 치고 있었다. 며칠 전에 꼬마 굴뚝 청소부가 하는 것을 보고 굴뚝을 기어오르려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늘 나를 매질하거나 저녁도 안 먹이고 잠자리로 보내던 계모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다리를 붙잡아 굴뚝에서 끌어내더니 잠자리로 쫓아 보냈다. 그날은 6월 21일, 우리 반구에서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이었고, 시각은 겨우 오후 두 시였다.

나는 끔찍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어서 삼 층의 내 작은 방으로 올라가, 시간을 죽이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옷을 벗고, 쓰라린 한숨을 쉬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기 누워 부활을 바랄 수 있으려면 꼬박 열여섯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침울하게 셈해 보았다. 침대에서 열여섯 시간이라니! 그 생각만 해도 허리가 쑤셨다. 게다가 날은 또 얼마나 밝았던지. 해는 창으로 비쳐 들고, 거리에서는 마차들이 요란하게 덜컹거리고, 온 집 안에서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점점 더 견딜 수 없어졌다. 마침내 일어나 옷을 입고 양말 바람으로 살그머니 내려가서 계모를 찾아내어 느닷없이 그 발치에 몸을 던지고는, 내가 잘못했으니 특별히 슬리퍼로 실컷 때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렇게 견딜 수 없이 오랫동안 누워 있으라는 벌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좋았다. 그러나 계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양심적인 계모였으므로,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몇 시간 동안 나는 말똥말똥 깨어 누워 있었는데, 그 뒤로 아무리 큰 불행을 겪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괴로웠다. 마침내 나는 뒤숭숭한 악몽 같은 선잠에 빠져들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거기서 천천히 깨어나며, 반쯤은 아직 꿈에 젖은 채로 눈을 떴는데, 아까 햇빛이 들던 방이 이제는 바깥의 어둠에 싸여 있었다. 순간 온몸에 충격이 흘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손 하나가 내 손에 얹혀 있는 것 같았다. 내 팔은 이불 위로 늘어져 있었고, 그 손의 주인인 이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말 없는 형체 또는 환영이 내 침대 가에 바싹 붙어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몇 세대에 몇 세대를 쌓은 것처럼 느껴지는 동안, 나는 더없이 끔찍한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감히 손을 빼내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러면서도 손을 단 1인치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 무서운 주문이 깨지리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그 의식이 마침내 어떻게 내게서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아침에 깨어나 몸서리치며 그

일을 모두 떠올렸고, 그 뒤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어 보려고 갈피를 못 잡는 시도에 빠져 있었다.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그 일로 자주 머리를 싸맨다.

자, 그 끔찍한 두려움만 빼면, 초자연적인 손이 내 손에 닿는 것을 느꼈을 때의 그 기분은 그 묘함에서, 잠에서 깨어 퀴퀘그의 이교도 팔이 나를 휘감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겪은 기분과 아주 비슷했다. 그러나 마침내 지난밤의 일들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움직일 수 없는 현실로 되살아났고, 그러자 나는 우스꽝스러운 곤경만을 생생히 느끼며 누워 있었다. 그의 팔을 치워 보려고, 신랑 같은 그의 포옹을 풀어 보려고 애썼지만, 그는 잠든 채로 마치 죽음만이 우리 둘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듯 나를 꽉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를 깨우려고 애썼다. "퀴퀘그!" 그러나 대답이라고는 코 고는 소리뿐이었다. 그래서 몸을 굴렸더니, 목이 말 목사리에 끼인 것 같았고, 갑자기 무언가가 살짝 긁는 느낌이 들었다. 이불을 젖혀 보니, 거기 야만인의 옆구리에 손도끼가 도끼 얼굴을 한 아기처럼 잠들어 있었다. 참 꼴좋게 됐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대낮에 낯선 집 침대에서 식인종하고 손도끼하고 같이 누워 있다니! "퀴퀘그! 제발, 퀴퀘그, 일어나!" 한참을 꿈틀거리며,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부부처럼 끌어안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고 큰 소리로 쉴 새 없이 따진 끝에, 마침내 그에게서 끙 하는 소리를 끌어냈다. 곧 그는 팔을 거두더니, 물에서 막 나온 뉴펀들랜드 개처럼 온몸을 부르르 털고는 창 자루처럼 꼿꼿하게 침대에 일어나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어떻게 거기 있게 되었는지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 듯 눈을 비볐지만, 나에 관해 무언가 아는 것이 있다는 어렴풋한 의식이 그에게 천천히 밝아 오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나는 가만히 누워 그를 지켜보았다. 이제는 그다지 걱정되지 않았고, 이렇게 신기한 존재를 꼼꼼히 관찰해 보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잠자리 동무가 어떤 사람인지

마음을 정한 듯했고, 말하자면 그 사실을 받아들인 듯했다. 그러자 그는 바닥으로 뛰어내리더니 몇 가지 몸짓과 소리로, 괜찮다면 자기가 먼저 옷을 입고 나서 방을 통째로 내게 맡기고 나가 줄 테니 그다음에 옷을 입으라는 뜻을 알려 주었다. 퀴퀘그, 이런 형편에 그건 아주 교양 있는 제안이로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무슨 소리를 하든 이 야만인들에게는 타고난 섬세함이 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예의 바른지 놀랍기 그지없다. 내가 퀴퀘그에게 이렇게 특별히 찬사를 바치는 것은, 내가 몹시 무례하게 구는 동안에도 그가 나를 그토록 정중하고 사려 깊게 대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호기심이 교양을 이겨 침대에서 그를 빤히 쳐다보며 옷 입는 동작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다 해도 퀴퀘그 같은 사람은 날마다 보는 것이 아니니, 그와 그의 몸가짐은 유별나게 눈여겨볼 만했다.

그는 위에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다. 먼저 비버 모자를 썼는데, 말이 났으니 말이지 몹시 높은 모자였다. 그러고는 아직 바지도 입지 않은 채 장화를 찾아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다음에 그는 장화를 손에 들고 모자를 쓴 채 침대 밑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 밑에서 몇 번이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용을 쓰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장화를 신느라 몹시 애쓰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가 들어본 어떤 예법에도 장화를 신을 때 남의 눈을 피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보다시피 퀴퀘그는 과도기의 존재였다. 애벌레도 나비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의 이국적인 면모를 더없이 기묘한 방법으로 뽐낼 만큼만 문명화되어 있었다. 그의 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대학 재학생이었다. 그가 조금이라도 문명화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장화 따위로 성가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직 야만인이 아니었다면 장화를 신으려고 침대 밑에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모자가 잔뜩 찌그러져 눈까지 푹 눌린 채

기어 나왔다. 그러고는 삐걱거리며 절뚝절뚝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장화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데다, 축축하고 쭈글쭈글한 쇠가죽 장화 한 켤레가(아마 맞춤도 아니었을 것이다) 몹시 추운 아침 첫 출발부터 그를 꽉 죄며 괴롭히는 것 같았다.

이제 보니 창에는 커튼이 없고, 길이 몹시 좁아서 맞은편 집에서 방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모자와 장화 말고는 거의 걸친 것 없이 쿵쿵 돌아다니는 퀴퀘그의 꼴이 점점 더 민망해 보이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에게 몸단장을 좀 서두르고 특히 되도록 빨리 바지를 입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 말을 따른 다음 씻기 시작했다. 아침 그 시간이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얼굴을 씻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퀴퀘그는 가슴과 팔과 손만 씻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고는 조끼를 입더니, 세면대 겸 탁자 위에 놓인 딱딱한 비누 조각을 집어 물에 적신 다음 얼굴에 비누 거품을 내기 시작했다. 그가 면도칼을 어디에 두었는지 보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는 침대 구석에서 작살을 집어 들고 긴 나무 자루를 빼내더니 작살촉의 덮개를 벗기고 장화에 대고 조금 갈았다. 그러고는 벽에 붙은 거울 조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뺨을 힘차게 긁기, 아니 작살질하기 시작했다. 퀴퀘그, 그건 로저스 상회의 최고급 칼붙이를 지독하게도 험하게 쓰는 거로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중에 작살촉이 얼마나 좋은 강철로 만들어지고 그 길고 곧은 날을 늘 얼마나 날카롭게 벼려 두는지 알게 되자, 그 일이 덜 이상하게 여겨졌다.

나머지 몸단장은 금세 끝났고, 그는 커다란 수로 안내인용 짧은 외투로 몸을 감싸고 원수의 지휘봉이라도 되듯 작살을 뽐내며 의기양양하게 방을 걸어 나갔다.

제5장 아침 식사

나도 곧 그 뒤를 따라 술집으로 내려가서 히죽거리는 주인에게 아주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잠자리 동무 일로 나를 적잖이 놀려 먹기는 했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런 악감정도 품지 않았다.

어쨌든 실컷 웃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고, 좋은 일치고는 좀 너무 드물다. 그러니 딱한 노릇이다. 그러니 누구든 제 몸 그대로 남에게 멋진 농담거리를 준다면 물러서지 말고 기꺼이 그렇게 쓰이고 또 쓰이도록 내버려 두라. 그리고 넉넉하게 우스운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 안에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 있다.

술집은 이제 전날 밤 하나둘씩 들어온 하숙인들로 꽉 차 있었는데, 나는 아직 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거의 모두 포경선원이었다. 일등 항해사, 이등 항해사, 삼등 항해사, 배 목수, 배 통장이, 배 대장장이, 작살잡이, 배지기들이었다. 수염이 덤불처럼 무성한 갈색의 우람한 무리였고, 면도도 하지 않은 털북숭이 패거리였으며, 모두 아침 실내복 대신 짧은 선원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저마다 뭍에 오른 지 얼마나 되었는지 꽤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 젊은이의 건강한 뺨은 햇볕에 구운 배처럼 빛깔이 노릇하고 향내까지 날 것 같다. 인도양 항해에서 뭍에 오른 지 사흘도 안 되었을 것이다. 그 옆의 사내는 몇 단계 더 옅어 보인다. 새틴나무 빛이 조금 돈다고 할 만하다. 세 번째 사람의 얼굴빛에는 아직 열대의 황갈색이 남아 있지만

조금 바래 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몇 주를 꼬박 뭍에서 지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퀴퀘그 같은 뺨을 내보일 수 있겠는가? 갖가지 빛깔의 줄무늬가 진 그의 뺨은 안데스산맥의 서쪽 비탈 같아서, 서로 다른 기후대를 띠마다 한 줄로 늘어놓아 보여 주는 것 같았다.

"밥이오, 밥!" 이제 주인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외쳤고, 우리는 아침을 먹으러 들어갔다.

세상을 두루 본 사람은 그 덕에 몸가짐이 아주 편안해지고 남들 앞에서도 아주 침착해진다고들 한다.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 뉴잉글랜드의 위대한 여행가 레디어드와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여행가 멍고 파크는 누구보다도 응접실에서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나 레디어드처럼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시베리아를 건너기만 했다거나, 가엾은 멍고가 해낸 일의 전부인 아프리카의 흑인 땅 한복판을 빈속으로 혼자 오래 걷기만 했다면, 그런 종류의 여행은 사교의 세련미를 높이 쌓는 데 그다지 좋은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도 대개 그런 세련미라면 어디서든 얻을 수 있다.

내가 하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모두 식탁에 앉고 나서 포경에 관한 멋진 이야기를 들을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적잖이 놀랍게도 거의 모든 사람이 깊은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 여기 모인 바다의 개들은 대부분 망망대해에서 생판 처음 보는 거대한 고래에 조금도 수줍어하지 않고 올라타,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맞붙어 죽였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같은 직업에 같은 취향을 지닌 사람끼리 정답게 아침을 먹는 식탁에 앉아서, 그린산맥의 어느 양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는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쭈뼛쭈뼛 서로를 둘러보고 있었다. 신기한 광경이었다. 이 수줍은 곰들, 이 소심한 전사 포경선원들이라니!

그러나 퀴퀘그로 말하자면, 아, 퀴퀘그는 그들 가운데, 그것도 마침 식탁 상석에 고드름처럼 냉정하게 앉아 있었다. 물론 그의 교양을 두고 할 말은 별로 없다. 그를 가장 우러러보는 사람이라도 그가 아침을 먹으러 작살을 들고 들어와서 거기서 거리낌 없이 그것을 쓴 일만은 진심으로 감싸 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작살을 식탁 너머로 뻗어 여러 사람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위태롭게 하며 비프스테이크를 제 쪽으로 걸어 당겼다. 그러나 *그 짓*만은 확실히 아주 냉정하게 해냈고, 누구나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이 보기에 무슨 일이든 냉정하게 해내는 것이 곧 품위 있게 해내는 것이다.

여기서 퀴퀘그의 별난 버릇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그가 커피와 따뜻한 롤빵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덜 익힌 비프스테이크에만 온 정신을 쏟았다는 이야기 같은 것 말이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공용 휴게실로 물러가서 손도끼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늘 쓰고 다니는 모자를 쓴 채 조용히 소화를 시키며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었고, 그때 나는 산책하러 나섰다고만 해 두자.

제6장 거리

퀴퀘그처럼 이국적인 사람이 문명 도시의 점잖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처음 얼핏 보았을 때 내가 놀랐다면, 그 놀라움은 뉴베드퍼드 거리를 대낮에 처음 산책하면서 곧 사라졌다.

어느 정도 큰 항구라면 부두 근처 큰길에서 외국에서 온 더없이 괴상하게 생긴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브로드웨이나 체스트넛 거리에서도 지중해 뱃사람들이 겁먹은 숙녀들과 이따금 어깨를 부딪친다. 리젠트 거리에도 동인도 뱃사람과 말레이 사람이 드물지 않고, 봄베이의 아폴로 광장에서는 살아 있는 양키들이 원주민들을 자주 놀라게 했다. 그러나 뉴베드퍼드는 어느 워터 거리나 와핑보다도 한술 더 뜬다. 앞서 말한 그런 곳에서는 선원만 볼 수 있지만, 뉴베드퍼드에서는 진짜 식인종들이 길모퉁이에 서서 수다를 떤다. 영락없는 야만인들이고, 그 가운데 많은 이가 아직도 뼈에 부정한 살을 붙이고 다닌다. 낯선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러나 피지 사람, 통가타부 사람, 에로망고 사람, 판낭 사람, 브리그 사람 말고도, 그리고 거리를 휘청거리며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는 포경업의 거친 표본들 말고도, 그대는 그보다 더 신기하고 분명히 더 우스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도시에는 주마다 버몬트와 뉴햄프셔의 풋내기 수십 명이 도착하는데, 모두 포경에서 돈과 영광을 얻으려고 목말라 한다. 대개는 젊고 몸이 다부진 친구들로, 숲의 나무를 베어 넘기다가 이제 도끼를 내려놓고 포경용 창을 움켜잡으려는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그들이 떠나온 그린산맥만큼이나 푸르다, 곧 풋내 난다. 어떤 일에서는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사람 같다. 저기 보라! 저 모퉁이를 으스대며 돌아가는 녀석. 비버 모자에 연미복을 입고, 그 위에 선원 허리띠를 두르고 칼집 달린 칼을 찼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오는데, 방수 모자를 쓰고 봄버진 천 망토를 걸쳤다.

도시에서 자란 멋쟁이는 시골에서 자란 멋쟁이에 견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영락없는 촌뜨기 멋쟁이 말이다. 삼복더위에도 손이 탈까 봐 사슴 가죽 장갑을 끼고 2에이커 밭의 풀을 베는 그런 친구다. 그런데 이런 시골 멋쟁이가 큰 명성을 얻어 보겠다는 생각을 품고 대포경업에 뛰어들면, 그가 항구에 닿아서 하는 우스운 짓들을 그대도 보아야 한다. 바다에 나갈 차림을 주문하면서 조끼에는 종 모양 단추를 달고 범포 바지에는 발밑 고리를 달아 달라고 한다. 아, 가엾은 건초 씨앗이여! 첫 울부짖는 질풍 속에서 고리며 단추며 모두 함께 폭풍의 목구멍으로 떠밀려 내려갈 때, 그 고리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툭툭 끊어질 것인가.

그러나 이 이름난 도시가 찾아온 이들에게 보여 줄 것이 작살잡이와 식인종과 촌뜨기뿐이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도 뉴베드퍼드는 묘한 곳이다. 우리 포경선원들이 아니었다면 그 땅은 오늘날 아마 래브라도 해안만큼 황량했을 것이다. 지금도 그 뒤쪽 시골의 몇몇 곳은 어찌나 뼈만 앙상해 보이는지 보기만 해도 섬뜩하다. 도시 자체는 아마 뉴잉글랜드를 통틀어 살기에 가장 비싼 곳일 것이다. 기름의 땅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기도 했던 가나안과는 다르다. 거리에 젖이 흐르지도 않고, 봄철에 길을 갓 낳은 달걀로 포장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아메리카를 통틀어 뉴베드퍼드보다 더 귀족적인 저택과 더 호사스러운 공원과 정원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들은 어디서 왔을까? 한때 메마른 화산재 덩어리 같던 이 땅에 어떻게 심겼을까?

저기 높다란 저택 둘레에 상징처럼 세워 둔 쇠 작살들을 가서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의 물음에 답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 이 멋진 집과 꽃 핀 정원은 모두 대서양과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왔다. 하나도 빠짐없이 바다 밑바닥에서 작살에 찔려 이리로 끌려 올라왔다. 마술사 알렉산더 선생이 이런 재주를 부릴 수 있겠는가?

뉴베드퍼드에서는 아버지들이 딸에게 고래를 지참금으로 주고, 조카딸들에게는 돌고래를 몇 마리씩 나눠 준다고들 한다. 화려한 결혼식을 보려면 뉴베드퍼드에 가야 한다. 듣자니 집집마다 기름 저장고가 있고, 밤마다 경랍 양초를 겁 없이 몇 자루씩 태운다고 하니까.

여름철에 이 도시는 보기에도 향기롭다. 멋진 단풍나무가 가득하고, 초록과 금빛의 긴 가로수 길이 이어진다. 8월이면 높은 하늘에서 아름답고 넉넉한 마로니에가 촛대처럼, 꽃송이가 모여 솟은 끝이 뾰족한 원뿔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민다. 예술이란 이토록 전능하다. 예술은 뉴베드퍼드의 여러 곳에서, 창조의 마지막 날 쓸모없다고 내던져진 메마른 바위 위에 화사한 꽃 계단을 덧입혀 놓았다.

그리고 뉴베드퍼드의 여인들은 그 고장의 붉은 장미처럼 피어난다. 그러나 장미는 여름에만 피지만, 그 여인들의 뺨에 핀 고운 분홍빛은 일곱째 하늘의 햇빛처럼 사철 피어 있다. 그 꽃 같은 빛에 견줄 만한 것은 다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세일럼만은 예외인데, 듣자니 그곳 처녀들은 어찌나 사향 냄새를 풍기는지, 그들을 사랑하는 뱃사람들이 바다 몇 마일 밖에서도 그 냄새를 맡아, 청교도의 모래밭이 아니라 향료 냄새 그윽한 몰루카 제도에 다가가는 것만 같다고 한다.

제7장 예배당

바로 이 뉴베드퍼드에 포경선원 예배당이 하나 있다. 곧 인도양이나 태평양으로 떠날 우울한 고래잡이 가운데 일요일에 그곳을 찾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나도 물론 빠지지 않았다.

첫 아침 산책에서 돌아온 나는 이 특별한 볼일을 보러 다시 나섰다. 하늘은 맑고 햇살 비치는 추운 날씨에서 진눈깨비와 안개가 휘몰아치는 날씨로 바뀌어 있었다. 곰 가죽이라 불리는 천으로 지은 털북숭이 웃옷으로 몸을 감싸고, 나는 끈질긴 폭풍을 거슬러 길을 헤쳐 나갔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선원들과 선원의 아내와 과부들로 이루어진 적은 수의 회중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숨죽인 침묵이 감돌았고, 이따금 폭풍이 비명을 지를 때만 그 침묵이 깨졌다. 말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일부러 다른 사람과 떨어져 앉은 것 같았다. 말 없는 슬픔이 저마다 섬처럼 외따로 떨어져 남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라는 듯이. 목사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그 말 없는 섬들은 거기 앉아 설교단 양쪽 벽에 박아 넣은, 검은 테를 두른 대리석 비석 몇 개를 꼼짝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세 개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대로 옮긴다고 장담하지는 않겠다.

존 탤벗을 추모하며. 그는 열여덟 살 때 1836년 11월 1일, 파타고니아 앞바다 황량한 섬 근처에서 배 밖으로 떨어져 실종되었다. 이 비석은 그의 누이가 그를 기리며 세운다.

로버트 롱, 윌리스 엘러리, 네이선 콜먼, 월터 캐니, 세스 메이시, 새뮤얼 글레이그를 추모하며. 이들은 일라이자호의 보트 한 척의 선원으로, 1839년 12월 31일 태평양의 먼바다 어장에서 고래에게 끌려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 대리석은 살아남은 동료 선원들이 여기 놓는다.

고(故) 에즈키얼 하디 선장을 추모하며. 그는 1833년 8월 3일 일본 해안에서 자기 보트의 뱃머리에 서 있다가 향유고래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비석은 그의 아내가 그를 기리며 세운다.

얼음이 엉겨 붙은 모자와 웃옷에서 진눈깨비를 털어 내고 문 가까이 앉아 옆으로 몸을 돌렸는데, 놀랍게도 내 곁에 퀴퀘그가 있었다. 그 장면의 엄숙함에 마음이 움직인 듯,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호기심에 찬 놀란 눈빛이 어려 있었다.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온 것을 알아챈 사람은 이 야만인뿐인 것 같았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그 혼자였으므로, 벽에 새긴 그 차가운 글을 읽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 이름이 새겨진 뱃사람들의 친척이 지금 회중 가운데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포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고가 너무나 많고, 거기 있던 여러 여인이 겉차림은 몰라도 얼굴에는 그치지 않는 슬픔을 너무나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으므로, 나는 지금 내 앞에 모인 이들이, 그 쓸쓸한 비석을 보면 아물지 않는 가슴속의 옛 상처가 덩달아 다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한다.

오! 사랑하는 이가 푸른 풀 밑에 묻혀 있어서, 꽃 사이에 서서 여기, *여기* 내 사랑하는 이가 누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가슴속에 도사린 쓸쓸함을 모른다. 아무 재도 덮고 있지 않은, 검은 테 두른 저 대리석들은 얼마나 쓰라린 빈칸인가! 저 움직일 수 없는 비문에는 얼마나 깊은 절망이 담겨 있는가! 모든 믿음을 갉아먹는 듯하고, 무덤도 없이 갈 곳 없이 죽어 간 이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지 않는

듯한 그 글줄에는 얼마나 치명적인 공허와 청하지 않은 불신이 있는가! 저 비석들이 여기 있으나 엘레판타의 동굴에 있으나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의 죽은 이들은 살아 있는 것들의 어느 인구 조사에 들어가는가. 굿윈 모래톱보다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데도, 왜 세상의 속담은 죽은 이들을 두고 말이 없다고 하는가. 어제 저세상으로 떠난 사람의 이름 앞에는 왜 그토록 뜻깊고 불신에 찬 낱말을 붙이면서, 이 살아 있는 땅의 가장 먼 인도 제도로 배를 타고 떠난 사람에게는 그런 칭호를 붙이지 않는가. 생명 보험 회사는 왜 불멸의 존재들에게 사망 보험금을 치르는가. 육천 년 전에 죽은 옛 아담은 어떤 영원하고 꿈쩍 않는 마비 상태, 어떤 치명적이고 가망 없는 혼수 속에 아직도 누워 있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 속에 살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굳게 주장하는 이들을 두고, 우리는 왜 여전히 위로받기를 마다하는가. 살아 있는 모든 이는 왜 그토록 죽은 모든 이를 잠재우려 애쓰는가. 무덤 속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는 소문 하나에 왜 온 도시가 공포에 떠는가. 이 모든 것에 뜻이 없지 않다.

그러나 믿음은 승냥이처럼 무덤 사이에서 먹이를 찾고, 이 죽은 의심들에서조차 가장 생생한 희망을 거두어들인다.

낸터킷으로 떠나는 항해를 앞두고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 대리석 비석을 바라보았는지, 그 어둡고 처량한 날의 흐린 빛 속에서 나보다 먼저 간 포경선원들의 운명을 읽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이슈메일, 같은 운명이 네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쩐지 나는 다시 즐거워졌다. 배를 타라는 유쾌한 권유이고, 승진할 좋은 기회인 셈이다. 그렇다, 보트가 박살 나면 나는 명예 진급으로 불멸의 몸이 될 것이다. 그렇다, 포경이라는 이 일에는 죽음이 있다. 사람을 말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뒤죽박죽 영원 속으로 꾸려 보내는 죽음이. 그러나 그게 어떻단 말인가? 생각건대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크게 잘못 알고 있다. 생각건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이 나의 참된 실체다. 생각건대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물속에서 해를 올려다보며 그 탁한 물을 가장 맑은 공기로 여기는 굴과 너무도 비슷하다. 생각건대 내 몸은 더 나은 나의 존재가 남긴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누구든 내 몸을 가져가라. 가져가라, 그건 내가 아니다. 그러니 낸터킷을 위해 만세 삼창을! 박살 난 보트와 박살 난 몸이 언제든 오라지. 내 영혼만은 제우스라도 박살 내지 못하니까.

제8장 설교단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딘지 존경스러운 기운이 서린 건장한 사내 하나가 들어왔다. 폭풍에 두들겨 맞던 문이 그를 들이며 홱 젖혀지자마자 회중 모두가 재빨리 공손한 눈길을 보냈으니, 이 훌륭한 노인이 목사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렇다, 그가 바로 그 이름난 매플 목사였다. 포경선원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고, 그는 그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젊은 시절 그는 선원이자 작살잡이였지만, 여러 해 전부터 목회에 일생을 바치고 있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무렵, 매플 목사는 건강한 노년의 꿋꿋한 겨울에 있었다. 그것은 다시 꽃피는 둘째 청춘으로 녹아드는 듯한 그런 노년이었다. 그의 주름살 갈라진 틈마다 새로 피어나는 꽃 같은 부드러운 빛이 어려 있었기 때문이다. 2월의 눈 밑에서도 봄의 푸른 싹이 고개를 내미는 것과 같았다. 그의 내력을 미리 듣지 못한 사람이라도 매플 목사를 처음 보면 더없이 큰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살아온 모험 많은 바다 생활에서 비롯된, 성직자로서는 별난 버릇들이 그에게 접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들어올 때 보니 우산도 들지 않았고, 마차를 타고 오지 않은 것도 분명했다. 방수포 모자에서는 녹은 진눈깨비가 줄줄 흘러내렸고, 수로 안내인용 두꺼운 모직 웃옷은 빨아들인 물의 무게로 그를 바닥까지 끌어내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모자와 웃옷과 덧신을 하나씩 벗어 옆 구석의 좁은 자리에 걸어 두자,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설교단으로 다가갔다.

대부분의 구식 설교단처럼 그 설교단도 몹시 높았다. 그런데 그 높이까지 보통 계단을 놓으면 바닥과 긴 비스듬한 각을 이루어 가뜩이나 좁은 예배당 넓이를 크게 줄일 것이므로, 건축가는 매플 목사의 귀띔을 따랐는지, 계단 없이 설교단을 마무리하고 그 대신 바다에서 보트에서 배로 올라갈 때 쓰는 것 같은 수직 옆 사다리를 달았다. 어느 포경선 선장의 부인이 이 사다리에 붙잡고 오를 붉은 털실 손잡이 밧줄 한 쌍을 멋지게 마련해 예배당에 내놓았다. 사다리 자체도 꼭대기를 보기 좋게 마무리하고 마호가니 빛으로 물들여 두었으니, 이 장치는 전체로 보아 그곳이 어떤 예배당인지를 생각하면 결코 멋없는 것이 아니었다. 매플 목사는 사다리 밑에서 잠깐 멈추어 두 손으로 손잡이 밧줄의 장식 손잡이를 잡고 위를 한 번 올려다보더니, 참으로 선원다우면서도 여전히 경건한 솜씨로, 마치 자기 배의 큰 돛대 망루에 오르듯 손을 번갈아 뻗으며 사다리를 올라갔다.

이 옆 사다리의 세로대는 흔들리는 사다리가 대개 그렇듯 천을 씌운 밧줄이었고 디딤대만 나무였으므로, 칸마다 이음매가 있었다. 처음 설교단을 언뜻 보았을 때, 이 이음매가 배에서는 아무리 편리하다 해도 이 경우에는 쓸데없어 보인다는 점이 내 눈을 피하지 못했다. 매플 목사가 높은 데에 오른 뒤 천천히 돌아서서 설교단 너머로 몸을 숙이더니,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차분히 끌어 올려 마침내 전부 안에 들여놓고, 자기의 작은 퀘벡 요새 안에 난공불락으로 들어앉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까닭을 다 알지 못한 채 한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매플 목사는 진실하고 거룩하기로 널리 이름난 사람이었으므로, 그가 그저 무대에서 부리는 재주로 이름을 떨치려 한다고 의심할 수는 없었다. 아니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 일에는 진지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는 몸을

그렇게 떼어 놓음으로써, 그동안만은 바깥세상의 모든 인연과 관계에서 영혼이 물러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까?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기와 포도주를 넉넉히 채운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에게 이 설교단은 스스로 모든 것을 갖춘 요새이니, 성벽 안에 마르지 않는 우물을 품은 우뚝한 에렌브라이트슈타인 성채다.

그러나 목사가 예전에 바다를 누비던 시절에서 빌려 온 그곳의 별난 점은 옆 사다리만이 아니었다. 설교단 양옆의 대리석 추모비 사이, 설교단 뒤를 이루는 벽에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다. 검은 바위와 눈같이 흰 부서지는 파도가 있는 바람받이 해안 앞바다에서 늠름한 배 한 척이 무시무시한 폭풍을 거슬러 맞서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날리는 물보라와 검게 굽이치는 구름 위 높은 곳에 햇빛의 작은 섬 하나가 떠 있었고, 거기서 천사의 얼굴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 밝은 얼굴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의 갑판 위에 또렷한 빛의 점 하나를 드리우고 있었는데, 넬슨이 쓰러진 자리에 지금 빅토리호의 갑판 널빤지에 박아 둔 은판과 어딘지 비슷했다. "아, 고귀한 배여," 천사가 말하는 것 같았다. "거슬러 나아가라, 거슬러 나아가라, 고귀한 배여, 꿋꿋이 키를 잡아라. 보라! 해가 뚫고 나오고 구름이 걷혀 간다. 더없이 맑은 푸른 하늘이 머지않았다."

설교단 자체에도 사다리와 그림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은 바다 취향의 자취가 없지 않았다. 판자를 댄 설교단 앞면은 배의 뭉툭한 뱃머리를 본떴고, 성경은 배의 바이올린 머리 모양 이물 장식을 본떠 만든 돌출된 소용돌이무늬 받침 위에 놓여 있었다.

이보다 뜻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설교단은 언제나 이 땅의 맨 앞자리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뒤를 따른다. 설교단이 세상을 이끈다. 하나님의 날랜 진노의 폭풍을 맨 먼저 알아보는 곳도 거기이고, 그 첫 충격을 뱃머리가 받아 내야 한다. 순풍이든 역풍이든 바람의 하나님께

순풍을 맨 먼저 비는 곳도 거기다. 그렇다, 세상은 항해를 마친 배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는 배이고, 설교단은 그 뱃머리다.

제9장 설교

매플 목사가 일어서더니, 겸손하면서도 권위 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흩어져 앉은 사람들에게 가운데로 모이라고 일렀다. "우현 통로, 거기! 좌현 쪽으로 옮겨 앉으시오. 좌현 통로는 우현 쪽으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긴 의자들 사이에서 무거운 바다 장화가 나지막이 우르릉거리고, 그보다 더 가볍게 여자들의 신발이 사각거리더니, 다시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모든 눈이 설교자를 향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설교단 뱃머리에 무릎을 꿇고, 커다란 갈색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고, 감은 눈을 위로 들어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가 어찌나 깊고 경건했던지 그는 바다 밑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같았다.

기도가 끝나자, 안개 속에서 바다에 가라앉아 가는 배에서 쉬지 않고 울리는 종소리처럼 길게 끄는 엄숙한 가락으로, 그렇다, 그런 가락으로 그는 다음 찬송가를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지막 연들에 이르자 가락을 바꾸어, 우렁차게 울리는 환희와 기쁨을 터뜨렸다.

"고래 속의 갈비뼈와 공포가 내 위로 음산한 어둠의 둥근 지붕을 둘렀네. 하나님의 햇빛 받은 물결은 모두 저 위로 굴러가는데, 나는 깊이깊이 멸망으로 끌려 내려갔네.

"나는 지옥의 아가리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네. 거기 끝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었네. 겪어 본 자 말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 오, 나는

절망 속으로 곤두박질쳤네.

"캄캄한 괴로움 속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불렀네.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기조차 어려울 때. 그분은 내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셨으니, 고래는 더는 나를 가두지 못했네.

"그분은 서둘러 날아와 나를 구하셨네. 빛나는 돌고래를 타고 오시듯이. 두려우면서도 눈부시게, 번개처럼 빛났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얼굴이.

"내 노래는 영원히 기록하리라, 그 무섭고도 기쁜 때를. 나는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모든 자비와 권능이 그분의 것이니."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찬송을 함께 불렀고, 노랫소리는 울부짖는 폭풍보다도 높이 부풀어 올랐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설교자는 천천히 성경을 넘기다가 마침내 해당 쪽에 손을 접어 얹고 말했다. "사랑하는 선원 여러분, 요나서 1장의 마지막 절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선원 여러분, 겨우 네 장, 실 네 가닥으로 된 이 책은 성경이라는 거대한 닻줄에서 가장 가는 가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깊은 측심줄은 영혼의 얼마나 깊은 곳까지 재어 내려갑니까!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얼마나 뜻이 풍성한 교훈입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 부른 그 노래는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큰 물결 같고, 얼마나 요란하게 웅장합니까! 우리는 큰물이 우리 위로 밀려드는 것을 느끼고, 그와 함께 바다풀 우거진 물 밑바닥까지 재어 내려가며, 해초와 바다의 온갖 진흙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러면 요나서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원 여러분, 이것은 두 가닥으로 꼰 교훈입니다. 죄 많은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수로 안내인인 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죄 많은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까닭은, 이것이 요나의 죄와 완악함, 갑자기 깨어난 두려움,

재빠른 벌, 회개와 기도, 그리고 마침내 요나가 얻은 구원과 기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가운데 모든 죄인이 그렇듯, 아밋대의 아들인 이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데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지금 따지지 맙시다. 요나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모두 우리에게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설득하려 애쓰시기보다 명령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 자신에게는 불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바로 이 우리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를 품은 채,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려 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는 사람이 만든 배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이 땅의 선장들만 다스리는 나라로 자기를 데려다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욥바의 부두를 살금살금 서성이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껏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뜻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 말을 들어 보아도 다시스는 오늘날의 카디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식 있는 이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디스는 어디 있습니까, 선원 여러분? 카디스는 에스파냐에 있습니다. 대서양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바다였던 그 옛날,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야파인 욥바는, 선원 여러분, 지중해의 가장 동쪽 해안, 시리아 해안에 있고, 다시스, 곧 카디스는 거기서 서쪽으로 2,000마일도 더 떨어진 지브롤터 해협 바로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원 여러분, 요나가 세상 끝까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려 했다는 것을 알겠지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 더없이 비열하고 온갖 경멸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챙 처진 모자를 쓰고 죄지은 눈빛으로 자기 하나님에게서 숨어 다니며, 바다를 건너려고

서두르는 비열한 도둑처럼 배들 사이를 어슬렁거립니다. 그의 얼굴이 어찌나 어지럽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빛인지, 그 시절에 경관이 있었다면 요나는 무언가 잘못이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갑판에 발을 딛기 전에 붙잡혔을 것입니다. 그가 도망자라는 것이 얼마나 뻔히 드러납니까! 짐도 없고, 모자 상자도, 손가방도, 융단 가방도 없습니다. 부두까지 따라 나와 작별 인사를 건네는 친구도 없습니다. 마침내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한참을 찾은 끝에, 그는 마지막 짐을 싣고 있는 다시스행 배를 찾아냅니다. 그가 선실에 있는 선장을 만나려고 배에 오르자, 선원들은 모두 잠깐 짐 싣기를 멈추고 낯선 사람의 사악한 눈빛을 눈여겨봅니다. 요나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연하고 자신 있어 보이려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비참한 웃음을 지어 보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강한 직감으로 뱃사람들은 그가 죄 없는 사람일 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지하게 그들은 서로 수군거립니다. '잭, 저 친구 과부 돈을 털었어.' 또는 '조, 저 사람 좀 봐. 아내를 둘 둔 놈이야.' 또는 '해리, 저건 옛 고모라에서 탈옥한 간음한 놈이거나, 아니면 소돔에서 사라진 살인자 가운데 하나일 거야.' 또 한 사람은 배가 매여 있는 부두 말뚝에 붙은 방을 읽으러 달려갑니다. 아비를 죽인 자를 잡는 사람에게 금화 오백 닢을 준다는 방인데, 그자의 생김새가 적혀 있습니다. 그는 방을 읽고 요나와 방을 번갈아 봅니다. 그러는 동안 그와 한마음인 동료 선원들이 모두 요나 둘레로 몰려들어 그를 붙잡을 채비를 합니다. 겁에 질린 요나는 떨고, 있는 담력을 다 끌어모아 얼굴에 올려 보지만 그럴수록 더 겁쟁이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는 자기가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강한 의심을 삽니다. 그래서 그는 그럭저럭 버티고, 선원들은 그가 방에 적힌 사람이 아님을 알자 그를 지나가게 하고, 그는 선실로 내려갑니다.

"'거기 누구요?' 바쁜 책상 앞에서 세관에 낼 서류를 서둘러 작성하던 선장이 외칩니다. '거기 누구요?' 오! 그 악의 없는 물음이 요나를 얼마나 갈가리 찢어 놓습니까! 순간 그는 또다시 몸을 돌려 달아날 뻔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배로 다시스까지 가고 싶습니다. 언제 떠나십니까, 선장님?' 그때까지 바쁜 선장은 요나가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그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날카롭게 살피는 눈길을 던집니다. '다음 밀물 때 떠나오.' 그는 여전히 요나를 뚫어지게 보며 마침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더 일찍은 안 됩니까, 선장님?' '승객으로 가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만하면 일찍이오.' 하! 요나여, 또 한 번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선장을 그 냄새에서 떼어 놓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뱃삯은 얼마입니까? 지금 내겠습니다.' 선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일이라는 듯이, 배가 떠나기 전에 '그가 뱃삯을 치렀다'고 특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과 아울러 보면, 이 말에는 뜻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선원 여러분, 요나가 만난 선장은 누구에게서든 죄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지만, 탐욕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의 죄만 들추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제 값을 치르는 죄는 여권 없이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지만, 미덕은 가난하면 모든 국경에서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선장은 요나를 드러내 놓고 심판하기 전에 그의 지갑이 얼마나 두둑한지 시험해 보려 합니다. 그는 보통 뱃삯의 세 배를 부르고, 요나는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장은 요나가 도망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뒤에 금을 깔아 가며 달아나는 도망이라면 도와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말로 지갑을 꺼내자, 신중한 의심이 여전히 선장을 괴롭힙니다. 그는 위조 주화가 있는지 동전을 하나하나 울려 봅니다. 어쨌든 위조범은 아니군,

하고 그는 중얼거리고, 요나는 승객 명부에 오릅니다. '제 선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장님.' 이제 요나가 말합니다. '여행에 지쳤습니다. 잠을 자야겠습니다.' '그래 보이는구려.' 선장이 말합니다. '저기가 당신 방이오.' 요나는 들어가서 문을 잠그려 하지만 자물쇠에 열쇠가 없습니다. 그가 거기서 어리석게 더듬거리는 소리를 듣고 선장은 혼자 나직이 웃으며, 죄수 감방의 문은 안에서 잠그게 두는 법이 없다는 둥 무어라 중얼거립니다. 옷도 벗지 않고 먼지투성이인 채로 요나는 침상에 몸을 던지는데, 작은 선실의 천장이 거의 이마에 닿을 듯합니다. 공기는 답답하고, 요나는 숨을 헐떡입니다. 그러자 배의 흘수선 밑에까지 가라앉은 그 비좁은 구멍 속에서, 요나는 고래가 제 창자의 가장 작은 방에 자기를 가둘 그 숨 막히는 시간을 미리 알리는 예감을 느낍니다.

"요나의 방에는 축이 뱃벽에 나사로 박힌 매달린 등잔이 하나 있어 조금씩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은 짐 꾸러미의 무게 때문에 배가 부두 쪽으로 기울어 있으니, 등잔은 불꽃까지 다 조금씩 움직이면서도 방에 대해 늘 비스듬한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등잔 자체는 한 치도 어긋남 없이 곧고, 다만 자기가 매달린 그 거짓되고 속이는 수평들을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등잔은 요나를 놀라게 하고 겁에 질리게 합니다. 침상에 누운 그의 괴로운 눈은 방 안을 이리저리 굴러다니지만, 이제까지 달아나는 데 성공한 이 도망자는 그 불안한 눈길을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등잔의 그 모순이 그를 점점 더 오싹하게 합니다. 바닥도 천장도 벽도 모두 비뚤어져 있습니다. '오! 내 양심도 내 속에 저렇게 매달려 있구나!' 그는 신음합니다. '곧게 위로 타오르는데, 내 영혼의 방들은 모두 비뚤어져 있구나!'

"밤새 술에 취해 흥청거린 사람이 아직 비틀거리면서도 양심에 찔려 서둘러 잠자리에 들 때와 같습니다. 로마의 경주마가 날뛸수록 몸에 단 쇠 장식이 더 깊이 박혀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그런 비참한 꼴로

어지러운 고뇌 속에서 몸을 뒤척이고 또 뒤척이며 발작이 지나갈 때까지 차라리 없어지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가 느끼는 고통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죽어 가는 사람에게 그러듯 깊은 혼미가 그에게 슬며시 덮쳐 옵니다. 양심은 상처이고, 그 피를 멎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처럼 침상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친 끝에, 요나의 엄청나고 무거운 비참함이 그를 잠 속으로 빠뜨려 끌어내립니다.

"이제 밀물 때가 왔습니다. 배는 닻줄을 풀고, 다시스로 가는 배는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 텅 빈 부두를 떠나 잔뜩 기운 채 바다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친구들이여, 그 배는 기록에 남은 첫 밀수선이었습니다! 밀수품은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들고일어납니다. 바다는 그 사악한 짐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치고 배는 부서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판장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일손을 부를 때, 상자와 짐짝과 항아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다로 던져질 때, 바람이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이 고함치고 요나의 머리 바로 위에서 짓밟는 발소리에 널빤지마다 천둥처럼 울릴 때, 이 모든 사나운 소동 속에서 요나는 끔찍한 잠을 잡니다. 그는 검은 하늘도 사나운 바다도 보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선재도 느끼지 못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입을 벌린 채 바다를 가르며 자기를 뒤쫓아 오는 거대한 고래의 멀리서 밀려오는 소리도 거의 듣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원 여러분,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선실의 침상으로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겁에 질린 선장이 그에게 와서 죽은 듯한 그의 귀에 대고 외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라!' 그 무서운 외침에 혼수에서 깨어난 요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갑판으로 허둥지둥 올라가서 돛대 밧줄을 붙잡고 바다를 내다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표범 같은 큰 물결이 뱃전을

뛰어넘어 그에게 덮칩니다. 물결에 물결이 그렇게 배로 뛰어들고, 금세 빠져나갈 데를 찾지 못한 채 앞뒤로 으르렁거리며 내달려, 뱃사람들은 아직 배 위에 떠 있으면서도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하얀 달이 머리 위 어둠 속의 가파른 골짜기에서 겁에 질린 얼굴을 내밀 때마다, 넋이 나간 요나는 치솟은 뱃머리 기움 돛대가 하늘 높이 위를 가리키다가 곧 다시 괴로워하는 깊은 바다를 향해 아래로 내리꽂히는 것을 봅니다.

"공포에 공포가 겹쳐 그의 영혼 속을 외치며 달려갑니다. 움츠러드는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에게서 달아난 자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 뚜렷이 드러납니다. 선원들은 그를 눈여겨보고, 그를 향한 의심은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마침내 그들은 진실을 완전히 확인하려고 모든 일을 높은 하늘에 맡겨, 누구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자기들에게 닥쳤는지 알아보려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비는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그것이 드러나자 그들은 얼마나 사납게 그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퍼붓습니까. '네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는? 어느 민족이냐?' 그러나 선원 여러분, 이제 가엾은 요나의 태도를 눈여겨보십시오. 다급한 뱃사람들은 그에게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만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물음에 대한 대답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묻지도 않은 물음에 대한 대답까지 듣게 됩니다. 요나 위에 얹힌 하나님의 엄한 손이 요나에게서 그 청하지 않은 대답을 억지로 끌어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그가 외치고, 이어서 말합니다. '바다와 마른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오!' 그분을 두려워한다고, 오 요나여? 그렇습니다, *그때*야말로 그대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곧바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뱃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워하지만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요나는 자기가 받아 마땅한 벌이 얼마나 캄캄한지 너무도 잘 알았으므로

아직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도 않은 채, 비참한 요나는 자기를 붙잡아 바다에 던지라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자기* 때문에 이 큰 폭풍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비롭게 그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방법으로 배를 구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모두 헛일입니다. 성난 바람은 더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손을 하나님께 쳐들어 빌며, 다른 한 손으로 마지못해 요나를 붙잡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가 닻처럼 들려 올라가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기름처럼 매끄러운 고요가 동쪽에서 흘러나오고, 요나가 폭풍을 데리고 내려가 뒤에 잔잔한 물을 남기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는 주인 없이 날뛰는 소동의 소용돌이치는 한복판으로 가라앉으니, 자기를 기다리며 쩍 벌어진 턱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며 떨어지는 순간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래는 그 상아 같은 이빨을 모두, 흰 빗장을 여러 개 지르듯 그의 감옥 위로 철컥 닫아 버립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눈여겨보고 무거운 교훈을 배우십시오. 요나는 죄 많은 사람이지만, 당장 구해 달라고 울며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는 무서운 벌이 정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는 자기의 구원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온갖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리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선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참되고 충실한 회개가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떠들어 대지 않고 벌을 고마워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런 행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는 그가 마침내 바다와 고래에게서 건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선원 여러분, 내가 요나를 여러분 앞에 세우는 것은 그의 죄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를 지었거든 요나처럼 회개하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밖에서 비명을 지르며 비스듬히 몰아치는 폭풍의 울부짖음이 설교자에게 새 힘을 보태는 것 같았다. 요나의 바다 폭풍을 그려 보일 때 그 자신이 폭풍에 휘둘리는 것 같았다. 그의 깊은 가슴은 큰 너울이 일듯 들썩였고, 휘두르는 두 팔은 서로 싸우는 원소들이 맹렬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의 가무잡잡한 이마에서 굴러 나가는 천둥과 그의 눈에서 튀어나오는 빛에, 그를 바라보는 순박한 청중은 모두 그들에게 낯선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그의 표정에 잠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다시 성경을 넘겼고, 마침내 눈을 감은 채 꼼짝 않고 서서 잠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마음을 나누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사람들 쪽으로 몸을 숙이고, 더없이 깊으면서도 더없이 사내다운 겸손이 어린 얼굴로 고개를 낮게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선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손만 얹으셨지만, 나에게는 두 손으로 내리누르십니다. 나는 나에게 허락된 흐린 빛으로나마, 요나가 모든 죄인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고, 나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 돛대 꼭대기에서 얼마나 기꺼이 내려가, 여러분이 앉은 그 승강구 덮개 위에 앉아서 여러분이 듣듯이 듣고 싶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요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수로 안내인인 *나에게* 주는 그 다른, 더 두려운 교훈을 *나에게* 읽어 주는 동안 말입니다. 요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수로 안내인이자 선지자, 곧 참된 것을 말하는 자로서, 주께 명을 받아 사악한 니느웨의 귀에 그 달갑지 않은 진리를 울려 퍼지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불러일으킬 적의에 겁을 먹고 그 사명에서 달아났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자기

의무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는 끝내 다시스에 닿지 못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고래 속에서 그를 덮치셨고, 그를 멸망의 살아 있는 구렁으로 삼키셨으며, 빠르게 비스듬히 휩쓸어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소용돌이치는 깊은 물이 그를 만 패덤 아래로 빨아들였고,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휘감았으며', 고통의 물 세상이 온통 그의 위로 굴러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연도 닿지 못하는 그곳, '지옥의 배 속'에서조차, 고래가 대양의 맨 밑바닥 뼈에 얹혔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삼켜진 채 회개하는 선지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고, 고래는 몸서리치게 차갑고 캄캄한 바다에서 따뜻하고 상냥한 해를 향해, 공기와 땅의 모든 기쁨을 향해 솟구쳐 올라 '요나를 마른 땅에 토해 냈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고, 요나는 멍들고 두들겨 맞은 채, 두 귀가 소라 껍데기 두 개처럼 아직도 바다 소리로 수없이 웅웅거리는 채로, 전능하신 분의 분부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원 여러분? 거짓의 얼굴에 대고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선원 여러분, 이것, 이것이 그 다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수로 안내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홀려 복음의 의무를 저버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휘저어 폭풍으로 만드셨는데 그 물 위에 기름을 부어 달래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두렵게 하기보다 기쁘게 하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선함보다 좋은 평판을 더 귀히 여기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명예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이 구원이 된다 해도 참되려 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로 안내인

바울의 말처럼, 남에게 전하면서 자기는 버림받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넋을 놓은 듯했다. 그러다 다시 사람들을 향해 얼굴을 들었는데, 그의 눈에는 깊은 기쁨이 어려 있었고, 그는 하늘에서 온 듯한 열정으로 외쳤다. "그러나 오! 선원 여러분! 모든 화의 우현 쪽에는 틀림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꼭대기는 화의 밑바닥이 깊은 것보다 더 높습니다. 큰 돛대 꼭대기의 둥근 머리가 용골 내부재가 낮은 것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만한 신들과 사령관들에게 맞서 언제나 굽힘 없는 자기 자신으로 우뚝 서는 자에게. 저 멀리, 저 멀리 높고 깊은 곳의 기쁨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비천하고 배신하는 세상이라는 배가 발밑에서 가라앉았을 때도 여전히 자기의 억센 두 팔로 자기를 떠받치는 자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모든 죄를 원로원 의원과 재판관의 옷자락 밑에서 끌어내서라도 죽이고 태우고 멸하는 자에게. 기쁨이, 맨 꼭대기 돛대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 자기 하나님 말고는 어떤 법도 어떤 주인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만 충성하는 애국자인 자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사나운 군중이라는 바다의 큰 물결의 모든 파도도 이 확실한 세세의 용골에서 결코 흔들어 떨어뜨리지 못하는 자에게.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달콤함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누우러 와서 마지막 숨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의 것이. '오 아버지! 주로 당신의 매로 내가 알게 된 분이시여. 죽을 몸이든 죽지 않을 몸이든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것이 되기보다, 나 자신의 것이 되기보다 당신의 것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은 당신께 맡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기 하나님의 일생을 다 살아 내겠습니까?'"

그는 더는 말하지 않고, 천천히 축복의 손짓을 하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그 자리에 홀로 남을 때까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제10장 마음의 벗

예배당에서 물 뿜는 고래 여인숙으로 돌아와 보니 퀴퀘그가 혼자 있었다. 그는 축도가 있기 한참 전에 예배당을 떠났던 것이다. 그는 불 앞의 긴 의자에 앉아 난로 바닥에 발을 올려놓고, 한 손으로 그 작은 흑인 우상을 얼굴 가까이 바짝 들고 있었다. 우상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주머니칼로 그 코를 살살 깎으면서, 그동안 이교도답게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방해를 받자 그는 형상을 치우더니, 곧 탁자로 가서 거기 놓인 큰 책 한 권을 집어 무릎에 올려놓고, 신중하게 꼬박꼬박 쪽수를 세기 시작했다. 내가 짐작하기로 쉰 쪽마다 그는 잠깐 멈추어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고는, 놀랐다는 듯 길게 꾸르륵거리는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다음 쉰 쪽을 다시 세기 시작했다. 쉰보다 많이는 셀 줄 몰라서 매번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쉰이 수없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만 쪽수가 그토록 많다는 데 놀라는 것 같았다.

나는 몹시 흥미롭게 그를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그는 야만인이고, 적어도 내 취향으로는 얼굴이 흉하게 망가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결코 불쾌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영혼은 숨길 수 없다.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그 모든 문신 너머로, 나는 순박하고 정직한 마음의 자취를 본 것 같았다. 그리고 불타듯 검고 대담한 그의 크고 깊은 눈에는 천 마리 악마에게라도 맞설 기백의 표시가 어려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이

이교도에게는 어딘지 고결한 몸가짐이 있어서, 그의 투박함조차 그것을 아주 망가뜨리지는 못했다. 그는 남에게 굽실거려 본 적도 없고 빚쟁이를 둔 적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머리를 밀어서 이마가 더 시원하고 환하게 드러나 실제보다 더 넓어 보였던 것인지는 감히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골상학으로 보아 훌륭한 머리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머리를 보니 흔히 보는 워싱턴 장군의 흉상이 떠올랐다. 눈썹 위에서부터 똑같이 길고 고르게 뒤로 물러나는 비탈이 있었고, 그 눈썹 또한 꼭대기에 나무가 빽빽이 우거진 두 개의 긴 곶처럼 몹시 튀어나와 있었다. 퀴퀘그는 식인종으로 자라난 조지 워싱턴이었다.

내가 이렇게 그를 찬찬히 살피는 동안, 그러면서 반쯤은 여닫이창 너머로 폭풍을 내다보는 척하는 동안, 그는 내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눈길 한 번 주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 놀라운 책의 쪽수를 세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다. 전날 밤 우리가 얼마나 다정하게 함께 잤는지를 생각하면, 특히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내 위에 걸쳐져 있던 그 애틋한 팔을 생각하면, 그의 이런 무관심이 몹시 이상했다. 그러나 야만인이란 이상한 존재다. 때로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처음에는 그들이 사람을 압도한다. 그 순박함에서 나오는 차분한 침착함이 소크라테스의 지혜처럼 보인다. 나는 또 퀴퀘그가 여인숙의 다른 선원들과 전혀, 또는 아주 조금밖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눈여겨보았다. 그는 전혀 다가가지 않았고, 아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다. 이 모든 것이 아주 별나 보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거기에는 거의 숭고한 무언가가 있었다. 여기 고향에서 2만 마일쯤, 그러니까 혼곶을 돌아서 2만 마일쯤(그가 고향에 갈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었다) 떨어진 한 사람이, 목성에 떨어진 것만큼이나 낯선 사람들 사이에 던져져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아주 편안해 보였다. 더없는 평정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벗 삼아 만족하고, 언제나 한결같았다. 이것은 분명 훌륭한 철학의 한 자락이었다. 물론 그는 철학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 보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참된 철학자가 되려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애쓴다는 것을 의식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아무개가 자기를 철학자라고 내세운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는 그 사람이 소화 불량에 걸린 노파처럼 '소화기를 망가뜨린'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 내린다.

이제 쓸쓸해진 그 방에 앉아 있으니, 불은 처음의 맹렬한 기세로 공기를 데운 뒤 그저 바라보라고 빛나기만 하는 그 부드러운 단계에 이르러 나직이 타고 있었고, 저녁의 그늘과 환영들이 여닫이창 둘레에 모여들어 말없이 단둘이 있는 우리를 들여다보았으며, 밖에서는 폭풍이 장엄한 너울처럼 쿵쿵 울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산산이 금 간 내 마음과 미쳐 날뛰던 내 손이 더는 이리 같은 세상을 향하지 않았다. 마음을 달래 주는 이 야만인이 세상을 되찾아 준 것이다. 그는 거기 앉아 있었고, 그의 무관심 자체가 문명의 위선과 번지르르한 속임수가 숨어 있지 않은 본성을 말해 주었다. 그는 거칠었다. 보기 드문 구경거리 가운데서도 구경거리였다. 그런데도 나는 알 수 없이 그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 대부분을 밀어냈을 바로 그것들이 이렇게 나를 끌어당기는 자석이었다. 기독교인의 친절이 속 빈 예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으니 이교도 친구를 하나 사귀어 보자,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긴 의자를 그에게 끌어다 붙이고 다정한 몸짓과 눈짓을 몇 번 하며 그동안 그와 이야기를 해 보려고 애썼다. 처음에 그는 이런 다가감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곧 내가 지난밤 그가 베푼 대접을 이야기하자, 그는 우리가 또 잠자리 동무가 되는지 겨우 물어

왔다.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는 기뻐하는 것 같았고 어쩌면 조금 우쭐해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다음 우리는 함께 책을 넘겨 보았다. 나는 그에게 인쇄가 무엇에 쓰이는지, 책에 실린 몇 안 되는 그림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려고 애썼다. 그렇게 해서 나는 곧 그의 관심을 끌었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이름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갖가지 바깥 구경거리를 두고 힘닿는 대로 재잘거렸다. 곧 나는 사이좋게 담배나 한 대 피우자고 했다. 그러자 그는 쌈지와 손도끼를 꺼내 조용히 내게 한 모금 권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그 거친 파이프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꼬박꼬박 서로 건네면서 앉아 있었다.

이 이교도의 가슴에 아직 나를 향한 무관심의 얼음이 숨어 있었다 해도, 우리가 함께 피운 이 즐겁고 정다운 담배가 곧 그 얼음을 녹여 우리를 단짝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끌린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게 마음을 주는 것 같았다. 담배를 다 피우자 그는 내 이마에 자기 이마를 대고 내 허리를 끌어안더니, 이제부터 우리는 결혼한 사이라고 말했다. 그의 나라 말로 하자면 마음의 벗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고 했다. 같은 나라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갑자기 타오르는 우정은 너무 성급해 보이고 크게 의심해야 할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순박한 야만인에게는 그런 낡은 규칙이 들어맞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담배를 피운 뒤, 우리는 함께 방으로 갔다. 그는 내게 그 방부 처리한 머리를 선물로 주었다. 그러고는 엄청나게 큰 담배 지갑을 꺼내 담배 밑을 더듬더니 은화로 30달러쯤을 꺼냈다. 그것을 탁자 위에 펼쳐 놓고 기계적으로 똑같이 두 몫으로 나누더니, 그 가운데 한 몫을 내 쪽으로 밀며 내 것이라고 했다. 내가 말리려 하자 그는 그 돈을 내 바지 주머니에

쏟아부어 내 입을 막았다. 나는 그대로 두었다. 그다음 그는 저녁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우상을 꺼내고 종이를 바른 벽난로 가리개를 치웠다. 몇 가지 몸짓과 기색으로 보아 그는 내가 함께해 주기를 몹시 바라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이어질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청한다면 따를지 말지 잠깐 생각해 보았다.

나는 착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오류 없는 장로교회의 품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 거친 우상숭배자와 손잡고 그의 나무토막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예배란 무엇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슈메일, 너는 이교도를 비롯해 모든 것을 품는 하늘과 땅의 너그러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검은 나뭇조각 하나를 시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리 없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이웃이 내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이웃에게 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퀴퀘그는 나의 이웃이다. 그러면 나는 이 퀴퀘그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가? 그야 나와 함께 나의 특별한 장로교식 예배를 드려 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나도 그의 예배에 함께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상숭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대팻밥에 불을 붙였고, 그 죄 없는 작은 우상을 세우는 것을 거들었고, 퀴퀘그와 함께 구운 비스킷을 우상에게 바쳤고, 그 앞에서 두세 번 절을 했고, 우상의 코에 입을 맞추었다. 그 일을 마치고 우리는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우리 자신의 양심과도, 온 세상과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조금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는 잠들지 않았다.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구끼리 속을 털어놓기에 침대만 한 곳이 없다. 부부는 거기서 영혼의 맨 밑바닥까지 서로에게 열어 보인다고들 한다. 어떤 늙은 부부는 자주 누워서 지난날 이야기를 나누며 거의

아침을 맞는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신혼 속에서, 나와 퀴퀘그는 아늑하고 다정한 한 쌍으로 누워 있었다.

제11장 잠옷

우리는 그렇게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깐씩 졸기를 되풀이했다. 퀴퀘그는 이따금 문신이 새겨진 갈색 다리를 다정하게 내 다리 위에 걸쳤다가 다시 거두곤 했으니, 우리는 그토록 허물없이 마음 편히 지냈다. 그러다 마침내 수다를 떠는 바람에 남아 있던 조금의 졸음마저 완전히 달아나 버려,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싶어졌다. 동이 트려면 아직 한참 남아 있었는데도.

그렇다, 우리는 아주 말똥말똥해졌다. 어찌나 말똥말똥해졌는지 누워 있는 자세가 지겨워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 앉았다. 이불을 둘레에 잘 여며 두르고, 침대 머리판에 기대어 네 무릎을 바싹 모아 세우고, 두 코를 그 위로 숙였다. 무릎뼈가 화로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기분 좋고 아늑했다. 바깥이 몹시 추웠으니 더욱 그랬다. 방에 불이 없었으니 이불 바깥도 추웠다. 더욱 그랬다고 말하는 것은, 몸이 따뜻한 것을 제대로 즐기려면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은 차가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어떤 성질도 그저 대조를 통해 그 성질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가 온몸이 편안하고 오랫동안 그래 왔다고 우쭐해한다면, 그대는 더는 편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침대 속의 퀴퀘그와 나처럼 코끝이나 정수리가 조금 시리다면, 그때야말로 온몸의 의식 속에서 더없이 기분 좋게, 틀림없이 따뜻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침실에는 결코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불은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불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종류의 즐거움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 그대와 그대의 아늑함 사이에, 그리고 바깥 공기의 추위 사이에 담요 한 장밖에 없을 때다. 그러면 그대는 북극 얼음 결정 한가운데의 따뜻한 불꽃 하나처럼 거기 누워 있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 한참을 있을 때, 문득 나는 눈을 떠 보자고 생각했다. 나는 이불 속에 있을 때면 낮이든 밤이든, 자든 깨어 있든 늘 눈을 감는 버릇이 있다. 침대에 있는 아늑함을 더 한데 모으려는 것이다. 사람은 눈을 감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흙으로 된 부분에는 빛이 더 맞을지라도, 정말이지 어둠이 우리 본질에 걸맞은 원소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눈을 뜨고, 내가 스스로 만든 기분 좋은 어둠에서 불도 켜지 않은 밤 열두 시의, 억지로 덮어씌운 거친 바깥 어둠으로 나오자, 나는 불쾌한 거부감을 느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똥말똥하니 불을 켜는 게 좋겠다는 퀴퀘그의 귀띔에 나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손도끼 파이프로 조용히 몇 모금 피우고 싶어 몹시 안달했다. 말해 두자면, 전날 밤에는 그가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그토록 싫었지만, 사랑이 한번 와서 구부리면 우리의 뻣뻣한 편견이 얼마나 낭창낭창해지는지 보라. 이제 나는 퀴퀘그가 침대에서라도 내 곁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그럴 때 그는 더없이 평온한 집안의 기쁨으로 가득 차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더는 주인의 보험 증권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았다. 진짜 친구와 파이프 하나와 담요 한 장을 나누는, 꽉 들어찬 은밀한 아늑함만을 생생히 느꼈다. 털북숭이 웃옷을 어깨에 끌어 두르고 우리는 이제 손도끼 파이프를 서로 주고받았고, 마침내 새로 켠 등잔불에 비친 푸른 연기가 침대 닫집처럼 천천히 우리 위에 드리웠다.

이 일렁이는 닫집이 야만인을 머나먼 풍경으로 굴려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는 자기 고향 섬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의 내력이

듣고 싶어 계속 이야기해 달라고 졸랐다. 그는 기꺼이 응했다. 그때는 그의 말을 적잖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의 서툰 말투에 더 익숙해지고 나서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들 덕분에 이제는 이야기 전체를 대강의 뼈대나마 여기 내놓을 수 있다.

제12장 내력

퀴퀘그는 서쪽과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섬 로코보코 태생이었다. 그 섬은 어느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다. 참된 곳은 결코 지도에 나오지 않는 법이다.

갓 깨어난 야만인 아이로서 풀잎 허리 두르개만 걸치고, 염소들이 푸른 어린나무를 뜯듯 그 뒤를 졸졸 따라오는 가운데 고향 숲을 마구 뛰어다니던 그 시절에도, 퀴퀘그의 야심찬 영혼 속에는 포경선 견본 한두 척보다 더 많은 기독교 세계를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숨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대추장, 곧 임금이었고, 삼촌은 대제사장이었으며, 어머니 쪽으로는 무적의 전사들의 아내인 이모와 고모를 자랑으로 삼았다. 그의 핏줄에는 훌륭한 피, 왕가의 피가 흘렀다. 다만 가르침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 그가 키운 식인 성향 때문에 그 피가 딱하게도 더럽혀지지 않았나 싶다.

새그하버의 배 한 척이 그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만에 들렀고, 퀴퀘그는 기독교 나라로 가는 뱃길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배는 이미 선원이 다 차 있어서 그의 청을 물리쳤고, 임금인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퀴퀘그는 맹세를 했다. 그는 혼자 카누를 타고, 배가 섬을 떠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먼 해협까지 노를 저어 갔다. 한쪽에는 산호초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물속까지 뻗어 자란 맹그로브 덤불로 덮인 낮은 곶이 혀처럼 뻗어 있었다. 그는 카누를 물에 띄운 채 이 덤불 속에 뱃머리를 바다 쪽으로 향하게 하여 숨기고, 고물에

앉아 노를 낮게 쥐고 있었다. 그러다 배가 미끄러지듯 지나가자 번개처럼 뛰쳐나가 배 옆에 붙었고, 발로 뒤를 한 번 걷어차서 카누를 뒤집어 가라앉히고는, 사슬을 타고 올라가 갑판에 길게 몸을 던져 거기 박힌 고리 볼트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갈가리 찢기더라도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선장이 그를 바다로 던져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그의 맨 손목 위로 단검을 치켜들어도 소용없었다. 퀴퀘그는 임금의 아들이었고, 퀴퀘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필사적인 대담함과 기독교 세계를 가 보고 싶다는 거친 열망에 감동한 선장은 마침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편히 지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젊은 야만인, 이 바다의 왕세자는 선장실 구경 한 번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선원들 사이에 집어넣고 포경선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남의 나라 도시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표트르 황제처럼, 퀴퀘그는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고향 사람들을 깨우칠 힘을 다행히 얻을 수 있다면 겉보기에 굴욕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가 내게 말하기로, 그는 사실 마음속 깊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자기 백성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지금보다 더 선하게 만들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에 이끌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아! 포경선원들의 행실을 보고 그는 곧 기독교인도 비참할 수 있고 사악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아버지의 이교도들 모두보다 한없이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마침내 옛 새그하버에 닿아 선원들이 거기서 하는 짓을 보고, 이어 낸터킷으로 가서 그들이 *그곳*에서도 품삯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나자, 가엾은 퀴퀘그는 모든 것을 단념했다. 그는 생각했다. 어느 자오선에서나 세상은 사악하다. 나는 이교도로 죽겠다.

그리하여 그는 속으로는 늙은 우상숭배자인 채로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살며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 보려

애썼다. 고향을 떠난 지 꽤 되었는데도 그에게 별난 버릇이 있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나는 넌지시, 고향으로 돌아가 즉위식을 올릴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그의 아버지가 몹시 늙고 쇠약하다고 했으니, 이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여겨도 될 터였다. 그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아니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망쳐 놓아서 자기보다 앞선 이교도 임금 서른 명의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왕좌에 오를 자격을 잃었을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돌아가겠다고 그는 말했다. 다시 세례를 받았다고 느끼는 대로 곧. 그러나 당분간은 네 대양을 두루 항해하며 젊은 날의 방탕을 실컷 누려 볼 작정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작살잡이로 만들어 놓았고, 이제는 그 미늘 달린 쇠가 왕홀을 대신했다.

나는 그에게 앞으로 어디로 갈지, 당장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예전 일을 하러 다시 바다로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그 말에 나는 포경이 바로 내 계획이라고 말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포경선원이 배를 타고 떠나기에 가장 가망 있는 항구인 낸터킷에서 출항할 생각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러자 그는 당장 나와 함께 그 섬에 가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당직, 같은 보트, 같은 식탁에 들어, 한마디로 나의 모든 운을 함께 나누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내 두 손을 그의 두 손에 쥔 채 두 세계의 잡탕 냄비에 과감히 손을 담그겠다고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기쁘게 동의했다. 이제 퀴퀘그에게 품은 애정은 둘째 치더라도, 그는 노련한 작살잡이였으니, 상선 선원으로서 바다는 잘 알지만 포경의 비밀은 전혀 모르는 나 같은 사람에게 크게 쓸모가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파이프가 마지막 한 모금을 내뿜으며 꺼져 갈 때 그의 이야기도 끝났다. 퀴퀘그는 나를 끌어안고 내 이마에 자기 이마를 댔다. 그리고

불을 끄자 우리는 서로 이쪽저쪽으로 등을 돌리고 누웠고, 곧 잠이 들었다.

제13장 외바퀴 손수레

이튿날 아침, 월요일에 나는 방부 처리한 머리를 이발사에게 가발 받침대로 쓰라고 넘기고 나서, 내 숙박비와 동무의 숙박비를 치렀다. 물론 동무의 돈으로. 히죽거리는 주인도 하숙인들도 나와 퀴퀘그 사이에 갑자기 싹튼 우정을 몹시 우스워하는 것 같았다. 특히 피터 코핀이 앞서 퀴퀘그에 관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아, 지금 내가 함께 다니는 바로 그 사람을 두고 나를 그토록 겁먹게 했으니 더욱 그랬다.

우리는 외바퀴 손수레를 하나 빌려 짐을 실었다. 내 초라한 융단 가방, 퀴퀘그의 범포 자루와 해먹이 다 들어갔다. 그러고는 부두에 매여 있는 낸터킷행 작은 정기 스쿠너선 모스호를 향해 내려갔다.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았는데, 퀴퀘그를 보아서라기보다는(그들은 퀴퀘그 같은 식인종이 자기네 거리를 다니는 것을 흔히 보았다) 그와 내가 그토록 허물없는 사이로 다니는 것을 보아서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번갈아 손수레를 밀며 걸어갔고, 퀴퀘그는 이따금 멈춰 서서 작살 미늘에 씌운 덮개를 바로잡았다. 나는 왜 그렇게 성가신 물건을 뭍에까지 들고 다니느냐고, 포경선은 모두 저마다 작살을 마련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강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넌지시 한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작살에는 특별한 애착이 있다고 했다. 믿을 수 있는 쇠로 만들어 수없이 목숨을 건 싸움에서 단련되었고, 고래의 심장과 깊이 사귄 작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내륙의 많은 추수꾼과 풀 베는 이들이 그럴 의무가 조금도 없는데도 자기 낫을

들고 농부의 풀밭으로 가듯, 퀴퀘그도 그 나름의 사사로운 까닭으로 자기 작살을 더 좋아했다.

손수레를 내 손에서 자기 손으로 넘겨받으며 그는 난생처음 본 외바퀴 손수레에 얽힌 우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새그하버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그의 배 선주들이 무거운 궤짝을 하숙집까지 나르라고 손수레를 하나 빌려준 모양이었다.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사실 그는 손수레를 정확히 어떻게 다루는지 전혀 몰랐다), 퀴퀘그는 궤짝을 손수레에 싣고 단단히 묶은 다음, 손수레를 어깨에 메고 부두를 걸어 올라간다. "아니," 내가 말했다. "퀴퀘그, 그보다는 더 잘 알았어야지. 사람들이 웃지 않았어?"

그러자 그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섬 로코보코 사람들은 혼인 잔치 때 어린 야자열매의 향긋한 물을 짜서 펀치 그릇 같은 커다란 물들인 조롱박에 담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 펀치 그릇이 언제나 잔치가 열리는 엮은 돗자리 한가운데의 가장 큰 장식이 된다. 그런데 한번은 커다란 상선 한 척이 로코보코에 들렀는데, 그 배의 지휘관은 누구 말을 들어 보아도, 적어도 선장치고는 아주 위엄 있고 예법에 깐깐한 신사였다. 이 지휘관이 막 열 살이 된 예쁘고 어린 공주, 곧 퀴퀘그의 누이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혼인 잔치 손님들이 모두 신부의 대나무 오두막에 모이자 이 선장이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상석을 배정받고는 펀치 그릇 바로 맞은편, 대제사장과 퀴퀘그의 아버지인 임금 폐하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식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처럼 식사 기도가 있다. 다만 퀴퀘그 말로는 그런 때에 접시를 내려다보는 우리와 달리 그들은 오히려 오리를 본떠 모든 잔치를 베푸시는 위대한 분을 우러러본다고 한다), 그렇다, 식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섬에서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온 예식을 치러 잔치를 연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음료가 돌기 전에

축성되었으며 축성하는 자기 손가락을 그릇에 담그는 것이다. 자기가 제사장 바로 옆에 앉은 것을 보고, 그 예식을 눈여겨보고, 자기는 배의 선장이니 한낱 섬 임금보다, 그것도 임금 자신의 집에서는 더더욱 윗자리가 뻔하다고 생각한 선장은 태연하게 펀치 그릇에 손을 씻는다. 아마 그것을 커다란 손가락 씻는 그릇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자," 퀴퀘그가 말했다. "너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 사람들 안 웃었냐?"

마침내 뱃삯을 치르고 짐도 무사히 실은 뒤 우리는 스쿠너선 갑판에 섰다. 돛을 올리자 배는 어쿠시넷강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한쪽으로는 뉴베드퍼드가 계단처럼 층층이 거리를 이루며 솟아 있었고, 얼음에 덮인 나무들이 맑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모두 반짝이고 있었다. 부두마다 통 위에 통을 쌓은 거대한 언덕과 산이 쌓여 있었고, 세계를 떠돌던 포경선들이 마침내 무사히 매인 채 나란히 말없이 누워 있었다. 한편 다른 배들에서는 목수와 통장이의 소리가, 송진을 녹이는 불과 대장간 소리와 뒤섞여 들려왔다. 모두 새 항해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더없이 위험하고 긴 항해 하나가 끝나면 그것은 두 번째 항해의 시작일 뿐이고, 두 번째가 끝나면 세 번째가 시작될 뿐이며, 그렇게 영원히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이 땅의 모든 노력은 이렇게 끝이 없다. 아니, 이렇게 견딜 수 없다.

더 탁 트인 물로 나서자 상쾌한 바람이 세차졌다. 작은 모스호는 어린 망아지가 콧김을 내뿜듯 뱃머리에서 재빠른 물거품을 튀겼다. 나는 그 타타르의 공기를 얼마나 깊이 들이마셨던가! 그 통행료 받는 땅을, 노예 같은 발꿈치와 발굽 자국으로 온통 패인 그 흔해 빠진 큰길을 얼마나 걷어차 버렸던가! 그리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바다의 너그러움에 감탄하며 돌아섰다.

같은 물거품 샘에서 퀴퀘그도 나와 함께 들이켜고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 거무스름한 그의 콧구멍이 벌름벌름 부풀었고,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이가 드러났다. 우리는 앞으로, 앞으로 날아갔다. 먼바다로 나서자 모스호는 돌풍에 예를 갖추어, 술탄 앞의 노예처럼 뱃머리를 숙였다 처박았다 했다. 옆으로 기운 채 우리는 옆으로 내달렸고, 밧줄 가닥마다 쇠줄처럼 윙윙 울렸고, 키 큰 두 돛대는 뭍의 회오리바람 속 인도 등나무처럼 휘었다. 곤두박질치는 뱃머리 기움 돛대 곁에 서 있던 우리는 이 휘청거리는 광경에 어찌나 정신이 팔렸던지, 한동안 승객들이 비웃는 눈길을 보내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바다를 모르는 굼뜬 무리였던 그들은 두 사람이 그토록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신기해했다. 백인이 흰 칠을 한 흑인보다 조금이라도 더 위엄 있는 존재라도 되는 듯이. 그러나 거기에는 얼간이와 촌뜨기도 몇 있었는데, 어찌나 풋내가 진하던지 온 푸르름의 한복판 한가운데에서 온 것이 틀림없었다. 퀴퀘그는 이 어린 묘목 가운데 하나가 등 뒤에서 자기 흉내를 내는 것을 잡아냈다. 나는 그 촌뜨기의 마지막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 우람한 야만인은 작살을 떨어뜨리고 녀석을 두 팔로 붙잡더니, 거의 기적 같은 솜씨와 힘으로 녀석을 통째로 공중 높이 던져 올렸다. 그러고는 녀석이 공중제비를 도는 도중에 엉덩이를 살짝 쳐 주었고, 녀석은 숨이 터질 듯 헐떡이며 두 발로 떨어졌다. 그러는 동안 퀴퀘그는 녀석에게 등을 돌리고 손도끼 파이프에 불을 붙여 한 모금 피우라고 내게 건넸다.

"선장님! 선장님!" 촌뜨기가 그 지휘관 쪽으로 달려가며 고함쳤다. "선장님, 선장님, 여기 악마가 있어요."

"이봐, *너* 말이다." 바다의 앙상한 갈비뼈 같은 선장이 퀴퀘그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며 외쳤다. "도대체 무슨 짓이냐? 저 친구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걸 모르느냐?"

"저 사람 뭐라고 한다?" 퀴퀘그가 순하게 내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저 사람 말한다," 나는 아직도 덜덜 떨고 있는 풋내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 저기 저 사람 거의 죽인다고."

"죽인다?" 퀴퀘그는 문신 새긴 얼굴을 일그러뜨려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경멸의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아! 저거 아주 작은 물고기다. 퀴퀘그 그렇게 작은 물고기 안 죽인다. 퀴퀘그 큰 고래 죽인다!"

"잘 들어라." 선장이 고함쳤다. "이 배에서 또 그런 장난을 쳤다간 *너*를 내가 죽인다, 이 식인종아. 그러니 조심해라."

그런데 바로 그때 선장이야말로 조심해야 할 일이 벌어졌다. 큰 돛에 엄청난 힘이 걸려 바람 불어오는 쪽 돛줄이 끊어졌고, 거대한 돛 활대가 이제 이쪽저쪽으로 날아다니며 갑판 뒷부분을 온통 휩쓸고 있었다. 퀴퀘그가 그토록 거칠게 다룬 그 가엾은 친구가 바다로 쓸려 나갔다. 모두 겁에 질렸고, 활대를 붙잡아 멈추려는 것은 미친 짓 같았다. 활대는 시계가 한 번 째깍하는 사이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금방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뱃머리 쪽으로 몰려가서, 활대가 성난 고래의 아래턱이라도 되는 듯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퀴퀘그는 날렵하게 무릎을 꿇더니 활대가 지나가는 길 밑으로 기어가서 밧줄 하나를 휙 붙잡았다. 한쪽 끝을 뱃전에 단단히 묶고 다른 쪽 끝을 올가미 밧줄처럼 던져, 활대가 그의 머리 위로 휩쓸고 지나갈 때 활대에 걸었다. 그리고 다음번 홱 잡아당기자 활대는 그렇게 붙잡혔고, 모든 것이 무사해졌다. 스쿠너선은 바람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고, 선원들이 고물의 보트를 내리려고 서두르는 동안, 허리까지 웃통을 벗은 퀴퀘그가 길게 살아 있는 활 모양으로 뱃전에서 뛰어내렸다. 3분 남짓 동안 그는 개처럼 헤엄치며 긴 두 팔을 앞으로 곧게 뻗었고, 얼어붙을 듯한 물거품 사이로 우람한 어깨를 번갈아 드러냈다. 나는 그 위대하고 빛나는 친구를 바라보았지만, 구해야 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풋내기는 가라앉아 버린 것이다. 물 위로 몸을 곧게 솟구친 퀴퀘그는 잠깐 주위를

둘러보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꼭 알아챈 듯, 물속으로 잠수하여 사라졌다. 몇 분이 더 지나자 그는 다시 떠올랐는데, 한 팔로는 여전히 물을 헤치고 다른 한 팔로는 축 늘어진 몸 하나를 끌고 있었다. 곧 보트가 그들을 건져 올렸다. 가엾은 촌뜨기는 다시 살아났다. 모든 선원이 퀴퀘그를 멋진 사나이라고 치켜세웠고, 선장은 그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 시각부터 나는 따개비처럼 퀴퀘그에게 달라붙었다. 그렇다, 가엾은 퀴퀘그가 마지막 긴 잠수를 할 때까지.

이토록 자기를 모를 수가 있을까? 그는 자기가 인도주의 협회나 자선 협회의 메달을 받을 만하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물을, 민물을 달라고 했을 뿐이다. 소금기를 닦아 낼 무언가를. 그 일을 마치자 그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는, 뱃전에 기대어 주위 사람들을 순하게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어느 자오선에서나 세상은 서로 돕는 합자 회사다. 우리 식인종이 이 기독교인들을 도와야 한다."

제14장 낸터킷

뱃길에는 더 적어 둘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순조롭게 달려서 우리는 무사히 낸터킷에 닿았다.

낸터킷! 지도를 꺼내 보라. 그 섬이 얼마나 참된 세상의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에디스톤 등대보다 더 외롭게 저기 서 있는 모습을 보라. 보라, 고작 작은 둔덕 하나, 팔꿈치처럼 굽은 모래톱 하나다. 온통 모래밭이고 뒤에 받쳐 주는 땅이 없다. 압지 대신 모래를 뿌려 쓴다 해도 스무 해 동안 다 못 쓸 만큼 모래가 많다. 장난기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거기서는 잡초도 저절로 자라지 않아서 일부러 심어야 하고, 캐나다 엉겅퀴를 들여온다고, 기름통에 샌 구멍을 막을 나무 마개 하나를 구하려 해도 바다 건너로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낸터킷에서는 나뭇조각을 로마에서 참십자가 조각을 모시고 다니듯 들고 다닌다고, 그곳 사람들은 여름에 그늘에 들어가려고 집 앞에 독버섯을 심는다고, 풀잎 하나면 오아시스가 되고 하루 걸어서 풀잎 세 개를 보면 대초원이라고, 그들은 라플란드 사람의 눈신 비슷한 모래 신을 신고 다닌다고, 그들은 바다에 갇히고 둘러싸이고 사방으로 막히고 에워싸여 완전한 섬사람이 되어 버린 나머지 바다거북 등에 붙듯이 의자와 식탁에까지 이따금 작은 조개가 들러붙어 있다고. 그러나 이런 허풍이 보여 주는 것은 낸터킷이 일리노이가 아니라는 것뿐이다.

이제 인디언들이 이 섬에 처음 자리 잡은 경위를 전하는 놀라운 옛이야기를 보라. 전설은 이렇다. 옛날 옛적에 독수리 한 마리가

뉴잉글랜드 해안으로 내리꽂혀 인디언 젖먹이 하나를 발톱에 움켜쥐고 날아갔다. 부모는 목 놓아 울며 아이가 넓은 바다 너머로 실려 가 보이지 않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같은 쪽으로 뒤쫓아 가기로 했다. 카누를 타고 길을 떠난 그들은 위험한 뱃길 끝에 섬 하나를 찾아냈고, 거기서 텅 빈 상아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가엾은 어린 인디언의 해골이었다.

그러니 모래밭에서 태어난 이 낸터킷 사람들이 바다에서 밥벌이를 찾았다 한들 무엇이 놀라운가! 그들은 처음에는 모래밭에서 게와 쿼호그 대합을 잡았고, 더 대담해지자 그물을 들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고등어를 잡았고, 더 익숙해지자 보트를 띄워 대구를 잡았으며, 마침내 큰 배들로 함대를 꾸려 바다에 띄우고는 이 물의 세계를 탐험했고, 그 둘레에 쉼 없는 세계 일주의 띠를 둘렀고, 베링 해협을 기웃거렸고, 어느 계절 어느 바다에서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가장 힘센 살아 있는 덩어리, 가장 괴물 같고 가장 산 같은 그것에게 영원한 전쟁을 선포했다! 저 히말라야 같은 짠물 바다의 마스토돈, 제 힘을 모르는 힘을 그토록 불길하게 두른 나머지 그것이 놀라 날뛰는 것이 겁 없고 악의에 찬 공격보다 더 무서운 그 짐승에게!

그리하여 이 벌거숭이 낸터킷 사람들, 이 바다의 은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개미 언덕에서 쏟아져 나와 수많은 알렉산드로스처럼 물의 세계를 휩쓸고 정복했다. 세 해적 열강이 폴란드를 나눠 가졌듯 대서양과 태평양과 인도양을 저희끼리 나눠 가졌다. 미국은 텍사스에 멕시코를 보태고 캐나다 위에 쿠바를 쌓으라지. 영국 사람들은 온 인도를 뒤덮고 해에 저희의 불타는 깃발을 내걸라지. 이 물과 뭍으로 된 지구의 삼분의 이는 낸터킷 사람의 것이다. 바다는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황제가 제국을 다스리듯 그는 바다를 다스리고, 다른 뱃사람들은 그 바다를 지나갈 통행권만 있을 뿐이다. 상선은 이어 놓은

다리일 뿐이고 군함은 떠다니는 요새일 뿐이다. 해적과 사략선마저도, 노상강도가 길을 따라다니듯 바다를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저희와 마찬가지로 뭍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 다른 배들을 약탈할 뿐, 바닥 모를 깊은 바다 그 자체에서 살길을 얻으려 하지는 않는다. 낸터킷 사람, 오직 그만이 바다에 살며 바다에서 흥청거리고, 오직 그만이 성경 말씀대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 그 바다를 제 농장인 양 이리저리 갈아엎는다. *거기*가 그의 집이고 *거기*에 그의 일터가 있으며, 그 일은 노아의 홍수가 와서 중국의 수백만 사람을 다 덮친다 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초원뇌조가 초원에 살듯 바다에 산다. 그는 물결 사이에 숨고, 샤무아 사냥꾼이 알프스를 오르듯 물결을 타고 오른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뭍을 모르고 지내므로, 마침내 뭍에 닿으면 그 뭍에서는 다른 세상 냄새가 나는데, 지구 사람에게 달이 풍길 냄새보다 더 낯설다. 뭍이 없는 갈매기가 해 질 녘 날개를 접고 물결 사이에서 흔들리며 잠들듯, 낸터킷 사람도 밤이 오면 뭍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돛을 말아 접고 몸을 눕혀 쉬는데, 그동안 바로 그의 베개 밑으로는 바다코끼리 떼와 고래 떼가 몰려 지나간다.

제15장 차우더

작은 모스호가 아늑하게 닻을 내리고 퀴퀘그와 내가 뭍에 오른 것은 저녁도 꽤 늦어서였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볼일도 볼 수 없었고, 볼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녁 한 끼와 잠자리뿐이었다. 물 뿜는 고래 여인숙 주인은 트라이팟 여관을 하는 제 사촌 호세아 허시에게 우리를 소개해 주면서, 그가 낸터킷을 통틀어 가장 잘 꾸린 여관 가운데 하나의 주인이라고 장담했고, 게다가 그가 호세아 사촌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차우더로 이름났다고 우리에게 다짐해 두었다. 한마디로, 트라이팟 여관에 가서 그 집 솥에 든 대로 한 끼 운을 걸어 보는 것보다 나은 수는 도무지 없다고 대놓고 귀띔한 셈이었다. 그러나 그가 일러 준 길은 이랬다. 노란 창고를 우현에 두고 가다가 좌현으로 흰 교회가 트이면, 이번에는 그 교회를 좌현에 두고 가다가 나침반 세 눈금만큼 우현으로 꺾인 모퉁이에 이르고, 그러고 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 집이 어디냐고 물으라고 했다. 이 꼬불꼬불한 길 안내에 우리는 처음에 몹시 어리둥절했는데, 특히 길을 나서자마자 퀴퀘그가 노란 창고, 곧 우리의 첫 출발점을 좌현에 두어야 한다고 우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피터 코핀이 그것을 우현에 두라고 한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말이다. 그래도 어둠 속에서 조금 갈팡질팡 헤매고, 이따금 얌전히 자는 주민을 두드려 깨워 길을 묻고 한 끝에, 우리는 마침내 잘못 볼 리 없는 무언가에 이르렀다.

검게 칠한 커다란 나무 솥 두 개가 당나귀 귀 모양 손잡이로 낡은 중간 돛대의 가로장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고, 그 돛대는 낡은 문간 앞에 박혀 있었다. 가로장의 다른 쪽 뿔은 톱으로 잘려 나가서, 이 낡은 중간 돛대는 적잖이 교수대 같아 보였다. 어쩌면 그때 내가 그런 인상에 지나치게 예민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막연한 불안을 품고 이 교수대를 빤히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은 두 뿔을 올려다보노라니 목이 뻐근하게 결렸다. 그렇다, 두 개였다, 하나는 퀴퀘그 몫, 하나는 내 몫으로. 불길하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내 첫 포경 항구에 내리자 여인숙 주인은 관(코핀)이었고, 포경선원 예배당에서는 비석들이 나를 노려보았고, 여기서는 교수대다! 거기에 엄청나게 큰 검은 솥 한 쌍까지! 이 마지막 것들은 지옥 도벳을 넌지시 비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던 나를 깨운 것은 주근깨투성이 여자 하나였다. 노란 머리에 노란 옷을 입은 그 여자는 여관 현관에서, 다친 눈알처럼 보이는 칙칙한 붉은 등불이 흔들리는 그 아래 서서, 자줏빛 털셔츠를 입은 사내를 매섭게 꾸짖고 있었다.

"썩 꺼져요." 여자가 사내에게 말했다. "안 그러면 머리를 빗겨 줄 테니!"

"가자, 퀴퀘그." 내가 말했다. "됐어. 저기 허시 부인이 있어."

정말 그랬다. 호세아 허시 씨는 집을 비우면서, 그의 일을 모조리 너끈히 맡아볼 허시 부인을 남겨 두었다. 우리가 저녁과 잠자리를 바란다고 알리자 허시 부인은 꾸짖기를 잠시 미루고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하더니, 방금 끝난 식사의 찌꺼기가 널린 식탁에 우리를 앉히고 우리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조개요, 대구요?"

"대구가 어쨌다는 말이오, 부인?" 내가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조개요, 대구요?" 부인이 되풀이했다.

"저녁으로 조개 하나? 차디찬 조개 하나, *그런* 말씀이오, 허시 부인?" 내가 말했다. "그거야 겨울철에 받기에는 좀 차갑고 조갯살처럼 끈적한 대접 아니오, 허시 부인?"

그러나 문간에서 꾸지람을 기다리고 있는 자줏빛 셔츠의 사내를 다시 꾸짖으러 가느라 몹시 서두르던 허시 부인은 「조개」라는 말밖에 듣지 못한 듯, 부엌으로 통하는 열린 문 쪽으로 서둘러 가며 「조개 둘이오」 하고 외치고는 사라졌다.

"퀴퀘그." 내가 말했다. "조개 하나로 우리 둘이 저녁을 때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부엌에서 풍겨 오는 따뜻하고 맛있는 김이 우리 앞에 놓인 듯하던 쓸쓸한 전망이 틀렸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김이 피어오르는 차우더가 들어오자 그 수수께끼는 기분 좋게 풀렸다. 오, 다정한 벗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라. 그것은 개암보다 크지 않은 즙 많은 작은 조개에, 빻은 건빵과 잘게 저민 소금 절인 돼지고기를 섞고, 거기에 버터를 듬뿍 넣고 후추와 소금으로 넉넉히 간한 것이었다. 얼어붙을 듯한 뱃길에 우리 입맛은 날이 서 있었고, 특히 퀴퀘그는 좋아하는 물고기 음식을 눈앞에 두었고, 차우더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해서, 우리는 그것을 순식간에 해치웠다. 그러다 잠깐 몸을 뒤로 젖히고 허시 부인의 「조개요, 대구요」 하던 말을 떠올린 나는 작은 실험을 하나 해 보기로 했다. 부엌 문으로 다가가 「대구」라는 말을 힘주어 외치고는 자리로 돌아왔다. 몇 분 지나자 맛있는 김이 다시 풍겨 나왔는데 이번에는 냄새가 달랐고, 이윽고 훌륭한 대구 차우더가 우리 앞에 놓였다.

우리는 다시 일에 매달렸다. 그릇 속에 숟가락을 부지런히 놀리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머리에 무슨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차우더

대가리라고,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는 그 말이 뭐였더라? "그런데 봐, 퀴퀘그, 네 그릇에 든 거 살아 있는 뱀장어 아니야? 네 작살 어디 있어?"

트라이팟 여관은 물고기 냄새 나는 곳 가운데서도 가장 물고기 냄새가 짙은 곳이었고,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그곳의 솥에서는 언제나 차우더가 끓고 있었으니까. 아침에도 차우더, 점심에도 차우더, 저녁에도 차우더, 그러다 보면 옷을 뚫고 생선 가시가 삐져나오지 않나 살피게 될 지경이었다. 집 앞마당에는 조개껍데기가 깔려 있었다. 허시 부인은 대구 등뼈를 반들반들하게 닦아 만든 목걸이를 걸었고, 호세아 허시는 장부를 최고급 묵은 상어 가죽으로 장정해 두었다. 우유에서도 비린 맛이 났는데, 나는 그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다가, 어느 날 아침 바닷가를 따라 어부들의 보트 사이를 거닐다가 호세아네 얼룩소가 생선 찌꺼기를 먹고, 네 발마다 머리 잘린 대구 대가리를 하나씩 신고 모래밭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꼭 슬리퍼를 질질 끄는 꼴이었다. 정말이다.

저녁을 마치자 우리는 등잔 하나를 받고, 허시 부인에게 잠자리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일러 받았다. 그런데 퀴퀘그가 나보다 먼저 계단을 오르려 하자 그 부인은 팔을 뻗어 그의 작살을 내놓으라고 했다. 자기 방에는 작살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 "어째서 안 된다는 거요?" 내가 말했다. "진짜 포경선원은 누구나 작살을 끼고 자는데. 그런데 어째서 안 된다는 거요?" "위험하니까요." 부인이 말했다. "젊은 스티그스가 그 운수 사나운 뱃길에서 돌아온 뒤로 말이에요, 네 해 반이나 나가 있었는데 *기름*이라곤 고작 세 통을 가져왔지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일층 뒷방에서 옆구리에 작살이 박힌 채 죽어 있는 게 발견된 뒤로 말이에요, 그 뒤로 나는 하숙인들이 밤에 그런 위험한 무기를 방에 들고 가게 두지 않아요. 그러니 퀴퀘그 씨." (부인은 그의 이름을 알아 두었다) "이 쇠는

내가 받아서 아침까지 맡아 둘게요. 그런데 차우더 말인데요. 내일 아침은 조개로 할까요, 대구로 할까요, 총각들?"

"둘 다 주시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색다르게 훈제 청어도 두어 마리 주시오."

제16장 배

잠자리에 누워 우리는 이튿날 계획을 짰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적잖이 걱정스럽게도, 퀴퀘그는 이제 이런 뜻을 내게 알렸다. 자기가 요조, 곧 그의 작고 검은 신의 이름인데, 그 요조에게 부지런히 뜻을 물었더니, 요조가 두세 번이나 거듭 일렀고 온갖 말로 힘주어 우겼다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항구에 있는 포경 선단 사이를 돌아다니며 같이 배를 고르는 대신,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배를 고르는 일은 오로지 나에게 맡겨야 한다고 요조가 간곡히 명했다는 것이다. 요조는 우리를 도와줄 작정이고, 그러려고 이미 배 한 척을 점찍어 두었으니, 나 이슈메일이 혼자 돌아다니면 꼭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틀림없이 그 배를 만나게 되리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당분간 퀴퀘그와 상관없이 곧바로 그 배에 선원으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미처 말하지 못했는데, 퀴퀘그는 여러 일에서 요조의 뛰어난 판단력과 놀라운 앞날 내다보기를 크게 믿었고, 요조를 꽤 괜찮은 신, 대체로 좋은 뜻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착한 계획을 늘 이루지는 못하는 신으로 여기며 상당히 우러러 받들었다.

그런데 배를 고르는 일에 관한 퀴퀘그의, 아니 요조의 이 계획이 나는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우리와 우리의 운명을 무사히 실어 나르기에 가장 알맞은 포경선을 퀴퀘그가 영리하게 골라 주리라고 적잖이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따져도 퀴퀘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으므로 나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하찮은 일을

얼른 해치울 만큼 단호하게 몰아치는 기세와 힘으로 일에 나서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나는 우리의 작은 침실에 퀴퀘그를 요조와 함께 들어앉혀 두었다. 그날은 퀴퀘그와 요조에게 일종의 사순절이나 라마단, 곧 금식하고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날인 것 같았다. 그것이 *어떻게* 된 날인지 나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는데, 여러 번 파고들어 보았지만 그의 전례와 39개 신조를 도무지 익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렇게 퀴퀘그는 도끼 파이프를 앞에 두고 금식하고 요조는 대팻밥으로 피운 제물의 불을 꼬게 남겨 두고서, 나는 배들 사이로 나섰다. 한참을 어슬렁거리며 여기저기 아무에게나 물어본 끝에 나는 삼 년 항해를 떠날 배가 세 척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악마의 어미호, 맛난 한입호, 피쿼드호였다. *악마의 어미*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맛난 한입*은 뻔하고, *피쿼드*는 독자도 틀림없이 기억하겠지만 매사추세츠 인디언의 이름난 부족 이름으로, 그 부족은 이제 옛 메디아 사람들처럼 사라지고 없다. 나는 악마의 어미호를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들여다보았고, 거기서 맛난 한입호로 깡충 건너갔다가, 마지막으로 피쿼드호에 올라 잠시 둘러보고는 바로 이 배가 우리 배라고 정했다.

독자도 살면서 별난 배를 숱하게 보았을지 모른다. 뱃머리가 네모진 러거선, 산더미 같은 일본 정크선, 버터 상자 같은 갤리엇선, 그 밖에 무엇이든. 그러나 내 말을 믿으라. 이 진기하고 오래된 피쿼드호만큼 진기하고 오래된 배는 결코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옛 방식대로 지은 배였고, 굳이 말하자면 좀 작은 편이었으며, 옛날 가구처럼 짐승 발톱 모양 다리를 단 듯한 모습이었다. 네 대양의 태풍과 무풍 속에서 오래 시달리고 비바람에 얼룩진 그 늙은 선체의 낯빛은 이집트에서도 시베리아에서도 싸운 프랑스 척탄병의 얼굴처럼 검게 그을어 있었다. 그 덕망 높은 뱃머리는 수염이 난 것처럼 보였다. 돛대들은, 원래 있던 돛대들을 강풍에 바다로 잃고 나서 일본 해안 어딘가에서 베어 온

것인데, 쾰른의 늙은 세 왕의 등뼈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다. 오래된 갑판은 닳고 주름져서, 베켓이 피 흘린 캔터베리 대성당의 순례자들이 경배하는 판석 같았다. 그러나 이 모든 오래된 골동품 같은 모습에, 반세기 넘게 이 배가 해 온 거친 일에 걸맞은 새롭고 놀라운 생김새가 보태져 있었다. 늙은 펠레그 선장은 제 배를 따로 맡기 전에 여러 해 동안 이 배의 일등 항해사였고, 지금은 은퇴한 뱃사람이자 피쿼드호의 주요 선주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늙은 펠레그가 일등 항해사로 있던 동안에 배가 원래 지닌 괴상한 모양 위에 재료로 보나 솜씨로 보나 기묘한 장식을 덧대고 온 데를 상감해 놓았으니, 그에 견줄 것이라고는 토르킬 하케의 조각한 방패나 침대 말고는 없을 것이다. 배는 반들반들하게 닦은 고래 이빨 장식을 목에 무겁게 늘어뜨린 야만스러운 에티오피아 황제처럼 차려입고 있었다. 그것은 전리품 덩어리였다. 원수들의 뼈에 무늬를 새겨 몸을 꾸민 식인종 같은 배였다. 판자를 대지 않고 탁 트인 뱃전에는 빙 둘러, 이어진 턱 하나처럼, 향유고래의 길고 날카로운 이빨이 박혀 있었는데, 그 이빨은 배의 낡은 삼밧줄 힘줄과 인대를 매어 두는 말뚝 노릇을 했다. 그 힘줄들은 뭍의 나무로 만든 천한 도르래 틀을 지나지 않고, 바다의 상아라 할 고래뼈로 만든 도르래 바퀴 위를 솜씨 좋게 지나갔다. 그 거룩한 키 자리에는 돌리는 타륜 따위는 업신여기고 키 손잡이를 뽐내며 달고 있었는데, 그 키 손잡이는 대대로 이어 온 원수의 길고 좁은 아래턱뼈를 통째로 기묘하게 깎아 만든 것이었다. 폭풍 속에서 그 키 손잡이를 잡고 배를 모는 키잡이는 불같은 말의 턱을 움켜쥐고 고삐를 당기는 타타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고귀한 배였지만, 어쩐지 더없이 우울한 배였다! 고귀한 것은 모두 그 우울에 닿아 있다.

그런데 항해에 지원하려고 뒷갑판에서 권한 있는 사람을 찾아 둘러보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큰 돛대 조금 뒤에

세워 둔 이상한 천막, 아니 인디언 오두막 같은 것을 못 보고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것은 항구에서만 쓰는 임시 구조물인 것 같았다. 원뿔 모양에 높이는 10피트쯤이었고, 참고래 턱의 가운데 가장 높은 부분에서 떼어 낸 길고 거대한 검은 고래수염 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판들은 넓은 쪽 끝을 갑판에 박고 빙 둘러 서로 얽어매어 서로를 향해 기울어졌고, 꼭대기에서 술 장식처럼 한데 모였는데, 거기서 느슨한 털 같은 섬유가 어느 늙은 포타와토미족 추장의 머리 꼭대기 상투처럼 이리저리 나부꼈다. 세모난 입구가 뱃머리 쪽으로 나 있어서 안에 있는 사람은 앞쪽을 훤히 내다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기묘한 거처에 몸을 반쯤 숨기고 있는 사람을 마침내 찾아냈는데, 생김새로 보아 권한이 있는 사람 같았다. 마침 정오라서 배의 일이 멈춘 참이라, 그는 지휘하는 짐을 내려놓고 쉬고 있었다. 그는 기묘한 조각이 온통 꿈틀거리는 구식 참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 바닥은 오두막을 지은 것과 같은 탄력 있는 재료를 튼튼하게 엮어 만든 것이었다.

내가 본 그 나이 지긋한 사내의 겉모습에는 어쩌면 그리 특별한 점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늙은 뱃사람이 그렇듯 그는 볕에 그을고 우람했으며, 퀘이커 교도풍으로 지은 파란 수로 안내인 모직 옷을 겹겹이 두껍게 껴입고 있었다. 다만 눈가에는 아주 가늘고 현미경으로나 보일 만한 잔주름이 촘촘한 그물처럼 얽혀 있었는데, 숱한 거센 강풍 속을 쉼 없이 항해하며 늘 바람 불어오는 쪽을 바라본 탓에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게 하면 눈가의 근육이 오므라들기 때문이다. 그런 눈주름은 얼굴을 찌푸릴 때 아주 효과가 좋다.

"이분이 피쿼드호의 선장이십니까?" 천막 입구로 다가가며 내가 말했다.

"이 사람이 피쿼드호 선장이라 치세, 자네는 선장한테서 무얼 바라나?" 그가 다그쳤다.

"배를 탈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단 말인가, 그랬어? 보아하니 낸터킷 사람은 아니로군. 박살 난 보트에 타 본 적은 있나?"

"아뇨, 선장님, 없습니다."

"포경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안 그런가? 응?"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장님. 하지만 곧 배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선은 여러 번 타 보았으니, 제 생각에는……"

"상선 따위는 지옥에나 가라지. 그따위 말을 내 앞에서 지껄이지 말게. 이 다리 보이나? 또 한 번 내 앞에서 상선 이야기를 했다가는 이 다리로 자네 엉덩이를 걷어차 버릴 테니. 상선이라니, 참! 자네는 지금 그 상선을 탔다고 꽤나 우쭐한 모양이로군. 그런데 제기랄! 이 사람아, 무엇 때문에 포경을 하러 가고 싶다는 건가, 응? 좀 수상쩍지 않은가, 응? 해적질을 한 적은 없겠지, 응? 전에 모시던 선장을 털지는 않았겠지? 바다에 나가면 항해사들을 죽일 궁리를 하는 건 아니겠지?"

나는 그런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굳게 말했다. 반쯤 농담 섞인 이런 빈정거림의 탈 아래에서, 이 늙은 뱃사람이 세상과 떨어져 사는 퀘이커풍의 낸터킷 사람으로서 섬사람다운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케이프코드나 마서스비니어드 출신이 아니면 바깥사람은 누구든 꽤나 미덥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나는 알아보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포경을 하러 가나? 자네를 태울지 생각하기 전에 그걸 알아야겠네."

"그게, 선장님, 포경이 어떤 것인지 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포경이 어떤 건지 보고 싶다, 응? 에이해브 선장은 눈으로 본 적 있나?"

"에이해브 선장이 누굽니까, 선장님?"

"그렇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았네. 에이해브 선장은 이 배의 선장이야."

"그럼 제가 잘못 알았군요. 저는 선장님과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네는 펠레그 선장과 이야기하고 있네. 자네가 이야기하는 상대는 그 사람이야, 젊은이. 피쿼드호가 항해 채비를 갖추고 선원을 비롯해 필요한 것을 다 갖추게 하는 일은 나와 빌대드 선장이 맡고 있지. 우리는 선주이자 대리인이네. 그런데 내가 하려던 말은, 자네 말대로 포경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면, 되돌릴 수 없게 몸을 묶어 버리기 전에 그걸 알아낼 길을 내가 일러 줄 수 있다는 걸세. 에이해브 선장을 눈으로 한번 보게, 젊은이. 그러면 그 사람 다리가 하나뿐이라는 걸 알게 될 걸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장님? 다른 다리는 고래한테 잃었습니까?"

"고래한테 잃었냐고! 젊은이, 이리 가까이 오게. 그 다리는 보트를 쪼개 놓은 놈 가운데 가장 괴물 같은 향유고래 놈한테 먹히고, 씹히고, 으스러졌네! 아아, 아아!"

나는 그의 기세에 조금 놀랐고, 어쩌면 마지막 외침에 담긴 진심 어린 슬픔에 조금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되도록 침착하게 말했다. "선장님 말씀이야 틀림없이 맞겠지요. 하지만 그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만큼은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그 고래가 유난히 사나운 놈인 줄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 보게, 젊은이, 자네 허파는 좀 물렁하구먼, 알겠나. 상어 말은 조금도 할 줄 모르는군. 자네 *정말*로 전에 바다에 나가 본 적이 있나, 확실한가?"

"선장님." 내가 말했다. "상선으로 네 번 항해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말에서 키 꺾어 빠져나오게! 상선 이야기를 두고 내가 한 말을 명심하게. 날 약 올리지 말게. 그런 말은 못 참네. 아무튼 서로 분명히 해 두세. 포경이 어떤 건지 내가 자네에게 귀띔해 주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고 싶은가?"

"하고 싶습니다, 선장님."

"아주 좋아. 그럼 자네는 살아 있는 고래 목구멍에 작살을 내리꽂고 그 뒤를 따라 뛰어들 사람인가? 대답하게, 얼른!"

"그렇습니다, 선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럴 일이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또 좋아. 그럼 이제, 자네는 포경이 어떤 건지 겪어서 알아보려고 포경을 하러 가고 싶을 뿐 아니라 세상을 보려고도 가고 싶다는 거지? 자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런 줄 알았네. 그럼 저 앞으로 가서 바람 불어오는 쪽 뱃머리 너머를 한번 내다보고, 내게 돌아와서 거기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 보게."

이 별난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몰라 나는 잠시 좀 어리둥절해 서 있었다. 그러나 펠레그 선장이 눈가의 잔주름을 모조리 그러모아 한 번 찡그리자, 나는 심부름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가서 바람 불어오는 쪽 뱃머리 너머를 흘끗 보니, 밀물에 닻을 중심으로 돌던 배가 이제 비스듬히 탁 트인 바다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전망은 끝이 없었지만, 더없이 단조롭고 으스스했다. 내가 볼 수 있는 한 조금도 달라지는 데가 없었다.

"그래, 보고는 어떤가?" 내가 돌아오자 펠레그가 말했다. "무엇이 보였나?"

"별것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물밖에 없었습니다. 수평선은 꽤 넓던데요. 그리고 돌풍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세상을 보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세상을 더 보려고 혼곶을 돌아가고 싶은가, 응? 자네가 선 자리에서 세상을 볼 수 없단 말인가?"

나는 조금 휘청했지만, 포경은 하러 가야 했고 가고야 말 생각이었다. 그리고 피쿼드호는 어느 배 못지않게 좋은 배였고, 내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배였다. 나는 이 모든 말을 이제 펠레그에게 되풀이했다. 내가 그토록 단단히 마음먹은 것을 보자 그는 나를 태워 주겠다고 했다.

"그럼 당장 서류에 서명하는 게 좋겠네." 그가 덧붙였다. "따라오게." 그러고는 앞장서서 갑판 밑 선장실로 내려갔다.

선미 가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 더없이 별나고 놀라운 모습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빌대드 선장이었는데, 펠레그 선장과 더불어 그 배의 가장 큰 선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나머지 지분은 이런 항구에서 이따금 그렇듯 연금으로 사는 숱한 노인들, 과부와 아비 없는 아이와 법원의 피후견인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저마다 배의 뱃전 기둥 하나나 판자 1피트, 못 한두 개 값어치쯤을 가진 셈이었다. 낸터킷 사람들은 포경선에 돈을 넣는데, 독자가 이자가 좋은 믿을 만한 국채에 돈을 넣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빌대드는 펠레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실은 다른 많은 낸터킷 사람과 마찬가지로 퀘이커 교도였다. 처음에 그 종파 사람들이 섬에 정착했기 때문인데, 오늘날까지도 그곳 주민들은 대체로 퀘이커 교도의 특성을 남다를 만큼 간직하고 있다. 다만 전혀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 때문에 여러 갈래로 별나게 바뀌었을 뿐이다. 이 퀘이커 교도 가운데 어떤 이들은 모든 뱃사람과 고래 사냥꾼 가운데 가장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싸우는 퀘이커 교도이고, 지독하기 짝이 없는 퀘이커 교도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성경 속 이름을 받고(이 섬에서는 유난히 흔한 일이다), 어려서부터 퀘이커 말투의 위엄 있고 극적인 「그대」와 「자네」를 저절로 몸에 익혔으면서도, 그 뒤 대담하고 겁 없고 끝없는 모험의 삶을 살면서,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한 이런 특성에 스칸디나비아의 바다 왕이나 시적인 이교도 로마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을 천 가지 대담한 성격의 붓질을 묘하게 버무리는 사람들 말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타고난 힘이 남달리 뛰어나고 둥근 두뇌와 묵직한 심장을 지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로 합쳐질 때, 게다가 그가 가장 먼 바다에서, 이곳 북쪽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별자리 아래에서, 기나긴 밤 당직을 수없이 서며 그 고요와 외로움 속에서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생각하게 되었고, 자연이 주는 달콤하거나 사나운 인상을 자연 그 자체의 순결하고 스스로 우러나며 믿고 내어 주는 가슴에서 갓 받아들였으며, 그리하여 주로 그 덕에, 그러나 우연히 얻은 이점의 도움도 조금 받아, 대담하고 힘차며 드높은 말을 익히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은 온 나라 인구 조사에서 하나뿐인 사람이 된다. 고귀한 비극을 위해 빚어진, 장엄한 구경거리 같은 인물이 된다. 그리고 극의 눈으로 보자면, 그가 타고나서든 다른 사정으로든 본성의 밑바닥에 반쯤 제 뜻으로 모든 것을 짓누르는 병적인 무언가를 품은 듯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의 값어치가 조금도 깎이지는 않을 것이다. 비극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모두 어떤 병적인 것을 통해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오, 젊은 야망이여, 이것을 확실히 알아 두라.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의 위대함은 모두 병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다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래도 별나기는 별난 사람인데, 그

별남 역시 퀘이커 교도의 또 다른 면이 그 사람 나름의 사정에 따라 바뀌어 생겨난 것일 뿐이다.

빌대드 선장은 펠레그 선장처럼 살림이 넉넉한 은퇴한 포경선원이었다. 그러나 펠레그 선장은 이른바 진지한 일이라는 것을 갈대 한 줄기만큼도 여기지 않았고 실은 바로 그 진지한 일들을 하찮은 것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겼지만, 빌대드 선장은 그와 달리 처음에 낸터킷 퀘이커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에 따라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뒤 바다에서 보낸 온 생애도, 혼곶 너머에서 본 옷도 걸치지 않은 사랑스러운 섬 처녀들의 모습도, 그 모든 것이 이 토박이 퀘이커 교도를 눈곱만큼도 움직이지 못했고 그의 조끼 모서리 하나도 바꾸어 놓지 못했다. 그러나 이토록 변함이 없는데도 훌륭한 빌대드 선장에게는 보통 사람이 지키는 앞뒤의 일관성 같은 것이 얼마쯤 모자랐다. 그는 양심에 걸린다며 뭍으로 쳐들어오는 침략자에게 무기를 드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몸소 대서양과 태평양을 끝없이 침략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에는 맹세한 원수이면서도, 몸에 꼭 맞는 곧은 외투를 입은 채 리워야단의 피를 몇 톤이고 몇 톤이고 쏟았다. 경건한 빌대드가 생각에 잠기는 생애의 저녁에 이르러 지난날을 돌이키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추어 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았고, 아마도 오래전에 사람의 종교는 종교이고 이 실제 세상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슬기롭고 분별 있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세상은 배당금을 준다. 더없이 칙칙한 회갈색 짧은 옷을 입은 꼬마 선실 급사에서 시작해, 청어 배처럼 불룩한 넓은 조끼를 입은 작살잡이가 되고, 거기서 보트장, 일등 항해사, 선장이 되고, 마침내 선주가 되기까지 올라선 빌대드는, 앞서 넌지시 말했듯, 예순이라는 좋은 나이에 일하는 삶에서 깨끗이 물러나 모험으로 가득한 이력을

마무리하고, 남은 날을 제 힘으로 번 수입을 조용히 받는 데 바치고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빌대드는 고칠 수 없는 늙은 구두쇠라는 평판이 있었고, 바다를 다니던 시절에는 모질고 가혹한 감독이었다는 평판도 있었다. 낸터킷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확실히 별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가 늙은 캐터걷호라는 포경선을 타고 다닐 때 그 배의 선원들은 집에 돌아오면 거의 다 녹초가 되고 기진맥진해서 병원으로 실려 갔다고 한다. 경건한 사람치고는, 특히 퀘이커 교도치고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는 분명 꽤나 모진 사람이었다. 그래도 그가 선원들에게 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들 했다. 그러나 어찌 된 셈인지 그는 그들에게서 지나칠 만큼 엄청난 양의 잔인하고 누그러뜨림 없는 고된 일을 짜냈다. 빌대드가 일등 항해사였을 때, 그의 칙칙한 회갈색 눈이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면 사람은 신경이 곤두서서 견딜 수가 없었고, 망치든 밧줄 꼬챙이든 무언가를 움켜쥐고 무엇이든 상관없이 미친 듯이 일에 달려들어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게으름과 빈둥거림은 그 앞에서 죽어 없어졌다. 그의 몸은 그 실용적인 성격을 그대로 빼닮았다. 길고 앙상한 몸에 군살 하나 없었고, 쓸데없는 수염 하나 없었으며, 턱에는 부드럽고 아껴 쓴 듯한 짧은 털이 나 있었는데, 그의 챙 넓은 모자에 닳아 남은 보풀 같았다.

내가 펠레그 선장을 따라 선장실로 내려갔을 때 선미 가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갑판 사이 공간은 좁았다. 거기에 늙은 빌대드가 꼿꼿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늘 그렇게 앉았고 결코 기대지 않았는데, 외투 자락을 아끼려고 그랬다. 챙 넓은 모자는 옆에 놓여 있었고, 다리는 뻣뻣하게 꼬았으며, 칙칙한 회갈색 옷은 턱밑까지 단추를 채웠고, 코에 안경을 걸친 채 묵직한 책 한 권을 읽는 데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빌대드." 펠레그 선장이 외쳤다. "또 그건가, 빌대드, 응? 자네가 그 성경을 파고든 지 지난 서른 해가 됐다는 건 내가 확실히 아네. 어디까지 읽었나, 빌대드?"

옛 동료의 이런 불경스러운 말에 오래 길이 든 듯, 빌대드는 이번 무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가, 나를 보고는 무슨 일이냐는 듯 다시 펠레그 쪽을 흘끗 보았다.

"이 친구가 우리 배 사람이 되겠다네, 빌대드." 펠레그가 말했다. "배를 타고 싶다는군."

"자네가 그러겠다는 건가?" 빌대드가 공허한 목소리로 말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겠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 버렸다. 그만큼 그는 지독한 퀘이커 교도였다.

"이 친구를 어떻게 보나, 빌대드?" 펠레그가 말했다.

"쓸 만하겠네." 빌대드가 나를 훑어보며 말하고는, 다시 책을 한 자 한 자 짚어 가며 다 들리게 중얼중얼 읽어 나갔다.

나는 그가 지금껏 본 가운데 가장 괴상한 늙은 퀘이커 교도라고 생각했다. 특히 그의 벗이자 옛 동료인 펠레그가 그토록 떠벌이처럼 보였으니 더욱 그랬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날카롭게 주위를 둘러보기만 했다. 펠레그가 이제 궤짝 하나를 열고 선원 계약서를 꺼내더니, 펜과 잉크를 앞에 놓고 작은 탁자에 앉았다. 나는 어떤 조건으로 이 항해에 나설지 스스로 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포경업에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선장을 비롯해 모든 선원이 *몫*이라고 부르는 일정한 이익 배당을 받고, 이 몫은 배에 탄 사람들이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포경에는 풋내기인 내 몫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나는 바다에 익숙하고, 배를 몰 줄

알고, 밧줄을 이을 줄도 알고, 그 밖에 이것저것 할 줄 아니, 들은 이야기를 다 따져 보건대 적어도 275분의 1 몫은 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곧 항해에서 나온 순수익이 결국 얼마가 되든 그 275분의 1이다. 그리고 275분의 1 몫은 꽤 *긴* 몫이라고들 부르는 것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고, 운 좋은 항해를 한다면 항해 중에 닳아 없앨 옷값쯤은 거의 치를 수 있을지 몰랐다. 삼 년 동안의 고기와 먹고 자는 비용이야 말할 것도 없었는데, 그것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다.

이것이 왕자 같은 재산을 모으기에는 시원찮은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정말로 아주 시원찮은 길이었다. 그러나 나는 왕자 같은 재산에 안달하는 일이 결코 없는 사람이고, 내가 이 우중충한 먹구름 간판을 단 세상 여관에 묵는 동안 세상이 나를 먹이고 재워 줄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아주 만족한다. 대체로 나는 275분의 1 몫이 공정한 값쯤 되리라 생각했지만, 내가 어깨가 떡 벌어진 몸집이니 200분의 1을 준다 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익을 넉넉히 나눠 받으리라는 기대를 조금 미덥지 않게 만든 일이 하나 있었다. 나는 뭍에서 펠레그 선장과 그의 알 수 없는 늙은 단짝 빌대드에 관해 얼마쯤 들은 바가 있었다. 두 사람이 피쿼드호의 주요 소유주이니, 그보다 몫이 하찮고 흩어져 있는 다른 선주들은 배의 일을 거의 다 이 두 사람에게 맡겨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인색한 늙은 빌대드가 선원을 들이는 일에 크게 입김을 넣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특히 지금 보니 그는 피쿼드호에 올라 선장실을 제집처럼 여기며 제 난롯가에 앉은 듯 성경을 읽고 있었으니 더욱 그랬다. 그런데 펠레그가 잭나이프로 펜촉을 다듬으려고 헛되이 애쓰는 동안, 늙은 빌대드는, 이 일에 그토록 이해가 걸린 사람이었는데도 놀랍게도, 빌대드는 우리에게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보며 혼자

중얼중얼 읽어 나갔다. "너희 자신을 위해 땅 위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 좀이……"

"그래, 빌대드 선장." 펠레그가 끼어들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젊은이에게 몫을 얼마나 주면 좋겠나?"

"자네가 가장 잘 알지." 무덤 속에서 울리는 듯한 대답이 돌아왔다. "777분의 1이면 지나치지 않겠지, 그렇지 않은가? '좀과 녹이 갉아먹는 그곳에. 그러나 *쌓아 두라*……'"

*쌓아 두라*니, 하고 나는 생각했다. 몫이라니, 그것도 그런 몫이라니! 777분의 1이라니! 그래, 빌대드 영감, 당신은 적어도 나만큼은 좀과 녹이 갉아먹는 이 아래 세상에서 *몫*을 많이 *쌓아 두지* 못하게 하기로 작정했군. 그것은 참으로 지독하게 *긴 몫*이었다. 그 숫자가 크니 처음에는 뭍사람이 속을지도 모르지만, 조금만 따져 보아도 알 수 있다. 777이 꽤 큰 수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몇 분의 1*을 만들어 보면, 다시 말하지만, 1파딩의 777분의 1이 금화 777닢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빌어먹을, 빌대드." 펠레그가 외쳤다. "자네 설마 이 젊은이를 등쳐 먹으려는 건 아니겠지! 그보다는 더 받아야 하네."

"777분의 1." 빌대드가 눈도 들지 않고 다시 말했다. 그러고는 계속 중얼거렸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으리라."

"300분의 1로 적어 넣겠네." 펠레그가 말했다. "듣고 있나, 빌대드! 300분의 1 몫이라니까."

빌대드는 책을 내려놓고 엄숙하게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펠레그 선장, 자네는 마음이 넉넉하네. 그러나 자네가 이 배의 다른 선주들에게 지고 있는 의무를 생각해야 하네.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과부와 고아일세. 우리가 이 젊은이의 수고에 너무 넉넉히 갚아 주면 그

과부들과 그 고아들의 빵을 빼앗는 일이 될지도 모르네. 777분의 1 몫일세, 펠레그 선장."

"이 빌대드야!" 펠레그가 벌떡 일어나 선장실을 쿵쾅거리며 돌아다니면서 고함쳤다. "빌어먹을, 빌대드 선장, 이런 일에서 내가 자네 충고를 따랐더라면, 나는 진작에 혼곶을 돌아간 가장 큰 배라도 가라앉힐 만큼 무거운 양심을 끌고 다녀야 했을 걸세."

"펠레그 선장." 빌대드가 차분하게 말했다. "자네 양심이 물에 잠기는 깊이가 10인치인지 10패덤인지 나는 알 수 없네. 그러나 자네는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니, 펠레그 선장, 자네 양심은 물이 새는 양심일까 몹시 두렵네. 그리고 그 양심이 끝내 자네를 불구덩이로 가라앉히고 말 걸세, 펠레그 선장."

"불구덩이! 불구덩이라고! 자네 지금 날 모욕하는 건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날 모욕하는군. 살아 있는 사람에게 너는 지옥에 갈 몸이라고 말하는 건 지독하기 짝이 없는 무례야. 꼬리지느러미에 불벼락 맞을! 빌대드, 그 말을 내게 한 번만 더 해 보게. 내 영혼의 볼트가 몽땅 튀어나가도 좋으니, 나는, 나는, 그래, 털이며 뿔이며 다 붙은 산 염소를 통째로 삼켜 버리겠네. 선장실에서 나가게, 이 위선 떠는 칙칙한 회갈색 나무 대포 새끼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곧장 꺼지게!"

이렇게 우레같이 호통치며 그는 빌대드에게 달려들었지만, 빌대드는 놀랍도록 비스듬히 미끄러지는 날랜 몸짓으로 그때만은 그를 피했다.

배의 책임을 진 두 주요 선주 사이에 벌어진 이 끔찍한 폭발에 놀란 나는, 이토록 수상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당분간 지휘하는 배를 타겠다는 생각을 아예 접어 버릴까 하는 마음이 반쯤 들었다. 그래서 문간에서 비켜서서 빌대드가 나갈 길을 터 주었다. 그는 깨어난 펠레그의 노여움 앞에서 어서 사라지고 싶어 안달하리라고 나는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아주 조용히 다시 선미 가로 의자에 앉았고, 물러날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뉘우치지 않는 펠레그와 그의 버릇에 아주 익숙한 것 같았다. 펠레그로 말하자면, 그렇게 화를 다 쏟아내고 나니 더는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았고, 아직도 신경이 곤두선 듯 조금 움찔거리기는 했지만 그 역시 어린양처럼 얌전히 앉았다. "휴!" 마침내 그가 휘파람을 불었다. "돌풍이 바람 아래로 지나간 것 같군. 빌대드, 자네 예전에 창을 잘 갈았지. 이 펜 좀 다듬어 주겠나. 내 잭나이프는 숫돌에 좀 갈아야겠네. 그렇지, 고맙네, 빌대드. 그럼 이제, 젊은이, 자네 이름이 이슈메일이라고 했지? 좋아, 그럼 여기 적어 넣네, 이슈메일, 300분의 1 몫으로."

"펠레그 선장님." 내가 말했다. "저와 함께 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배를 타고 싶어 합니다. 내일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펠레그가 말했다. "데려오게. 우리가 한번 보지."

"그 친구는 몫을 얼마나 바라나?" 다시 파묻혀 있던 책에서 눈을 들며 빌대드가 끙 하고 말했다.

"오! 그건 신경 쓰지 말게, 빌대드." 펠레그가 말했다. "그 친구 고래를 잡아 본 적은 있나?" 그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제가 셀 수도 없을 만큼 고래를 많이 잡았습니다, 펠레그 선장님."

"그래, 그럼 데려오게."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 나는 길을 나섰다. 오전에 일을 잘 해냈다는 것, 그리고 피쿼드호야말로 퀴퀘그와 나를 싣고 혼곶을 돌아가도록 요조가 마련해 준 바로 그 배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함께 항해할 선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실 포경선은 선장이 지휘를 맡으러 와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채비를 다 갖추고 선원을 모두 태우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항해는 때로 몹시 길고 뭍의 집에서 지내는 틈은 아주 짧아서, 선장에게 가족이 있거나 그런 종류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그는 항구에 있는 동안 배에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고 바다로 나갈 채비가 다 될 때까지 배를 선주에게 맡겨 두기 때문이다. 그래도 되돌릴 수 없게 그의 손에 몸을 맡기기 전에 그를 한번 보아 두는 것이 늘 좋다. 나는 발길을 돌려 펠레그 선장을 찾아가 에이해브 선장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래, 에이해브 선장한테 무슨 볼일이 있나? 다 잘됐네. 자네는 이제 우리 배 선원이야."

"예, 하지만 그분을 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못 볼 것 같네. 그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잘 모르겠네만, 집 안에 꼭 틀어박혀 있네. 좀 아픈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사실 아픈 건 아니야. 그렇다고 성한 것도 아니지. 어쨌든 젊은이, 그 사람은 나도 늘 만나 주지는 않으니 자네를 만나 줄 것 같지는 않네. 별난 사람이야, 에이해브 선장은. 그렇게들 생각하지. 하지만 좋은 사람이야. 오, 자네도 그 사람이 꽤 마음에 들 걸세. 걱정 말게, 걱정 마. 그 사람은 위대하고, 신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신 같은 사람이네, 에이해브 선장은. 말이 많지 않지. 하지만 일단 말을 하면 귀담아들을 만하네. 명심하게, 미리 알아 두게. 에이해브는 보통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야. 에이해브는 식인종들 사이에도 있었지만 대학에도 다녔네. 파도보다 더 깊은 경이에 익숙하고, 고래보다 더 힘세고 더 낯선 적들에게 그 불같은 창을 꽂아 넣은 사람이지. 그 사람의 창! 그렇지, 우리 섬을 통틀어 가장 날카롭고 가장 정확한 창이야! 오! 그 사람은 빌대드 선장이 아니야. 그래, 펠레그 선장도 아니고. *그 사람은 에이해브*야, 젊은이. 그리고 자네도 알다시피 옛날의 아합은 왕관을 쓴 왕이었지!"

"그것도 아주 사악한 왕이었지요. 그 사악한 왕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지 않았습니까?"

"이리 오게, 이리, 이리." 펠레그가 말했는데, 그 눈에 담긴 뜻이 너무도 깊어서 나는 흠칫 놀랄 뻔했다. "이것 보게, 젊은이. 피쿼드호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말게. 어디서도 절대로 하지 말게. 에이해브 선장은 제 이름을 제가 지은 게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겨우 돌이 되었을 때 죽은, 정신이 나간 과부 어머니가 어리석고 무지한 변덕으로 붙인 이름이네. 그런데도 게이헤드의 늙은 인디언 여자 티스티그는 그 이름이 어떻게든 예언이 되어 맞아떨어질 거라고 했지. 그리고 어쩌면 그 여자 같은 다른 바보들이 자네에게도 같은 말을 할지 모르네. 내가 미리 일러 두겠네.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에이해브 선장을 잘 아네. 여러 해 전에 항해사로 그 사람과 함께 배를 탔지.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네. 좋은 사람이야. 빌대드처럼 경건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욕도 하는 좋은 사람이지. 나랑 좀 비슷하네. 다만 그 사람한테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지. 그래, 그래, 그 사람이 한 번도 아주 쾌활했던 적이 없다는 것도 알고, 집으로 돌아오는 뱃길에서 한동안 정신이 좀 나가 있었다는 것도 아네. 하지만 그건 피흘리는 잘린 다리가 쿡쿡 쑤시고 찌르듯 아파서 그렇게 된 거야.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지난 항해에서 그 저주받을 고래한테 다리를 잃은 뒤로 그 사람이 좀 침울해졌다는 것, 지독하게 침울하고 때로는 사나워졌다는 것도 아네. 하지만 그건 다 지나갈 걸세. 그리고 이번에 딱 한 번만 말해 두겠네, 젊은이, 장담하네만, 웃는 나쁜 선장보다 침울한 좋은 선장과 배를 타는 편이 낫네. 그럼 잘 가게. 그리고 에이해브 선장이 공교롭게도 사악한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쁘게 여기지 말게. 게다가 젊은이, 그 사람한테는 아내도 있네. 혼인한 지 항해 세 번도 안 됐지. 다정하고 순한 아가씨야. 그걸 생각해 보게. 그 다정한 아가씨에게서 그 늙은이는 아이까지 얻었네. 그런데도 에이해브에게 아주 구제할 길 없는 해악이 있다고 여길 수 있겠나?

아니야, 아니야, 젊은이. 벼락을 맞고 시들어 버린 사람일지는 몰라도, 에이해브에게도 사람다운 정이 있네!"

나는 걸어 나오면서 생각에 가득 잠겼다. 에이해브 선장에 관해 어쩌다 드러난 이야기는 그에 대한 어떤 거칠고 막연한 고통으로 나를 채웠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그때 나는 그에게 연민과 슬픔을 느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몰랐다. 다리를 잃은 그 참혹한 일 때문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에게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꼭 두려움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에게서 마음이 멀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그때 나는 그를 아주 어설프게밖에 알지 못했으므로, 그에게 서린 수수께끼 같은 것에 조바심이 났다. 그러나 이윽고 내 생각은 다른 쪽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당분간 어두운 에이해브는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갔다.

제17장 라마단

퀴퀘그의 라마단, 곧 금식과 자기를 낮추는 날은 온종일 이어질 참이었으므로, 나는 해 질 녘까지 그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아무리 우스꽝스럽더라도 모든 사람의 종교적 의무를 더없이 존중하며, 독버섯을 섬기는 개미 무리조차 업신여길 마음이 나지 않으며, 우리 지구의 어떤 곳에 사는 다른 족속들, 다른 행성에서는 유례가 없을 만큼 하인 근성이 몸에 밴 그 족속들이, 죽은 지주의 이름으로 아직 소유되어 세를 주고 있는 엄청난 재산 때문에 그 지주의 몸통 조각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조차 업신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말은, 우리 착한 장로교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에 너그러워야 하고, 이교도니 뭐니 하는 다른 인간들이 이런 문제에서 반쯤 미친 생각을 품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퀴퀘그를 보라. 그는 분명 요조와 그의 라마단에 관해 더없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게 어떻단 말인가? 퀴퀘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만족한 것 같았으니, 그대로 두자. 우리가 아무리 따져도 소용없을 테니, 다시 말하지만, 그냥 두자. 그리고 하늘이 우리 모두에게, 장로교도에게나 이교도에게나 똑같이 자비를 베푸시기를. 우리는 모두 어딘가 머리에 지독하게 금이 가 있어서 슬프게도 고쳐야 할 데가 많으니까.

저녁 무렵, 그의 의식과 예식이 모두 끝났으리라 믿게 되었을 때 나는 그의 방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어 보려 했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다. "퀴퀘그." 나는 열쇠 구멍에 대고 나직하게 말했다. 사방이 조용했다. "이봐, 퀴퀘그! 왜 말을 안 해? 나야, 이슈메일." 그러나 모든 것이 아까처럼 고요했다.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에게 그토록 넉넉히 시간을 주었으니 혹시 뇌졸중이라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었다.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았지만, 문이 방의 엉뚱한 구석 쪽으로 나 있어서 열쇠 구멍으로 보이는 풍경은 비뚤어지고 불길하기만 했다. 침대 발치 널빤지 일부와 벽 한 줄기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퀴퀘그의 작살 나무 자루가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다. 전날 저녁 우리가 방으로 올라가기 전에 안주인이 그에게서 빼앗아 간 그 작살이었다. 이상하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어쨌든 작살이 저기 서 있고, 그는 작살 없이는 좀처럼, 아니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으니, 그는 틀림없이 이 안에 있고, 틀릴 리가 없다.

"퀴퀘그! 퀴퀘그!" 여전히 조용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었다. 뇌졸중이다! 나는 문을 부수고 열려 했지만 문은 끈질기게 버텼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 처음 만난 사람, 곧 객실 하녀에게 내 의심을 서둘러 털어놓았다. "어머나! 어머!" 하녀가 외쳤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침 먹고 나서 침대를 정리하러 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생쥐 소리 하나 안 들렸어요. 그 뒤로 줄곧 그렇게 조용했고요. 그래도 나는 두 분이 다 나가면서 짐을 안전하게 두려고 문을 잠가 두었나 보다 했지요. 어머! 어머, 아씨! 마님! 살인이에요! 허시 부인! 뇌졸중이에요!" 이렇게 외치며 하녀는 부엌 쪽으로 달려갔고, 나도 뒤따랐다.

허시 부인이 곧 나타났다. 한 손에는 겨자 단지를, 다른 손에는 식초병을 들고 있었는데, 양념병 받침대를 손보면서 그사이 꼬마 흑인

사환을 꾸짖던 참에 막 손을 떼고 온 것이었다.

"헛간!" 내가 외쳤다. "헛간이 어느 쪽이오? 제발 달려가서 문을 비틀어 열 것을 가져오시오. 도끼! 도끼! 그 친구가 졸도했소, 틀림없소!" 그렇게 말하며 나는 빈손으로 허둥지둥 다시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는데, 허시 부인이 겨자 단지와 식초병을, 그리고 양념병 받침대 같은 얼굴 전체를 들이밀며 가로막았다.

"왜 그래요, 총각?"

"도끼를 가져오시오! 제발, 누가 의사 좀 불러 주시오, 내가 문을 비틀어 여는 동안!"

"이것 봐요." 안주인이 한 손을 비우려고 얼른 식초병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것 봐요. 지금 우리 집 문을 비틀어 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인은 내 팔을 붙잡았다. "왜 그래요? 대체 왜 그래요, 선원 양반?"

나는 되도록 침착하게, 그러나 빠르게 그간의 사정을 다 알려 주었다. 부인은 저도 모르게 식초병을 콧날 한쪽에 갖다 대고 잠깐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외쳤다. "아니! 거기 둔 뒤로 나도 그걸 못 봤어요." 부인은 계단참 밑의 작은 벽장으로 달려가 안을 흘끗 들여다보고는 돌아와서, 퀴퀘그의 작살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 사람 자살했어요." 부인이 외쳤다. "운수 사나운 스티그스 일이 또 벌어졌어요. 조각 이불이 또 하나 못 쓰게 됐네. 그 불쌍한 어머니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를! 이러다 우리 집 망하겠어요. 그 가엾은 총각한테 누이는 있나요? 그 계집애 어디 갔지? 옳지, 베티, 간판장이 스날스한테 가서 간판 하나 그려 달라고 해. '이곳에서 자살 금지, 응접실에서 흡연 금지' 하고. 이참에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 게 낫지. 잡는다고? 주여, 그 혼령에 자비를 베푸소서! 저기 저건 무슨 소리야? 이봐요, 총각, 멈춰요!"

그러고는 나를 뒤따라 뛰어 올라와서, 내가 다시 문을 억지로 열려는 참에 나를 붙잡았다.

"그건 안 돼요. 우리 집을 망가뜨리게 두지 않을 거예요. 열쇠장이한테 가요, 여기서 1마일쯤 떨어진 데 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잠깐!" 부인이 옆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여기 맞을 만한 열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봐요." 그러면서 부인은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다. 그러나 아아! 퀴퀘그가 따로 지른 빗장이 안에서 빠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부수고 열어야겠소." 내가 말하고는 힘껏 달려들려고 복도 쪽으로 조금 물러나 달려가는데, 안주인이 나를 붙잡으며 우리 집을 부수게 두지 않겠다고 다시 맹세했다. 그러나 나는 부인을 뿌리치고 갑자기 온몸을 날려 표적에 정통으로 부딪쳤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고, 손잡이가 벽에 쾅 부딪치며 회반죽이 천장까지 튀었다. 그리고 거기, 맙소사! 거기 퀴퀘그가 앉아 있었다. 아주 태연하고 침착하게, 방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머리 꼭대기에 요조를 이고 있었다. 그는 이쪽도 저쪽도 쳐다보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기색이라곤 거의 없이 깎아 놓은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퀴퀘그." 내가 다가가며 말했다. "퀴퀘그, 왜 그래?"

"설마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안주인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에게서는 한마디도 끌어낼 수 없었고, 나는 그의 자세를 바꿔 주려고 그를 밀어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 뻔했다. 그 자세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럽게 억눌려 보여서 거의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아마도 여덟 시간에서 열 시간이 넘게 그렇게 앉아 있었을 것이고, 끼니도 거르고 있었을 것이다.

"허시 부인." 내가 말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살아* 있소. 그러니 미안하지만 우리끼리 있게 해 주시오. 이 이상한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소."

안주인을 내보내고 문을 닫은 뒤 나는 퀴퀘그를 달래 의자에 앉히려 애썼지만 헛일이었다. 그는 거기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내가 아무리 공손한 수완을 부리고 달콤한 말로 꾀어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거기 있다는 것조차 조금도 알은척하지 않았다.

이게 혹시 그의 라마단의 일부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의 고향 섬에서는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금식을 하나?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래, 그의 신앙의 일부겠지. 좋아, 그럼 그대로 두자. 머잖아 틀림없이 일어나겠지. 고맙게도 이게 영원히 갈 리는 없고, 그의 라마단은 일 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으며, 그것도 그다지 꼬박꼬박 지키는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저녁을 먹으러 내려갔다. 이른바 자두 푸딩 항해(곧 스쿠너선이나 쌍돛대 범선을 타고 적도 북쪽, 그것도 대서양에서만 하는 짧은 포경 항해)를 막 마치고 온 선원 몇의 긴 이야기를 오래도록 앉아 듣고, 그렇게 이 자두 푸딩 선원들의 이야기를 거의 열한 시까지 듣고 나서, 나는 잠자리에 들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쯤이면 퀴퀘그도 틀림없이 라마단을 끝냈으리라 굳게 믿으면서. 그러나 아니었다. 그는 내가 두고 떠난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추운 방에서 나무토막 하나를 머리에 인 채 온종일 그리고 밤의 절반 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너무도 터무니없고 미친 짓 같았기 때문이다.

"제발, 퀴퀘그, 일어나서 몸 좀 털어. 일어나서 저녁 좀 먹어. 굶어 죽겠어. 이러다 죽는다, 퀴퀘그."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단념하고 나는 잠자리에 들어 자기로 했다. 머잖아 그도 틀림없이 나를 따라 잠자리에 들 것이었다. 그러나 눕기 전에, 몹시 추운 밤이 될 것 같은 데다 그는 늘 입는 짧은 웃옷 하나만 걸치고 있었으므로, 나는 무거운 곰 가죽 웃옷을 가져다 그에게 덮어 주었다. 한동안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아주 얕은 선잠조차 들 수 없었다. 촛불은 이미 꺼 두었는데, 4피트도 안 떨어진 곳에서 퀴퀘그가 그 불편한 자세로 춥고 어두운 데 홀로 앉아 있다는 생각만 해도, 정말이지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생각해 보라. 이 음울하고 알 수 없는 라마단을 치르며 쭈그리고 앉아 눈을 말똥말똥 뜬 이교도와 한방에서 밤새 자다니!

그러나 어쨌거나 나는 마침내 잠이 들었고, 동이 틀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침대 옆으로 내다보니 퀴퀘그가 마룻바닥에 나사로 박아 놓은 듯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첫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는 관절이 뻣뻣하게 삐걱거렸지만 밝은 얼굴로 일어나, 내가 누운 쪽으로 절뚝거리며 다가와서는 다시 내 이마에 제 이마를 갖다 대고, 라마단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앞서 넌지시 말했듯, 나는 누구의 종교에도,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모욕하지 않는 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종교가 정말로 광적이 될 때, 그것이 그에게 참된 고문이 될 때,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의 이 지구를 묵기 불편한 여관으로 만들 때, 그때는 그 사람을 따로 불러 그 문제를 따져 볼 때가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퀴퀘그에게 바로 그렇게 했다. "퀴퀘그." 내가 말했다. "이제 침대에 들어가 누워서 내 말 좀 들어 봐." 그러고 나서 나는 원시 종교의 탄생과 발전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여러 종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이어 갔고, 그동안 이 모든 사순절과 라마단과 춥고 썰렁한 방에서 오래도록 쭈그리고 앉아 있기가 순전히 터무니없는

짓이며, 몸에 나쁘고, 영혼에 쓸모없으며, 한마디로 위생과 상식의 뻔한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퀴퀘그에게 보여 주려 애썼다. 또 다른 일에서는 그토록 분별 있고 슬기로운 야만인인 그가 지금 이 우스꽝스러운 라마단을 두고 이토록 한심하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아주 몹시 아프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식을 하면 몸이 꺼지고, 그러니 정신도 꺼지며, 금식에서 태어난 생각은 모두 반쯤 굶주릴 수밖에 없다고 나는 따졌다. 소화불량에 걸린 신앙인들이 대개 저승을 두고 그토록 우울한 생각을 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퀴퀘그, 하고 나는 좀 옆길로 새며 말했다. 지옥이란 소화되지 않은 사과 경단에서 처음 태어난 생각이고, 그 뒤로 라마단이 길러 낸 대물림 소화불량을 통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퀴퀘그에게 그 자신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뜻을 풀어서 말했다. 그는 없다고 했다. 다만 잊지 못할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인 왕이 큰 싸움에서 이긴 것을 기념해 큰 잔치를 베푼 뒤였는데, 그 싸움에서 오후 두 시쯤까지 적 쉰 명이 죽었고, 그날 저녁 그들을 모두 요리해서 먹었다고 했다.

"그만, 퀴퀘그." 내가 몸서리치며 말했다. "그거면 됐어." 그가 더 넌지시 말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그 섬에 가 본 선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말로는 그곳에서 큰 싸움에 이기면 이긴 쪽 사람의 마당이나 뜰에서 죽은 자들을 모두 통째로 굽는 것이 풍습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하나씩 커다란 나무 쟁반에 담아 빵나무 열매와 코코넛으로 필래프처럼 빙 둘러 꾸미고, 입에 파슬리를 조금 물려서, 승리자의 인사말과 함께 그의 모든 벗들에게 돌린다고 했다. 이 선물들이 꼭 성탄절 칠면조라도 되는 듯이.

결국 종교에 관한 내 말이 퀴퀘그에게 그리 큰 인상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 첫째로, 그는 그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면 어쩐지 귀가 어두운 것 같았고, 둘째로,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쉽게 풀어 말해도 그는 내 말을 삼분의 일도 알아듣지 못했으며, 마지막으로, 참된 종교에 관해서라면 그는 틀림없이 자기가 나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딘가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걱정과 동정을 담아 나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분별 있는 젊은이가 복음적 이교도 신앙에서 이토록 구제할 길 없이 멀어져 있다니 참으로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우리는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리고 퀴퀘그는 안주인이 자기 라마단 덕에 이득을 많이 보지 못하도록 온갖 차우더로 엄청나게 든든한 아침을 먹었고, 우리는 넙치 뼈로 이를 쑤시며 어슬렁어슬렁 피쿼드호에 오르러 나섰다.

제18장 그의 표시

퀴퀘그가 작살을 메고 우리가 부두 끝을 따라 배 쪽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을 때, 펠레그 선장이 그 인디언 오두막에서 거친 목소리로 우리를 큰 소리로 불러 세우더니, 내 친구가 식인종인 줄은 몰랐다고 하고, 게다가 식인종은 미리 증명서를 내놓지 않는 한 그 배에 태우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펠레그 선장님?" 나는 이제 뱃전으로 뛰어올라 친구를 부두에 세워 둔 채 말했다.

"내 말은," 그가 대답했다. "그 친구가 증명서를 보여야 한다는 걸세."

"그렇지." 빌대드 선장이 그 공허한 목소리로 말하며, 펠레그의 머리 뒤에서 오두막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개종했다는 것을 보여야 하네. 어둠의 자식이여." 그가 퀴퀘그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자네는 지금 어느 기독교 교회에 몸담고 있는가?"

"아, 이 친구는 제일 회중 교회 교인입니다." 내가 말했다. 여기서 말해 두자면, 낸터킷 배를 타는 문신한 야만인들 가운데 많은 이가 결국 개종해서 교회에 들어간다.

"제일 회중 교회라고!" 빌대드가 외쳤다. "뭐라고! 신명기 콜먼 집사의 집회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말인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안경을 꺼내 큼직한 노란 손수건으로 닦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쓰고 오두막에서 나와, 뻣뻣하게 뱃전 너머로 몸을 기울이고 퀴퀘그를 오래도록 찬찬히 살펴보았다.

"교인이 된 지 얼마나 되었나?" 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젊은이."

"그렇지." 펠레그가 말했다. "세례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 걸세. 받았다면 그 악마 같은 파란 칠이 얼굴에서 좀 씻겨 나갔을 테니."

"말해 보게, 어서." 빌대드가 외쳤다. "이 블레셋 사람이 신명기 집사네 집회의 정식 교인이란 말인가? 나는 주일마다 그 앞을 지나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신명기 집사나 그 사람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말했다. "제가 아는 건, 여기 있는 퀴퀘그가 타고난 제일 회중 교회 교인이라는 것뿐입니다. 이 친구도 집사입니다, 퀴퀘그 말입니다."

"젊은이." 빌대드가 엄하게 말했다. "자네 나를 놀리는군. 똑바로 말해 보게, 이 젊은 헷 사람아. 어느 교회를 말하는 건가? 대답하게."

이렇게 몰리자 나는 대답했다. "선장님, 제 말은 선장님과 저, 저기 펠레그 선장님과 여기 퀴퀘그,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과 영혼 하나하나가 다 속해 있는 바로 그 오래된 보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온 세상의 위대하고 영원한 제일 회중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큰 믿음과는 조금도 상관없는 별난 고집을 몇 가지 품고 있을 뿐이지요.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 손을 맞잡습니다."

"*이어 붙인다*고 해야지, 손을 밧줄처럼 *이어 붙인다*고 말이야." 펠레그가 다가오며 외쳤다. "젊은이, 자네는 평선원 말고 선교사로 배를 타는 게 낫겠네. 이보다 나은 설교는 들어 본 적이 없어. 신명기 집사는, 아니, 매플 목사라도 이건 못 당할 걸세. 그 사람도 꽤 대단하다고들 하는데 말이야. 타게, 타. 증명서는 신경 쓰지 말게. 이봐, 저기 쿼호그한테, 자네 저 친구를 뭐라고 부르나? 쿼호그한테 이리 오라고 하게. 큰 닻에 걸고 말하네만, 저 친구 들고 있는 작살 좀 보게! 좋은

물건 같은데. 다루는 솜씨도 제법이고. 이봐, 쿼호그, 아니 자네 이름이 뭐든, 보트 뱃머리에 서 본 적 있나? 고기를 찔러 본 적 있나?"

퀴퀘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야성적인 몸짓으로 뱃전에 뛰어올랐다가, 거기서 배 옆구리에 매달린 보트 가운데 하나의 뱃머리로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왼쪽 무릎으로 몸을 버티고 작살을 겨누어 들더니 대략 이렇게 외쳤다.

"선장, 너 저기 물 위 작은 타르 방울 본다? 본다? 좋다, 그거 고래 눈이라 한다, 좋다, 그럼!" 그러고는 날카롭게 겨누어 늙은 빌대드의 넓은 모자챙 바로 위로, 배의 갑판을 깨끗이 가로질러 작살을 날렸고, 반짝이는 타르 방울을 맞혀 보이지 않게 지워 버렸다.

"자." 퀴퀘그가 조용히 작살줄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그거 고래 눈이라 한다. 그럼, 그 고래 죽었다."

"어서, 빌대드." 그의 동업자 펠레그가 말했다. 날아가는 작살이 바로 곁을 스치자 질겁해서 선장실 승강구 쪽으로 물러나 있던 참이었다. "어서, 빌대드, 배 서류를 가져오게. 저 고슴도치, 아니 쿼호그를 우리 보트에 꼭 태워야겠네. 이것 보게, 쿼호그, 자네에게 90분의 1 몫을 주겠네. 낸터킷에서 작살잡이에게 준 몫 가운데 그보다 많은 건 지금껏 없었네."

그래서 우리는 선장실로 내려갔고, 몹시 기쁘게도 퀴퀘그는 곧 나와 같은 배의 선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준비가 다 끝나고 펠레그가 서명할 것을 모두 갖추자, 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기 쿼호그는 글을 쓸 줄 모르겠지, 안 그런가? 이봐, 쿼호그, 빌어먹을! 자네는 이름을 쓰나, 표시를 하나?"

그러나 이 물음에도 전에 두세 번 이런 의식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퀴퀘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내민 펜을 받아 서류의 알맞은 자리에, 자기 팔에 새긴 기묘한 둥근 무늬를 그대로 본떠 그렸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두고 펠레그 선장이 고집스럽게 잘못 안 탓에, 그 자리는 대략 이렇게 되었다.

퀴호그. 본인의 X 표시.

그동안 빌대드 선장은 앉아서 퀴퀘그를 진지하게, 눈 한 번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엄숙하게 일어나서 자락이 넓은 칙칙한 회갈색 외투의 커다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전도 책자 한 묶음을 꺼내더니, 「말세가 오다, 또는 잃을 시간이 없다」라는 제목이 붙은 것을 하나 골라 퀴퀘그의 손에 쥐여 주고는, 그 손과 책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그의 눈을 간절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둠의 자식이여, 나는 자네에게 내 의무를 다해야겠네. 나는 이 배의 선주 가운데 한 사람이니, 이 배의 모든 선원의 영혼이 마음에 걸리네. 몹시 걱정되는 일이네만, 자네가 아직도 이교도의 길에 매달려 있다면, 간곡히 비네, 영원토록 벨리알의 종으로 남지는 말게. 우상 벨과 흉측한 용을 걷어차 버리게. 다가올 진노에서 돌아서게. 정신 똑바로 차리게, 내 말은. 오! 이런 맙소사! 불구덩이는 피해 가게!"

늙은 빌대드의 말에는 아직도 짠 바닷물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성경 구절과 집안에서 쓰는 말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그만, 그만하게, 빌대드, 우리 작살잡이 망치는 짓은 이제 그만하게." 펠레그가 외쳤다. "경건한 작살잡이는 결코 항해를 잘하지 못해. 그러면 몸에서 상어 기질이 빠져나가거든. 상어 같은 데가 꽤 있지 않은 작살잡이는 지푸라기 한 오라기만큼의 값어치도 없네. 젊은 냇 스웨인이 그랬지. 한때 낸터킷과 마서스비니어드를 통틀어 가장 용감한 보트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집회에 나가더니 그 뒤로 영 시원찮아졌어. 제 망할 놈의 영혼이 어찌나 걱정되던지, 보트가 박살 나서 바다 밑 데이비 존스한테 가게 되면 뒤탈이 날까 두려워서 고래만 보면 움츠러들고 슬슬 피했다네."

"펠레그! 펠레그!" 빌대드가 눈과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자네도 나처럼 위태로운 때를 숱하게 겪었네. 펠레그, 자네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신을 모르는 말투로 지껄일 수 있나. 자네는 자네 마음을 속이고 있네, 펠레그. 말해 보게. 바로 여기 이 피쿼드호가 일본 앞바다 그 태풍 속에서 돛대 셋을 다 바다로 잃었을 때, 자네가 에이해브 선장과 함께 항해사로 나갔던 바로 그 항해 때, 그때 자네는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나?"

"저 말 좀 들어 보게, 들어 봐." 펠레그가 선장실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두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외쳤다. "저 말 좀 들어 봐, 다들. 생각 좀 해 보라고!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른다고 순간마다 생각하던 때에! 그때 죽음과 심판이라고? 뭐라고? 돛대 세 개가 하나도 남김없이 뱃전을 끝도 없이 쾅쾅 두들기고, 파도란 파도는 모두 이물에서 고물까지 우리 위로 부서지는데. 그때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라고? 아니지! 그때는 죽음을 생각할 틈이 없었네. 에이해브 선장과 내가 생각한 건 삶이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원을 다 살릴지, 어떻게 임시 돛대를 세울지, 어떻게 가장 가까운 항구로 들어갈지, 내가 생각한 건 그거였네."

빌대드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투 단추를 채우고는 성큼성큼 갑판으로 올라갔고, 우리도 그를 따라갔다. 그는 거기 서서 배 가운데 갑판에서 중간 돛을 깁고 있는 돛장이 몇 사람을 아주 조용히 내려다보면서, 이따금 몸을 굽혀 천 조각을 줍거나, 내버려 두면 버려졌을 타르 먹인 실 끄트머리를 챙겼다.

제19장 예언자

"선원 양반들, 저 배에 타기로 했소?"

퀴퀘그와 내가 막 피쿼드호를 떠나, 저마다 제 생각에 잠긴 채 물가에서 어슬렁어슬렁 멀어지고 있을 때, 낯선 사람 하나가 우리 앞에 멈춰 서서 그 우람한 집게손가락으로 문제의 배를 겨누며 위와 같은 말을 던졌다. 그는 빛바랜 웃옷과 기운 바지를 걸친 초라한 차림이었고, 검은 손수건 쪼가리 하나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온 얼굴에 사방으로 번진 융합성 천연두가 흘러내린 자국이, 세찬 물이 다 말라 버린 급류의 바닥처럼 복잡하게 골이 진 얼굴을 남겨 놓았다.

"저 배에 타기로 했소?" 그가 되풀이했다.

"피쿼드호 말씀이오?" 나는 그를 좀 더 찬찬히 뜯어볼 틈을 벌려고 말했다.

"그렇소, 피쿼드호, 저기 저 배." 그는 팔 전체를 뒤로 당겼다가 재빨리 앞으로 곧게 내뻗으며 말했는데, 꼿꼿이 내민 손가락이 꽂힌 총검처럼 정통으로 그 배를 찔렀다.

"그렇소." 내가 말했다. "방금 계약서에 서명했소."

"거기 당신들 영혼에 관한 것도 적혀 있었소?"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오, 당신들은 영혼이 없는지도 모르지." 그가 재빨리 말했다. "그래도 상관없소. 영혼이 없는 친구들을 나는 많이 아오. 그 친구들에게 행운을.

그 친구들은 그 덕에 훨씬 형편이 낫지. 영혼이란 수레의 다섯째 바퀴 같은 거요."

"무슨 소리를 지껄이는 거요, 친구?" 내가 말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다른 친구들의 그런 모자란 데를 다 메우고도 남을 만큼 가졌지." 낯선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에 신경질적으로 힘을 주며 불쑥 말했다.

"퀴퀘그." 내가 말했다. "가자. 이 친구는 어디서 풀려나온 모양이야. 우리가 모르는 무엇과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잠깐!" 낯선 사람이 외쳤다. "당신 말이 맞소. 당신들은 아직 늙은 천둥을 못 보았지, 그렇지 않소?"

"늙은 천둥이 누구요?" 나는 그의 태도에 서린 미친 듯한 열기에 다시 붙박인 채 말했다.

"에이해브 선장."

"뭐라고! 우리 배 피쿼드호의 선장 말이오?"

"그렇소. 우리 늙은 뱃사람 친구들 몇몇 사이에서는 그 이름으로 통하지. 아직 그 사람을 못 보았지, 그렇지 않소?"

"그렇소, 못 보았소. 아프다던데, 나아지고 있어서 머잖아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들 하오."

"머잖아 다시 괜찮아진다고!" 낯선 사람이 엄숙하게 비웃는 듯한 웃음을 웃었다. "이것 보시오. 에이해브 선장이 괜찮아지면 그때 내 이 왼팔도 괜찮아질 거요. 그 전에는 안 되지."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무얼 아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당신들한테 무어라고 *말했소*? 그걸 말해 보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었소. 다만 훌륭한 고래 사냥꾼이고 선원들에게 좋은 선장이라고 들었을 뿐이오."

"그건 맞소, 맞아. 그렇지, 둘 다 맞는 말이오. 하지만 그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펄쩍 뛰어야 하오. 움직이며 투덜대고, 투덜대며 가라. 그게 에이해브 선장의 말이지. 하지만 오래전 혼곶 앞바다에서 그 사람한테 일어난 일, 그 사람이 사흘 밤낮을 죽은 듯 누워 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소? 산타의 제단 앞에서 그 스페인 놈과 벌인 그 죽기 살기 싸움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소? 그 이야기는 하나도 못 들었소, 응? 그 사람이 침을 뱉은 은 호리병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난 항해에서 예언대로 다리를 잃은 일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며 그 밖의 일에 대해 한마디도 못 들었소, 응? 그래, 못 들었겠지. 어떻게 들었겠소? 누가 그걸 알겠소? 낸터킷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닐 거요. 하지만 어쨌든 다리 이야기, 그 사람이 다리를 어떻게 잃었는지는 들었을지도 모르지. 그렇지, 그건 들었겠지. 오, 그렇지, *그건* 거의 누구나 아니까. 내 말은, 그 사람 다리가 하나뿐이고 향유고래 놈이 다른 다리를 떼어 갔다는 건 다들 안다는 거요."

"이보시오, 친구." 내가 말했다. "당신이 지껄이는 이 횡설수설이 다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고, 그다지 알고 싶지도 않소. 내가 보기에 당신은 머리가 좀 상한 것 같으니까. 하지만 저기 저 배, 피쿼드호의 에이해브 선장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이 말은 해 두겠소. 그 사람이 다리를 잃은 일이라면 나도 다 아오."

"*다* 안다고, 응? 정말 그렇소? 다?"

"꽤 확실하오."

거지 같은 그 낯선 사람은 손가락으로 피쿼드호를 가리키고 눈으로 겨눈 채, 괴로운 공상에 잠긴 듯 잠시 서 있었다. 그러다 조금 흠칫하더니 돌아서서 말했다. "배에 타기로 했다고, 그렇소? 서류에

이름을 적었고? 그래, 그래, 서명한 건 서명한 거고, 될 일은 될 거요. 그리고 또 어쩌면 결국 안 될지도 모르지. 어쨌든 다 정해지고 이미 꾸며진 일이오. 그리고 누군가 선원들이 그 사람과 함께 가야 하겠지. 다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잘 가시오, 선원 양반들, 잘 가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이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붙잡아 세워서 미안하오."

"이것 보시오, 친구." 내가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털어놓으시오. 하지만 그저 우리를 놀려 먹으려는 거라면 당신은 판을 잘못 짰소. 내가 할 말은 그것뿐이오."

"그 말 참 잘했소. 나는 사내가 그렇게 시원하게 말하는 걸 듣기 좋아하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오. 당신 같은 사람들 말이오. 잘 가시오, 선원 양반들, 잘 가시오! 오! 거기 가거든 내가 그 사람들 축에 끼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 주시오."

"아, 이 양반아, 그런 수로는 우리를 속일 수 없소. 우리를 속일 수 없다니까. 속에 무슨 큰 비밀이라도 품은 듯 보이는 것만큼 쉬운 일은 세상에 없소."

"잘 가시오, 선원 양반들, 잘 가시오."

"그래, 잘 가시오." 내가 말했다. "가자, 퀴퀘그, 이 미친 사람은 두고 가자. 그런데 잠깐, 당신 이름이나 좀 알려 주시겠소?"

"엘리야."

엘리야라!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걸어가면서 이 누더기 차림의 늙은 뱃사람을 두고 저마다 제 나름대로 이러쿵저러쿵했고, 그가 사람을 겁주는 도깨비 노릇을 하려 드는 허풍선이일 뿐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한 100야드쯤이나 갔을까, 어쩌다 모퉁이를 돌면서 뒤를 돌아보니, 이게 웬일인가, 엘리야가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어쩐 일인지 그 모습에 나는 몹시 놀라서, 그가 뒤에 있다는

것을 퀴퀘그에게 말하지 않고, 그 낯선 사람이 우리가 돈 모퉁이를 똑같이 도는지 보려고 조바심을 내며 동무와 함께 걸어갔다. 그는 그 모퉁이를 돌았고, 그러자 그가 우리 뒤를 밟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무슨 속셈인지는 아무리 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이 일이 그의 모호하고, 반쯤 넌지시 비추고 반쯤 드러내는, 무언가에 휩싸인 듯한 말투와 겹쳐서, 이제 내 안에 온갖 막연한 의아함과 반쯤의 불안을 낳았는데, 그것들은 모두 피쿼드호와, 에이해브 선장과, 그가 잃은 다리와, 혼곶에서 일으킨 발작과, 은 호리병과, 전날 내가 배를 떠날 때 펠레그 선장이 그에 관해 한 말과, 인디언 여자 티스티그의 예언과, 우리가 몸을 묶어 떠나기로 한 항해와, 그 밖에 백 가지 어렴풋한 것들과 이어져 있었다.

나는 이 누더기 차림의 엘리야가 정말로 우리 뒤를 밟는지 아닌지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그러려고 퀴퀘그와 함께 길을 건너 그쪽 편에서 온 길을 되짚어 갔다.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를 알아채지 못한 듯 그대로 지나갔다. 그 덕에 나는 마음이 놓였고, 다시 한 번,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그를 허풍선이라고 판정했다.

제20장 분주한 채비

하루 이틀이 지나자 피쿼드호 위는 몹시 분주해졌다. 낡은 돛을 깁는 것은 물론이고, 새 돛과 범포 두루마리와 둘둘 감은 삭구가 배에 올라오고 있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배의 채비가 서둘러 마무리되어 간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펠레그 선장은 좀처럼, 아니 아예 뭍에 오르지 않고 오두막에 앉아 일꾼들을 날카롭게 지켜보았고, 빌대드는 가게들을 돌며 사들이고 마련하는 일을 도맡았으며, 선창과 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일을 했다.

퀴퀘그가 계약서에 서명한 이튿날, 선원들이 묵고 있는 모든 여관에 기별이 왔다. 배가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으니 해 지기 전에 궤짝을 배에 실어 두라고 했다. 그래서 퀴퀘그와 나는 짐을 꾸려 내렸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뭍에서 자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늘 아주 넉넉히 미리 알려 주는 것 같았고, 배는 며칠이 지나도록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놀랄 일은 아니었다. 피쿼드호가 채비를 다 갖추기까지 할 일이 아주 많았고,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니까.

살림을 꾸리는 데 침대, 냄비, 나이프와 포크, 부삽과 부젓가락, 냅킨, 호두까기, 그 밖에 무엇이든 얼마나 많은 물건이 없어서는 안 되는지는 누구나 안다. 포경도 꼭 그렇다. 포경은 모든 식료품상과 행상과 의사와 빵장수와 은행가에게서 멀리 떨어진 너른 바다 위에서 삼 년 동안 살림을 꾸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선에도 들어맞는 말이지만, 포경선원에게만큼 들어맞지는 결코 않는다. 포경 항해는 몹시

길고, 고기잡이를 해 나가는 데만 쓰이는 물건이 숱하게 많으며, 흔히 들르는 먼 항구에서는 그것들을 새로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배 가운데 포경선이 온갖 사고에, 특히 항해의 성공이 가장 크게 달린 바로 그 물건들을 망가뜨리고 잃는 사고에 가장 많이 시달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분의 보트, 여분의 활대, 여분의 작살줄과 작살, 그리고 여분의 선장과 똑같은 배 한 척 말고는 거의 모든 것에 여분이 있다.

우리가 섬에 닿았을 무렵 피쿼드호에 가장 무거운 짐을 싣는 일은 거의 끝나 있었다. 소고기, 빵, 물, 땔감, 쇠테와 통널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앞서 넌지시 말했듯 한동안은 크고 작은 온갖 잡동사니를 쉴 새 없이 배로 날라 왔다.

이렇게 나르고 실어 오는 사람들 가운데 으뜸은 빌대드 선장의 누이였다. 몸이 마른 노부인으로, 더없이 단호하고 지칠 줄 모르는 기질이면서도 아주 마음씨가 고왔는데, 피쿼드호가 일단 제대로 바다에 나간 뒤에는 *자기*가 막을 수 있는 한 무엇 하나 모자라는 것이 없게 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았다. 한 번은 급사의 식품 창고에 넣을 피클 단지를 들고 배에 올랐고, 또 한 번은 일등 항해사가 항해일지를 적는 책상에 놓을 깃펜 한 묶음을 들고 왔고, 세 번째로는 누군가의 신경통 앓는 허리에 감아 줄 플란넬 한 두루마리를 들고 왔다. 이 여자만큼 제 이름에 걸맞은 여자는 없었다. 이름이 채리티, 곧 '자선'이었으니까. 누구나 그 여자를 채리티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그리고 자비로운 이 채리티 아주머니는 자선 수녀회 수녀처럼 이리저리 부산하게 돌아다니며, 사랑하는 동생 빌대드가 관여하고 자기도 알뜰히 모은 몇십 달러를 투자한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안전과 편안함과 위안을 줄 성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손과 마음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음씨 훌륭한 이 퀘이커 교도 부인이 마지막 날 그랬듯 한 손에는 긴 기름 국자를, 다른 손에는 그보다 더 긴 고래잡이 창을 들고 배에 오르는 모습은 놀라웠다. 빌대드 자신도 펠레그 선장도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빌대드로 말하자면, 필요한 물건들을 적은 긴 목록을 들고 다니다가 물건이 새로 도착할 때마다 종이에 적힌 그 물건 맞은편에 표시를 했다. 펠레그는 이따금 고래뼈 소굴에서 절뚝거리며 나와 승강구 아래 일꾼들에게 고함치고, 돛대 꼭대기의 삭구장이들에게 위로 고함치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두막 안으로 고함치며 들어갔다.

이렇게 채비하던 나날 동안 퀴퀘그와 나는 자주 배를 찾아갔고, 그만큼 자주 에이해브 선장에 관해, 그가 어떤지, 언제 자기 배에 오를 것인지 물었다. 이런 물음에 그들은 그가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날마다 오늘이나 내일 배에 오르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대답하곤 했다. 그동안에는 펠레그와 빌대드 두 선장이 배를 항해에 맞게 갖추는 데 필요한 일을 다 맡아볼 수 있다고 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아주 솔직했더라면, 배가 탁 트인 바다로 나서자마자 그 항해의 절대 독재자가 될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긴 항해에 몸을 맡기는 것이 반쯤밖에 내키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아주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할 때, 그가 이미 그 일에 얽혀 있다면, 그는 이따금 저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 의심을 덮어 감추려 애쓰게 된다. 내가 꼭 그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마침내 이튿날 언젠가 배가 틀림없이 떠난다는 기별이 왔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퀴퀘그와 나는 아주 일찍 길을 나섰다.

제21장 승선

우리가 부두에 다가갔을 때는 여섯 시가 다 되었지만, 아직 잿빛의 어설프고 안개 낀 새벽일 뿐이었다.

"내가 제대로 본 거라면 저기 앞에 선원 몇이 달려가고 있어." 내가 퀴퀘그에게 말했다. "그림자일 리는 없어. 해 뜰 무렵이면 배가 떠나나 봐. 어서 가자!"

"멈추시오!" 누군가 외쳤다. 그 목소리의 임자는 그와 동시에 우리 바로 뒤로 다가와 우리 두 사람의 어깨에 한 손씩 얹더니, 우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는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수그리고 서서 퀴퀘그와 나를 번갈아 이상하게 들여다보았다. 엘리야였다.

"배에 타러 가오?"

"손 치우시오." 내가 말했다.

"너 본다." 퀴퀘그가 몸을 털며 말했다. "저리 간다!"

"그럼 배에 안 타러 가는 거요?"

"타러 가오."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오? 엘리야 씨, 내가 당신을 좀 무례하다고 여긴다는 걸 아시오?"

"아니, 아니, 아니. 그건 몰랐소." 엘리야가 더없이 알 수 없는 눈길로 나와 퀴퀘그를 천천히 의아하게 번갈아 보며 말했다.

"엘리야." 내가 말했다. "물러나 주면 내 친구와 나는 고맙겠소. 우리는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가는 길이니, 붙잡혀 있고 싶지 않소."

"그렇소, 그렇단 말이오? 아침 먹기 전에 돌아오오?"

"이 사람 미쳤어, 퀴퀘그." 내가 말했다. "가자."

"여보시오!" 우리가 몇 걸음 떨어지자 제자리에 선 엘리야가 우리를 불러 세우며 외쳤다.

"신경 쓰지 마." 내가 말했다. "퀴퀘그, 가자."

그러나 그는 다시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갑자기 내 어깨를 탁 치며 말했다. "아까 저 배 쪽으로 가는 사람 같은 것들을 보았소?"

이 담백하고 사실만 묻는 물음에 허를 찔려 나는 대답했다. "그렇소, 네댓 사람을 본 것 같소.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확실하지는 않소."

"아주 어둡지, 아주 어둡지." 엘리야가 말했다. "잘 가시오."

다시 한 번 우리는 그를 떠났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그는 살그머니 우리 뒤를 따라와서 다시 내 어깨를 건드리며 말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오, 응?"

"누구를 찾으라는 거요?"

"잘 가시오! 잘 가시오!" 그가 다시 멀어지며 대꾸했다. "오! 당신들한테 조심하라고 일러 주려 했는데, 하지만 상관없소, 상관없어. 다 마찬가지요, 다 한 식구 일이기도 하고. 오늘 아침 서리가 매섭지, 안 그렇소? 잘 가시오. 머잖아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소. 대배심 앞에서라면 모를까." 이런 실성한 말을 남기고 그는 마침내 떠났고, 그의 미친 듯한 뻔뻔함에 나는 한동안 적잖이 어리둥절했다.

마침내 피쿼드호에 올라 보니 모든 것이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선장실 입구는 안에서 잠겨 있었고, 승강구는 모두 덮개가 덮인 채 그 위에 둘둘 감은 삭구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앞갑판 선원실로 가 보니 승강구의 미닫이 뚜껑이 열려 있었다. 불빛이 보여서 내려가 보니 다 해진 두꺼운 선원 외투를 두른 늙은 삭구장이 하나만 있었다. 그는 궤짝 두 개 위에 길게

몸을 뻗고 엎드려, 접은 두 팔 안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더없이 깊은 잠이 그를 덮고 있었다.

"우리가 본 그 선원들 말이야, 퀴퀘그, 다 어디로 갔을까?" 나는 잠든 사람을 미심쩍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나 부두에서 퀴퀘그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으니, 엘리야의 그 달리 설명할 길 없는 물음만 아니었다면 나는 그 일에서 내 눈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생각을 눌러 버리고, 다시 잠든 사람을 눈여겨보며, 아무래도 우리가 이 시신 곁에서 밤샘을 하는 게 좋겠다고 퀴퀘그에게 농담 삼아 넌지시 말하고는, 그러려면 자리를 잡으라고 일렀다. 그는 잠든 사람의 엉덩이에 손을 얹고 넉넉히 푹신한지 더듬어 보는 것 같더니, 더 군말 없이 거기에 조용히 앉았다.

"맙소사! 퀴퀘그, 거기 앉지 마." 내가 말했다.

"오! 아주 좋은 자리다." 퀴퀘그가 말했다. "우리 나라 방법이다. 이 사람 얼굴 안 아프다."

"얼굴!" 내가 말했다. "그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아주 인자한 얼굴이네. 그런데 숨을 몹시 힘들게 쉬잖아. 몸이 들썩거려. 내려와, 퀴퀘그, 너 무거워.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는 짓이야. 내려와, 퀴퀘그! 봐, 이러다 이 사람이 몸을 꿈틀해서 너를 떨어뜨리겠어. 깨지 않는 게 신기하네."

퀴퀘그는 잠든 사람의 머리 바로 너머로 자리를 옮기고 도끼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나는 발치에 앉았다. 우리는 잠든 사람 위로 파이프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주고받았다. 그러는 동안 그의 서툰 말로 물어보니, 퀴퀘그는 이런 뜻을 내게 알려 주었다. 그의 나라에는 긴 의자나 소파 따위가 하나도 없어서, 왕과 추장들, 그리고 대체로 높은 사람들은 아랫사람 몇을 살찌워 등받이 없는 의자로 쓰는 풍습이 있어서, 그 점에서 집을 편안하게 꾸미려면 게으른 녀석 여덟이나 열을 사들여 창

사이 벽과 벽감에 빙 둘러 눕혀 놓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게다가 소풍을 나갈 때도 아주 편리해서, 지팡이로 바꿀 수 있는 정원 의자 따위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때에 따라 추장은 시종을 불러, 가지를 넓게 펼친 나무 밑에, 어쩌면 축축한 늪지 어딘가에 제 몸으로 긴 의자를 만들라고 한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퀴퀘그는 내게서 도끼를 받을 때마다 그 손도끼 쪽 날을 잠든 사람의 머리 위에서 휘둘렀다.

"그건 왜 그래, 퀴퀘그?"

"아주 쉽다, 죽인다. 오! 아주 쉽다!"

그는 도끼 파이프에 얽힌 야성적인 추억을 계속 늘어놓고 있었는데, 그 파이프는 두 가지 쓰임새로 원수들의 머리를 부수기도 하고 그의 영혼을 달래 주기도 한 것 같았다. 그러다 우리는 곧 잠든 삭구장이에게 눈길이 쏠렸다. 짙은 연기가 이제 그 비좁은 구멍을 가득 채우자 그에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무언가에 막힌 듯 숨을 쉬더니, 코가 괴로운 것 같았고, 한두 번 몸을 뒤척이더니, 일어나 앉아 눈을 비볐다.

"여보시오!" 그가 마침내 숨을 내쉬며 말했다. "담배 피우는 당신들은 누구요?"

"배에 탄 사람들이오." 내가 대답했다. "배가 언제 떠나오?"

"그래, 그래, 당신들이 저 배를 타고 간다, 그렇단 말이지? 배는 오늘 떠나오. 선장은 어젯밤 배에 올랐소."

"어떤 선장 말이오? 에이해브?"

"그 사람 말고 누가 있겠소?"

에이해브에 관해 몇 가지 더 물어보려는데 갑판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런! 스타벅이 일어났군." 삭구장이가 말했다. "그 사람은 부지런한 일등 항해사야. 좋은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지. 이제 다들 일어났으니

나도 일을 시작해야겠소." 그렇게 말하며 그는 갑판으로 올라갔고, 우리도 따라 올라갔다.

이제 해가 환히 떠올랐다. 곧 선원들이 둘씩 셋씩 배에 올랐고, 삭구장이들은 부산하게 움직였고, 항해사들은 부지런히 일에 매달렸으며, 뭍사람 여럿이 마지막 남은 이런저런 물건을 배에 나르느라 바빴다. 그동안 에이해브 선장은 보이지 않게 선장실 안에 모셔진 채 그대로 있었다.

제22장 즐거운 성탄

마침내 정오 무렵, 배의 삭구장이들을 마지막으로 내보내고, 피쿼드호를 부두에서 끌어낸 뒤, 그리고 늘 사려 깊은 채리티가 보트를 타고 와서 마지막 선물을, 곧 그 여자와 인척 간인 이등 항해사 스터브에게 줄 나이트캡과 급사에게 줄 여분의 성경을 건네고 간 뒤, 이 모든 일이 끝나자 펠레그와 빌대드 두 선장이 선장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펠레그가 일등 항해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 스타벅 씨, 다 제대로 됐는지 확실한가? 에이해브 선장은 채비가 다 됐네. 방금 이야기하고 왔지. 뭍에서 더 가져올 건 없지, 응? 그럼 선원들을 다 부르게. 여기 고물로 모이게 하게. 빌어먹을 녀석들!"

"아무리 급해도 불경스러운 말은 쓸 필요가 없네, 펠레그." 빌대드가 말했다. "그러나 어서 가게, 스타벅 형제, 우리가 이른 대로 하게."

이게 웬일인가! 이제 막 항해를 떠나려는 이 마당에 펠레그 선장과 빌대드 선장이 뒷갑판에서 위세를 부리고 있었다. 보기에 항구에서 그렇듯 바다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지휘할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에이해브 선장으로 말하자면, 아직도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선장실에 있다고들 했다. 그러나 배를 띄워 바다로 한참 몰고 나가는 데 그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실제로 그것은 그가 맡을 일이 아니라 수로 안내인이 맡을 일이었고, 그는 아직 다 낫지 않았으므로, 그렇다고들 했으므로, 에이해브 선장은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꽤 자연스러워 보였다. 특히 상선에서는

많은 선장들이 닻을 올린 뒤 한동안 갑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선장실 식탁에 앉아 뭍의 벗들과 작별 잔치를 벌이다가, 그 벗들이 수로 안내인과 함께 배를 아주 떠난 뒤에야 나오니 더욱 그랬다.

그러나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할 틈은 별로 없었다. 펠레그 선장이 이제 온통 기운이 펄펄 났기 때문이다. 말하고 명령하는 것은 거의 다 빌대드가 아니라 그가 하는 것 같았다.

"여기 고물로 와라, 이 총각 놈들의 자식들아." 선원들이 큰 돛대 곁에서 꾸물거리자 그가 외쳤다. "스타벅 씨, 저 녀석들을 고물로 몰아오게."

"저기 천막을 걷어라!" 이것이 다음 명령이었다. 앞서 넌지시 말했듯이 고래뼈 천막은 항구에서만 세웠고, 피쿼드호에서는 서른 해 동안 천막을 걷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다음은 닻을 올리는 일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았다.

"캡스턴에 붙어라! 피와 천둥이다! 뛰어!" 이것이 그다음 명령이었고, 선원들은 캡스턴 지렛대로 달려들었다.

그런데 배를 띄울 때 수로 안내인이 대개 자리 잡는 곳은 배의 앞부분이다. 그리고 빌대드는, 밝혀 두자면 그는 다른 직함 말고도 펠레그와 더불어 이 항구에서 면허를 받은 수로 안내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관여한 모든 배에 낸터킷 수로 안내 요금을 아껴 주려고 수로 안내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다. 다른 배는 한 번도 안내한 적이 없었으니까. 아무튼 빌대드는 이제 다가오는 닻을 찾아 부지런히 뱃머리 너머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고, 이따금 양묘기에 붙은 선원들을 북돋우려는 듯 음울한 찬송가 한 소절 같은 것을 불렀는데, 선원들은 그에 맞춰 부블 골목의 아가씨들에 관한 무슨 합창 같은 것을 진심을 다해 우렁차게 불러 젖혔다. 그런데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빌대드는 피쿼드호에서는, 특히 배를 띄울 때는 불경스러운 노래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말했고, 그의 누이 채리티는 선원들의 침상마다 작고 고급스러운 와츠 찬송가집을 한 권씩 놓아두었다.

그동안 배의 다른 쪽을 감독하던 펠레그 선장은 고물에서 더없이 끔찍하게 고함치고 욕을 퍼부었다. 나는 닻을 올리기도 전에 그가 배를 가라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저도 모르게 지렛대를 밀던 손을 멈추고 퀴퀘그에게도 그러라고 했다. 저런 악마를 수로 안내인으로 삼아 항해를 시작하다니 우리 둘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겪을지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도 777분의 1 몫을 내놓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경건한 빌대드에게서 무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엉덩이를 날카롭게 쿡 찌르는 것이 느껴졌고, 돌아보니 펠레그 선장이 내 바로 옆에서 다리를 거두어들이고 있는 모습이 유령처럼 나타나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이 내가 처음 걷어차인 일이었다.

"상선에서는 그렇게 감나?" 그가 고함쳤다. "뛰어라, 이 양 대가리야. 뛰어라, 등뼈가 부러지도록! 뛰라니까, 이놈들아, 다들, 뛰어! 쿼호그! 뛰어라, 거기 붉은 구레나룻. 뛰어라, 스코틀랜드 모자. 뛰어라, 초록 바지. 뛰라니까, 다들,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뛰어!" 그렇게 말하며 그는 양묘기를 따라 움직이면서 여기저기서 아주 거리낌 없이 발길질을 했고, 그동안 태연한 빌대드는 계속 찬송가를 선창했다. 펠레그 선장이 오늘 무얼 좀 마신 게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마침내 닻이 올라오고 돛이 펼쳐지자 우리는 미끄러지듯 떠났다. 짧고 추운 성탄절이었다. 그리고 짧은 북쪽의 낮이 밤으로 녹아들 무렵, 우리는 어느새 겨울 바다 한복판에 거의 다 나와 있었고, 얼어붙는 물보라가 반들반들한 갑옷처럼 우리를 얼음으로 감쌌다. 뱃전에 늘어선 이빨들이 달빛에 반짝였고, 어느 거대한 코끼리의 하얀 상아 엄니처럼 휘어진 커다란 고드름들이 뱃머리에 매달려 있었다.

수로 안내인인 깡마른 빌대드가 첫 당직을 이끌었다. 그리고 늙은 배가 초록빛 바다에 깊이 곤두박질쳐 온몸에 떨리는 서리를 끼얹고, 바람이 울부짖고 삭구가 울릴 때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넘실대는 큰물 너머 아름다운 들판, 싱싱한 초록 옷을 입고 서 있네. 옛 가나안이 유대 백성에게 그렇게 서 있었네, 요단강이 그 사이로 흐르는 동안."

그 아름다운 노랫말이 그때만큼 아름답게 들린 적은 없었다. 그 말은 희망과 열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나운 대서양의 이 얼어붙는 겨울밤에도, 젖은 발과 그보다 더 젖은 웃옷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게는 앞으로 즐거운 항구가 숱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영원히 봄인 풀밭과 숲속 빈터가 있어서, 봄에 돋아난 풀이 밟히지도 시들지도 않고 한여름까지 남아 있을 것만 같았다.

마침내 우리는 먼바다로 충분히 나왔고, 두 수로 안내인은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를 따라오던 튼튼한 돛단배가 우리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다.

이때 펠레그와 빌대드가, 특히 빌대드 선장이 감정에 겨워하는 모습은 신기하면서도 보기 싫지 않았다. 그토록 길고 위험한 항해를, 폭풍 치는 두 곶 너머까지 떠나는 배, 그가 애써 번 수천 달러가 들어간 배, 옛 동료가 선장으로 타고 가는 배, 그와 거의 같은 나이의 사람이 다시 한 번 무자비한 턱이 주는 온갖 공포와 맞서려고 떠나는 배를 떠나기가, 그것도 아주 떠나 버리기가 그는 아직 내키지 않았다. 어느 모로 보나 자기에게 걸린 것이 가득 넘치는 것에 작별 인사를 하기가 내키지 않아서, 가엾은 늙은 빌대드는 오래도록 머뭇거리며, 초조한 걸음으로 갑판을 서성였고, 작별의 말을 한마디 더 하려고 선장실로 뛰어 내려갔고, 다시 갑판으로 올라와 바람 불어오는 쪽을 바라보았고, 멀리

보이지 않는 동쪽 대륙들로만 막혀 있는 넓고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았고, 뭍을 바라보았고, 위를 올려다보았고, 오른쪽 왼쪽을 바라보았고, 모든 곳을 보면서 아무 데도 보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기계적으로 밧줄 하나를 말뚝에 감더니, 발작하듯 튼튼한 펠레그의 손을 움켜쥐고는, 등불을 쳐들고 잠시 영웅처럼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펠레그 형제, 나는 견딜 수 있네. 그래, 견딜 수 있어."

펠레그로 말하자면, 그는 철학자처럼 의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철학에도 불구하고 등불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눈에 눈물 한 방울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 역시 선장실과 갑판 사이를 적잖이 오갔다. 아래에서 한마디 하고, 이번에는 일등 항해사 스타벅과 한마디 하고.

그러나 마침내 그는 마지막인 듯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나서 동료를 돌아보았다. "빌대드 선장, 자, 옛 동료, 우리는 가야 하네. 저기 큰 활대를 뒤로 돌려라! 보트 어이! 이제 바짝 붙을 채비를 해라! 조심, 조심! 자, 빌대드, 이 사람아, 마지막 말을 하게. 행운을 비네, 스타벅. 행운을 비네, 스터브 씨. 행운을 비네, 플래스크 씨. 잘들 가게, 모두에게 행운을 비네. 그리고 삼 년 뒤 바로 오늘, 옛 낸터킷에서 김이 펄펄 나는 따뜻한 저녁을 차려 두겠네. 만세, 떠나라!"

"하나님이 자네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거룩한 손으로 지켜 주시기를, 젊은이들." 늙은 빌대드가 거의 앞뒤 없이 중얼거렸다. "이제 날씨가 좋아서 에이해브 선장이 곧 자네들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네. 그 사람에게는 따사로운 햇볕만 있으면 되는데, 자네들이 가는 열대 항로에서는 햇볕을 실컷 받을 걸세. 사냥할 때 조심하게, 항해사들. 작살잡이들, 쓸데없이 보트를 박살 내지 말게. 좋은 흰 삼나무 판자가 한 해 사이에 꼬박 3퍼센트나 올랐네. 기도도 잊지 말게. 스타벅 씨, 통장이가 여분의 통널을 허투루 쓰지 않게 잘 보게. 오! 돛 바늘은 초록

사물함에 있네! 주일에는 고래잡이를 너무 많이 하지 말게, 젊은이들. 그렇다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도 말게. 그건 하늘이 주신 좋은 선물을 물리치는 일이니. 스터브 씨, 당밀 통을 잘 지켜보게. 내 생각에 조금 새는 것 같았네. 섬에 들르거든, 플래스크 씨, 음행을 조심하게. 잘 가게, 잘 가! 스타벅 씨, 그 치즈를 선창에 너무 오래 두지 말게. 상할 걸세. 버터도 조심해서 다루게. 1파운드에 20센트였어. 그리고 명심하게, 만약……"

"자, 자, 빌대드 선장,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떠나세!" 그러면서 펠레그는 그를 서둘러 뱃전 너머로 내려보냈고, 두 사람은 보트로 뛰어내렸다.

배와 보트는 서로 갈라졌고, 차갑고 축축한 밤바람이 그 사이로 불었고, 갈매기 한 마리가 울며 머리 위로 날아갔고, 두 선체가 거칠게 흔들렸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만세를 세 번 부르고, 운명처럼 눈먼 채 외로운 대서양으로 뛰어들었다.

제23장 바람받이 해안

몇 장 앞에서 벌킹턴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다. 뉴베드퍼드의 여인숙에서 마주친, 키 크고 막 뭍에 오른 뱃사람이었다.

그 몸서리치는 겨울밤, 피쿼드호가 앙심 품은 뱃머리를 차갑고 악의에 찬 물결 속으로 들이밀었을 때, 그 배의 키를 잡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던가, 바로 벌킹턴이었다! 나는 공감 어린 경외와 두려움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겨울에 네 해에 걸친 위험한 항해에서 막 뭍에 오른 그가, 쉴 틈도 없이 또다시 폭풍 몰아치는 항해에 나설 수 있다니. 뭍이 그의 발바닥을 불태우는 것만 같았다. 가장 경이로운 것은 언제나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깊은 기억은 묘비명을 남기지 않는다. 6인치짜리 이 장은 벌킹턴의 비석 없는 무덤이다. 다만 이렇게만 말해 두자. 그는 바람 불어 가는 쪽 뭍을 따라 비참하게 떠밀려 가는, 폭풍에 시달린 배와 같은 처지였다. 항구는 기꺼이 도움을 주려 한다. 항구는 자비롭다. 항구에는 안전과 편안함과 난롯가와 저녁 식사와 따뜻한 담요와 벗들, 죽을 운명을 지닌 우리에게 다정한 모든 것이 있다. 그러나 그런 강풍 속에서 항구는, 뭍은 그 배에 가장 끔찍한 위험이다. 배는 모든 환대에서 달아나야 한다. 뭍에 한 번 닿기만 해도, 그것이 용골을 스치는 정도일 뿐이라도, 배는 속속들이 몸서리칠 것이다. 배는 온 힘을 다해 돛이란 돛을 다 펴고 해안에서 멀어진다. 그러면서 그 배를 고향으로 불어 보내려는 바로 그 바람과 맞서 싸우고, 매질당하는 바다의 뭍 없는 곳을

다시 찾아 나서며, 피난처를 얻으려고 처량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든다. 그 배의 유일한 벗이 가장 모진 원수다!

벌킹턴, 이제 알겠는가? 그대는 죽을 몸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 진실을 언뜻언뜻 보는 듯하다. 깊고 진지한 생각은 모두, 하늘과 땅의 가장 사나운 바람이 작당하여 영혼을 믿을 수 없고 비굴한 해안으로 내던지려 하는 동안, 제 바다의 탁 트인 자유를 지키려는 영혼의 겁 없는 몸부림일 뿐이라는 진실을?

그러나 가장 높은 진리는 뭍 없는 곳에만, 해안도 없고 신처럼 끝 모를 곳에만 깃드니, 그 울부짖는 무한 속에서 죽는 편이, 바람 불어 가는 쪽 해안에 부딪혀 볼품없이 부서지는 것보다 낫다. 그것이 설령 안전이라 해도! 그러니 오! 누가 벌레처럼 비겁하게 뭍으로 기어가겠는가! 무서운 것 가운데 무서운 것이여! 이 모든 고뇌가 그토록 헛되단 말인가?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오 벌킹턴이여! 굳세게 견디라, 반신(半 神)이여! 바다에서 죽어 가는 그대의 물보라 속에서 곧장 위로, 그대의 신격화가 솟구쳐 오른다!

제24장 변호

퀴퀘그와 나는 이제 이 포경이라는 일에 제대로 뛰어들었고, 이 포경이라는 일은 어찌 된 셈인지 뭍사람들 사이에서 꽤나 시적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로 여겨지게 되었으므로, 나는 고래를 사냥하는 우리에게 이로써 가해지는 부당함을, 그대 뭍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납득시키고 싶어 안달이 난다.

우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포경이라는 일이 이른바 전문직과 같은 반열로 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는 것은 거의 쓸데없는 짓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대도시의 잡다한 모임에 낯선 사람 하나가 소개된다고 하자. 그가 이를테면 작살잡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된다면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한 모두의 평가는 그다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해군 장교들을 흉내 내어 명함에 S.W.F.(향유고래 포경업)라는 머리글자를 덧붙인다면, 그런 짓은 더없이 주제넘고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세상이 우리 포경선원들을 존중하려 들지 않는 주된 까닭 하나는 틀림없이 이것이다. 사람들은 우리의 직업이 기껏해야 백정 같은 일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그 일에 한창 매달려 있을 때면 온갖 더러운 것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백정인 것은 맞다. 그러나 세상이 언제나 기꺼이 받드는 모든 무장 지휘관도 백정이었고, 그것도 가장 피비린내 나는 표장을 단 백정이었다. 그리고 우리 일이 불결하다는 주장으로 말하자면, 그대들은 지금껏 대체로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고, 그 사실들은 대체로 보아 향유고래 포경선을 이 깔끔한 지구에서 적어도 가장 깨끗한 것들 가운데 하나로 당당히 올려놓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비난이 사실이라고 쳐 주더라도, 포경선의 어지럽고 미끄러운 갑판을 숱한 병사들이 돌아와 모든 숙녀의 박수갈채를 들이마시는 그 전쟁터의 말할 수 없는 썩은 시체 더미에 어찌 견주겠는가? 그리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병사라는 직업에 대한 세상의 자부를 그토록 높여 준다면, 이것만은 장담해 두겠다. 포대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던 숱한 노병도 향유고래의 거대한 꼬리가 머리 위 공기를 소용돌이로 부채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금세 움찔하고 물러설 것이다. 하나님의 서로 얽힌 공포와 경이에 견주면,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공포가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세상은 우리 고래 사냥꾼들을 비웃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우리에게 더없이 깊은 경의를 바치고 있다. 그렇다, 넘쳐 나는 숭배를 바치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타오르는 가는 초와 등잔과 촛불은 거의 모두 숱한 성소 앞에서 그러듯 우리의 영광을 위해 타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다른 빛에 비추어 보라. 온갖 저울에 달아 보라. 우리 포경선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라.

드 비트 시대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째서 포경 선단에 제독을 두었는가?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어째서 사재를 털어 됭케르크에서 포경선을 꾸리고, 바로 우리 섬 낸터킷의 몇십 가구를 그 도시로 정중히 초청했는가? 영국은 어째서 1750년에서 1788년 사이에 자국 포경선원들에게 장려금으로 100만 파운드가 넘는 돈을 주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 포경선원들이 오늘날 세상의 나머지 포경선원을 다 합친 것보다 수가 많고, 칠백 척이 넘는 배로 함대를 꾸려 만 팔천 명이 타고, 해마다 400만 달러를 쓰며, 떠날 때 배의 값어치만 2,000만 달러에 이르고, 해마다 우리 항구로 700만 달러어치의 알찬

수확을 들여오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포경에 무언가 강한 힘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나 이것은 절반도 안 된다. 다시 보라.

나는 거리낌 없이 단언한다. 세계주의 철학자라도 지난 예순 해 동안 넓은 온 세상을 한데 묶어 놓고 볼 때 고귀하고 힘센 포경이라는 일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 평화로운 영향력을 하나라도 짚어 내지는 결코 못할 것이다. 포경은 이런저런 길로, 그 자체로도 놀랍고 뒤따르는 결과로도 끊임없이 중대한 사건들을 낳았으니, 태 속에서부터 이미 아이를 밴 자식들을 낳은 저 이집트의 어머니로 여겨도 마땅하다.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늘어놓는 것은 가망 없고 끝없는 일일 것이다. 한 줌만 들어도 충분하리라. 지난 여러 해 동안 포경선은 땅에서 가장 멀고 가장 덜 알려진 곳들을 찾아내는 선구자였다. 포경선은 해도도 없고 쿡이나 밴쿠버 같은 사람이 한 번도 항해한 적 없는 바다와 군도를 탐험했다. 미국과 유럽의 군함들이 지금 한때 야만스러웠던 항구에 평화롭게 떠 있다면, 처음에 그들에게 길을 보여 주고 그들과 야만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말을 옮겨 준 포경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그 군함들은 예포를 쏘아야 한다. 탐험대의 영웅들을, 그대들의 쿡을, 그대들의 크루젠슈테른을 마음대로 기리라지.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낸터킷에서는 이름 없는 선장 수십 명이 배를 몰고 나갔는데, 그들은 그대들의 쿡이나 크루젠슈테른만큼, 아니 그들보다 더 위대했다. 그들은 도움 하나 없는 빈손으로, 상어가 들끓는 이교도의 바다에서, 기록에 없는 투창의 섬들 바닷가에서, 쿡이 해병과 머스킷총을 다 거느리고도 선뜻 맞서려 하지 않았을 처녀 같은 경이와 공포와 싸웠기 때문이다. 옛 남태평양 항해기에서 그토록 요란하게 떠벌리는 모든 것도 우리의 영웅적인 낸터킷 사람들에게는 평생 겪는 흔한 일일 뿐이었다. 밴쿠버가 세

장이나 바친 모험을 이 사람들은 배의 평범한 항해일지에 적을 값어치도 없다고 여기는 일이 많았다. 아, 세상이여! 오, 세상이여!

포경이 혼곶을 돌아가기 전까지는 유럽과 태평양 연안에 길게 늘어선 부유한 스페인 속령들 사이에는 식민지 교역 말고는 아무런 교역도 없었고, 식민지 왕래 말고는 왕래도 거의 없었다. 그 식민지들을 두고 스페인 왕실이 펼친 시샘 많은 정책을 처음으로 뚫고 들어간 것은 포경선원이었다. 그리고 지면이 허락한다면, 바로 그 포경선원들에게서 마침내 페루와 칠레와 볼리비아가 옛 스페인의 멍에에서 해방되고 그 지역에 영원한 민주주의가 세워졌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구 반대편의 그 위대한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는 포경선원이 계몽된 세계에 내준 땅이다. 어느 네덜란드 사람이 실수로 처음 그 땅을 발견한 뒤, 다른 모든 배는 그 해안을 지독히 야만스러운 곳이라며 오랫동안 피해 다녔다. 그러나 포경선은 거기 들렀다. 포경선이야말로 지금은 강대해진 그 식민지의 참된 어머니다. 게다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처음 정착하던 초창기에 이주민들은 마침 그 바다에 닻을 내린 포경선의 자비로운 건빵 덕에 몇 번이나 굶어 죽을 고비를 넘겼다. 폴리네시아 전역의 헤아릴 수 없는 섬들도 같은 진실을 고백하며, 선교사와 상인을 위해 길을 터 주고 많은 경우 초창기 선교사들을 처음 가야 할 곳까지 실어 날라 준 포경선에 장사꾼의 경의를 바친다. 빗장을 이중으로 지른 저 나라 일본이 언젠가 손님을 반기는 나라가 된다면, 그 공은 오로지 포경선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포경선은 이미 그 문턱에 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앞에 두고도 포경에는 미적으로 고귀한 연상이 하나도 없다고 그대가 아직도 우긴다면, 나는 거기서 그대와 창 쉰 자루를 부러뜨리며 겨루고, 그때마다 그대의 투구를 쪼개 말에서 떨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고래에게는 이름난 작가가 없고, 포경에는 이름난 연대기 작가가 없다고 그대는 말하리라.

고래에게 이름난 작가가 없고, 포경에 이름난 연대기 작가가 없다고? 우리 리워야단에 관한 첫 기록을 누가 썼는가? 위대한 욥 말고 누구겠는가! 그리고 포경 항해에 관한 첫 이야기를 누가 지었는가? 다름 아닌 왕, 앨프레드 대왕 말고 누구겠는가. 그는 몸소 왕의 펜을 들어 그 시대 노르웨이의 고래 사냥꾼 오테르의 말을 받아 적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를 위해 불타는 찬사를 바친 사람은 누구인가? 에드먼드 버크 말고 누구겠는가!

그건 그렇다 치자. 하지만 포경선원들은 가엾은 녀석들이고, 그 핏줄에는 좋은 피가 흐르지 않는다.

그 핏줄에 좋은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그들의 핏줄에는 왕족의 피보다 나은 것이 흐른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할머니는 메리 모렐로, 나중에 혼인하여 메리 폴저가 되었는데, 낸터킷의 옛 정착민 가운데 한 사람이며, 오늘날 세상 이쪽에서 저쪽까지 미늘 달린 작살을 날리는 폴저 집안과 작살잡이들, 모두 고귀한 벤저민의 일가붙이인 그 긴 혈통의 조상이다.

또 그렇다 치자. 하지만 포경이 어쩐지 점잖지 못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포경이 점잖지 못하다고? 포경은 제왕의 일이다! 옛 영국 성문법에 따르면 고래는 "왕의 물고기"[1]로 선언되어 있다.

오, 그건 이름뿐이지! 고래 자체가 무슨 장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선 적은 한 번도 없다.

고래가 장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어느 로마 장군이 세계의 수도에 들어설 때 그에게 베푼 대단한 개선 행진

가운데 하나에서, 시리아 해안에서 먼 길을 실어 온 고래의 뼈가 심벌즈 울리는 행렬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그대가 그렇게 예를 드니 그건 인정하지. 그러나 그대가 무슨 말을 하든 포경에는 참된 위엄이 없다.

포경에 위엄이 없다고? 우리 직업의 위엄은 하늘이 몸소 증언한다. 남쪽 하늘에는 고래자리가 있다! 더 말할 것도 없다! 차르 앞에서는 모자를 눌러쓰고, 퀴퀘그 앞에서는 모자를 벗으라!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평생 고래 삼백오십 마리를 잡은 사람을 하나 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만큼 많은 성곽 도시를 함락했다고 뽐낸 옛날의 그 위대한 장수보다 더 명예롭다고 여긴다.

그리고 나로 말하자면, 혹시라도 내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슨 빼어난 것이 있다면, 내가 품어도 터무니없지는 않을 야망의 대상인 그 작지만 드높고 고요한 세계에서 내가 언젠가 참된 명성을 얻을 자격이 있게 된다면,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대체로 보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보다는 차라리 해낸 편이 나았을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죽은 뒤 내 유언 집행인들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내 빚쟁이들이 내 책상에서 무슨 귀한 원고를 찾아낸다면, 나는 미리 여기서 모든 명예와 영광을 포경에 돌린다. 포경선이 나의 예일 대학이었고 나의 하버드였으니까.

---

1. 이 문제에 관해서는 뒤의 장들에서 좀 더 다룬다.

제25장 덧붙임

포경의 위엄을 위해 나는 확증된 사실만 내놓고 싶다. 그러나 사실들을 진지처럼 늘어세운 뒤에, 제 주장에 웅변처럼 힘을 실어 줄지도 모를 터무니없지 않은 추측 하나를 깡그리 덮어 버리는 변호인이 있다면, 그런 변호인은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겠는가?

왕과 여왕의 대관식에서, 오늘날의 대관식에서도, 그들을 직무에 맞게 양념하는 어떤 기묘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른바 나라의 소금 그릇이라는 것이 있고, 어쩌면 나라의 양념병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소금을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는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대관식에서 왕의 머리에 샐러드 한 포기에 그러듯 엄숙하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만은 나도 확신한다. 그런데 기계에 기름을 치듯, 머릿속이 잘 돌아가게 하려고 기름을 바르는 것일 수도 있을까? 이 제왕의 절차가 지닌 본질적인 위엄에 관해서는 여기서 곱씹을 것이 많다. 보통 살림살이에서 우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기름 냄새를 눈에 띄게 풍기는 녀석을 하찮고 같잖게 여기기 때문이다. 사실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면서 머릿기름을 바르는 다 큰 사내는 아마 어딘가에 물렁한 데가 있을 것이다. 대체로 그런 사람은 통틀어 보아 그리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따져 볼 것은 단 하나, 대관식에 쓰는 것이 어떤 기름이냐 하는 것이다. 올리브유일 리는 없고, 마카사르 머릿기름도, 피마자유도, 곰 기름도, 바다짐승 기름도, 대구 간유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모든 기름 가운데 가장 향긋한 기름, 가공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의 향유고래 기름 말고 무엇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 충성스러운 영국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왕과 여왕에게 대관식 재료를 대는 것은 우리 포경선원들이다!

제26장 기사와 종자

피쿼드호의 일등 항해사는 스타벅이었다. 낸터킷 토박이로, 집안 대대로 퀘이커 교도였다. 그는 키가 크고 진지한 사내였고, 얼음 덮인 해안에서 태어났지만 더운 위도에서도 잘 견딜 것 같았다. 그의 살이 두 번 구운 건빵처럼 단단했기 때문이다. 동인도나 서인도로 실려 가도 그의 살아 있는 피는 병에 든 에일처럼 상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온 나라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던 어느 때, 아니면 그의 주(州)가 이름난 금식일 가운데 어느 하루에 태어났음이 틀림없다. 그는 메마른 여름을 겨우 서른 번쯤 보았을 뿐인데, 그 여름들이 그의 몸에서 군더더기를 모조리 말려 버렸다. 그러나 그의 이 마른 몸은, 말하자면, 무슨 몸의 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듯 몸을 축내는 근심과 걱정의 표시로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그 사람이 응축된 모습일 뿐이었다. 그는 결코 못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깨끗하고 팽팽한 살갗이 그에게 꼭 맞았고, 그 안에 단단히 싸여 속의 건강과 힘으로 방부 처리된 이 스타벅은, 되살아난 이집트 사람처럼 앞으로 오랜 세월을 견디고, 늘 지금처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극지의 눈이든 열대의 해든, 특허받은 크로노미터처럼 그의 속 생명력은 어떤 기후에서도 잘 버티리라는 보증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가 평생 침착하게 맞섰던 천 겹의 위험이 남긴 영상이 아직도 거기 어려 있는 것 같았다. 차분하고 굳건한 사람, 그의 삶은 대체로 소리로 된 밋밋한 한 장(章)이 아니라 행동으로 된 의미심장한 무언극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굳센 침착함과 꿋꿋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때로 나머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우에는 나머지 모든 것을 거의 압도할 것 같은 몇 가지 기질이 있었다. 그는 뱃사람으로서는 드물게 양심적이었고 타고난 깊은 경건함을 지녔으므로, 그 삶의 거칠고 물로 된 외로움은 그를 미신 쪽으로 크게 기울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체질의 사람에게서는 무지보다는 오히려 어찌 된 셈인지 지성에서 솟아나는 듯한 그런 미신이었다. 바깥의 조짐과 안의 예감이 그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때로 그 영혼의 단련된 쇠를 휘게 했다면, 케이프코드에 두고 온 젊은 아내와 아이에 대한 머나먼 집안의 기억은 그를 본디의 꿋꿋한 천성에서 훨씬 더 휘게 했고, 숨은 영향력에 그를 훨씬 더 열어 놓았다. 그 영향력은, 정직한 마음을 지닌 어떤 사람들에게서, 포경의 더 위험한 우여곡절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드러내는 무모하고 대담한 기세가 솟구치는 것을 억누른다.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보트에 태우지 않겠네." 스타벅은 그렇게 말했다. 이 말로 그는, 가장 믿음직하고 쓸모 있는 용기는 맞닥뜨린 위험을 공정하게 가늠하는 데서 생기는 용기라는 것뿐 아니라, 두려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겁쟁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동료라는 뜻을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렇지, 그렇지." 이등 항해사 스터브가 말했다. "저기 스타벅은 이 포경업 어디를 찾아봐도 그만큼 조심성 있는 사람이 없을 만한 친구야." 그러나 스터브 같은 사람이, 아니 거의 어떤 고래 사냥꾼이든 그 「조심성 있는」 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우리는 머잖아 보게 될 것이다.

스타벅은 위험을 찾아 나서는 십자군이 아니었다. 그에게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그저 쓸모 있는 것이었고, 목숨이 걸린 모든 실제 상황에서 늘 손 닿는 데 있었다. 게다가 그는 아마도 이 포경이라는

일에서 용기는 배의 소고기와 빵처럼 배의 큰 기본 장비 가운데 하나이니 어리석게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해가 진 뒤에 고래를 잡으려고 보트를 내리는 일도, 자기와 너무 끈질기게 싸우려 드는 고래와 끈질기게 싸우는 일도 좋아하지 않았다. 스타벅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먹고살려고 고래를 죽이러 이 위태로운 바다에 와 있지, 고래가 먹고살게 하려고 고래에게 죽으러 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스타벅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운명을 맞았던가? 바닥 모를 깊은 바다 어디에서 그는 찢겨 나간 형제의 팔다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기억을 품고 있으면서, 게다가 앞서 말했듯 얼마쯤 미신에 기우는 사람이었으니, 그런데도 여전히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 스타벅의 용기는 참으로 대단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체질을 지니고 그가 겪은 것과 같은 끔찍한 경험과 기억을 품은 사람에게서, 이런 것들이 어떤 요소를 남몰래 낳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본성이 아니었다. 본성상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요소는 알맞은 형편을 만나면 갇힌 데서 뛰쳐나와 그의 용기를 몽땅 태워 버릴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그의 용기는 주로 몇몇 겁 없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용기였다. 바다나 바람이나 고래, 또는 세상의 흔한 이치 없는 공포와 맞서 싸울 때는 대체로 굳건히 버티지만, 성나고 힘센 사람의 잔뜩 찌푸린 이마에서 때로 그대를 위협해 오는, 더 영적이기 때문에 더 무시무시한 공포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용기 말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어느 대목에서든 가엾은 스타벅의 꿋꿋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나는 차마 그것을 쓸 마음이 나지 않을 것이다. 영혼 속 용기의 몰락을 드러내는 것은 더없이 슬프고, 아니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합자 회사나

나라로 뭉쳐 있을 때 혐오스러워 보일 수 있다. 악당과 바보와 살인자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비루하고 초라한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상 속의 인간은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찬란하며, 너무도 위대하고 빛나는 존재여서, 그에게 있는 어떤 수치스러운 흠이라도 그의 모든 동료가 달려가 가장 값진 옷을 덮어 주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느끼는 그 티 없는 사람다움은 우리 안 너무도 깊은 곳에 자리하여 바깥의 성품이 다 사라진 듯해도 고스란히 남는데, 그것은 용기가 무너진 사람이 벌거벗겨진 광경을 볼 때 가장 날카로운 고통으로 피를 흘린다. 그런 부끄러운 광경 앞에서는 경건함 자신도 그것을 허락한 별들을 향한 꾸짖음을 다 억누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장엄한 위엄은 왕과 예복의 위엄이 아니라, 예복을 걸쳐 주는 의식이 없는 넘쳐 나는 위엄이다. 그대는 곡괭이를 휘두르거나 대못을 박는 팔에서 그것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사방으로 하나님에게서 끝없이 뻗어 나오는 그 민주적인 위엄을. 하나님 그분에게서! 절대자이신 위대한 하나님! 모든 민주주의의 중심이자 둘레! 그분이 어디에나 계심이 곧 우리의 신성한 평등이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가장 비천한 뱃사람들과 배교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 어둡기는 해도 드높은 자질을 붙여 준다면, 그들 둘레에 비극적인 기품을 엮어 준다면, 그들 가운데 가장 서글프고, 어쩌면 가장 낮아진 자가 때로 드높은 산으로 몸을 일으킨다면, 내가 그 일꾼의 팔에 천상의 빛을 비춘다면, 내가 그의 재앙 같은 해넘이 위에 무지개를 펼친다면, 그때는 죽을 운명의 모든 비평가에 맞서 나를 지켜 주소서, 내 모든 족속 위에 인간다움이라는 왕의 망토 하나를 펼쳐 주신 공정한 평등의 영이시여! 나를 지켜 주소서, 위대한 민주의 하나님이시여! 검은 얼굴의 죄수 버니언에게 창백하고 시적인 진주를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시여, 늙은 세르반테스의 잘려 나간 가난한 팔에 두 번 두드려 편

가장 고운 금박을 입혀 주신 분이시여, 앤드루 잭슨을 조약돌 사이에서 집어 올려 군마 위로 던져 올리고 천둥처럼 옥좌보다 높이 올려 주신 분이시여! 이 땅 위를 힘차게 행진하실 때마다 늘 왕 같은 평민 가운데서 가장 빼어난 투사들을 골라 뽑으시는 분이시여, 나를 지켜 주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제27장 기사와 종자

스터브는 이등 항해사였다. 그는 케이프코드 토박이여서, 그 지방 관습에 따라 케이프코드 사람이라고 불렸다. 태평한 낙천가였고, 겁쟁이도 용사도 아니었으며, 위험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무심하게 받아들였고, 추격이 가장 급박한 고비에 이르렀을 때에도 한 해 계약으로 고용된 소목 직공처럼 침착하고 차분하게 묵묵히 일했다. 마음씨 좋고 느긋하고 무사태평한 그는, 가장 목숨이 걸린 대결도 저녁 식사일 뿐이고 보트의 선원들은 모두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듯이 자기 보트를 이끌었다. 그는 늙은 역마차 마부가 제 마부석을 아늑하게 꾸미는 데 까다로운 만큼이나 보트에서 자기 자리를 편안하게 꾸미는 데 까다로웠다. 고래에 바짝 붙어 싸움이 죽기 살기로 맞물린 고비에서도 그는 휘파람을 부는 땜장이가 망치를 다루듯 무자비한 창을 침착하고 대수롭지 않게 다루었다. 그는 가장 성난 괴물과 옆구리를 맞대고서도 흥겨운 옛 가락을 흥얼거리곤 했다. 오랜 버릇이 이 스터브에게는 죽음의 아가리를 편안한 안락의자로 바꾸어 놓았다. 그가 죽음 자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가 도대체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기나 한지도 의문일 것이다. 그러나 혹시 배불리 저녁을 먹고 나서 어쩌다 그쪽으로 생각이 미친 적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훌륭한 뱃사람답게 죽음을 당직을 부르는 소리쯤으로 여겼을 것이다. 돛대 위로 뛰어 올라가 거기서 무언가를 부지런히 하라는 소리,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령에 따라 올라가 보아야 알게 되고 그 전에는 모르는 그런 소리로.

다른 것들과 함께 스터브를 그토록 느긋하고 겁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 모두가 짐을 지고 땅바닥까지 허리를 굽힌 근엄한 행상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삶의 짐을 지고 그토록 즐겁게 터벅터벅 걸어가게 한 것, 거의 불경스러울 만큼 좋은 그의 기분을 낳는 데 한몫한 것, 그것은 아마도 그의 파이프였을 것이다. 짧고 검은 그의 작은 파이프는 그의 코처럼 그의 얼굴에 늘 붙어 있는 생김새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가 파이프 없이 침상에서 나오는 것을 기대하느니 차라리 코 없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그는 침상에 파이프를 한 줄 가득 담배를 재워 받침대에 꽂아 두어 손 닿기 쉬운 곳에 두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에서 다음 것으로 불을 옮겨 붙이며 끝까지 차례로 다 피웠고, 그러고는 다시 쓸 채비를 하려고 또 담배를 재웠다. 스터브는 옷을 입을 때 다리부터 바지에 넣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부터 입에 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쉬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적어도 그의 별난 기질을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였음이 틀림없다고 나는 말한다. 뭍에서든 바다에서든 이 땅의 공기는 그것을 내쉬며 죽어 간 헤아릴 수 없는 인간들의 이름 모를 비참함으로 지독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콜레라가 돌 때 어떤 사람들이 장뇌를 먹인 손수건을 입에 대고 다니듯, 스터브의 담배 연기도 죽을 운명의 온갖 시련을 막는 일종의 소독약 노릇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삼등 항해사는 플래스크였다. 마서스비니어드 섬 티즈베리 토박이였다. 키가 작고 땅딸막하며 혈색 좋은 젊은 친구로, 고래에게 몹시 싸움을 걸고 싶어 했다. 그는 어찌 된 셈인지 거대한 리워야단들이 자기에게 몸소, 대대로 모욕을 주었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그래서 고래를 만나기만 하면 해치우는 것을 일종의 명예가 걸린 일로 여겼다. 그 장엄한 덩치와 신비로운 습성에 담긴 숱한 경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그는 송두리째 잃어버렸고, 고래와 맞닥뜨릴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같은 것에도 완전히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의 보잘것없는 생각으로는 그 경이로운 고래도 커다랗게 부풀린 생쥐, 아니면 적어도 물쥐의 일종일 뿐이어서, 조금 에둘러 가며 시간과 수고를 조금만 들이면 죽여서 삶을 수 있었다. 이렇게 무지하고 저도 모르는 겁 없음 때문에 그는 고래 문제에서는 좀 장난꾸러기 같았다. 그는 재미로 이 물고기들을 쫓았고, 혼곶을 도는 삼 년 항해도 그에게는 그만큼 오래 이어지는 유쾌한 농담일 뿐이었다. 목수의 못을 두드려 만든 못과 잘라 만든 못으로 나누듯 인류도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꼬마 플래스크는 두드려 만든 쪽이었다. 단단히 끝을 구부려 박히고 오래가도록 만든 못이었다. 피쿼드호에서는 그를 킹포스트라고 불렀다. 생김새가 북극 포경선에서 그렇게 부르는 짧고 굵은 네모 버팀목에 빗댈 만했기 때문이다. 그 버팀목은 사방으로 뻗은 여러 겹 목재를 끼워 넣어, 두들겨 대는 바다의 얼음덩이 충격에 맞서 배를 버텨 준다.

그런데 이 세 항해사, 스타벅과 스터브와 플래스크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누구나 인정하는 관례에 따라 피쿼드호의 보트 세 척을 보트장으로서 지휘한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 에이해브 선장이 고래를 덮치려고 아마도 병력을 정렬할 그 장엄한 전투 대형에서 이 세 보트장은 중대장과 같았다. 또는 길고 날카로운 고래잡이 창으로 무장했으니 그들은 엄선된 세 창기병이었고, 작살잡이들은 투창을 던지는 병사였다.

그리고 이 이름난 포경업에서는 항해사나 보트장은 저마다 옛 고딕 시대의 기사처럼 늘 보트 키잡이, 곧 작살잡이를 거느리고 다니며, 이 작살잡이는 어떤 고비에서 앞서 쓰던 창이 공격 중에 심하게 비틀리거나 꺾이면 새 창을 건네준다. 게다가 둘 사이에는 대개 가까운 친분과 우정이 이어지므로, 여기서 피쿼드호의 작살잡이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저마다 어느 보트장에게 딸려 있었는지 적어 두는 것이 마땅하다.

맨 먼저 퀴퀘그가 있었다. 일등 항해사 스타벅이 그를 자기 종자로 골랐다. 그러나 퀴퀘그는 이미 아는 사람이다.

다음은 태시테고였다. 그는 마서스비니어드 섬의 가장 서쪽 곶인 게이헤드 출신의 순혈 인디언이었는데, 그곳에는 지금도 인디언 마을의 마지막 자취가 남아 있고, 그 마을은 오랫동안 이웃 섬 낸터킷에 가장 대담한 작살잡이들을 숱하게 대 주었다. 포경업에서 그들은 대개 게이헤드 사람이라는 통칭으로 불린다. 태시테고의 길고 가늘고 새까만 머리카락, 높은 광대뼈, 둥글고 검은 눈은, 그 눈은 인디언치고는 크기로 보면 동양 사람 같고 번득이는 눈빛으로 보면 남극 같았는데, 이 모든 것이, 뉴잉글랜드의 큰 무스를 찾아 활을 손에 들고 이 대륙의 원시림을 누비던 그 자랑스러운 전사 사냥꾼들의 더럽혀지지 않은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넉넉히 말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숲속 짐승의 자취를 냄새 맡으며 쫓지 않고, 태시테고는 바다의 거대한 고래들이 지나간 물길을 쫓았다. 아들의 빗나가지 않는 작살이 아버지들의 틀림없는 화살을 알맞게 대신한 것이다. 뱀처럼 유연한 그의 팔다리에 붙은 황갈색 근육을 보면, 초기 청교도 몇몇의 미신을 그대로 믿고 이 거친 인디언을 하늘 권세들의 왕의 아들이라고 반쯤 믿게 될 지경이었다. 태시테고는 이등 항해사 스터브의 종자였다.

작살잡이 가운데 셋째는 다구였다. 석탄처럼 새까만 거인 흑인 야만인으로, 사자 같은 걸음걸이에 보기에 아하수에로 왕 같았다. 그의 두 귀에는 금 고리 두 개가 매달려 있었는데, 어찌나 큰지 선원들은 그것을 고리 볼트라고 부르며 중간 돛 마룻줄을 거기에 매어 두자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다구는 젊었을 때 고향 해안의 외딴 만에 머물던 포경선에 스스로 올라탔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낸터킷과 포경선원들이

가장 자주 드나드는 이교도의 항구 말고는 세상 어디에도 가 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을 태우는지에 유난히 마음을 쓰는 선주들의 배를 타고 여러 해 동안 포경업의 대담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구는 야만인다운 미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기린처럼 꼿꼿하게, 양말만 신고도 6피트 5인치나 되는 키를 위풍당당하게 뽐내며 갑판을 돌아다녔다. 그를 올려다보면 몸이 저절로 낮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앞에 선 백인은 요새에 휴전을 구걸하러 온 백기 같았다. 신기하게도 이 제왕 같은 흑인, 아하수에로 다구는 꼬마 플래스크의 종자였고, 그 곁에 선 플래스크는 체스 말처럼 보였다. 피쿼드호의 나머지 선원들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해 두자. 오늘날 미국 포경업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평선원 가운데 미국 태생은 두 사람에 하나도 안 되지만, 항해사들은 거의 다 미국 태생이다. 이 점에서 미국 포경업은 미국의 육군과 해군과 상선대, 그리고 미국의 운하와 철도 건설에 고용된 공병 인력과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까닭은, 이 모든 경우에 토박이 미국인은 두뇌를 아낌없이 대고, 나머지 세상은 그만큼 너그럽게 근육을 대기 때문이다. 이 포경 선원들 가운데 적잖은 수가 아조레스 제도 출신인데, 바다로 나가는 낸터킷 포경선들은 그곳에 자주 들러 그 바위투성이 해안의 억센 농부들로 선원을 보충한다. 같은 이치로 헐이나 런던에서 떠나는 그린란드 포경선들은 셰틀랜드 제도에 들러 선원 정원을 채운다. 돌아오는 길에는 그들을 거기에 다시 내려 준다. 어째서 그런지는 알 길이 없지만, 섬사람이 가장 훌륭한 포경선원이 되는 것 같다. 피쿼드호의 선원은 거의 다 섬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이들을 *외딴섬 사람*이라고도 부른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대륙을 인정하지 않고, *외딴섬 사람* 하나하나가 저마다 따로 떨어진 제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한 용골을 따라 연합한 이 외딴섬 사람들은 대단한 무리였다! 바다의 모든 섬과 땅의 모든 끝에서 온

아나카르시스 클로츠의 대표단[1]이 늙은 에이해브와 함께 피쿼드호를 타고 세상의 억울함을 그 법정 앞에 호소하러 가고 있었다. 그 법정에서 돌아오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꼬마 흑인 핍, 그 아이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오, 그렇다! 그 아이는 먼저 갔다. 가엾은 앨라배마 소년! 음울한 피쿼드호의 앞갑판에서 머잖아 그대는 그 아이가 탬버린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그것은 영원한 때의 전주였다. 그때 그 아이는 부름을 받아 저 높은 곳의 거대한 뒷갑판으로 가서, 천사들과 함께 장단을 맞추고 영광 속에서 탬버린을 치라는 분부를 받았다. 여기서는 겁쟁이라 불리고, 저기서는 영웅으로 환영받았다!

---

1. (옮긴이) 프로이센 태생의 혁명가 아나카르시스 클로츠는 1790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 꾸린 「인류의 대표단」을 이끌고 프랑스 국민의회 앞에 나섰다.

제28장 에이해브

낸터킷을 떠나고 며칠 동안 갑판 위에서는 에이해브 선장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항해사들이 꼬박꼬박 서로 당직을 교대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만이 이 배의 지휘관인 것 같았다. 다만 그들은 이따금 선장실에서 나와 너무도 갑작스럽고 단호한 명령을 내리곤 해서, 결국 그들이 남을 대신해 지휘할 뿐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 그들의 최고 군주이자 독재자는 거기 있었다. 지금은 성소가 된 선장실의 은신처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지 못한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아래에서 당직을 마치고 갑판으로 올라갈 때마다 나는 곧바로 고물 쪽을 바라보며 낯선 얼굴이 보이는지 살폈다. 그 알 수 없는 선장에 대해 처음 품었던 막연한 불안이 이제 바다의 고립 속에서 거의 동요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 동요는 이따금 누더기 차림의 엘리야가 늘어놓던 악마 같은 횡설수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시 떠오르면서 이상하게 더 커졌다. 그 말들은 전에는 상상도 못 했을 미묘한 힘으로 되살아났다. 다른 기분일 때는 부두의 그 기괴한 예언자가 늘어놓던 엄숙한 변덕에 거의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그 말들에는 좀처럼 맞설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느낀 것이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배 안을 둘러볼 때마다 그런 감정을 품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 같았다. 작살잡이들은 대다수 선원들과 함께, 내가 전에 겪어 알게 된 어느 길들여진 상선 선원들보다 훨씬 야만스럽고 이교도 같고 잡다한 무리였지만, 나는 그것을 내가 그토록 거리낌 없이 뛰어든

그 거친 스칸디나비아풍 직업의 본성 자체가 지닌 사나운 유별남 탓으로 돌렸고, 옳게 그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빛깔 없는 의구심을 가라앉히고 항해의 모든 모습에서 믿음과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기에 가장 알맞았던 것은 특히 배의 세 고급 선원, 곧 항해사들의 모습이었다. 저마다 다른 데가 있었지만 이보다 더 훌륭하고 믿음직한 항해사이자 사나이를 셋이나 쉽게 찾을 수는 없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미국 사람이었다. 낸터킷 사람 하나, 마서스비니어드 사람 하나, 케이프코드 사람 하나. 그런데 배가 항구에서 쏜살같이 빠져나간 때가 성탄절이었으므로 한동안은 살을 에는 극지 날씨가 이어졌다. 그래도 우리는 줄곧 그 날씨에서 남쪽으로 달아나고 있었고, 위도를 1도, 1분 지날 때마다 그 무자비한 겨울과 견딜 수 없는 날씨를 차츰 뒤로 남겨 두었다. 계절이 바뀌는 무렵의, 덜 찌푸렸지만 그래도 잿빛에 꽤나 음울한 어느 아침이었다. 순풍을 받은 배는 앙심을 품은 듯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우울하게 빠른 속도로 물을 가르고 달리고 있었는데, 오전 당직을 부르는 소리에 갑판으로 올라가 고물 난간 쪽으로 눈길을 겨누자마자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가 쳐졌다. 현실이 걱정보다 앞질렀다. 에이해브 선장이 자기 뒷갑판에 서 있었다.

그에게는 흔한 몸의 병을 앓는 기색도, 병에서 회복되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화형대에서 막 끊어 내린 사람 같았다. 불길이 온 팔다리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태워 없애지는 못했고, 단단히 다져진 늙은 억셈을 한 톨도 앗아 가지 못한 사람. 크고 떡 벌어진 그의 온몸은 단단한 청동으로 만들고 바뀌지 않는 거푸집으로 빚은 것 같았다. 첼리니가 주조한 페르세우스처럼. 그의 회색 머리카락 사이에서 비집고 나와 황갈색으로 그을린 얼굴과 목 한쪽을 따라 곧장 내려가다 옷 속으로 사라지는, 막대처럼 가는 검푸르고 희끄무레한 자국 하나가 보였다. 그것은 거대한 나무의 곧고 높은 줄기에 이따금 생기는 세로

솔기를 닮았다. 위에서 번개가 찢어발기듯 내리꽂히며, 잔가지 하나 비틀지 않은 채 꼭대기에서 밑동까지 나무껍질을 벗기고 골을 파 놓고는 땅속으로 빠져나가서, 나무는 여전히 푸르게 살아 있지만 낙인이 찍힌 채 남는 그런 솔기 말이다. 그 자국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처절한 상처가 남긴 흉터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었다. 무언의 합의라도 있었는지, 항해 내내 그 자국은, 특히 항해사들은 거의 또는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은 선원 가운데 태시테고보다 나이가 많은 늙은 게이헤드 인디언 하나가 미신에 사로잡혀 이렇게 우겼다. 에이해브는 마흔 살이 꽉 차고서야 그렇게 낙인이 찍혔는데, 그것은 사람끼리 싸우다 분노 속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원소들과 싸우다 생긴 것이라고. 그러나 이 엉뚱한 암시는 백발의 맨섬 노인이 넌지시 한 말로 미루어 보면 부정되는 것 같았다. 무덤에서 나온 듯한 이 노인은 전에 낸터킷에서 배를 타고 나간 적이 없어서 사나운 에이해브를 그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래된 바다의 전설,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온 믿음은 세간에서 이 늙은 맨섬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분별력을 입혀 주었다. 그래서 그가 에이해브 선장이 언젠가 조용히 염을 받고 눕게 된다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 죽은 이에게 마지막 수발을 드는 사람은 그의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이어진 모반을 보게 되리라고 말했을 때, 어느 백인 선원도 그 말에 진지하게 반박하지 않았다.

에이해브의 음산한 모습 전체와 그 모습에 그어진 검푸른 낙인이 나를 몹시 사로잡아서, 처음 몇 순간 동안 나는 이 압도적인 음산함의 적잖은 몫이 그가 몸을 반쯤 싣고 서 있는 야만스러운 흰 다리 때문이라는 것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 고래뼈 의족은 바다에서 향유고래 턱의 반들반들한 뼈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는 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지, 그 사람은 일본 앞바다에서 돛대가 꺾였지." 늙은 게이헤드

인디언이 한번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돛대가 꺾인 자기 배처럼, 돛대를 구하러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다른 돛대를 달았어. 그런 다리를 화살통 가득 갖고 있다니까."

나는 그가 취하고 있는 기묘한 자세에 놀랐다. 피쿼드호 뒷갑판 양쪽, 뒷돛대 돛대 밧줄에 꽤 가까운 곳에는 판자에 송곳으로 반 인치쯤 판 구멍이 하나씩 있었다. 그 구멍에 뼈 다리를 박아 몸을 가누고, 한 팔을 들어 돛대 밧줄 하나를 붙잡은 채, 에이해브 선장은 꼿꼿이 서서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뱃머리 너머를 똑바로 내다보고 있었다. 앞으로 내던져진 그 굳고 겁 없는 눈길에는 끝없이 굳건한 꿋꿋함, 굽히지 않는 단호한 고집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항해사들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작은 몸짓과 표정 하나하나로, 괴로운 주인의 눈길 아래 있다는 것을, 고통스럽지는 않더라도 불안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드러냈다. 그뿐이 아니었다. 침울하고 상처 입은 에이해브는 얼굴에 십자가의 고난을 띤 채, 어떤 거대한 비애가 지닌 이름 모를 왕다운 위압적 위엄을 온통 두르고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처음 바깥바람을 쐰 그 자리에서 선장실로 물러갔다. 그러나 그날 아침 뒤로 그는 날마다 선원들 눈에 띄었다. 자기 축 구멍에 서 있거나, 그가 가진 고래뼈 의자에 앉아 있거나, 무겁게 갑판을 거닐었다. 하늘이 덜 음울해지고, 실은 조금씩 다정해지기 시작하자, 그는 점점 더 은둔자 같지 않게 되었다. 마치 배가 고향을 떠날 때 그를 그토록 틀어박혀 있게 한 것은 바다의 죽은 듯한 겨울의 황량함뿐이었다는 듯이. 그리고 차츰 그는 거의 늘 바깥에 나와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볕이 든 갑판에서 그가 한 말이나 눈에 띄게 한 일로 보자면, 그는 아직 거기서 또 하나의 돛대만큼이나 쓸모없어 보였다. 그러나 피쿼드호는 이제 그저 뱃길을 가는 중이었을 뿐, 고래를

찾아 제대로 순항하고 있지는 않았다. 감독이 필요한 고래잡이 채비는 거의 다 항해사들이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에이해브를 바쁘게 하거나 흥분시킬 것은 그 자신 말고는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 그 한동안이라도 그의 이마에 겹겹이 쌓인 구름을 몰아낼 것도 없었다. 모든 구름이 언제나 가장 높은 봉우리를 골라 그 위에 쌓이듯이.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다다른 즐거운 휴일 같은 날씨의 따뜻하고 지저귀는 듯한 설득이 차츰 그를 그 기분에서 꾀어내는 것 같았다. 볼이 발그레한 춤추는 소녀들, 4월과 5월이 사람을 싫어하는 겨울 숲으로 사뿐사뿐 돌아오면, 가장 헐벗고 가장 울퉁불퉁하며 벼락에 가장 깊이 쪼개진 늙은 참나무조차 그런 기쁜 마음의 손님들을 맞으려고 적어도 푸른 싹 몇 개쯤은 내밀듯이, 에이해브도 결국에는 그 소녀 같은 바람의 장난스러운 유혹에 조금은 응했다. 그는 여러 번 희미한 눈빛의 꽃봉오리를 내밀었는데,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것은 곧 미소로 피어났을 것이다.

제29장 에이해브 등장, 이어 스터브

며칠이 지나 얼음과 빙산을 모두 뒤로하자, 피쿼드호는 이제 눈부신 키토의 봄 속을 출렁이며 나아갔다. 바다에서는 그 봄이 열대의 영원한 8월로 들어서는 문턱에서 거의 늘 다스린다. 따스하면서도 서늘하고, 맑고, 낭랑하고, 향기롭고, 넘쳐흐르고, 차고 넘치는 나날은 장미수로 만든 눈을 수북이, 송이송이 쌓아 올린 페르시아 셔벗을 담은 수정 잔 같았다. 별이 총총하고 위엄 있는 밤들은 보석 박힌 벨벳을 입은 오만한 귀부인들 같았으니, 외로운 자존심을 품고 집에서, 정복하러 떠나 집에 없는 백작들, 곧 황금 투구를 쓴 해들의 기억을 보듬는 귀부인들이었다! 잠자는 사람에게는 그토록 매혹적인 낮과 그토록 유혹하는 밤 가운데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울 줄 모르는 그 날씨의 온갖 마법은 바깥 세계에만 새로운 주문과 힘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 마법은 안으로 영혼을 향해 돌아섰는데, 특히 저녁의 고요하고 온화한 시간이 다가오면 그랬고, 그러면 소리 없는 황혼에 맑은 얼음이 가장 잘 얼듯, 기억이 수정을 뻗어 냈다. 그리고 이 모든 미묘한 작용이 점점 더 에이해브의 바탕에 스며들었다.

늙음은 늘 잠이 없다. 삶과 오래 이어져 있을수록 죽음처럼 보이는 것과는 덜 엮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배의 지휘관들 가운데서도 수염이 하얗게 센 늙은이들이 밤의 망토를 두른 갑판으로 가려고 침상을 가장 자주 떠난다. 에이해브도 그랬다. 다만 요즘 들어 그는 바깥에서 사는 것 같았으므로,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는 선장실에서 갑판으로

나온다기보다 갑판에서 선장실로 다녀가는 셈이었다. "나 같은 늙은 선장이 무덤처럼 파인 침상으로 가려고 이 좁은 승강구를 내려가는 건," 그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제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기분이구나."

그래서 거의 스물네 시간마다, 밤 당직들이 정해지고 갑판의 무리가 아래 무리의 잠을 지키고, 앞갑판에서 밧줄을 끌어당겨야 할 때면 선원들이 낮처럼 거칠게 내던지지 않고 잠든 동료들을 깨울까 봐 조심조심 제자리에 내려놓을 때, 이런 한결같은 고요가 깔리기 시작할 때면, 말 없는 키잡이는 늘 선장실 승강구를 지켜보았다. 그러면 머지않아 노인이 불편한 걸음을 돕느라 쇠 난간을 움켜쥐고 나타났다. 그에게는 사람다운 배려 같은 것이 있었으니, 이런 때면 그는 대개 뒷갑판을 순찰하지 않았다. 그의 고래뼈 발꿈치에서 6인치도 안 되는 곳에서 휴식을 찾는 지친 항해사들에게, 그 뼈 다리 걸음이 쩡쩡 울리며 내는 소리와 소음은 그들이 상어의 으드득거리는 이빨 꿈을 꿀 만큼 요란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은 그 기분이 너무 깊어서 흔한 배려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그가 통나무 같은 무거운 걸음으로 고물 난간에서 큰 돛대까지 배를 재고 있을 때, 고참 이등 항해사 스터브가 아래에서 올라와, 어딘가 자신 없고 양해를 구하는 듯한 익살을 섞어, 에이해브 선장이 갑판 위를 걷고 싶다면 아무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소리를 죽일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넌지시 말하면서, 삼 부스러기를 뭉친 공에 그 고래뼈 발꿈치를 끼우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흐릿하게, 머뭇거리며 내비쳤다. 아! 스터브, 그때 너는 에이해브를 몰랐구나.

"내가 대포알이냐, 스터브." 에이해브가 말했다. "나를 그렇게 솜뭉치로 틀어막겠다니? 그러나 네 길이나 가라. 내가 깜빡했구나. 네 밤의 무덤으로 내려가라. 너 같은 것들이 수의 사이에서 자면서 마침내

수의 하나를 채울 날에 몸을 길들이는 그곳으로. 내려가라, 개야, 개집으로!"

너무도 갑자기 경멸을 퍼붓는 노인의 뜻밖의 마지막 외침에 스터브는 흠칫 놀라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고는 흥분해서 말했다. "저는 그런 말을 듣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선장님. 그런 말은 반의반도 달갑지 않습니다, 선장님."

"그만!" 에이해브가 앙다문 이 사이로 내뱉고는, 무슨 격한 유혹이라도 피하려는 듯 거칠게 걸음을 옮겼다.

"아닙니다, 선장님. 아직 안 됩니다." 스터브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고분고분 개라고 불리지는 않겠습니다, 선장님."

"그럼 열 번 당나귀라고, 노새라고, 멍청한 나귀라고 불려라. 그리고 꺼져라, 안 그러면 세상에서 너를 치워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며 에이해브가 위압적인 공포를 온 얼굴에 띠고 그에게 다가서자, 스터브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전에 이런 일을 당하고서 한 방 세게 먹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스터브는 선장실 승강구를 내려가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중얼거렸다. "참 이상하네. 잠깐, 스터브. 어쩐지 지금, 돌아가서 그 사람을 한 대 칠지, 아니면, 그게 뭐였더라? 여기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 내 속에서 올라온 생각이 그거였어. 하지만 그러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건 처음이 되겠지. 이상해. 아주 이상해. 그리고 그 사람도 이상해. 그래, 이물부터 고물까지 따져 봐도, 그 사람은 스터브가 지금껏 같이 배를 탄 늙은이 가운데 제일 이상한 늙은이야. 나한테 어찌나 번쩍하던지! 눈이 꼭 화약 접시 같았어! 미친 걸까? 어쨌든 그 사람 마음에 무언가 있어. 갑판이 쩍 갈라질 때는 틀림없이 갑판 위에 무언가 있듯이 말이야. 게다가 그 사람은 스물네 시간 가운데 세 시간도 침상에 있지 않아. 그것도 자는 게

아니고. 급사 도우보이가 그러지 않았던가? 아침마다 가 보면 노인의 해먹 이부자리가 늘 온통 구겨지고 헝클어져 있고, 홑이불은 발치에 내려가 있고, 덮개는 거의 매듭이 지어지다시피 꼬여 있고, 베개는 구운 벽돌이라도 올려놓았던 것처럼 끔찍하게 뜨겁다고. 뜨거운 노인이로군! 뭍의 몇몇 사람들이 양심이라고 부르는 걸 가졌나 봐. 그건 무슨 틱돌리로우라는 병 같은 거라던데. 치통보다 더 지독하대. 뭐,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나는 그걸 옮지 않게 해 주소서. 그 사람은 수수께끼투성이야. 도우보이가 짐작하기로는 밤마다 뒤쪽 선창으로 들어간다던데,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걸까?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네. 선창에서 누가 그 사람하고 만날 약속을 했나? 이제 보니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알 길이 없지. 늘 하던 수작이야. 자, 한숨 자러 가자. 제기랄, 그저 금세 곯아떨어지려고만 해도 세상에 태어날 만한 보람은 있다니까. 그러고 보니 갓난아기들이 맨 먼저 하는 일이 그거잖아. 그것도 좀 이상하네. 제기랄,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이상해. 하지만 그건 내 원칙에 어긋나지. 생각하지 말라, 이게 내 열한째 계명이고, 잘 수 있을 때 자라, 이게 내 열두째 계명이야. 자, 그러니 다시 자러 가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나한테 개라고 하지 않았나? 빌어먹을! 열 번 당나귀라고 하고, 그 *위에* 멍청한 나귀를 잔뜩 쌓아 올렸잖아! 차라리 나를 걷어차고 끝내는 편이 나았겠어. 어쩌면 정말로 나를 *걷어찼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했는지도 몰라. 어쩐지 그 이마에 너무 질려서 그만 넋이 나갔으니까. 그 이마가 바랜 뼈처럼 번쩍했어. 도대체 나 왜 이러지? 다리로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겠네. 그 노인하고 부딪치고 나니 어째 내가 뒤집혀 버린 것 같아. 맙소사, 그래도 꿈을 꾸었던 게 틀림없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지만 유일한 길은 이걸 처박아 두는 거야. 그러니 다시 해먹으로 가자.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망할 놈의 요술이 대낮에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지 봐야지."

제30장 파이프

스터브가 떠나자 에이해브는 한동안 뱃전에 기대어 서 있다가, 요즘 늘 하던 대로 당직 선원 하나를 불러 아래로 보내서 고래뼈 의자와 파이프를 가져오게 했다. 그는 나침반 등잔에서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갑판의 바람 불어오는 쪽에 의자를 놓고는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옛 북유럽 시대에는 바다를 사랑하던 덴마크 왕들의 옥좌를 일각고래의 엄니로 만들었다고 전설은 이른다. 그렇다면 뼈로 된 그 세발 의자에 앉은 에이해브를 바라보며, 어찌 그것이 상징하는 왕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에이해브는 갑판의 칸이자 바다의 왕이요, 리워야단들의 위대한 군주였으니까.

몇 분이 흐르는 동안 짙은 연기가 그의 입에서 빠르고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 도로 그의 얼굴로 불어 왔다. "이게 뭐냐." 마침내 그가 파이프를 입에서 떼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담배를 피워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구나. 오, 나의 파이프여! 네 마력이 사라졌다면 나도 어지간히 고단한 처지구나! 여기서 나는 즐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애쓰고 있었다. 그래, 그동안 줄곧 모르고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연기를 뿜고 있었다.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그것도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뻐끔거리며, 죽어 가는 고래처럼, 마지막 물줄기가 가장 세고 가장 고뇌로 가득하다는 듯이. 내가 이 파이프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평온을 위한 물건, 부드러운 흰머리 사이로 부드러운 흰 연기를 피워

올리라고 있는 물건이지, 나처럼 찢긴 철회색 머리칼 사이로 피워 올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는 피우지 않겠다……"

그는 아직 불이 붙은 파이프를 바다에 던졌다. 불이 물결 속에서 쉭 소리를 내는 바로 그 순간, 배는 가라앉는 파이프가 만든 물거품 곁을 쏜살같이 지나쳤다. 모자를 푹 눌러쓴 에이해브는 비틀거리며 갑판을 서성였다.

제31장 매브 여왕

이튿날 아침 스터브가 플래스크에게 말을 걸었다.

"그렇게 이상한 꿈은 처음 꿨어, 킹포스트. 너 영감의 고래뼈 의족 알지? 그런데 그 영감이 그 다리로 나를 걷어차는 꿈을 꿨지 뭐야. 그래서 나도 되받아 걷어차려고 했더니, 맹세코, 꼬마야, 내 다리가 홀랑 떨어져 나가 버렸어! 그러더니, 짠! 에이해브가 피라미드처럼 보이고, 나는 불붙은 바보처럼 거기에 대고 자꾸 발길질을 했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플래스크, 꿈이라는 게 다 얼마나 신기한지 너도 알지만, 그렇게 잔뜩 성이 나 있는 내내 어쩐지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결국 에이해브한테 걷어차인 건 그리 큰 모욕이 아니라고. '아니,' 하고 나는 생각했지. '뭐가 그리 대수야? 진짜 다리도 아니고 가짜 다리일 뿐인데.' 그리고 살아 있는 것한테 맞는 것과 죽은 것한테 맞는 건 엄청나게 다르거든. 그래서 손으로 맞는 게, 플래스크, 지팡이로 맞는 것보다 쉰 배는 더 견디기 힘든 거야. 살아 있는 팔다리, 그게 살아 있는 모욕을 만드는 거야, 꼬마야. 그리고 잘 들어, 그 저주받을 피라미드에 내 어리석은 발가락을 찧고 있는 내내, 모든 게 그렇게 지독하게 앞뒤가 안 맞았는데, 내내 말이야,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저 사람 다리가 지금 지팡이 말고 뭐야, 고래뼈 지팡이지. 그래,' 하고 생각했지. '장난으로 몽둥이찜질을 좀 한 것뿐이야. 사실은 고래뼈찜질을 좀 해 준 것뿐이지, 천박한 발길질은 아니야. 게다가,' 하고 생각했지. '한번 봐. 그 끝, 그러니까 발 부분

말이야, 얼마나 조그만 끝이야, 발이 넓적한 농부가 나를 걷어찼다면 *그거야말로* 지독하게 넓적한 모욕이겠지만. 하지만 이 모욕은 깎이고 깎여서 뾰족한 점 하나만 남았잖아.' 그런데 이제 꿈에서 제일 웃기는 대목이 나와, 플래스크. 내가 그 피라미드를 마구 두들겨 대고 있는데, 오소리 털 같은 머리에 등에 혹이 난 늙은 인어 영감 같은 게 내 어깨를 붙잡고 나를 홱 돌려세우는 거야. '뭐 하는 거냐?' 하고 그자가 말했어. 맙소사! 이 친구야, 나는 겁에 질렸지. 그런 낯짝이라니! 그런데 어쩐지 다음 순간에는 겁이 싹 가셨어. '뭐 하는 거냐고?' 마침내 내가 말했지. '그게 댁하고 무슨 상관인지 알고 싶은데, 혹등 씨? *댁*도 한 대 차여 보고 싶어?' 맙소사, 플래스크, 내가 그 말을 하자마자 그자가 내 쪽으로 엉덩이를 돌리고 몸을 숙이더니, 기저귀처럼 차고 있던 해초 뭉치를 끌어 올리는 거야. 내가 뭘 봤을 것 같아? 아이고 천둥 맞을, 이 친구야, 그자의 엉덩이에는 밧줄 꼬챙이가 끝을 밖으로 내민 채 빽빽이 꽂혀 있었어.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고 말했지. '영감, 댁은 안 차는 게 좋겠군.' '슬기로운 스터브.' 그자가 말했어. '슬기로운 스터브.' 그러고는 굴뚝 마귀할멈처럼 제 잇몸을 씹어 대듯 내내 그 말을 중얼거렸어. 그자가 '슬기로운 스터브, 슬기로운 스터브' 하는 소리를 그칠 것 같지 않기에, 나는 다시 피라미드를 걷어차기나 하자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러려고 막 발을 들자마자 그자가 고함을 쳤어. '그 발길질 그만둬!' '이봐,' 내가 말했지. '이번엔 또 뭐야, 영감?' '이것 봐라.' 그자가 말했어. '그 모욕을 따져 보자. 에이해브 선장이 너를 걷어찼지, 안 그러냐?' '그래, 걷어찼어.' 내가 말했지. '바로 *여기*였어.' '아주 좋아.' 그자가 말했어. '고래뼈 다리로 찼지, 안 그러냐?' '그래, 그랬어.' 내가 말했지. '그럼,' 그자가 말했어. '슬기로운 스터브, 무슨 불평할 게 있냐?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찼지, 안 그러냐? 흔해 빠진 송진 소나무 다리로 찬 게 아니잖아, 안 그러냐? 아니지, 너는 위대한 사람한테, 그것도 아름다운

고래뼈 다리로 차인 거야, 스터브. 그건 영광이야. 나는 그걸 영광으로 여긴다. 들어라, 슬기로운 스터브. 옛 잉글랜드에서는 가장 높은 귀족들도 여왕에게 뺨을 맞고 가터 기사가 되는 걸 큰 영광으로 여긴다. 그러니, 스터브, 늙은 에이해브에게 걷어차여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네* 자랑으로 삼아라. 내 말 명심해. 그 사람한테 *차여라*. 그 사람의 발길질을 영광으로 여겨라. 그리고 절대로 되받아 차지 마라.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슬기로운 스터브. 저 피라미드가 안 보이냐?' 그 말을 하더니 그자는 갑자기 어쩐지 기묘하게 허공으로 헤엄쳐 사라지는 것 같았어. 나는 코를 골았고, 몸을 뒤척였고, 그리고 보니 내 해먹 안이더라고! 자, 그 꿈을 어떻게 생각해, 플래스크?"

"모르겠어. 그래도 내가 보기엔 좀 바보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그 꿈 덕에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됐어, 플래스크. 저기 에이해브가 서서 고물 너머를 옆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 보이지? 그래, 플래스크, 네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은 그 영감을 가만 내버려 두고, 무슨 말을 하든 절대로 말을 걸지 않는 거야. 이봐! 지금 뭐라고 외치는 거지? 쉿!"

"거기 돛대 꼭대기! 다들 눈 똑바로 뜨고 살펴라! 이 근처에 고래가 있다!

"흰 놈을 보거든, 허파가 터지도록 소리쳐라!"

"이제 저걸 어떻게 생각해, 플래스크? 저 말에 무언가 이상한 게 한 방울쯤 섞여 있지 않아, 응? 흰 고래라니, 너 그거 들었어, 이 친구야? 이것 봐, 바람 속에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 그걸 맞을 채비를 해, 플래스크. 에이해브는 마음속에 무언가 피비린내 나는 걸 품고 있어. 하지만 쉿, 이쪽으로 온다."

제32장 고래학

우리는 이미 대담하게 깊은 바다로 나섰다. 그러나 머지않아 기슭도 항구도 없는 그 끝없는 넓이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해초가 들러붙은 피쿼드호의 선체가 따개비 덮인 리워야단의 몸뚱이와 나란히 뒹굴기 전에, 먼저 짚어 두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앞으로 이어질 리워야단에 관한 갖가지 남다른 계시와 암시를 속속들이 제대로 헤아리려면 거의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지금 그대 앞에 내놓고 싶은 것은 고래를 그 큰 갈래에 따라 체계 있게 늘어놓아 보이는 일이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서 꾀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혼돈을 이루는 것들의 분류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새로운 권위자들이 무엇을 밝혀 두었는지 들어 보라.

"동물학의 어느 분야도 고래학이라 불리는 분야만큼 뒤얽혀 있지 않다." 서기 1820년, 스코스비 선장의 말이다.

"설령 할 수 있다 해도, 고래류를 무리와 과로 나누는 참된 방법을 따지는 일에 뛰어들 생각은 나에게 없다. …… 이 동물(향유고래)을 기록한 사람들 사이에는 완전한 혼란이 있다." 서기 1839년, 외과의 빌의 말이다.

"헤아릴 수 없는 물속에서 우리의 탐구를 이어 가기에는 부적합하다." "고래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덮은 꿰뚫을 수 없는 장막." "가시가 흩뿌려진 들판." "이 모든 불완전한 단서는 우리 박물학자들을 괴롭히는 데나 쓸모가 있을 뿐이다."

동물학과 해부학의 등불인 위대한 퀴비에와 존 헌터와 레송은 고래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참된 지식은 적어도 책은 넉넉하니, 고래학, 곧 고래에 관한 학문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 작은 사람과 큰 사람, 옛사람과 요즘 사람, 뭍사람과 뱃사람 가운데 길게든 짧게든 고래에 관해 글을 쓴 사람은 많다. 몇을 훑어보자. 성경의 저자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리니우스, 알드로반디, 토머스 브라운 경, 게스너, 레이, 린네, 론델레티우스, 윌러비, 그린, 아르테디, 시볼드, 브리송, 마르텐, 라세페드, 보네테르, 데마레, 퀴비에 남작, 프레데리크 퀴비에, 존 헌터, 오언, 스코스비, 빌, 베넷, J. 로스 브라운, 「미리엄 코핀」의 저자, 옴스테드, 그리고 T. 치버 목사. 그러나 이들이 모두 궁극에 가서 무엇을 일반화하려고 글을 썼는지는 위에 끌어온 발췌가 보여 줄 것이다.

이 고래 저자 목록의 이름 가운데 살아 있는 고래를 본 적이 있는 이는 오언 뒤에 나오는 사람들뿐이고, 그 가운데 진짜 전문 작살잡이이자 포경선원은 단 한 사람뿐이다. 스코스비 선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린란드고래, 곧 참고래라는 따로 떨어진 주제에서는 그가 지금 있는 가장 뛰어난 권위자다. 그러나 스코스비는 위대한 향유고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향유고래에 견주면 그린란드고래는 거의 입에 올릴 값어치도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말해 두거니와, 그린란드고래는 바다의 왕좌를 빼앗은 찬탈자다. 그놈은 결코 고래 가운데 가장 큰 놈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놈이 오래전부터 먼저 왕좌를 주장해 온 데다, 칠십 년쯤 전까지 당시에는 전설 속 짐승이거나 아예 알려지지 않았던 향유고래를 둘러싸고 있던 깊은 무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몇몇 과학의 은신처와 포경 항구를 빼고는 어디서나 여전히 군림하는 그 무지 탓에, 이 찬탈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지난날 위대한 시인들이 리워야단을 두고 한 거의 모든

암시를 찾아보면, 그들에게는 그린란드고래가 맞설 자 하나 없는 바다의 군주였다는 것을 그대도 수긍하게 되리라. 그러나 마침내 새로운 포고를 내릴 때가 왔다. 여기는 채링크로스다. 들으라! 선량한 백성들이여, 그린란드고래는 폐위되었다. 이제 위대한 향유고래가 다스린다!

살아 있는 향유고래를 그대 앞에 내보이겠다고 나서면서, 동시에 그 시도에 아주 조금이라도 성공한 책은 세상에 단 두 권뿐이다. 빌의 책과 베넷의 책으로, 두 사람은 모두 한때 영국 남양 포경선의 선의였고 둘 다 정확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들의 책에서 찾을 수 있는 향유고래에 관한 독창적인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적다.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는, 대개 과학적인 기술에 그치기는 하지만, 질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아직은 과학으로든 시로든 향유고래가 어떤 문헌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 있지 않다. 사람이 사냥하는 다른 모든 고래보다 훨씬 더, 그놈의 삶은 아직 쓰이지 않은 삶이다.

그런데 고래의 여러 종은 대중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분류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쉬운 윤곽만이라도 좋고, 그 모든 부문은 뒤에 올 일꾼들이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 이 일을 떠맡겠다고 나서는 더 나은 사람이 없으니, 이제 내가 보잘것없는 내 노력을 내놓는다. 완전한 것은 하나도 약속하지 않는데,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인간의 것은 무엇이든 바로 그 까닭에 틀림없이 결함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종을 해부학적으로 세세히 기술하는 척하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기술이라 할 만한 것도 별로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내 목적은 그저 고래학을 체계로 세우는 밑그림을 그려 보이는 데 있다. 나는 설계자이지 시공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거운 일이어서, 우체국의 평범한 편지 분류원 따위로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놈들을 쫓아 바다 밑바닥까지 더듬어 내려가는 일, 세상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토대와 갈비뼈와 바로 그 골반

사이에 두 손을 넣는 일, 이것은 무시무시한 일이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 리워야단의 코를 꿰어 보겠다고 나선단 말인가! 욥기의 무서운 조롱이 나를 겁에 질리게 할 만도 하다. 그(리워야단)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보라, 그를 잡으려는 희망은 헛되다! 그러나 나는 도서관을 헤엄쳐 지나왔고 대양을 항해해 지나왔다. 나는 눈에 보이는 이 두 손으로 고래를 다루어 왔다. 나는 진지하다. 그러니 해 보리라. 먼저 정해 두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이 고래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지는, 고래가 물고기인가 아닌가가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현관에서부터 증명한다. 서기 1776년, 린네는 「자연의 체계」에서 「나는 이로써 고래를 물고기에서 떼어 놓는다」 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내가 직접 알기로는 1850년에 이르기까지도, 린네의 분명한 칙령을 거슬러, 상어와 청어붙이, 에일와이프와 청어가 여전히 리워야단과 같은 바다를 나누어 차지하고 있었다.

린네가 고래를 물에서 내쫓으려 한 근거를 그는 이렇게 밝힌다. 「따뜻한 두 칸짜리 심장, 허파, 움직이는 눈꺼풀, 속이 빈 귀, 그리고 암컷 안으로 들어가는 음경과 젖을 먹이는 젖통(penem intrantem feminam mammis lactantem)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의 법에 따라 정당하고 마땅하게(ex lege naturæ jure meritoque)」.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벗인 낸터킷의 시미언 메이시와 찰리 코핀에게 내보였다. 둘 다 어느 항해에서 나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던 동무들인데, 둘은 여기 내세운 이유가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찰리는 불경스럽게도 그것이 허튼소리라고 넌지시 말했다.

그러니 알아 두라. 나는 모든 논쟁을 젖혀 두고 고래는 물고기라는 좋은 옛 입장에 서며, 거룩한 요나에게 나를 거들어 달라고 청한다. 이 근본 문제가 정해졌으니, 다음 문제는 고래가 속으로는 어떤 점에서 다른 물고기와 다르냐는 것이다. 위에서 린네가 그대에게 그 항목들을 일러 주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허파와 따뜻한 피. 반면에 다른 물고기는 모두 허파가 없고 피가 차갑다.

다음. 고래를 그 뚜렷한 겉모습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앞으로 영원히 눈에 띄게 꼬리표를 붙여 둘 수 있을까? 짧게 말하면 이렇다. 고래란 *물을 뿜고 꼬리가 수평인 물고기*다. 바로 그것이 고래다. 아무리 줄였다 해도, 이 정의는 넓게 펼친 명상의 결과다. 바다코끼리도 고래와 무척 비슷하게 물을 뿜지만, 바다코끼리는 물고기가 아니다. 물과 뭍을 오가며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의 마지막 항목은 첫 항목과 짝을 이루면서 한층 더 힘을 얻는다. 뭍사람에게 낯익은 물고기는 모두 꼬리가 납작하게 누운 것이 아니라 세로로, 곧 위아래로 서 있다는 것을 거의 누구나 알아차렸을 것이다. 반면에 물을 뿜는 물고기들의 꼬리는 생김새는 비슷할지 몰라도 언제나 수평으로 놓여 있다.

고래가 무엇인지에 관한 위의 정의로, 나는 지금까지 낸터킷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고래와 같은 것으로 여겨 온 바다 생물을 리워야단 형제단에서 결코 빼내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권위 있게 남이라고 여겨져 온 물고기를 거기에 엮어 넣지도 않는다.[1] 그러므로 물을 뿜고 꼬리가 수평인 더 작은 물고기는 모두 이 고래학의 기본 설계에 넣어야 한다. 자, 이제 고래 무리 전체를 크게 나누는 일이 온다.

첫째. 나는 크기에 따라 고래를 세 개의 주된 권(그 아래 장으로 다시 나뉜다)으로 나누며, 이 권들은 작은 고래든 큰 고래든 고래를 모두 아우를 것이다.

I. 이절판 고래, II. 팔절판 고래, III. 십이절판 고래.

이절판의 본보기로 나는 *향유고래*를, 팔절판의 본보기로 *그램퍼스*를, 십이절판의 본보기로 *돌고래*를 내놓는다.

이절판. 여기에 나는 다음 장들을 넣는다. I. *향유고래*, II. *참고래*, III. *지느러미고래*, IV. *혹등고래*, V. *면도날등고래*, VI. *유황배고래*.

제1권(이절판), 제1장(향유고래). 이 고래는 옛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 트럼파고래, 피세테르고래, 모루머리고래 같은 이름으로 흐릿하게 알려졌고, 지금은 프랑스 사람들의 카샬롯, 독일 사람들의 포트피시, 긴 낱말 족속의 마크로케팔루스다. 그놈은 의심할 나위 없이 지구에서 가장 큰 주민이고, 마주치기에 모든 고래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하며, 생김새가 가장 위풍당당하고, 마지막으로 장사에서 단연 가장 값지다. 경랍이라는 그 값진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생물은 그놈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그놈의 독특한 점들은 모두 다른 여러 자리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 내가 다루어야 할 것은 주로 그놈의 이름이다. 말의 뿌리로 따져 보면 그 이름(Sperm Whale)은 터무니없다. 몇 세기 전, 향유고래가 그놈만의 고유한 개체로서는 거의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그놈의 기름을 바닷가에 떠밀려 온 고래에게서 어쩌다 얻을 뿐이던 때, 그 시절에 경랍은 당시 영국에서 그린란드고래, 곧 참고래라고 알려진 것과 같은 생물에게서 나온다고 흔히 여겨졌던 모양이다. 또한 이 경랍이 그 낱말의 첫 음절이 글자 그대로 나타내는 그린란드고래의 생명을 일으키는 체액(sperm)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그 시절에는 또 경랍이 지극히 귀해서 불을 밝히는 데 쓰지 않고 연고와 약으로만 썼다. 요즘 그대가 대황 1온스를 사듯이 약방에서나 구할 수 있었다. 내가 짐작하기로는 세월이 흘러 경랍의 참된 성질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에도 상인들은 원래 이름을 그대로 두었는데, 그 귀함을 그토록 묘하게 드러내는 생각으로 값을 올리려 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마침내 이 경랍이 실제로 나오는 고래에게 붙게 되었음이 틀림없다.

제1권(이절판), 제2장(참고래). 어떤 점에서 이놈은 리워야단 가운데 가장 존경할 만한 고래다. 사람이 처음으로 꾸준히 사냥한 고래이기 때문이다. 이놈에게서는 흔히 고래수염, 곧 수염판이라고 알려진 물건과, 특히 「고래 기름」이라고 알려진 기름이 나오는데, 장사에서는 질이 떨어지는 물건이다. 어부들 사이에서 이놈은 다음 이름들로 가리지 않고 불린다. 고래, 그린란드고래, 검은고래, 큰고래, 참된 고래, 참고래. 이렇게 숱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종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두고는 흐릿한 데가 많다. 그렇다면 내가 이절판의 둘째 종에 넣는 고래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국 박물학자들의 대(大)미스티케투스, 영국 포경선원들의 그린란드고래, 프랑스 포경선원들의 발렌 오르디네르, 스웨덴 사람들의 그롤란즈 발피스다. 지난 두 세기가 넘도록 네덜란드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이 북극 바다에서 사냥해 온 고래이고, 미국 어부들이 인도양에서, 브라질 뱅크에서, 북서 해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참고래 어장이라고 부르는 세계의 여러 다른 곳에서 오래 쫓아 온 고래다.

영국 사람들의 그린란드고래와 미국 사람들의 참고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둘은 큰 특징이 모두 정확히 들어맞으며, 근본적인 구별의 바탕으로 삼을 만한 확정된 사실은 아직 하나도 나온 적이 없다. 박물학의 어떤 분야가 사람을 질리게 할 만큼 뒤얽히게 되는 것은 가장 결론 없는 차이에 바탕을 둔 끝없는 세분 때문이다. 참고래는 향유고래를 밝히는 데 견주어 보기 위해 다른 자리에서 꽤 길게 다룰 것이다.

제1권(이절판), 제3장(지느러미고래). 이 항목 아래 나는 지느러미고래, 높은물줄기, 키다리 존 같은 여러 이름으로 거의 모든 바다에서 눈에 띄어 온 괴물 하나를 넣는다. 뉴욕 정기선 항로로 대서양을 건너는 승객들이 그토록 자주 멀리서 그 물줄기를 알아보는

것도 흔히 이 고래다. 다다르는 몸길이와 고래수염에서 지느러미고래는 참고래를 닮았지만, 몸통 둘레가 덜 뚱뚱하고 빛깔이 더 밝아 올리브색에 가깝다. 그놈의 커다란 입술은 커다란 주름이 비스듬히 서로 꼬여 이룬 겹으로 닻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름의 바탕인 지느러미는 흔히 눈에 확 띈다. 이 지느러미는 길이가 3, 4피트쯤으로, 등의 뒷부분에서 세로로 솟아 있고, 모가 나 있으며, 끝이 몹시 뾰족하다. 그 짐승의 다른 부분은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 외따로 떨어진 지느러미가 이따금 물 위로 또렷이 삐죽 솟아 있는 것이 보인다. 바다가 적당히 잔잔하고 둥근 잔물결이 살짝 그어져 있을 때, 해시계 바늘 같은 이 지느러미가 우뚝 서서 주름진 수면에 그림자를 드리우면, 그것을 둘러싼 물의 동그라미는 바늘과 물결치는 시각선이 새겨진 해시계 판을 얼마쯤 닮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아하스의 해시계에서는 그림자가 자주 뒤로 물러난다. 지느러미고래는 무리를 짓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듯이 그놈은 고래를 미워하는 것 같다. 몹시 수줍고, 늘 혼자 다니며, 가장 멀고 가장 음울한 물에서 뜻밖에 수면으로 떠오르고, 곧고 외줄기인 그 높은 물줄기는 메마른 벌판에 선 사람을 미워하는 키 큰 창처럼 솟구치며, 헤엄치는 힘과 빠르기가 어찌나 놀라운지 지금 사람이 쫓을 수 있는 어떤 추격도 비웃는 이 리워야단은, 제 족속에서 쫓겨난 굴복하지 않는 가인처럼 보이고, 그 표로 등에 그 해시계 바늘을 지고 다닌다. 입에 고래수염이 있다는 이유로 지느러미고래는 때때로 참고래와 함께 *수염고래*, 곧 고래수염이 있는 고래라 불리는 이론상의 종에 들어간다. 이른바 수염고래에는 여러 변종이 있는 듯하지만, 대부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넓은코고래와 부리고래, 창머리고래, 혹고래, 아래턱고래와 주둥이고래가 어부들이 몇몇 종류에 붙인 이름이다.

이 「수염고래」라는 호칭과 관련해 꼭 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런 명명법이 어떤 종류의 고래를 쉽게 가리키는 데는 편리할지 몰라도, 리워야단을 고래수염이나 혹이나 지느러미나 이빨에 바탕을 두고 또렷하게 분류하려는 시도는 헛되다. 그 두드러진 부분이나 특징이, 고래가 그 종류마다 내보이는 다른 어떤 따로 떨어진 몸의 구별보다 고래학의 정연한 체계에 바탕을 대기에 훨씬 더 알맞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고래수염, 혹, 등지느러미, 이빨, 이것들은 그 독특한 점이 모든 종류의 고래 사이에 가리지 않고 흩어져 있어서, 다른 더 본질적인 점에서 그 고래들의 구조가 어떠한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를테면 향유고래와 혹등고래는 저마다 혹이 있다. 그러나 닮은 점은 거기서 끝난다. 그다음에 이 같은 혹등고래와 그린란드고래는 저마다 고래수염이 있다. 그러나 닮은 점은 또 거기서 끝난다. 위에서 든 다른 부분들도 똑같다. 여러 종류의 고래에서 그것들은 너무나 불규칙하게 짝을 이루거나, 그 가운데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너무나 불규칙하게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 바탕 위에 세운 일반적인 체계화를 모조리 물리친다. 고래 박물학자들은 하나같이 이 바위에 부딪혀 쪼개졌다.

그러나 어쩌면 고래의 속, 그 해부 구조에서라면 적어도 올바른 분류를 맞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천만에. 이를테면 그린란드고래의 해부 구조에서 고래수염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고래수염으로 그린란드고래를 올바르게 분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대가 여러 리워야단의 창자 속으로 내려간다 해도, 거기서는 위에 늘어놓은 겉의 구별에 견주어 체계를 세우는 사람에게 50분의 1만큼이라도 쓸모 있는 구별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고래를 몸통째, 그 넉넉한 부피 전체로 붙잡아 과감하게 그렇게 가르는 일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쓰는 서지학 체계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다. 이것만이 실제로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가자.

제1권(이절판), 제4장(혹등고래). 이 고래는 북아메리카 해안에서 자주 보인다. 거기서 자주 잡혀 항구로 끌려왔다. 그놈은 등에 행상처럼 커다란 짐 보따리를 지고 있다. 아니면 코끼리와 성채 고래라고 불러도 좋다. 어쨌든 그놈의 흔한 이름은 그놈을 충분히 구별해 주지 못한다. 향유고래도 더 작기는 하지만 혹이 있기 때문이다. 그놈의 기름은 그리 값지지 않다. 그놈에게는 고래수염이 있다. 그놈은 모든 고래 가운데 가장 장난기 많고 마음이 가벼워서, 대체로 다른 어느 고래보다 즐거운 거품과 흰 물보라를 더 많이 일으킨다.

제1권(이절판), 제5장(면도날등고래). 이 고래에 관해서는 이름 말고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나는 혼곶 앞바다에서 멀리 그놈을 본 적이 있다. 남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성미라 사냥꾼도 철학자도 다 피해 다닌다. 겁쟁이는 아니지만, 그놈은 길고 날카로운 등마루로 솟은 등 말고는 제 몸 어느 부분도 아직 보여 준 적이 없다. 놓아주자. 나도 그놈에 관해 더 아는 것이 거의 없고, 다른 누구도 마찬가지다.

제1권(이절판), 제6장(유황배고래). 나서기를 꺼리는 또 한 분의 신사로, 배가 유황빛이다. 틀림없이 더 깊이 잠수하다가 타르타로스의 바닥 타일에 배를 긁어서 얻은 빛깔이리라. 그놈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더 먼 남쪽 바다 말고는 그놈을 본 적이 없고, 그때도 늘 너무 멀리 있어서 얼굴 생김새를 살필 수 없었다. 그놈은 결코 쫓기지 않는다. 쫓았다가는 밧줄 공장 몇 채 분량의 작살줄을 끌고 달아날 것이다. 그놈에 관해서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잘 가거라, 유황배고래! 나는 너에 관해 참된 말을 더 할 수 없고, 가장 나이 든 낸터킷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제1권(이절판)이 끝나고, 이제 제2권(팔절판)이 시작된다.

팔절판.[2] 여기에는 중간 크기의 고래들이 들어가며, 현재 다음과 같은 고래를 꼽을 수 있다. I. *그램퍼스*, II. *검정고래*, III. *일각고래*, IV. *도리깨고래*, V. *범고래*.

제2권(팔절판), 제1장(그램퍼스). 이 물고기는 요란하게 울리는 숨소리, 아니 물 뿜는 소리로 뭍사람들에게 속담 하나를 마련해 주었을 만큼 깊은 바다의 이름난 주민인데도, 흔히 고래 축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리워야단의 큰 특징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박물학자 대부분은 그놈을 고래로 인정해 왔다. 그놈은 알맞은 팔절판 크기로, 몸길이가 15피트에서 25피트에 이르고 허리둘레도 그에 걸맞다. 그놈은 떼를 지어 헤엄치는데, 기름이 꽤 많이 나오고 불을 밝히기에 제법 좋은데도 결코 꾸준히 사냥되지는 않는다. 어떤 어부들은 그놈이 다가오는 것을 위대한 향유고래가 다가온다는 전조로 여긴다.

제2권(팔절판), 제2장(검정고래). 나는 이 모든 물고기에 어부들 사이에서 흔히 쓰는 이름을 붙인다. 대개는 그 이름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어떤 이름이 어쩌다 흐릿하거나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면, 나는 그렇다고 말하고 다른 이름을 내놓겠다. 이른바 검정고래를 두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 거의 모든 고래가 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괜찮다면 그놈을 하이에나고래라고 부르자. 그놈의 걸신들린 식욕은 잘 알려져 있고, 입술 안쪽 끝이 위로 휘어 있어서 얼굴에 늘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웃음을 띠고 다닌다. 이 고래는 평균 몸길이가 16피트나 18피트쯤이다. 그놈은 거의 모든 위도에서 발견된다. 그놈은 헤엄칠 때 갈고리처럼 굽은 등지느러미를 내보이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이 꼭 로마 사람의 매부리코처럼 보인다. 향유고래 사냥꾼들은 더 벌이가 되는 일이 없을 때 이따금 하이에나고래를 잡아 집안에서 쓸 값싼 기름을 대 둔다. 알뜰한 주부들이 손님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면

향기로운 밀랍 대신 냄새 고약한 수지를 태우듯이. 지방층은 아주 얇지만, 이 고래 가운데는 30갤런이 넘는 기름을 내주는 놈도 있다.

제2권(팔절판), 제3장(일각고래), 곧 *콧구멍고래*. 이상한 이름이 붙은 고래의 또 한 예로, 내 짐작으로는 그놈의 독특한 뿔을 처음에 뾰족한 코로 잘못 보아서 그런 이름(Narwhale)이 붙은 것 같다. 이 짐승은 몸길이가 16피트쯤이고, 뿔은 평균 5피트지만 10피트가 넘는 것도 있고 15피트에 이르는 것까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뿔은 길어진 엄니일 뿐으로, 턱에서 수평보다 조금 아래로 기운 줄을 따라 자라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왼쪽에만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다. 그 임자가 어딘지 서투른 왼손잡이 같은 모습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이 엄니 뿔, 아니 창이 정확히 어떤 목적에 쓰이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황새치나 돛새치의 칼날처럼 쓰이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어떤 선원들은 일각고래가 먹이를 찾아 바다 밑바닥을 뒤엎을 때 그것을 갈퀴로 쓴다고 내게 말한다. 찰리 코핀은 그것이 얼음 뚫는 송곳으로 쓰인다고 했다. 일각고래가 북극해 수면으로 떠올랐다가 거기가 얼음으로 덮여 있으면 뿔을 위로 찔러 그렇게 뚫고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추측들 가운데 어느 것도 옳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 내 생각에는, 일각고래가 이 한쪽 뿔을 실제로 어떻게 쓰든, 그것이 어떻든, 소책자를 읽을 때 종이칼로 쓰기에는 틀림없이 무척 편리하리라. 일각고래가 엄니고래, 뿔고래, 일각수고래라고 불리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놈은 살아 있는 자연의 거의 모든 왕국에서 볼 수 있는 일각수 현상의 틀림없는 기이한 본보기다. 수도원에 갇혀 지내던 몇몇 옛 저자들에게서 내가 모아들인 바로는, 이 바다 일각수의 뿔은 옛날에 독을 푸는 으뜸 해독제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든 약은 엄청난 값에 팔렸다. 수사슴의 뿔로 녹각정을 만들듯이, 그것을 증류해 기절한 귀부인들을 위한 휘발성 각성염으로 만들기도 했다. 원래 그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진기한

물건으로 여겨졌다. 흑체 활자로 찍은 옛 책이 내게 일러 주기를, 마틴 프로비셔 경이 그 항해에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그의 대담한 배가 템스강을 따라 내려갈 때 베스 여왕이 그리니치 궁의 창에서 보석 박힌 손을 그에게 정중히 흔들어 주었던 그 항해에서 돌아왔을 때, 「마틴 경은 그 항해에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여왕 폐하께 일각고래의 엄청나게 긴 뿔 하나를 바쳤는데, 그 뿔은 그 뒤로 오랫동안 윈저성에 걸려 있었다」 라고 흑체 활자 책은 말한다. 어떤 아일랜드 저자는 레스터 백작도 무릎을 꿇고 여왕 폐하께 일각수 종류의 뭍짐승에 딸린 다른 뿔 하나를 마찬가지로 바쳤다고 단언한다.

일각고래는 무척 그림 같은 표범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바탕색이 우윳빛 흰색이고 거기에 둥글고 길쭉한 검은 점이 박혀 있다. 그놈의 기름은 맑고 고와서 질이 아주 뛰어나지만, 양이 적고, 그놈은 좀처럼 사냥되지 않는다. 그놈은 주로 북극 둘레 바다에서 발견된다.

제2권(팔절판), 제4장(범고래). 이 고래에 관해서는 낸터킷 사람도 정확히 아는 것이 거의 없고, 전문 박물학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멀리서 본 바로는 그램퍼스만 한 크기였다고 하겠다. 그놈은 몹시 사납다. 일종의 피지 섬 물고기다. 그놈은 이따금 거대한 이절판 고래의 입술을 물고 거머리처럼 거기 매달려, 그 힘센 짐승이 시달리다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 범고래는 결코 사냥되지 않는다. 그놈에게서 어떤 기름이 나오는지 나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이 고래에 붙은 이름(Killer)에는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를 달 수도 있겠다. 우리는 뭍에서나 바다에서나 모두 살해자이기 때문이다. 보나파르트들과 상어들까지 포함해서.

제2권(팔절판), 제5장(도리깨고래). 이 신사는 꼬리로 유명한데, 그는 그 꼬리를 회초리 삼아 적을 두들겨 팬다. 그는 이절판 고래의 등에 올라타고, 그 고래가 헤엄치는 동안 그것을 매질해 제 뱃삯을 치르며

나아간다. 어떤 학교 선생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세상을 헤쳐 나가듯이. 도리깨고래에 관해서는 범고래보다도 알려진 것이 더 적다. 둘 다 무법자다. 법 없는 바다에서조차.

이렇게 제2권(팔절판)이 끝나고, 제3권(십이절판)이 시작된다.

십이절판. 여기에는 더 작은 고래들이 들어간다. I. 만세돌고래. II. 알제리돌고래. III. 밀가루입돌고래.

이 문제를 따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보통 4, 5피트를 넘지 않는 물고기를 *고래* 축에 줄 세운다는 것이 어쩌면 이상해 보일지도 모른다. 고래라는 낱말은 흔히 쓰는 뜻으로는 언제나 거대하다는 생각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십이절판으로 적어 둔 생물들은 고래가 무엇인가에 관한 내 정의, 곧 *물을 뿜고 꼬리가 수평인 물고기*라는 정의에 따르면 틀림없이 고래다.

제3권(십이절판), 제1장(만세돌고래). 이것은 지구 거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돌고래다. 이 이름은 내가 붙였는데, 돌고래는 한 종류가 아니어서 무언가로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놈을 이렇게 부르는 까닭은 그놈이 늘 신명 난 떼를 지어 헤엄치는데, 그 떼가 넓은 바다 위에서 독립기념일 군중 속의 모자들처럼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몸을 던져 올리기 때문이다. 그놈들이 나타나면 뱃사람은 대개 기뻐하며 반긴다. 기운이 넘치는 그놈들은 언제나 바람 불어오는 쪽에서, 바람이는 큰 물결을 타고 온다. 그놈들은 늘 순풍을 등에 지고 사는 녀석들이다. 그놈들은 운이 좋은 징조로 여겨진다. 그대가 이 활기찬 물고기를 보고도 만세 삼창을 참을 수 있다면, 그때는 하늘이 그대를 돕기를. 그대 안에는 경건한 장난기의 정신이 없다. 잘 먹어 통통한 만세돌고래 한 마리는 좋은 기름을 넉넉히 1갤런 내준다. 그러나 그놈의 턱에서 뽑아내는 곱고 섬세한 액체는 지극히 값지다. 보석상과 시계공이 그것을 찾는다. 선원들은 그것을 숫돌에 바른다. 돌고래 고기는 먹기

좋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대는 돌고래가 물을 뿜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을지 모른다. 사실 그놈의 물줄기는 너무 작아서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놈을 지켜보라. 그러면 그대는 위대한 향유고래 그 자체를 작게 줄여 놓은 모습을 보게 되리라.

제3권(십이절판), 제2장(알제리돌고래). 해적이다. 몹시 사납다. 내 생각에 그놈은 태평양에서만 발견된다. 만세돌고래보다 조금 더 크지만 전체 생김새는 거의 같다. 건드리면 그놈은 상어하고도 맞붙는다. 나는 그놈을 잡으려고 여러 번 보트를 내렸지만, 그놈이 잡히는 것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제3권(십이절판), 제3장(밀가루입돌고래). 가장 큰 종류의 돌고래이고, 알려진 바로는 태평양에서만 발견된다. 지금까지 그놈을 가리켜 온 영어 이름은 어부들이 붙인 참고래돌고래 하나뿐인데, 그놈이 주로 그 이절판 고래 근처에서 발견된다는 사정에서 나온 이름이다. 생김새는 만세돌고래와 얼마쯤 달라서, 몸통 둘레가 덜 둥글고 덜 넉살 좋다. 사실 그놈은 꽤 말쑥하고 신사다운 몸매를 하고 있다. 그놈은 등에 지느러미가 없고(다른 돌고래는 대부분 있다), 꼬리가 사랑스럽고, 개암빛의 감상적인 인디언 눈을 가졌다. 그러나 밀가루 묻은 입이 모든 것을 망친다. 옆지느러미까지 등 전체가 짙은 흑담비 빛이지만, 배 선체에 그은 표시처럼 또렷한 경계선, 「밝은 허리」라 불리는 그 선이 그놈의 이물에서 고물까지 줄을 그어 위는 검고 아래는 희게 두 빛깔로 갈라놓는다. 흰 부분은 머리 일부와 입 전체를 차지해서, 그놈은 방금 밀가루 자루를 훔치러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것처럼 보인다. 참으로 쩨쩨하고 밀가루투성이인 꼴이다! 그놈의 기름은 흔한 돌고래의 기름과 무척 비슷하다.

◆

십이절판보다 아래로는 이 체계가 나아가지 않는다. 돌고래가 고래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이다. 위에서 그대는 이름난 리워야단을 모두 보았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붙잡기 어렵고, 반쯤 전설 같은 고래 떼가 있으니, 미국 포경선원인 나는 소문으로는 그놈들을 알지만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다. 나는 그놈들을 앞갑판 선원실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늘어놓겠다. 어쩌면 그런 목록이 내가 여기서 겨우 시작한 일을 완성할 앞날의 연구자들에게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 고래들 가운데 어느 것이든 나중에 잡혀 표시가 붙으면, 그때는 그놈의 이절판이나 팔절판이나 십이절판 크기에 따라 이 체계 안에 쉽게 끼워 넣을 수 있다. 병코고래, 정크고래, 푸딩머리고래, 곶고래, 길잡이고래, 대포고래, 비쩍마른고래, 구릿빛고래, 코끼리고래, 빙산고래, 쿼그고래, 푸른고래 따위. 아이슬란드와 네덜란드와 옛 영국의 권위자들에게서 온갖 기괴한 이름을 복으로 받은 불확실한 고래들의 다른 목록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이 아주 낡아 쓸모없다고 보고 빼 두며, 그것들이 리워야단의 기운으로 가득하나 아무 뜻도 없는, 그저 소리일 뿐이라는 의심을 거의 떨칠 수가 없다.

끝으로. 처음에 말했듯이, 이 체계는 여기서 단번에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그대도 똑똑히 보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이제 나는 내 고래학 체계를 이렇게 끝내지 않은 채 세워 둔다. 마치 쾰른의 거대한 대성당이 완성되지 않은 탑 꼭대기에 기중기를 그대로 세워 둔 채 남겨졌듯이. 작은 건물은 처음 지은 설계자가 끝낼 수 있지만, 웅대한 건물, 참된 건물은 언제나 갓돌을 후세에 남겨 두기 때문이다. 신이여, 내가 무엇이든 끝내 완성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소서. 이 책 전체가 밑그림일 뿐이다. 아니, 밑그림의 밑그림일 뿐이다. 오, 시간이여, 힘이여, 돈이여, 인내여!

---

1. 오늘날까지도 많은 박물학자가 라마틴과 듀공이라 불리는 물고기(낸터킷의 코핀 집안 사람들이 부르는 돼지물고기와 암퇘지물고기)를 고래 축에 넣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이 돼지물고기들은 시끄럽고 하찮은 족속으로, 대개 강어귀에 숨어 지내며 젖은 건초를 먹고 산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뿜지 않으므로, 나는 그놈들이 고래라는 신임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고래학 왕국을 떠나라고 그놈들에게 여권을 내주었다.

2. 이 고래의 권을 어째서 사절판이라 부르지 않는지는 아주 분명하다. 이 목(目)의 고래들은 앞 목의 고래들보다 작지만 그래도 생김새에서는 그것들과 비례가 맞는 닮은꼴을 유지하는데, 제본공의 사절판 책은 그 치수의 모양에서 이절판 책의 꼴을 지키지 못하고, 팔절판 책은 지키기 때문이다.

제33장 스펙스나이더

포경선의 간부들에 관해서라면, 배 안의 작은 살림살이 특색 하나를 적어 두기에 여기만큼 알맞은 자리도 없을 듯하다. 작살잡이라는 간부 계급이 있어서 생기는 특색인데, 이 계급은 물론 포경 선단 말고는 어느 바다 일에도 없다.

작살잡이라는 직분을 얼마나 중히 여겼는지는, 원래 두 세기도 더 전의 옛 네덜란드 포경업에서 포경선의 지휘권이 오늘날 선장이라 불리는 사람에게만 다 맡겨져 있지 않고, 그와 스펙스나이더라고 불리는 간부 사이에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이 보여 준다. 이 낱말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지방 자르는 사람」 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쓰임새가 이것을 우두머리 작살잡이와 같은 말로 만들었다. 그 시절 선장의 권한은 배의 항해와 전반적인 관리에 한정되었고, 고래 사냥 부문과 그에 딸린 모든 일은 스펙스나이더, 곧 우두머리 작살잡이가 최고 권한으로 다스렸다. 영국의 그린란드 포경업에는 스펙시오니어라는 일그러진 이름으로 이 옛 네덜란드 직책이 아직 남아 있지만, 예전의 위엄은 안타깝게도 많이 깎였다. 지금 그는 그저 선임 작살잡이 자리에 있을 뿐이고, 그래서 선장의 더 낮은 부하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포경 항해의 성패는 작살잡이들의 훌륭한 처신에 크게 달려 있고, 미국 포경업에서 그는 보트에서 중요한 간부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포경 어장에서 서는 야간 당직)에는 배의 갑판 지휘권까지 그의 것이 되므로, 바다의 위대한 정치 격언은 그가 명목상으로는 돛대 앞의

평선원들과 떨어져 살면서 어떻게든 그들의 직업상 윗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물론 평선원들은 언제나 그를 사회적으로는 저희와 대등한 사람으로 허물없이 대한다.

그런데 바다에서 간부와 선원 사이에 긋는 큰 구별은 이것이다. 앞의 사람은 고물 쪽에 살고, 뒤의 사람은 이물 쪽에 산다. 그래서 포경선에서도 상선에서도 항해사들은 선장과 함께 거처를 두며, 미국 포경선 대부분에서는 작살잡이들도 배의 뒤쪽에 묵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선장실에서 식사를 하고, 선장실과 간접으로 통하는 곳에서 잠을 잔다.

남양 포경 항해의 긴 기간(사람이 지금 하거나 지금껏 해 온 모든 항해 가운데 단연 가장 길다), 그 항해만의 독특한 위험, 그리고 높든 낮든 모두가 정해진 품삯이 아니라 공동의 운, 더불어 공동의 경계심과 대담함과 고된 노동에 기대어 몫을 받는 한 무리 사이에 퍼진 이해의 공동체, 이 모든 것이 어떤 경우에는 대체로 상선에서보다 덜 엄격한 규율을 낳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떤 원시적인 경우에 이 포경선원들이 옛 메소포타미아의 한 가족처럼 얼마나 함께 어울려 살든 상관없이, 그런데도 적어도 뒷갑판의 깐깐한 겉치레만큼은 실제로 느슨해지는 일이 좀처럼 없고,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실로 낸터킷의 많은 배에서 그대는 선장이 어느 군대의 해군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의기양양한 위엄을 부리며 제 뒷갑판을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아니, 가장 허름한 수로 안내인용 모직 외투가 아니라 황제의 자줏빛 옷이라도 입은 듯이 겉으로 거의 그만큼의 경의를 짜내는 모습을.

그리고 피쿼드호의 침울한 선장은 누구보다도 그런 얕디얕은 허세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가 요구한 유일한 경의는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복종뿐이었지만, 뒷갑판에 오르기 전에 신발을

벗으라고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뒤에 자세히 이야기할 사건들에 얽힌 독특한 사정 때문에 그가 선원들에게 내려다보는 말투로든 위협하는 말투로든 그 밖의 다른 말투로든 이례적인 말을 건넨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에이해브 선장조차 바다의 으뜸가는 격식과 관례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또한 어쩌면 끝내는 알게 되겠지만, 그는 이따금 그 격식과 관례 뒤에 말하자면 자신을 감추었다. 그것들이 정당하게 이바지하도록 만들어진 목적과는 다른, 더 사사로운 목적에 그것들을 슬며시 이용했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일종의 술탄 기질은 다른 경우라면 꽤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았을 텐데, 그 격식들을 통해 바로 그 술탄 기질이 거스를 수 없는 독재로 몸을 입었다. 사람의 지적인 우월함이 어떠하든, 그것은 어떤 바깥 술책과 참호의 도움 없이는 결코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실제적이고 쓸모 있는 지배력이 되지 못하는데, 그 술책과 참호는 그 자체로는 언제나 많든 적든 하찮고 비천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제국 제후들을 영원히 세상의 선거 연단에서 멀리 떼어 놓고, 이 하늘 아래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를, 대중이라는 죽은 평지 위로 뛰어난 의심할 나위 없는 우월함보다는 숨어 있는 거룩한 무위의 선택된 한 줌에 견주어 한없이 못난 탓으로 이름을 얻는 사람들에게 넘겨 버린다. 극단적인 정치적 미신이 이 작은 것들을 감쌀 때 그 안에는 커다란 힘이 숨어 있어서, 어떤 왕들의 경우에는 백치나 다름없는 저능에까지 위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차르 니콜라이의 경우처럼 지리적 제국의 고리 왕관이 제왕다운 두뇌를 둘러쌀 때, 그때 평민의 무리는 그 엄청난 중앙 집권 앞에 몸을 낮추어 웅크린다. 또한 인간의 굴하지 않는 기개를 가장 온전한 폭과 가장 곧은 기세로 그리려는 비극 작가라면, 지금 넌지시 비친 이 암시, 그의 예술에서 뜻밖에 그토록 중요한 이 암시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선장 에이해브는 낸터킷 사람다운 그 모든 험상궂음과 텁수룩함을 지닌 채 아직도 내 앞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황제와 왕들에 관한 이 곁가지 이야기에서, 내가 다루어야 할 것은 그 같은 가엾은 늙은 고래 사냥꾼일 뿐이며 그래서 겉으로 위엄을 갖춘 장식과 마구는 모두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숨겨서는 안 된다. 오, 에이해브! 그대에게서 웅대할 것은 하늘에서 뜯어 와야 하고, 깊은 바다에서 잠수해 건져 와야 하며, 몸 없는 허공에 그 모습을 그려 넣어야 하리라!

제34장 선장실 식탁

정오다. 급사인 도우보이, 곧 「반죽 소년」 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가 빵 덩어리 같은 창백한 얼굴을 선장실 승강구 밖으로 쑥 내밀고 그의 주인이자 나리에게 식사를 알린다. 주인은 바람 불어 가는 쪽 고물 보트에 앉아 방금 해를 관측하고는, 고래뼈 의족 윗부분에 날마다 그 일에 쓰려고 마련해 둔 매끈한 메달 모양의 판 위에 말없이 위도를 셈하고 있다. 그 소식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을 보면, 침울한 에이해브가 하인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그대는 생각하리라. 그러나 이윽고 그는 뒷돛대 돛대줄을 붙잡고 몸을 흔들어 갑판에 내려서더니, 고르고 들뜨지 않은 목소리로 "식사다, 스타벅" 하고 말하고는 선장실로 사라진다.

그의 술탄다운 발소리가 마지막 메아리까지 잦아들고, 첫째 에미르인 스타벅이 선장이 자리에 앉았다고 여길 까닭이 충분해지면, 그때 스타벅은 고요함에서 깨어나 갑판 널빤지를 따라 몇 바퀴 거닐고, 나침반 함을 진지하게 한 번 들여다본 다음, 어딘가 유쾌한 기색을 띠고 "식사하게, 스터브" 하고 말하고는 승강구로 내려간다. 둘째 에미르는 한동안 삭구 언저리를 어슬렁거리다가, 그 중요한 밧줄이 괜찮은지 보려고 큰돛 활대줄을 살짝 흔들어 보고 나서, 그도 그 오래된 후렴을 이어받아 "밥 먹자, 플래스크" 하고 빠르게 말하고는 앞사람들의 뒤를 따른다.

그러나 셋째 에미르는 이제 뒷갑판에 저 혼자 남은 것을 보자 어떤 묘한 속박에서 풀려난 기분이 드는 모양이다. 그는 온갖 방향으로 온갖 아는 체하는 눈짓을 보내고 신발을 차 벗어 던지더니, 바로 그 위대한 터키 황제의 머리 위에서 날카롭되 소리 없는 혼파이프 춤을 한바탕 회오리처럼 춘다. 그러고는 날랜 손재주로 모자를 뒷돛대 망대에 선반 삼아 던져 올리고, 적어도 갑판에서 보이는 데까지는 흥청거리며 내려간다. 음악을 맨 뒤에 달고 가니, 다른 모든 행렬을 뒤집어 놓은 셈이다. 그러나 아래 선장실 문간에 들어서기 전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얼굴을 통째로 갈아 끼운다. 그러고 나서 제멋대로이고 명랑한 꼬마 플래스크는 「비천한 자」, 곧 노예의 배역으로 에이해브 왕의 어전에 들어선다.

바다 관례의 지독한 인위성이 낳는 이상한 일 가운데 적지 않은 것이 이것이다. 갑판의 탁 트인 바깥에서는 어떤 항해사들이 무슨 일로 비위가 상하면 지휘관에게 꽤 대담하고 도전적으로 굴기도 하지만, 십중팔구 그 항해사들이 바로 다음 순간 그 같은 지휘관의 선장실로 늘 하던 대로 식사를 하러 내려가면, 식탁 머리에 앉은 그에게 대뜸 거스름없는, 아니 사정하듯 비굴하다고까지 할 만한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놀랍고, 때로는 몹시 우습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수수께끼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바빌론의 왕 벨사살이었다는 것, 그리고 오만하지 않고 정중한 벨사살이었다는 것,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 세상의 웅대함 같은 것이 어려 있었으리라. 그러나 참으로 제왕답고 슬기로운 정신으로 초대한 손님들이 둘러앉은 자기만의 저녁 식탁을 주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동안 누리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힘과 개인 영향력의 지배, 그 사람의 제왕다운 위엄은 벨사살의 그것을 넘어선다. 벨사살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저녁을 대접해 본 사람은 카이사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본 것이다. 그것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사교계 황제 노릇의 마법이다. 이제 이 생각에 배 선장의 직책상 우월함까지 덧붙여 보라. 그러면 미루어 짐작해, 방금 말한 뱃살림의 그 독특한 점이 어디서 비롯하는지 알게 되리라.

고래뼈를 박아 넣은 식탁 위에서 에이해브는 흰 산호 해변에서 호전적이지만 그래도 고분고분한 새끼들에게 둘러싸인, 갈기 달린 말 없는 바다사자처럼 자리를 주재했다. 항해사들은 저마다 제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 음식을 받았다. 그들은 에이해브 앞에서 어린아이들 같았다. 그런데도 에이해브에게는 사교상의 오만이 털끝만큼도 숨어 있지 않은 듯했다. 그들의 골똘한 눈은 한마음으로 노인의 칼에 박혀 있었다. 그가 앞에 놓인 주 요리를 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 순간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 날씨처럼 무난한 화제로라도 더럽히려 하지 않았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럼, 그렇고말고! 그리고 에이해브가 쇠고기 한 조각을 끼운 칼과 포크를 내밀어 그것으로 스타벅의 접시를 제 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면, 일등 항해사는 적선이라도 받듯이 고기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살살 썰었고, 혹시 칼이 접시를 스치기라도 하면 조금 움찔했고, 소리 없이 씹었고, 조심조심 삼켰다. 독일 황제가 일곱 선제후와 엄숙하게 식사하는 프랑크푸르트의 대관식 연회처럼, 이 선장실 식사는 어쩐지 엄숙한 식사여서 두려운 침묵 속에서 먹었다. 그런데도 늙은 에이해브는 식탁에서 대화를 금하지 않았다. 다만 그 자신이 말이 없었을 뿐이다. 아래 선창에서 쥐 한 마리가 갑자기 소란을 피웠을 때, 숨이 막혀 가던 스터브에게 그것은 얼마나 큰 구원이었던가. 그리고 가엾은 꼬마 플래스크, 그는 이 지겨운 가족 모임의 막내아들이자 어린 꼬마였다. 소금에 절인 쇠고기의 정강이뼈가 그의 몫이었다. 닭다리가 있었다면 그것도 그의 몫이 되었으리라. 플래스크에게 제 손으로 음식을 덜어

먹는다는 것은 1급 절도나 마찬가지로 여겨졌음이 틀림없다. 그 식탁에서 제 손으로 음식을 덜었다면, 틀림없이 그는 이 정직한 세상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으리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이해브는 그것을 한 번도 금하지 않았다. 그리고 플래스크가 제 손으로 덜어 먹었다 해도, 에이해브는 아마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플래스크가 가장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은 버터를 덜어 먹는 일이었다. 버터가 그의 맑고 화창한 얼굴빛을 탁하게 만든다고 선주들이 그에게 버터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든, 아니면 장도 서지 않는 이런 물에서 이토록 긴 항해를 하는 동안에는 버터가 귀하니 그 같은 하급 간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든, 어쨌든 플래스크는, 아아! 버터 없는 사나이였다!

또 하나. 플래스크는 식사하러 맨 나중에 내려왔고, 플래스크는 맨 먼저 일어선다. 생각해 보라! 이 때문에 플래스크의 식사는 시간에 몹시 쫓겼다. 스타벅과 스터브는 둘 다 그보다 먼저 시작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뒤에 남아 느긋하게 쉬는 특권까지 누린다. 플래스크보다 겨우 한 칸 위일 뿐인 스터브조차 어쩌다 입맛이 없어 이내 식사를 마칠 기색을 보이면, 그때 플래스크는 서둘러야 하고, 그날은 세 입 넘게 먹지 못할 것이다. 스터브가 플래스크보다 먼저 갑판으로 올라가는 것은 거룩한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래스크는 언젠가 사사로이 털어놓았다. 간부라는 위엄에 오른 뒤로, 그 순간부터 그는 많든 적든 배고프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모르고 지냈다고. 그가 먹는 것은 허기를 달래 주기보다는 허기가 그의 안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평화와 만족은, 하고 플래스크는 생각했다, 내 배 속을 영영 떠나 버렸다. 나는 간부다. 하지만 돛대 앞에 있던 시절에 그랬듯이 앞갑판 선원실에서 옛날식 쇠고기 한 점을 건져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것이 승진의 열매다. 이것이 영광의

헛됨이다. 이것이 삶의 미친 짓이다! 게다가 피쿼드호의 평선원 누구든 간부인 플래스크에게 앙심을 품었다면, 그 선원이 넉넉히 앙갚음을 하려면 식사 때 고물로 가서 선장실 채광창으로 플래스크를 슬쩍 들여다보기만 하면 되었다. 무시무시한 에이해브 앞에 얼빠지고 넋 나간 채 앉아 있는 플래스크를.

그런데 에이해브와 세 항해사는 피쿼드호 선장실의 첫째 식탁이라 부를 만한 것을 이루었다. 그들이 들어올 때와는 거꾸로 된 순서로 자리를 뜨고 나면, 창백한 급사가 범포 식탁보를 치웠다. 아니, 서둘러 얼마쯤 정돈해 놓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작살잡이가 그 잔치에 불려왔다. 그들은 그 잔치의 잔여 유산 상속인이었다. 그들은 높고 힘센 선장실을 잠시 하인들의 식당으로 바꾸어 놓았다.

선장 식탁의 견디기 힘든 속박과 이름 모를 보이지 않는 위압과 이상하게 대조되는 것이, 그 아랫사람들인 작살잡이들의 걱정 없는 방종과 편안함, 거의 미친 듯한 민주주의였다. 그들의 윗사람인 항해사들은 제 턱 경첩 소리마저 두려워하는 듯했지만, 작살잡이들은 음식을 어찌나 맛있게 씹는지 그 소리가 탕탕 울렸다. 그들은 귀족처럼 식사했다. 그들은 온종일 향신료를 싣는 인도행 배처럼 배를 채웠다. 퀴퀘그와 태시테고의 식욕이 어찌나 엄청난지, 앞 식사가 남긴 빈자리를 메우려고 창백한 도우보이는 통 소 한 마리에서 캐낸 것 같은 소금 절임 고기의 커다란 등심 덩어리를 내와야 할 때가 많았다. 그리고 그가 그 일에 재빠르지 않으면, 깡충깡충 날쌔게 뛰어다니지 않으면, 태시테고는 그의 등에 포크를 작살처럼 던져 그를 재촉하는 신사답지 못한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한번은 다구가 갑자기 장난기가 동해, 도우보이를 통째로 번쩍 들어 올려 커다란 빈 나무 쟁반에 그의 머리를 처박아 그의 기억을 일깨워 주었고, 그동안 태시테고는 칼을 손에 들고 머리 가죽을 벗기기 전에 하듯 둥글게 금을 긋기 시작했다. 빵 같은 얼굴을 한 이

급사는 원래 몹시 신경이 예민하고 잘 떠는 작은 녀석이었다. 파산한 빵집 주인과 병원 간호사의 자식이었다. 그리고 검고 무시무시한 에이해브라는 늘 서 있는 구경거리에다, 이 세 야만인이 때마다 소란스레 찾아오는 일까지 겹쳐, 도우보이의 삶은 통째로 끊임없이 입술이 떨리는 삶이었다. 대개 그는 작살잡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갖추어 준 것을 보고 나면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 옆에 붙은 작은 식료품실로 달아났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문의 덧창 틈으로 겁에 질려 그들을 내다보았다.

퀴퀘그가 태시테고와 마주 앉아 제 줄로 간 이빨을 그 인디언의 이빨과 맞대고 있는 모습은 볼만했다. 그들과 직각을 이루어 다구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았다가는 영구차 깃털 장식 같은 그의 머리가 낮은 가로대에 닿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거대한 팔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아프리카코끼리가 승객으로 배를 탔을 때처럼 낮은 선장실의 뼈대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런데도 이 거대한 흑인은 놀랄 만큼 절제했다. 까다롭다고 해도 좋을 만큼. 그토록 넓고 귀족답고 훌륭한 몸 구석구석에 퍼진 생명력을 비교적 그토록 작은 한 입 한 입으로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고귀한 야만인은 넘쳐 나는 대기라는 원소를 든든히 먹고 깊이 들이마셨으리라. 그리고 벌름거리는 콧구멍으로 여러 세계의 숭고한 생명을 빨아들였으리라. 거인은 쇠고기나 빵으로 만들어지거나 길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퀴퀘그, 그는 먹을 때 섬뜩하고 야만스럽게 입맛을 쩝쩝 다셨다. 꽤 듣기 싫은 소리였다. 어찌나 심한지, 떨고 있는 도우보이는 제 앙상한 팔에 이빨 자국이라도 숨어 있지 않은지 거의 살펴볼 지경이었다. 그리고 뼈를 발라 먹게 썩 나오라고 태시테고가 소리쳐 부르는 것을 들을 때면, 이 단순한 급사는 갑자기 발작처럼 몸이 떨려 식료품실에 둘러 걸린 그릇들을 거의 다 깨뜨릴 뻔했다.

작살잡이들이 창과 다른 무기를 갈려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숫돌, 식사 때면 보란 듯이 칼을 갈던 그 숫돌도, 그 긁히는 소리도 가엾은 도우보이를 조금도 진정시켜 주지 못했다. 섬에서 지내던 시절, 적어도 퀴퀘그만 해도 틀림없이 무언가 살인적인 잔치판의 무분별한 짓을 저질렀으리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는가. 아아, 도우보이! 식인종의 시중을 드는 흰 사람 급사의 신세는 고달프구나. 그는 팔에 냅킨이 아니라 방패를 걸치고 다녀야 하리라. 그러나 때가 되면, 그에게는 무척 기쁘게도, 소금 바다의 세 전사는 일어나 자리를 떴다. 무엇이든 곧이듣고 지어낸 이야기를 잘 퍼뜨리는 그의 귀에는, 그들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칼집 속 무어 사람들의 언월도처럼 그들 몸속의 무사다운 뼈들이 모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 야만인들은 선장실에서 식사를 하고 명목상으로는 거기 살았지만, 한자리에 붙박여 사는 습관과는 거리가 멀어서 식사 때와,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 제 거처로 가느라 그곳을 지나갈 때 말고는 좀처럼 거기 있지 않았다.

이 한 가지 문제에서 에이해브는 미국 포경선 선장 대부분과 다르지 않은 듯했다. 그들은 대체로 배의 선장실이 당연히 자기 것이고, 다른 누가 언제든 거기 들어오도록 허락받는 것은 오직 호의 덕분이라는 생각에 기울어 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자면, 피쿼드호의 항해사들과 작살잡이들은 선장실 안에서 살았다기보다 선장실 밖에서 살았다고 하는 편이 더 옳으리라. 그들이 선장실에 들어갈 때면, 그것은 대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얼마쯤 비슷했기 때문이다. 잠깐 안쪽으로 돌아 들어갔다가 다음 순간 밖으로 돌려 나오고, 늘 머무는 곳은 바깥 공기 속이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로써 잃은 것도 별로 없었다. 선장실에는 어울릴 벗이 없었다. 사교의 면에서 에이해브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명목상으로는 기독교 세계의 인구 조사에 들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세계에 낯선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이 들어와 자리 잡은 미주리에서 마지막 회색곰이 살았듯이 세상을 살았다. 그리고 봄과 여름이 떠나가면 숲속의 저 거친 로건이 나무 구멍 속에 몸을 묻고 제 발바닥을 빨며 거기서 겨울을 나듯이, 혹독하고 울부짖는 노년 속에서 에이해브의 영혼은 제 몸이라는 속 빈 줄기 속에 갇혀 거기서 제 어둠의 음울한 발바닥을 빨아 먹고 살았다!

제35장 돛대 꼭대기

날씨가 한결 좋아진 무렵, 다른 선원들과 차례를 돌다가 마침내 나의 첫 돛대 꼭대기 당직이 돌아왔다.

미국 포경선 대부분에서는 배가 항구를 떠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돛대 꼭대기에 사람을 올린다. 제 어장에 이르기 전에 1만 5,000마일이 넘는 바닷길을 가야 할지라도 그렇다. 그리고 삼 년, 사 년, 오 년 항해를 마치고 집 가까이 다가오는데 배 안에 무엇이든 빈 것이, 이를테면 빈 약병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는 마지막까지 돛대 꼭대기에 사람을 세워 두고, 맨 꼭대기 돛 활대 끝이 항구의 첨탑들 사이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고래를 한 마리 더 잡으리라는 희망을 끝내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뭍에서든 물에서든 돛대 꼭대기에 서는 일은 무척 오래되고 흥미로운 일이니, 여기서 얼마쯤 길게 이야기해 보자. 내가 보기에 맨 처음 돛대 꼭대기에 선 사람들은 옛 이집트 사람들이었다. 내가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그들보다 앞선 사람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인 바벨의 건축가들이 그 탑으로 온 아시아에서, 아니 아프리카까지 통틀어 가장 높은 돛대 꼭대기를 세우려 했던 것은 틀림없지만, (마지막 꼭대기 마개를 씌우기도 전에) 그들의 그 거대한 돌 돛대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시무시한 강풍에 꺾여 배 밖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으니, 이 바벨의 건축가들에게 이집트 사람들보다 앞선 자리를 내줄 수는 없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돛대 꼭대기에 서는 민족이었다는 주장은 최초의 피라미드가 천문학을 위해 세워졌다는 고고학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믿음에 바탕을 둔다. 이 이론은 그 건축물들의 네 면이 모두 독특하게 계단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유난히 뒷받침해 주는데, 그 계단으로 옛 천문학자들은 다리를 엄청나게 높이 쳐들며 꼭대기까지 올라가 새 별을 보았다고 소리치곤 했다. 오늘날 배의 망꾼이 돛 하나를, 아니면 방금 눈에 들어온 고래 한 마리를 보고 소리치듯이. 옛날의 이름난 기독교 은자 성 시메온 스틸리테스는 사막에 높은 돌기둥을 세우고 남은 생애를 통째로 그 꼭대기에서 보내며 도르래로 땅에서 먹을 것을 끌어 올렸는데, 그에게서 우리는 겁 없이 돛대 꼭대기에 선 사람의 놀라운 본보기를 본다. 그는 안개나 서리, 비나 우박이나 진눈깨비에도 제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에 용감하게 맞서다가, 말 그대로 제 자리에서 죽었다. 오늘날 돛대 꼭대기에 서는 이들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생명 없는 무리밖에 없다. 그저 돌과 쇠와 청동으로 된 사람들로, 거센 강풍에 맞서는 일은 썩 잘해 내지만 무언가 이상한 광경을 찾아내고 소리치는 일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 나폴레옹이 있다. 그는 방돔 기둥 꼭대기, 공중 150피트쯤 되는 곳에 팔짱을 끼고 서서, 이제는 아래 갑판을 누가 다스리든, 루이 필리프든 루이 블랑이든 악마 루이든, 아랑곳하지 않는다. 위대한 워싱턴도 볼티모어의 우뚝 솟은 큰돛대 위 높은 곳에 서 있고, 헤라클레스의 기둥처럼 그의 기둥은 그 너머로는 사람이 거의 가지 못할 인간의 위대함의 한계를 표시한다. 넬슨 제독도 트래펄가 광장에서 포금으로 만든 캡스턴 위에 돛대 꼭대기 당직을 서고 있다. 그리고 런던의 그 연기에 가장 짙게 가려질 때에도 거기에 숨은 영웅이 있다는 표시가 늘 주어진다. 연기 나는 곳에는 불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대한 워싱턴도, 나폴레옹도, 넬슨도, 그들이 내려다보는 어지러운 갑판을 조언으로 도와 달라고 아무리 미친 듯이 불러도 아래에서 부르는 소리에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영혼이 미래의 짙은 안개를 꿰뚫고 어떤 여울과 어떤 암초를 피해야 하는지 알아본다고 아무리 짐작해 볼 수 있다 해도.

뭍의 돛대 꼭대기 당직과 바다의 돛대 꼭대기 당직을 어떤 점에서든 한데 엮는 것은 터무니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낸터킷의 유일한 역사가 오베드 메이시가 책임지는 한 항목이 똑똑히 보여 준다. 훌륭한 오베드가 우리에게 일러 주기를, 포경업 초기에 아직 그 사냥감을 쫓아 배들이 꾸준히 바다로 나가기 전에, 그 섬사람들은 바닷가를 따라 높은 장대들을 세웠고, 망꾼들은 닭들이 닭장 계단을 오르듯 못을 쳐서 붙인 발판을 딛고 거기에 올라갔다. 몇 해 전 뉴질랜드 만의 포경선원들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써서, 사냥감을 찾아내면 바닷가 가까이에 사람을 태우고 대기하던 보트들에 알렸다. 그러나 이 풍습은 이제 낡아 사라졌으니, 그러면 단 하나의 제대로 된 돛대 꼭대기, 바다에 나간 포경선의 돛대 꼭대기로 눈을 돌리자. 세 돛대 꼭대기에는 해 뜰 녘부터 해 질 녘까지 사람이 서 있다. 선원들이 (키를 잡을 때처럼) 정해진 차례를 돌며 두 시간마다 서로 교대한다. 열대의 맑은 날씨에 돛대 꼭대기는 더없이 즐겁다. 아니, 꿈꾸기 좋아하고 생각에 잠기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황홀하기까지 하다. 그대는 거기, 고요한 갑판 위 100피트 높이에 서서, 돛대가 거대한 장대 다리라도 되는 듯이 깊은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동안 그대 아래로, 말하자면 그대 두 다리 사이로 바다의 가장 거대한 괴물들이 헤엄쳐 지나간다. 옛날 로도스의 이름난 거상의 두 장화 사이로 배들이 지나갔듯이. 그대는 거기 서서, 물결 말고는 아무것도 흐트러지지 않는 바다의 끝없는 이어짐 속에 넋을 잃는다. 넋 나간 배는 느릿느릿 흔들리고, 졸음에 겨운 무역풍이 불어오며, 모든 것이 그대를 나른함 속으로 녹여 낸다. 이 열대의 포경 생활에서는 대개 숭고하리만큼 아무 일 없음이 그대를 감싼다. 그대는 아무 소식도 듣지 않고, 신문도 읽지

않으며, 흔해 빠진 일을 놀랍게 적은 호외에 속아 쓸데없이 흥분하는 일도 없다. 집안의 불행도, 부도난 증권도, 주가 폭락도 듣지 않는다.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 하는 생각에 시달리는 일도 결코 없다. 삼 년이 넘도록 먹을 모든 끼니가 통 속에 아늑하게 쟁여져 있고, 그대의 차림표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그렇듯이 남양 포경선을 타고 삼사 년의 긴 항해를 하면, 돛대 꼭대기에서 보내는 이런저런 시간을 다 합치면 꼬박 몇 달이 되리라. 그리고 그대가 타고난 삶 전체 가운데 그토록 적지 않은 부분을 바치는 곳이 아늑하게 깃들어 살 만한 데라고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금도 없고, 사람들이 잠시 혼자 떨어져 지내는 작고 아늑한 장치들, 이를테면 침대, 해먹, 영구차, 보초막, 설교단, 마차 같은 것에 깃드는 그런 편안한 제자리 같은 느낌을 기를 만한 데도 없다는 것은 몹시 개탄할 일이다. 그대가 가장 흔히 걸터앉는 곳은 윗돛대 꼭대기인데, 거기서 그대는 윗돛대 가름대라고 불리는 가늘고 나란한 막대 두 개(거의 포경선원만의 것이다) 위에 선다. 여기서 바다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초심자는 황소 뿔 위에 서 있는 것과 엇비슷하게 아늑함을 느낀다. 물론 추운 날씨에는 당직 외투라는 꼴로 그대의 집을 함께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가장 두꺼운 당직 외투도 옷을 걸치지 않은 몸보다 더 집이라 할 것이 못 된다. 영혼이 살로 된 장막 안에 아교로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자유로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겨울에 눈 덮인 알프스를 넘는 무지한 순례자처럼) 죽을 큰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거기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듯이, 당직 외투도 집이라기보다는 그저 봉투, 곧 그대를 감싸는 덧가죽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몸속에 선반이나 서랍장을 들일 수 없고, 마찬가지로 당직 외투를 쓸모 있는 벽장으로 만들 수도 없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해 몹시 안타까운 것은 남양 포경선의 돛대 꼭대기에는 그린란드 포경선의 망꾼들이 얼어붙은 바다의 혹독한 날씨를 피하는, *까마귀 둥지*라 불리는 그 부러운 작은 천막 또는 설교단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린란드고래를 찾아, 그리고 내친김에 옛 그린란드의 잃어버린 아이슬란드 식민지를 다시 찾아 빙산 사이를 가다」 라는 제목의, 슬리트 선장의 난롯가 이야기에서, 이 훌륭한 책에서 돛대 꼭대기에 서는 모든 사람은 그 무렵 새로 발명된, 글레이셔호의 *까마귀 둥지*에 관한 매력적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얻는다. 글레이셔호는 슬리트 선장의 훌륭한 배 이름이었다. 그는 자기를 기려 그것을 *슬리트의 까마귀 둥지*라고 불렀다. 그가 최초의 발명자이자 특허권자였고, 우스꽝스러운 그릇된 겸손 따위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우리가 제 자식을 제 이름으로 부른다면(아버지인 우리가 최초의 발명자이자 특허권자이므로) 우리가 낳는 다른 어떤 장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을 따서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슬리트의 까마귀 둥지는 생김새가 커다란 중간 술통이나 큰 술통과 얼마쯤 비슷하다. 그러나 위가 트여 있고, 거기에 움직이는 옆 가리개가 달려 있어서 거센 강풍이 불 때 머리의 바람 불어오는 쪽을 막아 준다. 돛대 꼭대기에 붙박여 있어서, 그대는 바닥의 작은 들창문으로 그 안에 올라간다. 뒤쪽, 곧 배의 고물에 가까운 쪽에는 편안한 의자가 있고, 그 밑에 우산과 목도리와 외투를 넣는 사물함이 있다. 앞쪽에는 가죽 걸이가 있어서 메가폰, 파이프, 망원경 같은 뱃일에 편리한 물건들을 꽂아 둔다. 슬리트 선장이 몸소 제 까마귀 둥지에서 돛대 꼭대기 당직을 설 때면, 그는 늘 소총 한 자루(이것도 걸이에 꽂아 둔다)를 화약통과 산탄과 함께 지니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 물에 들끓는 떠돌이 일각고래, 곧 방랑하는 바다 일각수를 쏘아 잡기 위해서였다. 물의 저항 때문에 갑판에서는 그놈들을 제대로 쏘아 맞힐 수 없지만, 위에서 내리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슬리트 선장이 하는 것처럼 제 까마귀 둥지의 자잘한 편의 시설을 모두 묘사하는 것이 그에게 사랑의 노동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 많은 것을 그토록 자세히 늘어놓고, 모든 나침반 자석의 이른바 「국지 인력」에서 생기는 오차를 바로잡으려고 거기 둔 작은 나침반으로 이 까마귀 둥지에서 한 실험을 무척 과학적으로 들려주지만(그 오차는 배의 널빤지에 든 쇠가 수평으로 가까이 있는 탓이고, 글레이셔호의 경우에는 어쩌면 선원 가운데 몰락한 대장장이가 그토록 많았던 탓이리라), 그러니까 내 말은, 선장이 여기서 무척 신중하고 과학적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학식 있는 「나침반 편차」와 「방위 나침반 관측」과 「근사 오차」에도 불구하고, 슬리트 선장 그는 자신이 그 심오한 자기학 명상에 너무 깊이 잠긴 나머지 까마귀 둥지 한쪽에 손 닿기 쉽게 살짝 끼워 둔 그 가득 채운 작은 네모 술병 쪽으로 이따금 끌려가지 않을 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나는 그 용감하고 정직하고 학식 있는 선장을 크게 우러르고 사랑하기까지 하지만, 그가 그 네모 술병을 그토록 깡그리 모른 척하는 것은 몹시 언짢다. 그가 벙어리장갑 낀 손가락과 두건 쓴 머리로 극에서 서너 퍼치 안쪽의 그 새 둥지 위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 그 술병이 얼마나 충실한 벗이자 위안이었을지 생각하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 남양 포경선원들이 슬리트 선장과 그의 그린란드 선원들만큼 높은 곳에 아늑한 집을 갖지 못했다 해도, 그 불리함은 우리 남양 어부들이 주로 떠다니는 그 유혹적인 바다의 사뭇 다른 평온함이 크게 메워 준다. 나로 말하자면, 나는 아주 느긋하게 삭구를 타고 어슬렁어슬렁 올라가곤 했다. 망대에서 쉬며 퀴퀘그나, 거기서 만나는 당직 아닌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고는 조금 더 올라가 중간 돛

활대에 게으르게 다리 하나를 걸치고 물의 목초지를 미리 한 번 둘러본 다음, 마침내 마지막 목적지에 올라섰다.

여기서 다 털어놓고, 나는 형편없는 망꾼이었다고 솔직히 인정하자. 우주의 문제가 내 안에서 돌고 있는데, 생각을 낳는 그런 높은 곳에 완전히 나 혼자 남겨진 내가, 어떻게 내가 모든 포경선의 상시 명령, 「바람 불어오는 쪽을 눈 똑바로 뜨고 살피고, 볼 때마다 소리쳐라」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대들에게 간곡히 충고하겠다, 낸터킷의 선주들이여! 이마가 마르고 눈이 퀭하며, 철없이 명상에 빠지기 잘하고, 머릿속에 보디치 대신 「파이돈」을 넣고 배를 타겠다고 나서는 젊은이는 아무도 그대들의 빈틈없는 포경업에 들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자를 조심하라, 내 말은 그것이다. 고래는 죽이기 전에 먼저 눈에 띄어야 한다. 그런데 이 눈이 쑥 들어간 젊은 플라톤주의자는 그대들을 끌고 세상을 열 바퀴나 돌면서도 향유고래 기름 1파인트만큼도 그대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으리라. 이런 경고가 결코 쓸데없지도 않다. 요즘 포경업은 낭만적이고 우울하고 넋 나간 숱한 젊은이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땅의 근심 걱정에 넌더리를 내고, 타르와 지방층 속에서 감상을 찾는다. 차일드 해럴드가 운도 없고 기대에 어긋난 어느 포경선의 돛대 꼭대기에 올라앉아 침울한 말투로 이렇게 외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굽이쳐라, 그대 깊고 어두운 푸른 대양이여, 굽이쳐라! 만 명의 지방층 사냥꾼이 그대 위를 헛되이 휩쓸고 지나간다."

그런 배의 선장들은 그 넋 나간 젊은 철학자들을 몹시 자주 꾸짖는다. 항해에 충분한 「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나무라고, 그들이 모든 명예로운 야망을 가망 없이 잃어버린 나머지 남모르는 마음속에서는 고래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안 보는 편을 바란다고 반쯤 넌지시 비친다.

그러나 모두 헛일이다. 그 젊은 플라톤주의자들은 제 시력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근시다. 그러니 시신경을 무리하게 써서 무엇 하겠는가? 그들은 오페라 안경을 집에 두고 왔다.

"이 원숭이 같은 녀석아." 어느 작살잡이가 이런 젊은이 하나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꼬박 삼 년 가까이 바다를 누볐는데, 너는 아직 고래 한 마리도 찾아내지 못했어. 네가 여기 올라와 있을 때마다 고래는 암탉 이빨만큼이나 귀하단 말이야." 아마 정말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먼 수평선에 고래 떼가 우글거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넋 나간 젊은이는 물결과 생각이 한데 섞이는 가락에 홀려 텅 빈 무의식의 몽상이라는 아편 같은 무기력 속으로 너무나 깊이 빠져들어서, 마침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 발아래의 신비로운 대양을 인류와 자연에 두루 스민 깊고 푸르고 바닥 없는 그 영혼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에게서 빠져나가는 이상하고, 반쯤 보이고, 미끄러져 가는 아름다운 것 하나하나, 알아볼 수 없는 어떤 형체에서 어렴풋이 솟아오르는 지느러미 하나하나가, 영혼을 끊임없이 스쳐 날아감으로써만 영혼에 깃드는 그 붙잡기 어려운 생각들의 화신처럼 보인다. 이 홀린 기분 속에서 그대의 정신은 왔던 곳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시간과 공간 속으로 흩어진다. 흩뿌려진 크랜머의 범신론적인 재처럼, 마침내 둥근 지구 곳곳 모든 기슭의 한 부분이 된다.

이제 그대 안에는 생명이라고는 없다. 부드럽게 흔들리는 배가 나누어 주는 그 흔들리는 생명밖에는. 그 생명을 배는 바다에게서 빌렸고, 바다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조수에게서 빌렸다. 그러나 이 잠, 이 꿈이 그대에게 덮여 있는 동안 발이나 손을 한 치만 움직여 보라. 붙잡은 손을 조금이라도 놓쳐 보라. 그러면 그대는 소스라치며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그대는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위에 떠 있다. 그리고 어쩌면 한낮, 가장 맑은 날씨에, 반쯤 목이 졸린 비명 한 번과 함께 그대는 그

투명한 대기를 뚫고 여름 바다로 떨어져, 다시는 영영 떠오르지 못하리라. 잘 새겨 두라, 그대 범신론자들이여!

제36장 뒷갑판

(에이해브 등장. 이어서 모두.)

파이프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 오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얼마 안 되어 에이해브는 늘 하던 대로 선장실 계단을 올라 갑판으로 나왔다. 시골 신사들이 같은 식사를 마치고 정원을 몇 바퀴 거닐듯이, 대부분의 선장은 그 시각이면 대개 거기를 거닌다.

이내 한결같은 고래뼈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늘 돌던 길을 오가며 거닐었다. 그의 걸음에 너무도 낯익은 갑판 널빤지들은 지질학의 돌처럼 그의 걸음이 남긴 독특한 자국으로 온통 움푹움푹 패어 있었다. 그리고 그대가 주름지고 움푹 팬 그의 이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면, 거기서도 그대는 그보다 더 이상한 발자국을 보았으리라. 잠들지 않고 끊임없이 서성이는 그의 단 하나의 생각이 남긴 발자국을.

그러나 그날따라 그 자국들은 더 깊어 보였다. 그날 아침 그의 신경질적인 걸음이 더 깊은 자국을 남겼듯이. 그리고 에이해브는 생각에 너무도 꽉 차 있어서, 한 번은 큰돛대에서, 한 번은 나침반 함에서 그가 똑같이 몸을 돌릴 때마다, 그가 돌 때 그 생각도 그의 안에서 돌고, 그가 걸을 때 그 생각도 그의 안에서 걷는 것이 거의 눈에 보이는 듯했다. 실로 그 생각은 그를 너무도 완전히 사로잡아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든 움직임의 안쪽 거푸집처럼까지 보였다.

"저 양반 좀 봐, 플래스크?" 스터브가 속삭였다. "저 안에 든 병아리가 껍데기를 쪼고 있어. 곧 나올 거야."

시간이 흘렀다. 에이해브는 이제 선장실에 틀어박혔다가, 이윽고 다시 갑판을 서성였다. 얼굴에는 똑같이 지독하고 고집스러운 목적의식이 서려 있었다.

해가 저물어 갔다. 갑자기 그는 뱃전 곁에 걸음을 멈추고, 고래뼈 다리를 거기 뚫린 송곳 구멍에 끼우고 한 손으로 돛대줄을 움켜쥔 채, 모두를 고물로 불러 모으라고 스타벅에게 명령했다.

"선장님!" 일등 항해사가 말했다. 무언가 비상한 경우가 아니면 배에서 좀처럼, 아니 결코 내리지 않는 명령에 놀란 것이다.

"모두 고물로 불러 모아라." 에이해브가 되풀이했다. "거기 돛대 꼭대기! 내려와라!"

배의 선원들이 모두 모여, 호기심 어리고 아주 걱정이 없지만은 않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폭풍이 일어날 무렵 바람 불어오는 쪽 수평선과 그가 다르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에이해브는 뱃전 너머를 재빨리 한 번 훑어보고 선원들 사이로 눈길을 날린 다음, 서 있던 자리에서 움직여, 마치 곁에 사람 하나 없다는 듯이 다시 갑판 위를 무겁게 돌기 시작했다.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반쯤 눌러쓴 채, 선원들 사이에서 이상하다는 듯 수군대는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그는 계속 서성였다. 그러다 마침내 스터브가 에이해브가 걷기 재주를 구경시키려고 자기들을 불러 모은 게 틀림없다고 플래스크에게 조심스레 속삭였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걸음을 멈추고 외쳤다.

"고래를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소리쳐 알립니다!" 스무 명의 목소리가 한데 뭉쳐 대뜸 대답했다.

"좋다!" 에이해브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나운 흡족함이 서려 있었다. 뜻밖의 질문이 자석처럼 그들을 끌어당겨 신명 나게 들뜨게 만든 것을 그는 지켜보고 있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보트를 내리고 놈을 쫓습니다!"

"그때 너희는 무슨 가락에 맞추어 노를 젓느냐, 얘들아?"

"죽은 고래 아니면 박살 난 보트!"

외침이 터질 때마다 노인의 얼굴은 점점 더 이상하게, 점점 더 사납게 기뻐하고 흡족해했다. 그동안 선원들은 겉보기에 아무 목적도 없는 이런 질문에 자기들이 어째서 이토록 흥분하게 되었는지 의아해하듯 서로를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모두 잔뜩 몸이 달았다. 에이해브가 이제 축 구멍 속에서 반쯤 몸을 돌리며 한 손을 돛대줄 높이 뻗어 그것을 단단히, 거의 경련하듯 움켜쥐고 이렇게 말을 건넸기 때문이다.

"너희 돛대 꼭대기 당직들은 모두 내가 흰 고래에 관해 명령하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다. 보아라! 이 스페인 온스 금화가 보이느냐?" 그는 넓적하고 반짝이는 동전 하나를 해를 향해 치켜들었다. "이건 16달러짜리 금화다, 얘들아. 보이느냐? 스타벅, 저기 쇠메를 이리 다오."

일등 항해사가 망치를 가지러 간 사이, 에이해브는 말없이 그 금화를 웃옷 자락에 천천히 문질렀다. 광을 더 내려는 듯이. 그리고 아무 말도 쓰지 않고 그동안 혼자 나직이 콧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이상하게 먹먹하고 또렷하지 않은지 그의 안에서 그의 생명력의 바퀴들이 기계처럼 웅웅거리는 소리 같았다.

스타벅에게서 쇠메를 받아 든 그는 한 손에 망치를 치켜들고 다른 손으로 금화를 내보이며 큰돛대 쪽으로 다가가, 높이 치켜올린 목소리로 외쳤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 이마에 주름이 지고 턱이 비뚤어진 머리 흰 고래를 찾아내는 자, 너희 가운데 누구든 우현 꼬리지느러미에 구멍이 세 개 뚫린 그 머리 흰 고래를 찾아내는 자, 보아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 바로 그 흰 고래를 찾아내는 자는 이 온스 금화를 가지리라, 얘들아!"

"만세! 만세!" 선원들은 방수모를 흔들며 금화를 돛대에 못 박는 일을 환호로 맞았다.

"흰 고래란 말이다." 에이해브가 쇠메를 내던지며 말을 이었다. "흰 고래다. 눈을 부릅뜨고 놈을 찾아라, 얘들아. 흰 물보라를 매섭게 살펴라. 물거품 하나라도 보이거든 소리쳐라."

그러는 내내 태시테고와 다구와 퀴퀘그는 다른 이들보다 더 골똘한 관심과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주름진 이마와 비뚤어진 턱 이야기가 나오자, 그들은 저마다 따로 무언가 특정한 기억에 건드려지기라도 한 듯 흠칫 놀랐다.

"에이해브 선장님," 태시테고가 말했다. "그 흰 고래는 사람들이 모비 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놈이 틀림없습니다."

"모비 딕?" 에이해브가 고함쳤다. "그러면 네가 그 흰 고래를 아느냐, 태시?"

"그놈이 잠수하기 전에 꼬리를 좀 이상하게 부채처럼 펼칩니까, 선장님?" 게이헤드 사내가 신중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놈 물줄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구가 말했다. "향유고래 놈치고도 아주 덤불처럼 퍼지고,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에이해브 선장님?"

"그리고 놈 하나, 둘, 셋, 오! 많은 쇠 가죽에 박혔다, 선장." 퀴퀘그가 더듬더듬 외쳤다. "전부 꼬불꼬불 꼬였다, 그거처럼, 그거……" 그는 낱말을 찾느라 몹시 더듬거리며 병마개를 따듯이 손을 빙빙 비틀었다. "그거처럼, 그거……"

"코르크 따개!" 에이해브가 외쳤다. "그래, 퀴퀘그, 놈의 몸에는 작살들이 온통 비틀리고 꼬인 채 박혀 있다. 그래, 다구, 놈의 물줄기는 크다. 밀 한 단을 통째로 세워 놓은 것 같고, 해마다 하는 큰 양털 깎기를 마친 뒤 쌓아 놓은 우리 낸터킷 양털 더미처럼 희다. 그래, 태시테고,

놈은 돌풍 속에서 찢어진 삼각돛처럼 꼬리를 펼친다. 죽음과 악마에 걸고! 얘들아, 너희가 본 것은 모비 딕이다. 모비 딕이다, 모비 딕이다!"

"에이해브 선장님." 스타벅이 말했다. 그는 스터브와 플래스크와 함께 이제껏 점점 더 놀라며 윗사람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그 모든 의아함을 얼마쯤 설명해 주는 생각 하나가 떠오른 듯했다. "에이해브 선장님, 저도 모비 딕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장님의 다리를 앗아 간 것이 모비 딕은 아니었겠지요?"

"누가 너에게 그 말을 했느냐?" 에이해브가 외치더니,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래, 스타벅. 그래, 여기 둘러선 내 용감한 친구들아. 나를 돛대 꺾인 배로 만든 것은 모비 딕이었다. 지금 내가 딛고 선 이 죽은 그루터기로 나를 만든 것은 모비 딕이었다. 그래, 그래." 그는 심장을 맞은 큰사슴처럼 무시무시하고 요란한 짐승의 울음을 터뜨리며 고함쳤다. "그래, 그래! 나를 밀어 넘어뜨린 것은 그 저주받은 흰 고래였다. 나를 영영 나무다리나 딛고 다니는 가엾은 굼벵이로 만든 것은!" 그러고는 두 팔을 내던지듯 휘두르며 끝없는 저주를 퍼붓고 외쳤다. "그래, 그래! 그리고 나는 놈을 포기하기 전에 희망봉을 돌고, 혼곶을 돌고, 노르웨이의 큰 소용돌이를 돌고, 지옥 불을 돌아서라도 놈을 쫓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배에 오른 것은 이 때문이다, 얘들아! 놈이 검은 피를 뿜고 지느러미를 뒤집고 나자빠질 때까지, 땅의 양쪽에서, 지구의 모든 쪽에서 그 흰 고래를 쫓기 위해서다. 어떠냐, 얘들아, 이제 이 일에 손을 밧줄처럼 이어 맞잡겠느냐? 너희는 용감해 보인다."

"예, 예!" 작살잡이들과 선원들이 흥분한 노인 곁으로 바싹 달려들며 외쳤다. "흰 고래에게는 날카로운 눈을! 모비 딕에게는 날카로운 창을!"

"신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그는 반쯤 흐느끼고 반쯤 고함치는 듯했다. "신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얘들아. 급사!

가서 큰 잔에 그로그를 가득 따라 오너라. 그런데 그 시무룩한 얼굴은 뭐냐, 스타벅. 너는 흰 고래를 쫓지 않겠느냐? 모비 딕과 맞붙을 배짱이 없느냐?"

"그놈의 비뚤어진 턱과도, 죽음의 턱과도 맞붙을 배짱은 있습니다, 에이해브 선장님.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길에 정당하게 들어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래를 잡으러 여기 왔지, 제 지휘관의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선장님이 복수를 이룬다 해도, 그 복수에서 기름이 몇 배럴이나 나오겠습니까, 에이해브 선장님? 우리 낸터킷 시장에서는 값을 많이 못 받을 겁니다."

"낸터킷 시장이라! 흥! 하지만 더 가까이 오너라, 스타벅. 너에게는 조금 더 아래층이 필요하다. 돈이 잣대라면, 이봐, 그리고 회계사들이 1인치의 4분의 3마다 1기니씩 금화를 둘러 지구를 감아서 그들의 거대한 회계실인 지구를 셈해 놓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말해 주마. 내 복수는 *여기서* 엄청난 웃돈을 받으리라!"

"가슴을 치는군." 스터브가 속삭였다. "저건 왜 저래? 내 보기엔 무척 크게 울리는데, 속이 비었어."

"말 못 하는 짐승에게 복수라니요!" 스타벅이 외쳤다. "그저 가장 눈먼 본능으로 선장님을 쳤을 뿐인 짐승에게! 미친 짓입니다! 말 못 하는 것에게 분노하는 것은, 에이해브 선장님, 신을 모독하는 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라. 조금 더 아래층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이봐, 마분지 가면일 뿐이다. 그러나 사건마다, 살아 있는 행위, 의심할 나위 없는 일 속에서, 거기서 무언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치를 따지는 것이 이치를 모르는 가면 뒤에서 제 얼굴 생김새를 밀어 내민다. 사람이 치려거든 그 가면을 뚫고 쳐라! 죄수가 벽을 뚫지 않고서 어떻게 바깥에 닿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흰 고래가 그 벽이다. 내 코앞까지 밀려든 벽이다. 때로는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놈은 나를 부려 먹는다. 놈은 나를 짓누른다. 놈에게서 나는 터무니없는 힘을 보고, 헤아릴 수 없는 악의가 그 힘에 힘줄을 대고 있는 것을 본다. 내가 무엇보다 미워하는 것은 그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흰 고래가 앞잡이든, 흰 고래가 주인이든, 나는 그 미움을 놈에게 퍼부으리라. 내게 신성 모독 따위를 말하지 마라, 이봐. 해가 나를 모욕한다면 나는 해라도 치리라. 해가 그럴 수 있다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투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있으니, 여기에는 늘 일종의 공정한 승부가 있다. 그러나 그 공정한 승부조차 내 주인은 아니다, 이봐. 누가 내 위에 있느냐? 진리에는 경계가 없다. 눈을 돌려라! 멍청한 눈길은 악마들이 노려보는 것보다 더 참을 수 없다! 그래, 그래. 네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는구나. 내 열기가 너를 녹여 분노로 달아오르게 했구나. 그러나 보아라, 스타벅, 열이 올라 한 말은 저절로 취소되는 법이다. 뜨거운 말쯤은 하찮은 모욕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너를 성나게 할 생각은 아니었다. 그만두자. 보아라! 저기 얼룩진 황갈색의 터키 사람 같은 뺨들을 보아라. 해가 그린, 살아 숨 쉬는 그림들이다. 이교도 표범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것들, 살고, 찾고, 제가 느끼는 뜨거운 삶에 아무 이유도 대지 않는 것들! 선원들, 이봐, 선원들 말이다! 이 고래 문제에서 저들은 하나같이 에이해브 편이 아니냐? 스터브를 보아라! 웃고 있다! 저기 칠레 사람을 보아라! 그 생각만 해도 콧김을 내뿜는다. 온통 휘몰아치는 태풍 한가운데서, 흔들리는 네 어린나무 한 그루가 홀로 버티고 설 수는 없다, 스타벅!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셈해 보아라. 지느러미 하나 치는 일을 거드는 것뿐이다. 스타벅에게는 대단한 재주도 아니다. 그 밖에 무엇이 더 있느냐? 그렇다면 이 하찮은 사냥 한 번에서, 낸터킷 전체에서 으뜸가는 창잡이가, 돛대 앞 선원들이 하나같이 숫돌을 움켜쥐었는데, 설마 뒤로 물러서지는 않겠지? 아! 너를 옥죄는 것이 있구나. 보인다! 큰

물결이 너를 들어 올리는구나! 말해라, 말을 해라! 그래, 그래! 그렇다면 네 침묵이, *그것이* 너 대신 말하는구나. (방백) 벌름거리는 내 콧구멍에서 무언가가 뿜어져 나갔고, 저자는 그것을 허파 속으로 들이마셨다. 이제 스타벅은 내 것이다.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나에게 맞설 수 없다."

"하나님, 저를 지켜 주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소서!" 스타벅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홀린 듯 말없이 따르는 일등 항해사의 모습에 기뻐한 나머지, 에이해브는 그의 불길한 기도를 듣지 못했다. 선창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도 듣지 못했다. 삭구 속에서 떨리는 바람의 불길한 진동도, 잠시 돛들의 가슴이 꺼져 들 때 돛대에 부딪혀 퍼덕이는 공허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 다시 스타벅의 내리깐 눈이 삶의 고집으로 밝아졌고, 땅 밑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는 잦아들었으며, 바람은 계속 불었고, 돛들은 부풀었고, 배는 전처럼 오르내리며 흔들렸기 때문이다. 아, 그대 훈계와 경고들이여! 왔으면 어째서 머물지 않는가? 그러나 그림자들이여, 그대들은 경고라기보다 예언이다! 그렇지만 바깥에서 오는 예언이라기보다는, 안에서 앞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바깥에서 우리를 옥죄는 것은 거의 없어도,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의 필연이 여전히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이다.

"큰 잔! 큰 잔을!" 에이해브가 외쳤다.

가득 찬 백랍 잔을 받아 든 그는 작살잡이들에게 몸을 돌려 무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작살을 손에 든 그들을 캡스턴 가까이 제 앞에 줄 세우고, 세 항해사는 창을 들고 그의 곁에 서고, 나머지 선원들은 그 무리를 빙 둘러 원을 이루자, 그는 잠시 서서 선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뚫어 보듯 살폈다. 그러나 그 사나운 눈들은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대초원의 늑대들이 핏발 선 눈으로, 들소의 자취를 따라 앞장서

달려 나가기 직전의 우두머리 눈을 마주 보듯이. 그러나 아아! 결국은 인디언이 숨겨 둔 덫에 빠지고 말 뿐인 우두머리를.

"마시고 넘겨라!" 그는 술이 묵직하게 든 큰 잔을 가장 가까이 있는 선원에게 건네며 외쳤다. "이제는 선원들만 마신다. 돌려라, 돌려! 조금씩 들이켜고, 길게 삼켜라, 얘들아. 사탄의 발굽처럼 뜨겁다. 그래, 그래. 잘 돈다. 너희 안에서 나선을 그리며 돌고, 뱀처럼 번득이는 눈에서 갈라져 나온다. 잘했다. 거의 다 비었다. 저리로 갔다가 이리로 돌아온다. 이리 다오. 텅 빈 구멍이로구나! 얘들아, 너희는 세월 같구나. 이렇게 넘치던 생명이 꿀꺽 삼켜져 사라졌다. 급사, 다시 채워라!

"이제 잘 들어라, 나의 용사들아. 내가 너희를 모두 이 캡스턴 둘레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너희 항해사들은 창을 들고 내 양옆에 서라. 그리고 너희 작살잡이들은 작살을 들고 거기 서라. 그리고 너희 튼튼한 선원들은 나를 빙 둘러싸라. 나보다 앞서 간 어부 조상들의 고귀한 풍습 하나를 얼마쯤이나마 되살리려 한다. 오, 얘들아, 너희는 아직 보게 되리라…… 하! 녀석, 벌써 돌아왔느냐? 못된 동전도 이보다 빨리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리 다오. 아니, 이 백랍 잔이 다시 가득 넘쳤을 텐데, 네가 성 비투스의 꼬마 도깨비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저리 가라, 이 학질 같은 놈!

"앞으로 나오라, 항해사들아! 내 앞에서 창을 십자로 맞대라. 잘했다! 그 축을 내가 만져 보겠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팔을 뻗어, 수평으로 사방에 뻗은 세 창을 그것들이 맞닿은 한가운데에서 움켜쥐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그것들을 홱 비틀었고, 그동안 스타벅에게서 스터브에게로, 스터브에게서 플래스크에게로 골똘히 눈길을 옮겼다. 마치 무언가 이름 없는 내면의 의지로, 자기 자석 같은 생명이라는 라이덴 병 속에 쌓인 그 불같은 감정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충격으로 흘려 넣으려는 것 같았다. 세 항해사는 그의 강하고 끈질기고

신비로운 얼굴 앞에서 움츠러들었다. 스터브와 플래스크는 그에게서 눈을 돌려 옆을 보았고, 스타벅의 정직한 눈은 아예 밑으로 떨어졌다.

"헛일이구나!" 에이해브가 외쳤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잘된 일이다. 너희 셋이 한 번이라도 온 힘이 실린 충격을 받았다면, 그때는 내 안의 전기 같은 것, *그것이* 어쩌면 내게서 빠져나가 꺼져 버렸을 테니까. 어쩌면 그것이 너희를 쓰러뜨려 죽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너희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는지도 모른다. 창을 내려라! 이제, 항해사들아, 나는 너희 셋을 저기 있는 내 세 이교도 친척, 저 세 분의 더없이 존귀한 신사이자 귀족, 나의 용감한 작살잡이들에게 술을 따르는 시종으로 임명한다. 그 일이 하찮으냐? 뭐라고, 위대한 교황이 제 삼중관을 물 주전자 삼아 거지들의 발을 씻어 주는데도? 오, 나의 귀여운 추기경들아! 너희 자신의 겸손, *그것이* 너희를 그 일에 몸을 굽히게 하리라.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다. 너희 스스로 그것을 바란다. 동여맨 줄을 끊고 자루를 뽑아라, 작살잡이들아!"

말없이 그 명령에 따라, 세 작살잡이는 이제 자루에서 떼어 낸 3피트쯤 되는 작살의 쇠 부분을 미늘이 위로 가게 그의 앞에 들고 섰다.

"그 날카로운 쇠로 나를 찌르지 마라! 기울여라, 거꾸로 기울여라! 술잔 쪽 끝을 모르느냐? 자루 구멍을 위로 돌려라! 그래, 그래. 이제, 술 따르는 시종들아, 앞으로 나오라. 작살을! 받아라. 내가 채우는 동안 들고 있어라!" 곧바로 그는 이 항해사에게서 저 항해사에게로 천천히 옮겨 가며 백랍 잔의 불같은 물로 작살 자루 구멍들을 가득 채웠다.

"이제 셋과 셋이 마주 섰다. 그 살인의 성배를 바쳐라! 건네라, 이제 이 풀 수 없는 맹약의 당사자가 된 너희여. 하! 스타벅! 그러나 일은 끝났다! 저기서 이 일을 비준할 해가 이제 그 위에 내려앉으려 기다린다. 마셔라, 작살잡이들아! 마시고 맹세하라, 죽음을 싣고 나가는 포경 보트의 뱃머리를 지키는 너희여. 모비 딕에게 죽음을! 우리가 모비 딕을 쫓아

죽이지 못하면, 신께서 우리 모두를 쫓으시기를!" 미늘 달린 길쭉한 쇠 술잔들이 들어 올려졌다. 그리고 흰 고래를 향한 외침과 저주 속에서 독한 술이 쉭 소리를 내며 일제히 들이켜졌다. 스타벅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돌아섰고, 몸을 떨었다.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채운 백랍 잔이 미쳐 날뛰는 선원들 사이를 돌았다. 그때 에이해브가 비어 있는 손을 그들에게 흔들자 그들은 모두 흩어졌고, 에이해브는 선장실로 물러갔다.

제37장 해 질 녘

선장실. 고물 창가. 에이해브가 홀로 앉아 밖을 내다본다.

나는 희고 탁한 물길을 남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창백한 물, 더 창백한 뺨. 시샘하는 큰 물결들이 옆에서 부풀어 올라 내 자취를 삼키려 한다. 그러라지.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지나간다.

저기, 늘 넘치는 술잔의 가장자리에서 따뜻한 물결이 포도주처럼 붉어진다. 금빛 이마가 푸른 바다에 측심추를 드리운다. 잠수하는 해는, 한낮부터 천천히 잠겨 들던 해는 내려가고, 내 영혼은 올라간다! 내 영혼은 끝없는 제 언덕에 지쳐 있다. 그렇다면 내가 쓴 왕관이 너무 무거운가? 이 롬바르디아의 철관이. 그래도 이 왕관은 숱한 보석으로 빛나건만, 쓰고 있는 나는 그 멀리 번쩍이는 빛을 보지 못하고, 다만 눈부시게 사람을 어지럽히는 것을 내가 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다. 이것은 쇠다. 그건 안다. 금이 아니다. 금도 가 있다. 그건 느낀다. 들쭉날쭉한 가장자리가 나를 너무도 쓰라리게 해서 내 골이 그 단단한 쇠에 부딪혀 고동치는 것 같구나, 그래, 강철 두개골이다, 내 것은. 머리통을 부수는 가장 격렬한 싸움에서도 투구가 필요 없는 그런 두개골이다!

이마에 마른 열이? 오! 한때는 해돋이가 나를 고귀하게 박차로 몰아대듯이, 해넘이가 나를 달래 주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아니다. 이 아름다운 빛, 이 빛은 나를 비추지 않는다. 모든 아름다움은 나에게 고통이다. 나는 결코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높은 지각을

타고났으나, 나에게는 낮은 것, 누리는 힘이 없다. 저주받았다, 가장 교묘하게, 가장 악의 있게! 낙원 한가운데서 저주받았다! 잘 자라, 잘 자라! (손을 흔들며 창가에서 물러난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적어도 한 놈은 고집을 부리리라 생각했지만, 이빨 달린 내 바퀴 하나가 그들의 갖가지 바퀴에 모두 맞물리고, 그들은 돌아간다.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좋다. 그들은 모두 화약으로 쌓은 개미 언덕들처럼 내 앞에 서 있고, 나는 그들의 성냥이다. 오, 가혹하구나! 남에게 불을 붙이려면 성냥 그 자체는 닳아 없어져야 하다니! 내가 감행한 것은 내가 뜻한 것이고, 내가 뜻한 것은 내가 해내리라!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스타벅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귀신 들렸다. 나는 미쳐 버린 광기다! 오직 제 자신을 헤아릴 때에만 차분해지는 그 사나운 광기다! 예언은 내가 사지를 잘리리라고 했다. 그리고, 그래! 나는 이 다리를 잃었다. 이제 나는 예언한다. 나를 잘라 낸 놈을 내가 잘라 내리라. 그러니 이제 예언자와 그 예언을 이루는 자가 하나가 되어라. 그것은 너희, 위대한 신들아, 너희가 한 번도 되어 본 적 없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비웃고 야유한다, 너희 크리켓 선수들아, 너희 권투꾼들아, 너희 귀먹은 버크들과 눈먼 벤디고들아! 학교 아이들이 골목대장에게 하듯 「너희 덩치만 한 놈하고 붙어라, *나를* 패지 마라!」 하고 말하지는 않으리라. 아니다, 너희는 나를 때려눕혔고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너희*는 달아나 숨었다. 너희 목화 자루 뒤에서 나오너라! 나에게는 너희에게 닿을 긴 총이 없다. 오너라, 에이해브가 너희에게 인사를 보낸다. 와서 너희가 나를 빗나가게 할 수 있는지 보아라. 나를 빗나가게 한다고? 너희는 나를 빗나가게 할 수 없다. 그랬다가는 너희 자신이 빗나가리라! 그 점에서는 사람이 너희를 이긴다. 나를 빗나가게 한다고? 굳게 정한 내 목적에 이르는 길에는 쇠 레일이 깔려 있고, 내 영혼은 그 위를 달리도록 홈이

패어 있다. 측량한 적 없는 협곡 위로, 꿰뚫린 산들의 심장을 지나, 급류의 바닥 밑으로, 나는 어긋남 없이 내달린다! 그 쇠길에는 아무것도 걸림돌이 아니고, 아무것도 굽이가 아니다!

제38장 땅거미

큰돛대 곁. 스타벅이 돛대에 기대어 있다.

내 영혼은 맞수를 만난 정도가 아니다. 힘에 짓눌려 버렸다. 그것도 미치광이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다, 온전한 정신이 이런 싸움터에서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다니! 그러나 그는 깊이 파고 들어와 내 안의 이성을 몽땅 폭파해 날려 버렸다! 그의 불경한 끝이 보이는 듯하다. 그런데도 나는 그가 그 끝에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고 느낀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나를 그에게 묶어 버렸고, 나에게는 끊을 칼이 없는 닻줄로 나를 끌고 간다. 끔찍한 노인이다! 누가 내 위에 있느냐고 그는 외친다. 그래, 그는 위에 있는 모든 것에는 민주주의자가 되려 하겠지. 그런데 보라,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는 얼마나 주인 노릇을 하는가! 오! 나의 비참한 직분이 똑똑히 보인다. 거역하면서 복종하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쁘게, 연민이 섞인 채 미워하는 것! 그의 눈에서 나는, 나에게 있다면 나를 바싹 오그라들게 하고 말 어떤 무시무시한 고통을 읽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시간과 조수는 넓게 흐른다. 작은 금붕어에게 유리 어항이 있듯이, 저 미움받는 고래에게는 헤엄칠 둥근 물의 세계가 있다. 하늘을 모욕하는 그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아 비껴 놓으실지도 모른다. 마음이 납처럼 무겁지만 않다면 나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나 내 시계는 태엽이 다 풀려 멈추어 버렸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추인 내 심장을 다시 들어 올릴 열쇠가 나에게는 없다.

[앞갑판 선원실에서 흥청거리는 소리가 왁자하게 터져 나온다.]

오, 하나님! 인간 어머니의 손길이라고는 거의 닿지 않은 이런 이교도 선원들과 함께 항해하다니! 상어 같은 바다가 어딘가에서 낳아 놓은 새끼들이다. 흰 고래는 그들의 데모고르곤이다. 쉿! 저 지옥의 술잔치를! 저 흥청거림은 앞쪽에 있다! 고물 쪽의 흔들림 없는 침묵을 보라! 삶을 그려 보이는 것 같다. 반짝이는 바다를 가르며 맨 앞에서 쏜살같이 나아가는 것은 즐겁고, 싸울 채비를 갖추고, 시시덕거리는 이물이다. 그러나 이물은 다만 어두운 에이해브를 제 뒤에 끌고 갈 뿐이다. 그는 물길의 죽은 물 위에 지은 고물 쪽 선장실 안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고, 그 뒤로 더 멀리서는 늑대 같은 물길의 꾸르륵 소리가 그를 뒤쫓는다. 그 긴 울부짖음이 나를 꿰뚫어 떨게 한다! 조용히 해라! 흥청거리는 녀석들아, 당직을 세워라! 오, 삶이여! 영혼이 짓밟혀 앎을 강요받는 이런 시간, 길들지 않은 사나운 것들이 억지로 먹이를 받아먹듯이 앎을 강요받는 이런 시간에, 오, 삶이여! 바로 지금 나는 네 안에 숨은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 공포는 내 밖에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부드러운 감정으로, 나는 그래도 너희와 싸워 보리라, 너희 험상궂은 유령 같은 미래들아! 내 곁에 서다오, 나를 붙들어 다오, 나를 묶어 다오, 오 너희 축복받은 힘들이여!

제39장 첫 야간 당직

앞돛대 망대.

(스터브 홀로, 활대줄을 고치고 있다.)

하! 하! 하! 하! 에헴! 목 좀 가다듬자! 그때부터 줄곧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 하, 하가 마지막 결론이야. 왜냐고? 웃음은 이상한 일 전부에 대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쉬운 대답이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닥치든 위안 하나는 늘 남아 있지. 그 변함없는 위안이란, 모든 게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 양반이 스타벅하고 나눈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했어. 하지만 내 보잘것없는 눈에는 그때 스타벅이 얼마 전 저녁에 내가 느낀 것과 비슷해 보이더군. 틀림없이 저 늙은 무굴 황제가 스타벅도 꽉 잡아 놨을 거야. 나는 눈치챘어, 알았다고. 내게 그런 재주가 있었다면 쉽게 예언할 수도 있었을걸. 그 양반 두개골에 눈길을 탁 박았을 때 나는 그걸 봤으니까. 자, 스터브, *현명한* 스터브, 그게 내 칭호지. 자, 스터브, 그게 어쨌다는 거냐, 스터브? 여기 송장 하나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다는 몰라도, 그게 무엇이든 나는 웃으면서 맞으러 가겠어. 너희 끔찍한 것들 속에는 하나같이 이렇게 익살맞게 곁눈질하는 게 숨어 있다니까! 기분이 묘하게 우스운데. 파, 라! 리라, 스키라! 고향에 있는 내 물오른 작은 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눈이 빠지게 울고 있을까? 아마 마지막으로 들어온 작살잡이들한테 프리깃함의 삼각기처럼 신이 나서 잔치를 벌여 주고 있겠지. 나도 그래. 파, 라! 리라, 스키라! 오……

오늘 밤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시리, 사랑을 위해, 술잔 가장자리에 떠다니다 입술에 닿는 순간 터지는 거품처럼 즐겁고 덧없는 사랑을 위해.

멋진 노래야, 저건. 누가 부르지? 스타벅 씨? 예, 알겠소. (방백) 저 양반은 내 윗사람이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저 양반한테도 윗사람이 있지. 예, 알겠소, 이 일만 막 끝내고. 가오.

제40장 한밤의 앞갑판

작살잡이들과 선원들.

(앞돛이 올라가자, 당직 선원들이 저마다 서고, 빈둥거리고, 기대고, 드러누운 갖가지 자세로 드러난다. 모두 합창하고 있다.)

잘 있어요, 안녕, 그대 스페인 아가씨들! 잘 있어요, 안녕, 그대 스페인의 아가씨들! 우리 선장님 명령이……

낸터킷 선원 1. 이봐, 얘들아, 감상에 젖지 마라. 소화에 나빠! 강장제나 한 첩 먹고 나를 따라 해!

(노래한다. 모두 따라 부른다.)

우리 선장님 갑판에 서서, 손에는 망원경 들고, 가닥마다 물을 뿜는 저 늠름한 고래들을 바라보았네. 오, 보트에 통을 싣고, 얘들아, 활대줄 곁에 서라, 저 멋진 고래 한 마리 잡으리라, 얘들아, 손에 손을 넘겨 가며! 그러니 기운 내라, 얘들아! 너희 심장 결코 꺾이지 말기를! 용감한 작살잡이가 고래를 찌르는 동안!

뒷갑판에서 들려오는 항해사의 목소리. 거기 앞쪽, 여덟 점이다!

낸터킷 선원 2. 합창 그만! 여덟 점이다! 들었냐, 종지기야? 종을 여덟 번 쳐라, 핍! 이 깜장 꼬마야! 당직을 부르게. 나한테는 그러기 딱 좋은 입이 있지. 큰 술통 같은 입이. 자, 자, (승강구 아래로 머리를 들이민다.) 우-혀-언 다앙지익, 어-이! 아래, 여덟 점이다! 굴러 올라와!

네덜란드 선원. 오늘 밤은 잠이 기막히게 오겠는걸, 친구. 잠자기에 넉넉한 밤이야. 우리 늙은 무굴 황제의 술에서 이걸 알아챘지. 어떤

놈들한테는 기운을 돋우는 만큼 어떤 놈들한테는 정신을 쏙 빼놓는다는 거. 우리는 노래하고, 저놈들은 잔다. 그래, 저기 맨 밑 단에 쌓은 큰 술통들처럼 드러누워 있어. 다시 불러 봐! 자, 이 구리 펌프를 들고 이걸로 저놈들을 불러. 아가씨 꿈은 그만 꾸라고 해. 부활의 날이니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심판받으러 나오라고 해. 그렇지, *그거야*. 네 목청은 암스테르담 버터를 먹어서 버려지지 않았구나.

프랑스 선원. 쉿, 얘들아! 담요 만에 닻을 내리기 전에 지그 춤이나 한두 판 추자. 어때? 저기 다른 당직이 온다. 다리란 다리는 다 채비해! 핍! 꼬마 핍! 탬버린 들고 신나게 쳐라!

핍. (뾰로통하고 졸린 얼굴로.) 어디 있는지 몰라요.

프랑스 선원. 그럼 네 배를 두드리고 귀를 흔들어. 춤추자, 얘들아, 내 말은 그거야. 즐겁게 하는 게 제일이지. 만세! 젠장, 너희 춤 안 출 거야? 자, 이제 인디언처럼 한 줄로 서서 두 발 끌기 춤으로 달려 볼까? 몸을 던져! 다리! 다리!

아이슬란드 선원. 네 바닥은 마음에 안 들어, 친구. 내 취향에는 너무 출렁거려. 나는 얼음 바닥에 익숙하거든. 이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어서 미안하지만, 나는 빼 줘.

몰타 선원. 나도. 아가씨들은 어디 있어?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제 왼손을 제 오른손으로 잡고 혼자서 안녕하세요, 하겠어? 짝! 나는 짝이 있어야 해!

시칠리아 선원. 그렇지. 아가씨들하고 풀밭! 그러면 너희하고 깡충깡충 뛰겠어. 아니, 메뚜기가 되어 주지!

롱아일랜드 선원. 그래, 그래, 이 뚱한 녀석들아, 우리는 아직 많이 남았어. 옥수수는 김맬 수 있을 때 매라, 내 말은 그거야. 다리란 다리는 다 곧 추수하러 가게 돼 있어. 아! 저기 음악이 온다. 자, 시작하자!

아조레스 선원. (올라오면서 탬버린을 승강구 위로 던진다.) 자, 받아라, 핍. 저기 양묘기 기둥이 있다. 올라가! 자, 얘들아! (절반은 탬버린에 맞추어 춤추고, 몇은 아래로 내려가고, 몇은 삭구 사리 사이에서 자거나 드러눕는다. 욕설이 쏟아진다.)

아조레스 선원. (춤추면서.) 쳐라, 핍! 두드려라, 종지기야! 짝짝 쿵쿵 짝짜쿵 쿵짝, 종지기야! 반딧불을 튀겨라. 방울을 깨뜨려라!

핍. 방울이요? 저기 또 하나 떨어져 나가요. 제가 이렇게 세게 치니까.

중국 선원. 그럼 이빨을 딱딱 부딪치며 계속 두드려라. 네 몸으로 탑을 하나 세워라.

프랑스 선원. 신나서 미치겠다! 핍, 네 굴렁쇠를 들고 있어, 내가 그 사이로 뛰어 지나가게! 삼각돛을 찢어라! 몸을 찢어라!

태시테고.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저게 흰 사람이야. 저걸 재미라고 부르지. 흥! 나는 땀을 아낀다.

맨섬 노인. 저 신난 녀석들은 자기들이 무엇 위에서 춤을 추는지 생각이나 해 볼까. 네 무덤 위에서 춤을 추마, 기어이 추마. 그건 모퉁이를 돌며 맞바람을 헤치고 다니는 너희 밤 여자들의 가장 쓰라린 협박이지. 오, 그리스도여! 초록빛 함대들과 초록빛 해골이 된 선원들을 생각하면! 그래, 그래. 너희 학자들 말마따나 아마 온 세상이 공 하나일 테니, 그걸 무도회장 하나로 만드는 것도 옳겠지. 계속 춤춰라, 얘들아, 너희는 젊다. 나도 한때는 그랬지.

낸터킷 선원 3. 교대다! 휴! 이건 바람 한 점 없을 때 고래를 쫓아 노 젓는 것보다 더 고되다. 한 모금 빨게 해 줘, 태시.

(그들은 춤을 그치고 몇 패로 모여 선다. 그러는 동안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인다.)

인도 선원. 브라마에 걸고! 얘들아, 곧 돛을 내리게 될 거다. 하늘에서 태어난, 물이 넘치는 갠지스강이 바람이 되었구나! 네 검은 이마를

내보이는구나, 시바여!

몰타 선원. (비스듬히 기대 누워 모자를 흔들며.) 물결이다. 눈 모자들이 이제 지그 춤을 추러 나선다. 곧 술을 흔들 거야. 물결이 모두 여자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물에 빠져 그 여자들하고 영원히 샤세 스텝을 밟을 텐데! 춤출 때 따뜻하고 거친 가슴들이 재빨리 언뜻언뜻 비치는 것만큼 달콤한 것은 땅 위에 없어. 하늘도 거기엔 못 미칠걸! 위로 둥글게 덮은 두 팔이 그렇게 잘 익어 터질 듯한 포도송이를 가리고 있을 때 말이야.

시칠리아 선원. (비스듬히 기대 누워.) 그 얘기는 하지 마! 들어 봐, 친구. 재빨리 얽히는 팔다리, 나긋나긋 흔들리는 몸, 수줍은 척, 파르르 떨림! 입술! 심장! 엉덩이! 다들 살짝 스치기만 해. 닿았다 떨어졌다 끝없이! 맛보지는 말고, 알겠지, 안 그러면 물리게 되니까. 안 그래, 이교도? (팔꿈치로 쿡 찌른다.)

타히티 선원. (거적 위에 비스듬히 기대 누워.) 만세, 우리 춤추는 아가씨들의 거룩한 알몸이여! 히바히바여! 아! 낮게 베일을 드리우고 높이 야자수를 받든 타히티여! 나는 아직 네 거적 위에 몸을 누이는데, 부드러운 흙은 미끄러져 사라졌구나! 나는 네가 숲에서 짜이는 것을 보았다, 내 거적아! 처음 너를 거기서 가져온 날 너는 초록빛이었지. 이제는 다 닳고 시들었구나. 아아! 너도 나도 이 변화를 견딜 수 없구나! 그렇다면 저 하늘로 옮겨 심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창처럼 솟은 피로히티 봉우리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바위 절벽을 뛰어내려 마을들을 삼킬 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돌풍이다! 돌풍이다! 일어나라, 등뼈야, 맞서라! (벌떡 일어선다.)

포르투갈 선원. 바다가 뱃전에 철썩철썩 부딪히며 굽이치는 꼴 좀 봐! 돛 줄일 채비를 해, 친구들! 바람이 이제 막 칼을 맞대고 있으니, 곧 마구잡이로 찔러 대겠다.

덴마크 선원. 삐걱거려라, 삐걱거려라, 늙은 배야! 네가 삐걱거리는 동안은 버틴다! 잘한다! 저기 항해사가 너를 단단히 붙들고 있다. 그는 카테가트의 섬 요새만큼이나 두려움이 없다. 폭풍에 두들겨 맞는 대포로 발트해와 싸우려고 세워 놓은, 바다 소금이 덕지덕지 엉겨 붙은 그 요새만큼이나!

낸터킷 선원 4. 그 양반은 명령을 받았어, 그걸 명심해. 늙은 에이해브가 그 양반한테, 돌풍은 언제나 죽여야 한다고, 권총으로 물기둥을 터뜨리듯이 배를 그 속으로 곧장 쏘아 넣으라고 하는 걸 내가 들었어!

영국 선원. 제기랄! 그런데 저 노인은 대단한 영감이야! 그 양반 고래를 찾아 줄 녀석들은 바로 우리지!

모두. 그렇지! 그렇고말고!

맨섬 노인. 세 그루 소나무가 흔들리는 꼴 좀 봐라! 소나무는 다른 흙으로 옮겨 심으면 살아남기가 가장 어려운 나무인데, 여기에는 선원들의 저주받은 흙밖에 없다. 꽉 잡아라, 키잡이! 꽉 잡아. 이런 날씨에는 용감한 심장이 뭍에서 뚝 부러지고, 용골 단 선체가 바다에서 쪼개진다. 우리 선장에게는 날 때부터 지닌 그 흉터가 있지. 저기 보아라, 얘들아, 하늘에도 또 하나 있다. 무시무시하게 번쩍이는 게, 보이지, 다른 데는 온통 칠흑인데.

다구. 그게 어쨌다는 거냐? 검은 것을 겁내는 놈은 나를 겁내는 놈이다! 나는 검은 것에서 캐낸 몸이다!

스페인 선원. (방백.) 저놈이 으스대고 싶은 모양이군, 아! 묵은 원한 때문에 나도 성이 나는구나. (앞으로 나서며.) 그래, 작살잡이, 네 족속은 인류의 부정할 수 없는 어두운 쪽이지. 그것도 악마처럼 어두운 쪽. 기분 나빠하지 마.

다구 (험악하게). 안 나쁘다.

산티아고 선원. 저 스페인 놈이 미쳤거나 취했군. 그럴 리는 없는데. 아니면 저놈 한 사람한테만 우리 늙은 무굴 황제의 불같은 술이 좀 늦게 듣는 거지.

낸터킷 선원 5. 방금 내가 본 게 뭐지? 번개? 그래.

스페인 선원. 아니. 다구가 이빨을 드러낸 거다.

다구 (펄쩍 뛰어오르며). 네 이빨이나 삼켜라, 꼬마 놈! 살갗도 희고 간도 흰 겁쟁이!

스페인 선원 (맞서 나서며). 기꺼이 칼을 먹여 주마! 덩치만 크고 배짱은 작은 놈!

모두. 싸움이다! 싸움이다! 싸움이다!

태시테고 (연기를 한 모금 내뿜으며). 아래서도 싸움, 위에서도 싸움. 신들이나 사람이나 다 싸움꾼이다! 흥!

벨파스트 선원. 싸움이다! 아이고, 싸움이다! 성모님께 찬미를, 싸움이다! 뛰어들어라!

영국 선원. 정정당당하게! 스페인 놈 칼을 뺏어! 둘러서라, 둘러서!

맨섬 노인. 이미 둘러섰다. 저기! 고리처럼 둘러선 수평선. 그 고리 안에서 가인이 아벨을 쳤다. 좋은 일이지, 옳은 일이지! 아니라고? 그렇다면 신이여, 어째서 그 고리를 만드셨소?

뒷갑판에서 들려오는 항해사의 목소리. 모두 마룻줄에 붙어라! 윗돛을 거둬라! 중간 돛 줄일 채비를 해라!

모두. 돌풍이다! 돌풍이다! 뛰어라, 신난 녀석들아! (흩어진다.)

핍 (양묘기 밑으로 움츠러들며). 신난 녀석들이요? 하나님, 그런 신난 녀석들을 도와주세요! 와지끈, 우지끈! 저기 삼각돛 버팀줄이 끊어져요! 쾅, 꽝! 하나님! 더 낮게 엎드려, 핍, 맨 꼭대기 활대가 떨어진다! 섣달그믐날 휘몰아치는 숲속에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해요! 지금 밤 따러

나무에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저기 다들 욕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여기 저는 안 가요. 저 사람들 앞날이 참 좋기도 하겠다. 다들 천국 가는 길에 올랐네. 꽉 붙잡아! 어이쿠, 무슨 돌풍이 이래! 그런데 저기 저 녀석들은 이보다 더 나빠요. 저 녀석들이야말로 흰 돌풍이에요, 저 녀석들이. 흰 돌풍? 흰 고래, 쉬이! 쉬이! 방금 여기서 저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흰 고래는, 쉬이! 쉬이! 딱 한 번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것도 오늘 저녁에야. 그 생각만 하면 제 탬버린처럼 온몸이 짤랑짤랑 떨려요. 저 아나콘다 같은 노인이 그 고래를 쫓겠다고 다들 맹세시켰어요! 오, 저 위 저 어둠 속 어딘가에 계신 크고 하얀 하나님, 여기 아래 있는 이 작고 까만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두려움을 느낄 창자도 없는 모든 사람에게서 이 아이를 지켜 주세요!

제41장 모비 딕

나, 이슈메일도 그 선원들 가운데 하나였다. 내 외침도 다른 이들의 외침과 함께 솟구쳤고, 내 맹세도 그들의 맹세와 함께 벼려 붙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의 두려움 때문에 나는 더 세게 외쳤고, 내 맹세를 더 단단히 두드려 박았다. 사납고 신비로운, 공감하는 감정이 내 안에 있었다. 꺼질 줄 모르는 에이해브의 원한이 내 것처럼 여겨졌다. 나와 다른 모든 이가 폭력과 복수를 맹세한 상대인 그 살인 괴물의 내력을 나는 탐욕스러운 귀로 알아냈다.

얼마 전부터, 비록 띄엄띄엄이기는 했지만, 짝도 없이 홀로 숨어 지내는 그 흰 고래는 주로 향유고래 어부들이 드나드는 그 미개한 바다에 출몰해 왔다. 그러나 어부들이 모두 그놈이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 그놈인 줄 알고 그놈을 본 사람은 비교적 몇 되지 않았고, 그놈인 줄 알면서 실제로 그놈과 싸움을 벌인 사람은 아직 정말 적었다. 포경선이 아주 많은 데다, 그 배들이 물의 둘레 전체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그 가운데 많은 배가 외딴 위도를 따라 모험하듯 사냥을 밀고 나가서 꼬박 열두 달 넘게 소식을 전해 줄 돛 하나 만나는 일이 좀처럼, 아니 결코 없으며, 항해 하나하나가 터무니없이 길고, 고향에서 출항하는 때가 들쭉날쭉하니, 이 모든 것이 직간접의 다른 사정들과 함께 모비 딕을 콕 집어 알려 주는 특별한 소식이 전 세계 포경 선단에 두루 퍼지는 것을 오랫동안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이러저러한 때에, 또는 이러저러한 자오선에서, 보기 드물게 크고 사나운 향유고래를

만났는데 그 고래가 저를 공격한 자들에게 큰 해를 입히고 감쪽같이 달아났다고 알려 온 배가 몇 척 있었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의 그 고래가 바로 모비 딕이었으리라는 것이, 내 말은, 터무니없는 추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근래 향유고래 포경업에서는 공격당한 괴물이 대단히 사납고 교활하고 악의를 보인 예가 여러 가지로, 그리고 드물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어쩌다 모르고 모비 딕과 싸움을 벌인 사람들, 그런 사냥꾼들은 아마 대개 그놈이 불러일으킨 독특한 공포를 그놈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향유고래 포경업 전반의 위험 탓으로 돌리는 데 만족했다. 에이해브와 그 고래가 맞부딪친 그 참사도 지금까지 대개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리고 전에 흰 고래 이야기를 듣고 어쩌다 그놈을 본 사람들로 말하자면, 처음에는 거의 하나같이 같은 종의 다른 고래를 쫓을 때만큼이나 대담하고 겁 없이 그놈을 잡으려고 보트를 내렸다. 그러나 마침내 그런 공격에서 재앙이 잇따랐다. 손목과 발목을 삐거나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몸 일부를 집어삼키듯 잘라 가는 데 그치지 않고, 더할 나위 없이 치명적인 재앙이었다. 거듭된 그 참담한 패배들이 모두 쌓이고 쌓여 모비 딕에게 공포를 더해 갔다. 그것들은 마침내 흰 고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숱한 용감한 사냥꾼들의 굳센 마음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온갖 터무니없는 소문도 이 치명적인 대결의 참된 내력을 부풀려 한층 더 끔찍하게 만들지 않을 리 없었다. 벼락 맞은 나무가 버섯을 낳듯 놀랍고 끔찍한 모든 사건의 바로 그 몸통에서 전설 같은 소문이 저절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바다의 삶에서는 단단한 뭍의 삶에서보다 훨씬 더, 매달릴 만한 현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이면 어디든 터무니없는 소문이 넘쳐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바다가 뭍을 넘어서듯, 이따금 거기 떠도는 소문의 놀라움과 무시무시함에서는 포경업이 다른 모든 바다의 삶을 넘어선다. 포경선원들은 무리 전체로 보아 모든 뱃사람에게

대물림되는 그 무지와 미신에서 벗어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뱃사람 가운데 바다에서 소름 끼치게 놀라운 것이면 무엇이든 단연 가장 직접 맞닥뜨리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다의 가장 큰 경이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손과 턱을 맞대고 그것과 싸운다. 그토록 먼 물에서 홀로, 1,000마일을 항해하고 1,000개의 해안을 지나도 해의 그쪽 아래에서는 정으로 다듬은 아궁이 돌 하나, 손님을 맞아 줄 무엇 하나 만나지 못할 그런 위도와 경도에서, 게다가 그가 하는 그런 일을 좇으며, 포경선원은 자기 공상이 숱한 거대한 것들을 배도록 만드는 힘들에 온통 감싸인다.

그러니 흰 고래에 관한 소문이 가장 넓은 물의 공간을 그저 건너오는 것만으로도 끊임없이 부피를 키우며 퍼져 나가다가, 마침내 온갖 병적인 암시와 초자연적인 힘에 관한 반쯤 꼴을 갖춘 태아 같은 짐작을 제 안에 받아들였고, 그것이 끝내 모비 딕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도 빌려 오지 않은 새로운 공포를 입혔다고 해도 놀랄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 경우에 그놈은 마침내 어찌나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는지, 적어도 그런 소문으로 흰 고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냥꾼들 가운데, 그놈의 턱이 지닌 위험에 맞서려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아직 다른, 더 결정적인 실제적인 힘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향유고래가 리워야단의 다른 모든 종과 무시무시하게 구별되어 지녀 온 원래의 위세는 포경선원들 전체의 마음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그들 가운데에는 그린란드고래, 곧 참고래에게는 넉넉히 슬기롭고 용감하게 싸움을 거는데도, 일에 서툴러서든 능력이 모자라서든 겁이 나서든, 어쩌면 향유고래와 겨루는 것은 사양할 사람들이 있다. 어쨌든 포경선원 가운데, 특히 미국 깃발을 달지 않고 항해하는 포경 나라들 사이에는 향유고래와 적으로 맞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리워야단에 관해 아는 것이라고는 처음에 북쪽에서

쫓던 그 볼품없는 괴물뿐인 사람이 숱하다. 이런 사람들은 승강구 뚜껑에 걸터앉아 아이가 난롯가에서 듣듯 흥미진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남양 포경의 거칠고 이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리라. 그리고 위대한 향유고래의 남다른 무시무시함을, 그놈을 마주 헤치고 나아가는 그 뱃머리들 위에서보다 더 절절히 깨닫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이제 증명된 그놈의 힘이 옛 전설의 시대에 이미 제 그림자를 앞에 드리우기라도 한 듯, 우리는 책으로만 아는 몇몇 박물학자들, 올라센과 포벨센이 향유고래는 바다의 다른 모든 생물에게 공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나워서 끊임없이 사람의 피에 목말라한다고 단언하는 것을 본다. 퀴비에의 시대만큼 가까운 때까지도 이런 인상, 또는 거의 비슷한 인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박물지」에서 남작 자신이 향유고래를 보면 모든 물고기(상어 포함)가 「가장 생생한 공포에 사로잡히고」, 「달아나느라 허둥대다가 바위에 몸을 부딪치는 일이 잦은데, 어찌나 세게 부딪치는지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단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경업의 일반적인 경험이 이런 보고를 아무리 바로잡는다 해도, 그 무시무시함 그대로, 포벨센의 피에 목마르다는 항목까지 포함해, 그것을 믿는 미신은 그 직업의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 사냥꾼들의 마음에 되살아난다.

그래서 그놈에 관한 소문과 흉조에 기가 꺾인 나머지, 적지 않은 어부들이 모비 딕과 관련해 향유고래 포경업의 초창기를 떠올렸다. 그 무렵에는 오래 참고래를 잡아 온 포경선원들을 이 새롭고 대담한 싸움의 위험에 뛰어들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리워야단이라면 희망을 품고 쫓을 수 있어도, 향유고래 같은 유령을 쫓아 창끝을 겨누는 것은 죽을 운명의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항의했다. 그런 짓을 하려 들었다가는 틀림없이 갈가리 찢겨 순식간에

영원으로 가리라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참고할 만한 놀라운 기록이 몇 가지 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 앞에서도 모비 딕을 쫓을 채비가 된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수는 어쩌다 그놈 이야기를 멀리서 어렴풋이, 어떤 확실한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미신 같은 덧붙임도 없이 들었을 뿐이어서, 싸움이 걸려 오면 달아나지 않을 만큼은 대담했다.

미신에 기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마침내 흰 고래와 엮이게 된, 앞서 말한 터무니없는 암시 가운데 하나는 모비 딕이 어디에나 있다는, 그놈이 정반대의 위도에서 똑같은 한순간에 실제로 목격되었다는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생각이었다.

그런 마음들이 틀림없이 무엇이든 곧이들었을지라도, 이 생각에 미신으로서 그럴듯한 데가 희미하게나마 전혀 없지는 않았다. 바다 해류의 비밀이 가장 박식한 연구에도 아직 드러난 적이 없듯이, 물속에 있을 때 향유고래가 다니는 숨은 길도 그놈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설명할 수 없는 채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특히 깊이 잠수한 뒤 그토록 엄청난 빠르기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들로 옮겨 가는 그 신비로운 방법을 두고, 가장 기묘하고 서로 어긋나는 추측들이 때때로 생겨났다.

미국과 영국의 포경선들에 잘 알려져 있고, 몇 해 전 스코스비가 권위 있는 기록으로 남겨 놓기도 한 일인데, 태평양 먼 북쪽에서 잡힌 몇몇 고래의 몸에서 그린란드 바다에서 던진 작살의 미늘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경우 가운데 몇몇에서는 두 번의 공격 사이의 시간이 그리 여러 날을 넘었을 리 없다고 단언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 어떤 포경선원들은 사람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난제였던 북서 항로가 고래에게는 한 번도 난제가 아니었다고 믿어 왔다. 그러니 여기,

살아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살아 있는 경험 속에서, 포르투갈 내륙의 스트렐로산에 관해 옛날에 전해지던 기적(그 꼭대기 가까이에 호수가 있는데 난파선 잔해가 그 수면으로 떠오른다고 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시라쿠사 근처 아레투사 샘 이야기(그 물이 땅 밑 길로 성지에서 흘러온다고 믿었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에 포경선원들의 현실이 거의 맞먹는다.

그러니 이런 기적들에 억지로 익숙해진 데다, 거듭된 대담한 공격 뒤에도 흰 고래가 살아서 달아났다는 것을 알고 보면, 어떤 포경선원들이 미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비 딕은 어디에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지도 않는다고(죽지 않음이란 시간 속에서 어디에나 있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놈의 옆구리에 창을 숲처럼 꽂아도 그놈은 끄떡없이 헤엄쳐 달아나리라고, 설령 그놈이 걸쭉한 피를 뿜게 만든다 해도 그 광경은 끔찍한 속임수일 뿐이리라고, 수백 리그 떨어진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물결 속에서 그놈의 더럽혀지지 않은 물줄기가 다시 한번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초자연적인 짐작들을 벗겨 내도, 그 괴물의 이 세상다운 생김새와 반박할 수 없는 성질에는 보기 드문 힘으로 상상력을 내리칠 만한 것이 충분히 있었다. 그놈을 다른 향유고래들과 그토록 뚜렷이 구별해 준 것은 그놈의 남다른 덩치라기보다, 다른 자리에서 넌지시 비친 것처럼, 눈처럼 흰 독특한 주름진 이마와 피라미드처럼 높이 솟은 흰 혹이었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그놈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끝없고 해도에도 없는 바다에서도 그놈이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멀리서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표지였다.

그놈의 나머지 몸은 수의를 두른 듯한 같은 빛깔로 줄무늬와 얼룩과 대리석 무늬가 어찌나 많이 져 있었는지, 끝내 흰 고래라는 남다른 이름을 얻었다. 한낮에 짙푸른 바다를 미끄러지며 온통 금빛 반짝임이

흩뿌려진 크림빛 거품으로 은하수 같은 물길을 남기는 모습을 보면, 그놈의 선명한 모습은 실로 그 이름을 글자 그대로 정당화했다.

그 고래를 그토록 타고난 공포로 감싼 것은 보기 드문 덩치도, 놀라운 빛깔도, 일그러진 아래턱도 아니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놈이 공격할 때마다 되풀이해 보여 준 그 전례 없는 지능적인 악의였다. 무엇보다도, 그놈의 간사한 후퇴는 아마 다른 무엇보다 큰 낭패를 안겼다. 의기양양하게 뒤쫓는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는 겁먹은 기색을 한껏 내보이며 헤엄쳐 달아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그들에게 덮쳐 와서는 보트를 산산조각 내거나, 겁에 질린 그들을 배로 도로 쫓아 버린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놈을 쫓다가 이미 여러 사람이 죽었다. 비슷한 참사는 뭍에는 아무리 적게 알려졌어도 포경업에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흰 고래의 지옥 같은 사나움은 미리 꾸민 것처럼 보여서, 그놈이 일으킨 사지 절단이나 죽음은 모두 지능 없는 것이 입힌 것으로만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니 판단해 보라. 그놈을 쫓던 더 필사적인 사냥꾼들이 씹힌 보트의 나뭇조각들과 찢긴 동료들의 가라앉는 팔다리 사이에서, 고래의 무시무시한 분노가 일으킨 흰 엉긴 물보라를 헤치고 헤엄쳐 나와, 탄생이나 혼례를 맞기라도 한 듯 계속 미소 짓는 고요하고 약 오르는 햇빛 속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 미친 분노의 꼭대기로 내몰렸을지.

그의 보트 세 척이 고래 주위에서 박살 나고, 노와 사람들이 함께 소용돌이 속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한 선장이 부서진 뱃머리에서 작살줄 칼을 움켜쥐고, 아칸소의 결투꾼이 적에게 달려들듯 고래에게 달려들어, 6인치짜리 칼날로 1패덤 깊이에 있는 고래의 목숨에 닿으려고 눈멀게 찔러 댔다. 그 선장이 에이해브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비

딕이 낫 모양의 아래턱을 그의 밑으로 휙 휘둘러, 풀 베는 사람이 들판에서 풀 한 포기를 베듯 에이해브의 다리를 베어 갔다. 터번을 두른 어떤 터키 사람도, 돈에 팔린 어떤 베네치아 사람이나 말레이 사람도 이보다 더 악의 있어 보이게 그를 칠 수는 없었으리라. 그러니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그 대결 뒤로 줄곧 에이해브가 그 고래에게 사나운 복수심을 품어 왔다는 것을 의심할 까닭은 거의 없었다. 그 복수심이 더욱 지독했던 것은, 미쳐 날뛰는 병적인 마음속에서 그가 마침내 몸의 모든 고통뿐만 아니라 지성과 영혼의 모든 분노까지 그 고래와 하나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흰 고래는 그의 눈앞에서 헤엄쳤다. 어떤 깊은 사람들이 제 안을 갉아먹는다고 느끼는 그 모든 악의 있는 힘, 끝내 그들을 심장 반쪽과 허파 반쪽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힘이 편집광의 꼴로 몸을 입은 것으로서. 태초부터 있어 온 그 만질 수 없는 악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조차 세계의 절반을 그 지배 아래 두는 그것, 동방의 옛 오피스파가 악마의 상으로 받들던 그것, 에이해브는 그들처럼 그 앞에 엎드려 그것을 섬기지 않았다. 그 대신 그것의 관념을 미친 듯이 그 증오스러운 흰 고래에게 옮겨 놓고, 온몸이 잘려 나간 채로 그것에 맞섰다. 가장 미치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 사물의 앙금을 휘저어 일으키는 모든 것, 악의가 깃든 모든 진리, 힘줄을 끊고 골을 굳게 하는 모든 것, 삶과 생각의 교묘한 악마 같은 것 모두, 모든 악이 미친 에이해브에게는 모비 딕 안에서 눈에 보이게 사람의 꼴을 입었고, 실제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는 아담 이래 그의 종족 전체가 느껴 온 모든 분노와 증오를 다 합쳐 그 고래의 흰 혹 위에 쌓아 올렸다. 그러고는 제 가슴이 박격포라도 된 듯, 그 위에 뜨거운 심장의 포탄을 터뜨렸다.

그의 이 편집광이 그가 몸을 잘린 바로 그때 곧바로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다. 그때 칼을 손에 들고 그 괴물에게 달려들면서, 그는

갑작스럽고 격정적인 육체의 적의를 풀어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를 찢어 놓은 일격을 받았을 때도 아마 몸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만 느꼈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이 충돌 때문에 고향으로 뱃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 몇 날 몇 주로 이어진 기나긴 몇 달 동안 에이해브와 고통이 한 해먹에 나란히 누워 한겨울에 그 음산하게 울부짖는 파타고니아의 곶을 돌 때, 바로 그때 찢긴 몸과 베인 영혼이 서로에게 피를 흘려 넣었고, 그렇게 서로 스며들며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 대결 뒤, 고향으로 돌아오는 항해에서야 비로소 마지막 편집광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 항해 동안 그가 이따금 헛소리를 하며 날뛰는 미치광이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리 하나를 잃었는데도 그의 이집트 사람 같은 가슴에는 아직 그토록 대단한 생명력이 숨어 있었고, 그것이 게다가 헛소리 속에서 한층 더 세어져서, 항해사들은 배가 가는 동안 거기 해먹에서 헛소리하며 날뛰는 그를 단단히 묶어 두어야 했다. 구속복을 입은 채 그는 강풍의 미친 듯한 흔들림에 따라 흔들렸다. 그리고 배가 더 견딜 만한 위도로 들어서서 부드러운 보조돛을 펼치고 고요한 열대를 가로질러 떠가고, 겉으로 보기에는 노인의 헛소리가 혼곶의 큰 너울과 함께 뒤에 남겨진 듯하고, 그가 어두운 굴에서 나와 축복받은 빛과 공기 속으로 나왔을 때에도, 창백하기는 해도 단단하고 침착한 얼굴을 하고 다시 차분히 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그리고 항해사들이 그 끔찍한 광기가 이제 사라졌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에이해브는 숨은 자아 속에서 계속 미쳐 날뛰었다. 인간의 광기는 흔히 교활하고 더없이 고양이 같은 것이다. 달아났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그저 더 교묘한 다른 꼴로 모습을 바꾸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에이해브의 완전한 광기는 가라앉지 않고 더 깊어지며 좁아졌다. 그 고귀한 북방 사내 허드슨강이 하일랜드 협곡을 지날 때 좁게, 그러나

헤아릴 수 없이 깊게 흐르면서도 줄어들지 않듯이. 그러나 좁게 흐르는 그의 편집광 속에서 에이해브의 넓은 광기가 한 점도 뒤에 남겨지지 않았듯이, 그 넓은 광기 속에서 그의 위대한 타고난 지성도 한 점도 사라지지 않았다. 전에는 살아 있는 행위자였던 것이 이제 살아 있는 도구가 되었다. 이런 격렬한 비유가 허락된다면, 그의 특별한 광기는 그의 전반적인 제정신을 습격해 함락하고, 그 집중된 대포를 모두 제 미친 표적으로 돌려 놓았다. 그래서 에이해브는 힘을 잃기는커녕,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정신으로 이치에 맞는 어떤 대상에 쏟았던 것보다 천 배나 더 큰 힘을 이제 지니게 되었다.

이것만 해도 많다. 그러나 에이해브의 더 크고, 더 어둡고, 더 깊은 부분은 아직 넌지시 비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깊은 것을 쉽게 풀어 보이려는 것은 헛된 일이고, 모든 진리는 깊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뾰족한 탑이 솟은 이 클뤼니 저택의 바로 그 한복판에서부터 저 아래로 굽이굽이 내려가라. 아무리 웅장하고 놀라워도 이제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그대들 더 고귀하고 더 슬픈 영혼들이여, 저 광대한 로마의 테르메 욕장 회랑으로 길을 잡아라. 거기, 인간이 사는 위쪽 땅의 기이한 탑들 저 아래 깊은 곳에, 인간의 위대함의 뿌리, 그의 경외로운 본질 전체가 수염을 기른 위엄으로 앉아 있다. 고대 유물들 밑에 묻히고, 토르소들 위에 왕좌를 차린 고대의 것이! 이렇게 부서진 왕좌로 위대한 신들은 그 사로잡힌 왕을 조롱한다. 이렇게 그는 카리아티드처럼 참을성 있게 앉아, 얼어붙은 이마 위에 시대의 쌓인 처마 도리를 떠받치고 있다. 그대들 더 오만하고 더 슬픈 영혼들이여, 그곳으로 굽이굽이 내려가라! 그 오만하고 슬픈 왕에게 물어보라! 집안 내림의 닮은 얼굴! 그렇다, 그가 그대들을 낳았다, 그대들 쫓겨난 젊은 왕족들이여. 그리고 그 옛 국가 기밀은 오직 그대들의 험상궂은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리라.

그런데 마음속에서 에이해브는 이것을 얼마쯤 언뜻 알아보았다. 곧, 내 수단은 모두 제정신이지만 내 동기와 목적은 미쳤다는 것을. 그러나 그 사실을 없애거나, 바꾸거나, 피할 힘은 없었으므로, 그는 또한 자기가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감추어 왔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가 감춘다는 그 일은 그의 지각에만 따를 뿐, 그의 단호한 의지에 따르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그 감추는 일에 어찌나 성공했는지, 마침내 고래뼈 의족을 딛고 뭍에 내려섰을 때 낸터킷 사람 누구도 그가 덮쳐 온 끔찍한 사고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도 뼈저리게 슬퍼하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바다에서 그가 부정할 수 없이 헛소리하며 날뛰었다는 소문도 사람들은 대개 그와 비슷한 원인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 뒤로 이번 항해에서 피쿼드호를 타고 떠나는 바로 그날까지 그의 이마에 늘 내려앉아 골똘히 맴돌던 그 더해진 침울함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조심성 많은 섬의 셈 빠른 사람들이 그런 어두운 징후 때문에 그가 또 한 번의 포경 항해에 알맞은지 의심하기는커녕, 바로 그런 까닭에 그가 고래를 피 흘리게 하는 사냥처럼 분노와 사나움으로 가득한 추격에 더 알맞고 더 날이 서 있다는 생각을 품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도 그리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은 아니다. 고칠 수 없는 어떤 생각의 깊이 박힌 무자비한 송곳니에 안으로는 갉아먹히고 밖으로는 그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소름 끼치는 짐승에게 작살을 던지고 창을 들어 올릴 바로 그 사람으로 보이리라. 아니면, 무슨 까닭으로든 몸이 그 일을 하기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해도, 그런 사람은 공격에 나서도록 부하들을 북돋우고 울부짖어 몰아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알맞아 보이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든, 확실한 것은 에이해브가 줄어들지 않는 분노라는 미친 비밀을

제 안에 빗장 지르고 자물쇠 채운 채, 흰 고래를 사냥한다는 단 하나의, 모든 것을 삼키는 목적만을 품고 일부러 이번 항해에 나섰다는 것이다. 뭍에 있던 그의 옛 지인 가운데 누구라도 그때 그의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반쯤이라도 꿈꾸었다면, 그들의 질겁하고 의로운 영혼이 얼마나 재빨리 그 악마 같은 사람에게서 배를 빼앗았겠는가! 그들은 조폐국에서 찍어 낸 달러로 이익을 셈하는, 돈벌이가 되는 항해에 마음이 쏠려 있었다. 그는 대담하고 누그러뜨릴 수 없는 초자연적인 복수에 골몰해 있었다.

그러니 여기, 백발의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노인이 저주를 퍼부으며 욥의 고래를 쫓아 세계를 돌고 있었다. 그것도 주로 잡종 배교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식인종들로 이루어진 선원들을 이끌고서. 게다가 그 선원들은 스타벅에게 있는, 도움 없는 덕이나 바른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무력함과, 스터브에게 있는, 무관심과 무모함이라는 상처 입지 않는 쾌활함과, 플래스크에게 두루 퍼진 평범함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약해져 있었다. 그런 선원들에 그런 간부들은, 그의 편집광 같은 복수를 돕도록 어떤 지옥의 숙명이 특별히 골라 꾸려 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어떻게 노인의 분노에 그토록 넘치도록 응답했는지, 어떤 사악한 마법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기에 때로는 그의 증오가 거의 그들의 증오처럼 보였는지, 흰 고래가 그의 원수인 것만큼이나 그들에게도 견딜 수 없는 원수처럼 보였는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 흰 고래가 그들에게 무엇이었는지, 혹은 그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이해 속에서도 어렴풋이, 짐작도 못한 채 그가 삶의 바다를 미끄러져 다니는 거대한 악마처럼 보였는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이슈메일이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잠수해야 하리라. 우리 모두의 안에서 일하는 땅 밑의 광부, 끊임없이 자리를 옮기는 그 먹먹한 곡괭이 소리로 그의 갱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거스를 수 없는 그 팔이 끌어당기는 것을 누가 느끼지 않겠는가? 74문 전함에 끌려가는 어떤 작은 배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나로 말하자면, 나는 그때 그곳의 분위기에 몸을 내맡겼다. 그러나 고래를 만나러 온통 내닫는 와중에도, 나는 그 짐승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악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제42장 고래의 흰빛

흰 고래가 에이해브에게 무엇이었는지는 이미 넌지시 비쳤다. 그 고래가 때때로 나에게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누구의 영혼에서든 이따금 얼마쯤 두려움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는, 모비 딕에 관한 그 더 뻔한 고려들 말고도, 그놈에 관해서는 다른 생각, 아니 차라리 어렴풋하고 이름 없는 공포가 있었다. 그것은 때로 그 강렬함으로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압도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너무나 신비롭고 거의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꼴로 내놓을 수 있을지 나는 거의 절망한다. 무엇보다 나를 질겁하게 한 것은 그 고래의 흰빛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내 뜻을 풀어 보일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되는대로라도 나는 내 뜻을 풀어 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장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 자연의 사물에서 흰빛은 마치 저만의 특별한 미덕이라도 나누어 주듯 아름다움을 한층 정련해 높여 준다. 대리석과 동백꽃과 진주에서처럼. 그리고 여러 나라가 어떻게든 이 빛깔에 일종의 왕다운 으뜸가는 자리를 인정해 왔다. 페구의 야만스럽고 장엄한 옛 왕들조차 「흰 코끼리들의 주인」이라는 칭호를 다른 모든 거창한 지배의 칭호 위에 두었고, 오늘날 시암의 왕들은 바로 그 눈처럼 흰 네발짐승을 왕기에 펼쳐 달며, 하노버의 깃발에는 눈처럼 흰 군마 하나만이 그려져 있고, 지배하던 로마의 상속자인 카이사르의 위대한 오스트리아 제국은

바로 그 제왕다운 빛깔을 황실의 빛깔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으뜸가는 자리는 인류 자체에도 적용되어, 흰 사람에게 모든 거무스름한 족속 위에 서는 이상적인 주인 자리를 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말고도 흰빛은 기쁨을 뜻하는 것으로까지 여겨졌으니,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흰 돌이 기쁜 날을 표시했다. 그리고 인간의 다른 공감과 상징 속에서도 이 같은 빛깔은 많은 감동적이고 고귀한 것, 신부의 순결, 노년의 자애의 표상이 된다. 아메리카의 붉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가비 구슬로 엮은 흰 띠를 주는 것이 가장 깊은 명예의 서약이었다. 여러 고장에서 흰빛은 재판관의 흰 담비 털옷에서 정의의 위엄을 나타내고, 우윳빛 흰 말들이 끄는 왕과 왕비들의 날마다의 위엄을 거든다. 가장 존엄한 종교들의 더 높은 신비에서도 흰빛은 신의 티 없음과 권능의 상징이 되었다. 페르시아의 배화교도들은 제단 위의 갈라진 흰 불꽃을 가장 거룩하게 여겼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위대한 유피테르 자신이 눈처럼 흰 황소로 몸을 입었다. 고귀한 이로쿼이족에게는 거룩한 흰 개를 한겨울에 바치는 제사가 그들의 신학에서 단연 가장 거룩한 축제였는데, 그 티 없고 충실한 짐승은 그들이 해마다 저희의 충성을 알리러 위대한 정령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절로 여겨졌다. 모든 기독교 사제는 흰빛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곧바로 그들의 거룩한 제의 한 가지의 이름을 따오니, 수단 밑에 입는 장백의, 곧 알바가 그것이다. 로마 가톨릭 신앙의 거룩한 의식들 가운데서도 흰빛은 우리 주의 수난을 기리는 데 특별히 쓰인다. 성 요한의 계시에서는 구원받은 이들에게 흰옷이 주어지고, 스물네 장로가 흰옷을 입고 크고 흰 보좌 앞에 서며, 거기 앉으신 거룩한 이는 양털처럼 희다. 그러나 달콤하고, 존귀하고, 숭고한 모든 것과 이어진 이 쌓이고 쌓인 연상에도 불구하고, 이 빛깔의 가장 깊은 관념 속에는 붙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어서, 피 속에서 사람을 겁먹게 하는 그 붉은빛보다 더 큰 공포를 영혼에 내리친다.

흰빛이라는 생각이 더 다정한 연상에서 떨어져 나와, 그 자체로 무시무시한 어떤 대상과 짝지어질 때 그 공포를 가장 먼 끝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이 붙잡을 수 없는 성질이다. 극지의 흰곰과 열대의 백상아리를 보라. 그 매끄럽고 눈송이 같은 흰빛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것들을 그토록 뛰어넘는 공포로 만들겠는가? 그것들이 말없이 노려보는 모습에, 무시무시하다기보다 더 역겨운, 그토록 끔찍한 부드러움을 나누어 주는 것은 바로 그 섬뜩한 흰빛이다. 그래서 문장(紋章) 같은 털옷을 입은 송곳니 사나운 호랑이도 흰 수의를 두른 곰이나 상어만큼 용기를 비틀거리게 하지는 못한다.[1]

백상아리로 말하자면, 평소의 기분일 때 그 짐승에게서 보이는 쉬고 있는 흰 유령이 미끄러져 가는 듯한 모습은 극지 네발짐승의 같은 성질과 이상하게 들어맞는다. 이 특징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 물고기에 붙인 이름이 가장 생생하게 맞혀 낸다. 죽은 이를 위한 로마 가톨릭 미사는 「 레퀴엠 에테르남 」 (영원한 안식)으로 시작하고, 거기서 *레퀴엠*이 그 미사 자체와 다른 모든 장례 음악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상어에게 있는 죽음의 희고 말 없는 고요함과 그 습성의 부드러운 치명성을 빗대어, 프랑스 사람들은 그놈을 *레캥*이라고 부른다.

앨버트로스를 생각해 보라. 그 흰 유령이 모든 이의 상상 속을 떠가며 두르고 있는 영적인 경이와 창백한 두려움의 구름은 어디서 오는가? 그 마법을 처음 건 것은 콜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첨할 줄 모르는 계관 시인, 자연이었다.[2]

그러니 나는 단언한다. 그 마법의 비밀은 주로 그 새의 놀라운 몸의 흰빛에 숨어 있다고. 낱말이 서로 어긋나게도 회색 앨버트로스라고 불리는 새들이 있다는 점이 이 진실을 더욱 똑똑히 보여 준다. 나는 그 새들을 자주 보았지만, 남극의 그 새를 보았을 때와 같은 감정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것은 어떻게 잡혔던가? 소문을 내지 않는다면 말해 주겠다. 그 새가 바다에 떠 있을 때 간사한 낚싯바늘과 낚싯줄로 잡았다. 마침내 선장은 그 새를 우편배달부로 삼았다. 배의 시각과 위치를 글자로 적은 가죽 꼬리표를 그 목에 매어 놓아준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내는 그 가죽 꼬리표는, 그 흰 새가 날개를 접고 기도하며 경배하는 케루빔의 무리에 끼려고 날아갔을 때 하늘에서 떼어졌으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 서부의 연대기와 인디언의 전승에서 가장 이름난 것은 대초원의 흰 말 이야기다. 우윳빛 흰 군마로 눈이 크고 머리가 작으며 가슴이 떡 벌어지고, 높고 모든 것을 깔보는 몸가짐에는 천 명의 군주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 말은 거대한 야생마 떼가 뽑은 크세르크세스였는데, 그 시절 그 떼의 목초지는 로키산맥과 앨러게니산맥만이 울타리를 치고 있었다. 그 말은 불타오르는 무리의 맨 앞에서, 저녁마다 빛의 군대를 이끄는 그 선택받은 별처럼 서쪽으로 무리를 이끌고 나아갔다. 번쩍이며 흘러내리는 폭포 같은 갈기와 휘어진 혜성 같은 꼬리는 금박장이와 은박장이가 꾸며 줄 수 있었을 것보다 더 찬란한 마구를 그 말에게 입혀 주었다. 타락하지 않은 저 서부 세계의 더없이 제왕답고 대천사 같은 환영으로, 그 말은 옛 덫사냥꾼들과 사냥꾼들의 눈에 아담이 신처럼 위엄 있게, 이 힘센 말처럼 이마를 떡 펴고 두려움 없이 걷던 태초 시대의 영광을 되살려 주었다. 오하이오강처럼 끝없이 들판을 흘러가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의 선두에서 부관들과 장군들에 둘러싸여 행진할 때든, 사방에 둘러선 신민들이 수평선 언저리까지 온통 풀을 뜯고 있을 때든, 흰 말은 시원한 우윳빛 사이로 붉게 달아오른 따뜻한 콧구멍으로 질주하며 그들을 사열했다. 그 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가장 용감한 인디언들에게도 그 말은 언제나 떨리는 숭배와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 고귀한 말에 관해 전설로 남은 기록을 보면, 그

말에게 그토록 신성함을 입힌 것은 주로 그 영적인 흰빛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신성함에는 숭배를 명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이름 없는 공포를 강요하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흰빛이 흰 말과 앨버트로스에서 그것을 감싸는 그 덧붙은 이상한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는 다른 예들도 있다.

알비노 사람에게서 그토록 유난히 눈을 밀어내고 흔히 충격을 주어, 때로는 그의 피붙이에게서조차 미움을 받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를 감싸는 그 흰빛이고, 그가 지닌 이름이 그것을 나타낸다. 알비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잘생겼다. 실질적인 기형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온몸에 두루 퍼진 흰빛이라는 이 겉모습 하나만으로 그는 가장 흉한 기형아보다 더 이상하게 흉측해진다. 어째서 그래야 하는가?

전혀 다른 모습들에서도 자연은 가장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덜 악의적이지도 않은 힘들 속에 공포의 이 으뜸가는 속성을 제 군대로 끌어들이지 않는 법이 없다. 그 눈 같은 모습 때문에 남양의 장갑 낀 유령은 흰 돌풍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리고 몇몇 역사적인 예에서는 인간의 악의가 부리는 술수도 그토록 강력한 원군을 빠뜨리지 않았다. 헨트의 필사적인 흰 두건단이 저희 당파의 눈처럼 흰 상징으로 얼굴을 가리고 장터에서 저희 집행관을 살해하는 프루아사르의 그 대목은 그 덕분에 얼마나 사납게 효과가 높아지는가!

어떤 일들에서는 온 인류가 대물림해 온 공통의 경험도 이 빛깔의 초자연성을 증언하지 않는 법이 없다. 죽은 이의 얼굴에서 바라보는 사람을 가장 질겁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성질이 거기 남아 있는 대리석 같은 창백함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마치 그 창백함이 이승에서 죽어 가는 자의 떨림의 표지인 것만큼이나 저승에서 겪는 공포의 표지이기도 하다는 듯이. 그리고 죽은 이의 그 창백함에서 우리는 그들을 감싸는 수의의 표정 어린 빛깔을 빌려 온다. 우리의 미신에서도

우리는 우리 유령들에게 똑같이 눈처럼 흰 망토를 두르는 것을 잊지 않는다. 모든 유령은 우윳빛 흰 안개 속에서 일어선다. 그렇다, 이 공포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동안 덧붙여 두자. 공포의 왕조차 복음서 기자가 사람의 꼴로 그릴 때는 창백한 말을 탄다.

그러므로 다른 기분일 때 사람이 흰빛으로 어떤 웅대하거나 우아한 것을 상징하든, 그 가장 깊이 이상화된 뜻에서 흰빛이 영혼에 독특한 환영을 불러낸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이 이의 없이 정해진다 해도, 죽을 운명의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분석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흰빛이라는 것이 한동안 그것에 무언가 무서운 것을 나누어 줄 직접적인 연상을 모두, 또는 대부분 벗겨 낸 상태인데도, 아무리 달라졌다 해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술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예 몇 가지를 끌어옴으로써,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숨은 원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실마리를 우연히라도 찾아내기를 바랄 수 있을까?

해 보자. 그러나 이런 문제에서는 섬세함이 섬세함에 호소하며, 상상력 없이는 누구도 남을 따라 이 회랑들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제 내보일 상상의 인상들 가운데 적어도 몇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함께 느꼈겠지만, 그때 그것을 온전히 의식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떠올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배우지 않은 이상을 지닌 사람, 그날의 독특한 성격을 어설프게만 아는 사람에게 성령 강림절, 이른바 흰 주일이라는 말만 나와도 어째서 머릿속에 고개를 떨구고 갓 내린 눈으로 두건을 쓴 채 천천히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그토록 길고, 음울하고, 말 없는 행렬이 줄지어 떠오르는가? 아니면 중부 아메리카 여러 주의 책 안 읽고 순박한 개신교도에게 흰 수사나 흰 수녀라는 말이 지나가듯 나오기만 해도 어째서 영혼 속에 그토록 눈 없는 조각상이 불려 나오는가?

아니면 지하 감옥에 갇혔던 무사들과 왕들의 전승 말고(그것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 무엇이 있기에, 여행해 본 적 없는 미국 사람의 상상에 런던의 흰 탑이 그 이웃인 다른 이름난 건물들, 바이워드 탑이나 피의 탑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숭고한 탑들인 뉴햄프셔의 흰 산맥은 어떤가. 독특한 기분일 때 그 이름만 나와도 거기서 거대한 유령 같은 기운이 영혼 위로 덮쳐 오지만, 버지니아의 푸른 산등성이를 생각하면 부드럽고 이슬 머금은 아득한 꿈결 같은 느낌으로 가득하다. 아니면 어째서 모든 위도와 경도와 상관없이 백해라는 이름은 상상에 그토록 유령 같은 기운을 끼치는데, 황해라는 이름은 물결 위의 길고 옻칠한 듯한 온화한 오후와 그 뒤를 잇는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졸음 겨운 해넘이라는 이승의 생각으로 우리를 달래 주는가? 아니면 순전히 상상에만 호소하는 전혀 실체 없는 예를 고르자면, 중부 유럽의 옛 동화를 읽을 때 하르츠 숲의 「키 크고 창백한 사람」, 변함없는 창백함으로 숲의 초록 사이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다니는 그 사람이, 어째서 이 유령이 블록스베르크의 고함치는 꼬마 도깨비들보다 더 무서운가?

대성당을 무너뜨린 지진의 기억만도 아니고, 미쳐 날뛰는 바다의 폭주만도 아니고, 결코 비를 내리지 않는 메마른 하늘의 눈물 없음만도 아니고, (닻을 내린 함대의 기울어진 활대처럼) 기울어진 첨탑과 비틀려 떨어져 나간 갓돌과 온통 축 늘어진 십자가로 이루어진 넓은 들판의 광경만도 아니며, 던져 흩어진 카드 한 벌처럼 집 벽들이 서로 포개어 쓰러진 교외의 거리만도 아니다. 눈물 없는 리마를 그대가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하고 가장 슬픈 도시로 만드는 것은 이런 것들만이 아니다. 리마는 흰 너울을 쓰고 수녀가 되었고, 그 비애의 이 흰빛에는 더 높은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피사로만큼 오래된 이 흰빛은 그 폐허를 영원히 새것으로 지킨다. 완전히 썩어 버린 데서 나는 명랑한 초록빛을

허락하지 않는다. 무너진 성벽 위에 제 일그러진 모습을 그대로 굳혀 버리는 졸중의 뻣뻣한 창백함을 펼쳐 놓는다.

흔히 이해하기로는, 이 흰빛이라는 현상이 다른 면에서 무서운 대상의 공포를 부풀리는 으뜸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또 상상력 없는 마음에는, 다른 마음에게는 그 두려움이 거의 오로지 이 하나의 현상에 있는 그런 모습들, 특히 말 없음이나 보편성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꼴로 드러나는 모습들에 아무 공포도 없다는 것도 안다. 이 두 진술로 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마 다음의 예들이 하나씩 밝혀 줄 것이다.

첫째. 뱃사람은 낯선 나라의 해안에 다가갈 때 밤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 퍼뜩 경계하고,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벼릴 만큼만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꼭 같은 상황에서 그를 해먹에서 불러내 그의 배가 한밤에 우윳빛 흰 바다를 헤쳐 가는 광경을 보게 해 보라. 마치 둘러싼 곶들에서 빗질한 흰곰 떼가 그의 둘레를 헤엄치고 있는 듯한 광경을. 그러면 그는 말 없는 미신의 두려움을 느낀다. 흰빛으로 변한 물이라는 수의를 두른 유령이 그에게는 진짜 유령처럼 끔찍하다. 측연이 아직 바닥이 닿지 않는 깊은 물이라고 아무리 장담해도 소용없다. 심장도 키도 둘 다 가라앉는다. 그는 다시 푸른 물이 제 밑에 올 때까지 결코 쉬지 못한다. 그러나 「나리, 저를 그토록 뒤흔든 것은 숨은 암초에 부딪힐까 하는 두려움이라기보다 그 흉측한 흰빛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고 그대에게 말할 뱃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둘째. 페루의 토박이 인디언에게는 눈으로 가마를 얹은 안데스산맥을 늘 바라보아도 아무 두려움이 일지 않는다. 다만 그토록 엄청난 높이에서 다스리는 영원한 서리의 황량함을 그저 떠올려 보거나, 그런 비인간적인 고독 속에서 길을 잃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고 자연스레 상상할 때라면 모를까. 서부의 개척민도 거의 마찬가지여서, 그는

바람에 날린 눈으로 덮여 나무나 잔가지의 그림자 하나 흰빛의 굳은 무아지경을 깨뜨리지 않는 끝없는 대초원을 비교적 무덤덤하게 바라본다. 남극 바다의 풍경을 바라보는 뱃사람은 그렇지 않다. 거기서는 때때로 서리와 대기의 힘이 부리는 어떤 지옥의 요술로, 떨면서 반쯤 난파한 그는 제 비참함에 희망과 위안을 말해 주는 무지개 대신, 앙상한 얼음 비석과 쪼개진 십자가들로 그를 보고 히죽거리는 끝없는 교회 묘지 같은 것을 본다.

그러나 그대는 말한다. 흰빛에 관한 그 연백(鉛白) 칠한 장은 겁쟁이 영혼이 내건 백기일 뿐인 것 같다고. 이슈메일, 너는 우울증에 항복하는구나, 하고.

말해 보라. 온갖 맹수에게서 멀리 떨어진 버몬트의 어느 평화로운 골짜기에서 태어난 이 튼튼한 어린 수망아지가, 어째서, 가장 화창한 날에 그 뒤에서 갓 벗긴 들소 가죽 깔개를 흔들기만 해도, 그래서 망아지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 야생 짐승의 사향내를 맡기만 해도, 어째서 그 망아지는 흠칫 놀라 콧김을 내뿜고, 터질 듯한 눈으로 미친 듯이 겁에 질려 땅을 긁는가? 녹음 짙은 북쪽 고향에서 사나운 짐승에게 받힌 기억이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니, 그가 맡는 그 이상한 사향내가 지난날의 위험을 겪은 일과 이어진 무엇을 떠올리게 할 리도 없다. 이 뉴잉글랜드 망아지가 먼 오리건의 검은 들소에 관해 무엇을 알겠는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대는 말 못 하는 짐승에게서조차 세상의 악마성을 아는 본능을 본다. 오리건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어도, 그 사나운 사향내를 맡으면 찢고 들이받는 들소 떼가, 바로 이 순간 그 들소 떼가 짓밟아 먼지로 만들고 있을지 모를 대초원의 버려진 야생 망아지에게 그렇듯 그에게도 눈앞에 있다.

그러니 이렇게, 우윳빛 바다의 먹먹한 굽이침, 꽃줄처럼 늘어진 산의 서리가 내는 황량한 바스락거림, 대초원에 바람에 밀려 줄지어 쌓인 눈의 쓸쓸한 움직임, 이 모든 것이 이슈메일에게는 겁먹은 망아지에게 들소 가죽 깔개를 흔드는 것과 같다!

신비로운 표지가 그런 암시를 내보이는 그 이름 없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둘 다 모르지만, 망아지에게처럼 나에게도 그것들은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여러 모습에서 사랑으로 빚어진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구체들은 두려움으로 빚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흰빛의 주문을 풀지 못했고, 그것이 어째서 그토록 큰 힘으로 영혼에 호소하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더 이상하고 훨씬 더 불길한 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흰빛은 영적인 것들의 가장 뜻 깊은 상징이요, 아니, 기독교인의 신을 가리는 바로 그 너울인데도, 어째서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인류에게 가장 소름 끼치는 것들의 공포를 강하게 만드는 작용자여야 하느냐는 것이다.

흰빛이 그 막연함으로 우주의 무정한 허공과 광막함을 그림자처럼 비추어, 은하수의 흰 깊이를 바라볼 때 소멸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등뒤를 찌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흰빛은 본질에서 빛깔이라기보다 빛깔이 눈에 보이게 없는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빛깔이 엉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드넓은 눈 풍경에 그토록 말 없는, 뜻으로 가득한 텅 빔, 우리가 움츠러드는 무신론의 빛깔 없는 모든 빛깔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자연철학자들의 그 다른 이론, 곧 이 땅의 다른 모든 빛깔, 모든 당당하거나 사랑스러운 문장 장식, 해 질 녘 하늘과 숲의 달콤한 물듦, 그렇다, 나비의 금빛 벨벳과 젊은 아가씨들의 나비 같은 뺨,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물질에 깃든 것이 아니라 그저 밖에서 덧칠한 교묘한 속임수일 뿐이라는 이론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신으로 떠받들리는 자연 전체가 속에 납골당밖에 감추지 않은 매춘부처럼 영락없이 화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의 모든 빛깔을 하나하나 만들어 내는 그 신비로운 화장품, 빛이라는 위대한 원리는 그 자체로는 영원히 희거나 빛깔이 없는 채로 남아 있고, 매개 없이 물질에 작용한다면 모든 대상을, 튤립과 장미까지도 제 텅 빈 빛깔로 물들이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을 곰곰이 따져 보면, 마비된 우주는 문둥병자가 되어 우리 앞에 누워 있다. 그리고 라플란드에서 빛깔 든, 빛깔을 입히는 안경을 눈에 쓰기를 거부하는 고집 센 여행자들처럼, 가엾은 불신자는 제 둘레의 온 경치를 감싼 기념비 같은 흰 수의를 바라보다가 눈이 멀어 버린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상징이 그 알비노 고래였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 불같은 사냥이 놀라운가?

---

1. 북극곰과 관련해, 이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려는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 짐승의 견딜 수 없는 흉측함을 높이는 것은 따로 떼어 본 흰빛이 아니라고. 분석해 보면 그 높아진 흉측함은, 그 짐승의 책임질 줄 모르는 사나움이 천상의 순결과 사랑의 털옷을 입고 있다는 사정에서 생길 뿐이라고 할 수도 있으리라. 그래서 그토록 정반대인 두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한데 불러 모음으로써 북극곰은 그토록 부자연스러운 대조로 우리를 겁먹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참이라고 쳐도, 흰빛이 아니라면 그대는 그 강해진 공포를 느끼지 않으리라.

2. 나는 내가 처음으로 본 앨버트로스를 기억한다. 남극 바다에 바싹 붙은 물에서 오래 이어진 강풍이 불던 때였다. 오전 비번 당직을 마치고 아래에서 구름 낀 갑판으로 올라갔더니, 거기 큰 승강구 뚜껑 위에 내동댕이쳐진 채, 티 하나 없이 흰, 갈고리처럼 굽은 숭고한 로마 사람의 부리를 가진 깃털 달린 제왕다운 것이 보였다. 그것은 이따금 대천사 같은 거대한 날개를 둥글게 펼쳤다. 무언가 거룩한 궤를 끌어안으려는 듯이. 놀라운 퍼덕임과 고동이 그것을 뒤흔들었다. 몸은 다치지 않았는데도 그것은 초자연적인 괴로움에 빠진 어느 왕의 유령처럼 울음을 토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이상한 눈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사로잡은 비밀들을 엿본 것 같았다. 천사들 앞의 아브라함처럼 나는 몸을 굽혔다. 그 흰 것은 그토록 희고, 그 날개는 그토록 넓었으며, 영원히 쫓겨난 그 물에서 나는 전통과 도시들의 비참하게 뒤틀린 기억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그 깃털의 경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나를 꿰뚫고 지나간 것들을 나는 말할 수 없고, 넌지시 비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정신을 차렸고,

몸을 돌려 어느 선원에게 이게 무슨 새냐고 물었다. 구니야, 하고 그는 대답했다. 구니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이 영광스러운 것이 뭍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결코! 그러나 얼마 뒤에 나는 구니가 앨버트로스를 이르는 어떤 뱃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내가 우리 갑판에서 그 새를 보았을 때 내 것이던 그 신비로운 인상에 콜리지의 거친 「노수부의 노래」가 무슨 관계가 있었을 리는 결코 없다. 그때 나는 그 「노래」를 읽지도 않았고, 그 새가 앨버트로스라는 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는 다만 간접으로 그 시와 시인의 고귀한 공적을 조금 더 빛나게 닦을 뿐이다.

제43장 쉿!

"쉿! 저 소리 들었어, 카바코?"

한밤중 당직 때였다. 달빛이 고왔다. 선원들은 배 허리의 민물 통 하나에서 고물 난간 가까이 있는 식수 통까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그렇게 늘어서서 그들은 식수 통을 채우려고 양동이를 넘겨주었다. 대부분 뒷갑판이라는 신성한 구역에 서 있었으므로, 그들은 말을 하거나 발을 버석거리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양동이는 더없이 깊은 침묵 속에서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고, 그 침묵을 깨는 것은 이따금 돛이 퍼덕이는 소리와 쉼 없이 나아가는 용골의 한결같은 웅웅거림뿐이었다.

이 고요함 한가운데서, 줄지어 선 사람 가운데 하나로 뒤쪽 승강구 가까이 자리를 잡은 아치가 이웃해 선 출로 사람에게 위의 말을 속삭였다.

"쉿! 저 소리 들었어, 카바코?"

"양동이나 받아, 아치. 무슨 소리 말이야?"

"또 난다. 승강구 밑에서. 안 들려? 기침 소리. 기침 소리 같았어."

"기침은 무슨 놈의 기침! 그 빈 양동이나 넘겨."

"또야. 저기 난다! 이번엔 잠자던 사람 두셋이 뒤척이는 소리 같아!"

"카람바! 그만 좀 해, 친구. 저녁에 먹은 물에 불은 비스킷 세 개가 네 배 속에서 뒤척이는 소리야. 그것뿐이라고. 양동이나 잘 봐!"

"맘대로 말해, 친구. 나는 귀가 밝아."

"그래, 네가 바로 그 녀석이지? 낸터킷에서 50마일 떨어진 바다에서 늙은 퀘이커 아주머니의 뜨개바늘 소리를 들었다는 그 녀석. 네가 바로 그 녀석이야."

"실컷 웃어. 무슨 일이 드러나나 두고 보자고. 잘 들어, 카바코. 뒤쪽 선창 아래에 아직 갑판에서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은 누군가가 있어. 그리고 우리 늙은 무굴 황제도 그 일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어느 아침 당직 때 스터브가 플래스크한테 그런 낌새가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

"칫! 양동이나 받아!"

제44장 해도

에이해브 선장이 선원들과 함께 제 목적을 그토록 사납게 비준한 그날 밤에 이어 돌풍이 몰아친 뒤, 그대가 그를 따라 선장실로 내려갔다면, 그가 고물 가로 들보에 붙은 사물함으로 가서 누르스름하고 구겨진 커다란 해도 두루마리를 꺼내 나사로 고정한 식탁 위에 펼쳐 놓는 것을 보았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앉아 거기 눈에 들어오는 여러 선과 음영을 골똘히 살피고, 느리지만 흔들림 없는 연필로 전에는 비어 있던 자리에 항로를 더 그려 넣는 것을 그대는 보았으리라. 이따금 그는 곁에 쌓인 낡은 항해 일지 더미를 참조했다. 거기에는 여러 배가 지난 여러 항해에서 향유고래를 잡았거나 본 철과 곳이 적혀 있었다.

그가 이렇게 일하는 동안, 그의 머리 위에 사슬로 매달린 묵직한 백랍 등잔은 배의 움직임에 따라 쉬지 않고 흔들리며 그의 주름진 이마 위에 움직이는 빛과 선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던졌다. 그래서 그 자신이 주름진 해도 위에 선과 항로를 그려 넣는 동안, 무언가 보이지 않는 연필도 깊이 금이 간 그의 이마라는 해도 위에 선과 항로를 그려 넣고 있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그러나 에이해브가 선장실의 고독 속에서 이렇게 해도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긴 것은 이날 밤만이 아니었다. 거의 밤마다 해도를 꺼냈고, 거의 밤마다 연필 자국 몇 개를 지우고 다른 자국으로 바꾸었다. 네 대양의 해도를 모두 앞에 두고 에이해브는 제 영혼의 그 편집광 같은

생각을 더 확실하게 이루려고 해류와 소용돌이의 미로를 더듬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리워야단의 습성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행성의 테 두르지 않은 대양에서 외로운 생물 하나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일이 터무니없이 가망 없는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이해브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조수와 해류의 흐름을 알았고, 그것으로 향유고래의 먹이가 어떻게 떠다니는지 셈했으며, 또한 특정한 위도에서 향유고래를 사냥하는 정해지고 확인된 철을 떠올려, 이 어장이나 저 어장에 가서 제 사냥감을 찾기에 가장 알맞은 날에 관해 거의 확실에 가까운 이치에 맞는 짐작에 이를 수 있었다.

향유고래가 정해진 물을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은 실로 너무나 확실해서, 많은 사냥꾼은 온 세상에서 향유고래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다면, 포경 선단 전체의 한 항해 일지를 꼼꼼히 맞추어 볼 수 있다면, 향유고래의 회유가 그 변함없음에서 청어 떼의 회유나 제비의 비행과 맞먹는다는 것이 드러나리라고 믿는다. 이 단서를 따라 향유고래의 정교한 회유 해도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다.[1]

게다가 한 먹이터에서 다른 먹이터로 옮겨 갈 때, 향유고래는 무언가 틀림없는 본능, 아니 차라리 신에게서 받은 은밀한 지혜에 이끌려 대개 이른바 *맥*을 따라 헤엄친다. 정해진 대양의 선을 따라 어찌나 한 치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제 길을 가는지, 어떤 배도 어떤 해도를 따르든 그 놀라운 정밀함의 10분의 1만큼도 제 항로를 지켜 항해한 적이 없다. 이럴 때 고래 한 마리가 잡는 방향은 측량사의 평행선처럼 곧고, 나아가는 선은 저만의 피할 수 없는 곧은 물길에 엄격히 한정되지만, 이럴 때 고래가 헤엄친다고들 하는 그 제멋대로의 *맥*은 대체로 너비가 몇 마일쯤 된다(맥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고 짐작되는 데 따라 더하거나 덜하다). 그러나 포경선이 이 마법의 띠를 따라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갈 때 돛대

꼭대기에서 눈이 닿는 범위를 결코 넘지 않는다. 요컨대 특정한 철에 그 너비 안에서, 그 길을 따라, 회유하는 고래를 아주 큰 확신을 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에이해브는 확인된 때에 잘 알려진 따로 떨어진 먹이터에서만 사냥감을 만나기를 바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먹이터들 사이의 가장 넓은 물을 건널 때에도 제 기술로 가는 길에 제 위치와 때를 잘 맞추어, 그때에도 만날 가망이 전혀 없지는 않게 할 수 있었다.

처음 보기에는 그의 헛소리 같지만 그래도 질서 정연한 계획을 얽히게 할 것 같은 사정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마 그렇지 않았다. 무리 짓는 향유고래들에게는 특정한 어장에 머무는 정해진 철이 있지만, 대체로 이를테면 올해 이러저러한 위도나 경도에 출몰한 떼가 지난철에 거기서 발견된 떼와 똑같은 떼로 드러나리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일이 참으로 드러난 독특하고 의심할 수 없는 예도 있다. 대체로 같은 말이, 다만 덜 넓은 범위 안에서, 다 자란 늙은 향유고래 가운데 홀로 다니는 놈들과 은둔자들에게도 들어맞는다. 그래서 모비 딕이 지난 어느 해에 이를테면 인도양의 이른바 세이셸 어장이나 일본 해안의 볼케이노만에서 목격되었다 해도, 피쿼드호가 그 뒤 같은 철에 그 두 곳 가운데 어느 곳을 찾아간다고 해서 틀림없이 거기서 그놈을 만나리라는 법은 없었다. 그놈이 이따금 모습을 드러낸 다른 몇몇 먹이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곳들은 모두 말하자면 그놈이 어쩌다 들르는 곳, 대양의 여인숙일 뿐, 오래 머무는 거처는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에이해브가 제 목적을 이룰 가망을 이야기한 대목에서는, 특정한 정해진 때와 곳에 이르기 전에 그에게 있던 길가의, 앞선, 덤으로 주어진 가망만을 넌지시 가리켰을 뿐이다. 그때와 곳에 이르면 모든 가능성은 개연성이 되고, 에이해브가 흐뭇하게 생각하기로는 모든 가능성이 확실성 바로 다음가는 것이 되리라. 그

특정한 정해진 때와 곳은 하나의 전문 용어로 묶여 있었다. 「적도 철」이 그것이다. 그때 그곳에서는 여러 해 잇따라 모비 딕이 주기적으로 목격되었다. 해가 해마다 한 바퀴 도는 동안 황도 십이궁 가운데 어느 한 궁에 예언된 기간만큼 머물듯이, 그놈은 그 물에 한동안 머물렀다. 흰 고래와의 치명적인 대결이 대부분 일어난 곳도 거기였다. 거기서는 물결마다 그놈의 행적이 이야기로 아로새겨져 있었다. 그 편집광 노인이 제 복수의 무시무시한 동기를 얻은 그 비극의 장소도 거기 있었다. 그러나 에이해브는 흔들림 없는 이 사냥에 골똘한 제 영혼을 던져 넣으며 신중하게 빈틈없이 두루 살피고 쉼 없이 경계했으므로, 위에서 말한 그 으뜸가는 하나의 사실이 제 희망에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거기에 희망을 모두 걸지 않으려 했다. 또 잠들지 않는 제 맹세 때문에 그는 그사이의 모든 추적을 미룰 만큼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없었다.

그런데 피쿼드호는 적도 철이 막 시작될 무렵에 낸터킷을 떠났다. 그러니 어떻게 애를 써도 그 선장은 남쪽으로 긴 바닷길을 가서 혼곶을 돌아, 다시 위도 60도를 내리 달려 적도 태평양에 때맞추어 이르러 거기서 사냥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다음에 오는 철을 기다려야 했다. 그렇지만 피쿼드호가 이렇게 이른 때에 떠난 것은 어쩌면 에이해브가 바로 이런 형편을 내다보고 올바르게 고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앞에는 삼백예순닷새 낮과 밤의 기간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뭍에서 초조하게 견디는 대신 그는 그 기간을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사냥으로 보낼 생각이었다. 혹시라도 흰 고래가 주기적으로 찾는 먹이터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페르시아만 앞바다나 벵골만이나 중국해나 그 족속이 출몰하는 다른 어느 물에서 주름진 이마를 쳐들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계절풍이든, 팜파스 바람이든, 북서풍이든, 하르마탄이든, 무역풍이든,

레반터와 시뭄 말고는 어떤 바람이든 모비 딕을 피쿼드호가 세계를 일주하며 남기는 꾸불꾸불하고 지그재그인 세계 일주 물길 속으로 불어 보낼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해도, 신중하고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미친 생각일 뿐이지 않은가? 넓고 끝없는 대양에서, 설령 만난다 해도, 외로운 고래 한 마리를 그 사냥꾼이 콘스탄티노플의 붐비는 큰길에서 흰 수염의 무프티를 알아보듯 따로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다니. 그렇다, 알아볼 수 있다. 모비 딕의 독특한 눈처럼 흰 이마와 눈처럼 흰 혹은 틀림없이 몰라볼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고래에게 표를 새기지 않았던가, 하고 에이해브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한밤중을 한참 넘기도록 해도를 들여다본 뒤 몽상에 잠겨 등을 뒤로 젖힐 때면. 놈에게 표를 새겼는데, 놈이 달아난단 말이냐? 놈의 넓은 지느러미는 구멍이 뚫리고, 길 잃은 양의 귀처럼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으로 뜯겨 나갔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미친 마음은 숨 가쁜 경주를 이어 가곤 했다. 마침내 생각에 지치고 기진해지면 그는 갑판의 바깥 공기 속에서 기운을 되찾으려 했다. 아, 하나님! 이루지 못한 복수의 욕망 하나에 다 타 버리는 사람은 얼마나 넋 나간 고통을 견디는가.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잠들고, 제 손바닥에 박힌 피 묻은 손톱과 함께 깨어난다.

그는 기진하게 하는, 견딜 수 없이 생생한 밤의 꿈에 쫓겨 해먹에서 밀려 나올 때가 많았다. 그 꿈은 낮 동안 이어지던 그의 지독한 생각을 다시 이어받아 광란이 맞부딪치는 가운데 그것을 이어 가고, 불타는 그의 골 속에서 그것을 빙빙 돌리고 또 돌려, 마침내 그의 생명의 한 점이 고동치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다. 그리고 이따금 그랬듯이 그의 안에서 이 영혼의 진통이 그의 존재를 밑바닥부터 뒤흔들어 올리고, 그의 안에서 깊은 틈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 틈에서 갈라진 불꽃과 번개가 치솟고, 저주받은 악마들이 저희 사이로

뛰어내리라고 그에게 손짓할 때, 제 안의 이 지옥이 그의 발밑에서 아가리를 벌릴 때, 사나운 외침이 배 안에 울려 퍼지곤 했다. 그리고 에이해브는 불붙은 침대에서 달아나듯 번득이는 눈으로 제 선실에서 뛰쳐나오곤 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무언가 숨은 약함의 억누를 수 없는 징후나 제 결심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그 결심이 얼마나 강렬한지 보여 주는 가장 뚜렷한 표시였는지도 모른다. 그럴 때 미친 에이해브, 꾀를 짜내며 달래지지 않는 끈기로 흰 고래를 쫓는 사냥꾼, 해먹에 들었던 이 에이해브는 그를 다시 공포에 질려 거기서 뛰쳐나오게 만든 그 행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행위자는 그의 안에 있는 영원하고 살아 있는 원리, 곧 영혼이었다. 잠 속에서 영혼은, 다른 때에는 그것을 바깥 수레나 대리인으로 부리던, 그의 성격을 이루는 정신에서 한동안 떨어져 나와, 한동안 이제는 그것의 한 부분이 아니게 된 그 미쳐 날뛰는 것과 맞닿아 그을리는 것에서 저절로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정신은 영혼과 맺어지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에이해브의 경우 그가 제 모든 생각과 공상을 단 하나의 최고 목적에 내맡기자, 그 목적은 순전히 제 의지의 끈질김으로 신들과 악마들에 맞서 스스로 떠맡은 일종의 독립된 제 존재로 자신을 밀어붙였음이 틀림없다. 아니, 그것과 맺어져 있던 공통의 생명력이 청하지도 않았고 아비도 없는 그 탄생에서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동안에도, 그것은 험상궂게 살아서 타오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에이해브처럼 보이는 것이 제 방에서 뛰쳐나올 때 육체의 눈에서 번득이며 내다보던 괴로운 영은 그동안 비어 버린 것, 꼴 없는 몽유병자 같은 존재, 물론 살아 있는 빛줄기이기는 하지만 물들일 대상이 없어서 그 자체로는 텅 빈 것일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우시기를, 노인이여. 그대의 생각이 그대 안에 한 생물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독히 생각하다가

프로메테우스가 되어 버린 사람,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심장을 영원히 쪼아 먹는다. 그 독수리는 바로 그가 만들어 낸 그 생물이다.

---

1. 위의 글을 쓴 뒤로, 1851년 4월 16일 워싱턴 국립 천문대의 모리 대위가 낸 공식 회보가 다행히도 이 진술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 회보에 따르면 바로 그런 해도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그 일부가 회보에 실려 있다. 「이 해도는 대양을 위도 5도, 경도 5도씩의 구역으로 나눈다. 각 구역을 세로로 가로질러 열두 달을 위한 열두 칸이 있고, 가로로 가로질러 세 줄이 있다. 한 줄은 각 구역에서 달마다 보낸 날수를 보여 주고, 다른 두 줄은 고래, 곧 향유고래나 참고래를 본 날수를 보여 준다.」

제45장 진술서

이 책에 이야기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한, 그리고 향유고래의 습성 가운데 아주 흥미롭고 신기한 점 한두 가지를 간접으로나마 건드린다는 점에서도, 앞 장의 앞부분은 이 책을 통틀어 손꼽힐 만큼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그 요지는 제대로 이해되려면 더 넓고 더 친숙하게 풀어 놓아야 한다. 게다가 이 일 전체를 깊이 모르는 탓에 이 사건의 요점이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그 의심도 걷어 내야 한다.

내 일 가운데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낼 마음은 없고, 포경선원으로서 몸소 겪어 알거나 믿을 만하게 아는 항목들을 하나씩 따로 들어 바라는 인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 놓으면, 내 생각에, 노리는 결론은 저절로 따라 나올 것이다.

첫째, 나는 작살을 맞은 고래가 완전히 달아났다가 얼마 뒤(한 번은 삼 년 뒤) 같은 사람의 손에 다시 맞아 죽고, 그 몸에서 같은 사사로운 표시가 새겨진 작살 두 자루가 나온 경우를 몸소 세 번 알고 있다. 두 작살을 던진 사이에 삼 년이 흐른 경우에는(내 생각에는 그보다 좀 더 되었을지도 모른다), 작살을 던진 사람이 그사이에 마침 무역선을 타고 아프리카로 항해를 떠났다가 거기서 뭍에 올라 탐험대에 끼어 내륙 깊숙이 들어갔고, 거의 두 해 동안 그곳을 여행하며 뱀과 야만인과 호랑이와 독을 품은 습한 기운, 그 밖에 미지의 땅 한복판을 떠돌 때

따르기 마련인 온갖 흔한 위험에 자주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동안 그가 맞힌 고래도 제 나름의 여행길에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지구를 세 바퀴나 돌며 옆구리로 아프리카의 온 해안을 스치고 지나갔으리라. 그러나 소용없었다. 이 사람과 이 고래는 다시 만났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쓰러뜨렸다. 거듭 말하지만 나 자신이 이와 비슷한 경우를 세 번 알고 있다. 곧 그 가운데 두 번은 고래가 작살을 맞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두 번째 공격 뒤에 저마다 표시가 새겨진 작살 두 자루가 나중에 죽은 고래에게서 뽑혀 나오는 것을 보았다. 삼 년 만의 경우에는 마침 처음과 마지막 두 번 다 내가 그 보트에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 고래의 눈 밑에 있는 기묘하게 커다란 점을 똑똑히 알아보았다. 삼 년 전에 거기서 본 점이었다. 삼 년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되었다고 거의 확신한다. 그러니 내가 몸소 진실을 아는 경우가 여기 세 가지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이 일에 관해 말의 참됨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서 다른 경우를 많이 들었다.

둘째, 뭍의 세상은 아무리 모른다 해도 향유고래 포경업에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대양의 어느 한 고래가 멀리 떨어진 때와 곳에서 널리 알아보이던, 기억할 만한 역사상의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 고래가 그렇게 이름이 난 까닭은 처음부터 오로지 다른 고래와 구별되는 몸의 특이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떤 고래가 그 점에서 아무리 특이하다 해도, 사람들은 곧 그놈을 죽여 특이하게 값진 기름으로 졸여 버림으로써 그 특이함에 끝장을 내 버리기 때문이다. 아니다. 까닭은 이것이었다. 포경업의 치명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 고래에게는, 리날도 리날디니에게 그랬듯이, 위험하다는 무시무시한 명성이 따라다녀서,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놈이 바다에서 제 곁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발견하면 더 가까이 사귀려 들지 않고 그저 방수모에 손을 대어 아는 체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뭍에서 성미 고약한 대인물을 어쩌다 알게 된

가련한 녀석들처럼, 그들은 길에서 그에게 멀찍이서 눈에 띄지 않게 인사한다. 더 가까이 사귀려 들었다가는 건방지다고 대뜸 한 대 얻어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 이름난 고래들은 저마다 대단한 개인적 명성, 아니, 대양을 덮는 명성이라 불러도 좋을 그것을 누렸을 뿐 아니라, 살아서 이름을 떨치고 죽은 지금은 앞갑판 선원실의 이야기 속에서 불멸할 뿐 아니라, 이름이 지닌 모든 권리와 특권과 영예까지 인정받았다. 실로 캄비세스나 카이사르만큼이나 버젓한 이름을 가졌다. 그렇지 않았느냐, 오 티모르 톰이여! 빙산처럼 상처투성이인 이름 높은 리워야단, 그 이름을 딴 동양의 해협에 그토록 오래 숨어 있었고, 옴바이의 야자수 늘어선 해변에서 그 물줄기가 자주 보였던 너여. 그렇지 않았느냐, 오 뉴질랜드 잭이여! 문신의 땅 근처에서 네 항적을 가로지른 모든 순항선의 공포여. 그렇지 않았느냐, 오 모르콴이여! 일본의 왕, 그 높은 물기둥이 때로 하늘을 배경으로 눈처럼 흰 십자가 모양을 띠었다고들 하는 너여. 그렇지 않았느냐, 오 돈 미겔이여! 늙은 거북처럼 등에 신비로운 상형문자가 새겨진 칠레의 고래여! 쉬운 산문으로 말하면, 고전학자에게 마리우스나 술라가 그렇듯 고래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잘 알려진 고래 네 마리가 여기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뉴질랜드 톰과 돈 미겔은 여러 때에 여러 배의 보트들 사이에서 큰 난리를 일으킨 끝에 마침내 용감한 포경선 선장들에게 쫓기고 차근차근 추적당하고 사냥당해 죽었는데, 그 선장들이 바로 그 목적을 똑똑히 눈앞에 두고 닻을 올린 것은, 옛날 버틀러 대위가 내러갠싯 숲을 지나 길을 나설 때 인디언 필립 왕의 으뜸 전사인 악명 높은 살인자 야만인 애너원을 사로잡겠다는 뜻을 품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흰 고래 이야기 전체, 특히 그 파국이 모든 점에서 사리에 맞음을 인쇄된 글로 입증해 준다는 점에서 내게 중요해 보이는 한두 가지 다른 일을 이야기하기에, 바로 여기보다 나은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은 진실이 오류만큼이나 떠받쳐 줄 것을 필요로 하는, 맥빠지는 경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뭍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뚜렷하고 손에 잡힐 듯한 경이 가운데 몇 가지를 너무도 모르므로, 포경업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과 그 밖의 뻔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귀띔해 주지 않으면 모비 딕을 괴물 같은 꾸며 낸 이야기로, 아니 더 나쁘고 더 가증스럽게는 흉측하고 견딜 수 없는 알레고리로 비웃을지도 모른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대한 포경업의 일반적인 위험에 관해 막연하고 스쳐 가는 생각을 얼마쯤 품고 있지만, 그 위험과 그 위험이 얼마나 자주 되풀이되는지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생생한 관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한 가지 까닭은 아마, 포경업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사가 쉰에 하나도 고향에서 공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 기록이 아무리 덧없고 곧바로 잊힌다 해도 말이다. 저기 저 가련한 녀석, 어쩌면 바로 이 순간 뉴기니 앞바다에서 작살줄에 걸려 잠수하는 리워야단에게 바다 밑바닥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을 그 녀석 말이다. 그 가련한 녀석의 이름이 내일 아침 식사 때 그대가 읽을 신문 부고란에 실리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여기와 뉴기니 사이에는 우편이 아주 불규칙하기 때문이다. 사실, 뉴기니에서 곧바로든 돌아서든 정기 소식이라 할 만한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나 말해 두지만, 내가 태평양으로 나간 어느 항해에서 우리는 다른 많은 배들 가운데 서른 척과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배들은 하나같이 고래 때문에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몇 척은 한 사람 넘게 죽었으며, 세 척은 저마다 보트 한 척의 선원을 통째로 잃었다. 제발, 등잔과 초를 아껴

써라! 그대가 태우는 기름은 한 갤런도 빠짐없이 적어도 사람 피 한 방울을 흘려 얻은 것이다.

둘째, 뭍사람들도 고래가 엄청난 힘을 지닌 엄청난 생물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실로 품고 있다. 그러나 이 이중의 엄청남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예를 들려줄 때면 그들은 늘 의미심장하게 내 익살을 추어올렸다. 맹세코 말하건대, 그때 나는 이집트에 내린 재앙의 역사를 쓰던 모세만큼도 익살을 부릴 생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내가 여기서 세우려는 특별한 요점은 나 자신의 증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증언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 요점은 이렇다. 향유고래는 경우에 따라, 미리 꾀하고 곧바로 덤벼 큰 배를 들이받아 박살 내고 송두리째 부수어 가라앉힐 만큼 힘세고 영리하며 분별 있게 악의적이다. 게다가 향유고래는 실제로 그렇게 *해냈다*.

첫째, 1820년 낸터킷의 폴러드 선장이 이끄는 에식스호가 태평양을 돌고 있었다. 어느 날 배는 물줄기를 보고 보트를 내려 향유고래 떼를 쫓았다. 머지않아 고래 몇 마리가 상처를 입었다. 그때 갑자기 아주 큰 고래 한 마리가 보트들을 벗어나 떼에서 나오더니 곧장 배를 향해 내리덮쳤다. 놈은 이마로 선체를 들이받아 배를 어찌나 박살 냈던지 "10분"도 안 되어 배는 가라앉으며 쓰러졌다. 그 뒤로 살아남은 판자 한 쪽 보이지 않았다. 혹독한 고난을 겪은 끝에 선원 일부가 보트를 타고 뭍에 이르렀다.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폴러드 선장은 다시 한 번 다른 배를 이끌고 태평양으로 떠났지만, 신들은 미지의 암초와 부서지는 파도 위에 그를 또다시 난파시켰다. 두 번째로 그의 배는 송두리째 사라졌고, 그는 곧장 바다를 버리겠다고 맹세하고는 그 뒤로 다시는 바다를 넘보지 않았다. 오늘날 폴러드 선장은 낸터킷에 산다. 나는 그 비극이 일어날 때 에식스호의 일등 항해사였던 오언 체이스를 만나 보았고, 그가 쓴

소박하고 충실한 수기를 읽었으며, 그의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모든 일은 그 참사가 벌어진 곳에서 몇 마일 안 되는 곳에서였다.[1]

여기 그가 배를 떠나고 얼마 뒤, 어느 캄캄한 밤 지붕 없는 보트 위에서 사람을 맞아 줄 해안에 닿으리라는 희망을 거의 잃었을 때 품은 생각이 있다. "어두운 대양과 부풀어 오르는 물결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떤 무서운 폭풍에 삼켜지거나 숨은 바위에 부딪혀 박살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그 밖에 두려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온갖 흔한 것들도 잠시 생각할 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음산한 모습의 난파선과 *그 고래의 무시무시한 모습과 복수*가 다시 날이 밝을 때까지 내 생각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다."

다른 곳(45쪽)에서 그는 "*그 짐승의 수수께끼 같은, 치명적인 공격*"을 말한다.

둘째, 역시 낸터킷의 배인 유니언호가 1807년 아조레스 제도 앞바다에서 비슷한 공격을 받아 송두리째 사라졌다. 그러나 이 참사에 관해 믿을 만한 자세한 사정은 우연히라도 만나 본 적이 없다. 다만 고래 사냥꾼들에게서 이따금 지나가는 말로 그 일을 넌지시 들었을 뿐이다.

셋째, 열여덟 해인가 스무 해 전, 당시 미국 일급 슬루프형 군함을 지휘하던 J 아무개 제독이 샌드위치 제도 오아후의 항구에 정박한 낸터킷 배 위에서 포경선 선장 여럿과 저녁을 먹게 되었다. 이야기가 고래로 흘러가자, 제독은 그 자리에 있던 전문가 신사들이 고래에게 돌리는 놀라운 힘을 짐짓 의심해 보였다. 이를테면 그는 어떤 고래도 제 튼튼한 슬루프형 군함을 쳐서 골무 하나만큼이라도 물이 새게 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부인했다. 아주 좋다. 그러나 할 이야기가 더 있다. 몇 주 뒤 제독은 이 난공불락의 배를 타고 발파라이소로 떠났다. 그러나 가는 길에 어느 풍채 좋은 향유고래가 그를 멈춰 세우고, 은밀히 볼일이 있으니 잠깐 시간을 내 달라고 청했다. 그 볼일이란 제독의 배에 어찌나

세찬 한 방을 먹이는 것이었던지, 그는 펌프를 모두 돌리면서 배를 기울여 수리하려고 가장 가까운 항구로 곧장 가야 했다. 나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제독과 그 고래의 면담은 하늘의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소 사람 사울도 비슷하게 혼쭐이 나서 불신에서 돌아서지 않았던가? 말해 두지만, 향유고래는 허튼소리를 봐주지 않는다.

이제 랑스도르프의 「항해기」에서 이 점에 꼭 맞는, 이 글을 쓰는 사람에게 특히 흥미로운 작은 사정 하나를 소개하겠다. 그런데 알아두어야 할 것은, 랑스도르프가 이번 세기 초 러시아 제독 크루젠슈테른의 이름난 탐험 원정대에 딸려 있었다는 점이다. 랑스도르프 선장은 그의 열일곱째 장을 이렇게 시작한다.

"5월 13일까지 우리 배는 떠날 채비를 마쳤고, 이튿날 우리는 오호츠크로 가는 길에 너른 바다로 나와 있었다. 날씨는 아주 맑고 좋았지만 견딜 수 없이 추워서 털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했다. 며칠 동안 바람이 거의 없었고, 19일이 되어서야 북서쪽에서 센 바람이 일었다. 몸뚱이가 배 자체보다 더 큰, 보기 드물게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수면에 거의 닿을 듯이 누워 있었는데, 돛을 가득 펴고 달리던 배가 거의 그 위에 올라탈 때까지 배 안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해서, 배가 놈에게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더없이 다급한 위험에 놓였다. 이 거대한 생물이 등을 치켜올려 배를 적어도 3피트나 물 밖으로 들어 올렸기 때문이다. 돛대들이 휘청거리고 돛들이 모조리 떨어져 내렸다. 그사이 아래에 있던 우리는 모두 바위에 부딪혔다고 여기고 곧바로 갑판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런데 바위는커녕 그 괴물이 더없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헤엄쳐 가는 것이 보였다. 드울프 선장은 배가 그 충격으로 무슨 손상을 입었는지 알아보려고 곧바로 펌프를 살폈지만, 아주 다행히도 배는 전혀 다친 데 없이 무사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배를 지휘했다고 언급된 드울프 선장은 뉴잉글랜드 사람으로, 선장으로서 남다른 모험으로 가득한 긴 생애를 보낸 뒤 지금은 보스턴 근처 도체스터 마을에 산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그의 조카다. 나는 랑스도르프의 이 대목에 관해 특별히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사실이라고 확인해 준다. 그러나 그 배는 결코 큰 배가 아니었다. 시베리아 해안에서 지은 러시아 배로, 삼촌이 고향에서 타고 떠난 배를 팔아 치운 뒤 사들인 것이었다.

고풍스러운 모험을 담은 꾸밈없이 사내다운 책, 게다가 정직한 경이로 가득한 그 책, 곧 옛 댐피어의 오랜 벗 가운데 하나인 라이어널 웨이퍼의 항해기에서, 나는 방금 랑스도르프에게서 인용한 것과 무척 닮은 작은 일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으므로, 확증하는 예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여기 끼워 넣지 않을 수 없다.

라이어널은 아마 "존 퍼디낸도"로 가던 길이었던 것 같다. 그는 오늘날의 후안페르난데스를 그렇게 부른다. "그리로 가는 길에," 하고 그는 말한다. "새벽 네 시쯤, 우리가 아메리카 본토에서 150리그쯤 떨어져 있을 때 우리 배가 무시무시한 충격을 받았다. 그 바람에 우리 사람들은 어찌나 놀랐던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거의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 죽을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로 그 충격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거세었으므로 우리는 배가 바위에 부딪혔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놀람이 조금 가라앉자 측연을 던져 깊이를 재 보았지만 바닥이 닿지 않았다. …… 충격이 갑작스러워서 대포가 포가 위에서 튀어 오르고 선원 몇 명은 해먹에서 흔들려 떨어졌다. 대포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던 데이비스 선장은 선실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라이어널은 이어서 그 충격을 지진 탓으로 돌리고, 대략 그 무렵 큰 지진이 실제로 스페인 땅 연안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적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이른 새벽의 어둠 속에서

그 충격이 결국 보이지 않는 고래가 아래에서 선체를 곧추 들이받아 생긴 것이었다 해도 나는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향유고래가 때때로 보여 주는 큰 힘과 악의에 관해, 이런저런 경로로 내가 아는 예를 몇 가지 더 들 수도 있겠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놈은 공격하는 보트들을 저희 배까지 도로 쫓아 보냈을 뿐 아니라 배 자체를 뒤쫓으며 그 갑판에서 던지는 온갖 창을 오래도록 견뎌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배 퍼지홀호가 그 점에 관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수 있다. 그리고 놈의 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해 두자. 달리는 향유고래에 매인 작살줄을 바람이 잔잔할 때 배로 옮겨 거기 단단히 매어 두었더니, 말이 수레를 끌고 가듯 고래가 그 거대한 선체를 끌고 물을 헤쳐 간 예가 있었다. 또, 향유고래가 일단 작살을 맞은 뒤 다시 기운을 차릴 틈을 얻으면, 그때 놈은 맹목적인 분노로 날뛰기보다 쫓는 자들을 부수려는 고의적이고 계획된 의도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이 아주 자주 관찰된다. 공격을 받으면 놈이 자주 입을 벌리고 그 무시무시하게 벌린 채로 몇 분이고 내리 있는 것도 놈의 성격을 웅변으로 드러내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나는 예를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들고 만족해야 한다. 그것은 놀랍고 더없이 뜻깊은 예이므로, 그대는 이 책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오늘날의 명백한 사실로 뒷받침될 뿐 아니라 이 경이들이 (모든 경이가 그렇듯) 여러 시대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음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백만 번째로 솔로몬과 함께 아멘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해 아래 새것은 없다.

서기 6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기독교도 행정관 프로코피우스가 살았다.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이고 벨리사리우스가 장군이던 시절이다. 많은 사람이 알듯이 그는 자기 시대의 역사를 썼는데, 모든 점에서 보기 드문 가치를 지닌 저작이다. 가장 권위 있는 이들은 그를 늘

더없이 믿을 만하고 과장하지 않는 역사가로 여겨 왔다. 한두 가지 점만은 예외지만, 그것도 곧 말할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역사서에서 프로코피우스는, 자신이 콘스탄티노플의 지사로 있던 동안 이웃한 프로폰티스, 곧 마르마라해에서 커다란 바다 괴물 한 마리가 잡혔다고 적는다. 놈은 쉰 해가 넘는 동안 그 바다에서 이따금 배들을 부숴 온 끝에 잡혔다. 이렇게 착실한 역사에 적힌 사실은 쉽사리 반박할 수 없다. 반박해야 할 까닭도 없다. 이 바다 괴물이 정확히 어떤 종이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놈이 배를 부쉈으니, 또 다른 까닭들로도, 놈은 고래였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나는 향유고래였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강하게 기운다. 그 까닭을 말하겠다. 오랫동안 나는 향유고래가 지중해와 그에 이어진 깊은 바다에는 늘 알려지지 않은 채였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나는 그 바다들이 지금 같은 사물의 질서에서는 놈이 무리 지어 늘 드나드는 곳이 아니며, 어쩌면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최근 더 조사해 보니, 근대에 들어 지중해에 향유고래가 나타난 따로따로의 경우들이 있었음이 증명되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게 들은 바로는, 바르바리 해안에서 영국 해군의 데이비스 제독이라는 사람이 향유고래의 뼈대를 발견했다. 그런데 군함이 다르다넬스 해협을 쉽게 지나가니, 향유고래도 같은 길로 지중해를 빠져나와 프로폰티스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내가 알아낼 수 있는 한, 프로폰티스에는 참고래의 먹이인 *브릿*이라는 그 특이한 물질이 전혀 없다. 그러나 향유고래의 먹이인 오징어, 곧 갑오징어가 그 바다 밑바닥에 숨어 산다고 믿을 만한 까닭은 충분하다. 그 종류 가운데 결코 가장 큰 것은 아니지만 커다란 생물들이 그 바다 수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진술들을 제대로 짜 맞추고 그것을 두고 조금만 따져 보면, 사람의 모든 이치로 보아, 로마 황제의

배들을 반세기 동안 박살 낸 프로코피우스의 바다 괴물은 십중팔구 향유고래였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그대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

1. 체이스의 수기에서 뽑은 대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실로 보아 나는 놈의 행동을 이끈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듯했다. 놈은 짧은 간격을 두고 배를 두 번 따로 공격했는데, 두 번 다 그 방향으로 보아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도록 꾀한 것이었다. 정면으로 덤벼 두 물체의 속력을 합쳐 충격을 키웠으니 말이다. 그렇게 하려면 놈이 한 그 정확한 움직임이 꼭 필요했다. 놈의 모습은 더없이 무시무시했고, 원한과 분노를 드러내는 듯했다. 놈은 우리가 바로 전에 들어갔던 고래 떼, 우리가 놈의 동료 세 마리를 작살로 맞힌 그 떼에서 곧장 나왔다. 마치 동료들이 당한 고통에 복수심으로 불타오른 듯이." 또. "어쨌든, 모든 정황을 한데 모아 보면, 그 모든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났고 그때 내 마음에 고래 쪽의 확고하고 계산된 해코지라는 인상을 남겼으므로(그 인상 가운데 많은 것을 지금은 떠올릴 수 없다),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게 된다."

제46장 짐작

에이해브는 제 목적의 뜨거운 불길에 타들어 가며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언제나 모비 딕을 끝내 잡는 일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 하나의 정열에 덧없는 세상의 이해를 모두 바칠 태세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는 타고난 성품과 오랜 버릇 때문에 불같은 포경선원의 길에 너무 깊이 매여 있어서 항해에 딸린 본디의 일을 아주 내버리지는 못했는지도 모른다. 아니,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 해도, 그를 훨씬 더 크게 움직인 다른 동기가 없지 않았다. 그의 편집광을 감안하더라도, 흰 고래를 향한 그의 복수심이 어쩌면 얼마쯤은 모든 향유고래에게까지 번졌을지 모르며, 그가 괴물을 많이 죽일수록 그만큼 뒤에 만나는 고래 하나하나가 그가 사냥하는 그 증오스러운 놈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늘렸다고 넌지시 말하는 것은 아마 지나치게 따지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를 지배하는 정열의 사나움과 엄밀히 들어맞지는 않지만 결코 그를 움직이지 못할 것도 아닌 또 다른 고려들이 여전히 있었다.

제 목적을 이루려면 에이해브는 도구를 써야 했다. 그리고 달 그림자 아래에서 쓰이는 모든 도구 가운데 사람이 가장 쉽게 고장 난다. 이를테면 그는 스타벅에게 미치는 자신의 지배력이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자석 같다 해도, 단순한 육체의 우월이 지성의 지배를 뜻하지 않듯이 그 지배력이 정신적인 인간 전체를 덮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순전히 정신적인 것에 대해 지성적인 것은 일종의 육체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에이해브가 스타벅의 머리에 자석을 대고 있는 한 스타벅의 몸과 스타벅의 억눌린 의지는 에이해브의 것이었다. 그래도 그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일등 항해사가 영혼 깊이 선장의 추적을 혐오하며,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거기서 제 몸을 떼어 내거나 그것을 좌절시키기까지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흰 고래를 보기까지 긴 시간이 흐를지도 몰랐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평범하고 분별 있고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른 영향을 그에게 미치지 않으면, 스타벅은 선장의 지휘에 맞서 드러내 놓고 반항하는 쪽으로 걸핏하면 되돌아갈 터였다. 그뿐 아니라 모비 딕을 두고 에이해브가 지닌 미묘한 광기는, 당분간은 이 사냥에서 저절로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이하고 상상에서 비롯한 불경함을 어떻게든 벗겨 내야 한다는 것, 항해의 온전한 공포는 흐릿한 배경으로 물려 두어야 한다는 것(행동으로 풀리지 않는 기나긴 생각을 견뎌 낼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그의 항해사들과 선원들이 긴 밤 당직을 설 때 모비 딕보다 더 가까운 생각할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다보는 그의 더없는 분별과 영리함에서만큼 뚜렷이 드러난 데가 없었다. 야만스러운 선원들이 그의 추적을 알리는 말을 아무리 열렬하고 격하게 환호하며 맞았다 해도, 온갖 부류의 선원은 모두 얼마쯤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뀌는 바깥 날씨 속에 살면서 그 변덕을 들이마신다. 그래서 끝내는 아무리 생명과 정열을 약속한다 해도 쫓는 동안에는 멀고 막막한 목표를 위해 그들을 붙들어 둘 때면, 무엇보다도 그때그때의 이익과 일거리가 끼어들어 마지막 돌진까지 그들을 건강하게 매달아 두어야 한다.

에이해브는 또 한 가지도 잊지 않았다. 강한 감정에 휩싸인 때에 인간은 모든 비천한 계산을 경멸한다. 그러나 그런 때는 덧없다. 만들어진 인간의 변치 않는 체질은 비루함이라고 에이해브는 생각했다.

흰 고래가 이 나의 야만스러운 선원들의 마음을 한껏 부추기고, 그들의 야만성을 둘러싸고 놀며 그들 안에 어떤 너그러운 편력 기사 정신까지 낳는다 해도, 그들이 그것을 좋아서 모비 딕을 쫓는 동안에도 더 흔한 날마다의 욕구를 채울 먹이가 있어야 한다. 옛날의 저 고결하고 기사다운 십자군조차 성스러운 무덤을 위해 싸우러 이천 마일의 땅을 건너가면서, 가는 길에 도둑질하고 소매치기하고 그 밖의 경건한 부수입을 챙기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저 하나의 궁극적이고 낭만적인 목표에 엄격히 묶어 두었더라면, 너무 많은 이들이 그 궁극적이고 낭만적인 목표에 넌더리를 내며 등을 돌렸으리라. 나는 이자들에게서 현금에 대한 희망을 모조리 빼앗지는 않으리라, 하고 에이해브는 생각했다. 그래, 현금이다. 그들은 지금은 현금을 비웃을지 모른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현금이 들어올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이 잠잠하던 현금이 한꺼번에 그들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 이 현금이 곧 에이해브를 현직에서 몰아내리라.

에이해브 자신과 더 관련된, 또 하나의 대비하는 동기도 없지 않았다. 아마도 충동적으로, 또 어쩌면 얼마쯤 성급하게 피쿼드호 항해의 으뜸가지만 사사로운 목적을 드러내 버렸으므로, 에이해브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간접으로 찬탈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혐의에 스스로를 내맡겼다는 것을 똑똑히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원들이 그럴 마음이 있고 그럴 힘이 있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 탈 없이 그에게 더 이상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폭력으로 그에게서 지휘권을 빼앗을 수도 있었다. 찬탈이라는 혐의를 겨우 넌지시 비치기만 하는 것으로부터도, 그리고 그런 억눌린 인상이 퍼질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로부터도, 에이해브는 물론 자신을 지키려고 몹시 애태웠을 것이다. 그 방어는 오로지 그 자신의 압도하는 머리와 심장과 손에, 그리고

선원들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분위기의 영향 하나하나에까지 세심하고 빈틈없이 계산하며 기울이는 주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 모든 까닭으로, 그리고 여기서 말로 풀어 놓기에는 아마 너무 분석적인 다른 까닭들로, 에이해브는 피쿼드호 항해의 자연스럽고 명목상의 목적에 여전히 상당히 충실해야 한다는 것, 모든 관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뿐 아니라 제 직업의 일반적인 추적에 대해 잘 알려진 그 열정적인 관심을 억지로라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그 모든 것이야 어떻든, 이제 그가 세 돛대 꼭대기를 소리쳐 부르며 망을 잘 보라고, 돌고래 한 마리라도 빠뜨리지 말고 알리라고 타이르는 목소리가 자주 들렸다. 이 경계는 오래지 않아 보답을 받았다.

제47장 거적 짜는 사람

구름 끼고 무더운 오후였다. 선원들은 갑판 여기저기에 느긋하게 빈둥거리거나, 납빛 바다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퀴퀘그와 나는 우리 보트에 덧댈 묶음 끈으로 쓸, 이른바 칼 거적이라는 것을 한가로이 짜고 있었다. 온 정경이 너무도 고요하고 가라앉아 있으면서도 어딘지 무언가의 전주 같았고, 공기 속에는 몽상의 주문 같은 것이 어려 있어서, 말 없는 선원 하나하나가 저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자아 속으로 녹아든 것 같았다.

거적을 짜는 동안 나는 퀴퀘그의 시중꾼 또는 시동이었다. 나는 내 손을 북 삼아 날실의 긴 실 가닥들 사이로 마린 줄로 된 씨실을 거듭 넣었다 빼었다 했고, 퀴퀘그는 옆으로 서서 이따금 무거운 떡갈나무 칼을 실 사이로 밀어 넣고, 한가로이 바다를 바라보며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실 가닥 하나하나를 단단히 쳐 다졌다. 말하자면, 그때 배 위와 바다 위에는 이따금 둔탁하게 울리는 칼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는 기묘한 꿈결 같은 기운이 퍼져 있어서, 이것이 시간의 베틀이고 나 자신은 운명을 기계적으로 짜고 또 짜 나가는 북인 것 같았다. 거기 날실의 고정된 실들이 놓여 있었다. 오직 하나의, 늘 되돌아오는, 변하지 않는 흔들림만을 따르는 실들이었고, 그 흔들림은 다른 실들이 제 실과 가로로 섞여 들 수 있게 할 만큼일 뿐이었다. 이 날실은 필연 같았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북을 놀려 바꿀 수 없는 이 실들 속으로 내 운명을 짜 넣는다.

그동안 퀴퀘그의 충동적이고 무심한 칼은 경우에 따라 씨실을 비스듬히, 혹은 비뚤게, 혹은 세게, 혹은 약하게 쳤고, 마지막으로 치는 이 차이 때문에 다 짜인 천의 마지막 모습에 그에 걸맞은 차이가 생겼다. 이 야만인의 칼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마침내 날실과 씨실을 모두 빚고 다듬는 이 칼, 이 느긋하고 무심한 칼은 우연임이 틀림없다. 그래, 우연, 자유의지, 그리고 필연, 결코 서로 어긋나지 않는 이것들이 모두 엇갈려 짜이며 함께 일한다. 필연의 곧은 날실은 궁극의 길에서 비껴가지 않는다. 그 번갈아 드는 흔들림 하나하나가 실로 그리로만 향할 뿐이다. 자유의지는 주어진 실들 사이로 여전히 자유롭게 제 북을 놀린다. 그리고 우연은, 그 놀이가 필연의 곧은 줄 안에 갇히고 옆으로 움직일 때는 자유의지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둘 모두에게 규정을 받으면서도, 번갈아 그 둘을 다스리고, 사건들에 마지막으로 모양을 새기는 한 방을 친다.

우리가 이렇게 짜고 또 짜고 있을 때, 너무도 기묘하고 길게 끌리며 음악처럼 거칠고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소리에 나는 소스라쳤고, 자유의지의 실타래가 내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그 목소리가 날개처럼 떨어져 내려온 구름 쪽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다. 높이 돛대 가름대 위에 저 미친 게이헤드 사람, 태시테고가 있었다. 그의 몸은 앞으로 간절히 내밀려 있었고 손은 지팡이처럼 뻗어 있었으며, 그는 짧게 끊었다가 갑자기 다시 외치기를 되풀이했다. 물론 같은 소리가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온 바다에서, 그만큼 높은 공중에 올라앉은 수백 명의 포경선원 망꾼들에게서 들려오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귀에 익은 옛 외침이 인디언 태시테고의 폐에서만큼 놀라운 가락을 얻은 폐는 드물었다.

그가 반쯤 공중에 매달린 채 그대 위에 떠서 그토록 사납고 간절하게 수평선 쪽을 노려보며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대는 그를 운명의

그림자들을 보고 그 사나운 외침으로 그것들이 다가옴을 알리는 어느 예언자나 선견자로 여겼으리라.

"저기 물을 뿜는다! 저기! 저기! 저기! 물을 뿜는다! 물을 뿜는다!"

"어디냐?"

"바람 불어 가는 쪽 정횡, 2마일쯤입니다! 한 떼입니다!"

순식간에 온 배가 들끓었다.

향유고래는 시계가 똑딱거리듯 한결같이 어김없고 믿을 만하게 물을 뿜는다. 포경선원들은 그것으로 이 물고기를 같은 속(屬)의 다른 족속들과 구별한다.

"꼬리지느러미가 넘어갑니다!" 하고 이제 태시테고가 외쳤다. 그리고 고래들은 사라졌다.

"어서, 급사!" 하고 에이해브가 외쳤다. "시각! 시각!"

도우보이가 서둘러 아래로 내려가 시계를 흘끗 보고는 정확한 분을 에이해브에게 알렸다.

이제 배는 바람을 피해 돌려져, 바람을 등지고 부드럽게 흔들리며 나아갔다. 태시테고가 고래들이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수했다고 알렸으므로, 우리는 우리 뱃머리 바로 앞에서 놈들을 다시 보리라고 자신 있게 기대했다. 향유고래가 때로 보여 주는 그 기묘한 꾀, 곧 머리를 한쪽으로 두고 잠수하고서도 물속에 숨은 채 빙 돌아 반대쪽으로 재빨리 헤엄쳐 가 버리는 그 속임수는 지금은 쓰일 리 없었다. 태시테고가 본 고래들이 조금이라도 놀랐다거나, 실로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여길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 지킴이로 뽑힌 사람들, 곧 보트에 배정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때쯤 큰돛대 꼭대기에서 인디언과 교대했다. 앞돛대와 뒷돛대의 선원들은 내려와 있었다. 작살줄 통들은 제자리에 놓였다. 보트를 다는 기중대가 밖으로 내밀어졌다. 큰돛 활대는 뒤로 돌려졌고,

세 척의 보트는 높은 벼랑 위에 매달린 갯나물 바구니 세 개처럼 바다 위로 흔들렸다. 뱃전 바깥에서 몸이 단 보트 선원들은 한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한 발은 기대에 차서 보트 가장자리에 올려 두고 있었다. 적선에 뛰어오르려는 군함 수병들의 긴 줄도 이렇게 보인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들려 모든 눈이 고래에게서 떨어졌다. 모두 소스라치며 어두운 에이해브를 노려보았다. 그는 막 공기로 빚어진 듯한 거무스름한 다섯 유령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제48장 첫 보트 내리기

유령들은, 그때는 정말 그렇게 보였는데, 갑판 반대편에서 소리 없이 재빠르게 오가며 거기 매달린 보트의 도르래 밧줄과 묶음 끈을 풀고 있었다. 이 보트는 우현 고물 쪽에 매달려 있어서 규정상으로는 선장의 보트라 불렸지만 늘 여분의 보트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이제 그 뱃머리 곁에 선 형체는 키가 크고 거무스름했으며, 강철 같은 입술 사이로 흰 이 하나가 사악하게 비어져 나와 있었다. 검은 무명으로 된 구겨진 중국식 웃옷이 장례식처럼 그를 감쌌고, 같은 어두운 천으로 된 통 넓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이 칠흑 같은 차림 위에 기묘하게도 번쩍이는 흰 터번을 땋아 얹고 있었는데, 그것은 살아 있는 머리카락을 땋아 머리 둘레로 빙빙 감아 올린 것이었다. 이 형체의 동료들은 그만큼 거무스름하지는 않았고, 마닐라의 몇몇 토착민 특유의 저 선명한 범처럼 노란 살빛을 띠고 있었다. 일종의 악마 같은 교활함으로 이름난 족속으로, 정직한 백인 뱃사람 몇몇은 그들을 그들의 주인 악마가 바다 위에 둔 돈 받는 첩자이자 은밀한 심복이라고 여긴다. 그 악마의 회계실은 다른 곳에 있다고 그들은 여긴다.

이상히 여기는 선원들이 아직 이 낯선 자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에이해브가 그들의 우두머리인 흰 터번의 노인에게 외쳤다. "거기 준비됐느냐, 페달라?"

"준비됐소." 반쯤 쉿 하는 소리로 대답이 왔다.

"그럼 내려라. 들리느냐?" 갑판 너머로 외치는 소리였다. "거기 내리라니까."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우레 같았던지 선원들은 놀라면서도 난간을 넘어 뛰었다. 도르래 속에서 바퀴들이 빙빙 돌았다. 철썩 뒹굴며 세 보트가 바다로 떨어졌다. 그사이 선원들은 다른 어떤 직업에서도 볼 수 없는 능란하고 아무렇지 않은 대담함으로, 염소처럼, 흔들리는 뱃전을 타고 아래에서 출렁이는 보트들로 뛰어내렸다.

그들이 배의 바람 아래쪽 그늘에서 채 저어 나오기도 전에, 바람 불어오는 쪽에서 온 네 번째 용골이 고물 밑을 돌아 나오며 에이해브를 태우고 젓는 다섯 낯선 자를 드러냈다. 에이해브는 고물에 꼿꼿이 서서 스타벅과 스터브와 플래스크에게, 넓은 바다를 덮도록 멀찍이 흩어지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다른 보트에 탄 이들은 모두 다시 거무스름한 페달라와 그 선원들에게 눈길이 붙들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에이해브 선장님……?" 하고 스타벅이 말했다.

"흩어져라." 에이해브가 외쳤다. "저어라, 네 보트 모두. 너, 플래스크,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더 저어 나가라!"

"예, 알겠습니다." 꼬마 킹포스트가 커다란 키잡이 노를 휘둘러 돌리며 쾌활하게 외쳤다. "힘껏 당겨!" 선원들에게 하는 말이었다. "저기! 저기! 또 저기! 바로 앞에 저기 물을 뿜는다, 얘들아! 힘껏 당겨!"

"저기 저 노란 녀석들은 신경 쓰지 마라, 아치."

"아, 저는 신경 안 씁니다, 항해사님." 아치가 말했다. "전부터 다 알고 있었는걸요. 선창에서 저놈들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카바코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냐, 카바코? 밀항자들입니다, 플래스크 항해사님."

"저어라, 저어, 기운 좋은 내 녀석들아. 저어라, 내 새끼들아. 저어라, 내 꼬맹이들아." 스터브가 선원들에게 느릿느릿 달래듯 한숨처럼 말했다. 선원들 가운데 몇몇은 아직도 불안한 기색이었다. "왜 등뼈가 부러지도록 젓지 않느냐, 얘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냐? 저쪽 보트의 저 녀석들? 쯧! 그냥 우리를 도우러 온 일손이 다섯 더 생긴 것뿐이다. 어디서 왔는지는 신경 쓰지 마라. 많을수록 즐거운 법이지. 그러니 저어라, 제발 저어. 유황 냄새는 신경 쓰지 마. 악마들도 꽤 괜찮은 녀석들이다. 그래, 그래, 이제 됐다. 그게 천 파운드짜리 노질이다. 판돈을 싹 쓸어 갈 노질이다! 향유고래 기름 금배를 위하여 만세다, 내 영웅들아! 만세 삼창이다, 얘들아, 다들 기운 내라! 살살, 살살.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 왜 노가 부러지도록 젓지 않느냐, 이 악당들아? 뭐라도 물어뜯어라, 이 개 같은 놈들아!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살살, 살살! 그거다, 그거야! 길고 세게. 저어라, 저어! 악마나 물어 가라, 이 누더기 건달 놈들아. 다들 자고 있구나. 코 그만 골고 저어라, 이 잠꾸러기들아. 저을 거냐? 못 젓겠냐? 안 저을 거냐? 모래무지와 생강 과자의 이름으로 묻는다, 대체 왜 안 젓느냐? 뭐라도 부서지게 저어라! 눈알이 튀어나오게 저어라! 자!" 그는 허리띠에서 날카로운 칼을 홱 뽑아 들었다. "너희 어미 자식 놈들 하나도 빠짐없이 칼을 뽑아 칼날을 이에 물고 저어라. 그거다, 그거야. 이제야 뭘 좀 하는구나. 그럴듯하다, 내 강철 쪼가리들아. 밀어붙여라, 밀어붙여, 내 은숟가락들아! 밀어붙여라, 마린 송곳들아!"

여기 스터브가 선원들에게 한 서두를 길게 옮긴 것은, 그가 대체로 선원들에게, 특히 노 젓기의 종교를 가르칠 때 좀 독특하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설교의 이 견본을 보고 그가 회중에게 정말로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천만에.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의 가장 큰 특이함이 있었다. 그는 익살과 분노를 기묘하게

버무린 말투로, 그것도 그 분노가 익살에 치는 양념으로만 계산된 것처럼 보이는 말투로 선원들에게 더없이 무시무시한 말을 하곤 해서, 어떤 노잡이도 그런 괴상한 기원을 들으면 죽기 살기로 젓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면서도 그저 장난삼아 젓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줄곧 몹시 느긋하고 게을러 보였고, 키잡이 노를 빈둥거리듯 다루었으며, 때로는 입을 떡 벌리고 하품을 해 대서, 그렇게 하품하는 지휘관의 모습만으로도 순전히 그 대조의 힘으로 선원들에게 마법처럼 작용했다. 그런가 하면 스터브는 저 기묘한 부류의 익살꾼, 그 쾌활함이 때로 너무도 묘하게 애매해서 아랫사람들이 그들의 명령에 따를 때 모두 조심하게 만드는 익살꾼 가운데 하나였다.

에이해브의 신호에 따라 스타벅은 이제 스터브의 뱃머리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젓고 있었다. 1분 남짓 두 보트가 꽤 가까워졌을 때 스터브가 항해사를 불렀다.

"스타벅 씨! 거기 좌현 보트, 어이! 괜찮다면 한마디 합시다!"

"어이!" 하고 스타벅이 대답했다. 말하면서도 몸을 한 치도 돌리지 않았고, 여전히 열렬하게, 그러나 속삭이며 선원들을 다그쳤다. 그의 얼굴은 스터브 쪽을 외면한 채 부싯돌처럼 굳어 있었다.

"저 노란 녀석들을 어떻게 보시오!"

"배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몰래 숨어 탔겠지. (세게, 세게, 얘들아!)" 선원들에게 속삭이고는 다시 소리 내어 말했다. "딱한 노릇일세, 스터브! (끓어오르게 해라, 끓어오르게, 얘들아!) 하지만 상관 말게, 스터브. 다 잘되려고 그런 걸세.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 선원들이 다 힘껏 젓게 하게. (힘차게, 얘들아, 힘차게!) 앞에 향유고래 기름이 큰 통으로 몇 통이나 있네, 스터브. 자네는 그것 때문에 온 걸세. (저어라, 얘들아!) 향유고래, 향유고래가 이 판의 목적일세! 적어도 이것은 의무일세. 의무와 이익이 손을 맞잡은 걸세."

"그래, 그래, 그럴 줄 알았지." 보트들이 갈라지자 스터브가 혼잣말을 했다. "놈들을 보자마자 그런 줄 알았어. 그래, 그래서 그 양반이 그렇게 자주 뒤 선창에 내려갔던 거야. 도우보이가 오래전부터 의심했던 대로. 놈들이 거기 아래 숨어 있었던 거지. 흰 고래가 그 밑바닥에 있어. 뭐, 그래, 그러라지! 어쩔 수 없지! 좋아! 저어라, 얘들아! 오늘은 흰 고래가 아니다! 저어라!"

그런데 보트를 갑판에서 내리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국의 낯선 자들이 나타난 일은, 무리도 아니게 선원들 가운데 몇몇에게 일종의 미신 섞인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얼마 전 아치가 찾아냈다고 여긴 일이 선원들 사이에 퍼져 있었으므로(그때는 실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 일에 그들을 얼마쯤 대비시켜 주었다. 그것이 놀라움의 가장 날카로운 끝을 무디게 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그들이 나타난 까닭을 자신 있게 풀이한 스터브의 말까지 겹쳐, 그들은 당분간 미신 섞인 짐작에서 풀려났다. 다만 그 일은 어두운 에이해브가 처음부터 이 일에 정확히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두고 온갖 엉뚱한 추측을 할 여지를 넉넉히 남겼다. 나로서는, 어스름한 낸터킷의 새벽에 피쿼드호에 기어오르던 수수께끼 같은 그림자들과 알 수 없는 엘리야의 수수께끼 같은 암시를 말없이 떠올렸다.

그동안 에이해브는 항해사들의 귀에 들리지 않을 만큼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가장 멀리 비켜나, 여전히 다른 보트들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를 태우고 젓는 선원들이 얼마나 힘센지를 말해 주는 정황이었다. 그의 범처럼 노란 자들은 온통 강철과 고래수염으로 된 것 같았다. 그들은 다섯 개의 낙하 해머처럼 한결같은 힘찬 노질로 오르내렸고, 그 노질은 미시시피 증기선에서 터져 나간 보일러가 옆으로 날아가듯 주기적으로 보트를 물 위로 내달리게 했다. 페달라로 말하자면, 작살잡이 노를 젓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검은 웃옷을 벗어

던지고 맨가슴을 드러내고 있었고, 뱃전 위로 드러난 그의 상반신 전체가 번갈아 꺼지는 물의 수평선을 배경으로 또렷이 도려낸 듯했다. 한편 보트의 다른 끝에서는 에이해브가 비틀거리려는 기미를 맞받아 균형을 잡으려는 듯 펜싱 선수처럼 한쪽 팔을 반쯤 뒤로 공중에 내던지듯 뻗은 채, 흰 고래에게 찢기기 전 천 번이나 보트를 내릴 때 그랬듯이 꾸준히 키잡이 노를 다루는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뻗은 팔이 묘한 몸짓을 하더니 그대로 굳었고, 보트의 노 다섯 자루가 동시에 치켜올려지는 것이 보였다. 보트와 선원들은 바다 위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즉시 뒤에서 퍼져 있던 세 보트도 가던 길을 멈추었다. 고래들이 불규칙하게 몸째 푸른 물속으로 가라앉아, 멀리서 알아볼 수 있는 움직임의 표시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더 가까이 있던 에이해브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모두 노를 따라 망을 봐라!" 하고 스타벅이 외쳤다. "너, 퀴퀘그, 일어서라!"

야만인은 뱃머리의 세모난 돋움 상자 위로 날렵하게 뛰어올라 거기 똑바로 서서, 사냥감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곳을 몹시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찬가지로 뱃전과 높이를 맞춰 역시 세모난 발판을 댄 보트 고물 맨 끝에서, 스타벅 자신이 나뭇조각 같은 제 보트의 홱홱 치는 흔들림에 맞추어 침착하고 능숙하게 균형을 잡으며 바다의 거대한 푸른 눈을 말없이 지켜보는 모습이 보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플래스크의 보트도 숨을 죽인 듯 고요히 떠 있었다. 그 지휘관은 무모하게도 작살줄 기둥 꼭대기에 서 있었다. 작살줄 기둥은 용골에 뿌리박은 튼튼한 기둥 같은 것으로, 고물 발판보다 2피트쯤 높이 솟아 있다. 작살줄을 감아 걸 때 쓴다. 그 꼭대기는 사람 손바닥보다 넓지 않아서, 그런 받침 위에 선 플래스크는 돛대 머리 마개만 남기고 다 가라앉은 어느 배의 돛대 꼭대기에 올라앉은 것

같았다. 그러나 꼬마 킹포스트는 작고 땅딸막했고, 동시에 꼬마 킹포스트는 크고 높은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작살줄 기둥이라는 이 발판은 결코 킹포스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세 물결 너머도 안 보인다. 거기 노 하나 세워 줘, 그 위에 올라가게."

이 말에 다구가 두 손으로 뱃전을 짚어 몸을 가누며 재빨리 고물 쪽으로 미끄러져 오더니,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제 높은 어깨를 받침대로 내놓겠다고 나섰다.

"어느 돛대 꼭대기 못지않습니다, 항해사님. 올라타시겠습니까?"

"그러지. 정말 고맙다, 이 친구야. 다만 네가 50피트만 더 컸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거대한 흑인은 보트의 마주 보는 두 판자에 두 발을 단단히 버티고 조금 몸을 굽혀 플래스크의 발 밑에 평평한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플래스크의 손을 영구차의 깃털 장식 같은 제 머리 위에 얹게 하고, 자기가 들어 올릴 때 뛰어오르라고 일러 두고는, 능숙하게 한 번 휙 들어 올려 그 작은 사내를 제 어깨 위에 높이 사뿐히 올려놓았다. 이렇게 하여 이제 플래스크가 거기 서 있었고, 다구는 한 팔을 들어 그가 기대어 몸을 가눌 가슴 띠가 되어 주었다.

포경선원이 아무리 사납게 비뚤어지고 엇갈려 치닫는 바다에 이리저리 내던져질 때에도 놀랍도록 몸에 밴 무의식적인 솜씨로 보트 안에서 꼿꼿한 자세를 지키는 것은 언제 보아도 풋내기에게는 기묘한 광경이다. 그런 상황에서 작살줄 기둥 위에 어질어질하게 올라앉은 그를 보는 것은 더욱 기묘하다. 그러나 거대한 다구 위에 올라탄 꼬마 플래스크의 모습은 그보다 더 신기했다. 고귀한 흑인은 침착하고 무심하고 느긋하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야만스러운 위엄으로 몸을 가누며, 바다가 굴러올 때마다 그 멋진 몸을 조화롭게 함께 굴렸기 때문이다. 그의 넓은 등 위에서 아마빛 머리의 플래스크는 눈송이

같았다. 태운 자가 탄 자보다 더 고귀해 보였다. 실로 활기 넘치고 소란스럽고 뽐내기 좋아하는 꼬마 플래스크는 이따금 조바심에 발을 굴렀지만, 그렇다고 흑인의 당당한 가슴이 한 번이라도 더 들먹이지는 않았다. 나는 정열과 허영이 살아 있는 너그러운 대지를 그렇게 짓밟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대지는 그 때문에 밀물 썰물도 계절도 바꾸지 않았다.

그동안 삼등 항해사 스터브는 그렇게 멀리 내다보며 애태우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고래들은 그저 놀라서 잠깐 잠수한 것이 아니라 늘 하는 정기적인 잠수를 했을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스터브는, 그런 경우의 버릇대로인 듯, 그 지루한 기다림을 파이프로 달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늘 깃털처럼 비스듬히 꽂고 다니는 모자 띠에서 파이프를 뽑았다. 담배를 채우고 엄지 끝으로 꾹꾹 눌러 다졌다. 그러나 그가 제 손의 거친 사포 같은 살갗에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자마자, 두 개의 붙박이별처럼 바람 불어오는 쪽에 눈을 박고 있던 그의 작살잡이 태시테고가 꼿꼿이 선 자세에서 빛처럼 갑자기 제자리에 내려앉으며 다급하게 미친 듯이 외쳤다. "엎드려, 다들 엎드려서 저어라! 저기 있다!"

뭍사람이라면 그 순간 고래 한 마리도, 청어 한 마리의 낌새조차도 보지 못했으리라. 보이는 것이라고는 초록빛 도는 흰 물이 어지럽게 일렁이는 작은 한 자리와, 그 위에 떠서 하얗게 굴러가는 큰 물결에서 흩날리는 어지러운 물보라처럼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번지며 날려 가는 엷게 흩어진 김 몇 줄기뿐이었다.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말하자면 몹시 뜨겁게 달군 철판 위의 공기처럼 떨리고 아른거렸다. 이 대기의 일렁임과 소용돌이 아래, 그리고 일부는 엷은 물 층 아래에서도 고래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다른 모든 낌새보다 앞서 보이는, 놈들이 뿜어 올린 김 줄기는 놈들보다 먼저 달리는 전령이자 따로 떨어져 나와 날아가는 선발 기수 같았다.

이제 네 보트 모두 일렁이는 물과 공기의 그 한 자리를 맹렬히 쫓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보트들을 앞지를 기세였다. 산에서 급류를 타고 떠내려가는 한 덩어리의 뒤섞인 물거품처럼 그것은 자꾸만 날아갔다.

"저어라, 저어, 착한 녀석들아." 스타벅은 선원들에게 더할 수 없이 낮지만 더할 수 없이 세게 응축된 속삭임으로 말했다. 그의 눈에서 뱃머리 바로 앞으로 쏘아 보내는 날카롭고 붙박인 눈길은 어김없는 나침반 두 개의 눈에 보이는 바늘 두 개 같았다. 그러나 그는 선원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선원들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보트의 침묵을 이따금 그 특유의 속삭임 하나가 깜짝 놀랄 만큼 꿰뚫었다. 때로는 명령으로 거칠고, 때로는 애원으로 부드러운 속삭임이었다.

요란한 꼬마 킹포스트는 얼마나 달랐던가. "소리쳐라, 뭐라도 말해라, 이 녀석들아. 고함치며 저어라, 내 벼락들아! 놈들의 검은 등에 날 얹어 놔, 얹어 놔, 얘들아. 그것만 해 주면 마서스비니어드의 내 농장을 너희에게 넘겨주마, 얘들아. 아내와 자식들까지 끼워서, 얘들아. 날 갖다 붙여, 갖다 붙여! 오 주여, 주여! 나 정말 완전히 미쳐 버리겠다! 봐라! 저 흰 물을 봐라!" 그렇게 외치며 그는 모자를 머리에서 벗겨 그 위를 쿵쿵 짓밟았다. 그러고는 그것을 집어 들어 바다 멀리 휙 던져 버리더니, 마침내는 대초원에서 미쳐 날뛰는 망아지처럼 보트 고물에서 앞발을 치켜들었다 곤두박질쳤다 하기 시작했다.

"저 녀석 좀 봐라." 스터브가 철학자처럼 느릿느릿 말했다. 그는 불붙이지 않은 짧은 파이프를 기계적으로 이에 문 채 조금 떨어져서 뒤따르고 있었다. "경기가 났구먼, 저 플래스크가. 경기? 그래, 경기 나게 해 줘라. 바로 그 말이다. 놈들이 경기 나게 해 줘라. 즐겁게, 즐겁게, 기운들 내라. 저녁엔 푸딩이다, 알지? 즐겁게가 바로 그 말이다. 저어라, 아가들아. 저어라, 젖먹이들아. 다들 저어라. 그런데 대체 뭘 그리

서두르는 거냐? 살살, 살살, 꾸준히, 얘들아. 그냥 저어라, 계속 저어. 그것뿐이다. 등뼈를 다 부러뜨리고 칼을 깨물어 두 동강 내라. 그것뿐이다. 느긋하게 해. 느긋하게 하라니까, 간이며 허파며 다 터지도록!"

그러나 저 헤아릴 수 없는 에이해브가 범처럼 노란 제 선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은 여기서 빼는 것이 좋겠다. 그대는 복음의 땅의 축복받은 빛 아래 살고 있으니까. 에이해브가 회오리바람 같은 이마와 붉은 살의를 띤 눈과 거품으로 들러붙은 입술로 제 사냥감을 뒤쫓아 뛰어들 때,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도 좋은 것은 오직 무엄한 바다의 신앙 없는 상어들뿐이다.

그동안 모든 보트가 내달렸다. 플래스크는 꼬리로 제 보트의 뱃머리를 쉬지 않고 약 올린다고 우겨 대는 상상 속 괴물을 "저 고래"라고 부르며 거듭 콕 집어 가리켰는데, 이 가리킴이 때로 어찌나 생생하고 실감 났던지 그의 선원 한두 명이 어깨 너머로 겁먹은 눈길을 홱 던지게 만들 정도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규칙에 어긋났다. 노잡이들은 제 눈을 뽑아내고 목에 꼬챙이를 꿰어 박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는 귀 말고는 다른 기관이, 팔 말고는 다른 팔다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례다.

재빠른 경이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광경이었다! 전능한 바다의 거대한 너울, 끝없는 잔디 볼링장의 거대한 공처럼 너울이 여덟 개의 뱃전을 따라 굴러가며 내는 밀려오는 텅 빈 굉음, 칼날 같은 더 날카로운 물결의 등성이 위에서 보트가 한순간 기우뚱할 때, 물결이 보트를 두 동강 낼 듯 위협할 때의 짧게 매달린 고뇌, 물의 골짜기와 우묵한 곳으로 갑자기 깊이 처박히는 일, 맞은편 언덕 꼭대기에 오르려고 매섭게 박차를 가하고 몰아대는 일, 그 반대편으로 썰매처럼 곤두박질치며 미끄러져 내려가는 일, 이 모든 것이, 보트장들과 작살잡이들의 외침과

노잡이들의 몸서리치는 헐떡임과 함께, 비명을 지르는 새끼들을 쫓는 사나운 암탉처럼 돛을 활짝 펴고 제 보트들을 향해 내리 덮쳐 오는 고래뼈 피쿼드호의 놀라운 광경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짜릿했다.

아내의 품에서 떠나 첫 전투의 열기 속으로 행군해 가는 신병도, 저승에서 처음으로 알 수 없는 유령을 만나는 죽은 이의 넋도, 쫓기는 향유고래가 휘저어 놓은 마법의 원 안으로 처음 노를 저어 들어가는 사람보다 더 기묘하고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지는 못한다.

사냥으로 생긴 춤추는 흰 물이 이제 점점 더 똑똑히 보였다. 바다에 드리운 칙칙한 구름 그림자가 점점 짙어졌기 때문이다. 김 줄기들은 더는 한데 섞이지 않고 사방으로 좌우로 기울었다. 고래들이 제각기 항적을 갈라 가는 것 같았다. 보트들은 더 멀리 흩어져 저었다. 스타벅은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곧장 달리는 고래 세 마리를 쫓았다. 이제 우리 돛이 올랐고, 바람이 여전히 거세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내달렸다. 보트가 어찌나 미친 듯이 물을 헤치고 나갔던지, 바람 불어 가는 쪽 노들은 노걸이에서 뜯겨 나가지 않을 만큼 재빨리 놀리기도 버거웠다.

곧 우리는 넓게 번지는 안개의 장막을 뚫고 달리고 있었다. 배도 보트도 보이지 않았다.

"저어라, 얘들아." 스타벅은 돛의 아딧줄을 더 뒤로 당기며 속삭였다. "돌풍이 닥치기 전에 아직 고래 한 마리 잡을 시간은 있다. 저기 또 흰 물이다! 바로 가까이! 힘차게!"

그 뒤 곧 우리 양쪽에서 잇따라 들린 두 외침은 다른 보트들이 고래에 작살을 꽂아 매였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자마자 스타벅이 번개처럼 날카롭게 속삭였다. "일어서!" 그러자 퀴퀘그가 작살을 손에 들고 벌떡 일어섰다.

그때 노잡이 가운데 누구도 바로 앞에 그토록 가까이 닥친 생사의 위험을 마주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보트 고물에 있는 항해사의 긴장한

얼굴에 눈을 두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 절박한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그들은 또한 코끼리 쉰 마리가 깔짚 위에서 뒤척이는 듯한 엄청나게 뒹구는 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보트는 여전히 안개를 뚫고 우르릉거리며 나아갔고, 물결은 성난 뱀들이 곧추세운 볏처럼 우리 둘레에서 말려 오르며 쉿쉿거렸다.

"저건 놈의 혹이다. *저기, 저기,* 놈에게 먹여라!" 하고 스타벅이 속삭였다.

보트에서 짧게 내닫는 소리가 튀어 나갔다. 퀴퀘그가 던진 작살이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이 한데 엉겨 붙은 소동 속에서 고물 쪽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떠밂이 오고, 앞쪽에서는 보트가 암붕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돛이 무너지며 터졌다. 데일 듯 뜨거운 김이 바로 곁에서 솟구쳤다. 무언가가 우리 밑에서 지진처럼 구르고 뒹굴었다. 선원 모두 돌풍이 휘저어 놓은 엉긴 크림 같은 흰 물속으로 마구잡이로 내던져지며 반쯤 숨이 막혔다. 돌풍과 고래와 작살이 모두 한데 뒤섞였다. 그리고 작살에 그저 스치기만 한 고래는 달아났다.

보트는 물에 완전히 잠겼지만 거의 다치지 않았다. 우리는 보트 둘레를 헤엄치며 떠다니는 노들을 건져 뱃전에 가로질러 묶고는 굴러떨어지듯 제자리로 돌아갔다. 거기 우리는 무릎까지 바닷물에 잠겨 앉아 있었다. 물이 늑재와 판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덮고 있어서, 내려다보는 우리 눈에는 물에 떠 매달린 그 보트가 대양 밑바닥에서 우리에게까지 자라 올라온 산호 보트 같았다.

바람은 울부짖을 만큼 거세졌다. 물결은 서로 방패를 맞부딪쳤다. 돌풍 전체가 대초원의 하얀 불길처럼 우리 둘레에서 으르렁거리고 갈라지고 탁탁 튀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타 없어지지 않은 채 불타고 있었다. 이 죽음의 아가리 속에서 불멸하며! 우리는 헛되이 다른 보트들을 불렀다. 그 폭풍 속에서 그 보트들을 부르느니 타오르는

용광로의 굴뚝 아래로 시뻘건 숯에 대고 고함치는 편이 나았으리라. 그동안 몰아치는 물보라와 조각구름과 안개는 밤의 그림자로 더욱 어두워졌다. 배의 낌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높아지는 바다 때문에 보트의 물을 퍼낼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노는 배를 미는 데는 쓸모가 없어 이제 구명대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스타벅은 방수된 성냥 통을 묶은 끈을 자르고, 여러 번 실패한 끝에 간신히 각등 안의 등잔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그것을 표지 장대에 매달아 퀴퀘그에게 건네주어, 이 절망적인 결사대의 기수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는 거기 앉아, 그 전능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 무력한 촛불을 쳐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거기 앉아, 믿음 없는 사람의 표지이자 상징으로, 절망 한가운데서 희망 없이 희망을 쳐들고 있었다.

젖고, 흠뻑 젖고, 추위에 떨며, 배도 보트도 찾을 희망을 잃은 채 우리는 새벽이 다가오자 눈을 들었다. 안개는 여전히 바다를 덮고 있었고, 빈 각등은 보트 바닥에 찌그러져 있었다. 갑자기 퀴퀘그가 벌떡 일어서더니 손을 오므려 귀에 댔다. 우리 모두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까지 폭풍에 묻혀 있던 밧줄과 활대 소리 같았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짙은 안개가 거대하고 흐릿한 형체에 희미하게 갈라졌다. 겁에 질린 우리는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다. 마침내 배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며, 제 길이를 그리 넘지 않는 거리에서 곧장 우리를 향해 내리 덮쳐 왔기 때문이다.

물결 위에 떠서 우리는 버려진 보트를 보았다. 보트는 한순간 폭포 밑의 나뭇조각처럼 배의 뱃머리 아래에서 흔들리며 입을 벌렸다. 그러고는 거대한 선체가 그 위로 굴러 넘어갔고, 보트는 고물 뒤에서 허우적거리며 떠오를 때까지 다시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보트 쪽으로 헤엄쳐 갔고, 물결에 떠밀려 보트에 부딪혔으며, 마침내 건져 올려져 무사히 배에 올랐다. 돌풍이 가까이 닥치기 전에 다른 보트들은

고래를 잘라 놓아주고 때맞추어 배로 돌아와 있었다. 배는 우리를 포기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죽었다는 무슨 표시, 노 한 자루나 창 자루 하나라도 만날까 하여 여전히 그 근처를 돌고 있었다.

제49장 하이에나

우리가 삶이라 부르는 이 기묘하게 뒤섞인 일에는 어떤 괴상한 때와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사람은 이 온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짓궂은 장난으로 여기고, 그 재치는 어렴풋이밖에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그 장난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를 놀리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선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의 기를 꺾지 못하고, 아무것도 따지고 들 가치가 없어 보인다. 그는 모든 사건을, 모든 교리와 신앙과 신조를,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온갖 딱딱한 것을, 아무리 울퉁불퉁하든 개의치 않고 꿀꺽 삼킨다. 소화력 센 타조가 총알과 부싯돌을 게걸스럽게 삼키듯이. 그리고 작은 어려움과 걱정거리, 갑작스러운 재앙의 기미, 목숨과 팔다리의 위험, 이 모든 것과 죽음 자체까지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늙은 익살꾼이 옆구리에 먹이는 교활하고 사람 좋은 농담이자 유쾌한 주먹질로만 보인다. 내가 말하는 이 기묘하고 제멋대로인 기분은 극심한 시련의 때에만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것은 그가 한창 진지할 때 그 한복판에 찾아와서, 바로 전까지만 해도 더없이 중대해 보였을 일이 이제는 그 전체적인 장난의 한 부분으로만 보인다. 포경의 위험만큼 이 자유롭고 느긋한, 사람 좋은 무법자의 철학을 길러 내는 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철학으로 피쿼드호의 이 항해 전체와 그 목표인 거대한 흰 고래를 바라보았다.

"퀴퀘그." 마지막으로 나를 갑판으로 끌어 올렸을 때, 아직 물을 털어내려고 웃옷 속에서 몸을 흔들며 내가 말했다. "퀴퀘그, 내 좋은 친구,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 그는 나처럼 흠뻑 젖었는데도 별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는 뜻을 내게 알려 주었다.

"스터브 항해사님." 나는 그 훌륭한 양반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그는 기름 먹인 웃옷의 단추를 채우고 이제 빗속에서 태연히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다. "스터브 항해사님, 항해사님이 만나 본 모든 포경선원 가운데 우리 일등 항해사 스타벅 항해사님이 단연 가장 조심스럽고 신중하다고 하시는 걸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개 낀 돌풍 속에 돛을 단 채 달아나는 고래에게 곧장 덤벼드는 것이 포경선원의 분별의 극치라는 말씀이겠지요?"

"물론이지. 나는 혼곶 앞바다 강풍 속에서 물이 새는 배에서 고래를 잡으러 보트를 내린 적도 있다."

"플래스크 항해사님." 나는 바로 곁에 서 있던 꼬마 킹포스트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항해사님은 이런 일에 경험이 있으시고 저는 없습니다. 노잡이가 등을 앞으로 하고 뒤로 저어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제 몸을 끌고 들어가느라 제 등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이 포경업의 바꿀 수 없는 법칙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플래스크 항해사님?"

"그걸 좀 더 짧게 꼴 수는 없냐?" 플래스크가 말했다. "그래, 그게 법칙이다. 보트 선원들이 얼굴을 앞으로 하고 고래 쪽으로 노를 거꾸로 저어 가는 꼴을 보고 싶구나. 하, 하! 그러면 고래가 놈들한테 곁눈질에는 곁눈질로 갚아 줄걸, 명심해!"

이렇게 하여 나는 공정한 증인 세 사람에게서 이 일 전체에 관한 신중한 진술을 얻었다. 그러므로 돌풍과 물속에서 뒤집히는 일과 그에 따라 바다 위에서 노숙하는 일이 이런 생활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래에게 덤벼드는 더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의 손에 내 목숨을 맡겨야 한다는 것, 그것도 흔히 바로 그 순간 성급하게 제 미친 듯한 발 구르기로 보트에 구멍을 내려는 참인 녀석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보트에 닥친 이번 재난은 주로 스타벅이 거의 돌풍의 이빨 속으로 제 고래를 향해 몰아붙인 탓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도 스타벅이 포경업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기로 이름났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 유난히 신중한 스타벅의 보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흰 고래를 두고 내가 얼마나 악마 같은 추격에 말려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 보니, 아래로 내려가 유언장 초안이나 대충 써 두는 편이 낫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퀴퀘그," 내가 말했다. "따라와. 네가 내 변호사, 유언 집행인, 유산 상속인이 되어 줘."

하고많은 사람 가운데 선원들이 유언장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 심심풀이를 그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내 뱃사람 생활에서 그렇게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였다. 이번에도 의식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돌 하나가 내 가슴에서 굴러 치워졌다. 게다가 이제부터 내가 살 날은 모두 나사로가 부활한 뒤에 산 날들만큼이나 좋은 날일 터였다. 경우에 따라 몇 달이 되든 몇 주가 되든, 덤으로 고스란히 얻은 날들이었다. 나는 나 자신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내 죽음과 장례는 내 궤짝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아늑한 가족 납골당의 창살 안에 앉아 있는, 양심 깨끗한 조용한 유령처럼 평온하고 흡족하게 내 둘레를 둘러보았다.

자, 그럼, 하고 나는 저도 모르게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리며 생각했다. 죽음과 파멸 속으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뛰어들어 보자. 꼴찌는 악마나 물어 가라.

제50장 에이해브의 보트와 선원들, 페달라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냐, 플래스크!" 스터브가 외쳤다. "나라면 다리가 하나뿐이면 보트에 타는 꼴을 못 볼 거다. 나무 발가락으로 마개 구멍이나 막을 거라면 몰라도. 아! 그 양반은 놀라운 노인이야!"

"그래도 따지고 보면 그 점에서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고 봐." 플래스크가 말했다. "다리가 엉덩이에서부터 잘려 나갔다면야 얘기가 다르지. 그러면 꼼짝 못 하겠지. 하지만 그 양반은 한쪽 무릎이 있고, 다른 쪽도 꽤 남아 있잖아."

"그건 모르겠다, 꼬마야. 그 양반이 무릎 꿇는 건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

고래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항해의 성공에 포경선 선장의 목숨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가 추격의 생생한 위험 속에 그 목숨을 내맡기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자주 논란이 있어 왔다. 티무르의 병사들도 그렇게, 그의 더없이 귀한 목숨을 가장 치열한 싸움터 한복판으로 모시고 들어가야 하는지를 두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주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에이해브에게는 이 물음이 모양을 좀 달리했다. 위험할 때는 언제나 다리가 둘이라도 사람은 절뚝거리는 가련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고래를 쫓는 일은 언제나 크고 남다른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며 실로 그때는 한순간 한순간이 다 위험을 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사정에서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이 사냥에 나서 포경

보트에 오르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대체로 피쿼드호의 공동 선주들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에이해브는 잘 알고 있었다. 고향의 친구들은 그가 사건 현장 가까이 있으면서 몸소 명령을 내리려고 추격의 비교적 해롭지 않은 몇몇 고비에 보트에 오르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에이해브 선장이 정식 보트장으로서 사냥에 나설 보트 한 척을 실제로 배정받는 것, 무엇보다 에이해브 선장이 그 보트의 선원으로 여분의 사람 다섯을 공급받는 것, 그런 너그러운 생각은 피쿼드호의 선주들 머리에 결코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보트 선원을 청하지도 않았고, 그 점에 관한 제 바람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그 일 전체에 관해 남몰래 제 나름의 조치를 취해 두었다. 카바코가 찾아낸 일이 알려지기까지 선원들은 그것을 거의 짐작하지 못했다. 물론 항구를 떠나 얼마 지나서 모든 선원이 포경 보트를 쓸 수 있게 갖추는 관례적인 일을 마쳤을 때, 그 뒤 얼마 지나 에이해브가 여분의 보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던 보트에 쓸 노 받침 못을 이따금 제 손으로 만드느라 부산을 떠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작살줄이 풀려 나갈 때 뱃머리의 홈 위에 꽂는 작은 나무 꼬챙이까지 정성 들여 깎는 모습이 눈에 띄었을 때, 그에게서 이 모든 것이 눈에 띄었을 때, 특히 고래뼈 의족이 뾰족하게 누르는 힘을 보트가 더 잘 견디게 하려는 듯 보트 바닥에 덧판을 한 겹 더 대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넓적다리 판, 때로 투박한 쐐기라고도 불리는, 작살을 던지거나 고래를 찌를 때 무릎을 버티는 보트 뱃머리의 가로 판을 정확히 다듬느라 그가 보인 조바심이 눈에 띄었을 때, 그가 얼마나 자주 그 보트에 서서 하나뿐인 무릎을 쐐기의 반원형 우묵한 곳에 고정한 채 목수의 끌로 여기는 조금 파내고 저기는 조금 곧게 다듬었는지가 눈에 띄었을 때, 말하자면 이 모든 일이 그때 큰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에이해브의 이 각별한 준비의 조심성은 오로지 모비 딕을 마지막으로 추격하려는 데 뜻이 있다고 짐작했다. 그는 이미 그 죽음의 괴물을 몸소 사냥하겠다는 뜻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짐작에는 그 보트에 어떤 보트 선원이 배정되리라는 의심이 털끝만큼도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 딸린 유령들에 대해서는, 남아 있던 놀라움도 곧 사그라졌다. 포경선에서는 놀라움이 금세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따금 떠도는 무법자 같은 포경선들에 선원으로 타려고 이 땅의 알 수 없는 구석과 잿구덩이에서 별의별 낯선 민족의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올라오고, 배들 자체도 판자, 난파선 조각, 노, 포경 보트, 카누, 바람에 떠밀려 온 일본 정크선 따위를 타고 너른 바다를 떠돌다 발견된 그런 괴상한 표류자들을 흔히 건져 올리므로, 바알세붑이 몸소 뱃전을 기어올라 선장실로 내려가 선장과 담소를 나눈다 해도 앞갑판 선원실에 가라앉히지 못할 소동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야 어떻든, 딸린 유령들은 여전히 선원들과 어딘지 구별되는 채로나마 곧 선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지만, 저 머리카락 터번을 두른 페달라만은 끝까지 감싸인 수수께끼로 남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예절 바른 세상에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곧 드러낸 대로 어떤 알 수 없는 끈으로 에이해브의 남다른 운명에 이어져 있었는지, 아니, 반쯤 넌지시 비치는 어떤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하늘은 아시겠지만 어쩌면 그를 다스리는 권위까지 가질 정도로 이어져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페달라에 관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지킬 수가 없다. 그는 온대 지방의 문명화되고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꿈에서나, 그것도 흐릿하게나 보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들이 이따금 변하지 않는 아시아의 공동체들, 특히 대륙 동쪽의 동양 섬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오간다. 그 외따로 떨어지고

아득한 옛날부터 이어 오며 바뀌지 않는 나라들은 이 근대에도 지구 최초의 세대가 지녔던 유령 같은 원초성을 아직 많이 간직하고 있다. 그때는 최초의 인간에 대한 기억이 또렷한 회상이었고, 그의 자손인 모든 사람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 채 서로를 진짜 유령처럼 바라보며, 해와 달에게 너희는 왜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때는 창세기에 따르면 천사들이 실로 사람의 딸들과 어울렸고, 정경에 들지 않은 랍비들의 말을 덧붙이면 악마들도 세속의 정사에 빠졌다.

제51장 유령 물줄기

여러 날, 여러 주가 흘렀고, 고래뼈 피쿼드호는 돛을 느긋하게 단 채 네 군데 어장을 천천히 쓸고 지나갔다. 아조레스 제도 앞바다, 카보베르데 제도 앞바다, 리오데라플라타 강어귀 앞바다인 이른바 플라타 어장, 그리고 세인트헬레나섬 남쪽, 말뚝 하나 박히지 않은 물의 고장인 캐럴 어장이었다.

이 마지막 바다를 미끄러지듯 지날 때였다. 고요하고 달 밝은 어느 밤, 모든 물결이 은빛 두루마리처럼 굴러갔고, 부드럽게 번지는 그 끓어오름으로 외로움이 아니라 은빛 고요라 할 만한 것을 자아냈다. 그런 고요한 밤에 뱃머리의 흰 거품 훨씬 앞쪽에서 은빛 물줄기 하나가 보였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천상의 것 같았다. 깃털로 꾸미고 번쩍이는 어느 신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 물줄기를 처음 알아본 것은 페달라였다. 이렇게 달 밝은 밤이면 그는 큰돛대 꼭대기에 올라가 낮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거기서 망을 보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에 고래 떼가 보인다 해도 그것을 잡으러 감히 보트를 내릴 포경선원은 백에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이 늙은 동양인이 그렇게 예사롭지 않은 시각에 높이 올라앉아, 그의 터번과 달이 한 하늘의 길동무가 되어 있는 것을 선원들이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았을지 짐작해 보라. 그러나 그가 잇따라 여러 밤 동안 한마디 소리도 내지 않고 늘 같은 시간을 거기서 보낸 뒤, 그 모든 침묵 끝에 달빛에 비친 그 은빛 물줄기를 알리는 그의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목소리가 들리자, 누워 있던 선원들은 날개 달린

어느 정령이 삭구에 내려앉아 죽을 운명의 선원들을 부르기라도 한 듯 모두 벌떡 일어났다. "저기 물을 뿜는다!" 심판의 나팔이 울렸다 해도 그들은 그보다 더 떨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기뻤다. 더없이 예사롭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그 외침은 너무도 강렬하고 미칠 듯이 들뜨게 해서, 배 안의 거의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보트를 내리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에이해브는 빠르게 옆으로 내딛는 걸음으로 갑판을 오가며 윗돛과 맨윗돛을 올리고 보조돛을 모두 펴라고 명령했다. 배에서 가장 솜씨 좋은 사람이 키를 잡아야 했다. 그러고는 돛대 꼭대기마다 사람을 올린 채, 돛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배는 바람을 타고 굴러 내려갔다. 그 많은 돛의 우묵한 곳을 채우는 고물 쪽 바람이 기묘하게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을 지녀서, 떠오를 듯 떠 있는 갑판이 발밑에서 공기처럼 느껴졌다. 그런데도 배는 마치 두 적대하는 힘이 그 안에서 다투는 듯 내달렸다. 하나는 곧장 하늘로 오르려 하고, 다른 하나는 이리저리 기우뚱거리며 어느 수평의 목표로 몰아가려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에이해브의 얼굴을 지켜보았다면, 그대는 그의 안에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으리라. 그의 살아 있는 한쪽 다리가 갑판을 따라 생생한 메아리를 울리는 동안, 죽은 다리가 한 번씩 디딜 때마다 관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이 노인은 삶과 죽음 위를 걸었다. 그러나 배가 그토록 빨리 달리고 모든 눈에서 간절한 눈길이 화살처럼 쏘아져 나갔지만, 그날 밤 은빛 물줄기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선원마다 그것을 한 번은 보았다고 맹세했지만, 두 번째는 아니었다.

이 한밤의 물줄기가 거의 잊힌 일이 되어 갈 무렵, 며칠 뒤, 보라! 같은 고요한 시각에 그것이 다시 알려졌다. 다시 모두가 그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돛을 올리자 그것은 또다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그것은 밤이면 밤마다 우리를

놀렸고, 마침내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이상히 여길 뿐이었다. 경우에 따라 맑은 달빛 속으로, 혹은 별빛 속으로 수수께끼처럼 솟구쳤다가 다시 꼬박 하루, 혹은 이틀, 혹은 사흘 동안 사라지고, 또렷이 되풀이될 때마다 어쩐지 우리 앞에서 점점 더 멀리 나아가는 것 같은 이 외로운 물줄기는 영원히 우리를 꾀어 이끄는 것 같았다.

그들 족속의 아득한 미신에 따라, 그리고 여러 일에서 피쿼드호를 감싸고 있는 듯한 초자연적인 기운에 걸맞게, 선원들 가운데에는 그것이 언제 어디서 보이든, 아무리 멀리 떨어진 때에, 아무리 멀리 떨어진 위도와 경도에서 보이든, 다가갈 수 없는 그 물줄기는 하나의 같은 고래가 뿜어 올린 것이며 그 고래는 모비 딕이라고 맹세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한동안은 이 떠도는 환영에 대한 묘한 두려움도 배를 지배했다. 마치 그것이 우리를 음흉하게 자꾸자꾸 손짓해 꾀어 들여, 끝내 가장 멀고 가장 사나운 바다에서 그 괴물이 우리에게 돌아서서 우리를 찢어발기려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막연하지만 그토록 무시무시한 일시적인 불안은 그와 대조되는 날씨의 고요함에서 놀라운 힘을 얻었는데, 그 온통 푸르고 온화한 날씨 아래 어떤 이들은 악마의 마법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여러 날 여러 날 지루하고 쓸쓸하리만큼 잔잔한 바다를 항해해 나갔고, 그러는 동안 온 공간이 우리의 복수의 사명을 꺼리듯 유골 단지 같은 우리 뱃머리 앞에서 생명을 비워 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마침내 동쪽으로 뱃머리를 돌리자 희망봉의 바람이 우리 둘레에서 울부짖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곳의 길고 거친 바다 위에서 오르내렸다. 고래뼈 엄니를 단 피쿼드호가 돌풍에 날카롭게 머리를 숙이고 미친 듯이 어두운 물결을 들이받아, 은빛 나뭇조각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듯 거품 조각이 뱃전 너머로 날아들었을 때, 그때 이 모든 황량한

생명의 공백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전보다 더 음울한 광경들이 차지했다.

우리 뱃머리 바로 가까이에서 물속의 기묘한 형체들이 우리 앞을 이리저리 쏜살같이 오갔고, 우리 뒤에는 헤아릴 수 없는 바다까마귀들이 빽빽이 날았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 새들이 줄지어 우리 지삭에 올라앉은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소리를 질러 쫓아도 녀석들은 오랫동안 고집스럽게 삼밧줄에 매달려 있었다. 우리 배를 떠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배, 황폐하게 버려지도록 정해진 것, 그러니 집 없는 저희가 앉아 쉬기에 알맞은 곳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검은 바다는 들썩이고 또 들썩이며 쉬지 않고 여전히 들썩였다. 마치 그 거대한 조수가 양심이고, 거대한 세상의 영혼이 제가 낳은 오랜 죄와 고통 때문에 고뇌하고 뉘우치는 것 같았다.

희망봉,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부르느냐? 차라리 옛 이름대로 고난의 곶이라 하라. 앞서 우리를 따르던 배신의 고요에 오래 꾀인 끝에 우리는 이 고난에 시달리는 바다로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죄지은 존재들이 저 새들과 이 물고기들로 바뀌어, 마련된 항구 하나 없이 영원히 헤엄치거나 수평선 하나 없이 그 검은 공기를 날갯짓하도록 저주받은 것 같았다. 그러나 고요하고 눈처럼 희고 한결같이, 여전히 제 깃털의 분수를 하늘로 향한 채, 여전히 앞에서 우리를 손짓해 부르며, 그 외로운 물줄기가 이따금 보였다.

이 모든 원소의 암흑 속에서 에이해브는, 흠뻑 젖고 위험한 갑판을 당분간 거의 쉬지 않고 몸소 지휘하면서도 더없이 음울하게 입을 다물었고, 항해사들에게 말을 거는 일도 어느 때보다 드물었다. 이런 폭풍의 때에는 위쪽과 높은 곳의 모든 것을 단단히 붙들어 맨 뒤에는 그저 수동적으로 강풍의 결말을 기다리는 수밖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럴 때 선장과 선원들은 실제적인 숙명론자가 된다. 그래서

에이해브는 고래뼈 의족을 늘 꽂는 구멍에 꽂고 한 손으로 돛대 밧줄을 꽉 움켜쥔 채, 몇 시간이고 바람 불어오는 쪽을 곧바로 노려보며 서 있곤 했다. 이따금 진눈깨비나 눈을 몰고 오는 돌풍이 그의 속눈썹까지 거의 얼어붙게 했다. 그동안 선원들은 뱃머리 너머로 터지듯 부서지는 위험한 물결에 배 앞쪽에서 쫓겨나 배 허리의 뱃전을 따라 한 줄로 늘어섰다. 그리고 뛰어오르는 물결을 더 잘 막으려고 저마다 난간에 매어 둔 일종의 고리 매듭 밧줄에 몸을 끼워 넣고, 느슨한 허리띠에 매달린 듯 그 안에서 흔들렸다. 말은 거의 오가지 않았다. 그리고 침묵하는 배는 마치 밀랍으로 빚어 색칠한 선원들이 탄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악마 같은 물결의 재빠른 광기와 환희를 뚫고 내달렸다. 밤에도 대양의 비명 앞에서 인간의 같은 침묵이 지배했다. 여전히 말없이 선원들은 고리 밧줄 속에서 흔들렸고, 여전히 말없는 에이해브는 돌풍에 맞서 서 있었다. 지친 몸이 휴식을 청하는 것 같을 때에도 그는 그 휴식을 해먹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 스타벅은 그 노인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어느 밤 기압계가 어떤지 보려고 선장실로 내려갔을 때, 그는 노인이 바닥에 나사로 고정한 의자에 꼿꼿이 앉아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얼마 전에 빠져나온 폭풍의 비와 반쯤 녹은 진눈깨비가 벗지도 않은 모자와 웃옷에서 아직도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곁의 탁자에는 앞에서 말한 조수와 해류의 해도 가운데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각등이 그의 꽉 움켜쥔 손에서 흔들렸다. 몸은 꼿꼿했지만 머리는 뒤로 젖혀져 있어서, 감은 눈이 천장 들보에 매달려 흔들리는 고자질쟁이 나침반의 바늘 쪽을 향하고 있었다.[1]

무서운 노인이여! 스타벅은 몸서리치며 생각했다. 이 강풍 속에 잠들어서도 그대는 여전히 굳건히 그대의 목적을 노려보는구나.

1. 선장실 나침반을 고자질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장이 아래에 있으면서도 키 곁의 나침반까지 가지 않고 배의 진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52장 앨버트로스호

희망봉에서 남동쪽, 멀리 크로제 제도 앞바다는 참고래잡이들에게 좋은 어장인데, 거기서 앞쪽에 돛 하나가 어렴풋이 나타났다. 이름은 구니호(앨버트로스호)였다. 그 배가 천천히 다가오자 앞돛대 꼭대기의 높은 내자리에서 나는, 먼 대양 포경업의 풋내기에게는 몹시 눈에 띄는 광경, 곧 바다에 나와 고향을 오래 떠나 있던 포경선을 잘 볼 수 있었다.

마치 물결이 마전장이 노릇을 한 듯, 이 배는 바닷가에 올라앉은 바다코끼리의 뼈대처럼 하얗게 바래 있었다. 뱃전을 따라 아래로 줄곧 이 유령 같은 모습에 붉게 슨 녹이 긴 골을 그어 놓았고, 돛대와 활대와 삭구는 모두 흰 서리를 털처럼 뒤집어쓴 나무의 굵은 가지 같았다. 아래 돛만 올라 있었다. 그 세 돛대 꼭대기에 선 수염 긴 망꾼들의 모습은 거친 광경이었다. 그들은 짐승 가죽을 걸친 것 같았다. 거의 네 해 동안의 항해를 견디고 살아남은 옷이 그만큼 찢어지고 기워져 있었다. 돛대에 못 박아 둔 쇠고리 안에 서서 그들은 바닥 모를 바다 위에서 흔들리고 기우뚱거렸다. 그리고 배가 천천히 미끄러져 우리 고물 바로 밑으로 다가왔을 때, 공중에 있던 우리 여섯은 한 배의 돛대 꼭대기에서 다른 배의 돛대 꼭대기로 거의 뛰어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서로 가까워졌다. 그런데도 그 쓸쓸해 보이는 어부들은 지나가면서 온화하게 우리를 바라보기만 할 뿐 우리 망꾼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사이 아래에서는 뒷갑판의 외침이 들려왔다.

"어이, 그 배! 흰 고래를 보았소?"

그러나 낯선 선장이 해쓱한 뱃전에 몸을 기대고 확성 나팔을 입에 대려는 순간, 어쩐 일인지 나팔이 그의 손에서 바다로 떨어졌다. 바람이 이제 거세게 일었으므로, 그는 나팔 없이 제 말을 들리게 하려고 헛되이 애썼다. 그동안 그의 배는 여전히 거리를 벌려 가고 있었다. 다른 배에 흰 고래의 이름을 처음 꺼내자마자 일어난 이 불길한 일을 피쿼드호의 선원들이 저마다 말없이 여러 모양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동안, 에이해브는 잠시 멈칫했다. 위협하는 바람이 막지 않았더라면 그는 보트를 내려 낯선 배에 오를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바람 불어오는 쪽에 있는 이점을 살려 그는 다시 나팔을 움켜쥐고, 낯선 배가 그 생김새로 보아 낸터킷 배이며 곧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큰 소리로 외쳤다. "어이, 거기! 여기는 세계를 돌아가는 피쿼드호요! 앞으로 편지는 모두 태평양으로 보내라고 전해 주시오! 그리고 삼 년 뒤 이맘때 내가 고향에 없거든, 편지를 ……"

그 순간 두 항적이 정확히 엇갈렸다. 그러자 곧, 그들의 기묘한 습성대로, 며칠 전부터 우리 곁에서 고요히 헤엄치던 작고 해롭지 않은 물고기 떼가 몸서리치는 듯한 지느러미로 쏜살같이 떠나 낯선 배의 양 옆구리에 앞뒤로 줄지어 늘어섰다. 끊임없는 항해 동안 에이해브는 전에도 틀림없이 비슷한 광경을 자주 보았겠지만, 편집광인 사람에게는 더없이 하찮은 것들도 제멋대로 뜻을 띠기 마련이다.

"나를 떠나 헤엄쳐 가는구나, 너희가?" 에이해브가 물속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별것이 없는 듯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 미친 노인이 전에 드러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배의 속력을 줄이려고 배를 바람 쪽으로 붙들고 있던 키잡이에게 몸을 돌리며, 그는 예의 사자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키를 올려라! 세계를 돌아 배를 몰아라!"

세계를 돌아! 그 소리에는 자랑스러운 기분을 북돋는 것이 많다. 그러나 그 모든 세계 일주는 어디로 이끄는가? 셀 수 없는 위험을 뚫고 우리가 떠난 바로 그 지점으로 이끌 뿐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뒤에 남겨 두고 온 이들이 내내 우리 앞에 있던 그곳으로.

이 세상이 끝없는 평원이어서 동쪽으로 항해하면 영원히 새로운 먼 곳에 이를 수 있고, 어떤 키클라데스 제도나 솔로몬 왕의 섬들보다도 더 달콤하고 기묘한 광경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때는 항해에 약속이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저 먼 신비를 좇아, 혹은 언젠가는 모든 인간의 마음 앞을 헤엄쳐 가는 저 악마 같은 환영을 괴로워하며 쫓아, 이 둥근 지구 위를 그런 것들을 쫓는 동안, 그것들은 우리를 메마른 미로 속으로 이끌거나, 도중에 우리를 삼켜 버린 채 버려둔다.

제53장 갬

에이해브가 우리가 말을 주고받은 포경선에 오르지 않은 겉으로 드러난 까닭은 이것이었다. 바람과 바다가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해도, 그 뒤 비슷한 경우에 그가 한 행동으로 판단하건대, 소리쳐 묻는 과정에서 제가 던진 물음에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다면 그는 결국 그 배에 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드러났듯이, 그는 자기가 그토록 골똘히 찾는 정보를 얼마라도 내줄 수 있는 선장이 아니면 어떤 낯선 선장과도 단 5분이라도 어울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바다에서, 특히 같은 어장에서 포경선들이 서로 만날 때의 독특한 관습에 관해 여기서 무언가 말해 두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뉴욕주의 파인배런스를, 혹은 그만큼 황량한 영국의 솔즈베리 평원을 건너던 낯선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반기지 않는 황야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이 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인사하기를, 잠시 멈춰 소식을 주고받기를, 그리고 어쩌면 잠시 함께 앉아 쉬기를 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물며 바다의 끝없는 파인배런스와 솔즈베리 평원 위에서, 외딴 패닝섬이나 멀리 떨어진 킹스밀 제도 앞바다 같은 땅끝에서 서로를 알아본 두 포경선이, 말하자면 그런 상황에서 이 배들이 소리쳐 인사를 주고받을 뿐 아니라 더욱 가깝고 더 다정하고 사교적으로 어울리는 것은 얼마나 더 자연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리고 특히 같은 항구에 선적을 둔 배들, 선장과 항해사들과 적지 않은 선원들이 서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이고, 따라서 이야기할 온갖 정다운 집안일이 있는 배들의 경우라면 이것은 더욱 당연한 일로 보이리라.

오래 떠나 있던 배를 위해, 바깥으로 나가는 배는 어쩌면 편지를 싣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 배는 상대 배의 흐릿하고 손때 묻은 철에 있는 마지막 신문보다 한두 해 뒤의 날짜가 찍힌 신문 몇 부는 틀림없이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 친절의 보답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배는, 자기가 가게 될지도 모르는 어장에서 나온 가장 새로운 포경 소식을 받을 것이다. 그 배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모든 것은 어장 자체에서 서로의 항로를 가로지르는 포경선들에게도 들어맞는다. 둘 다 똑같이 고향을 오래 떠나 있다 해도 말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멀리 떨어진 제삼의 배에게서 편지를 넘겨받았을지도 모르고, 그 편지 가운데 몇 통은 지금 만나는 배의 사람들에게 가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포경 소식을 주고받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들은 뱃사람끼리의 온갖 공감만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 궁핍과 위험을 함께 나누는 데서 생기는 온갖 남다른 마음의 통함도 함께 품고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생기지도 않는다. 말하자면 미국인과 영국인처럼 양쪽이 같은 말을 쓰는 한 그렇다. 물론 영국 포경선은 수가 적어서 그런 만남이 아주 자주 일어나지는 않고, 일어나더라도 둘 사이에 일종의 서먹함이 끼기 쉽다. 영국인이란 좀 말수가 적은 사람이고, 양키란 그런 태도를 저 말고 남이 보이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국 포경선들은 이따금 미국 포경선들에게 일종의 수도 사람다운 우월감을 내보인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시골 말투를 쓰는 길쭉하고 깡마른 낸터킷 사람을 일종의 바다의 농사꾼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양키들이 하루 동안 모두 합쳐 죽이는 고래가 영국인 모두가 열 해 동안 합쳐 죽이는 고래보다 많은

것을 보면, 영국 포경선원들의 이 우월함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는 말하기 어려우리라. 그러나 이것은 영국 고래 사냥꾼들의 해롭지 않은 작은 약점이고, 낸터킷 사람은 그것을 그리 마음에 두지 않는다. 아마 자기에게도 약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보듯이, 따로따로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배 가운데 포경선이야말로 사교적일 까닭이 가장 많고, 실제로 사교적이다. 반면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서로의 항적을 가로지르는 어떤 상선들은 서로 알아보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나쳐 가는 일이 잦다. 브로드웨이의 멋쟁이 한 쌍처럼 넓은 바다 위에서 서로 모른 체하며, 어쩌면 그동안 내내 서로의 삭구를 두고 까다롭게 흠을 잡으면서. 군함으로 말하자면, 바다에서 우연히 만나면 먼저 어리석은 절과 굽신거림을 줄줄이 늘어놓고 함기를 그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니, 거기에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난 호의와 형제애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노예선끼리 만나는 경우로 말하자면, 그들은 엄청나게 서두르느라 되도록 빨리 서로에게서 달아나 버린다. 그리고 해적으로 말하자면, 우연히 서로의 엇갈린 뼈 깃발을 엇갈려 지나칠 때 첫 인사는 "해골이 몇 개요?"다. 포경선들이 "몇 배럴이오?" 하고 인사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물음에 한번 대답하고 나면 해적들은 곧장 키를 돌려 갈라선다. 양쪽 다 지옥의 악당들이라 서로의 악당 같은 닮은꼴을 지나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건하고 정직하고 뽐내지 않고 손님을 반기며 사교적이고 허물없는 포경선을 보라! 포경선이 그럭저럭 괜찮은 날씨에 다른 포경선을 만나면 무엇을 하는가? *갬*을 한다. 다른 모든 배에게는 너무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 이름조차 들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어쩌다 그 이름을 듣는다 해도 그들은 씩 웃기만 하고 "물 뿜는 놈들"이니 "지방 끓이는 놈들"이니 하는 장난스러운 소리와 그런 고운 외침을 되풀이할

뿐이다. 모든 상선 선원과 모든 해적과 군함 수병과 노예선 선원이 어째서 포경선을 그토록 경멸하는 감정을 품는지, 이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물음이다. 이를테면 해적의 경우, 나는 그들의 그 직업에 무슨 남다른 영광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 직업은 실로 이따금 보기 드물게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교수대에서만 그렇다. 게다가 사람이 그런 묘한 모양으로 높이 올라가면, 그 높은 위치를 받쳐 줄 제대로 된 바탕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해적이 포경선원보다 자기가 높이 올라 있다고 뽐낼 때, 그 주장에는 딛고 설 단단한 바탕이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갬*이란 무엇인가? 사전의 단을 위아래로 훑느라 집게손가락이 닳아 없어져도 그 낱말은 찾지 못하리라. 존슨 박사는 그런 학식에 이르지 못했다. 노아 웹스터의 방주에도 그 말은 실려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 표현력 있는 낱말은 이제 여러 해 동안 만 오천 명쯤 되는 토박이 양키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쓰여 왔다. 분명히 그 말에는 정의가 필요하고, 사전에 올려야 한다. 그런 뜻에서 내가 학자답게 그 말을 정의해 보겠다.

갬. 명사. *포경선 두 척(또는 그 이상)의 사교적인 만남. 대개 어장에서 이루어진다. 서로 소리쳐 인사를 주고받은 뒤 보트 선원들을 보내 서로 방문하며, 그동안 두 선장은 한 배에, 두 일등 항해사는 다른 배에 머문다.*

갬에 관해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작은 항목이 하나 더 있다. 모든 직업에는 저마다 자잘한 특이점이 있다. 포경업도 그렇다. 해적선이나 군함이나 노예선에서는 선장이 제 보트를 타고 어디론가 저어 갈 때, 늘 고물 자리의 편안한, 때로는 방석까지 깐 자리에 앉고, 화려한 끈과 리본으로 꾸민, 모자 가게에서나 볼 법한 예쁘장한 키 손잡이로 몸소 키를 잡을 때가 많다. 그러나 포경 보트에는 고물에 앉을 자리도, 그런

소파 따위도, 키 손잡이도 전혀 없다. 포경선 선장들이 통풍 걸린 늙은 시의원처럼 특허 의자에 앉아 바퀴를 굴리며 물 위를 돌아다닌다면 실로 좋은 시절이겠다. 그리고 키 손잡이로 말하자면, 포경 보트는 결코 그런 나약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갬을 할 때는 보트 선원 전원이 배를 떠나야 하고, 따라서 보트 키잡이, 곧 작살잡이도 그 무리에 들므로 그 아랫사람이 그때의 키잡이가 되고, 선장은 앉을 자리가 없어 소나무처럼 꼿꼿이 선 채로 방문하러 저어 간다. 그리고 그대는 이 선 선장이 두 배의 뱃전에서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의 눈길이 제게 쏠려 있음을 의식하여, 제 다리를 지킴으로써 제 위엄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 쉬운 일도 아니다. 그의 뒤에는 엄청나게 튀어나온 키잡이 노가 있어 이따금 그의 허리를 치고, 앞에서는 고물 쪽 노가 맞장구치듯 그의 무릎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앞뒤로 완전히 끼여 있어서, 다리를 벌리고 주저앉듯 버티는 것으로만 옆으로 몸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보트가 갑자기 세차게 앞뒤로 기울면 그는 자주 거의 넘어질 지경이 된다. 바탕은 길이가 있어도 그에 걸맞은 너비가 없으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장대 두 개를 벌어진 각으로 세워 보기만 해도 그것들을 세워 둘 수 없다. 게다가 세상의 눈길이 쏠린 뻔한 자리에서, 다리를 벌리고 선 이 선장이 손으로 무언가를 붙잡아 조금이라도 몸을 가누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다. 말하자면 결코 안 될 일이다. 실로 제가 완전히, 가뿐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표시로 그는 대개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러나 대개 아주 크고 무거운 손이므로, 어쩌면 바닥짐 삼아 거기 넣고 다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선장이 보기 드물게 결정적인 한두 순간, 이를테면 갑작스러운 돌풍 때, 가장 가까운 노잡이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죽을힘을 다해

매달린 것으로 알려진 경우가, 그것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제54장 타운호호 이야기

(황금 여관에서 들려준 그대로.)

희망봉과 그 둘레의 온 바다는 큰길의 이름난 네거리와 무척 닮아서, 다른 어느 곳보다 많은 길손을 만난다.

구니호와 말을 주고받고 나서 오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또 한 척의 포경선 타운호호[1]를 만났다. 그 배의 선원은 거의 모두 폴리네시아 사람이었다. 이어진 짧은 갬에서 그 배는 모비 딕에 관한 강렬한 소식을 전해 주었다. 몇몇 사람에게는 이제 흰 고래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타운호호 이야기의 한 사정 때문에 미칠 듯이 높아졌다. 그 사정은 이따금 어떤 사람들에게 닥친다는 이른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기묘하게 거꾸로 내린 일을 흐릿하게나마 그 고래와 얽어 놓은 것 같았다. 이 뒤의 사정은 그에 딸린 일들과 함께, 이제부터 이야기할 비극의 비밀스러운 부분이라 할 만한 것을 이루는데, 에이해브 선장이나 그 항해사들의 귀에는 끝내 들어가지 않았다. 이야기의 그 비밀스러운 부분은 타운호호의 선장 자신도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배의 백인 선원 셋이 한통속으로 지닌 사사로운 재산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 가톨릭에서 하듯 비밀을 지키라는 다짐을 받고 태시테고에게 그것을 털어놓은 모양인데, 이튿날 밤 태시테고가 잠결에 헛소리를 하며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부분을 드러내 버렸으므로, 잠에서 깨어난 그는 나머지를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일이 그것을 모두 알게 된 피쿼드호 선원들에게 너무도 강한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이

일에서 기묘한 섬세함이라고나 할 것에 너무도 휘어잡혔으므로, 그들은 그 비밀을 저희끼리만 간직하여 그것이 피쿼드호 큰돛대 뒤쪽으로는 끝내 새어 나가지 않았다. 이 더 어두운 실을 배에서 드러내 놓고 이야기된 이야기에 제자리를 찾아 짜 넣어, 이제 나는 이 기묘한 일 전체를 길이 남을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내 기분을 위해, 언젠가 리마에서 어느 성인 축일 전야에 황금 여관의 금박 두껍게 입힌 타일 깐 주랑에서 담배를 피우며 빈둥거리던 스페인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던 말투를 그대로 살리겠다. 그 훌륭한 기사들 가운데 젊은 돈 페드로와 돈 세바스티안이 나와 더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따금 사이사이 던진 물음이 있고, 거기에는 그때그때 마땅히 대답했다.

"신사분들, 내가 지금 들려주려는 일들을 처음 알게 되기 두 해쯤 전, 낸터킷의 향유고래 포경선 타운호호는 이 좋은 황금 여관의 처마에서 동쪽으로 그리 여러 날 항해하지 않아도 닿는 곳, 그대들의 이 태평양을 돌고 있었다. 배는 적도 북쪽 어딘가에 있었다. 어느 아침 날마다 하던 대로 펌프를 다루다가, 배의 선창에 여느 때보다 물이 많이 찬 것을 알게 되었다. 신사분들, 그들은 황새치가 배를 찔렀으리라 짐작했다. 그러나 선장은 그 위도에서 드문 행운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믿을 만한 남다른 까닭이 있어서 그곳을 떠나기를 몹시 꺼렸고, 그때는 새는 곳이 전혀 위험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으므로(실로 꽤 거친 날씨에 선창을 될 수 있는 대로 깊이까지 뒤졌지만 새는 곳을 찾지 못했는데도), 배는 여전히 항해를 이어 갔고, 선원들은 넉넉하고 느긋한 간격을 두고 펌프를 저었다. 그러나 행운은 오지 않았다. 또 여러 날이 지났고, 새는 곳은 아직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눈에 띄게 늘었다. 어찌나 늘었던지 이제 얼마쯤 놀란 선장은 돛을 모두 올리고 섬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항구로 향했다. 거기서 선체를 기울여 수리할 작정이었다.

"앞에 놓인 뱃길이 짧지 않았지만, 아주 흔한 운만 따라 준다면 선장은 배가 가는 길에 가라앉으리라고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펌프가 가장 좋은 것이었고, 서른여섯 명의 선원이 때때로 교대해 가며 펌프를 저으면 새는 곳이 두 배로 늘어난다 해도 배의 물을 쉽게 빼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뱃길 거의 내내 순풍이 불어 주었으므로, 마서스비니어드 출신 항해사 래드니의 잔인한 횡포와, 버펄로에서 온 호수 사람이자 무법자인 스틸킬트의 몹시 약 오른 복수가 없었더라면, 타운호호는 아주 작은 불상사도 겪지 않고 거의 틀림없이 무사하게 항구에 닿았으리라.

"'호수 사람! 버펄로! 실례지만, 호수 사람이란 무엇이고 버펄로는 어디 있소?' 돈 세바스티안이 흔들리는 풀 거적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우리 이리호의 동쪽 기슭이오, 돈 세바스티안. 그러나 실례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그 모든 이야기는 곧 더 듣게 될 것이오. 그런데 신사분들, 이 호수 사람은 우리 아메리카의, 뭍에 갇힌 한복판에서 자랐는데도, 그대들의 오래된 카야오에서 먼 마닐라로 떠난 어떤 배에도 못지않게 크고 튼튼한 가로돛 쌍돛배와 세 돛대 배를 타며, 흔히 너른 대양과 연관 짓는, 땅을 가리지 않고 떠도는 약탈자의 온갖 기질 속에서 길러졌다. 우리의 저 거대한 민물 바다들, 이리호, 온타리오호, 휴런호, 슈피리어호, 미시간호는 서로 흘러 이어진 그 전체로 보면 대양 같은 광활함을 지니고, 대양의 가장 고귀한 특징을 많이 지니며, 그 둘레에 늘어선 갖가지 종족과 풍토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호수들은 폴리네시아의 바다처럼 낭만적인 섬들로 된 둥근 군도를 품고 있다. 대서양처럼 대체로 서로 대조되는 두 큰 나라가 기슭을 이루고 있다. 동부에서 오는 우리의 숱한 영토 식민지들로 이르는 긴 바닷길을 내어 주는데, 그 식민지들은 호숫가 둘레에 점점이 박혀 있다. 여기저기

포대와 높은 매키노의 염소처럼 바위 위에 올라앉은 대포들이 호수를 노려본다. 호수들은 해전 승리의 함대 포성을 들었다. 이따금 그 모래톱을 사나운 야만인들에게 내주는데, 그들의 붉게 칠한 얼굴이 모피 천막 속에서 번득인다. 몇 리그, 또 몇 리그에 걸쳐 사람이 들어가 본 적 없는 오래된 숲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서 앙상한 소나무들은 고딕 족보에 빽빽이 늘어선 왕들처럼 서 있다. 그 숲은 아프리카의 사나운 맹수 같은 짐승들과, 수출된 모피가 타타르 황제들의 옷이 되는 비단결 같은 짐승들을 품고 있다. 호수들은 버펄로와 클리블랜드의 포장된 도시들도, 위네바고족의 마을들도 비춘다. 돛을 다 갖춘 상선도, 나라의 무장 순양함도, 증기선도, 너도밤나무 카누도 똑같이 띄운다. 짠 물결을 매질하는 어떤 바람에도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북풍의 신이 부는 듯한, 돛대를 꺾는 돌풍이 호수를 휩쓴다. 호수들은 난파가 무엇인지 안다. 아무리 내륙이라 해도 뭍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명 지르는 선원들을 모두 태운 숱한 한밤의 배를 삼켜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신사분들, 스틸킬트는 내륙 사람이지만 사나운 대양에서 태어나 사나운 대양에서 자랐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대담한 뱃사람이었다. 그리고 래드니로 말하자면, 어릴 적에는 외로운 낸터킷 바닷가에 누워 어머니 같은 바다의 젖을 먹었을지 모르고, 자라서는 오랫동안 우리의 엄격한 대서양과 그대들의 사색하는 태평양을 누볐지만, 그는 사슴뿔 자루 보위 칼이 판치는 위도에서 갓 나온 오지의 뱃사람 못지않게 앙심이 깊고 사람들과 다투기를 일삼았다. 그래도 이 낸터킷 사람은 마음씨 좋은 구석이 얼마쯤 있는 사람이었고, 이 호수 사람은 실로 일종의 악마이기는 했지만, 굽힘 없는 단호함으로, 그것도 가장 비천한 노예의 권리인, 사람을 사람으로 알아보는 흔한 예의로만 누그러뜨린 단호함으로 다루면, 그렇게만 다루면 이 스틸킬트는 오랫동안 해롭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지낼 수 있는 뱃사람이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냈다. 그러나 래드니는 파멸하고 미치도록 운명 지어져 있었고, 스틸킬트는…… 그러나 신사분들, 곧 듣게 될 것이오.

"배가 뱃머리를 섬의 항구로 돌린 지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 뒤, 타운호호의 새는 곳이 다시 늘어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날마다 펌프를 한 시간 남짓 저으면 될 만큼이었다. 이를테면 우리의 대서양처럼 질서 잡히고 문명화된 대양에서는 그 대양을 건너는 내내 펌프를 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선장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다만 고요하고 졸음 오는 밤에 갑판 당직 항해사가 혹시 그 점에 관한 제 의무를 잊는다면, 그와 동료 선원들은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모두 고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테니까. 신사분들, 그대들에게서 멀리 서쪽에 있는 외롭고 사나운 바다에서도, 배들이 상당히 긴 항해 동안 펌프 손잡이를 일제히 덜그럭거리며 계속 젓는 것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니다. 말하자면 그 항로가 그럭저럭 닿을 수 있는 해안을 따라 나 있거나 다른 그럴듯한 피난처가 있을 때 그렇다. 새는 배가 그 바다에서 아주 외딴 곳, 정말로 뭍이 없는 위도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선장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타운호호도 대체로 그러했다. 그래서 새는 곳이 다시 늘어나는 것이 드러났을 때, 실로 선원 몇몇이, 특히 항해사 래드니가 얼마쯤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윗돛들을 한껏 올리고 아딧줄을 새로 바짝 당겨 어떻게든 바람을 가득 받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신사분들, 이 래드니는 내 생각에 그대들이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뭍이나 바다의 어떤 겁 없고 생각 없는 생물 못지않게 겁쟁이와는 거리가 멀었고, 제 몸을 두고 신경질적으로 걱정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었다. 그러므로 그가 배의 안전을 두고 이렇게 걱정을 드러내자, 선원 몇몇은 그것이 그저 그가 그 배의 공동 선주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펌프를 저을 때, 이 점을 두고 그들 사이에 은근한 장난이 적잖이

오갔다. 그들의 발은 줄곧 찰랑이는 맑은 물에 잠겨 있었다. 신사분들, 어느 산의 샘물처럼 맑은 그 물은 펌프에서 보글보글 솟아 갑판을 가로질러 흘러가, 바람 불어 가는 쪽 배수구로 꾸준히 쏟아져 나갔다.

"그런데 그대들도 잘 알듯이, 물 위든 어디든 이 관습에 매인 우리 세상에서는, 동료 인간들 위에 지휘하는 자리를 얻은 사람이 그들 가운데 하나가 사내다운 자존심 전반에서 자기보다 뚜렷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그 사람에게 이길 수 없는 혐오와 앙심을 품고, 기회만 있으면 그 아랫사람의 탑을 허물어 가루로 만들어 작은 먼지 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다. 신사분들, 내 이 생각이야 어떻든, 어쨌든 스틸킬트는 키 크고 고귀한 짐승이었다. 로마 사람 같은 머리에, 그대들의 마지막 부왕이 타던 콧김 뿜는 군마의 술 달린 마의(馬衣) 같은, 물결치는 금빛 수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사분들, 그의 안에는 그가 샤를마뉴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스틸킬트를 샤를마뉴로 만들었을 머리와 심장과 영혼이 있었다. 그러나 항해사 래드니는 노새처럼 못생겼다. 그러면서도 노새만큼 억세고 고집 세고 심술궂었다. 그는 스틸킬트를 좋아하지 않았고, 스틸킬트도 그것을 알았다.

"다른 이들과 함께 펌프를 젓다가 항해사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본 호수 사람은 그를 못 본 체했지만, 기죽지 않고 쾌활한 농담을 이어 갔다.

"'그래, 그래, 유쾌한 친구들, 이거 활기찬 물샐 구멍이구먼. 누가 깡통 좀 대 봐라, 맛 좀 보자. 맙소사, 병에 담아 둘 만하다! 내 말 들어 봐, 얘들아, 래드 영감의 투자금은 이걸로 날아가겠구나! 영감은 배에서 제 몫만큼 잘라 내서 고향으로 끌고 가는 게 낫겠다. 사실은 말이다, 얘들아, 그 황새치는 일을 시작만 했을 뿐이야. 그놈이 배 목수 패거리를, 톱가오리며 쥐치며 뭐며 데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 패거리가

몽땅 배 밑바닥을 자르고 베느라 바쁘다. 개량 공사를 하는 모양이지. 래드 영감이 지금 여기 있으면 바다에 뛰어들어 놈들을 흩어 버리라고 말해 줄 텐데. 놈들이 영감 재산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해 줄 수 있지. 하지만 영감은 순진한 늙은이야, 래드는. 게다가 미남이고. 얘들아, 듣자 하니 영감의 나머지 재산은 몽땅 거울에 투자했다더라. 영감이 나 같은 가련한 녀석한테 자기 코의 본을 떠 줄지 모르겠구나.'

"'제기랄! 저 펌프는 왜 멈추는 거냐?' 래드니가 선원들의 이야기를 못 들은 체하며 고함쳤다. '힘껏 두들겨 대라!'

"'예, 알겠습니다.' 스틸킬트가 귀뚜라미처럼 쾌활하게 말했다. '힘차게, 얘들아, 이제 힘차게!' 그러자 펌프가 소방 펌프 쉰 대처럼 덜그럭거렸다. 선원들은 모자를 벗어 던지고 덤벼들었고, 머지않아 생명의 마지막 기운까지 한껏 끌어올렸음을 알리는 저 독특한 헐떡임이 폐에서 들려왔다.

"마침내 무리와 함께 펌프를 떠난 호수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앞쪽으로 가서 양묘기 위에 걸터앉았다. 얼굴은 불처럼 붉었고 눈은 핏발이 섰으며,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고 있었다. 그런데 신사분들, 몸이 그렇게 극도로 달아오른 그런 사람에게 래드니가 참견하도록 홀린 것이 어떤 속임수 쓰는 악마였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일어났다. 견딜 수 없이 거들먹거리며 갑판을 성큼성큼 걸어온 항해사는 그에게 비를 가져와 갑판을 쓸고, 삽도 가져와 돼지를 풀어 놓아 기르는 바람에 생긴 더러운 것들을 치우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신사분들, 바다에서 배의 갑판을 쓰는 일은 사나운 강풍이 부는 때 말고는 늘 저녁마다 꼬박꼬박 하는 집안일이다. 실제로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도 그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신사분들, 바다의 관습은 그만큼 굽힐 줄 모르고, 뱃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만큼 깔끔한 것을 좋아한다. 그들 가운데에는 먼저 얼굴을 씻지 않고서는 기꺼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느 배에서나 이 비질은 배에 소년들이 있다면 소년들의 정해진 몫이다. 게다가 타운호호에서 무리로 나뉘어 번갈아 펌프를 저은 것은 힘센 사람들이었고, 그들 가운데 가장 튼튼한 선원인 스틸킬트는 정해진 대로 한 무리의 우두머리로 지명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의 동료들이 그렇듯이 그도 참된 뱃일과 관계없는 하찮은 일에서는 벗어나 있어야 마땅했다. 이런 자세한 사정을 모두 말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일이 정확히 어떤 형편이었는지 그대들이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다. 삽에 관한 명령은, 래드니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만큼이나 뻔히 스틸킬트를 쏘아붙이고 모욕하려는 뜻을 담고 있었다. 포경선에서 선원 노릇을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항해사가 명령을 내렸을 때 호수 사람은 이 모든 것과 틀림없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온전히 알아들었다. 그러나 그가 잠시 가만히 앉아, 항해사의 악의에 찬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그의 안에 쌓여 있는 화약 통 더미와 그쪽으로 소리 없이 타들어 가는 도화선을 알아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미 화가 난 존재 안에서 더 깊은 격정을 휘저어 일으키기를 꺼리는 저 기묘한 참음과 내키지 않음, 참으로 용감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느낀다면 가장 강하게 느끼는 그 꺼림, 신사분들, 이 이름 없는 유령 같은 감정이 스틸킬트에게 스며들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빠져 있던 몸의 기진함 때문에 조금 끊기기만 했을 뿐 여느 말투로, 갑판 쓰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니니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삽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늘 비질을 하는 소년 셋을 가리켰다. 그들은 펌프에 배치되지 않아 온종일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에 래드니는 욕설로 대답하며, 더없이 고압적이고 난폭하게 제 명령을 무조건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통에서 낚아챈 통장이의 망치를 치켜들고 아직 앉아 있는 호수 사람에게 다가갔다.

"펌프를 발작하듯 젓느라 달아오르고 짜증이 나 있던 터라, 처음의 그 이름 없는 참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땀에 젖은 스틸킬트는 항해사의 이런 태도를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어떻게든 여전히 제 안의 큰불을 억누르며 그는 말없이 고집스럽게 자리에 뿌리박은 듯 앉아 있었다. 마침내 화가 치민 래드니가 그의 얼굴 몇 인치 앞에서 망치를 흔들며 시키는 대로 하라고 사납게 명령할 때까지.

"스틸킬트는 일어나, 위협하는 망치를 든 항해사가 끈질기게 뒤따르는 가운데 양묘기를 돌아 천천히 물러나면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신중하게 되풀이했다. 그러나 자기의 참음이 조금도 효과가 없음을 보자, 그는 비튼 손으로 무시무시하고 말할 수 없는 몸짓을 해 보이며 그 어리석고 홀린 사내에게 물러서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양묘기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다. 그때 마침내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고, 이제 제 성미에 걸맞을 만큼은 참았다고 생각한 호수 사람이 승강구 덮개 위에서 멈춰 서서 항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래드니 씨, 나는 당신 명령을 따르지 않겠소. 그 망치를 치우시오. 안 그러면 몸조심하시오.' 그러나 운명이 정해진 항해사는 호수 사람이 붙박인 듯 선 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이제 그의 이에서 1인치도 안 되는 곳에서 무거운 망치를 흔들었다.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저주를 줄줄이 되풀이했다. 스틸킬트는 1인치의 천분의 일도 물러서지 않고, 움찔하지 않는 눈길의 단검으로 그의 눈을 찌르며, 오른손을 뒤로 돌려 움켜쥐고 슬금슬금 뒤로 당기면서, 망치가 제 뺨을 스치기만 해도 자기가(스틸킬트가) 그를 죽이겠다고 박해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신사분들, 그 바보는 신들에게서 도살당할 낙인이 찍혀 있었다. 곧바로

망치가 뺨에 닿았다. 다음 순간 항해사의 아래턱이 머릿속으로 박살났다. 그는 고래처럼 피를 뿜으며 승강구 덮개 위에 쓰러졌다.

"외침이 고물에 닿기도 전에 스틸킬트는 높은 곳으로 뻗은 뒷버팀줄 하나를 흔들고 있었다. 그 위쪽에서 그의 동료 둘이 돛대 꼭대기 당직을 서고 있었다. 둘 다 운하 사람이었다.

"'운하 사람!' 돈 페드로가 외쳤다. '우리 항구에서 포경선은 많이 보았지만 당신네 운하 사람이라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소. 실례지만, 그게 누구고 무엇이오?'

"'운하 사람이란, 돈 페드로, 우리의 거대한 이리 운하에 딸린 뱃사공들이오. 그 운하 이야기는 들어 보셨을 거요.'

"'아니오, 세뇨르. 이 언저리, 이 따분하고 따뜻하고 더없이 게으르고 대물림하는 땅에서는 당신네 활기찬 북쪽에 관해 아는 게 거의 없소.'

"'그렇소? 그럼 돈 페드로, 내 잔을 다시 채워 주시오. 그대의 치차는 아주 훌륭하오. 더 이어 가기 전에 우리 운하 사람이 어떤 자들인지 말해 주겠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를 곁에서 비춰 줄지도 모르니까.'

"신사분들, 360마일에 걸쳐, 뉴욕주를 온통 가로질러, 사람 많은 여러 도시와 더없이 번창하는 마을들을 지나, 길고 음산하며 사람 살지 않는 늪과 기름지기로 견줄 데 없는 풍요롭게 일군 밭을 지나, 당구장과 술집 곁을 지나, 거대한 숲의 지성소를 지나, 인디언의 강 위에 놓인 로마식 아치를 지나, 햇빛과 그늘을 지나, 행복한 마음들과 부서진 마음들 곁을 지나, 저 고귀한 모호크 지방의 넓고 대조적인 온갖 풍경을 지나, 그리고 특히 첨탑이 거의 이정표처럼 서 있는 눈처럼 흰 예배당들의 줄 곁을 지나, 베네치아처럼 타락하고 흔히 법을 모르는 삶의 끊임없는 물줄기 하나가 흐른다. 신사분들, 거기에 그대들의 진짜 아샨티족이 있다. 거기서 그대들의 이교도들이 울부짖는다. 그대들이 그들을 어디서 발견하든, 바로 이웃에, 교회가 길게 드리운 그림자 아래, 교회가

아늑하게 감싸 주는 바람막이 아래에서. 어떤 묘한 숙명 때문인지, 수도의 약탈자들이 늘 법원 둘레에 진을 친다고 흔히 말하듯이, 신사분들, 죄인들은 가장 거룩한 곳 가까이에 가장 많이 몰려 있으니까.

"'저기 지나가는 게 수도사요?' 돈 페드로가 익살스럽게 걱정하는 척하며 붐비는 광장을 내려다보고 말했다.

"'우리 북쪽 친구에게는 다행이게도, 이사벨 여왕의 종교 재판도 리마에서는 기운이 빠졌소.' 돈 세바스티안이 웃었다. '계속하시오, 세뇨르.'

"'잠깐! 실례하오!' 일행 가운데 다른 사람이 외쳤다. '우리 리마 사람들을 모두 대신해서 뱃사람 양반에게 말하고 싶을 뿐이오. 당신이 그 타락의 비유에서 먼 베네치아 대신 지금의 리마를 쓰지 않은 그 섬세함을 우리는 결코 못 본 체하지 않았소. 오! 고개 숙이며 놀란 얼굴 하지 마시오. 이 해안 일대에 다 퍼진 속담을 알지 않소. 「리마처럼 타락했다.」 그건 당신 말을 뒷받침해 줄 뿐이오. 교회가 당구대보다 많고 늘 열려 있는데, 「리마처럼 타락했다.」 베네치아도 그렇소. 나는 거기 가 보았소. 축복받은 복음서 저자 성 마르코의 거룩한 도시! 성 도미니크여, 그 도시를 정화하소서! 잔을 주시오! 고맙소. 여기 다시 채우오. 이제 당신이 다시 따르시오.'

"신사분들, 운하 사람은 제 일터에서 거침없이 그려 보이면 훌륭한 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만큼 넘치도록, 그림처럼 사악하다. 그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처럼 여러 날 여러 날 푸른 잔디 깔리고 꽃 핀 제나일강을 따라 게으르게 떠가며, 뺨 붉은 제 클레오파트라와 드러내 놓고 희롱하고, 햇볕 내리쬐는 갑판 위에서 살구빛 허벅지를 익힌다. 그러나 뭍에 오르면 이 모든 나약함은 깨끗이 사라진다. 운하 사람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걸치는 산적 같은 차림새, 챙을 늘어뜨리고 화려한 리본을 단 모자가 그의 당당한 생김새를 알려 준다. 그가 떠 지나가는

마을들의 미소 짓는 순진함에게 그는 공포다. 도시에서도 그의 거무스름한 얼굴과 대담한 활보를 피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한때 바로 그 운하에서 떠돌이였던 나는 이런 운하 사람 하나에게서 친절을 받은 적이 있다. 진심으로 그에게 고마워하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나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지닌, 흔히 가장 으뜸가는 미덕 가운데 하나는 때로 부자를 털 때만큼이나 곤경에 처한 가난한 나그네를 도울 때도 억센 팔을 쓴다는 것이다. 요컨대, 신사분들, 이 운하 생활이 얼마나 거친지는 이것으로 똑똑히 드러난다. 우리의 거친 포경업에는 그 생활을 가장 완벽하게 마친 졸업생들이 아주 많고, 시드니 사람들 말고는 우리 포경선 선장들이 그만큼 믿지 않는 인간 족속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하를 따라 태어난 우리 시골 소년과 젊은이 수천 명에게, 대운하의 수습 생활이 기독교도의 밀밭에서 조용히 거두어들이는 일과 가장 야만스러운 바다의 물을 무모하게 갈아엎는 일 사이의 유일한 건널목이 된다는 것도, 이 일의 기묘함을 조금도 덜어 주지 않는다.

"'알겠소! 알겠소!' 돈 페드로가 성급하게 외치다가 은빛 주름 장식에 치차를 엎질렀다. '여행할 필요가 없구려! 온 세상이 하나의 리마요. 나는 당신네 온화한 북쪽에서는 사람들이 산처럼 차갑고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건 그렇고, 이야기를.'

"신사분들, 나는 호수 사람이 뒷버팀줄을 흔든 데서 이야기를 멈추었다. 그가 그렇게 하자마자 하급 항해사 셋과 작살잡이 넷이 그를 에워싸고 모두 그를 갑판에 밀어붙였다. 그러나 불길한 혜성처럼 밧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온 두 운하 사람이 그 난리 속으로 뛰어들어, 제 사람을 앞갑판 선원실 쪽으로 끌어내려 했다. 다른 선원들도 그들과 함께 이 일에 끼어들었고, 뒤엉킨 소동이 벌어졌다. 그사이 위험에서 비켜서 있던 용감한 선장은 고래 찌르는 장창을 들고 깡충깡충 뛰며,

항해사들에게 저 흉악한 악당을 붙잡아 뒷갑판으로 몰아 오라고 외쳤다. 이따금 그는 빙빙 도는 소동의 가장자리까지 바싹 달려가 장창으로 그 한복판을 쑤시며 제 분노의 대상을 찔러 내려 했다. 그러나 스틸킬트와 그의 무법자들은 그들 모두에게 버거웠다. 그들은 앞갑판에 이르는 데 성공했고, 거기서 커다란 통 서너 개를 서둘러 양묘기와 나란히 굴려 놓고는, 이 바다의 파리 사람들은 그 바리케이드 뒤에 진을 쳤다.

"'거기서 나와라, 이 해적 놈들아!' 선장이 고함쳤다. 이제 그는 급사가 막 가져다준 권총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거기서 나와라, 이 멱따는 놈들아!'

"스틸킬트는 바리케이드 위로 뛰어올라 그 위를 성큼성큼 오가며 권총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을 해 보라고 맞섰다. 그러나 자기가 (스틸킬트가) 죽으면 그것이 선원 모두가 살인의 반란을 일으키는 신호가 되리라는 것을 선장에게 똑똑히 알렸다.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 될까 봐 속으로 두려워한 선장은 조금 물러섰지만, 그래도 반란자들에게 당장 제 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소?' 그들의 우두머리가 따졌다.

"'일로 돌아가라! 일로 돌아가! 나는 약속 따위 안 한다. 제 일로 가! 이런 때 일을 내팽개쳐서 배를 가라앉히고 싶으냐? 일로 돌아가!'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 번 권총을 들었다.

"'배를 가라앉혀?' 스틸킬트가 외쳤다. '그래, 가라앉으라지. 당신이 우리에게 밧줄 한 가닥도 들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일로 돌아가지 않소. 어떠냐, 얘들아?' 그는 동료들에게 몸을 돌렸다. 사나운 환호가 그들의 대답이었다.

"호수 사람은 이제 바리케이드를 순찰하듯 오가며 내내 선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이런 말들을 툭툭 내뱉었다. '우리 잘못이 아니오.

우리가 바란 게 아니오. 망치를 치우라고 그에게 말했소. 그건 소년들 일이었소. 그 사람은 진작 나를 알았어야 했소. 버펄로를 찌르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소. 그 빌어먹을 턱에 부딪혀서 여기 손가락이 부러진 것 같소. 얘들아, 저 아래 앞갑판 선원실에 고기 다지는 칼들 있지 않냐? 그 지렛대들 잘 챙겨라, 얘들아. 선장, 맹세코, 몸조심하시오. 한마디만 하시오. 바보짓 하지 마시오. 다 잊어버리시오. 우리는 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소. 우리를 점잖게 대해 주면 우리는 당신 사람이오. 하지만 매질은 당하지 않겠소.'

'"일로 돌아가라! 나는 약속 안 한다, 일로 돌아가란 말이다!'

'"자, 보시오.' 호수 사람이 선장 쪽으로 팔을 내뻗으며 외쳤다. '여기 우리 가운데 몇은(나도 그 가운데 하나요) 이번 항해만 하기로 하고 배를 탔소, 알겠소? 당신도 잘 알듯이 선장, 우리는 닻을 내리자마자 하선을 요구할 수 있소. 그러니 우리는 소동을 바라지 않소. 그건 우리에게 이롭지 않소.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고 싶소. 일할 준비는 돼 있소. 하지만 매질은 당하지 않겠소.'

'"일로 돌아가라!' 선장이 고함쳤다.

"스틸킬트는 잠시 둘레를 훑어보고 나서 말했다. '이제 분명히 말하겠소, 선장. 당신을 죽이고 그런 비열한 악당 때문에 교수형을 당하느니, 당신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당신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겠소.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매질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는 손가락 하나 놀리지 않겠소.'

'"그럼 앞갑판 선원실로 내려가라. 다들 내려가. 진저리가 날 때까지 거기 가둬 두겠다. 내려가.'

'"그럴까?' 우두머리가 제 사람들에게 외쳤다. 대부분은 반대했다. 그러나 마침내 스틸킬트를 따라, 그보다 먼저 그들의 어두운 소굴로 내려가, 곰들이 동굴로 들어가듯 으르렁거리며 사라졌다.

"호수 사람의 맨머리가 막 갑판 판자와 같은 높이에 이르렀을 때, 선장과 그의 무리가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어 재빨리 승강구 미닫이를 덮어 당기고는 여럿이 손을 그 위에 얹어 누르며, 승강구 계단에 딸린 무거운 놋쇠 자물쇠를 가져오라고 급사를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고는 미닫이를 조금 열고 선장이 그 틈으로 무언가를 속삭이고는, 그것을 닫고 그들에게 열쇠를 채웠다. 모두 열 명이었다. 갑판에는 지금까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스무 명 남짓이 남았다.

"밤새 모든 항해사가 앞뒤로 눈을 부릅뜨고 당직을 섰다. 특히 앞갑판 선원실 승강구와 앞쪽 해치 둘레를 지켰다. 반란자들이 아래의 칸막이벽을 뚫고 그 해치로 나오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둠의 시간은 평화롭게 지나갔다. 아직 제 일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펌프를 힘들여 저었고, 그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음울한 밤 내내 이따금 배 안에 음산하게 울렸다.

"해가 뜨자 선장은 앞쪽으로 가서 갑판을 두드리며 갇힌 자들에게 일하러 나오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거절했다. 그러자 물을 내려보내고 비스킷 두어 줌을 그 뒤에 던져 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그들에게 열쇠를 채워 주머니에 넣고 선장은 뒷갑판으로 돌아갔다. 사흘 동안 날마다 두 번씩 이 일이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나흘째 아침, 늘 하던 대로 부르자 어지러운 말다툼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몸싸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네 사람이 앞갑판 선원실에서 뛰쳐나와 일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숨 막히는 고약한 공기와 굶주린 식사가, 어쩌면 끝내 받을 응징에 대한 얼마쯤의 두려움과 합쳐져, 그들을 무조건 항복하게 했다. 이에 대담해진 선장은 나머지에게 제 요구를 되풀이했지만, 스틸킬트는 지껄임을 그치고 제자리로 꺼지라고 무시무시하게 넌지시 외쳐 올려 보냈다. 닷새째

아침에는 또 다른 반란자 셋이 그들을 붙잡으려는 아래의 필사적인 팔들을 뿌리치고 바깥 공기 속으로 뛰쳐나왔다. 셋만 남았다.

"'이제 일하러 나오는 게 어떠냐?' 선장이 무정하게 비웃으며 말했다.

"'다시 가두기나 하시오!' 스틸킬트가 외쳤다.

"'오, 물론이지.' 선장이 말했다. 그리고 열쇠가 철컥 돌아갔다.

"신사분들, 바로 이때였다. 예전 동료 일곱이 떨어져 나간 데 화가 치밀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른 그 조롱하는 목소리에 찔리고, 절망의 창자만큼 캄캄한 곳에 오래 묻혀 있느라 미칠 지경이 된 스틸킬트는, 그때 지금까지 겉보기에는 자기와 한마음이던 두 운하 사람에게, 다음번에 수비대가 부르러 올 때 굴에서 뛰쳐나가, 날카로운 고기 다지는 칼(양 끝에 자루가 달린 길고 초승달 모양의 무거운 도구)을 들고 이물 기움 돛대에서 고물 난간까지 미친 듯이 날뛰다가, 절망의 악마 같은 힘으로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배를 빼앗자고 제안했다. 자기로서는, 그들이 함께하든 말든 그렇게 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그 소굴에서 보내는 밤은 그것이 마지막이 될 터였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은 그 계획에 아무 반대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일이든 다른 어떤 미친 짓이든, 요컨대 항복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맹세했다. 게다가 그들은 저마다 돌진할 때가 오면 자기가 갑판에 첫 번째로 나가겠다고 우겼다. 그러나 그들의 우두머리는 그만큼 사납게 그것에 반대하며 그 첫 자리를 자기 몫으로 남겨 두었다. 특히 두 동료가 그 일에서 서로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았고, 사다리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오를 수 없으니 두 사람이 다 첫 번째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사분들, 여기서 이 악당들의 비열한 속임수가 드러나야 하겠다.

"우두머리의 미친 계획을 듣자, 그들은 저마다 제 영혼 속에서 갑자기 같은 배신을 떠올린 것 같았다. 말하자면 맨 먼저 뛰쳐나가, 열 명

가운데 마지막이지만 세 명 가운데 첫 번째로 항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행동이 받을 만한 작은 사면의 기회라도 얻어 두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스틸킬트가 끝까지 그들을 이끌겠다는 결심을 알리자, 그들은 어떤 미묘한 악의 화학 작용으로 그때까지 감추어 두었던 저마다의 배신을 한데 섞었다. 그리고 우두머리가 졸음에 빠지자 세 문장으로 서로에게 말로 제 영혼을 열어 보였고, 잠든 자를 밧줄로 묶고 밧줄로 재갈을 물렸으며, 한밤중에 선장을 부르며 비명을 질렀다.

"살인이 닥쳤다고 생각하고 어둠 속에서 피 냄새를 맡으며, 선장과 무장한 항해사들과 작살잡이들이 모두 앞갑판 선원실로 달려갔다. 몇 분 뒤 승강구가 열렸고, 손발이 묶인 채 아직도 몸부림치는 우두머리를 배신한 동지들이 바깥 공기 속으로 밀어 올렸다. 그들은 곧바로 살인할 기세가 완전히 무르익은 자를 붙잡았다는 영예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멱살을 잡혀 죽은 소처럼 갑판을 따라 끌려갔다. 그리고 나란히 고깃덩이 셋처럼 뒷돛대 삭구에 매달렸고, 아침까지 거기 매달려 있었다. '빌어먹을 놈들,' 선장이 그들 앞을 오가며 외쳤다. '독수리도 너희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 악당들아!'

"해가 뜨자 그는 모든 선원을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반란을 일으킨 자들과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을 갈라 세우고, 앞의 무리에게 너희를 모두 돌아가며 매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말했다. 대체로 보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정의가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때맞추어 항복한 것을 생각해 견책만 하고 놓아주겠다고 했고, 그에 따라 쌍스러운 말로 견책을 내렸다.

"'그러나 너희는, 이 썩은 고기 같은 악당들아,' 그는 삭구에 매달린 세 사람에게 몸을 돌렸다. '너희는 다져서 기름 가마솥에 넣어 주마.' 그러고는 밧줄을 움켜쥐고 두 배신자의 등을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마침내 그들은 더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도둑을 그린 그림처럼 맥없이 고개를 옆으로 떨어뜨렸다.

"'너희 때문에 손목을 삐었다!' 마침내 그가 외쳤다. '하지만 항복하려 들지 않은 너, 이 잘난 싸움닭, 너한테 쓸 밧줄은 아직 넉넉히 남았다. 저놈 입에서 재갈을 빼라. 저놈이 제 변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보자.'

"지친 반란자는 잠시 굳은 턱을 떨며 움직이더니, 괴롭게 고개를 비틀어 돌리며 쉿 하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내 말은 이거요. 잘 새겨 두시오. 나를 매질하면 당신을 죽이겠소!'

"'그래? 그럼 네가 나를 얼마나 겁주는지 보자.' 그러고는 선장이 치려고 밧줄을 뒤로 당겼다.

"'안 하는 게 좋을 거요.' 호수 사람이 쉿쉿거렸다.

"'하지만 해야겠다.' 그리고 밧줄이 치려고 다시 한 번 뒤로 당겨졌다.

"그때 스틸킬트가 선장 말고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무언가를 쉿 하고 내뱉었다. 그러자 선장은, 모든 선원이 놀랄 만큼, 흠칫 물러나 갑판을 두세 번 빠르게 오가더니 갑자기 밧줄을 내던지며 말했다. '안 하겠다. 놓아줘라. 끌어내려라. 들리느냐?'

"그러나 하급 항해사들이 그 명령을 따르려고 서두르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은 창백한 사람이 그들을 막아섰다. 일등 항해사 래드니였다. 얻어맞은 뒤로 그는 줄곧 제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갑판의 소동을 듣고 기어 나와, 지금까지 그 장면을 다 지켜보았다. 입의 상태가 그래서 그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선장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는* 할 뜻도 힘도 있다고 무언가 웅얼거리며 밧줄을 낚아채고 묶인 원수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겁쟁이요!' 호수 사람이 쉿쉿거렸다.

"'그래, 겁쟁이다. 하지만 이거나 받아라.' 항해사가 막 내리치려는 순간 또 한 번 쉿 하는 소리가 그의 치켜든 팔을 멈추게 했다. 그는 멈칫했다. 그러고는 더 멈칫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었든 스틸킬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지켰다. 그 뒤 세 사람은 끌어내려졌고, 모든 선원이 일로 돌아갔으며, 시무룩한 선원들이 뚱하게 젓는 가운데 쇠 펌프는 전처럼 덜그럭거렸다.

"그날 어둠이 내린 직후, 한 당직조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앞갑판 선원실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떨고 있는 두 배신자가 뛰어 올라와 선장실 문에 매달리며, 감히 선원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고 말했다. 애원도 주먹질도 발길질도 그들을 도로 몰아낼 수 없었으므로, 그들의 청대로 목숨을 건지게 배 밑 고물 칸에 내려 두었다. 그래도 나머지 사이에서는 반란의 기미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주로 스틸킬트의 부추김으로, 그들은 더없이 엄격하게 평온을 지키고, 끝까지 모든 명령에 따르고, 배가 항구에 닿으면 무리 지어 배를 버리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그러나 항해를 되도록 빨리 끝내려고 그들은 모두 또 한 가지에 합의했다. 말하자면 고래가 보이더라도 외쳐 알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새는 곳이 있는데도, 그 밖의 온갖 위험이 있는데도, 타운호호는 여전히 돛대 꼭대기에 망꾼을 두었고, 그 선장은 배가 처음 어장에 닿은 날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고래를 잡으러 기꺼이 보트를 내릴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해사 래드니도 그만큼 기꺼이 침상을 보트와 바꾸어, 붕대 감은 입으로 고래의 살아 있는 턱에 죽음의 재갈을 물리려 할 터였다.

"그러나 호수 사람은 선원들을 꾀어 이렇게 수동적으로 처신하게 만들면서도, 제 심장의 심실을 찌른 그 사내에게 할 자신의 정당하고 사사로운 복수에 관해서는 (적어도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는) 속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는 일등 항해사 래드니의 당직조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그 홀린 사내는 제 파멸을 맞으러 반 넘게 달려 나가려는 듯, 삭구에서 그 장면이 벌어진 뒤 선장의 분명한 충고를 거스르고 밤에 다시 제 당직조를 지휘하겠다고 우겼다. 이것과 한두 가지 다른 정황을 바탕으로 스틸킬트는 차근차근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밤 동안 래드니는 뱃사람답지 않게 뒷갑판 뱃전에 걸터앉아, 거기 뱃전보다 조금 높이 매달아 올린 보트의 가장자리에 팔을 기대는 버릇이 있었다. 그런 자세로 그가 이따금 조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었다. 보트와 배 사이에는 꽤 넓은 틈이 있었고, 그 틈 아래는 바다였다. 스틸킬트는 시간을 따져 보고, 자기가 배신당한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두 시에 다음 키잡이 차례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느긋하게 그사이를 이용해, 아래에서 쉬는 당직 때 무언가를 아주 정성 들여 땋았다.

"'거기서 뭘 만드는 거냐?' 한 동료가 말했다.

"'뭐 같으냐? 뭐처럼 보여?'

"'네 자루에 달 끈 같은데. 그런데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한 끈이다.'

"'그래, 좀 이상하지.' 호수 사람이 그것을 팔 길이만큼 앞으로 내밀어 들고 말했다. '하지만 쓸모는 있을 것 같다. 이봐, 노끈이 모자라는데. 너 좀 있냐?'

"그러나 앞갑판 선원실에는 노끈이 없었다.

"'그럼 래드 영감한테 좀 얻어 와야겠다.' 그러고는 그는 고물 쪽으로 가려고 일어섰다.

"'설마 *그 사람*한테 구걸하러 가려는 건 아니겠지!' 한 선원이 말했다.

"'왜 안 돼? 결국 제 몸을 돕는 일인데 그가 나한테 그만한 호의도 안 베풀 것 같냐, 친구?' 그러고는 항해사에게 가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해먹을 고칠 노끈을 좀 달라고 청했다. 노끈은 그에게 주어졌다. 노끈도 끈도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튿날 밤, 호수 사람이 해먹에

베개로 쓰려고 웃옷을 밀어 넣을 때, 그물로 촘촘히 감싼 쇠공 하나가 그의 짧은 선원 웃옷 주머니에서 반쯤 굴러 나왔다. 스물네 시간 뒤면 말없는 키를 잡을 그의 차례가, 뱃사람의 손에 언제나 파인 무덤 위에서 졸기 일쑤인 사내 바로 곁에서 맞을 그 치명적인 시간이 오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리 정해 둔 스틸킬트의 영혼 속에서 항해사는 이미 이마가 으깨진 채 시체처럼 뻣뻣하게 뻗어 있었다.

"그러나 신사분들, 한 바보가 살인하려던 자를 그가 꾸민 피비린내 나는 짓에서 구해 주었다. 그런데도 그는 완전한 복수를 이루었다. 그것도 복수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 수수께끼 같은 숙명으로 하늘 자체가 끼어들어, 그가 하려던 저주받을 일을 그의 손에서 제 손으로 가져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틀째 날 아침, 동이 트고 해가 뜨기 전 그 사이, 갑판을 물로 씻어 내고 있을 때였다. 큰돛대 사슬판에서 물을 긷던 어리석은 테네리페 사람이 갑자기 외쳤다. '저기 굴러간다! 저기 굴러간다!' 예수여, 대단한 고래였다! 모비 딕이었다.

"'모비 딕!' 돈 세바스티안이 외쳤다. '성 도미니크여! 뱃사람 양반, 고래도 세례를 받소? 누구를 모비 딕이라 부르는 거요?'

"'아주 희고, 이름나고, 더없이 치명적인, 죽지 않는 괴물이오, 돈 세바스티안. 그러나 그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거요.'

"'어떻게? 어떻게?' 젊은 스페인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며 외쳤다.

"'아니오, 신사분들, 신사분들, 아니, 아니오!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소. 바람 좀 더 쐬게 해 주시오, 나리들.'

"'치차! 치차!' 돈 페드로가 외쳤다. '우리 기운찬 친구가 기운이 없어 보이오. 빈 잔을 채워 드리시오!'

"그럴 필요 없소, 신사분들. 잠깐이면 되오. 이어 가겠소. 그런데 신사분들, 그렇게 갑자기 배에서 50야드도 안 되는 곳에서 눈처럼 흰

고래를 알아본 테네리페 사람은, 그 순간의 흥분에 선원들 사이의 약속을 잊고, 본능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 괴물을 보았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 괴물은 얼마 전부터 시무룩한 세 돛대 꼭대기에서 똑똑히 보이고 있었는데도. 이제 모든 것이 광란이었다. '흰 고래다! 흰 고래다!' 선장과 항해사들과 작살잡이들이 외쳤다. 그들은 무서운 소문에도 겁먹지 않고, 그토록 이름나고 값진 고래를 잡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사이 고집스러운 선원들은 그 거대한 젖빛 덩어리의 소름 끼치는 아름다움을 곁눈으로, 저주를 퍼부으며 바라보았다. 수평으로 반짝이는 햇빛을 받은 그것은 푸른 아침 바다 속에서 살아 있는 오팔처럼 움직이며 번쩍였다. 신사분들, 이 사건들의 전 과정에는 기묘한 숙명이 스며 있다. 마치 세상 자체가 지도에 그려지기도 전에 참으로 미리 그려져 있었던 것 같다. 반란자는 항해사의 뱃머리 노잡이였고, 고래에 작살이 꽂혀 매이면 래드니가 창을 들고 뱃머리에 서 있는 동안 그 곁에 앉아 명령에 따라 작살줄을 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게다가 네 척의 보트를 내렸을 때 항해사의 보트가 앞장섰다. 그리고 노를 젓느라 힘을 쓰면서 스틸킬트만큼 사납게 기뻐 울부짖은 사람도 없었다. 힘껏 저은 끝에 그들의 작살잡이가 고래에 작살을 꽂았고, 래드니는 창을 손에 들고 뱃머리로 뛰어나갔다. 보트에서는 늘 사나운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붕대 감은 입으로 그는 자기를 고래의 등 꼭대기에 얹어 달라고 외쳤다. 기꺼이 그의 뱃머리 노잡이는 두 흰빛을 한데 섞는 눈부신 거품을 뚫고 그를 자꾸자꾸 끌어당겨 올렸다. 그러다 갑자기 보트가 물에 잠긴 암붕에 부딪힌 듯 부딪히더니 옆으로 기울어, 서 있던 항해사를 쏟아 버렸다. 그가 고래의 미끄러운 등에 떨어지는 그 순간 보트는 바로 섰다가 너울에 옆으로 내던져졌고, 래드니는 고래의 다른 쪽 옆구리 너머 바다로 튕겨 나갔다. 그는 물보라를 헤치며 헤엄쳤고, 한순간 그 너울 너머로 모비 딕의 눈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애쓰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러나 고래는 갑작스러운 큰 소용돌이 속에 빙 돌아 달려들어 헤엄치는 사람을 턱 사이에 물고, 그를 문 채 높이 솟구쳤다가 다시 곤두박질쳐 가라앉았다.

"그동안 보트 바닥이 처음 툭 부딪혔을 때 호수 사람은 소용돌이에서 고물 쪽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작살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바라보며 제 생각을 했다. 그러나 보트가 갑자기 무시무시하게 아래로 홱 끌려가자 그는 재빨리 칼을 작살줄에 댔다. 그는 줄을 잘랐다. 그리고 고래는 풀려났다. 그러나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비 딕이 다시 떠올랐다. 래드니를 죽인 이빨에 그의 붉은 모직 셔츠 조각이 걸려 있었다. 네 척의 보트가 모두 다시 쫓았지만 고래는 그들을 따돌리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때가 되어 타운호호는 항구에 닿았다. 문명화된 생물은 하나도 살지 않는 야만스럽고 외딴 곳이었다. 거기서 호수 사람을 우두머리로, 앞돛대 선원들 가운데 대여섯 명을 뺀 모두가 일부러 야자수 사이로 탈주했다. 나중에 드러났듯이, 결국 그들은 야만인들의 커다란 쌍동 전투 카누 한 척을 빼앗아 다른 어느 항구를 향해 돛을 올렸다.

"선원이 한 줌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선장은 새는 곳을 막으려고 배를 기울이는 힘든 일을 도와 달라고 섬사람들에게 청했다. 그러나 이 작은 백인 무리는 위험한 협력자들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지켜보아야 했고, 그들이 겪은 노동이 너무도 고되었으므로, 배가 다시 바다로 나갈 채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 쇠약해져서, 선장은 그토록 무거운 배를 그들과 함께 몰고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항해사들과 의논한 끝에 그는 배를 해안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진 곳에 닻을 내리고, 대포 두 문에 장전하여 뱃머리에서 밖으로 내밀고, 고물 갑판에 머스킷총을 쌓아 두었다. 그리고 섬사람들에게 배에 다가오면 목숨이 위태로우리라고 경고한 뒤, 한 사람을 데리고 가장 좋은 포경 보트에

돛을 올려 500마일 떨어진 타히티를 향해 바람을 등지고 곧장 나아갔다. 선원을 보충하기 위해서였다.

"항해 나흘째에 커다란 카누 한 척이 보였다. 낮은 산호섬에 들렀다 나온 것 같았다. 선장은 그것을 피해 키를 돌렸다. 그러나 야만인의 배는 그를 향해 내리 달려왔고, 곧 스틸킬트의 목소리가 그에게 멈추라고, 그러지 않으면 물속으로 들이받아 버리겠다고 외쳤다. 선장은 권총을 겨누었다. 이어 묶은 전투 카누의 양쪽 뱃머리에 한 발씩 딛고 선 호수 사람은 그를 비웃었다. 권총 방아쇠가 찰칵 소리만 내도 거품과 물보라 속에 그를 묻어 버리겠다고 장담하면서.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선장이 외쳤다.

"'어디로 가는 길이오? 무엇 때문에 가는 거요?' 스틸킬트가 따졌다. '거짓말은 마시오.'

"'사람을 더 구하러 타히티로 가는 길이다.'

"'아주 좋소. 잠깐 그쪽 보트에 오르게 해 주시오. 싸우러 가는 게 아니오.' 그러고는 카누에서 뛰어내려 보트까지 헤엄쳐 와서 뱃전을 기어올라 선장과 얼굴을 맞대고 섰다.

"'팔짱을 끼시오, 선장. 고개를 뒤로 젖히시오. 이제 나를 따라 하시오. 스틸킬트가 나를 떠나자마자 나는 이 보트를 저 섬에 올려놓고 거기서 엿새 동안 머물기로 맹세한다. 그러지 않으면 벼락이 나를 치리라!'

"'훌륭한 학생이구려.' 호수 사람이 웃었다. '아디오스, 세뇨르!' 그러고는 바다로 뛰어들어 동료들에게 헤엄쳐 돌아갔다.

"보트가 바닷가에 잘 올려져 야자나무 뿌리께까지 끌어 올려지는 것을 지켜본 뒤 스틸킬트는 다시 돛을 올렸고, 때가 되어 자기 목적지인 타히티에 닿았다. 거기서 운이 그를 도왔다. 배 두 척이 막 프랑스로 떠나려던 참이었고, 하늘이 도왔는지 바로 그 선원이 이끄는 사람 수만큼 일손이 모자랐다. 그들은 배에 올랐다. 그리하여 혹시 예전

선장이 그들에게 법의 응징을 가할 마음이 있었다 해도 그들은 영원히 그를 앞질러 버렸다.

"프랑스 배들이 떠나고 열흘쯤 뒤에 포경 보트가 도착했고, 선장은 바다에 얼마쯤 익숙한, 비교적 개화된 타히티 사람 몇을 선원으로 들여야 했다. 그는 작은 토착민 스쿠너 한 척을 빌려 그들을 데리고 제 배로 돌아갔고, 거기 모든 것이 무사한 것을 보고 다시 항해를 이어 갔다.

"신사분들, 스틸킬트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낸터킷섬에서 래드니의 아내였던 과부는 죽은 이를 내주지 않는 바다를 여전히 바라보고, 그를 죽인 무시무시한 흰 고래를 여전히 꿈속에서 본다. ……

"'다 끝났소?' 돈 세바스티안이 조용히 말했다.

"'끝났소, 돈 세바스티안.'

"'그렇다면 청하건대, 당신이 아는 한 당신의 이 이야기가 대체로 정말 사실인지 말해 주시오.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라서! 의심할 여지 없는 출처에서 들은 것이오? 내가 다그치는 것 같거든 너그러이 봐주시오.'

"'우리 모두도 너그러이 봐주시오, 뱃사람 양반. 우리 모두 돈 세바스티안의 청에 함께하니까.' 일행이 몹시 흥미로워하며 외쳤다.

"'신사분들, 이 황금 여관에 거룩한 복음서가 한 권 있소?'

"'아니오.' 돈 세바스티안이 말했다. '하지만 가까이에 훌륭한 신부님을 한 분 아니, 곧 한 권 구해 주실 거요. 내가 가지러 가겠소. 하지만 잘 생각한 거요? 일이 너무 엄숙해질지도 모르오.'

"'수고스럽겠지만 신부님도 모시고 와 주겠소, 돈 세바스티안?'

"'리마에는 이제 이단 화형식이 없지만,' 일행 가운데 하나가 다른 이에게 말했다. '우리 뱃사람 친구가 대주교의 손에 걸려들 위험을

무릅쓰는 것 같아 걱정이오. 달빛에서 좀 더 물러나 있읍시다. 나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보오.'

'"뒤따라가서 미안하오, 돈 세바스티안. 하지만 되도록 가장 큰 복음서를 구해 달라고 각별히 부탁해도 되겠소?'

◆

'"이분이 신부님이오. 당신에게 복음서를 가져오셨소.' 키 크고 엄숙한 사람과 함께 돌아온 돈 세바스티안이 근엄하게 말했다.

'"모자를 벗겠소. 자, 존경하는 신부님, 빛 속으로 좀 더 나오셔서 제가 만질 수 있게 거룩한 책을 제 앞에 들어 주십시오.

'"하늘이여 저를 도우소서. 신사분들,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 골자와 큰 줄거리에서 사실이오.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아오. 그 일은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났소. 나는 그 배를 밟았소. 그 선원들을 알았소. 래드니가 죽은 뒤 나는 스틸킬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소.'"

---

1. 돛대 꼭대기에서 고래를 처음 보았을 때 외치던 옛 외침으로, 이름난 갈라파고스 땅거북을 사냥하는 포경선원들이 아직도 쓴다.

제55장 괴물 같은 고래 그림에 대하여

머지않아 나는 캔버스 없이 그릴 수 있는 한에서, 고래가 제 온몸 그대로 포경선 옆에 매여 있어 그 위에 제대로 올라설 수 있을 때 포경선원의 눈에 실제로 보이는 고래의 참모습 비슷한 것을 그대에게 그려 보이겠다. 그러므로 그에 앞서, 오늘날까지도 뭍사람의 믿음을 자신만만하게 요구하는 저 기묘한 상상의 고래 초상들을 짚어 두는 것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고래 그림들이 모두 틀렸음을 증명하여 이 일에서 세상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그 모든 그림의 미망은 아마 가장 오래된 힌두와 이집트와 그리스의 조각들 사이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이지만 거리낌 없던 저 시대, 신전의 대리석 판벽과 조각상 받침대와 방패와 메달과 잔과 주화 위에 돌고래를 살라딘의 것 같은 사슬 갑옷 비늘을 입히고 성 게오르기우스의 것 같은 투구 쓴 머리를 붙여 그리던 그때부터, 그때부터 줄곧 고래를 그린 대부분의 대중적인 그림뿐 아니라 고래를 학술적으로 나타낸 많은 그림에서도 같은 종류의 제멋대로 하는 버릇이 얼마쯤 퍼져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아도, 어쨌든 고래를 그렸다고 하는 초상 가운데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인도의 이름난 엘레판타 동굴 사원에서 찾을 수 있다. 브라만들은 그 아득한 옛 사원의 거의 끝없는 조각들 속에 인간의 모든 직업과 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업이 그 어느 것도 실제로 생겨나기 여러 시대 전에 미리 새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우리의 고귀한 포경업이 어떤 모양으로든 거기 미리 그려져 있었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힌두 고래는 벽의 따로 떨어진 한 구획에 나오는데, 학자들이 마츠야 아바타르라고 부르는, 리워야단의 모습을 한 비슈누의 화신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이 조각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고래여서 고래의 꼬리만 보여 주는데도, 그 작은 부분이 온통 틀렸다. 그것은 참된 고래의 장엄한 꼬리지느러미의 넓은 손바닥보다는 가늘어지는 아나콘다의 꼬리를 더 닮았다.

그러나 옛 화랑에 가서 이제 위대한 기독교 화가가 그린 이 물고기의 초상을 보라. 그도 대홍수 이전의 힌두인보다 조금도 낫지 않으니까. 귀도가 그린, 페르세우스가 바다 괴물, 곧 고래에게서 안드로메다를 구하는 그림이다. 귀도는 그런 기묘한 생물의 본을 어디서 얻었을까? 호가스도 같은 장면을 그린 자신의 「내려오는 페르세우스」에서 조금도 더 낫게 해내지 못했다. 저 호가스풍 괴물의 거대한 비만한 몸은 수면 위에서 물결치며 물에 1인치도 거의 잠기지 않는다. 등에는 일종의 코끼리 가마 같은 것을 얹고 있고, 물결이 굴러 들어가는 엄니 돋은 벌린 입은 템스강에서 물길로 런던탑에 이르는 반역자의 문으로 여길 만하다. 그다음에는 스코틀랜드의 옛 시볼드가 「서설」에 그린 고래들과, 옛 성경의 판화와 옛 초급 교본의 목판화에 그려진 요나의 고래가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무어라 해야 할까? 내려가는 닻의 자루에 포도덩굴처럼 감긴 제본공의 고래로 말하자면, 낡은 책이든 새 책이든 많은 책의 등과 속표지에 찍히고 금박을 입힌 그것은 아주 그림 같지만 순전히 꾸며 낸 생물이다. 내 생각에는 옛 항아리에 그려진 비슷한 형상을 흉내 낸 것이다. 흔히 돌고래라고 불리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제본공의 물고기를 고래를 그리려는 시도라고 부른다. 그 도안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15세기 무렵 학문 부흥기에

이탈리아의 옛 출판업자가 처음 썼다. 그리고 그 시절, 그리고 비교적 늦은 때까지도 사람들은 흔히 돌고래를 리워야단의 한 종으로 여겼다.

어떤 옛 책의 장식 컷과 그 밖의 꾸밈에서는 이따금 고래를 아주 기묘하게 그린 솜씨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는 온갖 물줄기, 분수, 뜨거운 샘과 찬 샘, 새러토가와 바덴바덴이 고래의 마르지 않는 머릿골에서 보글보글 솟아오른다. 「학문의 진보」 초판 속표지에서도 기묘한 고래 몇 마리를 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비전문적인 시도는 그만두고, 아는 사람들이 그렸다는, 착실하고 학술적인 묘사라는 리워야단 그림들을 훑어보자. 옛 해리스의 항해기 모음집에는 서기 1671년에 나온 네덜란드 항해기에서 뽑은 고래 판화가 몇 장 있다. 그 항해기의 제목은 「고래 속의 요나스호를 타고 떠난 스피츠베르겐 포경 항해, 선장 프리슬란트의 페테르 페테르손」이다. 그 판화 가운데 하나에서는 고래들이 거대한 통나무 뗏목처럼 얼음섬 사이에 누워 있고, 그 살아 있는 등 위로 흰곰들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다른 판화에서는 고래의 꼬리지느러미를 수직으로 그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그다음에는 영국 해군의 함장인 콜넷 선장이라는 사람이 쓴, 「경랍고래 포경업을 넓히기 위해 혼곶을 돌아 남해로 간 항해」라는 위풍당당한 사절판 책이 있다. 이 책에는 「피세테르, 곧 경랍고래 그림. 1793년 8월 멕시코 해안에서 잡아 갑판으로 끌어 올린 고래를 축척에 따라 그림」이라는 윤곽 그림이 실려 있다. 틀림없이 선장은 제 해병들을 위해 이 진실한 그림을 그리게 했으리라. 한 가지만 말하자면, 그 그림의 눈을 딸린 축척에 따라 다 자란 향유고래에게 대어 보면 그 고래의 눈은 길이 5피트쯤 되는 내닫이창이 될 것이다. 아, 나의 용감한 선장이여, 어째서 그 눈으로 내다보는 요나도 그려 주지 않았는가!

어리고 여린 이들을 위해 가장 양심적으로 엮은 박물지들도 같은 흉악한 잘못에서 자유롭지 않다. 저 인기 있는 책 「골드스미스의 생동하는 자연」을 보라. 1807년 런던 축약판에는 이른바 "고래"와 "일각고래"의 판화가 있다. 점잖지 못해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이 볼품없는 고래는 다리를 잘라 낸 암퇘지와 무척 닮았다. 그리고 일각고래로 말하자면, 한 번 흘끗 보기만 해도 이 19세기에 그런 히포그리프가 지적인 학생 대중에게 진짜로 둔갑해 팔릴 수 있다는 데 누구든 놀라기에 충분하다.

그다음에는 1825년에 위대한 박물학자 라세페드 백작 베르나르 제르맹이 체계를 갖춘 학술적인 고래 책을 냈는데, 거기에는 리워야단의 여러 종을 그린 그림이 몇 장 실려 있다. 이 그림들은 모두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스티케투스, 곧 그린란드고래(말하자면 참고래)의 그림은 그 종에 관해 오래 경험을 쌓은 스코어즈비조차 자연에는 그와 맞는 것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이 모든 실수투성이 일에 마지막 볏단을 얹는 일은 이름난 남작의 아우인 학자 프레데리크 퀴비에에게 남겨져 있었다. 1836년 그는 「고래 박물지」를 냈는데, 거기에서 그가 향유고래 그림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놓는다. 그 그림을 낸터킷 사람에게 보여 주기 전에, 낸터킷에서 재빨리 도망칠 채비부터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마디로 프레데리크 퀴비에의 향유고래는 향유고래가 아니라 호박이다. 물론 그는 포경 항해를 해 볼 기회를 얻은 적이 없다(그런 사람들은 좀처럼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 그림을 어디서 얻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같은 분야에서 그보다 앞선 학자 데마레가 제 믿을 만한 기형물 하나를 얻은 것처럼 얻었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중국 그림에서.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이 붓을 든 얼마나 활기찬 녀석들인지는 많은 괴상한 찻잔과 받침 접시가 알려 준다.

기름 장수의 가게 위에 걸려 거리에서 보이는 간판장이의 고래들로 말하자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무어라 해야 할까? 그것들은 대개 낙타 같은 혹이 달린 리처드 3세 같은 고래이고, 아주 사납다. 뱃사람 파이서너 개, 곧 선원을 가득 태운 포경 보트들을 아침으로 먹으며, 그 흉측한 몸뚱이가 피와 파란 물감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

그러나 고래를 그리는 이 숱한 실수가 따지고 보면 그리 놀랍지는 않다. 생각해 보라! 학술적인 그림 대부분은 바닷가에 올라앉은 고래를 보고 그린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림은 등뼈가 부러진 난파선 그림이 선체와 돛대의 꺾이지 않은 온 위용을 지닌 그 고귀한 짐승, 곧 배 자체를 정확히 나타내는 만큼이나 정확하다. 코끼리들은 전신 초상을 위해 서 주었지만, 살아 있는 리워야단은 아직 한 번도 초상을 위해 제대로 떠 준 적이 없다. 온전한 위엄과 의미를 지닌 살아 있는 고래는 바닥 모를 바닷물 속에서만 볼 수 있다. 그리고 물에 뜬 그 거대한 몸뚱이는 진수한 전열함처럼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원소 밖으로, 그 모든 힘찬 부풂과 굽이침을 그대로 지닌 채 고래를 통째로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은 죽을 운명의 인간에게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젖먹이 새끼 고래와 다 자란 플라톤적인 리워야단 사이에 윤곽의 차이가 크리라고 짐작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젖먹이 새끼 고래 하나를 배의 갑판에 끌어 올린 경우에도, 그때 그 생김새가 너무도 기괴하고 뱀장어 같고 흐늘흐늘하며 이리저리 바뀌어서, 그 정확한 표정은 악마 자신도 잡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바닷가에 올라앉은 고래의 앙상한 뼈대에서 그 참모습에 관한 정확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천만에. 이 리워야단에 관해 더 기묘한 점 가운데 하나는 그 뼈대가 전체 생김새에 관해 아주 조금밖에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러미 벤담의 뼈대는 그의 유언 집행인 가운데 한 사람의 서재에 촛대 삼아 걸려 있는데,

제러미의 다른 두드러진 개인적 특징들과 함께 이마가 우람한 공리주의자 노신사라는 인상을 정확히 전해 준다. 그러나 어떤 리워야단의 이어 맞춘 뼈에서도 이런 종류의 것은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 사실 위대한 헌터가 말하듯이, 고래의 단순한 뼈대와 온전히 옷 입고 속을 채운 고래의 관계는 곤충과 그것을 둥그렇게 감싼 번데기의 관계와 같다. 이 특이함은 머리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이 책 어딘가에서 내친김에 보여 줄 것이다. 옆지느러미에서도 아주 기묘하게 드러난다. 그 뼈들은 엄지만 빼면 사람 손의 뼈와 거의 정확히 들어맞는다. 이 지느러미에는 집게손가락, 가운뎃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렇게 반듯한 뼈 손가락이 네 개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사람 손가락이 인공 덮개 속에 들어 있듯이 살 덮개 속에 영원히 들어 있다. "고래가 때로는 우리를 아무리 무모하게 다룬다 해도," 하고 익살스러운 스터브가 어느 날 말했다. "놈이 정말로 장갑도 안 끼고 우리를 주무른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

그러니 이 모든 까닭으로, 어떻게 보든 그대는 거대한 리워야단이야말로 세상에서 끝까지 그려지지 않은 채 남을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생물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초상은 다른 초상보다 과녁에 훨씬 가깝게 맞힐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아주 상당한 정도로 정확하게 맞힐 수는 없다. 그러니 고래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아낼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고래의 살아 있는 윤곽에 관해 그럭저럭 괜찮은 생각이라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대가 몸소 포경을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대는 고래에게 영원히 박살 나 가라앉을 위험을 적잖이 무릅쓰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이 리워야단에 관한 호기심을 너무 까다롭게 따지지 않는 편이 좋겠다.

제56장 덜 틀린 고래 그림과 참된 포경 장면 그림에 대하여

괴물 같은 고래 그림과 관련하여, 나는 여기서 옛 책과 요즘 책, 특히 플리니우스, 퍼처스, 해클루트, 해리스, 퀴비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래에 관한 그보다 더 괴물 같은 이야기들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 일은 그냥 지나가겠다.

거대한 향유고래의 윤곽을 그려 출판한 것으로 내가 아는 것은 네 가지뿐이다. 콜넷의 것, 허긴스의 것, 프레데리크 퀴비에의 것, 그리고 빌의 것이다. 앞 장에서 콜넷과 퀴비에는 이미 언급했다. 허긴스의 것은 그들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나 단연 가장 좋은 것은 빌의 것이다. 빌이 그린 이 고래 그림은 모두 좋다. 다만 그의 둘째 장 머리에 실린, 여러 자세를 한 고래 세 마리 그림의 가운데 형상만은 예외다. 향유고래를 공격하는 보트들을 그린 그의 권두화는, 틀림없이 몇몇 응접실 신사들의 점잖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하지만, 전체 효과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고 생생하다. J. 로스 브라운의 책에 실린 향유고래 그림 몇 장은 윤곽이 꽤 정확하다. 그러나 판각이 형편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참고래의 가장 좋은 윤곽 그림은 스코어즈비의 책에 있다. 그러나 너무 작은 축척으로 그려져 바람직한 인상을 전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포경 장면 그림이 하나뿐인데, 이것은 슬픈 결함이다. 살아 있는 사냥꾼들이 보는 살아 있는 고래에 대해 참된 생각 비슷한 것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런 그림, 그것도 조금이라도 잘 그린 그림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고래와 포경 장면 그림 가운데 세부 몇 군데에서 가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연 가장 훌륭한 것은, 가르느레라는 사람의 그림을 바탕으로 잘 새긴 프랑스의 큰 판화 두 장이다. 그것들은 각각 향유고래와 참고래를 공격하는 장면을 나타낸다. 첫 번째 판화에는 고귀한 향유고래 한 마리가 힘의 온전한 위엄을 지닌 채, 대양의 깊은 곳에서 보트 밑으로 막 솟아올라 박살 난 판자의 무시무시한 잔해를 등에 얹어 공중 높이 쳐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보트의 이물은 일부가 부서지지 않은 채 괴물의 등뼈 위에서 막 균형을 잡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이물에서서, 헤아릴 수 없는 그 한순간의 번쩍임 속에, 고래의 성나 끓어오르는 물줄기에 반쯤 휩싸인 채 벼랑에서 뛰어내리듯 막 뛰어내리려는 노잡이 하나가 보인다. 전체의 움직임이 놀랍도록 훌륭하고 참되다. 반쯤 빈 작살줄 통이 하얗게 된 바다 위에 떠 있고, 쏟아진 작살들의 나무 자루가 그 속에서 비스듬히 까딱거린다. 헤엄치는 선원들의 머리가 고래 둘레에 흩어져 저마다 다른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다. 그사이 폭풍 이는 검은 먼 곳에서 배가 그 장면을 향해 내리 달려오고 있다. 이 고래의 해부학적 세부에서는 심각한 흠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만큼 잘 그리지 못할 테니까.

두 번째 판화에서는 보트가, 따개비 붙은 옆구리를 드러내고 달리는 큰 참고래 곁으로 막 다가붙고 있다. 고래는 파타고니아의 벼랑에서 무너져 내린 이끼 낀 바위 더미처럼 해초 덮인 검은 몸뚱이를 바다에 굴린다. 그 물줄기는 곧추서고 가득하며 그을음처럼 검다. 그래서 굴뚝에서 그렇게 넉넉히 연기가 나니 그 아래 커다란 창자 속에서는 푸짐한 저녁 식사가 끓고 있으리라고 생각할 만하다. 바닷새들이

참고래가 때로 역병 같은 등에 싣고 다니는 작은 게와 조개와 그 밖의 바다 사탕과 마카로니를 쪼아 먹는다. 그리고 그동안 내내 입술 두툼한 리워야단은 깊은 바다를 헤치고 내달리며, 그 항적에 소란스러운 흰 엉긴 젖을 몇 톤씩 남기고, 가냘픈 보트를 원양 증기선의 외륜 가까이 붙잡힌 작은 배처럼 너울 속에서 흔들리게 한다. 그렇게 앞쪽은 온통 사나운 소동이다. 그러나 뒤쪽에는 놀랍도록 예술적인 대조로, 바람 잠든 바다의 거울 같은 수면과, 힘을 잃은 배의 풀기 없이 처진 돛과, 정복된 요새처럼 죽은 고래의 꼼짝 않는 덩어리가 있다. 그 숨구멍에 꽂힌 고래 장대에는 사로잡았다는 깃발이 느긋하게 늘어져 있다.

화가 가르느레가 누구인지, 혹은 누구였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말하건대, 그는 제 주제를 실제로 겪어 잘 알았거나, 아니면 어느 경험 많은 포경선원에게서 놀랍도록 잘 배웠다. 프랑스 사람들이야말로 움직임을 그리는 데 으뜸가는 녀석들이다. 가서 유럽의 모든 그림을 바라보라. 그리고 베르사유의 저 승리의 전당 말고 어디서 캔버스 위에 살아 숨 쉬는 소동을 그만큼 모아 놓은 화랑을 찾을 수 있겠는가? 거기서 보는 이는 프랑스의 큰 전투들을 차례로 뚫고 뒤죽박죽 길을 헤쳐 나가고, 칼 하나하나가 북극광의 번쩍임 같으며, 잇따라 무장한 왕들과 황제들이 왕관 쓴 켄타우로스들의 돌격처럼 쏜살같이 지나간다. 가르느레의 이 바다 전투 그림들은 그 화랑에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전혀 없지 않다.

사물의 그림 같은 면을 붙잡는 프랑스 사람들의 타고난 솜씨는 그들이 지닌 포경 장면의 그림과 판화에서 유난히 드러나는 것 같다. 포경업에서 영국의 십분의 일만큼도, 미국의 천분의 일만큼도 경험이 없으면서, 그들은 그래도 두 나라에 고래 사냥의 참된 정신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완성된 스케치를 내놓았다. 대체로 영국과 미국의 고래 제도사들은 고래의 텅 빈 옆모습처럼 사물의

기계적인 윤곽만 내놓는 것으로 아주 만족하는 것 같다. 그런 것은 그림 같은 효과로 말하자면 피라미드의 옆모습을 스케치하는 것과 맞먹는다. 참고래잡이로 마땅히 이름 높은 스코어즈비조차 그린란드고래의 뻣뻣한 전신상과 일각고래와 돌고래의 섬세한 세밀화 서너 점을 보여 준 뒤에는, 보트 갈고리와 다지는 칼과 갈고리 닻을 그린 고전적인 판화들을 줄줄이 대접한다. 그러고는 레이우엔훅 같은 현미경의 부지런함으로, 확대한 북극 눈 결정의 복제화 아흔여섯 장을 떨고 있는 세상의 검사에 내놓는다. 그 훌륭한 항해자를 깎아내리려는 뜻은 없다(나는 그를 노련한 이로 존경한다). 그러나 그토록 중대한 일에서 결정 하나하나마다 그린란드 치안 판사 앞에서 맹세한 진술서를 받아 두지 않은 것은 분명히 실수였다.

가르느레의 그 훌륭한 판화들 말고도, 자기를 "H. 뒤랑"이라고 서명한 어떤 사람의 프랑스 판화 두 장도 주목할 만하다. 그 가운데 하나는 지금 우리 목적에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다른 점에서 언급할 만하다. 그것은 태평양 섬들 사이의 고요한 한낮 풍경이다. 프랑스 포경선 한 척이 바람 잔잔한 날 해안 가까이 닻을 내리고 느긋하게 물을 싣고 있다. 배의 느슨하게 풀린 돛과 뒤쪽 야자수의 긴 잎이 바람 없는 공기 속에 함께 늘어져 있다. 억센 어부들을 그들이 드물게 누리는 동양적인 휴식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보여 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효과가 아주 훌륭하다. 다른 판화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배가 너른 바다 위에, 리워야단의 삶 바로 한복판에서 참고래 한 마리를 옆에 끼고 멈춰 서 있다. 배는 (해체 작업 중이라) 부두에 대듯 그 괴물 쪽으로 기울어 있고, 보트 한 척이 이 일터에서 서둘러 떠나 멀리 있는 고래들을 쫓으려 하고 있다. 작살과 창은 쓸 수 있게 겨누어 놓여 있다. 노잡이 셋이 막 돛대를 구멍에 세우고 있다. 그사이 바다가 갑자기 출렁이는 바람에 그 작은 배는 앞발을 치켜든 말처럼 물 밖으로 반쯤 곧추서 있다. 배에서는 끓는

고래가 겪는 고통의 연기가 대장간 마을 위의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그리고 바람 불어오는 쪽에서는 돌풍과 비를 예고하며 솟아오르는 검은 구름이, 흥분한 선원들의 움직임을 더욱 재촉하는 것 같다.

제57장 그림 속 고래, 이빨과 나무와 철판과 돌 속 고래, 산과 별 속 고래에 대하여

런던 부두로 내려가는 타워힐에서 그대는 다리 하나를 잃은 거지(뱃사람들 말로는 *케저*)가 제 다리를 잃은 비극적인 장면을 그린 판자를 앞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지 모른다. 고래 세 마리와 보트 세 척이 있고, 보트 가운데 하나(잃어버린 다리가 원래 온전한 모습 그대로 그 안에 들어 있으리라 짐작되는)가 맨 앞 고래의 턱에 와작와작 씹히고 있다. 듣자 하니 지난 십 년 동안 줄곧 그 사람은 그 그림을 쳐들고 믿지 않는 세상에 그 잘린 다리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옳았음이 밝혀질 때가 왔다. 그의 고래 세 마리는 어쨌든 와핑에서 내놓은 어떤 고래 못지않게 훌륭한 고래이고, 그의 다리 그루터기는 서부 개간지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루터기 못지않게 의심할 나위 없는 그루터기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 위에 영원히 올라서 있으면서도 그 가련한 포경선원은 한 번도 그루터기 유세를 하지 않는다. 그저 눈을 내리깐 채 서서 제 잘린 다리를 슬프게 바라볼 뿐이다.

태평양 곳곳에서, 그리고 낸터킷과 뉴베드퍼드와 새그하버에서도, 그대는 어부들이 몸소 향유고래 이빨이나, 참고래 수염으로 만든 여자 코르셋 살대나, 그 밖의 비슷한 스크림샌더 물건에 새긴 고래와 포경 장면의 생생한 스케치를 만날 것이다. 스크림샌더란 포경선원들이 바다의 한가한 시간에 거친 재료를 공들여 깎아 만드는 숱한 작고 기발한 물건들을 부르는 말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스크림샌더 일을 위해

따로 마련한, 치과 도구 같은 연장을 담은 작은 상자를 가진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잭나이프 하나만으로 애를 쓴다. 그리고 뱃사람의 거의 전능한 그 연장으로 그들은 뱃사람의 공상이 미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낼 것이다.

기독교 세계와 문명에서 오래 떠나 있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를 처음 놓아 둔 상태, *곧* 이른바 야만으로 되돌아간다. 참된 고래 사냥꾼은 이로쿼이족만큼이나 야만인이다. 나 자신도 야만인이다. 식인종의 왕 말고는 누구에게도 충성을 바치지 않고, 그 왕에게도 언제든 반역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집에 있을 때 야만인이 지닌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놀라운 인내심으로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조각이 온통 겹겹이 정교하게 새겨진 옛 하와이의 전투용 곤봉이나 창 겸 노는 라틴어 사전만큼이나 인간 끈기의 위대한 기념물이다. 깨진 조개껍데기 조각이나 상어 이빨 하나만으로 그 기적 같은 나무 그물 무늬의 정교함을 이루어 냈으니, 그것은 꾸준한 노력의 꾸준한 세월이 든 것이다.

하와이 야만인이 그렇듯 백인 뱃사람 야만인도 그렇다. 똑같이 놀라운 인내심으로, 그리고 초라한 잭나이프 하나라는 똑같은 상어 이빨 하나로, 그는 그대에게 뼈 조각 한 점을 새겨 줄 것이다. 아주 장인답지는 않지만 그 무늬의 미로 같은 촘촘함에서는 그리스 야만인 아킬레우스의 방패만큼 빽빽하고, 저 훌륭한 네덜란드 옛 야만인 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만큼 야만스러운 기운과 암시로 가득한 조각이다.

나무 고래, 곧 고귀한 남해의 전투용 나무로 된 작고 검은 판에서 옆모습으로 오려 낸 고래는 미국 포경선의 앞갑판 선원실에서 흔히 만난다. 그 가운데 몇은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졌다.

박공지붕을 얹은 어떤 옛 시골집에서는 길가 쪽 문에 문 두드리개로 꼬리를 매달아 놓은 놋쇠 고래를 볼 것이다. 문지기가 졸고 있을 때는 모루 머리를 한 고래가 가장 좋겠다. 그러나 이 문 두드리는 고래들이 충실한 시도로서 눈에 띄는 일은 드물다. 어떤 구식 교회의 첨탑에서는 바람개비로 얹어 놓은 철판 고래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너무 높이 올라가 있고, 게다가 사실상 "*손대지 마시오!*"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셈이어서, 그 가치를 판단할 만큼 가까이서 살펴볼 수가 없다.

땅의 뼈만 앙상하고 갈빗대가 드러난 지역, 높이 부서진 벼랑 밑 평원에 바위 덩어리들이 기괴한 무리를 지어 흩어져 있는 곳에서, 그대는 반쯤 풀에 잠긴 리워야단의 화석 같은 형상을 자주 발견할 것이다. 바람 부는 날이면 풀이 초록빛 큰 물결의 파도가 되어 그것들에 부딪혀 부서진다.

그다음에는 또 나그네가 원형 극장 같은 높은 산에 줄곧 에워싸이는 산악 지방에서, 여기저기 운 좋은 어느 지점에서는 굽이치는 산등성이를 따라 또렷이 드러나는 고래의 옆모습을 지나가며 언뜻언뜻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광경을 보려면 철저한 포경선원이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그런 광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처음 섰던 자리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의 교차점을 꼭 재 두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산을 그렇게 바라보는 일은 너무도 우연에 달려 있어서, 앞서 섰던 정확한 자리를 힘들게 다시 찾아내야 할 것이다. 한때 높은 주름 깃을 단 멘다냐가 밟았고 늙은 피게로아가 기록했는데도 아직 미지로 남아 있는 솔로몬 제도처럼.

그대의 주제로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를 때면, 별이 총총한 하늘에서도 거대한 고래들과 그것을 쫓는 보트들을 그려 내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전쟁 생각으로 가득했던 동방의 민족들이 구름 사이에서 맞붙어 싸우는 군대를 보았듯이. 그렇게 나는 북쪽에서, 처음 내게

리워야단의 윤곽을 그려 보여 준 밝은 점들이 도는 대로 북극 둘레를 빙빙 돌며 리워야단을 쫓았다. 그리고 눈부신 남극 하늘 아래에서는 아르고자리에 올라, 물뱀자리와 날치자리가 가장 멀리 뻗은 곳보다 훨씬 너머에서 별의 고래자리를 쫓는 추격에 끼었다.

프리깃함의 닻을 내 고삐 매는 기둥 삼고 작살 다발을 박차 삼아, 저 고래에 올라타 가장 높은 하늘을 뛰어넘어, 이야기 속의 하늘이 그 셀 수 없는 천막들과 함께 정말로 내 죽을 운명의 눈이 닿지 않는 너머에 진을 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제58장 브릿

크로제 제도에서 북동쪽으로 뱃머리를 돌렸을 때, 우리는 브릿이 끝없이 깔린 너른 풀밭을 만났다. 브릿은 참고래가 주로 먹는 아주 작은 노란 먹이다. 그것이 몇 리그에 걸쳐 우리 둘레에서 물결쳤으므로, 우리는 다익어 금빛으로 출렁이는 끝없는 밀밭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 같았다.

이튿날, 참고래가 여럿 보였다. 피쿼드호 같은 향유고래잡이 배에게는 공격당할 염려가 없다는 듯, 놈들은 턱을 벌린 채 굼뜨게 브릿 사이를 헤엄쳤다. 브릿은 놈들의 입 안에 드리운 그 놀라운 베네치아식 발의 술 같은 섬유에 달라붙었고, 그렇게 해서 입술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과 갈라졌다.

아침에 풀 베는 사람들이 늪지 풀밭의 길고 젖은 풀 사이로 나란히 서서 천천히, 쉭쉭 소리를 내며 낫을 밀고 나아가듯이, 이 괴물들도 꼭 그렇게 헤엄쳤다. 풀을 베는 듯한 야릇한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노란 바다 위에 끝없이 이어진 푸른 베어 낸 자리를 뒤에 남기면서.[1]

그러나 풀 베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놈들이 브릿을 가르며 내는 소리뿐이었다. 돛대 꼭대기에서 보면, 특히 놈들이 멈춰서 한동안 꼼짝하지 않을 때면, 그 거대한 검은 몸뚱이는 무엇보다도 생명 없는 바윗덩어리처럼 보였다. 그리고 인도의 큰 사냥터에서 낯선 사람이 멀리서 들판에 누운 코끼리들을 코끼리인 줄 모르고 땅이 헐벗고 거뭇하게 솟은 둔덕으로 여기며 지나치는 일이

이따금 있듯이, 바다의 리워야단 가운데 이 종류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꼭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난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본 뒤에도, 그 엄청난 크기 때문에, 그토록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덩어리가 구석구석 개나 말에 깃든 것과 같은 종류의 생명으로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는 참으로 믿기 어렵다.

실로, 다른 점에서도 그대는 깊은 바다의 어떤 생물도 뭍의 생물을 볼 때와 같은 느낌으로는 거의 볼 수 없다. 옛 박물학자 몇몇은 뭍의 모든 생물이 바다에도 저마다 같은 종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고, 사물을 크게 뭉뚱그려 보면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낱낱의 경우로 들어가 보면, 이를테면 개의 영리한 다정함에 성질로 걸맞은 물고기를 바다가 어디 하나라도 내놓는가? 저주받은 상어만이 어떤 넓은 뜻에서 개와 견줄 만한 닮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뭍사람들은 대체로 바다의 토박이 주민들을 언제나 말할 수 없이 쌀쌀맞고 정떨어지는 느낌으로 대해 왔지만, 우리는 바다가 영원한 미지의 땅이어서 콜럼버스가 셀 수 없이 많은 미지의 세계를 건너가 겉껍데기뿐인 서쪽 세계 하나를 찾아냈다는 것을 알지만, 인간의 온갖 재앙 가운데 단연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이 아득한 옛날부터 물 위로 나간 수만, 수십만 명에게 가리지 않고 닥쳐 왔지만, 아기 같은 인간이 제 과학과 솜씨를 아무리 뽐내더라도, 그리고 아첨하는 미래에 그 과학과 솜씨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최후 심판의 나팔이 울릴 때까지 바다는 인간을 모욕하고 죽이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당당하고 가장 튼튼한 프리깃함도 가루로 만들리라는 것을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바로 이런 인상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바람에, 인간은 바다에 본디부터 깃든 그 온전한 두려움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읽은 첫 배는 포르투갈 사람의 복수심처럼 온 세상을 덮쳐 과부 하나 남기지 않은 대양 위에 떠 있었다. 그 같은 대양이 지금도 굽이친다. 그 같은 대양이 지난해의 난파선들을 부숴 버렸다. 그렇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노아의 홍수는 아직 빠지지 않았다. 그 물은 이 아름다운 세상의 3분의 2를 아직도 덮고 있다.

바다와 뭍은 어디가 다르기에 한쪽의 기적이 다른 쪽에서는 기적이 아닌가? 고라와 그 무리의 발밑에서 살아 있는 땅이 갈라져 그들을 영영 삼켜 버렸을 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공포가 내렸다. 그러나 오늘날의 해는 지는 날마다, 꼭 같은 모양으로 살아 있는 바다가 배와 선원들을 삼키는 것을 본다.

그러나 바다는 저와 남남인 인간에게만 원수인 것이 아니라, 제 자식에게도 악귀다. 제 손님들을 죽인 페르시아의 주인보다 더 고약해서, 저 스스로 낳은 생물들조차 살려 두지 않는다. 밀림에서 뒹굴다 제 새끼들을 깔아뭉개는 사나운 암호랑이처럼, 바다는 가장 힘센 고래들마저 바위에 내동댕이쳐 쪼개진 난파선들과 나란히 그곳에 버려 둔다. 어떤 자비도, 제 힘 말고는 어떤 힘도 바다를 다스리지 못한다. 기수를 잃은 미친 군마처럼 헐떡이고 콧김을 뿜으며, 주인 없는 대양은 지구를 휩쓴다.

바다의 교활함을 생각해 보라. 가장 무서운 생물들이 대개 눈에 띄지 않게 물밑을 미끄러지며, 더없이 아름다운 쪽빛 아래에 음흉하게 숨어 있다. 또 가장 무자비한 족속 가운데 많은 것들이 지닌 악마 같은 광채와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라. 여러 종의 상어가 지닌 맵시 있게 꾸민 생김새가 그렇다. 다시 한 번, 바다의 그 보편적인 동족 잡아먹기를 생각해 보라. 바다의 생물은 모두 서로를 잡아먹으며, 세상이 시작된 뒤로 끝없는 전쟁을 벌여 왔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 푸르고 부드럽고 더없이 온순한 땅으로 눈을 돌려 보라. 바다와 땅, 그 둘을 함께 생각해 보라. 그대 안에 있는 무언가와 야릇하게 닮은 데가 보이지 않는가? 이 끔찍한 대양이 푸른 땅을 에워싸듯이, 인간의 영혼 속에도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한 외딴섬 타히티가 하나 있지만, 반쯤밖에 알지 못하는 삶의 온갖 공포에 둘러싸여 있다. 신께서 그대를 지켜 주시기를! 그 섬에서 배를 밀어 내지 말라. 그대는 결코 돌아오지 못하리라!

---

1. 포경선원들 사이에서 「 브라질 뱅크스 」 라고 불리는 바다는 뉴펀들랜드의 뱅크스처럼 그곳에 얕은 여울이 있고 바닥에 측심추가 닿아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니다. 참고래를 자주 쫓는 그 위도 일대에 늘 떠 있는 브릿의 거대한 무리 때문에 바다가 풀밭처럼 보이는 놀라운 모습에서 붙은 이름이다.

제59장 대왕오징어

브릿의 풀밭을 천천히 헤치며 피쿼드호는 여전히 자바섬을 향해 북동쪽으로 뱃길을 이어 갔다. 부드러운 바람이 용골을 밀어 주었고, 둘레의 고요 속에서 높고 끝이 가는 세 돛대는 들판에 선 순한 야자나무 세 그루처럼 그 나른한 미풍에 맞춰 살랑살랑 흔들렸다. 그리고 은빛 밤에는 여전히 이따금, 아주 드문드문, 그 외롭고 유혹하는 물줄기가 보이곤 했다.

그러나 맑고 푸른 어느 아침, 고인 듯한 무풍 상태는 전혀 아니었는데도 거의 초자연적인 고요가 바다 위에 퍼졌을 때, 물 위에 길게 깔린 반들반들한 햇빛의 길이 무언가를 비밀에 부치라고 이르며 물 위에 가로놓인 금빛 손가락처럼 보였을 때, 슬리퍼를 신은 듯한 파도들이 부드럽게 달려가며 저희끼리 소곤거렸을 때,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이 깊은 정적 속에서 다구가 큰돛대 꼭대기에서 야릇한 유령 하나를 보았다.

저 멀리서 거대한 흰 덩어리가 느릿느릿 떠오르더니, 점점 더 높이 떠올라 쪽빛 속에서 몸을 풀어 내어, 마침내 방금 산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눈사태처럼 우리 뱃머리 앞에서 번쩍였다. 그렇게 잠깐 반짝이다가 천천히 가라앉아 잠겼다. 그러고는 다시 한 번 떠올라 소리 없이 번쩍였다. 고래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게 모비 딕일까? 다구는 생각했다. 유령은 다시 내려갔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한 번 나타나자, 흑인은 꾸벅꾸벅 졸던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단도처럼

날카로운 소리로 외쳤다. "저기! 저기 또! 저기 솟구친다! 바로 앞이다! 흰 고래다, 흰 고래다!"

이 말에 선원들은 벌이 분봉 철에 나뭇가지로 몰려가듯 활대 끝으로 몰려갔다. 에이해브는 무더운 햇볕 아래 모자도 쓰지 않고 이물 기움돛대 위에 서서, 키잡이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한 손을 등 뒤로 멀리 뻗어 대기한 채, 높은 데서 꼼짝 않고 뻗은 다구의 팔이 가리키는 쪽으로 열띤 눈길을 던졌다.

고요하고 외로운 그 물줄기 하나가 스치듯 나타나 따라다닌 것이 서서히 에이해브에게 작용해서, 그가 이제 자기가 쫓는 바로 그 고래를 처음 보는 일에 부드러움과 평온이라는 관념을 이어 붙일 채비가 되어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든, 아니면 그의 조바심이 그를 배신했는지, 어느 쪽이었든 간에, 그는 그 흰 덩어리를 또렷이 알아보자마자 날카롭게 몰아치며 곧바로 보트를 내리라고 명령했다.

보트 네 척이 곧 물 위에 떴다. 에이해브의 보트가 앞장서고, 모두가 사냥감을 향해 재빨리 노를 저었다. 이윽고 그것은 가라앉았고, 우리가 노를 쳐든 채 그것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라! 그것이 가라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이 다시 한 번 천천히 떠올랐다. 잠시 모비 딕 생각은 거의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비밀스러운 바다가 지금껏 인류에게 드러내 보인 가운데 가장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았다. 길이와 너비가 몇 펄롱은 되는, 번득이는 크림빛의 거대한 흐물흐물한 덩어리가 물 위에 떠 있었다. 그 한가운데서 셀 수 없이 많은 긴 팔이 사방으로 뻗어 나와, 아나콘다가 우글거리는 둥지처럼 감기고 꼬이며, 손이 닿는 곳의 불운한 것이면 무엇이든 눈먼 듯 움켜쥐려는 것 같았다. 알아볼 수 있는 얼굴도 앞쪽도 없었다. 감각이나 본능의 흔적이라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그저 그곳 큰 물결 위에서 너울거릴 뿐이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형체 없는, 우연이 빚은 듯한 생명의 환영이었다.

그것이 나지막이 빨아들이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다시 사라지자, 스타벅은 그것이 가라앉은 자리의 출렁이는 물을 여전히 바라보며 미친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차라리 모비 딕을 보고 그놈과 싸우는 편이 너를 보는 것보다 나았겠다, 이 흰 유령아!"

"저게 뭐였소, 스타벅 씨?" 플래스크가 말했다.

"살아 있는 대왕오징어일세. 그걸 보고 제 항구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한 포경선은 몇 척 안 된다고들 하지."

그러나 에이해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보트를 돌려 본선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도 말없이 뒤따랐다.

향유고래 포경선원들이 대체로 이것을 보는 일에 어떤 미신을 이어 붙여 왔든, 이것을 언뜻이라도 보는 일이 아주 드물다는 사실이 이것에 불길한 징조의 빛을 크게 입혀 왔음은 확실하다. 이것은 워낙 드물게 눈에 띄므로, 그들은 하나같이 이것이 대양에서 가장 큰 생물이라고 단언하면서도, 그 참된 성질과 생김새에 대해서는 더없이 흐릿한 생각밖에 지니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것이 향유고래에게 유일한 먹이가 된다고 믿는다. 다른 종의 고래들은 물 위에서 먹이를 찾고 먹는 모습을 사람에게 들키기도 하지만, 경랍고래는 수면 아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서 먹이를 모두 얻으므로, 그 먹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누구든 추론으로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짝 쫓길 때면 놈은 이따금 대왕오징어의 떨어져 나간 팔로 여겨지는 것들을 토해 낸다. 그렇게 드러난 것 가운데 어떤 것은 길이가 20피트, 30피트를 넘는다. 그들은 이 팔의 임자인 괴물이 평소 이 팔로 바다 밑바닥에 매달려 있으며, 향유고래는 다른 종과 달리 이것을 공격해 찢으려고 이빨을 갖추었다고 상상한다.

폰토피단 주교의 거대한 크라켄이 결국은 대왕오징어로 풀릴지도 모른다고 상상할 근거가 얼마쯤 있는 듯하다. 주교가 그것을 번갈아

떠올랐다 가라앉는다고 묘사하는 모양이나 그가 들려주는 다른 몇 가지 세부를 보면, 그 모든 점에서 둘은 들어맞는다. 그러나 그가 그것에 매기는 믿을 수 없는 크기는 크게 깎아서 들어야 한다.

여기서 말한 이 신비한 생물에 대한 소문을 어렴풋이 들은 몇몇 박물학자들은 이것을 갑오징어 족속에 넣는다. 실제로 겉모습의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그 족속에 드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 족속의 아낙 자손, 곧 거인으로서일 뿐이다.

제60장 작살줄

곧 그려 보일 포경 장면과 관련하여, 그리고 다른 곳에 나오는 비슷한 장면들을 모두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여기서 마법 같은, 때로는 끔찍한 작살줄에 대해 말해 두어야겠다.

포경업에서 처음 쓰던 작살줄은 가장 좋은 삼으로 만들었고, 타르를 살짝 쐬었을 뿐 보통 밧줄처럼 타르를 흠뻑 먹이지는 않았다. 보통 쓰는 대로 타르를 쓰면 밧줄 만드는 사람에게는 삼이 더 나긋해지고, 선원에게도 밧줄 자체가 배에서 흔히 쓰기에 더 편해지기는 하지만, 보통의 양을 쓰면 작살줄은 촘촘히 사려 감아야 하는데 너무 뻣뻣해질 뿐 아니라, 대부분의 뱃사람들이 이제 알아 가기 시작했듯이, 타르는 밧줄을 아무리 단단하고 윤기 나게 해 주더라도 대체로 밧줄의 내구력이나 강도에는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몇 해 동안 미국 포경업에서는 마닐라 밧줄이 작살줄의 재료로서 삼을 거의 완전히 밀어냈다. 마닐라 밧줄은 삼만큼 오래가지는 않지만 더 질기고, 훨씬 더 부드럽고 탄력이 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모든 것에는 미학이 있으므로), 삼보다 훨씬 더 잘생겨서 보트에 어울린다. 삼은 거무튀튀하고 시커먼 녀석, 일종의 인디언이다. 그러나 마닐라는 보기에 금발의 체르케스 미인 같다.

작살줄은 굵기가 겨우 3분의 2인치다. 처음 보면 그대는 그것이 실제만큼 질기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실험해 보면 그 쉰한 가닥의 실 하나하나가 120파운드의 무게를 매달 수 있으므로, 밧줄

전체로는 거의 3톤에 맞먹는 힘을 견딘다. 길이로 보면, 보통의 향유고래 작살줄은 200패덤이 조금 넘는다. 보트의 고물 쪽에서 작살줄은 통 안에 나선으로 사려 감겨 있는데, 증류기의 냉각관처럼 감는 것이 아니라, 촘촘히 포개진 「켜」, 곧 같은 중심을 도는 나선의 층들로 된 둥근 치즈 모양의 덩어리 하나를 이루도록 감는다. 그 덩어리에는 「심」, 곧 치즈의 축에 생긴 아주 가는 수직의 관 말고는 빈 데가 없다. 사려 감은 데가 조금이라도 엉키거나 꼬이면, 줄이 풀려 나갈 때 틀림없이 누군가의 팔이나 다리나 몸뚱이 전체를 떼어 가 버릴 것이므로, 작살줄을 통에 갈무리할 때는 더없이 조심한다. 어떤 작살잡이들은 이 일에 오전 한나절을 거의 다 쓴다. 작살줄을 높이 끌어올렸다가 도르래를 거쳐 통 쪽으로 내려 꿰어, 사려 감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주름과 꼬임을 모두 없애려는 것이다.

영국 보트에서는 통 하나 대신 두 개를 쓴다. 한 줄을 두 통에 이어서 사려 감는 것이다. 여기에는 얼마간 이점이 있다. 이 쌍둥이 통은 아주 작아서 보트에 더 쉽게 들어가고 보트에 그리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름이 거의 3피트에 깊이도 그만한 미국식 통은 판자 두께가 겨우 반 인치인 배에게는 꽤 부피 큰 짐이 된다. 포경 보트의 바닥은 아슬아슬한 얼음과 같아서, 고루 퍼진 무게는 꽤 많이 견디지만 한곳에 몰린 무게는 그리 많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식 작살줄 통에 칠한 범포 덮개를 탁 씌우면, 보트는 고래들에게 바칠 어마어마하게 큰 웨딩 케이크를 싣고 노 저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작살줄의 양 끝은 다 드러나 있다. 아래 끝은 통 바닥에서 통 옆면을 따라 올라온 눈 이음, 곧 고리로 끝나며, 무엇에도 매이지 않은 채 통 가장자리 너머로 늘어져 있다. 아래 끝을 이렇게 두는 데는 두 가지 까닭이 있다. 첫째, 작살에 맞은 고래가 너무 깊이 잠수해서 처음에 작살에 매어 둔 작살줄을 통째로 끌고 갈 기세일 때, 이웃 보트의

작살줄을 덧이어 매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고래는 말하자면 맥주잔처럼 이 보트에서 저 보트로 넘겨지는 셈이다. 물론 첫 보트는 늘 가까이 머물며 짝을 돕는다. 둘째, 이렇게 해 두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된다. 작살줄의 아래 끝이 어떻게든 보트에 매여 있는데 고래가, 이따금 그러듯이, 연기 나는 단 1분 만에 작살줄을 끝까지 풀어 가 버린다면, 놈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운이 다한 보트는 틀림없이 놈을 따라 바다 깊은 곳으로 끌려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동네 포고꾼도 그 보트를 다시는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추격하려고 보트를 내리기 전에, 작살줄의 위 끝을 통에서 고물 쪽으로 끌어내어 거기 있는 작살줄 기둥에 한 바퀴 감은 다음, 다시 보트의 길이를 따라 끝까지 앞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작살줄은 모든 사람의 노 자루, 곧 손잡이 위에 가로놓여, 노를 저을 때 노잡이의 손목에 닿아 덜컥거린다. 그리고 양쪽 뱃전에 엇갈려 앉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보트의 뾰족한 이물 맨 끝에 있는 납 씌운 줄받이, 곧 홈에 이르는데, 거기서 보통 깃펜만 한 나무못, 곧 꼬챙이가 작살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줄받이에서 작살줄은 이물 너머로 살짝 꽃줄처럼 늘어졌다가 다시 보트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10패덤이나 20패덤쯤(상자 줄이라고 부른다)을 이물의 상자 위에 사려 둔 다음, 조금 더 고물 쪽 뱃전으로 길을 이어 가서, 짧은 줄, 곧 작살에 바로 이어지는 밧줄에 매인다. 그러나 그렇게 잇기 전에 짧은 줄은 자세히 늘어놓기에는 너무 지루한 갖가지 알쏭달쏭한 손질을 거친다.

이렇게 작살줄은 복잡하게 사린 고리로 보트 전체를 감싸며, 거의 모든 방향으로 그 둘레를 꼬이고 비틀린다. 노잡이는 모두 그 위험한 뒤틀림에 휘감겨 있다. 그래서 뭍사람의 겁 많은 눈에는 그들이 가장 치명적인 뱀들을 장난스레 팔다리에 꽃줄처럼 두른 인도의

곡예사들처럼 보인다. 그리고 어떤 여인의 아들도, 처음으로 그 삼밧줄의 얽히고설킨 가닥 사이에 앉아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면서,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작살이 날아가고 이 모든 끔찍한 뒤틀림이 고리진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서도, 이런 처지에서 뼛속 골수까지 흔들린 젤리처럼 떨리게 하는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버릇이란, 이상한 것이다! 버릇이 해내지 못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교수형 올가미에 매달린 채 포경 보트의 반 인치짜리 흰 삼나무 판자 위에서 듣게 될 것보다 더 신나는 재담, 더 즐거운 웃음, 더 나은 농담, 더 재치 있는 말대꾸를, 그대는 그대의 마호가니 식탁 위에서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에드워드 왕 앞에 선 칼레의 시민 여섯처럼, 보트의 선원을 이루는 여섯 사내는, 말하자면 저마다 목에 올가미를 건 채로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노를 저어 들어간다.

아마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작살줄에 걸려 보트 밖으로 끌려 나가 사라졌다는, 되풀이되는 포경 사고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몇 가지만이 우연히 기록에 남아 있다. 작살줄이 쏜살같이 풀려 나갈 때 보트에 앉아 있는 것은, 모든 날아다니는 대들보와 굴대와 바퀴가 그대를 스치는 한창 돌아가는 증기 기관의 온갖 윙윙거림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과 같다. 그보다 더 나쁘다. 이 위험의 한복판에서 그대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보트는 요람처럼 흔들리고, 그대는 조금의 예고도 없이 이리저리 내던져진다. 그리고 저절로 몸을 맞추는 어떤 부력과, 마음먹기와 몸놀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재빠름이 있어야만, 그대는 마제파 꼴이 되어 모든 것을 보는 해조차 그대를 찾아낼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일을 면할 수 있다.

또 있다. 폭풍에 앞서 오며 폭풍을 예언하는 듯 보일 뿐인 깊은 고요가 어쩌면 폭풍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처럼(실로 고요는 폭풍의 포장이요 봉투일 뿐이고, 해롭지 않아 보이는 소총이 치명적인 화약과 탄알과 폭발을 품고 있듯이 폭풍을 제 안에 품고 있으므로), 작살줄이 실제로 쓰이기 전에 노잡이들 둘레를 소리 없이 뱀처럼 휘감고 있는 그 우아한 휴식이야말로, 이 위험한 일의 다른 어떤 모습보다 더 참된 공포를 품고 있다. 그러나 무엇 하러 더 말하겠는가? 모든 사람은 작살줄에 감싸여 산다. 모두가 목에 올가미를 걸고 태어난다. 그러나 죽음이 재빠르게, 느닷없이 방향을 틀 때 거기 걸려들고 나서야 인간은 삶의 소리 없고 교묘하며 늘 곁에 있는 위험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대가 철학자라면, 포경 보트에 앉아 있더라도, 저녁에 난롯가에서 작살 대신 부지깽이를 곁에 두고 앉아 있을 때보다 마음속으로 조금도 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제61장 스터브, 고래를 잡다

스타벅에게 대왕오징어의 출현이 불길한 징조였다면, 퀴퀘그에게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너 오징어 본다, 그럼 너 곧 향유고래 본다." 야만인은 매달아 올린 제 보트의 이물에서 작살을 갈며 말했다.

이튿날은 몹시 고요하고 무더웠다. 딱히 할 일도 없었으므로, 피쿼드호의 선원들은 그토록 텅 빈 바다가 불러오는 잠의 주문을 좀처럼 이겨 내지 못했다. 그때 우리가 지나던 인도양의 이 일대는 포경선원들이 말하는 활기찬 어장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라플라타강 앞바다나 페루 앞 연안 어장에 견주면, 쇠돌고래나 만새기나 날치처럼 더 북적이는 바다에 사는 활발한 주민들을 엿볼 기회가 적었다.

앞돛대 꼭대기에 설 차례가 내게 왔다. 나는 느슨해진 로열 돛대 밧줄에 어깨를 기대고, 마법에 걸린 것 같은 공기 속에서 하릴없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어떤 결심도 그것을 버텨 내지 못했다. 그 꿈결 같은 기분 속에서 정신을 온통 잃고, 마침내 내 영혼은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래도 내 몸은 처음 그것을 움직인 힘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흔들리는 진자처럼 계속 흔들렸다.

망각이 나를 완전히 덮치기 전에, 나는 큰돛대와 뒷돛대 꼭대기의 선원들도 벌써 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셋은 모두 넋 나간 채 활대에 매달려 흔들렸고, 우리가 한 번 흔들릴 때마다 아래에서 졸고 있는 키잡이가 한 번씩 고개를 끄덕였다. 파도들도 게으른

물마루를 끄덕였다. 그리고 넓게 넋을 잃은 바다 너머로 동쪽은 서쪽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해는 그 모두 위에서 끄덕였다.

갑자기 감은 눈 밑에서 거품이 터지는 것 같았다. 내 손은 바이스처럼 밧줄을 움켜쥐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비로운 힘이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살아났다. 그리고 보라! 우리 배의 바람 불어 가는 쪽 바로 가까이, 40패덤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거대한 향유고래 한 마리가 뒤집힌 프리깃함의 선체처럼 물속에서 뒹굴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사람의 살빛을 띤 넓고 반들반들한 등은 햇살 속에서 거울처럼 번득였다. 그러나 파도의 골에서 느긋하게 너울거리며 이따금 차분하게 김 같은 물줄기를 뿜는 그 고래는, 따뜻한 오후에 파이프를 피우는 뚱뚱한 시민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엾은 고래야, 그 파이프가 네 마지막 파이프였다. 마치 어느 마법사의 지팡이에 맞기라도 한 듯, 졸던 배와 그 안에서 자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퍼뜩 깨어났다. 그리고 그 커다란 물고기가 천천히, 규칙적으로 반짝이는 소금물을 공중에 뿜어 올리는 동안, 배의 곳곳에서 스무 명이 넘는 목소리가 높은 데서 울린 세 목소리와 동시에 늘 하던 외침을 터뜨렸다.

"보트를 풀어라! 바람 쪽으로 돌려라!" 에이해브가 외쳤다. 그리고 제 명령을 제가 따라, 키잡이가 손잡이를 잡기도 전에 키를 홱 밀어 내렸다.

선원들이 갑자기 지른 외침에 고래가 놀란 것이 틀림없었다. 보트가 다 내려지기도 전에 놈은 위엄 있게 몸을 돌려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헤엄쳐 갔다. 그러나 너무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헤엄치며 물결도 거의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놈이 어쩌면 아직 놀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에이해브는 노를 하나도 쓰지 말고 누구도 속삭임 말고는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우리는 온타리오 인디언처럼 보트 뱃전에 걸터앉아 빠르게, 그러나 소리 없이 짧은 노를 저어 나아갔다. 바람이 없어 소리 나지 않는 돛을 올릴 수도 없었다. 이윽고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지듯 쫓아가고 있을 때, 괴물은 꼬리를 공중으로 40피트나 곧추세워 휙 흔들더니, 삼켜지는 탑처럼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꼬리지느러미가 넘어간다!" 외침이 터졌다. 그 알림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스터브는 성냥을 꺼내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이제 한숨 돌릴 틈이 생겼기 때문이다. 놈이 잠수하는 동안의 시간이 꽉 차게 지나자 고래는 다시 떠올랐다. 이제 놈은 담배 피우는 사람의 보트 앞쪽에, 그것도 다른 어느 보트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으므로, 스터브는 잡는 영예가 제 것이리라고 믿었다. 이제는 고래가 마침내 쫓는 자들을 알아챈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 조심하느라 지키던 침묵은 더는 쓸모가 없었다. 짧은 노를 내려놓고, 긴 노가 요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터브는 여전히 파이프를 뻐끔거리며 선원들을 돌격으로 몰아세웠다.

그렇다, 그 물고기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제 위험을 온전히 알아챈 놈은 「머리를 내밀고」 달아나고 있었다. 놈이 빚어낸 미친 듯한 효모 거품 위로 그 부위가 비스듬히 튀어나와 있었다.[1]

"밀어라, 밀어라, 얘들아! 서두르지는 마라. 느긋하게들 해라. 하지만 밀어라. 천둥 치듯 밀어라, 그거면 된다." 스터브가 말하면서 연기를 푸푸 뱉으며 외쳤다. "자, 밀어라. 길고 힘차게 당겨 줘라, 태시테고. 밀어라, 태시, 이 녀석아. 다들 밀어라. 그래도 침착해라, 침착해. 오이처럼 서늘하게, 그게 요령이다. 살살, 살살. 그저 무시무시한 죽음처럼, 이를 드러낸 악마처럼 밀어서, 묻힌 송장들이 무덤에서 꼿꼿이 일어서게 해라, 얘들아. 그거면 된다. 밀어라!"

"우후! 와히!" 게이헤드 사내는 대답으로 하늘에 대고 옛 함성을 내지르며 소리쳤다. 그 열띤 인디언이 엄청나게 앞장선 한 번의 노질을 하자, 팽팽하게 긴장한 보트의 노잡이들이 모두 저도 모르게 앞으로 튀어 나갔다.

그러나 그의 거친 비명에 그만큼 거친 다른 비명들이 화답했다. "키히! 키히!" 다구가 우리 안을 서성이는 호랑이처럼 자리에서 앞뒤로 몸을 부리며 고함쳤다.

"칼라! 쿨루!" 퀴퀘그가 근위병 스테이크 한 입을 두고 입맛이라도 다시듯 울부짖었다. 그렇게 노와 고함으로 용골들은 바다를 갈랐다. 그동안 스터브는 맨 앞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선원들을 돌격으로 북돋웠고, 그러는 내내 입에서 연기를 뿜어냈다. 그들은 무법자들처럼 끌어당기고 용을 썼고, 마침내 반가운 외침이 들렸다. "일어서, 태시테고! 놈에게 먹여라!" 작살이 날아갔다. "모두 뒤로!" 노잡이들이 노를 거꾸로 저었다. 바로 그 순간, 뜨겁게 쉿쉿거리는 무언가가 그들 모두의 손목을 따라 지나갔다. 그 마법의 작살줄이었다. 바로 한순간 전에 스터브가 재빨리 작살줄을 작살줄 기둥에 두 번 더 감아 두었는데, 이제 줄이 더 빠르게 감겨 돌자 그곳에서 삼밧줄이 타는 푸른 연기가 솟아올라 그의 파이프에서 꾸준히 피어오르는 연기와 뒤섞였다. 작살줄은 작살줄 기둥을 빙빙 돌았고, 그 지점에 이르기 바로 전에는 스터브의 두 손 사이를 살갗이 부르틀 만큼 쓸며 지나갔다. 이럴 때 이따금 끼는 손 헝겊, 곧 누빈 범포 조각이 그의 손에서 그만 떨어져 버렸던 것이다. 그것은 적의 날카로운 양날 칼을 칼날째 쥐고 있는데, 그 적이 그것을 내내 손아귀에서 비틀어 빼앗으려 애쓰는 것과 같았다.

"줄을 적셔라! 줄을 적셔!" 스터브가 통 노잡이(통 옆에 앉은 사람)에게 외치자, 그는 모자를 홱 벗어 바닷물을 떠서 거기 끼얹었다.[2] 줄을 몇 바퀴 더 감자 작살줄이 제자리를 지키기 시작했다. 이제 보트는 온몸이 지느러미인 상어처럼 끓어오르는 물을 가르며 날았다. 이때 스터브와 태시테고는 자리를 바꾸었다. 이물과 고물을 맞바꾸는 일이었으니, 그렇게 흔들리는 소동 속에서는 참으로 비틀거리는 일이었다.

보트 위쪽 길이를 따라 끝까지 뻗은 채 떨리는 작살줄을 보면, 그리고 그 줄이 이제 하프 줄보다 더 팽팽한 것을 보면, 그대는 보트가 서로 맞서는 두 원소를 한꺼번에 휘저으며 나아가는 동안, 이 배에 용골이 둘 있다고, 하나는 물을 가르고 하나는 공기를 가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물에서는 폭포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배가 지나간 자리에는 쉼 없이 소용돌이가 돌았다. 그리고 안에서 아주 조금만,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떨며 삐걱거리는 보트는 경련하는 뱃전을 바다 쪽으로 기울였다. 그렇게 그들은 내달렸다. 저마다 물거품 속으로 내던져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자리에 매달렸다. 키잡이 노를 잡은 태시테고의 큰 몸은 무게 중심을 낮추려고 거의 반으로 접힐 만큼 웅크렸다. 그렇게 쏜살같이 나아가는 동안 대서양과 태평양을 통째로 몇 개는 지나온 것 같았고, 마침내 고래가 달아나는 기세를 얼마쯤 늦추었다.

"당겨라, 당겨!" 스터브가 뱃머리 노잡이에게 외쳤다. 그러자 모두가 고래 쪽으로 몸을 돌려, 보트가 아직 끌려가는 동안에도 보트를 놈에게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곧 놈의 옆구리에 나란히 붙자, 스터브는 투박한 무릎받이에 무릎을 단단히 박고 달아나는 물고기에게 창을 잇달아 던져 꽂았다.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보트는 고래가 끔찍하게 뒹구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한 번 던지려고 나란히 다가붙기를 되풀이했다.

이제 붉은 물살이 언덕을 흘러내리는 시냇물처럼 괴물의 온 사방에서 쏟아졌다. 고통받는 놈의 몸뚱이는 소금물이 아니라 피 속에서 뒹굴었고, 그 피는 그들이 지나간 자리 뒤로 몇 펄롱에 걸쳐 거품을 일으키며 끓어올랐다. 비스듬한 햇살이 바다 속 이 진홍빛 못 위에서 일렁이며 모든 얼굴에 그 빛을 되비추었으므로, 그들은 모두 서로에게 붉은 인디언처럼 빛나 보였다. 그러는 내내 고래의 숨구멍에서는 하얀 연기가 한 줄기 또 한 줄기 고통스럽게 뿜어져 나왔고, 흥분한 보트장의

입에서는 거센 연기가 한 모금 또 한 모금 뿜어져 나왔다. 스터브는 창을 던질 때마다 거기 매인 줄로 휘어진 창을 끌어당겨, 뱃전에 대고 몇 번 재빨리 두들겨 다시, 또다시 곧게 편 다음, 다시, 또다시 고래에게 박아 넣었다.

"바짝 대라, 바짝 대라!" 기운이 빠져 가는 고래의 분노가 누그러지자 그는 이제 뱃머리 노잡이에게 외쳤다. "바짝 대라! 바싹!" 그리고 보트는 물고기의 옆구리를 따라 나란히 붙었다. 스터브는 이물 너머로 멀리 몸을 내밀고, 길고 날카로운 창을 물고기 속으로 천천히 휘저어 넣고는 거기 그대로 둔 채 조심스레 휘젓고 또 휘저었다. 마치 고래가 삼켰을지도 모를 금시계를 꺼내기도 전에 깨뜨릴까 봐 겁을 내며 조심조심 더듬어 찾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찾던 그 금시계는 물고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목숨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찔렸다. 괴물은 넋 나간 상태에서 깨어나 「발작」 이라는 이름의 그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들어가더니, 제 피 속에서 끔찍하게 뒹굴며 꿰뚫어 볼 수 없는 미친 듯 끓어오르는 물보라로 제 몸을 겹겹이 감쌌다. 그래서 위태로워진 보트는 곧바로 뒤로 물러서서, 그 광란의 어스름에서 맑은 대낮의 공기 속으로 앞도 보지 못한 채 빠져나오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

그리고 이제 발작이 잦아들자, 고래는 다시 한 번 굴러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이쪽저쪽으로 출렁이며, 날카롭고 갈라지는 고통스러운 숨을 쉬면서 경련하듯 숨구멍을 벌렸다 오므렸다 했다. 마침내 엉긴 붉은 핏덩이가 붉은 포도주의 자줏빛 앙금처럼 한 번 또 한 번 겁먹은 공기 속으로 솟구쳤고, 다시 떨어져 꼼짝 않는 옆구리를 타고 뚝뚝 흘러 바다로 내려갔다. 놈의 심장이 터진 것이다!

"죽었습니다, 스터브 항해사님." 다구가 말했다.

"그래. 파이프 두 개가 다 타 버렸구나!" 스터브는 제 파이프를 입에서 빼어 꺼진 재를 물 위에 흩뿌렸다. 그리고 잠시 서서 자기가 만든 거대한

시체를 생각에 잠겨 바라보았다.

---

1. 향유고래의 거대한 머리 안쪽 전체가 얼마나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는지는 다른 곳에서 보게 될 것이다. 겉보기에는 가장 육중한 부위지만, 실은 놈의 몸에서 단연 가장 잘 뜨는 부위다. 그래서 놈은 머리를 쉽게 공중으로 쳐들고, 있는 힘껏 빨리 달릴 때면 언제나 그렇게 한다. 게다가 놈의 머리 앞면은 위쪽이 그토록 넓고, 아래쪽은 물을 가르는 뱃머리처럼 그토록 가늘어지는 생김새여서, 머리를 비스듬히 쳐들면 놈은 이물이 뭉툭한 굼뜬 갤리엇선에서 끝이 뾰족한 뉴욕 수로 안내선으로 탈바꿈한다고 할 수 있다.

2. 이 일이 얼마나 없어서는 안 되는지를 얼마쯤 보여 주려고 여기서 말해 두자면, 옛 네덜란드 포경업에서는 풀려 나가는 작살줄에 물을 끼얹는 데 대걸레를 썼다. 다른 많은 배에서는 나무 손잡이 바가지, 곧 물 푸는 그릇을 그 일에 따로 마련해 둔다. 그러나 그대의 모자가 가장 편리하다.

제62장 작살 던지기

앞 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한마디.

포경업의 변함없는 관례에 따라, 포경 보트는 보트장, 곧 고래를 죽이는 사람이 임시 키잡이를 맡고 작살잡이, 곧 고래를 꿰어 붙드는 사람이 맨 앞의 노, 이른바 작살잡이 노를 저으며 본선을 떠난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첫 작살을 꽂으려면 억세고 힘찬 팔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멀리 던지기에서는 그 무거운 연장을 20피트나 30피트 거리까지 내던져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격이 아무리 길고 진이 빠지더라도, 작살잡이는 그동안 제 노를 있는 힘껏 저어야 한다. 아니, 믿기지 않는 노질뿐 아니라 거듭되는 크고 대담한 외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초인 같은 활약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근육이 모두 팽팽히 당겨져 반쯤 튀어나온 판에 목청껏 고함을 계속 질러 대는 것이 어떤 일인지는, 해 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나로 말하자면, 정말 신나게 고함치면서 동시에 정말 무모하게 일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이렇게 용쓰고 고함치는 상태에서, 물고기를 등지고 있던 녹초가 된 작살잡이는 갑자기 가슴 뛰는 외침을 듣는다. "일어서서 놈에게 먹여라!" 이제 그는 노를 놓아 단단히 걸쳐 두고, 제자리에서 반 바퀴 몸을 돌려, 작살 받침에서 작살을 움켜쥐고, 얼마 남지 않았을 힘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고래에게 내던지려 애써야 한다. 포경선원 전체를 한데 뭉뚱그려 볼 때, 작살을 던질 만한 좋은 기회 쉰 번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다섯 번도 안 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토록 많은 불운한 작살잡이들이

미친 듯한 욕을 먹고 강등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이 실제로 보트 안에서 핏줄이 터지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어떤 향유고래 포경선원들이 네 해를 나가 있다가 네 배럴을 들고 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많은 선주에게 포경이 밑지는 장사일 뿐인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항해를 만드는 것은 작살잡이인데, 그의 몸에서 숨을 다 빼버리면 가장 필요할 때 그 숨이 거기 있기를 어떻게 바라겠는가!

또, 작살 던지기가 성공하면, 두 번째 아슬아슬한 순간, 곧 고래가 달아나기 시작할 때, 보트장과 작살잡이도 앞뒤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저희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당장 위험에 빠뜨린다. 그들이 자리를 바꾸는 것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작은 배의 우두머리인 보트장이 보트 이물의 제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누가 반대로 주장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은 어리석고도 쓸데없다. 보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물에 있어야 한다. 그가 작살과 창을 둘 다 던져야 하고, 어느 어부에게나 뻔한 경우가 아니면 그에게 노질을 조금도 바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추격에서 이따금 속도가 조금 떨어지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한 나라 이상의 여러 포경선원들이 겪은 오랜 경험으로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포경업의 실패 가운데 대다수는 고래의 빠르기 때문이라기보다, 결코 그보다는, 앞서 말한 작살잡이의 탈진 때문에 일어났다.

작살 던지기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면, 이 세상의 작살잡이들은 고된 일 끝이 아니라 한가로움 속에서 벌떡 일어서야 한다.

제63장 작살 받침

줄기에서 가지가 자라고, 가지에서 잔가지가 자란다. 그렇게, 열매가 많은 주제에서는 장(章)들이 자란다.

앞쪽 어느 쪽에서 넌지시 말한 작살 받침은 따로 언급할 만하다. 그것은 길이가 2피트쯤 되는 특이한 모양의 홈 파인 막대로, 이물 가까운 우현 뱃전에 수직으로 꽂혀 있으며, 작살의 나무 끝을 받쳐 주는 구실을 한다. 작살의 다른 쪽, 미늘 달린 맨 쇠 끝은 이물 앞으로 비스듬히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그 무기는 던지는 사람의 손에 곧바로 닿는다. 그는 산골 개척민이 벽에서 소총을 휙 내리듯 손쉽게 받침에서 작살을 낚아챈다. 작살 받침에는 작살 두 자루를 얹어 두는 것이 관례이며, 이것을 각각 첫째 작살, 둘째 작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두 작살은 저마다 제 끈으로 둘 다 작살줄에 이어져 있다. 그 목적은 이렇다. 할 수만 있다면 둘을 같은 고래에게 하나를 던지고 곧바로 또 하나를 던져, 뒤이어 끌려가는 동안 하나가 빠지더라도 다른 하나가 여전히 박혀 있게 하려는 것이다. 기회를 두 배로 늘리는 셈이다. 그러나 고래가 첫 작살을 맞자마자 순식간에 사납게 경련하듯 달아나기 때문에, 작살잡이가 아무리 번개처럼 몸을 놀려도 둘째 작살을 놈에게 던질 수 없게 되는 일이 아주 흔하다. 그래도 둘째 작살은 이미 작살줄에 이어져 있고 작살줄은 풀려 나가고 있으므로, 그 무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어디로든, 미리 보트 밖으로 던져 버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없이 끔찍한 위험이 모든 사람을 휘감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작살을 물속으로 굴려 떨어뜨린다. 대개는 (앞 장에서 말한) 상자 줄의 여분 사리가 있어서 이 재주를 신중하게 부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아슬아슬한 동작이 언제나 더없이 슬프고 치명적인 사고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것도 알아 두어야 한다. 둘째 작살을 배 밖으로 던지고 나면, 그때부터 그것은 날 선 채 대롱대롱 매달린 공포가 되어, 보트와 고래 둘레를 날뛰듯 껑충거리며 작살줄을 엉키게 하거나 끊고, 사방에 엄청난 소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대체로 고래를 완전히 잡아 시체로 만들 때까지는 그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라. 보트 네 척이 모두 유난히 힘세고 날래고 영리한 고래 한 마리와 맞붙는 경우는 어떻겠는가. 놈의 이런 자질 때문에, 그리고 그런 대담한 일에 겹쳐 일어나는 천 가지 우연 때문에, 풀린 둘째 작살 여덟 자루나 열 자루가 한꺼번에 놈의 둘레에서 대롱거릴 수도 있다. 물론 보트마다 작살을 여러 자루 갖추고 있어서, 첫 작살을 헛되이 던져 거둬들이지 못하면 작살줄에 다른 작살을 매기 때문이다. 이 모든 세부를 여기서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려 보일 장면들 가운데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몇 대목을 틀림없이 밝혀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제64장 스터브의 저녁

스터브의 고래는 본선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죽었다. 바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트 세 척을 한 줄로 이어, 그 전리품을 피쿼드호까지 끌고 가는 더딘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열여덟 사내가 서른여섯 개의 팔과 백여든 개의 엄지와 손가락으로, 바다에 뜬 그 꼼짝 않는 굼뜬 시체를 붙들고 몇 시간이고 천천히 애쓰는데도, 시체는 아주 오랜 틈을 두고 말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옮기는 덩어리가 얼마나 엄청난지 똑똑히 드러났다. 중국의 황허 대운하인가 뭐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둑길의 일꾼 네댓 명이 짐을 가득 실은 부피 큰 정크선을 한 시간에 1마일 빠르기로 끌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끈 이 웅장한 보물선은 덩이 납이라도 가득 실은 듯 무겁게 꾸역꾸역 나아갔다.

어둠이 내렸다. 그러나 피쿼드호의 큰돛대 밧줄에 아래위로 걸린 등불 셋이 희미하게 우리 길을 이끌었고, 마침내 더 가까이 다가가자 에이해브가 뱃전 너머로 몇 개 더 되는 등불 가운데 하나를 늘어뜨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잠시 넘실거리는 고래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밤 동안 그것을 매어 두라는 늘 하던 명령을 내리고는, 등불을 선원 하나에게 건네주고 선장실로 제 길을 갔으며, 아침이 될 때까지 다시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고래의 추격을 지휘하면서 에이해브 선장은 늘 하던 그 활동력,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그 짐승이 죽은

지금, 어떤 흐릿한 불만이나 조바심이나 절망이 그의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시체를 보자 모비 딕은 아직 죽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났고, 다른 고래 천 마리를 그의 배로 끌어온다 해도 그 모든 것이 그의 웅대하고 편집광적인 목표를 조금도 앞당겨 주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난 것 같았다. 곧 피쿼드호 갑판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대는 모든 선원이 깊은 바다에 닻을 내릴 채비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무거운 사슬들이 갑판을 따라 질질 끌려가서는 현창 밖으로 덜그럭거리며 밀려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철커덕거리는 고리들로 매어 두려는 것은 배가 아니라 그 거대한 시체다. 머리는 고물에, 꼬리는 이물에 매인 채 고래는 이제 그 검은 선체를 배의 선체에 바짝 대고 누워 있다. 그리고 높은 데의 활대와 밧줄을 가린 밤의 어둠 속으로 보면, 그 둘, 배와 고래는 한 마리는 누워 있고 한 마리는 그대로 서 있는 거대한 황소 두 마리처럼 한 멍에에 매인 것 같았다.[1]

시무룩한 에이해브가 이제, 적어도 갑판에서 알 수 있는 한, 온전히 잠잠했다면, 그의 이등 항해사 스터브는 정복의 기쁨에 달아올라 여느 때 없이, 그러나 여전히 사람 좋게 들떠 있었다. 그가 어찌나 유별나게 부산을 떨었던지, 그의 직속 윗사람인 침착한 스타벅은 당분간 모든 일의 처리를 조용히 그에게 통째로 맡겨 버렸다. 스터브가 이렇게 활기찬 데에는 그것을 거든 자잘한 까닭도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곧 야릇하게 드러났다. 스터브는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고래를 제 입맛에 맞는 풍미 좋은 먹을거리로 여겨 얼마쯤 지나치게 좋아했다.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먹고 자야겠다! 어이, 다구! 배 밖으로 내려가서 놈의 꼬리 쪽 가는 데서 한 덩이 베어 와라!"

여기서 알아 두자면, 이 거친 어부들은 대체로, 그리고 위대한 군사 격언대로, 적에게 전쟁의 경상비를 치르게 하지는 않지만(적어도 항해의

수익을 거두기 전에는), 그래도 이따금 낸터킷 사람들 가운데에는 스터브가 가리킨 향유고래의 바로 그 부위, 곧 몸뚱이가 가늘어지는 끝부분을 참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한밤중 무렵에 그 스테이크가 베어지고 요리되었다. 그리고 향유고래 기름 등불 두 개를 밝힌 채, 스터브는 캡스턴 머리를 찬장 겸 식탁으로 삼아 그 앞에 버티고 서서 경랍 저녁을 먹었다. 그날 밤 고래 고기로 잔치를 벌인 것은 스터브만이 아니었다. 죽은 리워야단 둘레에 수천, 수만 마리의 상어가 우글거리며 그의 씹는 소리에 저희의 우물거리는 소리를 섞어, 쩝쩝 입맛을 다시며 그 기름진 살을 실컷 먹었다. 아래 침상에서 자던 몇몇 사람은 자는 사람의 심장에서 몇 인치 떨어지지 않은 선체를 상어들이 꼬리로 날카롭게 철썩 치는 소리에 자주 놀라 깼다. 뱃전 너머를 들여다보면 그대는 (앞서 소리를 들었듯이) 놈들이 음침하고 검은 물속에서 뒹구는 모습을 겨우 볼 수 있었다. 놈들은 사람 머리만 한 둥근 고깃덩이를 고래에게서 퍼내면서 벌렁 뒤집혔다. 상어의 이 특별한 재주는 거의 기적 같아 보인다. 공격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표면에서 놈들이 어떻게 그토록 반듯한 한 입씩을 도려내는지는 만물에 걸친 보편적 수수께끼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놈들이 이렇게 고래에 남기는 자국은 목수가 나사못을 박으려고 접시 모양으로 파 놓은 구멍에 견주는 것이 가장 알맞을 것이다.

해전의 연기 자욱한 온갖 끔찍함과 악마 같은 짓 한가운데에서도 상어들은 붉은 고기를 써는 식탁 둘레의 굶주린 개들처럼 배의 갑판을 애타게 올려다보며, 저희에게 던져지는 죽은 사람을 모조리 집어삼킬 채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갑판의 식탁 위에서 용맹한 백정들이 금박을 입히고 술을 단 고기 써는 칼로 이렇게 식인종처럼 서로의 산 고기를 써는 동안, 상어들 또한 보석 박힌 칼자루 같은 입으로 식탁 밑에서 죽은 고기를 서로 다투며 썬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거꾸로 뒤집어 보더라도

여전히 거의 같은 일, 곧 모든 당사자에게 충분히 충격적인 상어 같은 일이다. 또 상어들은 대서양을 건너는 모든 노예선의 변함없는 호위 기병이어서, 어디로든 짐 꾸러미를 날라야 하거나 죽은 노예를 점잖게 묻어 주어야 할 때를 대비해 꼬박꼬박 배 곁을 따라 달린다. 그리고 상어들이 가장 사교적으로 모여 가장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 정해진 때와 곳과 경우에 관해 이와 비슷한 예를 한두 가지 더 적을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따져도, 밤에 바다에서 포경선 곁에 매인 죽은 향유고래 둘레만큼 셀 수 없이 많은 상어들이, 그토록 신나고 흥겨운 기분으로 모이는 때나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그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악마 숭배가 옳은지, 그리고 악마와 화해하는 편이 이로운지에 대한 판단은 잠시 미루어 두라.

그러나 아직 스터브는 그토록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잔치의 우물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상어들이 그의 미식가다운 입술이 쩝쩝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요리사, 요리사! 그 플리스 영감 어디 있냐?" 그는 마침내 저녁 식사의 받침을 더 단단히 하려는 듯 다리를 더 넓게 벌리며 외쳤다. 그와 동시에 창으로 찌르듯 포크를 접시에 푹 꽂았다. "요리사, 이봐 요리사! 이리로 항해해 와라, 요리사!"

그 늙은 흑인은 앞서 더없이 때아닌 시각에 따뜻한 해먹에서 끌려 나온 일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채, 조리실에서 발을 끌며 걸어 나왔다. 늙은 흑인들이 흔히 그렇듯, 그도 무릎의 종지뼈가 어찌 된 데가 있었다. 그는 그 종지를 다른 종지들처럼 잘 닦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플리스 영감이라고 부르는 이 노인은 발을 끌고 절뚝이며 다가왔는데, 곧게 편 쇠테로 서툴게 만든 부젓가락으로 걸음을 거들었다. 이 늙은 흑단 영감은 허우적허우적 다가와 명령대로 스터브의 찬장 맞은편에 딱 멈춰 섰다. 그러고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 다리 둘 달린 지팡이에 얹고,

굽은 등을 한층 더 굽히며, 동시에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잘 들리는 쪽 귀를 들이댔다.

"요리사." 스터브는 꽤 불그스름한 고기 한 점을 재빨리 입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이 스테이크 좀 너무 익은 것 같지 않냐? 너 이 스테이크를 너무 두들겼어, 요리사. 너무 연하다. 고래 스테이크는 맛있으려면 질겨야 한다고 내가 늘 말하지 않던? 저기 뱃전 너머 상어들 좀 봐라. 놈들도 질기고 덜 익은 걸 좋아하는 거 안 보이냐? 저 난리 법석 떠는 꼴 좀 봐! 요리사, 가서 놈들한테 말 좀 해라. 얌전하게, 알맞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조용히는 해야 한다고 일러라. 젠장, 내 목소리도 안 들릴 지경이다. 가라, 요리사,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자, 이 등불 가져가라." 그는 찬장에서 등불 하나를 낚아챘다. "자 그럼, 가서 놈들한테 설교해라!"

플리스 영감은 내미는 등불을 뚱하니 받아 들고 갑판을 가로질러 뱃전까지 절뚝절뚝 걸어갔다. 그러고는 회중을 잘 보려고 한 손으로 등불을 바다 위로 낮게 늘어뜨리고, 다른 손으로는 부젓가락을 엄숙하게 휘두르며, 뱃전 너머로 멀리 몸을 내밀고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상어들에게 설교를 시작했다. 그동안 스터브는 살그머니 뒤로 기어가 하는 말을 모두 엿들었다.

"동무 짐승들, 나는 거기서 그 빌어먹을 소리를 그치라고 이르라는 명을 받고 왔소. 들리오? 그 빌어먹을 입맛 다시는 소리를 그치란 말이오! 스터브 나리 말씀이, 그 빌어먹을 배때기를 승강구까지 죄다 채워도 좋지만, 맙소사! 그 빌어먹을 소란만은 그쳐야 한다는 거요!"

"요리사." 스터브가 여기서 끼어들며 그 말과 함께 그의 어깨를 갑자기 철썩 쳤다. "요리사! 아니, 이런 빌어먹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야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가 없다, 요리사!"

"누구요? 그럼 나리가 직접 설교하구려." 그는 뚱하니 돌아서 가려 했다.

"아니다, 요리사. 계속해, 계속해."

"그럼 좋소. 사랑하는 동무 짐승들……"

"그렇지!" 스터브가 흐뭇해하며 외쳤다. "살살 달래 봐라. 그렇게 해 봐." 그러자 플리스는 이어 갔다.

"그대들은 죄다 상어이고 타고나기를 몹시 게걸스럽지만, 동무 짐승들, 내 그대들에게 말하오만, 그 게걸스러움은…… 그 빌어먹을 꼬리 철썩대는 짓 좀 그치소! 거기서 그렇게 빌어먹을 철썩대고 물어뜯어 대면서 뭣을 듣겠다는 거요?"

"요리사." 스터브가 그의 멱살을 잡으며 외쳤다. "욕은 안 된다니까. 신사답게 말해라."

설교는 다시 한 번 이어졌다.

"동무 짐승들, 그대들의 게걸스러움을 나는 그리 나무라지 않소. 그건 타고난 것이니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그 사악한 본성을 다스리는 것, 그게 요점이오. 그대들은 상어요, 암. 하지만 그대들 속의 상어를 다스리면, 그럼 그대들은 천사가 되는 거요. 천사란 죄다 잘 다스린 상어일 뿐이니까. 자, 보소, 형제들. 저 고래에서 먹을 때 한 번만이라도 점잖게 굴어 보구려. 이웃의 입에서 지방층을 뜯어내지 말란 말이오. 저 고래에 대해서는 상어마다 다른 상어와 똑같이 권리가 있지 않소? 그리고 맙소사, 그대들 가운데 누구도 저 고래에 권리가 없소. 저 고래는 딴 사람 것이오. 그대들 가운데 몇은 입이 아주 크다는 걸, 남들보다 더 크다는 걸 나도 아오. 하지만 큰 입이 때로는 작은 배를 달고 있구려. 그러니 입이 큰 것은 삼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북새통을 비집고 들어가 제 몫을 먹지 못하는 새끼 상어들에게 지방층을 뜯어 주라고 있는 거요."

"잘한다, 플리스 영감!" 스터브가 외쳤다. "그게 기독교다. 계속해라."

"계속해 봐야 소용없소. 그 빌어먹을 악당들은 서로 계속 할퀴고 철썩댈 거요, 스터브 나리. 한마디도 안 듣는구려. 나리 말씀대로 그런 빌어먹을 먹보들한테는 배때기가 찰 때까지 설교해 봐야 소용없소. 그런데 놈들 배때기는 밑이 없구먼. 그리고 배가 찼을 때는 그때 가서 또 안 들을 거요. 그때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산호 위에서 깊이 잠들어 버려서, 영영, 영영 아무것도 못 들을 테니까."

"맹세코, 나도 거의 같은 생각이다. 그러니 축도를 해라, 플리스. 그럼 나는 저녁 먹으러 가련다."

이 말에 플리스는 물고기 떼 위로 두 손을 내밀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저주받은 동무 짐승들아! 할 수 있는 한 가장 지독한 난리를 피우구려. 그 빌어먹을 배때기가 터질 때까지 채우소. 그리고 죽으소."

"자, 요리사." 스터브가 캡스턴에서 다시 저녁을 들며 말했다. "아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거기, 내 맞은편에 서서 특별히 잘 들어라."

"죄다 듣고 있소." 플리스가 다시 바라는 대로 부젓가락에 몸을 기대고 숙이며 말했다.

"좋아." 스터브가 그동안 마음껏 먹으며 말했다. "이제 이 스테이크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우선, 너 몇 살이냐, 요리사?"

"그게 스테이크랑 뭔 상관이오." 늙은 흑인이 버럭 성을 내며 말했다.

"조용히 해! 몇 살이냐, 요리사?"

"아흔쯤 됐다고들 하오." 그가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의 백 년을 살고도, 요리사, 아직 고래 스테이크 하나 요리할 줄 모른단 말이냐?" 마지막 말과 함께 그가 또 한 입을 재빨리 꿀꺽 삼켰으므로, 그 고깃점이 물음의 연장처럼 보였다. "어디서 태어났냐, 요리사?"

"로어노크강을 건너는 나룻배에서, 승강구 뒤에서 났소."

"나룻배에서 태어났다고! 그것도 괴상하군. 하지만 나는 네가 어느 고장에서 태어났는지 알고 싶다, 요리사!"

"로어노크 고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소?" 그가 날카롭게 외쳤다.

"아니, 안 했어, 요리사.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말해 주마, 요리사. 너는 고향에 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는 아직 고래 스테이크를 요리할 줄 모르니까."

"내가 또 하나 요리하면 내 영혼에 복이나 내리라지." 그는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며 가려고 돌아섰다.

"돌아와, 요리사. 자, 그 부젓가락 이리 줘. 자, 저기 저 스테이크 조각을 집어서, 그 스테이크가 제대로 요리된 것 같은지 말해 봐. 집으라니까." 그는 부젓가락을 그에게 내밀었다. "집어서 맛을 봐."

늙은 흑인은 잠시 그것을 놓고 쭈글쭈글한 입술로 희미하게 입맛을 다시더니 중얼거렸다. "내가 먹어 본 중에 제일 잘 익은 스테이크구먼. 즙이 많소, 아주 즙이 많아."

"요리사." 스터브가 다시 한 번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너 교회 다니냐?"

"케이프타운에서 한 번 지나가 봤소." 노인이 뚱하니 말했다.

"그래, 평생에 한 번 케이프타운의 거룩한 교회 앞을 지나갔고, 거기서 틀림없이 거룩한 목사가 청중을 사랑하는 동무 피조물들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엿들었겠지, 그렇지, 요리사! 그런데도 여기 와서 방금처럼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내게 한단 말이지, 응?" 스터브가 말했다. "너는 어디로 갈 작정이냐, 요리사?"

"곧 잠자리로 갈 작정이오." 그가 말하면서 반쯤 돌아서며 웅얼거렸다.

"멈춰! 정지! 네가 죽을 때 말이다, 요리사. 무시무시한 물음이다. 자, 대답이 뭐냐?"

"이 늙은 흑인이 죽으면." 흑인은 그의 몸가짐과 태도를 온통 바꾸며 천천히 말했다. "제 발로는 아무 데도 안 갈 거요. 복받은 천사가 와서 데려가겠지."

"데려가? 어떻게? 엘리야를 데려갔듯이 말 네 필이 끄는 마차로?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는데?"

"저 위로." 플리스가 부젓가락을 머리 위로 똑바로 쳐들고 아주 엄숙하게 그대로 들고 서서 말했다.

"그러니까 너는 죽으면 우리 큰돛대 망대로 올라갈 작정이란 말이지, 요리사? 그런데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는 거 모르냐? 큰돛대 망대라, 응?"

"그런 말은 전혀 안 했소." 플리스가 다시 뾰로통해져서 말했다.

"저 위라고 했잖아, 안 했냐? 그럼 이제 네 눈으로 직접 봐라, 네 부젓가락이 어딜 가리키는지. 하지만 어쩌면 너는 풋내기 구멍으로 기어서 천국에 들어갈 작정인가 보구나, 요리사. 그렇지만 안 돼, 안 돼, 요리사. 밧줄을 타고 돌아가는 제대로 된 길로 가지 않으면 거기 못 간다. 아슬아슬한 일이지만 해내야 해. 안 그러면 안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천국에 간 사람은 없지. 부젓가락 내려놔, 요리사. 그리고 내 명령을 들어라. 듣고 있냐? 내가 명령할 때는 한 손에 모자를 들고 다른 손은 심장 위에 얹어라, 요리사. 뭐야! 거기가 네 심장이야? 그건 네 모래주머니다! 위로! 위로! 그렇지, 이제 됐다. 이제 거기 그대로 대고 잘 들어라."

"죄다 듣고 있소." 늙은 흑인이 바라는 대로 두 손을 얹고, 두 귀를 한꺼번에 앞으로 내밀려는 듯 희끗희끗한 머리를 헛되이 꿈틀거리며 말했다.

"그럼 좋아, 요리사. 보다시피 네 이 고래 스테이크는 너무너무 형편없어서 내가 되도록 빨리 눈앞에서 치워 버렸다. 그거 보이지, 안

보이냐? 그럼, 앞으로 여기 내 전용 식탁, 이 캡스턴에 올릴 고래 스테이크를 또 요리할 때는, 너무 익혀서 망치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 주마. 한 손에 스테이크를 들고, 다른 손으로 벌건 숯을 거기 보여 줘라. 그게 끝나면 접시에 담아. 알아들었냐? 그리고 내일, 요리사, 우리가 그 물고기를 해체할 때 놈의 지느러미 끝을 얻도록 꼭 곁에 있어라. 그건 소금물에 절여 두고. 꼬리지느러미 끝은 식초에 담가 둬라, 요리사. 자, 이제 가도 좋다."

그러나 플리스가 세 걸음도 채 가기 전에 그는 다시 불려 왔다.

"요리사, 내일 밤 한밤중 당직 때 저녁으로 커틀릿을 내와라. 알아들었냐? 그럼 항해해 가라. 어이! 멈춰! 가기 전에 절해라. 다시 정지! 아침은 고래 완자다. 잊지 마."

"맙소사, 저 사람이 고래를 먹는 대신 고래가 저 사람을 먹었으면 좋겠구먼. 저 양반이 상어 나리보다 더 상어 같지 않다면 내 성을 갈겠소." 노인은 절뚝거리며 가면서 중얼거렸다. 이 현명한 외침과 함께 그는 해먹으로 갔다.

---

1. 여기서 작은 이야기 하나를 해 두는 것도 좋겠다. 고래를 뱃전에 매어 둘 때 배가 고래를 가장 단단하고 믿음직하게 붙드는 곳은 꼬리지느러미, 곧 꼬리다. 그 부위는 더 촘촘해서 (옆지느러미를 빼면) 다른 어느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죽어서도 나긋해서 수면 아래로 깊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보트에서 손으로는 거기 사슬을 두르려고 해도 닿지 않는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교묘하게 극복된다. 가늘고 질긴 밧줄을 하나 마련해, 바깥 끝에는 나무 부표를 달고 가운데에는 추를 달며, 다른 끝은 배에 맨다. 솜씨 있게 다루어 나무 부표가 덩어리의 반대쪽에서 떠오르게 하면, 이렇게 고래를 한 바퀴 두른 셈이 되므로 사슬도 쉽게 그 뒤를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슬을 몸뚱이를 따라 미끄러뜨려, 마침내 꼬리가 가장 가는 곳, 곧 넓은 꼬리지느러미, 곧 엽(葉)과 만나는 지점에 단단히 잠근다.

제65장 고래 요리

죽을 운명의 인간이 제 등잔을 먹여 살리는 짐승을 먹고 산다는 것, 그리고 스터브처럼, 말하자면 그 짐승 자신의 불빛 아래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도 기괴한 일로 보이므로, 그 역사와 철학을 조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3세기 전 프랑스에서는 참고래의 혀를 대단한 별미로 쳐서 비싼 값에 팔았다. 또 헨리 8세 때 궁정의 어느 요리사는 바비큐한 돌고래와 함께 먹는 훌륭한 소스를 고안해 두둑한 상을 받았다. 기억하겠지만 돌고래는 고래의 한 종이다. 실로 돌고래는 오늘날까지도 맛있는 먹을거리로 친다. 그 고기를 당구공만 한 완자로 빚어 양념과 향신료를 잘 치면 거북 완자나 송아지 고기 완자로 착각할 만하다. 던펌린의 옛 수도사들은 그것을 무척 좋아했다. 그들은 왕실에서 돌고래에 관한 큰 특허권을 받아 두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고래가 그렇게 덩치가 크지만 않다면 적어도 고래를 잡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고래를 고귀한 요리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길이가 거의 100피트나 되는 고기 파이 앞에 앉게 되면 입맛이 싹 달아난다. 요즘에는 스터브처럼 더없이 편견 없는 사람만이 고래 요리를 먹는다. 그러나 에스키모들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그들이 고래를 먹고 살며, 귀한 옛 빈티지의 오래 묵은 최상급 바다짐승 기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안다. 그들의 가장 이름난 의사 가운데 하나인 조그란다는 갓난아기에게 지방층 조각을 권하는데, 즙이 아주

많고 영양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다. 오래전에 어떤 영국 사람들이 포경선에서 뜻하지 않게 그린란드에 남겨졌는데, 이 사람들은 지방층에서 기름을 짜내고 물가에 버려둔 고래의 곰팡이 핀 찌꺼기를 먹으며 실제로 몇 달을 살아남았다. 네덜란드 포경선원들 사이에서 이 찌꺼기는 「튀김 과자」라고 불린다. 실제로 그것은 튀김 과자를 많이 닮았다. 갈색에 바삭바삭하며, 갓 만들었을 때는 옛 암스테르담 주부들이 만든 도넛, 곧 올리쿡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 그것은 워낙 먹음직해 보여서 아무리 금욕적인 이방인이라도 손을 대지 않고는 못 배긴다.

그러나 고래를 문명화된 요리로서 더욱 깎아내리는 것은 그 지나친 기름기다. 고래는 바다의 거대한 품평회 황소여서, 너무 살쪄서 섬세한 맛이 나지 않는다. 놈의 혹을 보라. 그것이 그토록 단단한 비계 피라미드만 아니라면 들소의 혹(귀한 요리로 친다)만큼 맛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랍 그 자체는 얼마나 부드럽고 크림 같은가. 자란 지 석 달 된 코코넛의 투명하고 반쯤 젤리 같은 하얀 속살 같다. 그러나 버터 대신 쓰기에는 너무도 기름지다. 그런데도 많은 포경선원들은 그것을 다른 무엇에 스며들게 해서 먹는 요령을 안다. 밤에 기름을 짜내는 긴 당직 때면 선원들이 건빵을 거대한 기름 솥에 담가 한동안 거기서 튀기는 것이 흔한 일이다. 나도 그렇게 해서 맛있는 저녁을 여러 번 먹었다.

작은 향유고래의 경우에는 골을 훌륭한 요리로 친다. 두개골이라는 보석함을 도끼로 깨뜨려 열고, 통통하고 희끄무레한 두 엽을 끄집어낸 다음(꼭 큰 푸딩 두 덩이처럼 생겼다), 밀가루와 섞어 더없이 맛깔스러운 요리로 만든다. 그 맛은 송아지 머리 요리와 얼마쯤 비슷한데, 송아지 머리는 몇몇 미식가들 사이에서 꽤 이름난 요리다. 그리고 누구나 알다시피, 미식가들 가운데 몇몇 젊은 멋쟁이들은 송아지 골을 줄곧 먹다 보면 차츰 제 골도 조금 생겨서, 송아지 머리와 제 머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실로 그것은 보통이 아닌 분별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리해 보이는 송아지 머리를 앞에 둔 젊은 멋쟁이는 어쩐지 그대가 볼 수 있는 가장 서글픈 광경 가운데 하나다. 그 머리는 「브루투스, 너마저!」 하는 표정으로 그를 원망스러운 듯 바라본다.

뭍사람들이 고래를 먹는 일을 몹시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고래가 지나치게 기름지기 때문만은 아닌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무래도 앞서 말한 생각, *곧* 인간이 갓 살해당한 바다의 짐승을 먹고, 그것도 그 짐승 자신의 불빛 아래서 먹는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틀림없이 맨 처음 황소를 죽인 사람은 살인자로 여겨졌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교수형을 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황소들이 그를 재판에 붙였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살인자가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면 그도 틀림없이 마땅했다. 토요일 밤에 고기 시장에 가서, 살아 있는 두 발 짐승 무리가 길게 줄지어 걸린 죽은 네 발 짐승들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보라. 그 광경을 보면 식인종의 턱에서 이빨 하나가 빠지지 않는가? 식인종? 식인종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가? 잘 들어 두라. 다가올 기근에 대비해 깡마른 선교사를 소금에 절여 지하 저장고에 넣어 둔 피지 사람이 차라리 견디기 쉬우리라. 내 말하거니와 심판의 날에는 그 앞날을 내다본 피지 사람 쪽이, 거위를 땅바닥에 못 박아 놓고 그 부풀어 오른 간을 거위 간 파테로 만들어 잔치를 벌이는 그대, 문명화되고 개화된 대식가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런데 스터브는 그 고래를 고래 자신의 불빛 아래서 먹는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은 상처에 모욕을 더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거기 그대의 칼자루를 보라, 그 로스트비프로 식사하는 나의 문명화되고 개화된 대식가여. 그 자루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그대가 먹고 있는 바로 그 황소의 형제의 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그 살찐 거위를 먹어 치운 뒤에 그대는 무엇으로 이를 쑤시는가? 같은 새의

깃털로 쑤신다. 그리고 수거위 학대 방지 협회의 총무는 어떤 깃펜으로 회람을 격식 갖춰 썼는가? 그 협회가 강철 펜만 쓰기로 결의한 것은 겨우 지난 한두 달 사이의 일이다.

제66장 상어 학살

남방 포경 어장에서 오래고 지친 고생 끝에 잡은 향유고래를 밤늦게 뱃전에 끌어다 붙였을 때, 적어도 대체로는 곧바로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가 아니다. 그 일은 몹시 고되고, 금방 끝나지도 않으며, 모든 선원이 달라붙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한 관례는 돛을 모두 거두고, 키를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돌려 묶은 다음, 날이 밝을 때까지 모두를 아래 해먹으로 내려보내는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정박 당직을 서게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곧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한 시간씩, 선원들이 차례로 갑판에 올라가 모든 일이 무사한지 살핀다.

그러나 때로는, 특히 태평양의 적도에서는, 이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매어 둔 시체 둘레에 헤아릴 수 없는 상어 떼가 모여들어서, 시체를 그대로 이를테면 여섯 시간만 내리 내버려 두어도 아침에는 뼈대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물고기들이 그리 많지 않은 대양의 다른 곳 대부분에서는, 날카로운 고래 삽으로 놈들을 힘차게 들쑤셔 놓으면 그 놀라운 탐욕을 때때로 꽤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래도 이 방법은 어떤 경우에는 놈들을 간질여 한층 더 날뛰게 할 뿐인 것 같다. 그러나 이번 피쿼드호의 상어들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그런 광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날 밤 뱃전 너머를 들여다보았다면, 그 둥근 바다 전체가 거대한 치즈 하나이고 그 상어들은 그 속의 구더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저녁 식사를 마친 스터브가 정박 당직을 세우고, 그에 따라 퀴퀘그와 앞갑판 선원 하나가 갑판에 올라오자, 상어들 사이에 적잖은 소동이 일었다. 이 두 뱃사람은 곧바로 해체대를 뱃전 너머로 내려 매달고 등불 셋을 내려서 흐린 바다 위에 긴 빛줄기를 드리우게 하고는, 긴 고래 삽을 내리찔러 날카로운 강철을 상어들의 두개골, 놈들의 유일한 급소인 듯한 그곳에 깊이 박아 넣으며 쉴 새 없이 상어들을 학살했다.[1] 그러나 뒤엉켜 버둥거리는 떼가 물거품 속에서 뒤죽박죽이었으므로, 두 사수가 늘 과녁을 맞히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적의 믿기 어려운 사나움이 새로이 드러났다. 놈들은 서로 터져 나온 내장을 사납게 물어뜯었을 뿐 아니라, 낭창한 활처럼 몸을 구부려 제 내장까지 물어뜯었다. 그래서 그 내장은 같은 입으로 거듭거듭 삼켜졌다가 벌어진 상처로 반대쪽으로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이 짐승들의 시체와 망령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했다. 개체의 생명이라 부를 만한 것이 떠난 뒤에도, 일종의 종(種)의 생명력, 또는 범신론적인 생명력이 놈들의 관절과 뼈마디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가죽을 얻으려고 죽여서 갑판에 끌어올린 상어 한 마리가, 그 살인적인 턱의 죽은 뚜껑을 닫으려던 가엾은 퀴퀘그의 손을 하마터면 떼어 갈 뻔했다.

"퀴퀘그 상관 안 한다, 어느 신이 상어 만들었냐." 야만인이 아파서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말했다. "피지 신이냐, 낸터킷 신이냐. 하지만 상어 만든 신은 빌어먹을 인디언 하나다."

---

1. 해체 작업에 쓰는 고래 삽은 가장 좋은 강철로 만든다. 크기는 사람이 손을 쫙 편 만하고, 대체로 생김새는 그 이름의 바탕이 된 정원 연장과 같다. 다만 양옆이 완전히 평평하고, 위쪽 끝이 아래쪽 끝보다 꽤 좁다. 이 무기는 늘 될 수 있는 대로 날카롭게 갈아 두며, 쓰는 동안에도 이따금 면도칼처럼 갈아 준다. 그 자루 구멍에는 길이 20피트에서 30피트 되는 뻣뻣한 장대를 손잡이로 끼운다.

제67장 해체 작업

토요일 밤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온 안식일은 대단했다! 포경선원은 모두 직무상 안식일을 어기는 일의 교수들이다. 고래뼈로 꾸민 피쿼드호는 도살장 같은 곳으로 바뀌었고, 선원은 하나같이 백정이 되었다. 그대는 우리가 바다의 신들에게 붉은 황소 만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선, 거대한 해체용 도르래 장치가 큰돛대 망대로 끌어 올려져, 배의 갑판 위 어디보다도 튼튼한 아랫돛대 꼭대기에 단단히 묶였다. 이것은 다른 육중한 것들과 함께 대개 초록색으로 칠한 도르래 한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사람 힘으로는 도무지 들어 올릴 수 없는 이 거대한 포도송이였다. 이 얽히고설킨 장치 사이를 감아 도는 굵은 밧줄의 끝은 그다음 양묘기로 이어졌고, 도르래 장치의 커다란 아래 도르래는 고래 위로 휙 옮겨졌다. 이 도르래에는 무게가 100파운드쯤 되는 커다란 지방층 갈고리를 달았다. 그리고 이제 뱃전 너머 해체대에 매달린 항해사 스타벅과 스터브가 긴 삽으로 무장하고, 두 옆지느러미 가운데 가까운 쪽 바로 위에 갈고리를 꽂을 구멍을 몸뚱이에 뚫기 시작했다. 이 일이 끝나면 구멍 둘레에 넓은 반원 모양의 금을 베어 내고, 갈고리를 꽂고, 선원 대부분이 거친 합창을 터뜨리며 이제 한 덩어리로 빽빽이 몰려 양묘기를 감기 시작한다. 그러면 곧바로 배 전체가 옆으로 기운다. 배 안의 볼트는 하나하나 서리 내린 날 낡은 집의 못대가리처럼 튀어나오고, 배는 떨고 흔들리며 겁먹은 돛대 꼭대기를 하늘에 대고

끄덕인다. 배는 고래 쪽으로 점점 더 기울고, 양묘기가 숨 가쁘게 감길 때마다 큰 물결이 거들어 한 번씩 밀어 올린다. 그러다 마침내 날카롭게 깜짝 놀랄 만한 툭 소리가 들린다. 배는 철썩 크게 물을 튀기며 고래에게서 위로, 뒤로 굴러 일어나고, 의기양양한 도르래 장치가 첫 번째 지방층 띠의 떨어져 나온 반원 끝을 끌고 눈앞에 솟아오른다. 그런데 지방층은 껍질이 오렌지를 감싸듯 꼭 그렇게 고래를 감싸고 있으므로, 이따금 오렌지를 나선으로 깎아 벗기듯 꼭 그렇게 몸뚱이에서 벗겨 낸다. 양묘기가 끊임없이 당기는 힘 때문에 고래는 물속에서 줄곧 데굴데굴 구르고, 지방층은 항해사 스타벅과 스터브의 삽이 동시에 베어 나가는 「스카프」라는 금을 따라 한 줄로 고르게 벗겨진다. 그리고 그렇게 벗겨지는 그만큼 빠르게, 아니 바로 그 벗겨지는 동작 자체로, 지방층은 내내 높이, 더 높이 끌어 올려져 마침내 그 위쪽 끝이 큰돛대 망대에 닿는다. 그러면 양묘기를 감던 사람들이 손을 멈추고, 한동안 피가 뚝뚝 듣는 그 엄청난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그것이 흔들려 올 때 잘 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따귀를 갈겨 그를 곤두박질치며 배 밖으로 내던질 수도 있다.

곁에서 거들던 작살잡이 하나가 이제 승선 검이라고 부르는 길고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나서서, 틈을 엿보다가 흔들리는 덩어리의 아래쪽에 꽤 큰 구멍을 솜씨 있게 도려낸다. 그러면 뒤이어 할 일을 준비하려고, 번갈아 쓰는 두 번째 큰 도르래 장치의 끝을 이 구멍에 걸어 지방층을 붙든다. 그러고 나서 이 노련한 검객은 모두에게 물러서라고 일러 두고, 다시 한 번 덩어리에 과학적으로 덤벼들어, 옆으로 몇 번 필사적으로 찌르듯 베어 덩어리를 완전히 두 동강 낸다. 그래서 짧은 아래쪽은 아직 붙들려 있는 동안, 담요 조각이라고 부르는 긴 위쪽 띠는 자유롭게 흔들리며 내려 보낼 채비를 다 마친다. 앞쪽에서 감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노래를 시작하고, 한 도르래 장치가 고래에게서 두 번째 띠를 벗겨 끌어 올리는 동안, 다른 도르래 장치는 천천히 느슨해지며 첫 번째 띠를 바로 밑의 큰 승강구를 거쳐, 지방층 방이라고 부르는 가구 없는 응접실로 내려 보낸다. 이 어둑한 방 안에서 날랜 일꾼 여럿이 그 긴 담요 조각을 마치 땋은 뱀들이 살아 뭉친 커다란 덩어리라도 되듯 줄곧 사려 감아 둔다. 그리고 일은 이렇게 이어진다. 두 도르래 장치는 동시에 끌어 올리고 내려 보내고, 고래와 양묘기는 함께 들썩이고, 감는 사람들은 노래하고, 지방층 방의 신사들은 사려 감고, 항해사들은 스카프를 베고, 배는 용을 쓰고, 모든 선원은 두루 생기는 마찰을 누그러뜨리려고 이따금 욕을 한다.

제68장 담요

고래의 살갗이라는, 말썽이 없지 않은 주제에 나는 적잖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바다에서는 노련한 포경선원들과, 뭍에서는 학식 있는 박물학자들과 그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내 처음 의견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의견일 뿐이다.

물음은 이것이다. 고래의 살갗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놈의 지방층이 무엇인지는 그대도 이미 안다. 그 지방층은 단단하고 결이 촘촘한 쇠고기쯤 되는 굳기지만, 그보다 더 질기고 탄력 있고 빽빽하며, 두께가 8인치나 10인치에서 12인치, 15인치에 이른다.

그런데 어떤 짐승의 살갗이 그런 굳기와 두께라고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더라도, 실제로 이런 점들은 그런 추정을 반박하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고래의 몸에서는 바로 그 지방층 말고는 몸을 감싸는 다른 빽빽한 층을 들어낼 수 없고, 어떤 동물이든 그 몸을 감싸는 가장 바깥층이 웬만큼 빽빽하다면, 그것이 살갗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실, 상처 없는 고래 시체에서 그대는 손으로 한없이 얇고 투명한 물질을 긁어낼 수 있다. 그것은 부레풀의 가장 얇은 조각과 얼마쯤 닮았지만, 거의 공단처럼 낭창하고 부드럽다. 말리기 전에는 그렇다는 말이다. 말리면 그것은 오그라들고 두꺼워질 뿐 아니라 꽤 딱딱하고 부스러지기 쉬워진다. 나는 그렇게 말린 조각을 몇 개 가지고 있어서 내 고래 책의 책갈피로 쓴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투명해서, 인쇄된 쪽 위에 얹어 놓고 그것이 확대하는 힘을 낸다고 상상하며

이따금 혼자 즐거워하기도 했다. 아무튼 말하자면 고래 자신의 안경을 쓰고 고래에 관한 글을 읽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다. 고래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나도 인정하는 바로 그 한없이 얇은 부레풀 같은 물질은, 그 짐승의 살갗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살갗의 살갗으로 보아야 한다. 그 엄청난 고래의 진짜 살갗이 갓난아기의 살갗보다 더 얇고 여리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만하자.

지방층이 고래의 살갗이라고 치자. 그러면 아주 큰 향유고래의 경우처럼 이 살갗에서 기름이 100배럴 분량이나 나오고, 짜낸 상태의 그 기름이 양으로 보아, 아니 무게로 보아 외피라는 물질 전체가 아니라 그 4분의 3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살아 있는 덩어리가 얼마나 엄청난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덩어리의 한낱 겉껍질의 한낱 일부에서 그만한 액체의 호수가 나오는 것이다. 1톤에 10배럴로 치면, 고래 살갗 물질의 겨우 4분의 3만으로도 순 무게가 10톤이 된다.

살아 있을 때 향유고래의 눈에 보이는 겉면은 놈이 보여 주는 많은 경이 가운데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거의 언제나 그 겉면은 온통 셀 수 없이 많은 곧은 금이 빽빽이 비스듬하게 엇갈리고 또 엇갈려 있어서, 가장 정교한 이탈리아 선 판화의 금과 얼마쯤 비슷하다. 그러나 이 금들은 앞서 말한 부레풀 같은 물질 위에 찍힌 것 같지 않고, 그 물질을 통해 비쳐 보이는 것 같다. 몸뚱이 자체에 새겨진 것처럼 말이다. 그뿐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날카롭고 눈썰미 있는 눈에, 그 선으로 된 금들은 진짜 판화에서처럼 전혀 다른 그림들의 바탕이 되어 줄 뿐이다. 이것들은 상형 문자 같다. 다시 말해 피라미드 벽의 그 신비한 암호를 상형 문자라고 부른다면, 지금 이 대목에서도 그 말을 쓰는 것이 알맞다. 특히 어느 향유고래 한 마리에 새겨진 상형 문자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있었던 덕에, 나는 미시시피강 상류 기슭의 이름난 상형 문자 절벽에 새겨진 옛 인디언 문자를 나타낸 판화 한 장을 보고 무척 놀랐다. 그 신비한 바위들처럼, 신비한 무늬를 지닌 그 고래도 여전히 읽어 낼 수 없다. 인디언 바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다. 향유고래의 겉모습이 보여 주는 다른 온갖 현상 말고도, 놈은 등을, 특히 옆구리를, 아무렇게나 마구 그어진 듯한 수많은 거친 긁힌 자국 때문에 규칙적인 선 무늬가 대부분 지워진 채로 드러내는 일이 드물지 않다. 아가시가 거대하게 떠다니는 빙산과 거세게 긁히며 닿은 자국이 남아 있다고 상상하는 뉴잉글랜드 해안의 바위들, 그 바위들은 이 점에서 향유고래를 적잖이 닮았으리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또 고래의 이런 긁힌 자국은 아마 다른 고래들과 적대적으로 맞부딪쳐서 생기는 것 같다. 그 종의 다 자란 큰 수컷들에게서 그것을 가장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고래의 살갗, 곧 지방층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 한두 마디 더 하자. 그것을 고래에게서 긴 조각으로 벗겨 내며, 그 조각을 담요 조각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대부분의 뱃말처럼 이 말도 아주 적절하고 뜻이 깊다. 고래는 실로 진짜 담요나 이불에 싸이듯 지방층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는 머리에 뒤집어써서 몸 끝까지 자락이 내려오는 인디언 판초에 싸여 있다고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몸을 이렇게 아늑하게 담요로 싸고 있기 때문에, 고래는 어떤 날씨에도, 어느 바다에서도, 어느 때 어느 물때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이를테면 그린란드고래가 그 아늑한 외투를 갖추지 못했다면 몸서리쳐지게 얼음 낀 북쪽 바다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 다른 물고기들도 그 북극 너머 바다에서 몹시 활발하게 지낸다. 그러나 알아 둘 것은, 그것들은 배 속이 곧 냉장고인, 냉혈의, 허파 없는 물고기라는 점이다. 그것들은 겨울철 나그네가 여관의 난롯불 앞에서 몸을 녹이듯 빙산의 바람 그늘에서 몸을

녹이는 짐승들이다. 반면에 고래는 인간처럼 허파와 따뜻한 피가 있다. 놈의 피를 얼리면 놈은 죽는다. 그렇다면, 설명을 듣기 전에는, 몸의 온기가 인간에게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이 거대한 괴물이 그 북극 바다에 평생 입술까지 잠긴 채 제집처럼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곳에서는 선원들이 배 밖으로 떨어지면, 몇 달 뒤에 파리가 호박 속에 갇혀 발견되듯 얼음벌판 한가운데 꼿꼿이 선 채로 얼어붙어 발견되는 일이 더러 있다. 그러나 실험으로 증명되었듯이, 북극 고래의 피가 여름철 보르네오 흑인의 피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놀랍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우리는 강한 개체의 생명력이 지닌 드문 미덕, 두꺼운 벽이 지닌 드문 미덕, 그리고 넓은 속이 지닌 드문 미덕을 보는 것 같다. 오, 인간이여! 고래를 우러르고 고래를 본보기로 삼아라! 너도 얼음 속에서 따뜻하게 지내라. 너도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 적도에서는 서늘하게 지내고, 극지에서는 피가 계속 흐르게 하라.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거대한 둥근 지붕처럼, 그리고 거대한 고래처럼, 오 인간이여! 어느 철에나 너 자신의 온도를 지켜라.

그러나 이런 훌륭한 것들을 가르치기란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가망 없는 일인가! 세워진 것들 가운데 성 베드로 대성당처럼 둥근 지붕을 인 것이 얼마나 드문가! 생물들 가운데 고래만큼 거대한 것이 얼마나 드문가!

제69장 장례

"사슬을 거둬라! 시체를 고물 쪽으로 떠나보내라!"

거대한 도르래 장치들은 이제 제 할 일을 다했다. 머리 잘린 고래의, 껍질 벗겨진 흰 몸뚱이가 대리석 무덤처럼 번쩍인다. 빛깔은 바뀌었지만 덩치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 여전히 거대하다. 그것은 천천히,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간다. 둘레의 물은 물릴 줄 모르는 상어들에게 찢기고 튀겨지고, 위의 공기는 끽끽 우는 탐욕스러운 새 떼에게 시달린다. 새들의 부리는 고래에게 꽂힌 모욕의 단도들 같다. 머리 없는 거대한 흰 환영은 배에서 점점 더 멀리 떠가고, 그렇게 한 로드씩 떠갈 때마다 몇 평방 로드는 될 듯한 상어 떼와 몇 입방 로드는 될 듯한 새 떼가 살육의 소음을 키운다. 거의 멈춰 있는 배에서 그 끔찍한 광경이 몇 시간이고 보인다. 구름 한 점 없는 부드러운 쪽빛 하늘 아래, 즐거운 바다의 고운 얼굴 위로, 기쁨에 찬 미풍에 실려, 죽음의 그 거대한 덩어리는 끝없는 원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떠가고 또 떠간다.

참으로 더없이 구슬프고 더없이 비웃는 장례다! 바다 독수리들은 모두 경건하게 상복을 입었고, 하늘의 상어들은 모두 꼼꼼하게 검은 옷이나 얼룩진 옷을 차려입었다. 살아 있을 때 고래가 혹시 도움이 필요했다 해도, 그들 가운데 고래를 도와주었을 자는 몇 안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의 장례 잔치에는 더없이 경건하게 달려든다. 오, 땅의 끔찍한 독수리 근성이여! 가장 힘센 고래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몸뚱이는 그렇게 더럽혀졌어도, 복수심에 찬 망령이 살아남아 그 위를 맴돌며 겁을 준다. 겁 많은 군함이나 서투른 탐험선이 멀리서 그것을 발견하면, 거리 때문에 우글거리는 새 떼는 흐려 보여도 햇빛 속에 떠 있는 흰 덩어리와 그것에 부딪쳐 높이 솟는 흰 물보라는 여전히 보이므로, 해롭지 않은 고래 시체는 곧바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항해 일지에 적힌다. *이 근처에 여울, 암초, 부서지는 파도 있음. 조심할 것!* 그리고 아마 그 뒤로 몇 해 동안 배들은 그곳을 피한다. 어리석은 양들이 처음에 우두머리가 막대기를 쳐든 자리에서 뛰어넘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뛰어넘듯이, 배들도 그곳을 뛰어넘는다. 그것이 그대들의 선례의 법칙이다. 그것이 그대들의 전통의 효용이다. 그것이 땅에 한 번도 뿌리박지 않았고 이제는 공중에 떠 있지도 않은 옛 믿음이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야기다! 그것이 정통이다!

이렇게, 살아 있을 때 거대한 고래의 몸뚱이가 적들에게 진짜 공포였을지는 몰라도, 죽어서 그 망령은 세상에 힘없는 공황이 된다.

그대는 유령을 믿는가, 친구여? 콕 레인의 유령 말고도 다른 유령들이 있으며, 존슨 박사보다 훨씬 깊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

제70장 스핑크스

리워야단의 몸뚱이를 완전히 벗기기 전에 놈의 머리를 베었다는 것을 빠뜨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향유고래의 머리를 베는 일은 과학적인 해부의 묘기여서, 노련한 고래 외과 의사들은 그것을 무척 자랑으로 여긴다. 까닭이 없지 않다.

생각해 보라. 고래에게는 제대로 목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 오히려 머리와 몸이 이어지는 듯한 곳, 바로 그 자리가 놈의 몸에서 가장 굵은 곳이다. 또 기억하라. 외과 의사는 위에서 수술해야 하고, 그와 수술 대상 사이에는 8피트나 10피트쯤 거리가 있으며, 그 대상은 빛깔이 흐려지고 출렁이며 때로는 사납게 들끓어 터지는 바다 속에 거의 숨어 있다. 그리고 이것도 명심하라. 이런 고약한 형편에서 그는 살 속으로 몇 피트나 깊이 베어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땅굴 파듯 해 나가면서, 그렇게 생겨나는 줄곧 오므라드는 칼자국 속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채, 이웃한 손대서는 안 되는 부위들을 모두 솜씨 있게 피해 가며, 두개골에 박히는 곳 바로 곁의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등뼈를 정확히 갈라야 한다. 그러니 향유고래 머리 하나 베는 데 10분이면 된다던 스터브의 큰소리에 그대는 놀라지 않는가?

처음 잘라 낸 머리는 고물 쪽으로 떨어뜨려 두고, 몸뚱이를 다 벗길 때까지 굵은 밧줄로 붙들어 둔다. 그 일이 끝나면, 작은 고래의 머리일 경우에는 갑판으로 끌어 올려 찬찬히 처리한다. 그러나 다 자란 리워야단이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향유고래의 머리는 놈의 몸 전체

부피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런 짐을 포경선의 엄청난 도르래 장치로라도 완전히 매달려는 것은 네덜란드식 큰 헛간을 보석상 저울로 달아 보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피쿼드호의 고래는 머리가 잘리고 몸뚱이가 벗겨진 뒤, 머리가 뱃전에 바짝 끌어 올려졌다. 바다에서 반쯤 나오게 해서, 머리가 여전히 제 본디 원소의 부력에 대부분 떠받쳐지게 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아랫돛대 꼭대기에서 아래로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무리하는 배가 그쪽으로 가파르게 기울고, 그쪽 활대 끝마다 기중기처럼 파도 위로 튀어나온 가운데, 거기서 피가 뚝뚝 듣는 그 머리는 유디트의 허리띠에 매달린 거인 홀로페르네스의 머리처럼 피쿼드호의 허리께에 매달려 있었다.

이 마지막 일을 끝냈을 때는 정오였고, 선원들은 점심을 먹으러 아래로 내려갔다. 아까는 소란스러웠으나 이제는 텅 빈 갑판에 정적이 깔렸다. 짙은 구릿빛 고요가 온 세상을 덮는 노란 연꽃처럼, 소리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꽃잎을 바다 위에 점점 더 펼쳐 갔다.

잠시 시간이 흘렀고, 이 정적 속으로 에이해브가 홀로 선장실에서 올라왔다. 그는 뒷갑판을 몇 번 오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뱃전 너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큰돛대 쇠사슬 발판으로 들어가, 고래 머리를 벤 뒤에도 거기 그대로 남아 있던 스터브의 긴 삽을 집어 들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반쯤 매달린 덩어리의 아래쪽에 찔러 넣고 다른 쪽 끝을 목발처럼 한쪽 겨드랑이에 괸 다음, 그렇게 몸을 기울인 채 이 머리에 눈을 골똘히 박고 서 있었다.

그것은 두건을 쓴 검은 머리였다. 그토록 짙은 고요 한가운데 그렇게 매달려 있으니, 그것은 사막의 스핑크스 머리 같았다. "말하라, 거대하고 덕망 높은 머리여." 에이해브가 중얼거렸다. "수염으로 꾸미지는 않았으나 여기저기 이끼가 끼어 백발처럼 보이는 머리여. 말하라, 힘센

머리여. 네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 다오. 모든 잠수부 가운데 너는 가장 깊이 잠수했다. 지금 위의 해가 비추는 그 머리는 이 세상의 밑바닥 사이를 돌아다녔다.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과 함대들이 녹슬고, 이야기되지 않은 희망들과 닻들이 썩는 곳, 이 프리깃함 같은 지구가 그 살인적인 선창에 물에 빠진 수백만 명의 뼈를 바닥짐으로 싣고 다니는 곳, 거기, 그 무시무시한 물의 나라가 너의 가장 정든 집이었다. 너는 잠수종도 잠수부도 가 본 적 없는 곳에 가 보았다. 잠 못 이루는 어머니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눕혀 주고 싶어 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선원들 곁에 누워 잠들었다. 너는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리던 서로 껴안은 연인들을 보았다. 그들은 가슴과 가슴을 맞댄 채 환호하는 물결 밑으로 가라앉았다. 하늘이 그들을 배신하는 듯했을 때에도 서로에게는 진실했다. 너는 해적들이 한밤의 갑판에서 내던진, 살해당한 항해사를 보았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물릴 줄 모르는 아가리의 더 깊은 한밤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그를 죽인 자들은 여전히 아무 탈 없이 항해를 이어 갔다. 그동안 재빠른 번개가, 의로운 남편을 기다리는 그리운 팔에 데려다주었을 이웃 배를 산산조각 냈다. 오, 머리여! 너는 행성들을 쪼개고 아브라함을 불신자로 만들 만큼 많은 것을 보았는데, 너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구나!"

"배다!" 큰돛대 꼭대기에서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외쳤다.

"그래? 그것참, 반가운 소리로구나." 에이해브가 갑자기 몸을 곧추세우며 외쳤다. 그러자 그의 이마에서 먹구름이 통째로 걷혔다. "이 죽은 듯한 고요 위에 그 활기찬 외침이라니,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도 거의 회개하겠구나. 어느 쪽이냐?"

"우현 이물 3포인트 방향입니다, 선장님. 바람을 몰고 우리 쪽으로 내려옵니다!"

"점점 더 좋구나, 이 친구야. 지금 성 바울이 그쪽으로 와서 바람 없는 내게 그의 바람을 가져다준다면! 오, 자연이여, 오, 인간의 영혼이여! 너희가 서로 이어진 닮은 점들은 얼마나 말로 다할 수 없이 아득한가! 물질 위에서 움직이거나 살아 있는 것이라면 가장 작은 원자 하나도, 마음속에 교묘한 짝을 두지 않은 것이 없다."

제71장 여로보암호 이야기

배와 바람은 손에 손을 잡고 불어 갔다. 그러나 바람이 배보다 빨리 왔으므로, 이윽고 피쿼드호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얼마 뒤, 망원경으로 보니 낯선 배의 보트들과 사람이 올라선 돛대 꼭대기들로 보아 그 배는 포경선이었다. 그러나 그 배는 바람 불어오는 쪽 멀리에서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었고, 아마도 다른 어장으로 가는 길인 듯했으므로, 피쿼드호가 그 배에 닿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이 오는지 보려고 신호기를 올렸다.

여기서 말해 두자면, 군함들처럼 미국 포경 선단의 배들도 저마다 고유한 신호가 있다. 그 신호들을 모두 각 배의 이름을 붙여 책 한 권에 모아 두었고, 선장마다 그 책을 한 권씩 갖추고 있다. 그 덕에 포경선 선장들은 대양에서 꽤 먼 거리에서도 적잖이 손쉽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

피쿼드호의 신호에 마침내 낯선 배가 제 신호를 올려 응답했다. 그것으로 보아 그 배는 낸터킷의 여로보암호였다. 그 배는 활대를 바로 돌려 이쪽으로 내려오더니, 피쿼드호의 바람 불어 가는 쪽에 나란히 붙어 보트 한 척을 내렸다. 보트는 곧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찾아오는 선장을 맞으려고 스타벅의 명령으로 뱃전 사다리를 내거는 동안, 그 낯선 사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표시로 보트 고물에서 손을 내저었다. 알고 보니 여로보암호에는 악성 전염병이 돌고 있었고, 그 배의 선장 메이휴는 피쿼드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까 봐 두려워했다.

그 자신과 보트 선원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고, 그의 배는 소총 사거리의 절반쯤 떨어져 있었으며, 그 사이로는 썩지 않는 바다와 공기가 굽이치고 흘렀지만, 그래도 그는 뭍의 겁 많은 검역 규정을 양심적으로 지켜 피쿼드호와 직접 닿기를 딱 잘라 거절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락이 모두 끊긴 것은 결코 아니었다. 여로보암호의 보트는 본선과 몇 야드쯤 간격을 두고 이따금 노를 저어 피쿼드호와 나란히 머물렀다. 피쿼드호는 큰돛대 중간 돛을 뒤로 돌려 바람을 거스르게 한 채 바다를 묵직하게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다 (이때쯤에는 바람이 무척 세게 불었다). 하기야 이따금 크게 굽이치는 파도가 갑자기 덮쳐 와서 보트를 꽤 앞쪽으로 밀어 보내기도 했지만, 보트는 곧 솜씨 있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일과 이와 비슷한 다른 방해를 이따금 받으면서도 양쪽 사이에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사이사이에 전혀 다른 종류의 방해가 또 하나 끼어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여로보암호의 보트에서 노를 젓는 사람 가운데, 저마다 별난 사람들이 모여 전체를 이루는 그 거친 포경 생활에서도 유별나게 생긴 사내가 하나 있었다. 그는 몸집이 작고 키가 작은 젊은 축의 사내로, 얼굴에는 온통 주근깨가 뿌려져 있었고 노란 머리털이 텁수룩했다. 바랜 호두나무 빛깔의, 자락이 길고 무슨 비밀 결사의 옷처럼 마름질한 웃옷이 그를 감싸고 있었는데, 겹쳐 내려오는 소맷자락은 손목께에서 걷어 올려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고 굳어 버린 광신자의 정신 착란이 서려 있었다.

이 모습이 처음 눈에 띄자마자 스터브는 외쳤다. "저놈이다! 저놈이야! 타운호호 사람들이 말해 준, 옷자락 긴 어릿광대가!" 스터브가 여기서 넌지시 가리킨 것은, 앞서 피쿼드호가 타운호호와 말을 주고받았을 때 들은, 여로보암호와 그 배 선원 가운데 어떤 사내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와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그 어릿광대는

여로보암호의 거의 모든 사람을 놀랍도록 휘어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내력은 이랬다.

그는 본디 니스카유나 셰이커교도라는 미치광이 무리 속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위대한 예언자였다. 머리가 이상한 그들의 비밀 집회에서 그는 몇 번이나 들창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와, 그가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일곱째 대접이 곧 열리리라고 알렸다. 그러나 그 대접에는 화약 대신 아편 팅크가 담겨 있으리라고들 여겼다. 이상한 사도 같은 변덕이 그를 사로잡자 그는 니스카유나를 떠나 낸터킷으로 갔고, 그곳에서 미치광이 특유의 교활함으로 착실하고 상식 있는 겉모습을 꾸며, 여로보암호의 포경 항해에 풋내기 지원자로 나섰다. 그들은 그를 고용했다. 그러나 배가 뭍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가자마자 그의 광기가 큰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는 자기가 대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선포하고, 선장에게 배 밖으로 뛰어내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선언문을 발표해, 자기가 바다 섬들의 구원자이자 온 오세아니아의 총대리 주교라고 내세웠다. 그가 이런 것들을 선언할 때의 흔들림 없는 진지함, 잠 못 이루고 들뜬 상상력의 어둡고 대담한 움직임, 그리고 진짜 정신착란이 지닌 온갖 초자연적인 공포가 한데 어우러져, 무지한 선원 대다수의 마음속에서 이 가브리엘에게 신성한 기운을 입혔다. 게다가 그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배에서 실제로는 별 쓸모가 없었고, 특히 내키는 때가 아니면 일하기를 거부했으므로, 그를 믿지 않는 선장은 그를 떼어 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선장이 처음 닿는 알맞은 항구에 그를 내려놓을 작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대천사는 곧바로 제 봉인과 대접을 모조리 열어, 그 작정이 실행되는 날에는 배와 모든 선원이 무조건 멸망하리라고 저주했다. 그가 선원들 가운데 제자들을 어찌나 세게 휘어잡았던지, 마침내 그들은 떼를 지어 선장에게 가서, 가브리엘을 배에서 내보내면 자기들도 한 사람도 남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선장은 계획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또한 가브리엘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 그를 조금이라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배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로 대천사는 선장과 항해사들을 거의, 아니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전염병이 돈 뒤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거만하게 굴면서, 그가 부르는 이른바 역병은 오로지 자기 명령을 따르며 자기 마음이 내켜야만 그치리라고 선언했다. 대개 불쌍한 녀석들인 선원들은 그 앞에서 굽실거렸고, 그 가운데 몇몇은 아첨을 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때로는 신에게 하듯 그에게 몸소 경배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믿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놀랍더라도 사실이다. 광신자의 역사에서 놀라운 것은 광신자 자신이 한없이 제 자신을 속인다는 점보다, 그토록 많은 다른 사람을 한없이 속이고 홀리는 그 힘이다. 그러나 이제 피쿼드호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나는 당신네 전염병이 두렵지 않소, 이보시오." 에이해브가 뱃전에서 보트 고물에 선 메이휴 선장에게 말했다. "올라오시오."

그러나 이때 가브리엘이 벌떡 일어섰다.

"생각하라, 누렇고 담즙 끓는 열병을 생각하라! 무시무시한 역병을 조심하라!"

"가브리엘! 가브리엘!" 메이휴 선장이 외쳤다. "너는 반드시……" 그러나 바로 그때 곤두박질치는 파도가 보트를 멀리 앞으로 쏘아 보냈고, 그 들끓는 소리가 모든 말을 삼켜 버렸다.

"흰 고래를 보았소?" 보트가 다시 떠밀려 돌아오자 에이해브가 다그쳤다.

"생각하라, 박살 나 가라앉은 네 보트를 생각하라! 무시무시한 꼬리를 조심하라!"

"다시 말하지만, 가브리엘, 너는……" 그러나 보트는 다시 악귀들에게 끌려가듯 앞으로 내달렸다. 날뛰는 파도가 잇달아 굴러 지나가는 동안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바다가 이따금 부리는 변덕으로, 그 파도들은 보트를 들어 올리지 않고 내동댕이쳤다. 그동안 매달아 올린 향유고래의 머리가 몹시 사납게 덜컹거렸고, 가브리엘은 대천사의 본성이 허락할 듯한 것보다 꽤 더 겁먹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막간이 끝나자 메이휴 선장은 모비 딕에 관한 어두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브리엘이 끼어들었고, 그와 한패가 된 듯한 미친 바다도 끼어들어 이야기는 자주 끊겼다.

이야기인즉, 여로보암호가 고향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느 포경선과 말을 주고받았을 때, 그 배 사람들은 모비 딕이 있다는 것과 그놈이 저지른 참화를 믿을 만하게 전해 들었다. 이 소식을 게걸스럽게 빨아들인 가브리엘은, 그 괴물이 눈에 띄더라도 흰 고래를 공격하지 말라고 선장에게 엄숙하게 경고했다. 그는 지껄이는 광기 속에서 흰 고래는 다름 아닌 셰이커교도의 신이 육신을 입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셰이커교도는 성경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한두 해 뒤에 모비 딕이 돛대 꼭대기에서 똑똑히 보이자, 일등 항해사 메이시는 놈과 맞붙고 싶어 몸이 달았다. 그리고 선장 자신도 대천사의 온갖 저주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으므로, 메이시는 다섯 사람을 설득해 제 보트에 태우는 데 성공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본선을 떠났다. 그리고 지치도록 오래 노를 젓고, 위험하고 실패한 공격을 여러 번 거친 끝에 마침내 작살 한 자루를 꽂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가브리엘은 큰돛대 로열 돛대 꼭대기로 올라가 한 팔을 미친 듯이 휘두르며, 자기 신성을 모독하며 덤벼드는 자들에게 곧 파멸이 닥치리라는 예언을 내던졌다. 그런데 항해사 메이시가 보트 이물에 일어서서, 그 족속 특유의 무모한 기운을 다해 고래에게 거친 고함을

퍼부으며, 겨눈 창을 던질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보라! 넓고 흰 그림자 하나가 바다에서 솟아올랐다. 그 재빠른 부채질 같은 움직임에 노잡이들은 한동안 숨이 멎었다. 다음 순간, 사나운 생명으로 가득했던 그 불운한 항해사는 몸째 공중으로 얻어맞아 날아갔고, 길게 호를 그리며 떨어져 50야드쯤 떨어진 바다에 빠졌다. 보트는 나뭇조각 하나 다치지 않았고, 노잡이들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항해사는 영영 가라앉았다.

여기서 괄호 삼아 말해 두는 것이 좋겠다. 향유고래 포경업의 치명적인 사고 가운데 이런 종류는 아마 어느 것 못지않게 잦을 것이다. 때로는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다치지 않는다. 그보다 더 흔하게는 보트의 이물이 떨어져 나가거나, 보트장이 딛고 서는 허벅지 받침판이 제자리에서 뜯겨 나가 몸과 함께 날아간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시신을 건졌을 때 폭력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한 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람은 완전히 죽어 있다.

메이시가 떨어지는 모습을 비롯해 그 참사 전체가 본선에서 똑똑히 보였다. "대접이다! 대접이다!" 가브리엘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린 선원들을 불러 고래를 더는 쫓지 못하게 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대천사는 영향력을 한층 더 입게 되었다. 누구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넓게 허락된 여지 안에서 여러 과녁 가운데 하나를 우연히 맞힐 수도 있는 막연한 예언을 했을 뿐인데, 그를 쉽게 믿는 제자들은 그가 바로 그 일을 콕 집어 미리 알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배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포가 되었다.

메이휴가 이야기를 마치자, 에이해브가 그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그 물음이 어찌나 캐묻는 것이었던지, 낯선 선장은 기회가 오면 흰 고래를 쫓을 작정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물음에 에이해브는 대답했다. "그렇소." 그러자 곧바로 가브리엘이 다시 한 번 벌떡 일어서서 노인을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키고 격렬하게 외쳤다. "생각하라, 신성 모독자를 생각하라. 죽어서 저 아래 있다! 신성 모독자의 최후를 조심하라!"

에이해브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는 메이휴에게 말했다. "선장, 방금 내 편지 자루가 생각났소.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당신네 항해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온 편지가 하나 있소. 스타벅, 자루를 뒤져 봐라."

포경선은 저마다 여러 배에 보내는 편지를 상당수 싣고 나간다. 그것을 받을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네 대양에서 그 배들을 만나느냐 하는 순전한 우연에 달려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편지는 끝내 받을 사람에게 닿지 못하고, 많은 편지가 두세 해 넘게 묵은 다음에야 받아진다.

곧 스타벅이 편지 한 통을 손에 들고 돌아왔다. 그것은 몹시 구겨지고 축축했으며, 선장실의 어두운 사물함에 넣어 둔 탓에 흐릿하고 얼룩진 초록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 편지라면 죽음의 신이 몸소 우편배달부 노릇을 했어도 어울렸을 것이다.

"못 읽겠냐?" 에이해브가 외쳤다. "이리 줘라, 이 친구야. 그래, 그래, 흐릿하게 휘갈긴 글씨일 뿐이구나. 이게 뭐냐?" 그가 그것을 판독하는 동안 스타벅은 긴 해체용 삽의 장대를 가져와, 칼로 그 끝을 살짝 갈라 거기에 편지를 끼워서, 편지가 본선에 더 가까이 오지 않게 한 채로 보트에 건네주려 했다.

그동안 에이해브는 편지를 들고 중얼거렸다. "해……씨. 그래, 해리 씨. (가늘고 꼼꼼한 여자 글씨로구나. 틀림없이 그 사내의 아내다.) 그래, 여로보암호의 해리 메이시 씨. 아니, 메이시라니, 그 사람은 죽었구나!"

"불쌍한 친구! 불쌍한 친구! 그것도 아내에게서 온 것이라니." 메이휴가 한숨지었다. "어쨌든 이리 주시오."

"아니다, 그건 네가 가지고 있어라." 가브리엘이 에이해브에게 외쳤다. "너도 곧 그 길로 갈 테니."

"저주가 네 목을 조르기를!" 에이해브가 고함쳤다. "메이휴 선장, 이제 받을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그는 스타벅의 손에서 그 운명의 편지를 받아 장대의 갈라진 틈에 끼우고 보트 쪽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노잡이들이 편지를 받으려고 노 젓기를 멈추었고, 보트는 본선의 고물 쪽으로 조금 밀려갔다. 그래서 마치 마법처럼 편지가 갑자기 가브리엘의 열띤 손 바로 곁으로 갔다. 그는 순식간에 그것을 움켜쥐더니 보트 칼을 붙잡아 편지를 거기에 꿰고, 그렇게 짐을 실은 칼을 본선으로 되던졌다. 칼은 에이해브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동료들에게 노를 저어 떠나라고 날카롭게 소리쳤고,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 보트는 쏜살같이 피쿼드호에게서 멀어졌다.

이 막간이 끝나고 선원들이 다시 고래 외투를 벗기는 일에 매달렸을 때, 이 엉뚱한 사건을 두고 이상한 말들이 많이 은근히 오갔다.

제72장 원숭이 밧줄

고래를 해체하고 돌보는 소란스러운 일에서는 선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닐 일이 많다. 이제 여기서 일손이 필요한가 하면, 다음에는 또 저기서 일손이 필요하다.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일을 동시에 모든 곳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광경을 묘사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거의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는 온 길을 조금 되짚어 가야 한다. 고래 등에 처음 자리를 팠을 때, 항해사들의 삽이 거기 처음 뚫어 놓은 구멍에 지방층 갈고리를 꽂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갈고리처럼 투박하고 무거운 덩어리를 어떻게 그 구멍에 박아 넣었을까? 그것을 거기 꽂은 것은 내 각별한 친구 퀴퀘그였다. 앞서 말한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 괴물의 등으로 내려가는 것이 작살잡이인 그의 임무였다.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 형편상 작살잡이는 지방층을 저미고 벗기는 작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고래 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 알아 둘 것은, 고래는 작업하는 바로 그 부위를 빼고는 거의 다 물에 잠겨 누워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거기 아래, 갑판에서 10피트쯤 밑에서, 가엾은 작살잡이는 반은 고래 위에, 반은 물속에 걸친 채 허우적거린다. 그동안 그 거대한 덩어리는 발밑에서 디딤 바퀴처럼 돈다. 지금 말하는 그때 퀴퀘그는 하일랜드 차림, 곧 셔츠에 양말만 걸친 차림이었는데, 적어도 내 눈에는 그 차림의 그가 보통 이상으로 돋보였다. 그리고 곧 보게 되겠지만, 그를 지켜볼 기회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 야만인의 뱃머리 노잡이, 곧 그의 보트에서 이물 노(앞에서 두 번째 노)를 젓는 사람이었으므로, 그가 죽은 고래 등 위에서 그 고되고 아슬아슬한 몸부림을 치는 동안 그를 돌보는 것이 나의 즐거운 임무였다. 그대는 이탈리아의 손풍금 타는 소년들이 춤추는 원숭이를 긴 끈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꼭 그렇게, 나는 배의 가파른 옆구리에서, 포경업에서 원숭이 밧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저 아래 바다에 있는 퀴퀘그를 붙들고 있었다. 그 밧줄은 그의 허리에 둘러 맨 튼튼한 범포 띠에 매여 있었다.

그것은 우리 둘 모두에게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위험한 일이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원숭이 밧줄은 양쪽 끝이 다 매여 있었다. 한쪽은 퀴퀘그의 넓은 범포 띠에, 다른 쪽은 나의 좁은 가죽 띠에. 그러니 좋든 나쁘든 우리 둘은 그동안 혼인으로 맺어진 셈이었다. 그리고 가엾은 퀴퀘그가 가라앉아 다시 떠오르지 못한다면, 관례로 보나 명예로 보나 밧줄을 끊지 말고 그 밧줄이 나를 그의 뒤를 따라 끌어 내려야 했다. 그러니까 기다랗게 늘인 샴쌍둥이의 끈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퀴퀘그는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쌍둥이 형제였다. 그리고 나는 그 삼밧줄의 굴레가 지우는 위험한 책임을 어떻게도 벗어던질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내 처지를 너무도 강렬하게, 형이상학적으로 받아들였으므로, 그의 움직임을 열심히 지켜보는 동안, 내 개성이 이제 둘로 된 합자 회사에 녹아들었다는 것, 내 자유 의지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남의 실수나 불운이 죄 없는 나를 당치 않은 재앙과 죽음 속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또렷이 깨닫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섭리의 일종의 공위 기간이 있다고 보았다. 섭리의 공평무사한 공정함이라면 결코 그토록 지독한 불의를 저지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그러는 동안 나는

고래와 배 사이에 끼어 짓눌릴 듯한 그를 이따금 그 사이에서 홱 끌어냈다), 다시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이 처지는 숨 쉬는 모든 인간의 처지와 꼭 같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어떻게든 여러 다른 인간들과 이런 샴쌍둥이의 연결을 맺고 있을 뿐이다. 그대의 은행가가 파산하면 그대도 무너진다. 그대의 약제사가 실수로 알약에 독을 넣어 보내면 그대는 죽는다. 그야 그대는 아주 조심하면 이런 일과 삶의 다른 수많은 나쁜 우연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퀴퀘그의 원숭이 밧줄을 아무리 조심해서 다루어도, 그는 이따금 밧줄을 어찌나 홱 잡아당겼던지 나는 하마터면 배 밖으로 미끄러질 뻔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수를 쓰든 밧줄의 한쪽 끝만 내 손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1]

나는 고래와 배 사이에서 가엾은 퀴퀘그를 자주 홱 끌어냈다고 넌지시 말했다. 둘 다 끊임없이 구르고 흔들려서 그가 이따금 그 사이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끼어 짓눌릴 위험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밤사이 저희에게 가해진 학살에도 겁먹지 않고, 상어들은 앞서 갇혀 있다가 이제 시체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피에 새롭게, 더 날카롭게 꾀여, 그 미친 짐승들은 벌집의 벌 떼처럼 시체 둘레에 우글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 상어들 한가운데에 퀴퀘그가 있었다. 그는 허우적거리는 발로 상어들을 자주 밀어냈다. 죽은 고래 같은 먹이에 끌려들면, 다른 때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고기를 먹는 상어도 좀처럼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없다면,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상어들이 이 잔치에 그토록 게걸스럽게 손가락을 들이밀고 있으니, 놈들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일로 여겨진다는 것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그래서 유난히 사나워 보이는 상어의 아가리에 그 가엾은 친구가 너무 가까이 갈 때 내가 이따금 홱 끌어당기는 원숭이 밧줄 말고도, 그에게는 또 하나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태시테고와 다구가 해체대 하나에 매달려 뱃전 너머로 내려가서, 날카로운 고래 삽 두 자루를 그의 머리 위로 줄곧 휘두르며 닿는 대로 상어를 죽였다. 물론 그들의 이런 처사는 사심 없고 너그러운 일이었다. 그들은 퀴퀘그가 더없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를 도우려는 성급한 열성 때문에, 그리고 그와 상어들이 피로 흐려진 물에 이따금 반쯤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분별없는 삽은 상어 꼬리보다 사람 다리를 잘라 낼 뻔한 적이 더 많았다. 그러나 가엾은 퀴퀘그는, 그 커다란 쇠갈고리를 들고 거기서 용쓰며 숨을 헐떡이던 가엾은 퀴퀘그는, 아마 그저 제 요조에게 기도하며 제 신들의 손에 목숨을 맡겼으리라.

그래, 그래, 나의 소중한 동무이자 쌍둥이 형제여. 나는 바다가 부풀어 오를 때마다 밧줄을 당겼다 늦췄다 하며 생각했다. 결국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이 포경 세계의 우리 인간 하나하나와 모두를 그대로 비춰 주는 귀한 모습이 아니냐? 네가 헐떡이는, 깊이를 잰 적 없는 그 대양은 삶이다. 그 상어들은 네 원수들이다. 그 삽들은 네 친구들이다. 그리고 상어와 삽 사이에서 너는 딱하게도 곤경과 위험에 빠져 있구나, 가엾은 녀석아.

그러나 힘을 내라! 너에게는 기쁜 대접이 기다리고 있다, 퀴퀘그. 기진맥진한 야만인이 입술은 퍼렇고 눈은 핏발이 선 채 마침내 쇠사슬 발판을 타고 올라와, 온몸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저도 모르게 덜덜 떨면서 뱃전 너머에 서자, 급사가 다가와 자비롭고 위로하는 눈길로 그에게 건네는 것이 무엇인가? 뜨거운 코냑? 아니다! 그에게 건네는 것은, 신들이여! 그에게 건네는 것은 미지근한 생강물 한 잔이다!

"생강? 생강 냄새가 나는데?" 스터브가 다가오며 수상쩍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이건 생강이 틀림없다." 그는 아직 입도 대지 않은 잔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한동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서 있다가, 깜짝 놀란 급사 쪽으로 차분히 걸어가며 천천히 말했다. "생강? 생강이라? 그래, 도우보이 씨, 생강에 무슨 효험이 있는지 좀 친절하게 일러 주겠냐? 생강이라! 이 덜덜 떠는 식인종 속에 불을 지피려고 네가 쓰는 땔감이 생강이냐, 도우보이? 생강이라니! 생강이 도대체 뭐냐? 석탄이냐? 장작이냐? 성냥이냐? 부싯깃이냐? 화약이냐? 도대체 생강이 뭐길래 여기 우리 가엾은 퀴퀘그에게 이 잔을 내미느냐 말이다."

"이 일에는 무슨 살금살금 끼어든 금주 협회 운동 같은 게 있소." 그는 막 앞쪽에서 온 스타벅에게 다가가며 갑자기 덧붙였다. "저 잔 좀 보시오. 괜찮다면 냄새도 맡아 보시오." 그러고는 항해사의 얼굴빛을 살피며 덧붙였다. "스타벅 씨, 저 급사 놈이 방금 고래에서 올라온 저기 저 퀴퀘그에게 염화제일수은이랑 할라파 설사약을 뻔뻔하게 내밀었소. 급사가 약제사요? 그리고 반쯤 물에 빠져 죽은 사람한테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는 쓴 술이 이런 거냐고 물어봐도 되겠소?"

"그렇지는 않겠지." 스타벅이 말했다. "꽤 시시한 물건이로군."

"그래, 그래, 급사." 스터브가 외쳤다. "작살잡이에게 약을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마. 여기서는 네 약제사 약 따위는 안 통한다. 우리를 독살하고 싶은 거지, 응? 우리 목숨에 보험을 들어 놓고 우리를 몽땅 죽여서 보험금을 챙기고 싶은 거지, 응?"

"제가 아닙니다." 도우보이가 외쳤다. "생강을 배에 들여온 건 채리티 아주머니예요. 작살잡이들에게는 절대로 독한 술을 주지 말고 이 생강 주브만 주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생강 주브라고! 이 생강처럼 쩨쩨한 놈아! 이거나 먹어라! 그리고 사물함으로 달려가서 더 나은 걸 가져와. 잘못하는 건 아니겠지요,

스타벅 씨. 선장님 명령이오. 고래 위에 있다 온 작살잡이에게는 그로그 술을 주라고."

"됐네." 스타벅이 대답했다. "다만 그 녀석을 다시 때리지는 말게, 그리고……"

"아, 나는 때려도 다치게 하지는 않소. 고래나 그런 걸 때릴 때 말고는. 그리고 이 녀석은 족제비요. 무슨 말을 하려던 참이었소?"

"이것뿐일세. 그 녀석과 함께 내려가서, 자네가 바라는 걸 몸소 가져오게."

스터브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한 손에 검은 술병을, 다른 손에는 차 상자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앞의 것에는 독한 술이 들어 있어서 퀴퀘그에게 건네졌다. 뒤의 것은 채리티 아주머니의 선물이었는데, 그것은 파도에게 아낌없이 주어졌다.

---

1. 원숭이 밧줄은 포경선이면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원숭이와 그를 붙드는 사람을 한데 묶은 것은 피쿼드호뿐이었다. 본디 관례를 이렇게 고친 것은 다름 아닌 스터브였다. 위험에 처한 작살잡이에게, 원숭이 밧줄을 붙드는 사람이 충실하고 방심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단단히 보증해 주려는 뜻이었다.

제73장 스터브와 플래스크가 참고래를 잡고 그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이 모든 동안 피쿼드호 옆구리에 향유고래의 엄청난 머리가 매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돌볼 기회가 올 때까지는 한동안 거기 그대로 매달려 있게 두어야 한다. 지금은 다른 일들이 급하다. 그리고 지금 그 머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도르래 장치가 버텨 주기를 하늘에 비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밤과 오전 사이에 피쿼드호는 차츰 어떤 바다로 흘러들어가 있었다. 그 바다는 여기저기 노란 브릿이 떠 있는 것으로 보아 참고래가 가까이 있다는 보기 드문 표시를 보여 주었다. 참고래는 리워야단의 한 종인데, 하필 이맘때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으리라고 짐작한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선원이 대개 그런 하찮은 짐승을 잡는 일을 업신여겼고, 피쿼드호는 참고래를 잡으러 다니라는 임무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크로제 제도 근처에서도 참고래를 여럿 지나치면서 보트 한 척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 향유고래를 뱃전에 끌어다 붙이고 머리를 베고 나자, 모두가 놀랍게도 기회가 오면 그날 참고래를 잡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기회는 오래 기다릴 것도 없었다. 바람 불어 가는 쪽에서 높은 물줄기들이 보였다. 그리고 보트 두 척, 스터브의 보트와 플래스크의 보트가 쫓아 나갔다. 점점 더 멀리 노를 저어 간 보트들은 마침내 돛대 꼭대기의 사람들에게도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저

멀리서 그들은 소란스러운 흰 물이 크게 솟구친 더미를 보았고, 곧이어 높은 데서 보트 한 척이나 두 척이 고래를 꿴 것이 틀림없다는 소식이 내려왔다. 얼마 뒤 보트들이 똑똑히 보였다. 끌고 가는 고래가 보트들을 본선 쪽으로 곧장 끌어오고 있었다. 괴물이 선체에 어찌나 가까이 다가왔던지, 처음에는 놈이 배에 악의라도 품은 것 같았다. 그러나 놈은 판자에서 3로드도 안 되는 곳에서 갑자기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내려가더니, 용골 밑으로 잠수하듯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끊어라, 끊어!" 본선에서 보트들에게 외쳤다. 보트들은 한순간 본선 옆구리에 치명적으로 들이받힐 판인 것 같았다. 그러나 통에는 아직 작살줄이 넉넉히 있었고 고래가 그리 빨리 잠수하지도 않았으므로, 그들은 밧줄을 넉넉히 풀어 주면서 동시에 본선보다 앞으로 나가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몇 분 동안 싸움은 더없이 아슬아슬했다. 그들이 팽팽해진 줄을 한쪽으로 계속 풀어 주면서 다른 쪽으로는 계속 노를 젓는 동안, 맞서 당기는 힘이 그들을 물밑으로 끌어들일 듯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얻으려는 것은 겨우 몇 피트 앞서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버텼다. 그러자 곧바로 재빠른 떨림이 번개처럼 용골을 따라 달리는 것이 느껴졌다. 팽팽한 줄이 배 밑을 긁으며 지나가 갑자기 이물 밑에서 툭툭 튀고 떨며 드러났고, 물방울을 어찌나 털어 냈던지 그 방울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물 위로 떨어졌다. 그 너머에서 고래도 떠올라 모습을 드러냈고, 보트들은 다시 한 번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친 고래는 기세를 늦추고, 눈먼 듯 방향을 바꾸어 두 보트를 끌고 본선의 고물을 돌아갔다. 그래서 보트들은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았다.

그동안 그들은 줄을 점점 더 끌어당겨, 마침내 놈의 양옆구리에 바싹 붙었다. 스터브는 플래스크와 창에는 창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렇게 피쿼드호 둘레를 빙빙 돌며 싸움이 벌어졌다. 그동안 앞서 향유고래의

몸뚱이 둘레를 헤엄치던 수많은 상어가 새로 쏟아진 피로 몰려들어, 새 상처가 날 때마다 목마르게 들이켰다. 열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친 바위에서 새로 터져 쏟아지는 샘물을 들이켰듯이.

마침내 놈의 물줄기가 걸쭉해졌다. 그리고 놈은 무시무시하게 뒹굴며 토하더니 시체가 되어 벌렁 뒤집혔다.

두 보트장이 놈의 꼬리지느러미에 밧줄을 매고 다른 여러 방법으로 그 덩어리를 끌고 갈 채비를 하는 동안, 그들 사이에 이야기가 좀 오갔다.

"영감님이 이 더러운 비곗덩어리를 어디다 쓰려는지 모르겠다." 스터브가 그토록 천한 리워야단을 다뤄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쯤 넌더리를 내며 말했다.

"어디다 쓰냐고?" 플래스크가 보트 이물에서 남는 줄을 사리며 말했다. "향유고래 머리를 한 번이라도 우현에 매달고 동시에 좌현에 참고래 머리를 매단 배는, 너 그런 말 못 들어 봤냐, 스터브? 그런 배는 그 뒤로 절대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

"왜?"

"몰라. 하지만 그 등황빛 유령 같은 페달라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그놈은 배에 붙이는 부적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더라. 하지만 가끔은 그놈이 결국에는 배에 몹쓸 주문을 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 녀석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스터브. 너 그놈의 엄니가 뱀 대가리 비슷하게 깎여 있는 거 본 적 있냐, 스터브?"

"빠져 죽어라! 나는 그놈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언제고 깜깜한 밤에 기회가 와서, 그놈이 뱃전 바로 곁에 서 있고 옆에 아무도 없다면, 저 아래를 봐라, 플래스크." 그는 두 손으로 이상한 몸짓을 하며 바다를 가리켰다. "그래, 그렇게 해 줄 테다! 플래스크, 나는 그 페달라가 변장한 악마라고 본다. 너 그놈이 배에 몰래 숨어 탔다는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냐? 그놈은 악마라니까. 그놈 꼬리가 안 보이는 건 그걸 안

보이게 접어 넣고 다니기 때문이다. 내 짐작에는 주머니에 둘둘 말아 넣고 다닐 거야. 빌어먹을 놈! 이제 생각해 보니 그놈은 늘 장화 앞코에 쑤셔 넣을 뱃밥을 찾더라."

"그놈은 장화를 신고 자잖아, 안 그래? 해먹도 없고. 밤이면 사려 놓은 밧줄 더미 위에 누워 있는 걸 봤어."

"그야 그렇겠지. 그 망할 꼬리 때문이다. 그걸 밧줄 더미 한가운데 구멍에 사려 넣는 거다, 알겠냐."

"영감님은 왜 그놈하고 그렇게 붙어 다니는 거야?"

"뭘 맞바꾸든가 흥정을 하는 거겠지."

"흥정? 뭘 두고?"

"아니, 그러니까, 영감님은 그 흰 고래를 쫓는 데 단단히 꽂혀 있잖아. 그래서 저기 저 악마가 영감님을 구워삶아서, 은시계든 영혼이든 그 비슷한 걸 내놓고 바꾸게 하려는 거다. 그러면 모비 딕을 넘겨주겠다는 거지."

"쳇! 스터브, 너 장난치는구나. 페달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해?"

"나도 모르지, 플래스크. 하지만 악마는 별난 녀석이야. 그리고 사악한 녀석이고, 정말이다. 아니, 사람들 말로는 그놈이 언젠가 옛 기함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갔는데, 꼬리를 악마같이 느긋하게 신사답게 휘두르면서 늙은 총독이 집에 있느냐고 물었다더라. 그래, 총독은 집에 있었고, 악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악마는 발굽을 탁탁 구르며 벌떡 일어나 말하기를, '존을 내놔라.' '무엇 때문에?' 늙은 총독이 말하지. '그게 네가 상관할 일이냐.' 악마가 성을 내며 말하기를, '그놈을 좀 써야겠다.' '데려가라.' 총독이 말하지. 그리고 맹세코, 플래스크, 악마가 존을 다 쓰기 전에 아시아 콜레라를 옮기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래를 한입에 먹어 치우겠다. 그런데 눈 똑바로 떠라. 거기 다 됐냐? 그럼 앞으로 저어라. 고래를 뱃전으로 끌고 가자."

"네가 하던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마침내 두 보트가 짐을 끌고 본선 쪽으로 천천히 나아갈 때 플래스크가 말했다. "어딘지는 생각이 안 나."

"「세 스페인 사람」? 피에 굶주린 그 세 솔다도의 모험 말이냐? 거기서 읽었냐, 플래스크? 그랬겠지?"

"아니. 그런 책은 본 적 없어. 들어 보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말해 봐, 스터브. 네가 방금 말한 그 악마가 지금 피쿼드호에 타고 있다는 그 악마랑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이 고래를 잡는 걸 거든 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냐? 악마는 영원히 사는 거 아니냐. 악마가 죽었다는 소리 들어 본 사람 있냐? 악마 때문에 상복 입은 목사 본 적 있냐? 그리고 악마가 제독의 선실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다면, 현창으로 기어들어 오지 못할 것 같냐? 말해 봐라, 플래스크 씨."

"페달라가 몇 살쯤 됐을 것 같냐, 스터브?"

"저기 큰돛대 보이냐?" 그는 본선을 가리켰다. "좋아, 저게 숫자 1이다. 이제 피쿼드호 선창에 있는 쇠테를 몽땅 꺼내서, 영 대신 저 돛대 옆에 한 줄로 죽 늘어놓는다고 쳐 봐, 알겠냐. 그래도 페달라 나이에는 어림도 없다. 온 세상 통장이들을 다 모아도 영을 그만큼 만들 쇠테는 못 내놓을 거다."

"하지만 이봐, 스터브. 너 방금 좋은 기회만 오면 페달라를 바다에 내던지겠다고 좀 큰소리친 것 같은데. 그놈이 네 쇠테를 다 합친 만큼 늙었고, 영원히 살 거라면, 배 밖으로 내던져 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걸 말해 봐."

"어쨌든 물에 푹 처박아 줄 테다."

"하지만 기어 올라오겠지."

"또 처박지. 계속 처박는 거야."

"그런데 그놈이 너를 처박을 마음을 먹는다면, 그래, 그래서 너를 빠뜨려 죽인다면, 그땐 어쩔 건데?"

"어디 한번 해 보라지. 그놈 두 눈을 시퍼렇게 멍들게 해 줘서, 그놈이 사는 저 아래 최하 갑판은 고사하고 그놈이 그렇게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이 근처 위 갑판에서도, 아니 제독의 선실에서도 한참 동안 낯짝을 못 내밀게 해 줄 테다. 악마 따윈 엿이나 먹어라, 플래스크. 그래, 너는 내가 악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냐? 그놈을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그 늙은 총독 말고? 그 총독은 그놈을 잡아서 마땅히 쌍수갑을 채우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게 내버려 두잖아. 그래, 악마가 잡아가는 사람은 모조리 자기가 악마 대신 구워 주겠다는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지. 그런 게 총독이란다!"

"페달라가 에이해브 선장을 잡아가려 한다고 생각하냐?"

"생각하냐고? 머지않아 알게 될 거다, 플래스크.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그놈을 바짝 지켜볼 거다. 그리고 뭔가 아주 수상쩍은 일이 벌어지는 게 보이면 그냥 그놈 목덜미를 붙잡고 말하지. 이봐라, 바알세붑, 그건 안 된다. 그리고 그놈이 소란을 피우면, 맹세코, 그놈 주머니에 손을 쑥 넣어서 꼬리를 움켜쥐고 캡스턴으로 끌고 가서 비틀고 감아 대서 꼬리가 그루터기째 똑 끊어지게 해 줄 테다, 알겠냐. 그러면, 내 짐작에, 그놈이 그런 괴상한 꼴로 꼬리가 잘린 걸 알면, 다리 사이에 꼬리를 낀다는 그 하찮은 위안도 못 느끼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뺄 거다."

"그럼 그 꼬리는 어쩔 건데, 스터브?"

"어쩌긴? 집에 가면 소몰이 채찍으로 팔지. 달리 뭘 하겠냐?"

"그런데 너 지금 하는 말, 아까부터 줄곧 해 온 말, 진심이냐, 스터브?"

"진심이든 아니든, 배에 다 왔다."

이때 본선에서 보트들에게 고래를 좌현으로 끌고 오라고 외쳤다. 그곳에는 고래를 매어 둘 꼬리 사슬과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내가 뭐랬냐?" 플래스크가 말했다. "그래, 곧 이 참고래 머리가 저 향유고래 놈 머리 맞은편에 매달리는 걸 보게 될 거다."

머지않아 플래스크의 말이 들어맞았다. 앞서는 피쿼드호가 향유고래 머리 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었는데, 이제는 두 머리가 균형을 맞추어 주는 바람에 다시 바로 섰다. 물론 몹시 무리를 했으리라는 것은 그대도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한쪽에 로크의 머리를 끌어 올리면 그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이제 다른 쪽에 칸트의 머리를 끌어 올리면 다시 바로 선다. 그러나 무척 딱한 꼴이 되어서다. 이렇게 어떤 정신들은 영원히 보트의 균형을 맞추느라 애쓴다. 오, 어리석은 자들아! 이 천둥 같은 머리들을 모두 배 밖으로 내던져라. 그러면 가볍고 바르게 뜨리라.

참고래를 뱃전에 끌어다 붙였을 때 그 몸뚱이를 처리하는 데는 대개 향유고래의 경우와 같은 준비 절차를 거친다. 다만 향유고래는 머리를 통째로 잘라 내지만, 참고래는 입술과 혀를 따로 떼어 내어, 이른바 왕관 조각에 붙은 그 잘 알려진 검은 고래수염과 함께 갑판으로 끌어 올린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두 고래의 시체는 고물 쪽으로 떠나보냈다. 그리고 머리를 실은 배는 너무 무거운 짐바구니 한 쌍을 진 노새를 적잖이 닮았다.

그동안 페달라는 참고래 머리를 차분히 바라보며, 이따금 거기 깊이 팬 주름에서 제 손금으로 눈길을 옮기곤 했다. 그리고 에이해브는 마침 파시교도가 그의 그림자 속에 들어서도록 서 있었다. 그런가 하면 거기 파시교도의 그림자가 있기라도 하다면, 그것은 에이해브의 그림자와 섞여 그 그림자를 길게 늘이는 것 같을 뿐이었다. 선원들이 일을 계속하는 동안, 이 모든 지나가는 일들을 두고 라플란드 사람 같은 짐작들이 그들 사이에 오갔다.

제74장 향유고래의 머리: 대조

자, 여기 커다란 고래 두 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우리도 그들 곁에 가서 우리 머리를 맞대 보자.

이절판 리워야단이라는 웅대한 목(目) 가운데 향유고래와 참고래는 단연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 둘은 인간이 정기적으로 사냥하는 유일한 고래다. 낸터킷 사람에게 이 둘은 알려진 모든 고래 변종의 두 극단을 보여 준다. 이 둘의 겉모습 차이는 주로 머리에서 볼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피쿼드호 옆구리에 둘의 머리가 하나씩 매달려 있으며, 갑판을 건너가기만 하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마음대로 오갈 수 있으니, 실용 고래학을 공부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를 그대가 어디서 얻겠는가, 나는 알고 싶다.

우선, 그대는 이 두 머리가 전체적으로 대조된다는 데 놀란다. 둘 다 참으로 육중하다. 그러나 향유고래의 머리에는 참고래의 머리에 딱하게도 모자란 어떤 수학적 균형이 있다. 향유고래의 머리에 더 개성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 그대는 온몸에 배어 있는 위엄으로 보아 저도 모르게 놈이 훨씬 낫다고 인정하게 된다. 지금 이 경우에는 머리 꼭대기의 희끗희끗한 빛깔이 이 위엄을 한층 높여 주는데, 그것은 나이가 많고 겪은 일이 많다는 표시다. 한마디로, 놈은 어부들이 뱃말로 「반백 고래」라고 부르는 고래다.

이제 이 두 머리에서 가장 덜 다른 것, 곧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인 눈과 귀를 살펴보자. 머리 옆면 뒤쪽 멀리, 아래쪽으로, 두 고래 모두 턱의

모서리 근처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대는 마침내 속눈썹 없는 눈 하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망아지의 눈인가 싶을 만큼 머리 크기에 걸맞지 않게 작다.

그런데 고래의 눈이 이렇게 특이하게 옆에 붙어 있으니, 놈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은 뻔하다. 바로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고래의 눈자리는 사람의 귀 자리에 해당한다. 그대가 귀로 사물을 옆으로 둘러본다면 어떻게 될지 혼자 상상해 보라. 그대는 똑바로 옆을 보는 시선에서 앞쪽으로 30도쯤, 그리고 뒤쪽으로 30도쯤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의 가장 지독한 원수가 대낮에 단도를 쳐들고 그대에게 곧장 걸어온다 해도, 그가 뒤에서 몰래 다가오는 것처럼 그대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대는 말하자면 등이 둘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앞도 둘(옆의 앞)일 것이다. 사람의 앞을 앞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로 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내가 지금 떠올릴 수 있는 다른 동물 대부분은 눈이 시력을 저도 모르게 하나로 섞어서 뇌에 그림을 둘이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 내도록 박혀 있지만, 고래의 눈은 특이한 자리에 붙어 있고, 골짜기의 두 호수를 가르는 큰 산처럼 그 사이에 우뚝 솟은 몇 입방 피트의 단단한 머리에 실제로 갈라져 있으니, 물론 이것은 저마다 따로 있는 두 기관이 전하는 인상을 완전히 갈라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래는 이쪽에서 뚜렷한 그림 하나를, 저쪽에서 또 다른 뚜렷한 그림 하나를 볼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사이는 모두 놈에게 깊은 어둠이요 무(無)일 것이 틀림없다. 사람은 실로 두 창틀을 이어 붙여 창문으로 삼은 보초막에서 세상을 내다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래의 경우 이 두 창틀은 따로따로 끼워져 있어서 서로 다른 창문 둘을 이루지만, 시야는

딱하게도 망가진다. 고래 눈의 이 특이한 점은 포경업에서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이며, 독자도 뒤에 나오는 몇몇 장면에서 기억해 두어야 한다.

리워야단의 이 보는 문제를 두고 기이하고 무척 아리송한 물음 하나를 던져 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넌지시 비치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사람의 눈이 빛 속에서 떠 있는 한, 보는 행위는 제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다. 곧 그때 그는 눈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기계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누구든 겪어 보면 알겠지만, 한눈에 사물들을 가리지 않고 휙 훑어볼 수는 있어도, 어떤 두 가지를,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바로 같은 한순간에 주의 깊게 온전히 살펴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둘이 나란히 맞닿아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제 이 두 가지를 떼어 놓고 저마다 깊은 어둠의 동그라미로 에워싼다면, 그 가운데 하나를 마음을 쏟아 보려 할 때 다른 하나는 그 순간의 의식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이다. 그렇다면 고래는 어떠한가? 그야 놈의 두 눈은 그 자체로는 동시에 움직일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놈의 뇌가 사람의 뇌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잘 결합하며 섬세해서, 한쪽 옆의 경치 하나와 정반대 방향의 또 다른 경치 하나, 이 서로 다른 두 경치를 바로 같은 순간에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유클리드의 서로 다른 두 문제의 증명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것만큼이나 놈에게 놀라운 일이다. 엄밀히 따져 보아도 이 비교에는 어긋나는 데가 없다.

부질없는 공상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늘 이렇게 생각되었다. 어떤 고래들이 보트 서너 척에 에워싸였을 때 보여 주는 이상하리만큼 갈팡질팡하는 움직임, 그런 고래들에게 아주 흔한 소심함과 괴상하게 겁먹기 쉬운 성질, 나는 이 모든 것이 갈라져 정반대를 향하는 놈들의 시력이 놈들을 빠뜨리는 의지의 속수무책인 혼란에서 간접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래의 귀는 눈 못지않게 기이하다. 그 족속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두 머리를 몇 시간이고 뒤져도 그 기관을 끝내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귀에는 바깥 귓바퀴가 전혀 없다. 그리고 구멍 자체도 너무나 놀랍도록 작아서 깃펜 하나 넣기도 어렵다. 그것은 눈 조금 뒤에 자리 잡고 있다. 귀를 두고 보면 향유고래와 참고래 사이에 이런 중요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앞의 것은 귀에 바깥으로 열린 구멍이 있지만, 뒤의 것은 귀가 막으로 완전히 고르게 덮여 있어서 밖에서는 전혀 알아볼 수 없다.

고래처럼 그토록 거대한 존재가 그토록 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산토끼의 귀보다 작은 귀로 천둥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기이하지 않은가? 그러나 놈의 눈이 허셜의 거대한 망원경 렌즈만큼 넓고, 놈의 귀가 대성당 현관만큼 널찍하다면, 그러면 놈이 더 멀리 보거나 더 예민하게 듣게 될까? 전혀 아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정신을 「넓히려고」 애쓰는가? 정신을 섬세하게 하라.

이제 손 닿는 대로 지렛대든 증기 기관이든 써서 향유고래의 머리를 기울여, 바닥이 위로 오게 뉘어 보자. 그런 다음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 입 안을 들여다보자. 몸뚱이가 이제 머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등불을 들고 놈의 위장이라는 켄터키의 거대한 매머드 동굴로 내려갈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여기 이 이빨을 붙잡고 버티며 우리가 있는 곳을 둘러보자. 참으로 아름답고 정숙해 보이는 입이 아닌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신부의 공단처럼 반들반들하게 번득이는 흰 막이 덧대어져, 아니 도배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나와서 이 불길한 아래턱을 보라. 한쪽 옆이 아니라 한쪽 끝에 경첩이 달린 거대한 코담배 갑의 길고 좁은 뚜껑 같다. 그것을 비집어 올려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줄지은 이빨을 드러내면, 그것은 무시무시한 내리닫이 쇠창살문 같다. 그리고 아아! 포경업의 많은

불쌍한 친구들에게 그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된다. 그 대못들이 꿰뚫는 힘으로 그들 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광경은, 바닷속 몇 패덤 밑에서 어떤 부루퉁한 고래가 거기 매달린 듯 떠 있는데, 길이가 15피트쯤 되는 엄청난 턱이 몸과 직각을 이루며 똑바로 아래로 늘어진 것을 보는 일이다. 영락없이 배의 제2 기움돛대 같다. 이 고래는 죽은 것이 아니다. 그저 풀이 죽었을 뿐이다. 어쩌면 기분이 언짢은지도 모른다. 우울증에 걸렸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너무 맥이 풀려 턱의 경첩이 느슨해지는 바람에 그렇게 꼴사나운 처지로 거기 남게 된 것이다. 그것은 놈의 온 족속에게 수치여서, 족속들은 틀림없이 놈에게 아예 아가리가 붙어 버리라고 저주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아래턱은 노련한 솜씨꾼이 쉽게 경첩을 풀어낼 수 있으므로, 떼어 내어 갑판으로 끌어 올린다. 고래뼈 이빨을 뽑고, 어부들이 지팡이·우산대·승마용 채찍 손잡이를 비롯해 온갖 기이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는 그 단단하고 흰 고래뼈를 얻으려는 것이다.

길고 지루하게 끌어 올려 마치 닻이라도 되는 듯 턱을 배 위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알맞은 때가 오면, 다른 일을 마치고 며칠 뒤에, 모두 솜씨 좋은 치과 의사인 퀴퀘그와 다구와 태시테고가 이를 뽑는 일을 맡는다. 퀴퀘그가 날카로운 해체용 삽으로 잇몸을 째면, 턱을 고리 볼트에 묶어 고정하고, 위에서 도르래 장치를 내려, 미시간의 황소들이 거친 숲에서 늙은 참나무 그루터기를 뽑아내듯 이빨을 뽑아낸다. 이빨은 대개 모두 마흔두 개다. 늙은 고래는 이빨이 많이 닳았지만 썩지는 않았다. 우리처럼 인공으로 때우지도 않았다. 턱은 나중에 톱으로 켜서 판자로 만들어, 집 지을 때 쓰는 장선처럼 쌓아 둔다.

제75장 참고래의 머리: 대조

갑판을 건너가서, 이제 참고래의 머리를 오래 찬찬히 바라보자.

고귀한 향유고래의 머리가 전체 생김새로 보아 로마의 전차에 견줄 수 있다면(특히 그토록 넓게 둥근 앞쪽이 그렇다), 넓게 보아 참고래의 머리는 거대한 갤리엇선 앞코처럼 생긴 구두를 꽤 볼품없이 닮았다. 2백 년 전 네덜란드의 한 옛 항해자는 그 생김새를 구두장이의 구두골에 견주었다. 그리고 바로 이 구두골, 곧 구두 속에, 자식을 우글우글 거느린 동화 속 그 할머니가 자식들을 몽땅 데리고 아주 편안히 들어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커다란 머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그것은 보는 자리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 그 꼭대기에 서서 이 두 개의 F 자 모양 숨구멍을 보면, 그대는 머리 전체를 거대한 콘트라베이스로, 이 숨구멍들을 그 울림판에 뚫린 구멍으로 여길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덩어리 꼭대기에 있는 이 이상한 볏 같은 빗 모양의 껍데기, 그린란드 사람들이 참고래의 「왕관」이라 부르고 남쪽 어부들이 「보닛」이라 부르는 이 따개비 덮인 초록빛 물건에 눈을 박고, 오로지 이것에만 눈을 박고 보면, 그대는 그 머리를 가지가 갈라진 자리에 새 둥지를 인 거대한 참나무 줄기로 여길 것이다. 아무튼 여기 이 보닛에 깃들어 사는 살아 있는 게들을 지켜보면 그런 생각이 거의 틀림없이 떠오를 것이다. 물론 그대의 공상이 이 물건에 붙은 「왕관」이라는 뱃말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말이다. 그런 경우라면 그대는 이 힘센 괴물이 실은 관을 쓴

바다의 왕이며, 그 초록빛 왕관이 이렇게 놀라운 솜씨로 그를 위해 짜 맞추어졌다고 생각하며 무척 흥미로워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고래가 왕이라면, 왕관을 빛내기에는 무척 부루퉁해 보이는 녀석이다. 저 축 늘어진 아랫입술을 보라! 얼마나 엄청나게 부루퉁하게 뾰로통해 있는가! 목수의 자로 재면 길이가 20피트쯤, 깊이가 5피트쯤 되는 부루퉁함과 뾰로통함이다. 기름이 500갤런쯤, 아니 그 이상 나올 부루퉁함과 뾰로통함이다.

이 불운한 고래가 언청이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갈라진 틈은 너비가 1피트쯤 된다. 아마 어미가 중요한 시기에 페루 해안을 따라 내려가다가, 지진으로 해변이 쩍 벌어지는 것을 보았나 보다. 미끄러운 문턱을 넘듯 이 입술을 넘어 이제 입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보자. 맹세코 내가 매키노에 있다면 이곳을 인디언 천막의 안쪽으로 여길 것이다. 맙소사! 이것이 요나가 간 길인가? 천장은 높이가 12피트쯤 되며, 진짜 마룻대라도 있는 듯 꽤 날카로운 각을 이룬다. 그리고 갈빗대가 진 듯 둥글게 흰 이 털북숭이 옆벽에는 반쯤 수직으로 선 언월도 모양의 그 놀라운 고래수염 판들이 한쪽에 3백 개쯤 늘어서 있다. 그것들은 머리 위쪽, 곧 왕관뼈에 매달려 다른 곳에서 대충 언급한 그 베네치아식 발을 이룬다. 이 뼈들의 가장자리에는 털 같은 섬유가 술처럼 달려 있다. 참고래는 그 사이로 물을 걸러 내고, 먹이를 먹을 철에 입을 벌린 채 브릿의 바다를 헤쳐 나갈 때 그 얽힌 털 사이에 작은 물고기들을 붙잡아 둔다. 제 본디 순서대로 서 있는 가운데쪽 뼈 발에는 어떤 기이한 무늬와 굽이와 우묵한 데와 도드라진 데가 있어서, 어떤 포경선원들은 참나무의 나이를 나이테로 셈하듯 그것으로 그 짐승의 나이를 셈한다. 이 기준이 확실하다는 것은 증명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유추로 보아 그럴듯한 맛은 있다. 아무튼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참고래에게 처음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를 인정해야 한다.

옛날에는 이 발을 두고 더없이 기이한 공상들이 퍼져 있었던 것 같다. 퍼처스의 책에 나오는 한 항해자는 그것을 고래 입 안의 놀라운 「구레나룻」이라 부른다.[1] 또 한 사람은 「돼지 털」이라 부른다. 해클루트의 책에 나오는 세 번째 노신사는 이런 우아한 말을 쓴다. "놈의 위쪽 *아가리* 양쪽에는 지느러미가 250개쯤 돋아 있어서, 입 양쪽에서 혀 위로 활처럼 휘어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바로 이 「돼지 털」, 「지느러미」, 「구레나룻」, 「발」, 아니 무엇이라 부르든 이것이 숙녀들에게 코르셋 살대와 그 밖에 옷을 빳빳하게 하는 장치들을 대 준다. 그러나 이 점에서는 수요가 오래전부터 줄고 있다. 이 뼈가 영광을 누린 것은 앤 여왕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페티코트 버팀테가 크게 유행했다. 그리고 그 옛 귀부인들이 말하자면 고래의 턱 속에 들어앉은 채로 즐겁게 돌아다녔듯이, 오늘날 우리도 소나기가 오면 그 못지않게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 턱 밑으로 피해 달려간다. 우산이란 바로 그 뼈 위에 펼친 천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잠시 발이니 구레나룻이니 하는 것은 다 잊고, 참고래의 입 안에 서서 새로운 눈으로 둘레를 둘러보라. 이 뼈 기둥들이 모두 그토록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것을 보면, 그대는 하를럼의 거대한 오르간 안에 들어가 그 천 개의 파이프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오르간에 깔 양탄자로는 가장 부드러운 터키 융단이 있다. 입 바닥에 아교로 붙인 듯 붙어 있는 혀다. 그것은 아주 기름지고 연해서 갑판으로 끌어 올리다가 갈가리 찢어지기 쉽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이 혀는, 언뜻 보기에 6배럴짜리라고 해야겠다. 곧 기름이 그만큼쯤 나올 것이다.

이쯤이면 내가 처음에 꺼낸 말, 곧 향유고래와 참고래가 거의 완전히 다른 머리를 가졌다는 말이 옳다는 것을 그대도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요약해 보자. 참고래의 머리에는 경랍이 고인 커다란 우물이 없다. 고래뼈 이빨도 전혀 없다. 향유고래처럼 길고 가는 아래턱뼈도 없다. 향유고래에게는 그 뼈 발이 하나도 없다. 거대한 아랫입술도 없다. 혀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다. 또 참고래는 바깥으로 열린 숨구멍이 둘이고, 향유고래는 하나뿐이다.

이제 이 덕망 높은, 두건을 쓴 두 머리를 마지막으로 보아 두라. 아직 나란히 누워 있는 동안에. 하나는 곧 아무 기록도 없이 바다에 가라앉을 것이고, 다른 하나도 그 뒤를 따르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저기 향유고래 머리의 표정을 알아볼 수 있는가? 놈이 죽을 때의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이마의 길쭉한 주름 몇 개가 이제는 흐려진 것 같다. 내 생각에 그 넓은 이마에는 죽음에 대한 사색적인 무관심에서 생겨난 대초원 같은 평온함이 가득하다. 그러나 다른 머리의 표정을 보라. 우연히 뱃전에 짓눌려 턱을 단단히 감싸 안은 저 놀라운 아랫입술을 보라. 이 머리 전체가 죽음과 맞서는 엄청난 실천적 결단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이 참고래는 스토아 학파였다고 나는 본다. 향유고래는 플라톤 학파로서, 만년에 스피노자를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

1. 이것을 보니 생각나는데, 참고래에게는 정말로 일종의 구레나룻, 아니 콧수염이 있다. 아래턱 바깥 끝의 윗부분에 흰 털 몇 가닥이 흩어져 난 것이다. 이따금 이 털 뭉치는 다른 데는 엄숙한 놈의 얼굴에 꽤 산적 같은 표정을 입힌다.

제76장 공성 망치

향유고래의 머리를 잠시 떠나기 전에, 나는 그대가 분별 있는 생리학자로서 그 앞모습을, 빈틈없이 다져진 그 온전한 모습 그대로, 그저 특별히 눈여겨보기를 바란다. 이제 오로지 거기 깃들어 있을지 모르는 공성 망치의 힘이 어떠한지 과장 없는 지적인 판단을 스스로 세우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여기가 핵심이다. 그대는 이 문제를 스스로 흡족하게 매듭짓든가, 아니면 어쩌면 기록된 모든 역사를 통틀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소름 끼치지만 그렇다고 덜 참되지는 않은 사건 하나를 두고 영원히 믿지 않는 자로 남든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보게 된다. 향유고래가 보통 헤엄치는 자세에서 놈의 머리 앞면은 물에 대고 거의 완전히 수직인 평면을 내민다. 그 앞면의 아래쪽은 꽤 뒤로 비스듬히 물러나 있어서, 돛 활대 같은 아래턱을 받아들이는 긴 홈이 들어앉을 자리를 더 넉넉히 마련해 준다. 입은 완전히 머리 밑에 있다. 실로 그대 자신의 입이 완전히 턱 밑에 있는 것과 거의 같다. 게다가 고래에게는 바깥으로 드러난 코가 없고, 놈에게 있는 코라고 할 만한 것, 곧 숨구멍은 머리 꼭대기에 있다. 놈의 눈과 귀는 머리 옆면에, 앞에서부터 몸 전체 길이의 거의 3분의 1 되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향유고래의 머리 앞면이 어떤 기관도, 어떤 종류의 여린 돌기도 하나 없는, 죽은 듯 막힌 벽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 그대는 이것도 생각해야 한다. 머리 앞면의 맨

아래쪽, 뒤로 비스듬히 물러난 부분에만 뼈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고, 이마에서 20피트 가까이 들어가야 비로소 머리뼈가 온전히 발달한 데에 이른다. 그러니 이 엄청나게 큰 뼈 없는 덩어리 전체가 솜뭉치 하나와 같다. 끝으로, 곧 밝혀지겠지만, 그 속에 든 것 가운데 일부는 더없이 섬세한 기름이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겉보기에 그토록 여린 그 모든 것을 그토록 난공불락으로 감싸고 있는 물질이 어떤 성질인지 알아야 한다. 앞서 어느 대목에서 나는 껍질이 오렌지를 감싸듯 지방층이 고래의 몸을 감싸는 모습을 그대에게 묘사했다. 머리도 꼭 그렇다. 다만 차이가 있다. 머리 둘레의 이 덮개는 그만큼 두껍지는 않지만, 뼈 없는 질김이 손으로 다루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가장 끝이 날카로운 작살도, 가장 힘센 인간의 팔이 던진 가장 날카로운 창도 맥없이 튕겨 나온다. 마치 향유고래의 이마가 말발굽으로 포장된 것 같다. 나는 거기에 어떤 감각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하나 생각해 보라. 짐을 실은 커다란 동인도 무역선 두 척이 부두에서 우연히 서로 밀치며 짓눌러 다가갈 때, 선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맞닿을 자리에 쇠나 나무 같은 그저 단단하기만 한 물건을 매달지 않는다. 아니다, 그들은 가장 두껍고 가장 질긴 쇠가죽으로 감싼 커다랗고 둥근 삼 부스러기와 코르크 뭉치를 거기 댄다. 그것은 그들의 참나무 지레와 쇠 지렛대를 몽땅 부러뜨렸을 압박을 꿋꿋이, 다치지도 않고 받아 낸다. 이것만으로도 내가 말하려는 뻔한 사실을 충분히 보여 준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나는 가설 삼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보통 물고기에게는 이른바 부레라는 것이 있어서 마음대로 부풀리거나 오므릴 수 있고, 향유고래에게는 내가 아는 한 그런 장치가 없다. 또 놈이 지금은 머리를 수면 아래로 완전히 숙였다가 이윽고 물 밖으로 높이 쳐들고 헤엄치는, 달리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 덮개의 거침없는 탄력을 생각하고, 놈의 머리 안쪽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말하자면 가설 삼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거기 있는 그 신비한 허파 세포 같은 벌집들이 혹시 지금껏 알려지지도 짐작되지도 않은 어떤 길로 바깥 공기와 이어져 있어서, 대기에 따라 부풀었다 오므라들 수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원소 가운데 가장 만질 수 없고 가장 파괴적인 원소가 힘을 보태는 그 힘이 얼마나 막을 수 없을지 상상해 보라.

자, 잘 보라. 죽은 듯하고 난공불락이며 상처 입힐 수 없는 이 벽과, 그 안에 든 더없이 잘 뜨는 이것을 어김없이 밀고 나가며, 그 모든 것 뒤에서 엄청난 생명의 덩어리 하나가 헤엄친다. 쌓아 놓은 장작처럼 코드 단위로나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덩어리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가장 작은 곤충처럼 한 의지를 따른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이 거대한 괴물의 곳곳에 숨어 있는 힘의 온갖 특성과 응집을 그대에게 자세히 이야기할 때, 놈이 해치우는 비교적 하찮은 머리 쓰는 묘기 몇 가지를 보여 줄 때, 나는 그대가 무지한 불신을 모두 버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채비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향유고래가 다리엔 지협을 들이받아 길을 뚫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뒤섞는다 해도, 그대가 눈썹 한 올 치켜세우지 않으리라는 것을. 고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진리에 대해 촌뜨기요 감상주의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맑은 진리란 불도마뱀 같은 거인들만이 맞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촌뜨기들에게 무슨 가망이 있겠는가? 라이스에서 무시무시한 여신의 너울을 들춘 그 연약한 젊은이에게 무슨 일이 닥쳤던가?

제77장 하이델베르크의 큰 술통

이제 머릿기름통 퍼내기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작업 대상의 기이한 내부 구조를 얼마쯤 알아야 한다.

향유고래의 머리를 단단한 직육면체로 보면, 비스듬한 평면으로 그것을 옆으로 갈라 쐐기꼴 둘로 나눌 수 있다.[1] 그 가운데 아래쪽은 머리뼈와 턱을 이루는 뼈 구조이고, 위쪽은 뼈가 하나도 없는 기름진 덩어리다. 그 넓은 앞쪽 끝이 고래의, 수직으로 펼쳐진 겉보기 이마를 이룬다. 이마 한가운데에서 이 위쪽 쐐기꼴을 가로로 다시 나누면, 거의 같은 두 부분이 생기는데, 이 둘은 본디 두꺼운 힘줄 같은 물질로 된 안쪽 벽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어 있다.

다시 나눈 아래쪽 부분은 정크라고 부르는데, 질기고 탄력 있는 흰 섬유들이 그 전체에 걸쳐 엇갈리고 또 엇갈리며 기름이 스며든 만 개의 방을 이루어 놓은 하나의 거대한 기름 벌집이다. 위쪽 부분은 머릿기름통이라고 하는데, 향유고래의 하이델베르크 큰 술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름난 큰 술통의 앞면에 신비한 조각이 새겨져 있듯이, 고래의 거대하게 주름진 이마도 그 놀라운 술통을 상징적으로 꾸미는 셀 수 없이 많은 기이한 문양을 이룬다. 게다가 하이델베르크의 술통이 언제나 라인강 골짜기의 가장 훌륭한 포도주로 가득 채워졌듯이, 고래의 술통에는 놈의 모든 기름 빈티지 가운데 단연 가장 귀한 것, 곧 더없이 순수하고 맑고 향기로운 상태의 그 높이 치는 경랍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 귀한 물질은 그 짐승의 다른 어느 부위에서도 이렇게 섞인 것 없이는

나오지 않는다. 살아 있을 때는 완전히 액체로 남아 있지만, 죽은 뒤 공기에 닿으면 곧 굳기 시작한다. 물에 처음으로 얇고 여린 얼음이 막 얼기 시작할 때처럼 아름다운 결정의 싹을 내뻗는다. 큰 고래의 머릿기름통에서는 대개 경랍이 500갤런쯤 나온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건질 수 있는 것을 건지는 그 아슬아슬한 일에서 꽤 많은 양이 엎질러지고 새고 줄줄 흘러 버리거나, 그 밖의 까닭으로 되찾을 수 없이 사라진다.

하이델베르크 술통의 안쪽에 얼마나 곱고 값비싼 재료를 입혔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안감이 향유고래 머릿기름통의 안쪽 면을 이루는 고운 털외투의 안감 같은, 비단결 같은 진줏빛 막과 화려함에서 견줄 수는 도저히 없었을 것이다.

보았겠지만, 향유고래의 하이델베르크 술통은 머리 꼭대기 전체의 길이를 통째로 품고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밝혔듯이 머리는 그 짐승의 몸 전체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므로, 꽤 큰 고래의 길이를 80피트로 잡으면, 술통을 세로로 뱃전에 바짝 대고 위아래로 끌어올렸을 때 그 깊이는 26피트가 넘는다.

고래의 머리를 벨 때 작업하는 사람의 연장이, 나중에 경랍 창고로 억지로 들어가는 입구를 낼 자리 가까이 닿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부주의하게 때아니게 내리친 한 번이 성소를 침범해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내용물을 헛되이 흘려 버리지 않도록 보통 이상으로 조심해야 한다. 마침내 물 밖으로 들어 올려져 거대한 해체용 도르래 장치에 그 자세로 붙들리는 것도 머리의 바로 이 잘린 쪽 끝이다. 그 도르래 장치의 삼밧줄들이 한쪽에서 얽혀서 그 언저리를 그야말로 밧줄의 황무지로 만든다.

이만큼 말했으니, 이제 부탁하건대, 향유고래의 커다란 하이델베르크 술통에 꼭지를 따는 그 놀라운,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하마터면 목숨을

앗아 갈 뻔한 작업에 귀를 기울여 다오.

---

1. 쐐기꼴(quoin)은 유클리드의 용어가 아니다. 순수한 항해 수학에 속하는 말이다. 이것이 전에 정의된 적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쐐기꼴은 쐐기와 달리, 날카로운 끝이 양쪽 면이 서로 가늘어져서가 아니라 한쪽 면이 가파르게 기울어져서 생기는 입체다.

제78장 저수조와 두레박

태시테고는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높은 데로 올라간다. 그리고 꼿꼿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온 큰돛대 활대 끝 위를 곧장 달려 나가, 끌어 올린 술통 바로 위로 튀어나온 자리까지 간다. 그는 휩이라고 부르는 가벼운 도르래 장치를 들고 갔는데, 그것은 바퀴 하나짜리 도르래를 지나는 두 가닥 줄로만 되어 있다. 이 도르래를 활대 끝에 매달리게 단단히 고정하고 나서, 그는 밧줄 한쪽 끝을 휘둘러 갑판의 누군가가 손으로 잡아 단단히 붙들게 한다. 그러고는 다른 쪽 가닥을 손을 번갈아 짚으며, 인디언은 공중을 내려와 마침내 솜씨 있게 머리 꼭대기에 내려선다. 거기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서서 그들에게 활기차게 소리치는 그는, 탑 꼭대기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기도하라고 부르는 터키의 무에진처럼 보인다. 손잡이가 짧은 날카로운 삽을 올려 보내 주면, 그는 술통을 깨고 들어가기 시작할 알맞은 자리를 부지런히 찾는다. 이 일에서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어느 옛집에서 금을 어디 벽에 쌓아 넣었는지 찾으려고 벽을 두드려 보는 보물 사냥꾼처럼 움직인다. 이 조심스러운 수색이 끝날 즈음에는 꼭 우물 두레박처럼 생긴, 쇠테를 두른 튼튼한 두레박 하나가 휩의 한쪽 끝에 매여 있고, 다른 쪽 끝은 갑판을 가로질러 뻗쳐서 거기 있는 날랜 일꾼 두셋이 붙들고 있다. 이 일꾼들이 이제 두레박을 인디언의 손이 닿는 데까지 끌어 올리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아주 긴 장대를 올려 준다. 태시테고는 이 장대를 두레박에 꽂아 두레박을 아래로 술통 속에 이끌어 넣는다.

두레박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다. 그러고 나서 휩을 잡은 선원들에게 신호를 하면, 두레박이 다시 올라온다. 젖 짜는 처녀의 갓 짠 우유 통처럼 온통 거품이 보글거린다. 그 높은 데서 조심스럽게 내려온, 가득 실은 그릇을 정해진 일꾼이 받아서 커다란 통에 재빨리 비운다. 그러고는 다시 높은 데로 올라가, 그 깊은 저수조가 더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을 때까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 끝 무렵에는 태시테고가 긴 장대를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깊이 술통에 찔러 넣어야 해서, 마침내 장대가 20피트쯤 내려간다.

그런데 피쿼드호 사람들이 한동안 이렇게 퍼내어 향기로운 경랍을 여러 통 채웠을 때, 갑자기 괴상한 사고가 일어났다. 그 거친 인디언 태시테고가 너무 부주의하고 무모해서 머리를 매단 굵은 밧줄의 큰 도르래 장치를 한 손으로 붙들고 있다가 잠시 놓아 버렸는지, 아니면 그가 서 있던 자리가 너무 미덥지 못하고 질척했는지, 아니면 악마 자신이 딱히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일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지,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는 이제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갑자기, 여든 번째인가 아흔 번째 두레박이 쩍쩍 빨아들이는 소리를 내며 올라올 때, 맙소사! 가엾은 태시테고가 진짜 우물에서 번갈아 오르내리는 쌍둥이 두레박처럼, 이 하이델베르크의 큰 술통 속으로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지더니, 끔찍하게 기름진 꾸르륵 소리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사람이 빠졌다!"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다구가 외쳤다. "두레박을 이리로 휘둘러!" 그리고 그가 미끄러운 휩 줄을 더 단단히 붙잡으려고 한 발을 두레박에 넣자, 끌어 올리는 사람들이 그를 머리 꼭대기까지 높이 내달려 올렸다. 태시테고가 머리 안쪽 바닥에 채 닿기도 전이었다. 그동안 끔찍한 소동이 벌어졌다. 뱃전 너머를 내다보니, 아까는 생명이 없던 머리가 바로 그 순간 무슨 중대한

생각에라도 사로잡힌 듯 바다 수면 바로 밑에서 고동치고 들썩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가엾은 인디언이 그렇게 버둥거리며 자기가 가라앉은 위험한 깊이를 저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바로 이 순간, 머리 꼭대기의 다구가 어쩌다 큰 해체용 도르래 장치에 엉켜 버린 휩 줄을 풀고 있을 때, 날카롭게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모두가 말할 수 없이 경악하는 가운데, 머리를 매단 커다란 갈고리 두 개 가운데 하나가 찢겨 나갔고, 그 엄청난 덩어리가 크게 떨리며 옆으로 휙 흔들렸다. 그러자 술 취한 듯한 배가 빙산에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렸다. 이제 모든 무게가 걸린 남은 갈고리 하나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다. 머리가 사납게 움직이고 있었으니 더욱 그럴 듯했다.

"내려와, 내려와!" 선원들이 다구에게 고함쳤다. 그러나 흑인은 머리가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한 손으로 무거운 도르래 장치를 붙든 채, 엉킨 줄을 풀고 나서 이제 무너져 내린 우물 속으로 두레박을 쑤셔 넣었다. 묻혀 버린 작살잡이가 그것을 움켜잡고 그렇게 해서 끌려 올라오게 할 셈이었다.

"제발 좀, 이 친구야." 스터브가 외쳤다. "너 거기서 탄약이라도 쟁여 넣냐? 그만! 그 쇠테 두른 두레박을 그 녀석 머리 위로 쑤셔 박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만두라니까!"

"도르래 장치에서 물러서라!" 로켓이 터지는 듯한 목소리가 외쳤다.

거의 같은 순간,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그 엄청난 덩어리가 나이아가라의 테이블 바위가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지듯 바다로 떨어졌다. 갑자기 짐을 벗은 선체는 그것에게서 멀리 굴러, 번쩍이는 구리판이 깊숙이 드러나도록 기울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짙은 물보라 너머로, 반쯤 흔들리며, 어떤 때는 선원들의 머리 위에서, 어떤 때는 물 위에서 늘어진 도르래 장치에 매달린 다구가 흐릿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산 채로 묻힌 가엾은 태시테고는 바다 밑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러나 눈을 가리던 물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손에 승선 검을 든 벌거벗은 사람의 모습이 아주 잠깐 뱃전 위에 떠 있는 것이 보였다. 다음 순간, 크게 첨벙하는 소리가 나의 용감한 퀴퀘그가 구하러 뛰어들었다는 것을 알렸다. 모두가 한 덩어리로 뱃전으로 몰려갔다. 그리고 한순간이 또 한순간으로 이어지는데도 가라앉은 사람도 뛰어든 사람도 아무 흔적이 보이지 않는 동안, 모든 눈이 잔물결 하나하나를 헤아렸다. 몇몇 일꾼은 이제 뱃전의 보트로 뛰어들어 배에서 조금 저어 나갔다.

"하! 하!" 이제는 조용히 흔들리는 머리 위의 횃대에서 다구가 갑자기 외쳤다. 그리고 뱃전에서 더 먼 곳을 내다보니, 푸른 물결에서 팔 하나가 꼿꼿이 솟아 나와 있었다. 무덤 위 풀숲에서 팔 하나가 솟아 나온 것처럼 이상한 광경이었다.

"둘이다! 둘이야! 둘 다다!" 다구가 다시 기쁨에 차 외쳤다. 그리고 곧이어 퀴퀘그가 한 손으로 힘차게 헤엄쳐 나오고, 다른 손으로는 인디언의 긴 머리채를 움켜쥔 모습이 보였다. 기다리던 보트로 끌어올려진 그들은 곧 갑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태시테고는 오래도록 정신이 들지 않았고, 퀴퀘그도 그리 기운 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고귀한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아니, 퀴퀘그는 천천히 가라앉는 머리를 따라 잠수해서, 그 바닥 가까이를 날카로운 칼로 옆으로 찔러 대어 거기에 커다란 구멍을 뚫었다. 그러고는 칼을 놓고 긴 팔을 안쪽 위로 깊숙이 밀어 넣어 가엾은 태시를 머리부터 끌어냈다. 그의 말로는 처음 그를 찾아 손을 밀어 넣었을 때 다리 하나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며 큰 탈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그는 그 다리를 도로 밀어 넣고 솜씨 있게 들어 올렸다 뒤집어 인디언을 한 바퀴 재주넘게 했다. 그래서 다음번에 손을 넣었을

때는 그가 예부터 내려오는 좋은 방법대로, 곧 머리부터 나왔다. 그 큰 머리 자체로 말하자면, 바랄 수 있는 만큼 순조롭게 일을 치렀다.

이렇게, 퀴퀘그의 용기와 뛰어난 산파 솜씨 덕분에, 태시테고를 건져 내는 일, 아니 받아 내는 일이 무사히 이루어졌다. 그것도 더없이 고약하고 가망 없어 보이는 장애를 무릅쓰고 말이다.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 산파술은 펜싱과 권투, 승마와 조정과 같은 과정에서 가르쳐야 한다.

게이헤드 사내의 이 괴상한 모험이 뭍사람들 가운데 몇몇에게는 틀림없이 믿기지 않아 보일 것임을 나는 안다. 그들 자신이 뭍에서 누군가 저수조에 빠지는 것을 보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는데도 말이다. 그런 사고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며, 향유고래 우물의 테두리가 몹시 미끄럽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인디언의 경우보다 훨씬 더 적은 까닭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약삭빠르게 따지고 들지도 모른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우리는 조직이 얽히고 기름이 스며든 향유고래의 머리가 놈의 몸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코르크 같은 부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이 저보다 비중이 훨씬 큰 원소 속으로 가라앉게 만든다. 이제 우리가 너를 꼼짝 못 하게 잡았다. 천만에, 내가 너희를 잡았다. 가엾은 태시가 빠졌을 때, 머릿기름통은 가벼운 내용물을 거의 다 퍼낸 뒤여서 우물의 빽빽한 힘줄 벽 말고는 남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두 겹으로 붙이고 두들긴 물질이어서 바닷물보다 훨씬 무겁고, 그 한 덩어리는 거의 납처럼 물에 가라앉는다. 그러나 이 물질이 빠르게 가라앉으려는 경향은 이번 경우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남은 머리의 다른 부분들 때문에 크게 상쇄되었다. 그래서 머리는 참으로 무척 천천히 느긋하게 가라앉았고, 퀴퀘그에게 말하자면

달리면서 날렵한 산파 솜씨를 부릴 좋은 기회를 주었다. 그렇다, 그것은 달리면서 받아 낸 해산이었다. 정말 그랬다.

그런데 태시테고가 그 머리 안에서 죽었더라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죽음이 되었을 것이다. 더없이 하얗고 고운 향기로운 경랍에 숨이 막히고, 고래의 은밀한 안방이자 지성소에서 관에 들고, 영구차에 실리고, 무덤에 묻혔을 테니까. 이보다 더 달콤한 최후로 얼른 떠오르는 것은 하나뿐이다. 오하이오의 어느 꿀 사냥꾼의 감미로운 죽음이다. 그는 속이 빈 나무의 갈라진 틈에서 꿀을 찾다가 엄청나게 많은 꿀을 찾아냈는데, 너무 멀리 몸을 기울이는 바람에 꿀이 그를 빨아들여서, 그는 방부 처리된 채로 죽었다. 그대는 생각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처럼 플라톤의 꿀 머리 속으로 떨어져 거기서 달콤하게 죽었는지?

제79장 대초원

이 리워야단의 얼굴 주름을 살피거나 머리의 혹을 더듬어 보는 일은 아직 어떤 관상학자도 골상학자도 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일은 라바터가 지브롤터 바위의 주름을 꼼꼼히 들여다보거나, 갈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판테온의 둥근 지붕을 손으로 더듬는 일만큼이나 가망 없어 보일 것이다. 그래도 라바터는 그 이름난 저서에서 사람의 갖가지 얼굴만 다루지 않고 말과 새와 뱀과 물고기의 얼굴까지 주의 깊게 살폈으며, 거기서 알아볼 수 있는 표정의 변화를 자세히 논했다. 갈과 그의 제자 슈푸르츠하임도 사람 아닌 다른 생물의 골상학적 특징에 관해 몇 가지 암시를 던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두 반쪽 학문을 고래에게 적용하는 개척자가 되기에는 내가 몹시 모자라지만, 힘닿는 데까지 해 보겠다. 나는 무엇이든 시도해 본다. 해낼 수 있는 만큼 해낸다.

관상학으로 보면 향유고래는 변칙적인 동물이다. 놈에게는 제대로 된 코가 없다. 그런데 코는 이목구비의 한가운데에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며, 아마도 이목구비가 어우러져 만드는 표정을 가장 크게 바꾸고 끝내 다스리는 것이므로, 겉으로 달린 부속물로서 코가 아예 없다는 것은 고래의 생김새에 매우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조경에서 뾰족탑이나 둥근 지붕, 기념비나 어떤 종류의 탑이 풍경을 완성하는 데 거의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지듯, 어떤 얼굴도 높이 솟아 구멍이 숭숭 뚫린 종탑 같은 코가 없으면 관상학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페이디아스가 대리석으로 깎은 유피테르에게서 코를 쳐서

떨어뜨려 보라. 남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겠는가! 그러나 리워야단은 덩치가 워낙 엄청나고 온몸의 비례가 워낙 당당해서, 조각한 유피테르에게는 끔찍했을 바로 그 결함이 놈에게는 조금도 흠이 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장엄함을 더한다. 고래에게 코가 있었다면 건방졌을 것이다. 관상학 항해를 떠나 작은 보트를 타고 놈의 거대한 머리 둘레를 돌 때, 놈에게 잡아당길 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놈에 대한 고귀한 관념을 모욕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것은 고약한 생각이어서, 옥좌에 앉은 더없이 위세 당당한 왕실 의전관을 바라볼 때조차 툭하면 끼어들려고 고집을 부린다.

어떤 점에서는 향유고래를 관상학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모습이 그 머리의 정면 전체일 것이다. 이 모습은 숭고하다.

생각에 잠긴 사람의 훌륭한 이마는 아침이 밝아 오느라 술렁이는 동녘 하늘 같다. 풀밭에서 쉬는 황소의 곱슬곱슬한 이마에는 웅장한 기운이 서려 있다. 무거운 대포를 밀고 산속 좁은 길을 오르는 코끼리의 이마는 위엄이 있다. 사람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신비로운 이마는, 독일 황제들이 칙령에 찍던 커다란 금 인장과 같다. 그 인장은 「신. 오늘 내 손으로 이루다. 」 를 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물에게, 아니 사람에게조차, 이마는 그저 눈 덮인 선을 따라 길게 뻗은 알프스의 좁은 땅 한 자락에 지나지 않을 때가 아주 많다. 셰익스피어나 멜란히톤의 이마처럼 높이 솟고 낮게 내려와서, 눈 자체가 맑고 영원하며 밀물도 썰물도 없는 산속 호수처럼 보이고, 그 위 이마의 주름 속에서는 고지대 사냥꾼들이 눈 위에 찍힌 사슴 발자국을 쫓듯 뿔 달린 생각들이 거기로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자취를 더듬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마는 드물다. 그러나 커다란 향유고래의 경우, 이마에 깃든 이 높고 힘찬 신 같은 위엄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어서, 정면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아 있는 자연의 다른 어떤 것을 볼 때보다 더 강렬하게 신과 두려운 권능들을

느낀다. 어느 한 점도 또렷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뚜렷한 이목구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코도, 눈도, 귀도, 입도 없다. 얼굴이 없다. 놈에게는 제대로 된 얼굴이 없다. 수수께끼로 주름 잡힌 넓은 창공 같은 이마 하나뿐이다. 그 이마는 보트와 배와 사람의 파멸을 품고 말없이 험악하게 찌푸리고 있다. 옆에서 보아도 이 놀라운 이마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그 장엄함이 그토록 위압적으로 덮쳐 오지는 않지만 말이다. 옆모습에서는 이마 한가운데에 가로로 난 반달꼴 우묵한 자리가 뚜렷이 보인다. 사람의 경우 라바터는 그것을 천재의 표시로 쳤다.

그러나 어떻게? 향유고래에게 천재성이라니? 향유고래가 책을 쓴 적이 있던가, 연설을 한 적이 있던가? 아니, 놈의 위대한 천재성은 그것을 증명하려고 이렇다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데서 드러난다. 그것은 또한 놈의 피라미드 같은 침묵에서 드러난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데, 만약 젊은 동방 세계가 커다란 향유고래를 알았더라면 그들의 어린아이 같은 마술사의 생각이 놈을 신으로 받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나일강의 악어를 신으로 받들었는데, 악어에게는 혀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향유고래에게도 혀가 없다. 적어도 그 혀는 너무나 작아서 밖으로 내밀 수가 없다. 만약 앞으로 어떤 고도로 교양 있고 시적인 민족이 옛날의 흥겨운 오월제 신들을 그들이 타고난 자리로 다시 꾀어 들여, 이제는 자기만 아는 하늘에, 이제는 아무 혼령도 깃들지 않은 언덕에 그 신들을 생생하게 다시 앉힌다면, 그때는 틀림없이 커다란 향유고래가 유피테르의 높은 자리에 올라 군림하리라.

샹폴리옹은 주름진 화강암의 상형문자를 풀어 읽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의 얼굴에 새겨진 이집트를 풀어 읽을 샹폴리옹은 없다. 관상학은 인간의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한때 떠도는 우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른 개 언어로 책을 읽던 윌리엄 존스

경조차 가장 순박한 농부의 얼굴에 담긴 더 깊고 더 미묘한 뜻을 읽어 내지 못했는데, 글을 모르는 이슈메일이 어떻게 향유고래 이마의 무시무시한 갈대아 문자를 읽어 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이마를 그대 앞에 내놓을 뿐이다. 읽을 수 있거든 읽어 보라.

제80장 머릿골

향유고래가 관상학으로 보아 스핑크스라면, 골상학자에게 놈의 뇌는 도저히 같은 넓이의 네모로 만들 수 없는 그 기하학의 원처럼 보인다.

다 자란 놈의 머리뼈는 길이가 적어도 20피트는 된다. 아래턱을 떼어내면 이 머리뼈의 옆모습은 평평한 바닥 위에 통째로 얹힌, 알맞게 기운 비탈면의 옆면 같다. 그러나 살아 있을 때는, 다른 데서 이미 보았듯이, 이 비탈면이 그 위에 얹힌 정크와 경랍의 엄청난 덩어리로 모나게 채워져 거의 네모꼴이 된다. 높은 쪽 끝에서 머리뼈는 분화구 꼴을 이루어 그 덩어리의 한 부분을 받쳐 누인다. 그리고 이 분화구의 긴 바닥 밑, 길이가 10인치를 넘는 일이 드물고 깊이도 그만한 또 하나의 구멍 속에, 이 괴물의 한 줌밖에 안 되는 뇌가 들어앉아 있다. 살아 있을 때 뇌는 겉보기 이마에서 적어도 20피트 떨어져 있다. 그것은 거대한 바깥 보루들 뒤에 숨어 있어서, 퀘벡의 넓혀 쌓은 요새 안 가장 깊숙한 성채 같다. 뇌가 놈 안에 귀한 보석함처럼 워낙 꼭꼭 숨겨져 있어서, 나는 향유고래에게는 몇 세제곱야드나 되는 경랍 창고가 이룬, 손에 잡히는 뇌의 겉모양 말고는 다른 뇌가 없다고 딱 잘라 부인하는 포경선원을 몇 알고 있다. 그것이 기이하게 접히고 굽이지고 뒤틀려 있으니, 그들 생각에는 놈의 그 신비로운 부분을 지능이 깃든 자리로 보는 편이 놈의 엄청난 힘에 대한 생각과 더 잘 어울려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하다. 골상학으로 보면, 살아서 온전한 상태의 이 리워야단의 머리는 완전한 속임수다. 놈의 진짜 뇌로 말하자면, 그때는

그 낌새를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느낄 수도 없다. 고래는 힘센 모든 것이 그렇듯,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짜 이마를 쓰고 있다.

머리뼈에서 경랍 더미를 모두 내리고 그 뒤쪽 끝, 곧 높은 쪽 끝을 뒤에서 보면, 같은 자세로 같은 자리에서 본 사람의 머리뼈와 닮은 데 놀랄 것이다. 정말이지 이 뒤집힌 머리뼈를 (사람 크기로 줄여서) 사람 머리뼈 한 접시 사이에 놓아 보라. 저도 모르게 그것들과 헷갈릴 것이다. 그리고 그 꼭대기 한 군데의 우묵한 곳들을 눈여겨보고는 골상학의 말투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자존심이 없었고, 경외심도 없었다. 그리고 이런 없음들을, 놈의 엄청난 덩치와 힘이라는 있음의 사실과 함께 따져 보면, 가장 드높은 권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신나는 생각은 아닐지언정 가장 참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래의 본디 뇌가 크기로 견주어 볼 때 너무 작아서 제대로 지도를 그릴 수 없다고 여긴다면, 그대에게 들려줄 생각이 하나 더 있다. 거의 어떤 네발짐승의 등뼈든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척추뼈들이 줄에 꿴 작은 머리뼈 목걸이 같고, 그 하나하나가 본디 머리뼈와 어렴풋이 닮았다는 데 놀랄 것이다. 척추뼈는 덜 자란 머리뼈와 다름없다는 것이 독일 사람들의 기발한 생각이다. 그러나 겉모양이 이렇게 묘하게 닮은 것을 맨 처음 알아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은 아니었으리라고 나는 본다. 언젠가 외국인 친구 하나가 내게 그것을 가리켜 보인 적이 있다. 그가 죽인 적의 뼈대에서였는데, 그는 그 척추뼈들을 일종의 얕은 돋을새김으로 제 카누의 부리 같은 이물에 박아 넣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골상학자들이 소뇌에서 척추관으로 연구를 밀고 나가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것을 빠뜨린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의 성품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의 등뼈에 드러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대가 누구든, 나는 그대의 머리뼈보다 등뼈를 더듬어 보겠다. 가느다란 들보 같은 등뼈가 넉넉하고 고귀한 영혼을 떠받친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다. 나는 내

등뼈를 기뻐한다. 내가 세상을 향해 반쯤 펼쳐 드는 깃발의 굳세고 대담한 깃대를 기뻐하듯이.

골상학의 이 등뼈 갈래를 향유고래에게 적용해 보라. 놈의 머리뼈 구멍은 첫째 목뼈로 이어지고, 그 척추뼈에서 척추관의 밑바닥은 너비가 10인치, 높이가 8인치이며, 밑변이 아래로 간 삼각형이다. 척추관은 나머지 척추뼈들을 지나가면서 차츰 가늘어지지만, 꽤 먼 데까지 큰 굵기를 유지한다. 그런데 물론 이 관은 뇌와 거의 같은 기이한 섬유질 물질, 곧 척수로 차 있고, 뇌와 바로 통한다. 게다가 척수는 뇌가 든 구멍에서 나온 뒤에도 몇 피트나 굵기가 줄지 않고 거의 뇌만큼 굵다. 이 모든 사정을 생각할 때, 고래의 등뼈를 골상학으로 살피고 지도를 그리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겠는가? 이렇게 보면, 놈의 본디 뇌가 견주어 놀랄 만큼 작다는 것은 놈의 척수가 견주어 놀랄 만큼 크다는 것으로 넉넉히 메워지고도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암시가 골상학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든 그대로 두고, 나는 향유고래의 혹과 관련해 잠시 이 등뼈 이론을 가정해 보기만 하겠다. 이 위엄 있는 혹은, 내가 잘못 알지 않았다면, 큰 척추뼈 가운데 하나 위에 솟아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척추뼈를 겉에서 볼록하게 본뜬 틀이다. 그렇다면 그 놓인 자리로 보아, 나는 이 높은 혹을 향유고래가 지닌 굳셈, 곧 굴하지 않음의 기관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이 거대한 괴물이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는 앞으로 알게 될 까닭이 있으리라.

제81장 피쿼드호, 처녀호를 만나다

운명으로 정해진 날이 왔고, 우리는 때맞춰 브레멘의 배, 데릭 데 디어 선장의 융프라우호를 만났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큰 포경 민족이었던 네덜란드 사람과 독일 사람은 이제 가장 보잘것없는 축에 든다. 그러나 태평양에서는 위도와 경도로 아주 멀리 떨어진 여기저기서 아직도 이따금 그들의 깃발을 만난다.

무슨 까닭인지 융프라우호는 몹시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피쿼드호에서 아직 꽤 떨어져 있을 때 배를 바람 쪽으로 돌려 세우고 보트 한 척을 내렸는데, 그 선장은 고물이 아니라 이물에 조바심을 치며 선 채로 우리 쪽으로 저어 왔다.

"저 사람 손에 든 게 뭐지?" 스타벅이 그 독일 사람이 흔들어 대는 무언가를 가리키며 외쳤다. "설마! 등잔 기름 주전자 아닌가!"

"그게 아니오." 스터브가 말했다. "아니, 아니, 저건 커피 주전자요, 스타벅 씨. 저 독일 놈이 우리한테 커피를 끓여 주러 오는 거요. 저 옆에 있는 큰 양철 깡통 안 보이오? 저게 끓는 물이오. 오! 괜찮은 놈이오, 저 독일 놈은."

"웃기지 마." 플래스크가 외쳤다. "저건 등잔 기름 주전자하고 기름통이야. 기름이 떨어져서 구걸하러 온 거라고."

기름 싣는 배가 고래 어장에서 기름을 꾸러 다닌다는 것이 아무리 기이해 보이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뉴캐슬에 석탄을 싣고 간다는 옛 속담을 아무리 거꾸로 뒤집는 일이라 해도,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데릭 데 디어 선장은 플래스크가 단언한 대로 틀림없이 등잔 기름 주전자를 들고 왔다.

그가 갑판에 오르자 에이해브는 그가 손에 든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뜸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 독일 사람은 서툰 말로, 흰 고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금세 드러냈다. 그는 곧장 이야기를 등잔 기름 주전자와 기름통 쪽으로 돌려, 브레멘에서 가져온 기름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떨어졌는데 그것을 메울 날치 한 마리 아직 못 잡아서 밤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해먹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몇 마디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끝으로 자기 배가 포경업에서 전문 용어로 *깨끗한* 배(곧 빈 배)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배이니 융프라우, 곧 처녀라는 이름이 딱 어울린다고 넌지시 비쳤다.

필요한 것을 얻자 데릭은 떠났다. 그러나 그가 자기 배 옆에 닿기도 전에 두 배의 돛대 꼭대기에서 거의 동시에 고래가 발견되었다. 데릭은 추격에 어찌나 몸이 달았던지 기름통과 등잔 기름 주전자를 배에 올려놓으려고 멈추지도 않고 보트를 휙 돌려 리워야단 등잔 기름 주전자들을 뒤쫓았다.

그런데 사냥감이 바람 불어 가는 쪽에서 떠올랐으므로, 그와 곧 그를 뒤따른 나머지 독일 보트 세 척은 피쿼드호의 보트들보다 꽤 앞서 출발했다. 고래는 여덟 마리로, 보통 크기의 떼였다. 놈들은 위험을 알아채고 모두 나란히 바람을 등지고 곧장 빠르게 달리고 있었는데, 마구를 채운 여러 쌍의 말처럼 옆구리를 바짝 비벼 댔다. 놈들은 크고 넓은 항적을 남겼는데, 마치 바다 위에 크고 넓은 양피지를 쉼 없이 펼쳐 나가는 것 같았다.

이 빠른 항적 한가운데로, 몇 패덤 뒤처져서, 혹이 난 거대한 늙은 수컷 한 마리가 헤엄쳐 갔다. 비교적 느리게 나아가는 것으로 보나 몸을 뒤덮고 자란 유난히 누르스름한 껍데기로 보나, 놈은 황달이나 다른

어떤 병을 앓는 것 같았다. 이 고래가 앞서가는 떼에 속하는지는 의심스러웠다. 그런 늙은 리워야단이 남과 어울리는 일은 좀처럼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놈은 그 떼의 항적을 바짝 따라갔다. 하기야 앞선 놈들이 일으킨 되밀리는 물살이 틀림없이 놈을 늦췄을 것이다. 놈의 넓은 주둥이에 이는 흰 뼈, 곧 너울이 서로 맞서는 두 물살이 만날 때 생기는 너울처럼 부서져 있었기 때문이다. 놈의 물줄기는 짧고 느리고 힘겨웠다. 숨이 막히는 듯 왈칵 솟았다가 갈가리 찢겨 흩어졌고, 그 뒤에 놈의 몸속에서 기묘한 땅밑 소동 같은 것이 일었는데, 그것이 물에 잠긴 놈의 반대쪽 끝으로 빠져나가는 듯 놈의 뒤쪽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누구 진통제 가진 사람 없나?" 스터브가 말했다. "놈이 배앓이를 하는 것 같다. 맙소사, 반 에이커나 되는 배앓이를 생각해 봐라! 거센 맞바람이 놈의 배 속에서 미친 성탄 잔치를 벌이고 있구나, 얘들아. 고물 쪽에서 불어오는 고약한 바람은 내 평생 처음 본다. 그런데 봐라, 고래가 저렇게 이리저리 갈지자로 헤매는 걸 본 적 있냐? 틀림없이 키 손잡이를 잃어버린 거야."

겁먹은 말들을 갑판 가득 싣고 힌두스탄 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짐을 너무 실은 인도 무역선이 기울고, 처박히고, 구르고, 뒹굴며 나아가듯, 이 늙은 고래도 늙은 몸뚱이를 힘겹게 들썩였다. 그리고 이따금 육중한 갈비뼈 끝을 반쯤 뒤집으며, 놈이 비뚤비뚤한 항적을 남기는 까닭을 드러냈다. 우현 지느러미가 기형의 그루터기였던 것이다. 놈이 그 지느러미를 싸움에서 잃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없었는지는 말하기 어려웠다.

"조금만 기다려라, 늙은이. 그 다친 팔에 내가 팔걸이 붕대를 감아 주마." 잔인한 플래스크가 곁에 있는 작살줄을 가리키며 외쳤다.

"놈이 그걸로 자네를 감아 내동댕이치지 않게 조심하게." 스타벅이 외쳤다. "저어라, 안 그러면 독일 사람이 놈을 차지한다."

서로 겨루는 보트들은 하나같이 이 한 마리를 노렸다. 놈이 가장 커서 가장 값나가는 고래였을 뿐 아니라 놈들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었고, 게다가 다른 고래들은 어찌나 빠르게 달리는지 당분간 추격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무렵 피쿼드호의 보트들은 마지막에 내린 독일 보트 세 척을 쏜살같이 앞질렀다. 그러나 데릭의 보트는 워낙 일찍 출발한 덕에 여전히 추격의 선두에 있었다. 그래도 외국 경쟁자들이 시시각각 다가왔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단 하나, 데릭이 이미 과녁에 바짝 다가가 있으니 그들이 그를 완전히 따라잡아 앞지르기 전에 그가 작살을 던질 수 있으리라는 점이었다. 데릭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되리라고 꽤 자신하는 눈치였고, 이따금 비웃는 몸짓으로 다른 보트들을 향해 등잔 기름 주전자를 흔들어 댔다.

"은혜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개 같으니!" 스타벅이 외쳤다. "5분도 안 된 아까 내가 채워 준 바로 그 구호 헌금함을 흔들며 나를 놀리고 약을 올리는구나!" 그러고는 예의 그 사무치는 속삭임으로 말했다. "저어라, 사냥개들아! 물고 늘어져라!"

"내 말 좀 들어 봐라, 얘들아." 스터브가 자기 보트 선원들에게 외쳤다. "성내는 건 내 신앙에 어긋나지만, 저 고약한 독일 놈은 잡아먹고 싶구나. 저어라, 안 저을 테냐? 저 악당한테 질 테냐? 브랜디 좋아하냐? 그럼 제일 잘 젓는 놈한테 브랜디 한 통이다. 자, 왜 핏줄 하나 터뜨리는 놈이 없냐? 누가 닻을 바다에 떨어뜨렸냐. 한 치도 안 움직이잖아. 바람이 멎어 버렸다. 이봐, 보트 바닥에 풀이 자라네. 맙소사, 저기 돛대에 싹이 튼다. 이래선 안 된다, 얘들아. 저 독일 놈 좀 봐라! 길게 말할 것 없다, 얘들아, 불을 뿜을 테냐 말 테냐?"

"오! 놈이 일으키는 거품 좀 봐!" 플래스크가 펄쩍펄쩍 뛰며 외쳤다. "저 혹 좀 봐. 오, 힘 좀 *내*라. 통나무처럼 누워 있다! 오! 얘들아, 제발 *힘차게* 저어라. 저녁엔 팬케이크하고 쿼호그 대합이다, 얘들아. 구운 조개하고 머핀이다. 오, *제발, 제발*, 힘차게 저어라. 백 배럴짜리다. 이제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 오, *놓치지 마!* 저 독일 놈 좀 봐. 오, 푸딩 먹을 생각으로 안 저을 테냐, 얘들아. 저 묵직한 것! 저 묵직한 덩어리! 경랍 안 좋아하냐? 저기 3,000달러가 간다, 얘들아! 은행이다! 은행 하나가 통째로 간다! 잉글랜드 은행이다! 오, *제발, 제발, 제발!* 저 독일 놈이 이번엔 뭘 하는 거지?"

이때 데릭은 다가오는 보트들을 향해 등잔 기름 주전자와 기름통을 내던지고 있었다. 아마도 경쟁자들의 길을 막는 동시에, 뒤로 던지는 순간의 반동으로 제 보트를 알뜰하게 앞으로 밀어 보려는 두 가지 속셈이었을 것이다.

"버릇없는 네덜란드 고깃배 같으니!" 스터브가 외쳤다. "자, 저어라, 얘들아, 빨강 머리 악마를 오만 척의 전함에 가득 실은 것처럼 저어라. 어떠냐, 태시테고? 너야말로 게이헤드의 명예를 위해 네 등뼈를 스물두 토막으로 부러뜨릴 사내냐? 어떠냐?"

"빌어먹게 저으라는 말입니다." 인디언이 외쳤다.

독일 사람의 조롱에 사납게, 그러나 고르게 부추겨진 피쿼드호의 보트 세 척은 이제 거의 나란히 늘어서기 시작했다. 그렇게 늘어서서 시시각각 그에게 다가갔다. 보트장이 사냥감에 다가갈 때 짓는 그 멋지고 느긋하고 기사다운 자세로 세 항해사는 당당하게 서서, 이따금 맨 뒤 노잡이를 신명 나게 외쳐 부추겼다. "자, 미끄러져 간다! 물푸레나무 바람 만세! 독일 놈을 쳐부숴라! 넘어서 지나가라!"

그러나 데릭이 처음에 워낙 확실하게 앞서 출발했으므로, 그들이 아무리 용맹을 떨쳐도 이 경주에서는 그가 이겼을 것이다. 정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내려 그의 가운데 노잡이가 노 끝을 물에 처박고 게를 잡는 일만 없었더라면 말이다. 이 굼뜬 풋내기가 제 물푸레나무 노를 빼내려고 버둥거리는 사이, 그 바람에 데릭의 보트가 뒤집힐 뻔하고 그가 엄청나게 성이 나서 부하들에게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는 사이, 스타벅과 스터브와 플래스크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죽기 살기로 앞으로 내달아 비스듬히 독일 보트의 고물 옆으로 따라붙었다. 한순간 뒤 보트 네 척이 모두 고래 바로 뒤 항적에 비스듬히 늘어섰고, 그들 양옆으로는 고래가 일으킨 거품 이는 너울이 뻗어 나갔다.

끔찍하고, 더없이 가엾고, 미칠 듯한 광경이었다. 고래는 이제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 달리며, 고통에 시달리는 물줄기를 쉼 없이 제 앞으로 내뿜었다. 그러는 동안 하나뿐인 가엾은 지느러미는 겁에 질린 고통 속에 옆구리를 두드렸다. 비틀거리며 달아나는 놈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지자를 그렸고, 그러면서도 물결 하나를 부술 때마다 발작하듯 바닷속으로 가라앉거나, 옆으로 뒹굴며 퍼덕이는 하나뿐인 지느러미를 하늘로 쳐들었다. 날개가 잘린 새가 해적 같은 매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헛되이 애쓰며 허공에 겁먹은 동그라미를 끊어질 듯 그리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새에게는 목소리가 있어서 애처로운 울음으로 제 두려움을 알린다. 그러나 이 거대하고 말 못 하는 바다 짐승의 두려움은 놈 안에 사슬로 묶이고 마법에 걸려 갇혀 있었다. 놈에게는 숨구멍으로 내쉬는 그 숨 막히는 숨소리 말고는 목소리가 없었고, 그래서 놈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엾었다. 그러면서도 놈의 놀라운 덩치와 내리닫이 쇠창살문 같은 턱과 전능한 꼬리에는, 그렇게 가엾게 여기는 가장 대담한 사내마저 질겁하게 할 것이 넉넉히 있었다.

이제 몇 순간만 더 지나면 피쿼드호의 보트들이 우위에 서리라는 것을 보자, 데릭은 이렇게 사냥감을 빼앗기느니 마지막 기회가 영영

빠져나가기 전에 그로서는 몹시 먼 거리로 보였을 작살 던지기에 운을 걸어 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작살잡이가 던지려고 일어서자마자 세 호랑이, 곧 퀴퀘그와 태시테고와 다구가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 비스듬히 한 줄로 서서 일제히 미늘을 겨누었다. 그리고 독일 작살잡이의 머리 위로 던진 그들의 낸터킷 작살 세 자루가 고래에게 박혔다. 눈을 멀게 하는 물보라와 흰 불꽃! 보트 세 척은 고래가 앞뒤 없이 내닫는 그 첫 기세에 휩쓸려 독일 보트를 어찌나 세게 옆으로 들이받았던지, 데릭과 헛물켠 그의 작살잡이가 둘 다 물에 쏟아졌고, 날아가는 세 보트가 그 위를 지나갔다.

"겁내지 마라, 버터 상자 친구들아." 스터브가 쏜살같이 지나가며 그들을 흘끗 보고 외쳤다. "곧 건져 줄 거다. 괜찮아. 고물 쪽에 상어 몇 마리가 보이더라. 알지, 성 베르나르 개들 말이야. 곤경에 빠진 나그네를 구해 준다고. 만세! 배는 이렇게 몰아야지. 보트마다 한 줄기 햇살이다! 만세! 미친 퓨마 꼬리에 매단 양철 주전자 세 개처럼 우리가 간다! 이러니까 생각나는구나, 벌판에서 이륜마차를 탄 채 코끼리한테 작살을 꽂는 것 말이다. 그렇게 코끼리한테 매달리면 바퀴살이 날아간단 말이다, 얘들아. 언덕에 부딪히면 마차에서 내동댕이쳐질 위험도 있고. 만세! 데이비 존스한테 가는 녀석은 이런 기분이겠지. 끝없는 비탈을 곧장 내리닫는 거다! 만세! 이 고래는 영원한 우편물을 나른다!"

그러나 괴물의 질주는 짧았다. 놈은 갑자기 헐떡이더니 요란하게 잠수했다. 작살줄 세 가닥이 삐걱대며 어찌나 세게 작살줄 기둥을 감고 돌았던지 기둥에 깊은 홈이 파였다. 그러면서도 작살잡이들은 이렇게 빨리 잠수하다가는 작살줄이 곧 바닥나리라고 몹시 두려워해서, 능숙한 힘을 다해 연기 나는 밧줄을 거듭 기둥에 감아 버텼다. 그러다 마침내 밧줄 세 가닥이 납을 댄 보트들의 줄받이에서 파란 물속으로 곧장

내리뻗어 수직으로 당겨지는 바람에, 이물의 뱃전이 거의 수면과 같아지고 세 보트의 고물은 하늘 높이 들렸다. 그리고 고래가 곧 잠수를 멈추었으므로, 그들은 그 자세가 좀 아슬아슬하기는 했지만 작살줄을 더 풀어 주기가 두려워 한동안 그 자세로 있었다. 이렇게 하다가 보트가 끌려 들어가 사라진 적도 있지만, 이른바 「버티기」, 곧 살아 있는 고래의 살을 뒤에서 날카로운 미늘로 걸어 붙잡고 있는 이 일이야말로 흔히 리워야단을 괴롭혀서 곧 다시 떠올라 적들의 날카로운 창을 맞으러 오게 한다. 그러나 이 일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방법이 늘 최선인지는 의심스럽다. 작살을 맞은 고래가 물속에 오래 있을수록 더 지친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고래는 몸의 겉넓이가 어마어마해서, 다 자란 향유고래라면 2,000제곱피트에 조금 못 미치는데, 그 때문에 물의 압력이 엄청나다. 우리 자신이 여기 땅 위, 공기 속에서조차 얼마나 놀라운 대기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는지는 우리 모두 안다. 그렇다면 200패덤 깊이의 바닷물 기둥을 등에 진 고래의 짐은 얼마나 엄청나겠는가! 그것은 적어도 50기압의 무게와 맞먹을 것이다. 어느 포경선원은 그것을 대포와 물자와 사람을 모두 실은 전함 스무 척의 무게로 어림했다.

보트 세 척이 잔잔히 넘실대는 바다 위에 떠서 그 영원히 파란 한낮 속을 내려다보는 동안,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신음 한 마디, 외침 한 마디, 아니 잔물결 하나 물거품 하나 올라오지 않는 동안, 어느 뭍사람이 그 모든 고요와 평온 밑에서 바다의 가장 큰 괴물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뒤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겠는가! 이물에서는 수직으로 선 밧줄이 8인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가느다란 실 세 가닥에 거대한 리워야단이 여드레 감기 시계의 큰 추처럼 매달려 있다니 믿어지는가. 매달려 있다? 무엇에? 판자 세 조각에. 이것이 한때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일컬어진 그 짐승이란 말인가? "네가 미늘 달린 쇠로 그 가죽을 채울 수

있겠느냐? 작살로 그 머리를 채울 수 있겠느냐? 그에게 덤비는 자의 칼은 버티지 못하고, 창도, 표창도, 갑옷도 그러하다. 그는 쇠를 지푸라기처럼 여기니, 화살도 그를 달아나게 하지 못하고, 표창도 그루터기로 여겨지며, 그는 창이 흔들리는 것을 비웃는다!" 이것이 그 짐승인가? 이것이 그놈인가? 오! 예언자들 뒤에 이루어지지 않음이 따르다니. 리워야단은 천 개의 넓적다리에 맞먹는 힘을 꼬리에 품고서, 피쿼드호의 작살을 피해 숨으려고 바다의 산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으니 말이다!

비스듬히 기우는 그 오후 햇살 속에서 보트 세 척이 물 밑으로 드리운 그림자는 크세르크세스의 군대 절반을 덮을 만큼 길고 넓었으리라. 그런 거대한 환영들이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가는 것이 상처 입은 고래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했을지 누가 알겠는가!

"준비해라, 얘들아. 놈이 움직인다." 스타벅이 외쳤다. 작살줄 세 가닥이 갑자기 물속에서 떨리며, 마치 자석 전선을 타고 오듯 고래의 삶과 죽음의 고동을 그들에게 똑똑히 전해 올렸으므로, 노잡이마다 제자리에서 그것을 느꼈다. 다음 순간 이물을 아래로 당기던 힘에서 크게 풀려나자 보트들은 갑자기 위로 튀어 올랐다. 빽빽이 모여 있던 흰곰 떼가 겁에 질려 바다로 뛰어들 때 작은 얼음 벌판이 그러듯이.

"당겨라! 당겨라!" 스타벅이 다시 외쳤다. "놈이 떠오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바닥 한 뼘만큼도 당겨 올 수 없던 작살줄이 이제 물을 뚝뚝 흘리며 길고 빠른 사리가 되어 보트 안으로 던져졌고, 곧 고래가 사냥꾼들에게서 배 두 척 길이도 안 되는 곳에서 물 위로 솟았다.

놈의 움직임은 놈이 몹시 지쳤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뭍짐승 대부분은 여러 핏줄에 일종의 판막, 곧 수문이 있어서 상처를 입으면 피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어떤 방향으로 즉시 막힌다. 고래는 그렇지 않다. 고래의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핏줄에 판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살만큼 작은 끝에 찔려도 온 동맥 계통에서 곧바로

치명적인 출혈이 시작되고, 수면 아래 깊은 곳의 엄청난 수압이 그것을 부추기면 놈의 목숨은 그칠 줄 모르는 물줄기가 되어 쏟아져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놈 안의 피는 양이 워낙 엄청나고, 그 안쪽 샘들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수가 많아서, 놈은 꽤 오랫동안 이렇게 피를 흘리고 또 흘린다.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언덕들의 샘에서 발원하는 강이 가뭄에도 흐르듯이. 지금도 보트들이 이 고래에게로 저어 가서 흔들리는 꼬리지느러미 위로 아슬아슬하게 다가가 창을 던져 넣자, 새로 낸 상처에서 끊임없이 피가 뿜어져 나와 줄곧 솟구쳤다. 그런데 머리에 있는 본디 물 뿜는 구멍은 아무리 잦다 해도 이따금씩만 겁에 질린 물기를 허공으로 내보냈다. 이 마지막 구멍에서는 아직 피가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놈의 급소가 하나도 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뱃사람들이 뜻깊게 일컫는 놈의 「목숨」은 아직 건드려지지 않았다.

보트들이 이제 놈을 더 바짝 에워싸자, 보통 물에 잠겨 있는 부분까지 꽤 드러나면서 놈의 몸 윗부분 전체가 뚜렷이 드러났다. 놈의 눈, 아니 눈이 있던 자리가 보였다. 가장 훌륭한 참나무가 쓰러졌을 때 그 옹이구멍에 기이하게 잘못 자란 덩어리들이 모이듯, 고래의 눈이 한때 있던 자리에서 이제 눈먼 혹들이 불거져 나와 있었는데, 보기에 끔찍하게 가엾었다. 그러나 가엾게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늙은 나이와 하나뿐인 팔과 눈먼 두 눈에도 불구하고 놈은 죽어야 했고 살해당해야 했다. 사람들의 즐거운 혼례와 다른 흥겨운 잔치를 밝히려고, 또 모든 이가 모든 이에게 조건 없이 해를 끼치지 말라고 설교하는 엄숙한 교회들을 밝히려고. 여전히 제 피 속에서 뒹굴던 놈은 마침내 옆구리 아래쪽에 있는, 한 부셸 크기의 기이하게 빛이 바랜 혹 같은 덩어리를 반쯤 드러냈다.

"좋은 자리다." 플래스크가 외쳤다. "저기 딱 한 번만 찔러 보자."

"멈추게!" 스타벅이 외쳤다. "그럴 필요 없네!"

그러나 인정 많은 스타벅의 말은 너무 늦었다. 창이 꽂히는 순간 이 잔인한 상처에서 고름 섞인 물줄기가 솟구쳤다. 그것에 찔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진 고래는 이제 진한 피를 뿜으며 사납게 날뛰어 눈먼 채로 보트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보트와 의기양양하던 선원들에게 핏덩이를 소나기처럼 온통 끼얹고, 플래스크의 보트를 뒤집고 이물을 망가뜨렸다. 그것이 놈의 마지막 일격이었다. 이때쯤 놈은 피를 너무 흘려 기진맥진해서, 제가 만든 난파물에서 힘없이 굴러 멀어져 갔다. 옆으로 누워 헐떡이며, 그루터기 같은 지느러미로 힘없이 퍼덕이다가, 저물어 가는 세계처럼 천천히 돌고 또 돌았다. 그러고는 배의 흰 비밀을 드러내고, 통나무처럼 누워, 죽었다.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물줄기는 더없이 애처로웠다. 보이지 않는 손이 어느 거대한 분수에서 물을 차츰 빼내면, 반쯤 숨이 막힌 구슬픈 꾸르륵 소리와 함께 물보라 기둥이 낮아지고 낮아져 땅에 닿는다. 고래의 길고 마지막인 죽어 가는 물줄기가 그러했다.

곧, 선원들이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고래의 몸뚱이는 그 보물을 하나도 털리지 않은 채 가라앉을 기미를 보였다. 즉시 스타벅의 명령으로 여러 자리에 밧줄을 묶었으므로, 오래지 않아 보트마다 부표가 되었고, 가라앉은 고래는 밧줄에 매여 그 몇 인치 밑에 매달렸다. 배가 다가왔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 고래를 배 옆으로 옮겼고, 가장 튼튼한 꼬리 사슬로 거기 단단히 묶었다. 사람이 손을 써서 떠받치지 않으면 몸뚱이가 곧바로 바닥까지 가라앉으리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삽으로 고래를 처음 베어 들어가자마자, 앞서 말한 혹 덩어리 아래쪽 살 속에 녹슨 작살 한 자루가 통째로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잡은 고래의 시체에서는 작살 동강이 흔히 발견되고, 그 둘레 살은 말끔히 아물어 있으며 그 자리를 알려 주는

불룩한 것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번 경우에는 앞서 말한 궤양을 온전히 설명해 줄 어떤 다른 알 수 없는 까닭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기이한 것은 박힌 쇠붙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돌로 된 창끝이 발견되었는데, 그 둘레 살이 말끔히 단단했다는 사실이다. 누가 그 돌창을 던졌을까? 그리고 언제?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훨씬 전에 어느 북서부 인디언이 던졌을지도 모른다.

이 괴물 같은 진열장에서 또 어떤 경이로운 것들을 뒤져 낼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몸뚱이가 가라앉으려는 경향이 엄청나게 커지는 바람에 배가 전례 없이 바다 쪽으로 옆으로 끌려 기울었으므로, 더 찾아내는 일은 갑자기 멈추었다. 그러나 일을 지휘하던 스타벅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버텼다. 어찌나 단호하게 버텼던지, 마침내 배가 계속 그 몸뚱이와 팔짱을 끼고 있다가는 뒤집힐 지경이 되어 그것을 떼어 내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꼬리 사슬과 굵은 밧줄을 묶어 둔 뱃전 말뚝에 걸린 힘이 꿈쩍도 하지 않아 그것들을 풀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피쿼드호의 모든 것이 비스듬히 기울었다. 갑판 반대쪽으로 건너가는 일은 가파른 박공지붕을 걸어 오르는 것 같았다. 배는 신음하고 헐떡였다. 뱃전과 선실에 박아 넣은 고래뼈 장식 가운데 많은 것이 이 괴이한 뒤틀림 때문에 제자리에서 튀어나왔다. 꿈쩍도 않는 꼬리 사슬을 뱃전 말뚝에서 비틀어 떼어 내려고 지렛대와 쇠지레를 들이댔지만 헛일이었다. 고래는 이제 워낙 깊이 내려앉아서 물에 잠긴 사슬 끝에는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었고, 그러는 동안에도 가라앉는 몸뚱이에 매 순간 몇 톤씩 무게가 더해지는 것 같았으며, 배는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았다.

"버텨라, 버텨, 응?" 스터브가 몸뚱이에 대고 외쳤다. "그렇게 악마처럼 서둘러 가라앉지 마라! 제기랄, 얘들아, 뭔가 해야지 안 그러면 끝장이다. 거기서 지렛대질해 봐야 소용없다. 지렛대는 그만두라니까.

너희 중 하나 달려가서 기도서하고 주머니칼을 가져와라. 그 큰 사슬을 끊게."

"칼? 그래, 그래." 퀴퀘그가 외쳤다. 그리고 목수의 무거운 손도끼를 움켜쥐고 현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쇠에 강철을 들이대며 가장 큰 꼬리 사슬을 마구 내리찍기 시작했다. 불꽃 튀는 몇 번의 도끼질이 가해지자 엄청난 장력이 나머지를 해치웠다. 무시무시하게 툭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묶어 둔 것이 모두 풀려 나갔다. 배는 바로 섰고, 시체는 가라앉았다.

그런데 갓 죽인 향유고래가 이따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라앉는 것은 무척 기이한 일이고, 어떤 어부도 아직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보통 죽은 향유고래는 부력이 커서 옆구리나 배를 수면 위로 꽤 높이 드러낸 채 뜬다. 이렇게 가라앉는 고래가 늙고 여위고 상심한 놈들뿐이어서, 지방 깔개는 줄어들고 뼈마디는 모두 무겁게 쑤시는 놈들이라면, 이 가라앉음은 그렇게 가라앉는 놈의 몸에 뜨게 하는 물질이 없어서 생기는 유별난 비중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 이유 있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창 건강하고 고귀한 포부로 부풀어 있다가, 삶의 따뜻한 혈기와 오월 같은 시절에 헐떡이는 지방을 온몸에 두른 채 때 이르게 목숨을 잃은 젊은 고래들, 그 억세고 잘 뜨는 영웅들도 때로는 가라앉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유고래는 다른 어떤 종보다 이런 사고를 훨씬 덜 당한다고 해 두자. 향유고래 한 마리가 가라앉는 곳에서 참고래는 스무 마리가 가라앉는다. 종에 따른 이 차이는 틀림없이 적잖이 참고래의 뼈가 더 많은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참고래의 베네치아 블라인드만 해도 때로 무게가 1톤이 넘는데, 향유고래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짐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그러나 여러 시간이나 며칠이 지난 뒤, 가라앉았던 고래가 살아 있을 때보다 더 잘 떠서 다시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까닭은 뻔하다. 놈의 몸속에서 가스가 생긴다. 놈은 어마어마한 크기로 부풀어 일종의 짐승 풍선이 된다. 그때는 전함 한 척도 놈을 물속에 붙잡아 두기 힘들 것이다. 뉴질랜드의 여러 만에서 측연이 닿는 얕은 바다에서 하는 연안 포경에서는, 참고래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면 밧줄을 넉넉히 단 부표를 놈에게 묶어 둔다. 그러면 몸뚱이가 가라앉은 뒤 다시 떠올랐을 때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안다.

몸뚱이가 가라앉고 오래지 않아 피쿼드호의 돛대 꼭대기에서 융프라우호가 다시 보트를 내린다고 알리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줄기는 지느러미고래의 것 하나뿐이었는데, 이 고래는 헤엄치는 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세서 잡을 수 없는 고래 종에 속한다. 그런데도 지느러미고래의 물줄기는 향유고래의 것과 워낙 비슷해서 서툰 어부들은 흔히 그것을 향유고래로 잘못 안다. 그래서 데릭과 그의 무리는 모두 이제 다가갈 수도 없는 이 짐승을 용감하게 뒤쫓고 있었다. 처녀호는 돛을 모조리 펴고 제 어린 보트 네 척을 뒤따랐고, 그렇게 그들은 모두 여전히 대담하고 희망에 찬 추격을 하며 바람 불어 가는 쪽 멀리 사라졌다.

오! 지느러미고래는 많기도 하고, 데릭도 많기도 하다네, 친구여.

제82장 포경의 명예와 영광

어떤 일에서는 신중한 무질서가 참된 방법이다.

포경이라는 이 문제를 파고들수록, 그리고 내 연구를 그 근원의 샘까지 밀고 올라갈수록 나는 이 일이 얼마나 명예롭고 오래되었는지에 더욱더 감명을 받는다. 그리고 특히 수많은 위대한 반신과 영웅과 온갖 예언자들이 어떻게든 이 일에 빛을 더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면, 나 자신도 비록 말단일망정 그토록 빛나는 문장(紋章)을 단 형제단에 속해 있다는 생각에 황홀해진다.

유피테르의 아들인 용감한 페르세우스가 최초의 포경선원이었다. 그리고 우리 직업의 영원한 명예를 위해 말해 두거니와, 우리 형제단이 처음으로 공격한 고래는 결코 비천한 속셈으로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우리 직업의 기사 시대여서, 우리는 사람들의 등잔 기름 주전자를 채우려고가 아니라 곤경에 빠진 이를 구하려고만 무기를 들었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의 멋진 이야기는 누구나 안다. 어여쁜 안드로메다, 곧 어느 왕의 딸이 바닷가 바위에 묶여 있었는데, 리워야단이 막 그 처녀를 채어 가려는 참에 포경선원의 왕자 페르세우스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 괴물에게 작살을 꽂고 처녀를 구해 내어 아내로 맞았다. 그것은 오늘날의 가장 뛰어난 작살잡이들도 좀처럼 이루지 못하는 훌륭한 솜씨의 위업이었다. 이 리워야단은 맨 처음 던진 작살에 죽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 방주 시대의 이야기를 아무도 의심하지 말라. 시리아 해안의 옛 욥바, 지금의 야파에 있는 어느 이교

신전에는 오랜 세월 동안 거대한 고래 뼈대가 서 있었는데, 그 도시의 전설과 모든 주민이 그것을 바로 페르세우스가 죽인 괴물의 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로마 사람들이 욥바를 점령했을 때 바로 그 뼈대는 개선 행렬에 실려 이탈리아로 옮겨졌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이하고 의미심장하게 중요해 보이는 것은 이것이다. 요나가 배를 타고 떠난 곳이 바로 욥바였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의 모험과 비슷한 것이, 아니 어떤 이들은 그것에서 간접적으로 나왔다고 보는 것이, 성 게오르기우스와 용의 그 유명한 이야기다. 나는 그 용이 고래였다고 주장한다. 많은 옛 연대기에서 고래와 용은 기이하게 뒤섞여 있고, 흔히 서로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너는 물의 사자 같고 바다의 용 같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고래를 뜻한다. 사실 성경의 어떤 번역본은 바로 그 낱말을 쓴다. 게다가 성 게오르기우스가 깊은 바다의 거대한 괴물과 싸우지 않고 그저 뭍에서 기어 다니는 파충류를 만났을 뿐이라면, 그 위업의 영광은 크게 깎일 것이다. 뱀이야 누구든 죽일 수 있지만, 고래에게 대담하게 다가갈 배짱을 지닌 것은 페르세우스나 성 게오르기우스나 코핀 같은 사람뿐이다.

이 장면을 그린 요즘 그림들에 속지 말자. 그 옛날의 용감한 포경선원이 맞닥뜨린 짐승이 어렴풋이 그리핀 같은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싸움은 뭍에서 벌어지며 성인은 말을 타고 있지만, 고래의 참모습을 화가들이 몰랐던 그 시절의 큰 무지를 생각하고, 페르세우스의 경우처럼 성 게오르기우스의 고래도 바다에서 해변으로 기어 올라왔을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 게오르기우스가 탄 짐승이 그저 큰 바다표범이나 바다코끼리였을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면, 이른바 이 용을 다름 아닌 거대한 리워야단 자체로 여기는 것이 거룩한 전설이나 그 장면을 그린 가장 오래된 그림들과

아주 어긋나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엄격하고 날카로운 진실 앞에 세워 놓으면, 이 이야기 전체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물고기이자 짐승이자 새인 우상, 다곤이라는 이름의 우상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다곤은 이스라엘의 궤 앞에 세워지자 말 머리와 두 손바닥이 떨어져 나가고 그루터기, 곧 물고기 부분만 남았다. 그러니 우리와 같은 고귀한 부류인 한 사람, 다름 아닌 포경선원이 잉글랜드의 수호성인인 셈이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 낸터킷 작살잡이들은 더없이 고귀한 성 게오르기우스 기사단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그러므로 그 명예로운 기사단의 기사들은(감히 말하건대 그 가운데 누구도 그들의 위대한 수호성인처럼 고래와 상대해 본 적이 없다) 낸터킷 사람을 결코 깔보는 눈으로 보지 말라. 우리는 털 셔츠와 타르 묻은 바지 차림으로도 그들보다 성 게오르기우스 훈장을 달 자격이 훨씬 더 있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스를 우리 사이에 들일지 말지, 이 문제를 두고 나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그 옛날의 크로켓이자 키트 카슨, 흐뭇한 선행을 해치우던 그 억센 사나이는 고래에게 삼켜졌다가 토해졌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가 엄밀한 의미에서 포경선원이 되는지는 따져 볼 만하다. 그가 실제로 제 물고기에 작살을 꽂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안쪽에서 꽂았다면 모를까. 그래도 그는 일종의 본의 아닌 포경선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가 고래를 잡지 않았다면 고래가 그를 잡았다. 나는 그를 우리 일족의 한 사람으로 삼겠다.

그러나 서로 엇갈리는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헤라클레스와 고래의 이 그리스 이야기는 그보다 더 오래된 요나와 고래의 히브리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하고, 거꾸로라고도 한다. 어쨌든 둘이 무척 비슷한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반신을 우리 편이라 주장하면서 예언자는 왜 안 되겠는가?

영웅과 성인과 반신과 예언자만으로 우리 단원 명부가 다 차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총단장은 아직 이름을 대지 않았다. 옛날의 왕실 임금들처럼, 우리 형제단의 근원은 다름 아닌 위대한 신들 자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샤스트라」에 나오는 그 놀라운 동방의 이야기를 되풀이해 들려줄 차례다. 그 책은 힌두교 신격의 세 위격 가운데 하나인 두려운 비슈누를 우리에게 주는데, 바로 이 신성한 비슈누를 우리의 주님으로 준다. 비슈누는 땅 위에서 열 번 몸을 바꾸어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화신으로 고래를 영원히 따로 떼어 거룩하게 했다. 「샤스트라」에 따르면, 신들의 신 브라흐마는 세상이 주기적으로 무너진 뒤 그것을 다시 지으려고 마음먹고, 그 일을 맡아 다스리도록 비슈누를 낳았다. 그런데 비슈누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했을 것 같은, 그래서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 같은 것이 담겨 있었을 것이 틀림없는 신비로운 책 「베다」가 물 밑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비슈누는 고래의 몸을 입고, 그 속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해 내려가 그 거룩한 책들을 건져 냈다. 그렇다면 이 비슈누는 포경선원이 아니었던가? 말을 타는 사람을 기수라 부르듯이 말이다.

페르세우스, 성 게오르기우스, 헤라클레스, 요나, 그리고 비슈누! 이만하면 대단한 단원 명부 아닌가! 포경선원의 클럽 말고 어느 클럽이 이런 이름들로 명부 첫머리를 장식할 수 있겠는가?

제83장 역사로 본 요나

앞 장에서 요나와 고래의 역사 이야기를 언급했다. 그런데 낸터킷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요나와 고래의 이 역사 이야기를 좀 미덥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그 옛날에도 회의적인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이 더러 있어서, 당대의 정통 이교도들과 달리 헤라클레스와 고래의 이야기, 아리온과 돌고래의 이야기를 똑같이 의심했다. 그래도 그들이 그런 전승을 의심했다고 해서 그 전승이 사실이라는 점이 털끝만큼도 줄어들지는 않았다.

새그하버의 어느 늙은 포경선원이 그 히브리 이야기를 의심한 주된 까닭은 이것이었다. 그에게는 기묘하고 비과학적인 삽화로 꾸민 예스럽고 구식인 성경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삽화 가운데 하나에 요나의 고래가 머리에 물줄기 두 개를 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리워야단의 한 종(참고래와 그 목의 여러 변종)에게만 들어맞는 특징인데, 어부들은 이 고래를 두고 「1페니짜리 빵 하나에도 목이 메겠다」는 말을 한다. 놈의 목구멍이 그만큼 아주 좁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젭 주교가 미리 마련해 둔 대답이 있다. 주교는 넌지시 이렇게 말한다. 요나가 고래의 배 속에 무덤처럼 갇혔다고 볼 필요는 없고, 놈의 입 어딘가에 잠시 묵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것은 훌륭한 주교의 말로서 꽤 그럴듯해 보인다. 참으로 참고래의 입에는 휘스트 탁자 두어 개가 들어가고 노름꾼들이 모두 편히 앉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어쩌면 요나는 썩어서 빈 이 속에 들어앉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참고래는 이가 없다.

새그하버(그는 그 이름으로 통했다)가 이 예언자 문제를 믿지 못하겠다며 내세운 또 다른 까닭은, 갇힌 요나의 몸과 고래의 위액에 관한 무언가 모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반론도 무너지고 만다. 어느 독일 성서 해석학자가, 요나는 틀림없이 죽은 고래의 떠다니는 몸뚱이 속으로 피신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러시아 원정 때 프랑스 병사들이 죽은 말을 천막 삼아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듯이 말이다. 게다가 대륙의 다른 주석가들은 요나가 욥바에서 떠난 배에서 바다로 던져졌을 때 곧바로 근처의 다른 배, 곧 고래를 뱃머리 조각상으로 단 어느 배로 피했으리라고 짐작했다. 그리고 나는 덧붙이고 싶은데, 요즘 어떤 배들이 「상어호」「갈매기호」「독수리호」라는 이름을 받듯이, 그 배의 이름은 어쩌면 「 고래호 」 였을지도 모른다. 또한 요나서에 나오는 고래가 그저 구명구, 곧 바람을 불어 넣은 자루를 뜻했을 뿐이며, 위험에 빠진 예언자가 그쪽으로 헤엄쳐 가서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을 면했다고 생각한 박식한 성서 해석학자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엾은 새그하버는 사방에서 패한 것 같다. 그러나 그가 믿지 못한 까닭이 아직 하나 더 있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것은 이것이었다. 요나는 지중해에서 고래에게 삼켜졌는데, 사흘 뒤에 니느웨에서 사흘 길 안쪽 어딘가에 토해졌다. 그런데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가의 도시로, 지중해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도 건너가려면 사흘 길보다 훨씬 더 걸린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러나 고래가 예언자를 니느웨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 내려 줄 다른 길은 없었을까? 있다. 희망봉을 돌아서 그를 데려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중해를 끝에서 끝까지 지나가는 뱃길과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거슬러 오르는 또 하나의 뱃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가정을 하려면

사흘 만에 아프리카 전체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야 한다. 니느웨 터 근처의 티그리스강 물이 어떤 고래도 헤엄치기에는 너무 얕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요나가 그렇게 이른 시절에 희망봉을 돌았다는 이 생각은 그 큰 곶을 발견했다고 알려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에게서 발견의 영예를 빼앗아, 근대 역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늙은 새그하버의 이 모든 어리석은 논증은 그저 이성을 내세우는 그의 어리석은 오만을 드러냈을 뿐이다. 그가 해와 바다에서 주워들은 것 말고는 배운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그에게 더더욱 나무랄 만한 일이었다. 나는 그것이 그의 어리석고 불경한 오만과, 존경하는 성직자들에게 맞서는 그의 가증스럽고 악마 같은 반역을 보여 줄 뿐이라고 말한다. 어느 포르투갈 가톨릭 사제가 요나가 희망봉을 거쳐 니느웨로 갔다는 바로 이 생각을, 기적 전체를 두드러지게 크게 하는 것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게다가 오늘날까지도 크게 깨인 튀르크 사람들은 요나의 역사 이야기를 경건하게 믿는다. 그리고 한 삼백 년 전, 옛 해리스의 「항해기」에 나오는 어느 영국인 여행자는 요나를 기려 지은 튀르크의 모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스크에는 기름 없이 타는 기적의 등잔이 있었다고 한다.

제84장 창 날리기

마차가 쉽고 빠르게 달리도록 굴대에 기름을 바른다. 그리고 거의 같은 목적으로 어떤 포경선원들은 보트에 그와 비슷한 일을 한다. 보트 바닥에 기름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처치가 해로울 리 없으니 어쩌면 얕볼 수 없는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름과 물은 서로 원수이고, 기름은 미끄러지는 것이며, 노리는 것은 보트를 씩씩하게 미끄러지게 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말이다. 퀴퀘그는 보트에 기름 바르는 일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독일 배 융프라우호가 사라지고 오래지 않은 어느 아침, 그는 그 일에 여느 때보다 더 공을 들였다. 뱃전 밖에 매달린 보트 바닥 밑으로 기어 들어가, 마치 보트의 대머리 용골에서 머리털 한 무더기를 기어이 길러 내려는 듯 기름기를 부지런히 문질러 발랐다. 그는 어떤 특별한 예감에 따라 일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예감은 일어난 일로 보아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정오 무렵 고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배가 놈들 쪽으로 내려가자마자 놈들은 몸을 돌려 허겁지겁 빠르게 달아났다. 악티움에서 달아나던 클레오파트라의 배들처럼 어지러운 도주였다.

그래도 보트들은 뒤쫓았고, 스터브의 보트가 맨 앞이었다. 태시테고는 무진 애를 쓴 끝에 마침내 작살 하나를 꽂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작살을 맞은 고래는 잠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수평으로 계속 달아났다. 꽂힌 작살을 쉼 없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작살이 빠질 것이다. 달아나는 고래를 창으로 찌르든지, 아니면 놈을 놓치는 것으로

만족하든지 해야 했다. 그러나 놈이 워낙 빠르고 사납게 헤엄쳐서 보트를 놈의 옆구리까지 끌어당겨 붙이기는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았는가?

노련한 포경선원이 툭하면 써야 하는 온갖 놀라운 수단과 재주, 손재간과 수많은 묘수 가운데, 창 날리기라는 그 멋진 창 기술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 단검이든 장검이든 그 모든 검술에도 이에 견줄 것은 없다. 이것은 끈질기게 달아나는 고래에게만 꼭 필요하다. 그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속도로 나아가며 사납게 흔들리고 덜컹거리는 보트에서 긴 창을 정확하게 던져 닿게 하는 그 놀라운 거리다. 쇠와 나무를 합쳐 창 전체의 길이는 10피트에서 12피트쯤이다. 자루는 작살의 자루보다 훨씬 가늘고 재질도 더 가벼운 소나무다. 창에는 와프라 부르는 꽤 긴 가는 밧줄이 달려 있어서, 던진 뒤 그것으로 손까지 도로 끌어당길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기 전에 여기서 꼭 말해 둘 것이 있다. 작살도 창과 똑같이 날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일은 드물고, 그렇게 해도 성공하는 일은 더 드물다. 작살은 창에 비해 더 무겁고 더 짧은데, 그것이 실제로 큰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개는 먼저 고래에게 작살을 꽂아 매어 놓아야 창 날리기를 쓸 수 있다.

이제 스터브를 보라. 가장 다급한 위기에도 익살스럽고 느긋하게 침착함과 평정을 잃지 않는 그는 창 날리기에서 뛰어나기에 특히 알맞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라. 그는 나는 듯 달리는 보트의 들썩이는 이물에 꼿꼿이 서 있다. 보트를 끄는 고래는 양털 같은 거품에 싸여 40피트 앞에 있다. 스터브는 긴 창을 가볍게 다루며, 그것이 꼭 곧은지 보려고 창을 따라 두세 번 흘끗 훑어본다. 그러고는 휘파람을 불며 와프 사리를 한 손에 모아 쥐는데, 끝을 손에 단단히 쥐고 나머지는 걸리는 데 없이 풀려 나가게 한다. 그런 다음 창을 허리띠 한가운데 앞에 똑바로 쥐고 고래를

겨눈다. 그리고 창끝으로 놈을 겨눈 채 손에 쥔 창 자루 끝을 차분히 내리누르고, 그렇게 창끝을 쳐들어 마침내 창이 손바닥 위에서 15피트 높이로 반듯하게 균형을 잡고 선다. 그 모습은 긴 막대를 턱 위에 세워 균형을 잡는 곡예사를 얼마쯤 떠올리게 한다. 다음 순간, 빠르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충동과 함께 번쩍이는 쇠가 멋지고 높은 활꼴을 그리며 거품 이는 거리를 건너가, 고래의 급소에 박혀 부르르 떤다. 놈은 이제 반짝이는 물 대신 붉은 피를 뿜는다.

"놈의 마개를 뽑아 버렸다!" 스터브가 외쳤다. "오늘은 7월의 불멸의 4일이다. 오늘은 분수마다 포도주가 흘러야지! 이게 묵은 오를레앙 위스키나 묵은 오하이오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묵은 머논가힐라라면 좋으련만! 그러면, 태시테고, 얘야, 너한테 저 물줄기에 잔을 대라고 하고 우리는 빙 둘러서서 마실 텐데! 그래, 참말로, 이 녀석들아, 저기 놈의 물 뿜는 구멍이 벌어진 데서 최고급 펀치를 빚어서, 그 살아 있는 펀치 그릇에서 살아 있는 술을 들이켤 텐데."

그런 장난스러운 말에 맞춰 솜씨 좋은 던지기가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며, 창은 능숙하게 쥔 목줄에 매인 사냥개처럼 제 주인에게 돌아온다. 고통에 빠진 고래는 발작을 일으킨다. 끄는 줄이 느슨해지고, 창을 날린 사내는 고물 쪽으로 물러나 팔짱을 끼고 괴물이 죽는 것을 말없이 지켜본다.

제85장 분수

육천 년 동안, 그리고 그 전 몇백만 년 동안인지 아무도 모르는 세월 동안, 거대한 고래들이 온 바다에서 물을 뿜으며 마치 그 많은 물뿌리개나 안개 뿌리개로 하듯 깊은 바다의 정원에 물을 뿌리고 안개를 피워 왔다는 것, 그리고 지난 몇 세기 동안 수천 명의 사냥꾼이 고래의 분수 바로 곁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고 뿜어 대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러한데도, 바로 이 복된 순간(서기 1851년 12월 16일 오후 한 시 15분 15초)에 이르기까지 이 뿜어 대는 것이 결국 정말 물인지 아니면 수증기일 뿐인지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 눈여겨볼 만한 일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거기 딸린 흥미로운 몇 가지 항목과 함께 살펴보자. 지느러미 달린 족속들은 대개 아가미의 특이한 솜씨 덕분에, 제가 헤엄치는 원소 속에 언제나 섞여 있는 공기를 숨 쉰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래서 청어나 대구는 백 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고래는 사람처럼 제대로 된 허파를 갖춘 두드러진 몸속 구조 때문에, 탁 트인 대기 속의 풀려난 공기를 들이마셔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놈은 주기적으로 위 세계를 찾아와야 한다. 그러나 놈은 입으로는 조금도 숨을 쉴 수 없다. 향유고래의 입은 보통 자세에서 수면 밑으로 적어도 8피트 아래에 잠겨 있고, 더구나 놈의 숨관은 입과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놈은 오직 숨구멍으로만 숨을 쉬는데, 그것은 머리 꼭대기에 있다.

어떤 생물에게든 숨쉬기는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일 뿐이라고, 그것이 공기에서 어떤 원소를 빼내고 그 원소가 뒤에 피와 닿아 피에 생기를 주는 원리를 불어넣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쓸데없는 과학 용어를 몇 개 쓸지는 몰라도 틀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만약 사람 몸속의 피를 모두 한 번의 숨으로 공기와 섞을 수 있다면 그는 콧구멍을 막고 꽤 오랫동안 다음 숨을 쉬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말하자면 그는 숨 쉬지 않고 살 것이다. 변칙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고래가 바로 그렇다. 놈은 (바닥에 있을 때) 한 번에 꼬박 한 시간 넘게, 숨 한 번 쉬지 않고 공기 한 톨조차 조금도 들이마시지 않고 규칙적으로 산다. 기억하라, 놈에게는 아가미가 없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놈의 갈비뼈 사이와 등뼈 양쪽에는 국수 가락 같은 핏줄이 크레타의 미궁처럼 놀랍게 얽혀 있는데, 놈이 수면을 떠날 때 이 핏줄들은 산소를 머금은 피로 한껏 부풀어 있다. 그래서 놈은 한 시간 넘게, 바닷속 천 패덤 깊이에서, 물 없는 사막을 건너는 낙타가 앞날에 쓰려고 네 개의 덧위에 여분의 물을 지니고 다니듯 여분의 생명력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 이 미궁이 해부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가정이 이치에 맞고 참이라는 것은, 어부들의 말대로 *물을 다 뿜고 가려는* 그 리워야단의, 달리는 설명할 수 없는 고집을 생각할 때 내게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내 말은 이렇다. 방해받지 않는다면, 향유고래는 수면에 떠오르면 방해받지 않고 떠올랐던 다른 모든 때와 꼭 같은 시간 동안 거기 머문다. 놈이 11분 동안 머물며 일흔 번 물을 뿜는다고, 곧 일흔 번 숨을 쉰다고 하자. 그러면 놈은 다시 떠오를 때마다 어김없이 1분도 틀리지 않고 다시 일흔 번 숨을 쉰다. 그런데 놈이 몇 번 숨을 쉰 뒤에 그대가 놈을 놀라게 해서 놈이 잠수하면, 놈은 정해진 공기 몫을 채우려고 언제나 다시 몸을 피해 가며 떠오른다. 그리고 그 일흔 번의 숨을 다 세고 나서야 마침내

내려가 물속에서 제 기한을 다 채운다. 그러나 이 횟수는 개체마다 다르다는 것을 눈여겨 두라. 다만 한 개체 안에서는 늘 같다. 그런데 고래가 아주 내려가기 전에 공기 저장고를 다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기어이 물을 다 뿜고 가려 하겠는가? 또한 고래가 떠올라야 하는 이 필요가 놈을 추격의 온갖 치명적인 위험에 드러내 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뻔한가. 햇빛 아래 천 패덤 밑을 헤엄치고 있을 때라면 이 거대한 리워야단을 낚싯바늘로도 그물로도 잡을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 오 사냥꾼이여, 그대에게 승리를 안겨 주는 것은 그대의 솜씨라기보다 그 커다란 필요들이다!

사람은 쉼 없이 숨을 쉰다. 한 번의 숨이 맥박 두세 번만 버틴다. 그래서 다른 무슨 볼일을 봐야 하든, 깨어 있든 자고 있든 숨은 쉬어야 하고, 안 쉬면 죽는다. 그러나 향유고래는 제 시간의 칠분의 일, 곧 일요일만큼만 숨을 쉰다.

고래는 물 뿜는 구멍으로만 숨을 쉰다고 말했다. 거기에 놈의 물줄기에 물이 섞여 있다고 참되게 덧붙일 수 있다면, 놈의 후각이 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놈의 몸에서 코에 조금이라도 해당하는 것은 바로 그 물 뿜는 구멍뿐인데, 두 가지 원소로 그토록 막혀 있으니 냄새 맡는 힘이 있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물줄기의 수수께끼 때문에, 곧 그것이 물인지 수증기인지 알 수 없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절대적인 확신에 이를 수 없다. 그래도 향유고래에게 제대로 된 후각 기관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놈에게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바다에는 장미도, 제비꽃도, 오드콜로뉴도 없다.

게다가 놈의 숨관은 오직 물 뿜는 관으로만 열려 있고, 그 긴 관에는 거대한 이리 운하처럼 일종의 갑문이 (여닫히게) 달려 있어서 공기를 아래로 가두어 두거나 물을 위로 못 들어오게 막는다. 그러므로

고래에게는 목소리가 없다. 놈이 그토록 기이하게 우르릉거릴 때 코로 말한다고 놈을 모욕한다면 모를까. 그러나 또 고래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깊이 있는 존재치고 이 세상에 할 말이 있는 자를 나는 거의 본 적이 없다. 먹고살려고 무언가 더듬더듬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아니라면 말이다. 오! 세상이 그토록 훌륭한 청중이라니 다행이다!

그런데 향유고래의 물 뿜는 관은 주로 공기를 나르도록 되어 있고, 몇 피트에 걸쳐 머리 윗면 바로 밑에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 수평으로 놓여 있다. 이 기이한 관은 도시에서 길 한쪽에 묻어 놓은 가스관과 아주 비슷하다. 그러나 이 가스관이 수도관이기도 한지, 다시 말해 향유고래의 물줄기가 내쉰 숨의 수증기일 뿐인지, 아니면 그 내쉰 숨이 입으로 들어온 물과 섞여 숨구멍으로 나가는지 하는 물음이 다시 돌아온다. 입이 물 뿜는 관과 간접으로 통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숨구멍으로 물을 내보내기 위한 것이라고는 증명할 수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가장 큰 때는 먹이를 먹다가 어쩌다 물을 들이켰을 때일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유고래의 먹이는 수면 밑 깊은 곳에 있고, 거기서는 뿜고 싶어도 뿜을 수가 없다. 게다가 놈을 아주 가까이서 살피며 시계로 시간을 재 보면, 방해받지 않을 때 놈이 물을 뿜는 주기와 보통의 숨쉬기 주기 사이에 어긋남 없는 운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따지며 사람을 왜 귀찮게 하느냐? 툭 터놓고 말하라! 놈이 물을 뿜는 것을 보았으니 그 물줄기가 무엇인지 밝혀라. 물과 공기도 구별 못 하느냐? 친애하는 선생, 이 세상에서 이런 뻔한 것들을 결판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나는 늘 뻔한 것들이 무엇보다 가장 까다롭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고래 물줄기로 말하자면, 그 안에 거의 들어가 서 있으면서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몸통 한가운데는 그것을 감싼 눈처럼 희게 반짝이는 안개 속에 가려 있다. 그러니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겠는가? 고래의 물줄기를 가까이 볼 수 있을 만큼 고래에게 다가갔을 때면 언제나 놈은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고, 물이 놈의 사방으로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럴 때 물줄기 속에 물방울이 정말 보였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그저 수증기가 엉긴 것이 아님을 어떻게 알겠는가? 또는 고래 머리 꼭대기에 움푹 파인 물 뿜는 구멍의 틈에 겉으로 고여 있던 바로 그 물방울들이 아님을 어떻게 알겠는가? 잔잔한 한낮의 바다를 고요히 헤엄치며, 높이 솟은 혹이 사막의 단봉낙타 혹처럼 햇볕에 바싹 말라 있을 때조차도, 고래는 언제나 머리 위에 작은 물 대야 하나를 이고 다닌다.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서 바위의 오목한 데 빗물이 가득 고인 것을 이따금 보듯이.

또한 사냥꾼이 고래 물줄기의 정확한 정체를 너무 궁금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그 안에 얼굴을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 이 분수에는 물동이를 들고 가서 물을 채워 가지고 올 수가 없다. 물줄기의 바깥쪽 수증기 자락에 살짝만 닿아도, 그리고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데, 그 닿은 것의 매서움 때문에 살갗이 열이 나듯 쓰라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물줄기에 그보다 더 바짝 닿았다가, 과학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까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뺨과 팔의 살갗이 벗겨진 사람을 하나 안다. 그래서 포경선원들 사이에서는 물줄기를 독이 있다고 여기고 피하려 한다. 또 하나, 물줄기가 눈에 제대로 뿜어지면 눈이 먼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그 말을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탐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내가 보기에, 이 치명적인 물줄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래도 증명하고 확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설을 세울 수는 있다. 내 가설은 이렇다. 물줄기는 안개일 뿐이다. 그리고 다른 까닭들 말고도

나를 이 결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향유고래에게 타고난 커다란 위엄과 숭고함에 관한 생각이다. 나는 놈을 흔하고 얕은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놈이 측연이 닿는 얕은 바다나 해안 가까이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른 고래들은 모두 이따금 그런 데서 발견된다. 놈은 묵직하면서도 깊다. 그리고 나는 플라톤, 피론, 악마, 유피테르, 단테 같은 묵직하고 깊은 존재들의 머리에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언제나 반쯤 눈에 보이는 어떤 김이 피어오른다고 확신한다. 「영원」에 관한 짧은 논문을 쓰고 있을 때, 나는 호기심이 일어 내 앞에 거울을 놓아 보았다. 그러자 오래지 않아 내 머리 위 공기 속에서 무언가 기묘하게 얽혀 꿈틀거리며 너울대는 것이 거기 비쳐 보였다. 8월의 어느 한낮, 지붕널을 얇게 인 다락방에서 뜨거운 차를 여섯 잔 마신 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내 머리카락이 어김없이 젖어 있던 것, 이것도 위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논거로 보인다.

그리고 고요한 열대 바다를 엄숙하게 헤엄쳐 가는 그 힘세고 안개 같은 괴물을 바라보는 것은 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고귀하게 높여 주는가. 놈의 크고 온화한 머리 위에는 남에게 전할 수 없는 놈의 명상이 빚어낸 수증기 닫집이 드리워 있고, 그 수증기는, 이따금 보듯이, 마치 하늘이 몸소 놈의 생각에 도장을 찍기라도 한 듯 무지개로 영광스럽게 빛난다. 알겠는가, 무지개는 맑은 공기를 찾아가지 않는다. 무지개는 수증기만을 비춘다. 그래서 내 마음속 흐릿한 의심의 짙은 안개 사이로도 이따금 신성한 직관이 쏘아 들어와 하늘의 빛으로 내 안개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 나는 이 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나 의심을 품고, 많은 이가 부정하지만, 의심하거나 부정하면서 직관까지 함께 지닌 이는 드물기 때문이다.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의심과 하늘의

어떤 것들에 대한 직관, 이 결합은 신자도 불신자도 만들지 않는다. 그 둘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만든다.

제86장 꼬리

다른 시인들은 영양의 부드러운 눈과, 결코 내려앉지 않는다는 새의 사랑스러운 깃털을 지저귀듯 찬미했다. 나는 그보다 덜 천상적인 것, 꼬리 하나를 찬미한다.

가장 큰 향유고래의 꼬리를, 몸통이 가늘어져 사람의 몸통 둘레쯤 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치면, 그 꼬리는 윗면만 해도 넓이가 적어도 50제곱피트는 된다. 촘촘하고 둥근 뿌리 몸통은 넓고 단단하고 평평한 두 개의 손바닥, 곧 꼬리지느러미로 펼쳐지는데, 이것은 차츰 얇아져 두께가 1인치도 안 되게 된다. 갈라지는 곳, 곧 이음매에서 이 꼬리지느러미들은 살짝 겹쳤다가 날개처럼 옆으로 서로 멀어지며 그 사이에 넓은 빈자리를 남긴다. 아름다움의 선이 이 꼬리지느러미의 초승달 같은 가장자리에서보다 더 절묘하게 그어진 생물은 없다. 다 자란 고래의 꼬리는 가장 넓게 펼쳤을 때 너비가 20피트를 훌쩍 넘는다.

그 기관 전체는 용접한 힘줄로 촘촘하게 짠 바닥 같아 보인다. 그러나 베어 들어가 보면 그것이 뚜렷한 세 층, 곧 윗층과 가운데 층과 아래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윗층과 아래층의 섬유는 길고 수평이다. 가운데 층의 섬유는 아주 짧고, 바깥 두 층 사이를 가로질러 달린다. 이 삼중 구조가 무엇보다도 꼬리에 힘을 준다. 옛 로마 성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가운데 층이 기묘한 비교 거리가 될 것이다. 그 놀라운 고대 유물에는 늘 돌과 번갈아 얇은 기와 층이 놓여 있는데, 그것이 틀림없이 그 석조 건축의 큰 힘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줄로 된 꼬리에 모인 이 엄청난 국지적 힘으로도 모자라다는 듯, 리워야단의 온 덩치는 근육 섬유와 가는 실이 날실과 씨실처럼 엮여 덮여 있다. 이것들은 허리 양쪽을 지나 꼬리지느러미로 내려가 저도 모르게 그것과 하나로 섞이며, 그 힘에 크게 이바지한다. 그래서 꼬리에는 고래 전체의, 한데 모인 헤아릴 수 없는 힘이 한 점으로 모여 있는 것 같다. 물질에 소멸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을 해낼 것은 바로 이것이리라.

그리고 이 놀라운 힘은 그 동작의 우아한 굽힘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다. 거인 같은 힘 속으로 아기 같은 편안함이 물결친다. 오히려 그 동작은 가장 무시무시한 아름다움을 바로 그 힘에서 얻는다. 참된 힘은 결코 아름다움이나 조화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는 일이 많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름다운 모든 것에서 힘은 그 마법과 큰 관계가 있다. 조각한 헤라클레스에게서 대리석을 뚫고 사방으로 터져 나올 듯한 맺힌 힘줄을 없애 보라. 그 매력은 사라질 것이다. 경건한 에커만이 괴테의 벌거벗은 시신에서 아마포 홑이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는 로마의 개선문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의 육중한 가슴에 압도되었다. 미켈란젤로가 성부 하나님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그릴 때, 거기 얼마나 억센 힘이 있는지 눈여겨보라. 그리고 성자의 신성한 사랑을 무엇이 드러내든, 그분의 관념이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는 부드럽고 곱슬곱슬하고 남녀가 한 몸인 듯한 이탈리아 그림들, 그 그림들은 억센 데라고는 전혀 없어서 어떤 힘도 넌지시 비치지 않는다. 다만 복종과 인내라는, 소극적이고 여성적인 힘만을 비칠 뿐인데, 그것이 그분 가르침의 특유한 실천적 덕목을 이룬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한다.

내가 다루는 이 기관의 탄력은 워낙 미묘해서, 장난으로 휘두르든 진지하게든 성이 나서든, 어떤 기분에 있든, 그 굽힘에는 어김없이

더없는 우아함이 서려 있다. 그 점에서는 어떤 요정의 팔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이 꼬리에는 특유한 큰 동작이 다섯 가지 있다. 첫째, 나아가는 지느러미로 쓸 때. 둘째, 싸움에서 철퇴로 쓸 때. 셋째, 쓸기. 넷째, 꼬리로 물 치기. 다섯째, 꼬리지느러미 치켜들기.

첫째. 리워야단의 꼬리는 수평으로 놓여 있으므로 다른 모든 바다 생물의 꼬리와 다르게 움직인다. 그것은 결코 꿈틀거리지 않는다. 사람에게든 물고기에게든 꿈틀거림은 열등함의 표시다. 고래에게 꼬리는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이다. 몸 밑으로 앞쪽을 향해 두루마리처럼 말렸다가 빠르게 뒤로 튕기는 꼬리, 바로 그것이 괴물이 사납게 헤엄칠 때 그 독특하게 쏜살같이 뛰어오르는 움직임을 준다. 옆지느러미는 방향을 잡는 데만 쓰인다.

둘째. 향유고래가 다른 향유고래와는 머리와 턱으로만 싸우면서도, 사람과 싸울 때는 주로 그리고 경멸하듯 꼬리를 쓴다는 것은 조금 의미심장하다. 보트를 칠 때 놈은 꼬리지느러미를 보트에서 재빨리 휘어 뺐다가, 그 되튀는 힘으로만 일격을 가한다. 그 일격이 아무것도 막지 않는 허공에서 가해진다면, 특히 과녁으로 내리꽂힌다면, 그 타격은 그야말로 막을 수가 없다. 사람의 갈비뼈든 보트의 늑재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다. 살아날 길은 피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로막는 물을 뚫고 옆으로 들어온다면, 포경 보트가 가볍게 뜨고 재목이 탄력이 있는 덕분에, 늑재 하나에 금이 가거나 판자 한두 장이 부서지는 정도, 일종의 옆구리 결림 정도가 대개 가장 심한 결과다. 물속에서 옆으로 들어오는 이런 타격은 포경업에서 워낙 자주 받아서 그저 애들 장난으로 친다. 누군가 웃옷을 벗어 구멍을 막으면 그만이다.

셋째.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 고래의 촉각은 꼬리에 모여 있는 것 같다. 이 점에서 꼬리에는 코끼리 코의 섬세함에나 견줄 만한

섬세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섬세함은 주로 쓸기 동작에서 드러난다. 그때 고래는 처녀처럼 얌전하게, 어떤 부드러운 느릿함으로 그 거대한 꼬리지느러미를 바다 위에서 이쪽저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다 선원의 구레나룻 하나라도 느끼면, 그 선원은 구레나룻이고 뭐고 다 같이 화를 당한다. 그 첫 손길에는 얼마나 다정함이 있는가! 이 꼬리에 움켜쥐는 힘이 있다면, 나는 곧바로 다르모노데스의 코끼리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 코끼리는 꽃 시장에 자주 드나들며 처녀들에게 나직이 절하고 꽃다발을 바친 뒤 그들의 허리띠를 쓰다듬었다. 고래가 꼬리에 이 움켜쥐는 재주를 갖지 못한 것은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이다. 싸움에서 상처를 입자 코를 휘어 돌려 투창을 뽑아낸 또 다른 코끼리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이다.

넷째. 외딴 바다 한가운데서 저 혼자 안전하다고 여기는 고래에게 몰래 다가가 보면, 놈은 위엄 어린 거대한 비만한 몸을 풀어놓고 새끼 고양이처럼 바다를 화롯가 삼아 논다. 그러나 그 놀이에서도 놈의 힘은 보인다. 넓은 꼬리 손바닥을 허공 높이 휙 쳐들었다가 수면을 내리치면, 우레 같은 충격이 몇 마일 밖까지 울린다. 큰 대포를 쏜 줄로 알 정도다. 그리고 놈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숨구멍에서 피어오르는 가벼운 수증기 고리를 본다면, 그것이 대포 점화구에서 나는 연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다섯째. 보통 떠 있는 자세에서 리워야단의 꼬리지느러미는 등보다 꽤 낮게 놓여 있으므로 그때는 수면 밑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깊은 곳으로 뛰어들려 할 때 놈은 꼬리지느러미 전체를 몸의 적어도 30피트와 함께 허공에 꼿꼿이 치켜들고, 그렇게 잠시 떨며 서 있다가 아래로 쏜살같이 사라진다. 다른 데서 이야기할 숭고한 *몸 솟구치기*를 빼면, 고래가 이렇게 꼬리지느러미를 치켜드는 것은 아마도 살아 있는 모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장엄한 광경일 것이다. 바닥 모를 깊은 곳에서 거대한 꼬리가 발작하듯 가장 높은 하늘을 움켜쥐려는 것 같다.

꿈에서 나는 위엄 있는 사탄이 지옥의 불타는 발트해에서 고통에 시달리는 거대한 발톱을 내뻗는 것을 그렇게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광경을 바라볼 때는 어떤 기분에 있느냐가 전부다. 단테의 기분이라면 악마들이 떠오를 것이고, 이사야의 기분이라면 대천사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늘과 바다를 진홍빛으로 물들인 해돋이 때 우리 배의 돛대 꼭대기에 서 있다가, 나는 언젠가 동쪽에서 커다란 고래 떼가 모두 해를 향해 머리를 두고, 잠시 꼬리지느러미를 치켜든 채 일제히 떠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내게는 불을 섬기는 이들의 고향인 페르시아에서조차 신들을 향한 경배가 그토록 장엄하게 구현된 모습은 본 적이 없을 것 같았다. 프톨레마이오스 필로파토르가 아프리카코끼리에 대해 증언했듯이, 나는 그때 고래에 대해 증언하며 놈을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경건한 존재라고 선언했다. 유바 왕에 따르면 고대의 전투 코끼리들은 흔히 더없이 깊은 침묵 속에 코를 쳐들고 아침을 맞이했다.

이 장에서 고래와 코끼리를, 한쪽의 꼬리와 다른 쪽의 코의 몇 가지 면에 관해 우연히 견주었다고 해서, 그 서로 다른 두 기관을, 하물며 그것들이 각기 딸린 두 짐승을 같은 반열에 놓아서는 안 된다. 가장 힘센 코끼리도 리워야단에게는 테리어에 지나지 않듯, 리워야단의 꼬리에 견주면 코끼리의 코는 백합 줄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코끼리 코의 가장 무서운 일격도 향유고래의 묵직한 꼬리지느러미가 헤아릴 수 없는 힘으로 짓뭉개고 박살 내는 데 견주면 부채로 장난삼아 톡 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꼬리지느러미는 여러 차례 보트를 노와 선원째로 차례차례 통째로 허공에 내던졌다. 인도 곡예사가 공을 던져 올리듯이.[1]

이 힘센 꼬리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내 무능이 더욱 한탄스럽다. 때로 그 꼬리에는 사람의 손이 하더라도 잘 어울릴 몸짓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다. 큰 떼 안에서는 이따금 이 신비로운 몸짓이 워낙 놀라워서, 그것이

프리메이슨의 신호와 상징과 닮았다고, 실제로 고래는 이렇게 해서 세상과 슬기롭게 대화를 나눈다고 단언하는 사냥꾼들의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있다. 고래의 몸 전체에도 기이함으로 가득해서 가장 노련한 공격자조차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동작들이 없지 않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놈을 해부해도 나는 살갗 깊이까지만 갈 뿐이다. 나는 놈을 모르고, 앞으로도 결코 모를 것이다. 그러나 이 고래의 꼬리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놈의 머리를 이해하겠는가? 하물며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놈의 얼굴을 알겠는가? 너는 내 등, 내 꼬리를 보겠으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으리라. 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놈의 등조차 다 알아볼 수 없다. 그리고 놈이 제 얼굴에 대해 무엇을 넌지시 비치든, 다시 말하지만 놈에게는 얼굴이 없다.

---

1. 덩치 전반으로 고래와 코끼리를 견주는 것은 모두 터무니없다. 그 점에서 코끼리가 고래에게 갖는 관계는 개가 코끼리에게 갖는 관계와 거의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묘하게 닮은 점이 몇 가지 없지 않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물줄기다. 코끼리가 흔히 코로 물이나 흙먼지를 빨아올렸다가 코를 쳐들어 한 줄기로 뿜어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제87장 대함대

길고 좁은 믈라카반도는 버마 땅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나가 아시아 전체의 가장 남쪽 끝을 이룬다. 그 반도에서 한 줄로 이어져 수마트라, 자와, 발리, 티모르의 긴 섬들이 뻗어 있다. 이 섬들은 다른 많은 섬과 함께 거대한 방파제, 곧 성벽을 이루어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길게 잇고, 끊김 없이 길게 펼쳐진 인도양을 빽빽이 흩어진 동방의 여러 군도와 갈라놓는다. 이 성벽에는 배와 고래가 드나들기 좋게 출격문이 여럿 뚫려 있는데,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순다 해협과 믈라카 해협이다. 서쪽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들은 주로 순다 해협을 지나 중국 바다로 나온다.

그 좁은 순다 해협은 수마트라와 자와를 가른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섬 성벽의 한가운데에 서서, 뱃사람들에게 자와곶이라 알려진 그 대담한 초록빛 곶을 버팀벽 삼고 있으니, 이 해협은 성벽을 두른 어느 거대한 제국으로 들어가는 한가운데 성문과 적잖이 닮았다. 그리고 그 동방 바다의 천 개 섬을 살찌우는 향료와 비단과 보석과 금과 상아의 무진장한 부를 생각하면, 그런 보물이 바로 땅의 생김새 덕분에, 아무리 소용없다 해도 적어도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서양 세계로부터 지켜지는 듯한 겉모습을 띤다는 것은 자연의 의미심장한 배려처럼 보인다. 순다 해협의 해안에는 지중해와 발트해와 프로폰티스의 어귀를 지키는 그런 위압적인 요새가 없다. 이 동방 사람들은 덴마크 사람들과 달리, 몇 세기 동안 밤낮으로 동방의 가장 값비싼 화물을 싣고 수마트라섬과 자와섬

사이를 지나온 순풍 탄 배들의 끝없는 행렬에게 윗돛을 내려 굽실거리며 경의를 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의례는 선선히 면제해 주면서도, 더 실속 있는 공물에 대한 요구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아득한 옛날부터 말레이 사람들의 해적 프라우선은 수마트라의 그늘진 낮은 후미와 작은 섬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해협을 지나는 배들에게 덤벼들어, 창끝을 들이대며 사납게 공물을 요구했다. 유럽 순양함들에게 거듭 피비린내 나는 응징을 당한 탓에 이 해적들의 대담함이 근래에는 얼마쯤 수그러들기는 했다. 그래도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따금 영국과 미국 배들이 그 바다에서 무자비하게 습격당하고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순풍이 상쾌하게 불어 피쿼드호는 이제 이 해협에 다가가고 있었다. 에이해브는 해협을 지나 자와해로 들어가서, 거기서 향유고래가 여기저기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바다를 북쪽으로 누비며 필리핀 제도를 따라 해안 가까이 훑어 내려간 다음, 그곳의 큰 포경 철에 맞추어 먼 일본 해안에 닿을 작정이었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일주하는 피쿼드호는 태평양의 적도에 내려가기 전에 세상에 알려진 향유고래 어장을 거의 다 훑게 될 것이었다. 에이해브는 다른 데서는 어디서나 추적에 실패하더라도, 그 적도에서, 곧 모비 딕이 가장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바다에서, 그리고 놈이 그 바다에 출몰한다고 가장 그럴듯하게 짐작할 수 있는 철에, 모비 딕과 싸움을 벌이게 되리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띠를 두르듯 지구를 도는 탐색에서 에이해브는 뭍에 한 번도 들르지 않는가? 그의 선원들은 공기를 마시는가? 틀림없이 물을 얻으려고 멈출 것이다. 아니다. 서커스 말처럼 원을 그리며 도는 해는 오래전부터 제 불의 고리 안에서 내달렸고, 제 안에 있는 것 말고는 아무 양식도 필요하지 않다. 에이해브도 그렇다. 포경선에 대해서는 이것도 눈여겨 두라. 다른 선체들이 외국 부두로

옮길 남의 물건을 가득 싣는 동안, 세상을 떠도는 포경선은 배 자체와 선원들, 그들의 무기와 필요한 것 말고는 아무 짐도 싣지 않는다. 배는 넉넉한 선창에 호수 하나를 통째로 병에 담아 싣고 다닌다. 배는 쓸모 있는 것들로 바닥짐을 채운다. 쓸모없는 무쇠 덩이나 바닥짐용 쇳덩이만으로 채우지 않는다. 배는 몇 해치 물을 싣고 다닌다. 맑고 오래 묵은 최상품 낸터킷 물이다. 낸터킷 사람은 태평양에서 세 해 동안 떠다닐 때, 바로 어제 페루나 인도의 냇물에서 통에 담아 뗏목으로 실어 온 짭짤한 물보다 이 물을 마시기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다른 배들이 뉴욕에서 중국까지 갔다가 스무 군데 항구에 들르며 다시 돌아오는 동안, 포경선은 그 기간 내내 흙 한 톨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선원들은 자기들처럼 떠다니는 뱃사람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 또 한 번 대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전한다 해도 그들은 그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래, 얘들아, 방주는 여기 있다!"

그런데 자와의 서쪽 해안, 순다 해협 바로 근처에서는 많은 향유고래가 잡혔고, 실제로 그 둘레 바다 대부분은 어부들 사이에서 고래를 찾아 누비기에 훌륭한 곳으로 두루 인정받았다. 그래서 피쿼드호가 자와곶에 점점 다가가자 망보는 사람들은 거듭 불려 바짝 깨어 있으라는 주의를 들었다. 그러나 곧 우현 이물 쪽으로 야자나무 우거진 초록 절벽이 어렴풋이 나타나고, 반가운 콧구멍으로 공기 속의 싱그러운 계피 냄새를 맡았지만, 물줄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 근처에서 사냥감을 만나리라는 생각을 거의 다 버리고 배가 해협에 거의 들어섰을 때, 돛대 위에서 늘 듣던 그 반가운 외침이 들려왔고, 오래지 않아 유례없이 장엄한 광경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말해 두거니와, 근래 네 대양 곳곳에서 지칠 줄 모르고 사냥당한 탓에, 향유고래는 예전처럼 거의 어김없이 따로 떨어진 작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고, 이제는 흔히 큰 떼를 지어 나타난다.

때로는 그 수가 워낙 많아서, 마치 놈들의 수많은 민족이 서로 돕고 지키기로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보일 정도다. 향유고래가 이렇게 엄청난 대상(隊商)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좋은 어장에서도 때로 몇 주, 몇 달씩 물줄기 하나 보지 못하고 배를 몰다가, 그러다 갑자기 때로는 수천, 수만으로 보이는 물줄기의 인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

양쪽 이물에 걸쳐 넓게, 2마일이나 3마일쯤 떨어진 곳에서, 평평한 수평선의 절반을 감싸는 커다란 반원을 이루며, 고래 물줄기가 끊김 없이 사슬처럼 이어져 한낮의 공기 속으로 솟구치며 반짝였다. 참고래는 곧게 수직으로 쌍둥이 물줄기를 뿜는데, 그 물줄기는 꼭대기에서 갈라져 갈라진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지듯 두 갈래로 떨어진다. 향유고래는 그와 달리 앞으로 비스듬히 하나만 뿜는데, 그것은 흰 안개가 곱슬곱슬 짙게 우거진 덤불처럼 보이며 끊임없이 솟았다가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흩어진다.

그러니 피쿼드호가 바다의 높은 언덕 위로 솟을 때 그 갑판에서 바라보면, 푸르스름한 아지랑이가 뒤섞인 대기를 통해 보이는 이 수증기 물줄기의 무리는, 하나하나 공기 속으로 곱슬곱슬 피어오르는 것이, 마치 따스한 가을 아침에 어느 높은 언덕 위의 말 탄 사람이 내려다보는 어느 빽빽한 대도시의 즐거운 굴뚝 천 개 같았다.

행군하는 군대가 적의 땅인 산속 좁은 길에 다가가면, 그 위험한 길목을 어서 뒤로하고 다시 비교적 안전한 벌판으로 펼쳐 나가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재촉한다. 이 거대한 고래 함대도 바로 그렇게 지금 해협을 지나 서둘러 나아가는 것 같았다. 반원의 두 날개를 차츰 오므리며 단단하지만 여전히 초승달 꼴인 한가운데 무리를 지어 계속 헤엄쳐 갔다.

피쿼드호는 돛을 모조리 펴고 그들을 뒤쫓았다. 작살잡이들은 무기를 손질하며, 아직 매달려 있는 보트 머리에서 큰 소리로 환호했다. 바람만 버텨 준다면, 이 순다 해협을 지나 쫓겨 가는 그 거대한 무리는 동방의 바다로 펼쳐 나가자마자 제 동료 적잖은 수가 잡히는 꼴을 보게 되리라는 데 그들은 거의 의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 한데 모인 대상 안에 모비 딕 자신이, 시암 사람들의 대관식 행렬에서 떠받드는 흰 코끼리처럼 잠시 헤엄치고 있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보조돛 위에 보조돛을 겹겹이 달고 이 리워야단들을 앞에 몰며 나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태시테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배 뒤의 항적에 있는 무언가를 보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였다.

우리 앞쪽의 초승달에 짝을 이루듯, 우리는 뒤쪽에서 또 하나의 초승달을 보았다. 그것은 따로 떨어진 흰 수증기들로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고래의 물줄기처럼 솟았다가 가라앉았다. 다만 그것들은 그렇게 완전히 나타났다 사라지지는 않았다. 끝내 사라지지 않고 줄곧 떠돌았기 때문이다. 에이해브는 이 광경에 망원경을 겨누더니 의족 받침 구멍 안에서 재빨리 몸을 돌리며 외쳤다. "돛대에 올라가 휩과 두레박을 달아 돛을 적셔라. 말레이 놈들이다, 우리를 쫓아온다!"

피쿼드호가 해협에 제대로 들어설 때까지 곶 뒤에 너무 오래 숨어 있었다는 듯, 이 악당 같은 아시아 사람들은 이제 지나치게 조심하느라 늦어진 것을 만회하려고 맹렬히 뒤쫓아 오고 있었다. 그러나 날쌘 피쿼드호가 상쾌한 순풍을 받으며 그 자신 맹렬한 추격 중이었으니, 이 거무스름한 박애주의자들이 배가 스스로 택한 추적에 박차를 가하도록 거들어 주다니 얼마나 친절한 일인가. 그들은 배에게 그저 승마 채찍이자 박차의 톱니바퀴일 뿐이었다. 에이해브가 망원경을 옆구리에 끼고 갑판을 이리저리 거닐며, 앞으로 돌아설 때는 그가 쫓는 괴물들을 바라보고 뒤로 돌아설 때는 그를 쫓는 피에 굶주린 해적들을 바라볼 때,

위와 같은 어떤 공상이 그의 것인 듯했다. 그리고 그때 배가 지나가는 물의 협곡의 초록 벽을 흘끗 보며, 그 문을 지나 그의 복수에 이르는 길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문을 지나 지금 그가 쫓는 동시에 쫓기며 치명적인 종말로 가고 있음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뿐 아니라 무자비하고 사나운 해적 떼와 비인간적인 무신론의 악마 무리가 지옥처럼 저주를 퍼부으며 그를 응원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공상이 그의 머리를 스쳐 간 뒤 에이해브의 이마는 수척하게 골이 졌다. 폭풍 몰아친 밀물이 갉아 대고도 그 단단한 것을 제자리에서 끌어내지 못하고 간 뒤의 검은 모래 해변처럼.

그러나 이런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은 무모한 선원들 가운데 거의 없었다. 그리고 해적들을 꾸준히 뒤로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린 끝에 피쿼드호가 마침내 수마트라 쪽의 선명한 초록빛 앵무새곶을 쏜살같이 지나 그 너머의 넓은 바다로 나왔을 때, 작살잡이들은 배가 말레이 사람들을 그토록 이기며 앞질렀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날쌘 고래들이 배를 앞질러 멀어져 갔다는 것을 더 슬퍼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고래들의 항적을 따라 계속 몰아가자, 마침내 고래들이 속도를 늦추는 듯했다. 배는 차츰 그들에게 다가갔고, 이제 바람이 잦아들자 보트로 뛰어들라는 명령이 전해졌다. 그러나 향유고래의 놀라운 본능이라 짐작되는 무엇 때문인지, 떼가 아직 1마일이나 뒤에 있는 보트 세 척이 저희를 쫓아온다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놈들은 다시 모여 빽빽한 대오와 대대를 이루고, 그 물줄기들이 모두 번쩍이는 총검을 세워 놓은 줄처럼 보이게 하고는, 갑절로 빨라진 속도로 나아갔다.

우리는 셔츠와 속바지만 남기고 벗어부친 채 물푸레나무 노에 달려들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저은 끝에 추격을 거의 포기하려 할 때, 고래들 사이에 두루 일어난 머뭇거리는 소동이 기운 나는 징조를 보여 주었다. 놈들이 마침내 그 기이한 혼란, 곧 무력하게 갈팡질팡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징조였다. 어부들은 고래에게서 그런 상태를 알아보면 놈이 *질렸다*고 말한다. 놈들이 지금까지 빠르고 꾸준하게 헤엄쳐 오던 빽빽한 군대 대열은 이제 헤아릴 수 없는 패주 속에 흩어졌다. 그리고 인도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싸울 때 포로스 왕의 코끼리들처럼 놈들은 당황해서 미쳐 가는 것 같았다. 사방으로 크고 불규칙한 동그라미를 그리며 펼쳐지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헤엄치며, 짧고 굵게 뿜는 물줄기로 공포에 사로잡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뚜렷이 드러냈다. 이것은 놈들 가운데 몇몇에게서 더욱 기이하게 드러났는데, 그놈들은 마치 완전히 마비된 듯, 물이 차고 돛대가 부러진 배처럼 바다 위에 힘없이 떠 있었다. 이 리워야단들이 사나운 늑대 세 마리에게 풀밭에서 쫓기는 순한 양 떼였다 해도 그토록 지나치게 겁을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따금 보이는 이 겁 많음은 떼 지어 사는 거의 모든 생물의 특징이다. 사자 갈기를 단 서부의 버펄로들은 수만 마리가 무리를 이루고도 말 탄 사내 하나 앞에서 달아났다. 모든 인간도 보라. 극장 일층 객석이라는 양 우리에 떼로 모여 있으면, 불이 났다는 아주 작은 경보에도 출구로 우르르 몰려가며 밀치고 짓밟고 끼이고, 무자비하게 서로를 들이받아 죽게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 앞에서 기이하게 질려 버린 고래들을 보고 놀라는 것은 그만두는 편이 좋겠다. 땅 위 짐승들의 어떤 어리석음도 인간의 광기에 한없이 뒤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앞서 말했듯 많은 고래가 사납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떼 전체로 보면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한데 모여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럴 때 늘 그러듯 보트들은 곧바로 흩어져, 저마다 떼의 가장자리에 홀로 있는 고래 한 마리씩을 향해 나아갔다. 3분쯤 지나 퀴퀘그의 작살이 날아갔다. 작살을 맞은 고래는 눈을 멀게 하는 물보라를 우리 얼굴에 끼얹더니, 빛처럼 빠르게 우리를

끌고 달아나며 곧장 떼의 한복판으로 향했다. 그런 처지에서 작살 맞은 고래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결코 전례 없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 거의 언제나 어느 정도 예상하는 일이다. 그래도 그것은 포경업의 더 위험한 변고 가운데 하나다. 날쌘 괴물이 그대를 미쳐 날뛰는 떼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끌고 들어가면, 그대는 조심스러운 삶에 작별을 고하고 오직 미친 듯한 고동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눈멀고 귀먹은 고래가 순전히 속도의 힘으로 제게 달라붙은 쇠거머리를 떼어 내려는 듯 앞으로 돌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다에 흰 상처를 찢어 내며 날아가는 동안 우리 둘레를 이리저리 내닫는 미친 짐승들에게 사방에서 위협받을 때, 에워싸인 우리 보트는 폭풍 속에서 얼음섬들에게 떼로 몰린 배와 같았다. 언제 갇혀 짓뭉개질지 모르는 채, 얽히고설킨 그 물길과 해협 사이로 배를 몰아 빠져나가려 애쓰는 배 말이다.

그러나 퀴퀘그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사내답게 보트를 몰았다. 우리 앞길을 똑바로 가로지르는 이 괴물을 피해 비켜 가는가 하면, 거대한 꼬리지느러미를 머리 위에 쳐들고 있는 저 괴물에게서 슬금슬금 물러났다. 그러는 동안 내내 스타벅은 창을 들고 이물에 서서, 닿을 수 있는 고래는 무엇이든 짧게 찔러 우리 길에서 몰아냈다. 길게 던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잡이들도 마냥 놀고 있지는 않았다. 늘 하던 일은 이제 아예 필요 없어졌지만, 그들은 주로 고함지르는 일을 맡았다. "비켜라, 제독 나리!" 갑자기 몸뚱이째 수면으로 솟아올라 한순간 우리를 물에 잠기게 할 듯 위협한 커다란 단봉낙타 같은 놈에게 한 사람이 외쳤다. "거기, 꼬리 꽉 내려라!" 또 한 사람이 우리 뱃전 바로 곁에서 부채 같은 제 꼬리 끝으로 느긋하게 바람을 쐬는 듯한 다른 놈에게 외쳤다.

포경 보트에는 모두 드러그라는 기묘한 장치가 실려 있는데, 처음에 낸터킷 인디언들이 발명한 것이다. 같은 크기의 두꺼운 네모난 나무 두 장을 결이 서로 직각으로 엇갈리게 단단히 박아 붙인다. 그런 다음 이 나무토막 가운데에 꽤 긴 밧줄을 매고, 밧줄의 다른 끝을 고리로 만들어 두면 순식간에 작살에 맬 수 있다. 이 드러그는 주로 질린 고래들 사이에서 쓴다. 그럴 때는 한 번에 도저히 다 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래가 바로 둘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유고래를 날마다 만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죽여야 한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없다면 날개를 꺾어 두어야 한다. 나중에 느긋하게 죽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때 드러그가 쓰인다. 우리 보트에는 그것이 세 개 있었다. 첫째와 둘째는 성공적으로 던져졌고, 우리는 고래들이 끌려가는 드러그의 엄청난 옆 저항에 발목이 잡혀 비틀거리며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놈들은 쇠사슬과 쇠공을 찬 죄수처럼 옥죄어 있었다. 그러나 셋째를 던질 때, 그 굼뜬 나무토막을 뱃전 밖으로 던지는 순간 그것이 보트 가로대 하나 밑에 걸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가로대를 뜯어 가지고 가 버렸고, 앉은자리가 밑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노잡이는 보트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상처 입은 판자들 사이로 양쪽에서 바닷물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속바지와 셔츠 두세 벌을 쑤셔 넣어 당장은 물이 새는 것을 막았다.

우리가 떼 속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고래의 속도가 크게 줄지 않았더라면, 게다가 소동의 테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질수록 그 무시무시한 혼란이 잦아드는 것 같지 않았더라면, 이 드러그를 단 작살들을 던지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덜컹거리던 작살이 빠지고 우리를 끌던 고래가 옆으로 사라지자, 우리는 고래가 떠나며 남긴 기세가 차츰 가늘어지는 힘을 타고 두 고래 사이로 미끄러져 떼의 가장 깊은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마치 산속 급류에서

고요한 골짜기 호수로 미끄러져 들어온 것 같았다. 여기서는 가장 바깥쪽 고래들 사이의 으르렁거리는 골짜기에 이는 폭풍이 들리기는 해도 느껴지지는 않았다. 이 한가운데 너른 물에서 바다는 매끄러운 공단 같은 수면을 보였다. 이른바 *슬릭*이라는 것으로, 고래가 비교적 조용한 기분일 때 내뿜는 미묘한 물기로 생긴다. 그렇다, 우리는 이제 모든 소동의 한복판에 숨어 있다는 그 마법 같은 고요 속에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어지러운 먼 곳에서 바깥쪽 동심원들의 소란을 보았고, 여덟 마리나 열 마리씩 무리를 이룬 고래 떼들이 원형 경기장 안의 여러 쌍의 말처럼 빠르게 돌고 또 도는 것을 보았다. 놈들은 어찌나 바짝 어깨를 맞대고 있던지, 어느 거인 곡마사가 가운데 놈들 위로 다리를 걸쳐 놈들 등을 타고 쉽게 돌 수도 있었을 것이다. 떼의 둘러싸인 축을 바로 에워싸고 쉬는 고래들이 워낙 빽빽하게 무리 지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빠져나갈 기회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우리를 가둔 살아 있는 벽에 틈이 생기기를 지켜보아야 했다. 우리를 가두려고만 우리를 들여보낸 그 벽 말이다. 호수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이따금 작고 순한 암컷과 새끼 들이 찾아왔다. 이 패주한 무리의 여자와 아이 들이었다.

그런데 돌고 있는 바깥쪽 동심원들 사이에 이따금 생기는 넓은 간격과, 그 동심원 하나하나 안에 있는 여러 무리 사이의 공간까지 넣으면, 이때 그 무리 전체가 차지한 넓이는 적어도 2제곱마일이나 3제곱마일은 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런 때 그런 시험은 속기 쉽겠지만, 우리의 낮은 보트에서 보아도 거의 수평선 가장자리에서부터 솟구치는 것 같은 물줄기가 보였다. 내가 이 사정을 말하는 까닭은 이렇다. 마치 암컷과 새끼 들이 일부러 이 가장 안쪽 우리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떼가 워낙 넓게 퍼져 있어서 놈들이 그때까지 떼가 멈춘 정확한 까닭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아니면 아마도 워낙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고 모든 면에서 순진하고 경험이 없어서였는지, 어쨌든 그 까닭이 무엇이었든, 이 작은 고래들은 이따금 호수 가장자리에서 우리의 바람 잔 보트를 찾아와 놀라운 겁 없음과 믿음을, 아니면 여전히 홀린 듯한 공포를 보여 주었는데, 그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놈들은 집에서 기르는 개처럼 우리 둘레를 킁킁거리며 바로 뱃전까지 다가와 뱃전을 건드렸다. 마치 어떤 주문이 갑자기 놈들을 길들여 놓은 것 같았다. 퀴퀘그는 놈들의 이마를 토닥였다. 스타벅은 창으로 놈들의 등을 긁어 주었지만, 뒤탈이 두려워 당분간 창을 던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면 위의 이 놀라운 세계 저 아래 깊은 곳에서, 뱃전 너머를 내려다보는 우리 눈에 또 하나의, 더욱 기이한 세계가 들어왔다. 그 물의 둥근 천장 속에 젖을 먹이는 어미 고래들의 모습과, 엄청난 몸통 둘레로 보아 곧 어미가 될 듯한 고래들의 모습이 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넌지시 말했듯이 그 호수는 꽤 깊은 데까지 아주 맑았다. 그리고 사람의 젖먹이가 젖을 빨면서 마치 동시에 두 가지 다른 삶을 살기라도 하듯 젖가슴에서 눈을 떼고 차분히 한곳을 응시하며, 이승의 양분을 빨아들이는 동안에도 여전히 어떤 이승 아닌 기억으로 마음의 잔치를 벌이듯이, 이 고래들의 새끼들도 우리 쪽을 올려다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를 보는 것은 아니었다. 갓 태어난 놈들의 눈에 우리는 그저 멕시코만 해초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듯했다. 옆으로 누워 떠 있는 어미들도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이 작은 젖먹이 가운데 한 놈은 몇 가지 묘한 표시로 보아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것 같았는데, 길이가 14피트쯤, 몸통 둘레가 6피트쯤 되었을 것이다. 놈은 조금 까불었다. 그러나 그 몸은 얼마 전까지 어미의 주머니 속에서 하고 있던 그 갑갑한 자세에서 아직 거의 풀려나지 못한 것 같았다.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고래는 꼬리를 머리에 붙이고 마지막 도약을 할 채비를 다 한 채 타타르 사람의 활처럼 구부리고 누워 있다. 놈의 여린

옆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의 손바닥은 먼 나라에서 갓 도착한 아기의 귀처럼 아직도 주름지고 구겨진 모습을 생생히 지니고 있었다.

"줄! 줄!" 퀴퀘그가 뱃전 너머를 내려다보며 외쳤다. "저놈 매였다! 저놈 매였다! 누가 줄 맸냐! 누가 찔렀냐? 고래 둘이다. 하나 크다, 하나 작다!"

"왜 그러나, 이 사람아?" 스타벅이 외쳤다.

"여기 봐라." 퀴퀘그가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작살을 맞은 고래가 작살줄 통에서 수백 패덤의 밧줄을 끌어내고 깊이 잠수한 뒤 다시 떠오르면, 느슨해진 채 꼬불꼬불한 작살줄이 가볍게 떠오르며 공기 쪽으로 나선을 그리는 것이 보인다. 그와 똑같이 이제 스타벅은 리워야단 부인의 탯줄이 길게 사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새끼 고래는 아직 그 탯줄로 어미에게 매여 있는 것 같았다. 빠르게 뒤바뀌는 추격 속에서, 어미 쪽 끝이 풀린 이 자연의 줄이 삼밧줄과 엉켜 새끼가 그 때문에 붙잡히는 일이 드물지 않다. 바다의 가장 미묘한 비밀 가운데 몇 가지가 이 마법의 연못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 같았다. 우리는 깊은 물속에서 젊은 리워야단들의 사랑을 보았다.[1]

그리하여 겹겹이 둘러싼 당황과 공포의 동그라미에 에워싸여 있으면서도, 그 한가운데의 이 헤아릴 수 없는 생물들은 거리낌 없이 겁 없이 온갖 평화로운 일에 몰두했다. 그렇다, 고요하게 희롱과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그러나 나 자신도 그렇게, 회오리바람 몰아치는 내 존재의 대서양 한가운데서 여전히 언제까지나 말없는 고요 속에 노닌다.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슬픔의 무거운 행성들이 내 둘레를 도는 동안에도, 저 깊은 곳, 저 깊은 내륙에서 나는 여전히 영원한 기쁨의 온화함 속에 몸을 담근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넋을 잃고 떠 있을 때, 먼 곳에서 이따금 갑자기 미친 듯한 광경이 벌어져, 다른 보트들이 여전히 떼의

변두리에서 고래들에게 드러그를 매달고 있거나, 아니면 아마도 넉넉한 공간과 몇 군데 알맞은 피난처가 있는 첫째 동심원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드러그를 단 성난 고래들이 이따금 눈먼 채 동심원들을 가로질러 이리저리 내닫는 광경도, 마침내 우리 눈에 들어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느 고래보다 유난히 힘세고 기민한 고래에게 작살을 매었을 때는, 놈의 거대한 꼬리 힘줄을 끊거나 다치게 해서 이를테면 놈의 오금을 자르려 하는 것이 관습일 때가 있다. 그것은 도로 끌어당기도록 밧줄을 매단 짧은 자루의 해체용 삽을 던져서 한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되 보기에 제대로 입지는 않은 한 고래가 보트에서 떨어져 나가 작살줄의 절반을 끌고 달아났다. 그리고 상처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놈은 이제 사라토가 전투의 그 외톨이 기마 무법자 아널드처럼, 가는 곳마다 공포를 퍼뜨리며 돌고 있는 동심원들 사이를 내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고래의 상처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쨌든 그것이 꽤나 끔찍한 광경이었다 해도, 놈이 떼의 나머지에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그 특별한 공포는 처음에는 사이에 놓인 거리 때문에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어떤 까닭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포경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고 가운데 하나로 이 고래가 제가 끌고 가는 작살줄에 엉켜 버렸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놈은 해체용 삽까지 몸에 박은 채 달아났다. 그런데 그 연장에 매인 밧줄의 풀린 끝이 놈의 꼬리를 감은 작살줄 사리에 아주 걸려 버렸고, 해체용 삽 자체는 놈의 살에서 헐거워져 빠져나왔다. 그래서 미칠 듯이 고통에 시달리던 놈은 이제 유연한 꼬리를 사납게 도리깨질하며 물속을 휘저었고, 그 날카로운 삽을 제 둘레로 휘둘러 제 동료들을 다치게 하고 죽였다.

이 무시무시한 물체가 온 떼를 붙박인 공포에서 깨워 불러들이는 것 같았다. 먼저 우리 호수의 가장자리를 이루던 고래들이 마치 멀리서

기운이 반쯤 빠진 큰 물결에 들린 듯 조금씩 몰려들며 서로 부딪쳐 뒹굴기 시작했다. 그러자 호수 자체가 희미하게 들썩이며 부풀기 시작했다. 물속의 신방과 아기 방이 사라졌다. 더 한가운데 있는 동심원의 고래들이 점점 좁아지는 궤도를 그리며 점점 빽빽해지는 무리를 지어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렇다, 긴 고요가 떠나가고 있었다. 이윽고 낮게 다가오는 웅웅거림이 들렸다. 그러더니 봄에 큰 허드슨강이 풀릴 때 요란하게 밀려드는 얼음덩이들처럼, 고래 무리 전체가 마치 한데 쌓여 산 하나를 이루려는 듯 안쪽 한가운데로 뒹굴며 몰려들었다. 곧바로 스타벅과 퀴퀘그가 자리를 바꾸었다. 스타벅이 고물을 맡았다.

"노! 노!" 스타벅이 키를 움켜쥐며 사무치게 속삭였다. "이제 노를 움켜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맙소사, 얘들아, 준비해라! 놈을 밀어내라, 퀴퀘그, 거기 고래 말이야! 찔러라! 쳐라! 일어서라, 일어서서 그대로 있어라! 힘껏, 얘들아, 저어라, 얘들아. 놈들 등은 신경 쓰지 마라. 긁어 버려라! 긁고 지나가라!"

보트는 이제 거대한 검은 덩치 둘 사이에 거의 끼일 지경이었고, 그 긴 몸뚱이 사이에 좁은 다르다넬스 해협 하나가 남았다. 그러나 필사적으로 애쓴 끝에 우리는 마침내 잠깐 열린 틈으로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그러고는 빠르게 저어 나가면서 동시에 또 다른 빠져나갈 틈을 열심히 살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기를 여러 번 한 끝에 우리는 마침내 조금 전까지 바깥쪽 동심원 가운데 하나였던 곳으로 재빨리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모두 한가운데로 사납게 몰려가는 이리저리 흩어진 고래들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 다행스러운 구출은 퀴퀘그의 모자 하나를 잃는 값싼 대가로 얻었다. 그는 달아나는 고래들을 찌르려고 이물에 서 있다가, 바로 곁에서 넓은 꼬리지느러미 한 쌍이 갑자기 휙 쳐들리며 일으킨 공기 소용돌이에 모자를 머리에서 깨끗이 빼앗겼다.

이제 온통 일어난 소동이 아무리 떠들썩하고 어지러웠어도, 그것은 곧 질서 있는 움직임처럼 보이는 것으로 가라앉았다. 마침내 한 덩어리로 빽빽하게 뭉치자 놈들은 더 빨라진 속도로 다시 앞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 쫓아가 봐야 소용없었다. 그러나 보트들은 여전히 놈들의 항적에 머물며, 뒤에 처질지 모르는 드러그 단 고래들을 줍고, 또 플래스크가 죽이고 웨이프를 꽂아 둔 고래 한 마리를 확보하려 했다. 웨이프란 작은 깃발을 단 장대로, 보트마다 두세 개씩 싣고 다니는데, 다른 사냥감이 가까이 있을 때 죽은 고래의 떠 있는 몸뚱이에 똑바로 꽂아서 바다 위에서 그 자리를 표시하고, 또 다른 배의 보트들이 다가올 경우 먼저 차지했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번 보트 내리기의 결과는 포경업의 그 슬기로운 속담, 곧 고래가 많을수록 고기는 적다는 말을 얼마쯤 보여 주었다. 드러그를 단 고래 가운데 잡힌 것은 한 마리뿐이었다. 나머지는 당장은 용케 달아났지만, 뒤에 보게 되듯이, 결국 피쿼드호가 아닌 다른 배에 잡히고 말았다.

---

1. 향유고래는 리워야단의 다른 모든 종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다른 물고기 대부분과는 달리, 철을 가리지 않고 새끼를 친다. 아마 아홉 달로 잡을 수 있는 임신 기간 뒤에 한 번에 한 마리만 낳는다. 그러나 알려진 몇몇 경우에는 에서와 야곱 같은 쌍둥이를 낳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젖꼭지가 두 개 있는데, 기묘하게도 항문 양쪽에 하나씩 있다. 그러나 젖가슴 자체는 거기서 위쪽으로 뻗어 있다. 젖을 먹이는 고래의 이 귀한 부위가 어쩌다 사냥꾼의 창에 베이면, 어미가 쏟는 젖과 피가 서로 다투듯 몇 로드에 걸쳐 바다를 물들인다. 젖은 아주 달고 진하다. 사람이 맛본 적이 있다. 딸기와 곁들이면 좋을 것이다. 서로에 대한 존경이 넘쳐흐를 때 고래들은 *사람들이 하듯이* 인사를 나눈다.

제88장 무리와 무리의 선생

앞 장에서는 향유고래의 엄청난 무리, 곧 떼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런 거대한 집단을 이루게 하는 그럴듯한 까닭도 그때 함께 밝혔다.

그런데 그런 큰 무리를 이따금 만나기는 하지만, 이미 보았듯이 오늘날에도 저마다 스무 마리에서 쉰 마리를 아우르는 작은 무리가 따로 떨어져 다니는 것을 이따금 본다. 이런 무리를 *스쿨*, 곧 학교라 부른다. 학교는 대개 두 가지다. 거의 암컷으로만 이루어진 학교와, 젊고 힘센 수컷, 흔히 부르는 대로 황소만 모인 학교다.

암컷 학교에는 언제나 다 자랐으되 늙지는 않은 수컷 한 마리가 기사처럼 시중을 들며 따라다닌다. 그는 무슨 놀랄 일이 생기면 뒤로 처져서 숙녀들이 달아나는 것을 엄호하며 기사도를 드러낸다. 참으로 이 신사는 호사스러운 오스만 사람이어서, 하렘의 온갖 위안과 애정에 둘러싸인 채 물의 세계를 헤엄쳐 다닌다. 이 오스만 사람과 그의 첩들의 대조는 놀랍다. 그는 언제나 리워야단 가운데서도 가장 큰 덩치인 데 비해, 숙녀들은 다 자라도 보통 크기 수컷의 삼분의 일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그들은 비교적 가냘프다. 감히 말하건대 허리둘레가 여섯 야드를 넘지 않는다. 그래도 대체로 그들이 대대로 *살집이 좋을*(en bon point) 자격을 타고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하렘과 그 주인이 느긋하게 떠도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무척 흥미롭다. 그들은 유행을 좇는 사람들처럼 늘 이리저리 움직이며 한가로이 새로운 것을 찾는다. 그들을 적도에서 만난다면, 그것은

적도의 먹이 철이 한창 무르익을 때에 맞춘 것으로, 아마 북쪽 바다에서 여름을 나고 막 돌아와 여름의 불쾌한 노곤함과 더위를 몽땅 따돌린 참일 것이다. 적도의 산책길을 한동안 이리저리 어슬렁거리고 나면 그들은 동방 바다의 서늘한 철을 내다보고 그리로 떠나, 한 해의 또 다른 지나친 기온을 피한다.

이런 여행길에 고요히 나아가다가 무슨 낯설고 수상쩍은 것이 보이면, 고래 나리는 그 흥미로운 가족을 경계의 눈으로 지킨다. 그쪽으로 오던 어느 건방지기 짝이 없는 젊은 리워야단이 감히 숙녀들 가운데 하나에게 은밀히 바짝 다가가기라도 하면, 이 파샤는 얼마나 엄청난 분노로 그를 덮쳐 쫓아 버리는가! 그 같은 지조 없는 젊은 난봉꾼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성역을 침범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야말로 말세다. 그러나 파샤가 무슨 수를 쓰든, 가장 악명 높은 로타리오를 제 잠자리에서 몰아낼 수는 없다. 아아! 물고기는 모두 한 잠자리를 함께 쓰기 때문이다. 뭍에서 숙녀들이 서로 겨루는 숭배자들 사이에 흔히 더없이 끔찍한 결투를 일으키듯, 고래들도 꼭 그렇다. 놈들은 때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는데, 모두 사랑 때문이다. 놈들은 긴 아래턱으로 검술을 겨루며, 때로는 턱을 서로 맞물리고, 싸우며 뿔을 엇걸어 얽는 엘크처럼 패권을 다툰다. 이런 싸움의 깊은 흉터, 곧 고랑 팬 머리, 부러진 이, 가리비 껍데기처럼 이 빠진 지느러미를 지닌 채 잡히는 놈이 적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비틀리고 어긋난 입을 지닌 채 잡힌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을 침범한 자가 하렘 주인의 첫 돌진에 꽁무니를 뺀다고 하면, 그때 그 주인을 지켜보는 것은 무척 재미있다. 그는 그 거대한 덩치를 살며시 다시 그들 사이에 끼워 넣고 한동안 거기서 흥청거린다. 여전히 젊은 로타리오가 애태우며 보는 바로 그 가까이에서, 천 명의 첩 사이에서 경건하게 예배하는 경건한 솔로몬처럼. 다른 고래들이 눈에 띈다면 어부들은 이런 대(大)튀르크

사람을 좀처럼 쫓지 않는다. 이 대튀르크 사람들은 힘을 너무 헤프게 써서 기름기가 적기 때문이다. 그들이 낳는 아들딸로 말하자면, 뭐, 그 아들딸은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 한다. 적어도 어미의 도움만 받아서. 이름을 댈 수 있는 몇몇 다른 잡식성 떠돌이 연인들처럼, 고래 나리는 침실에는 아무리 취미가 있어도 아기 방에는 취미가 없다. 그래서 대단한 나그네인 그는 이름 없는 아기들을 온 세상에 남겨 두고, 아기마다 이국의 아이가 된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젊음의 열정이 시들고, 나이와 시름이 늘고, 성찰이 엄숙한 머뭇거림을 빌려주면, 한마디로 물릴 대로 물린 튀르크 사람에게 전반적인 권태가 덮치면, 그때는 처녀를 사랑하던 마음 대신 안락과 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 우리의 오스만 사람은 무력하고 뉘우치며 훈계하는 인생의 단계에 들어서서, 맹세코 그만두고, 하렘을 해산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뚱한 늙은이가 되어 경선과 위선 사이를 홀로 돌아다니며 기도를 드리고, 젊은 리워야단마다 그 연애의 잘못을 경고한다.

그런데 어부들이 고래의 하렘을 학교라 부르듯, 그 학교의 주인이자 선생도 전문 용어로 교장 선생이라 부른다. 그러니 그가 제 몸소 학교를 다니고 나서, 밖으로 나가 거기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의 어리석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풍자라 해도 엄밀히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다. 교장 선생이라는 그의 칭호는 하렘 자체에 붙인 이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오스만 고래에게 처음 이런 칭호를 붙인 사람은 틀림없이 비도크의 회고록을 읽고, 그 이름난 프랑스 사람이 젊은 시절에 어떤 시골 교장 선생이었는지, 그리고 제자 몇몇에게 가르친 그 은밀한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 두었으리라고 짐작한 사람들도 있다.

교장 선생 고래가 나이 들어 가며 물러나는 그 외따로움과 고립은 늙은 향유고래 모두에게 해당한다. 거의 어김없이 외톨이 고래, 곧 홀로

다니는 리워야단은 늙은 놈으로 밝혀진다. 이끼 같은 수염을 기른 존경스러운 대니얼 분처럼, 그는 자연 자체 말고는 아무도 곁에 두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의 황야에서 자연을 아내로 맞는다. 자연은 아내들 가운데 가장 좋은 아내다. 시무룩한 비밀을 아주 많이 간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젊고 힘센 수컷으로만 이루어진 학교는 하렘 학교와 뚜렷이 대조된다. 암고래들은 겁이 많은 것이 특징인 데 비해, 젊은 수컷들, 곧 이른바 「 40배럴 황소 」 들은 모든 리워야단 가운데 단연 싸움을 좋아하고, 만나기에 가장 위험하기로 이름나 있기 때문이다. 이따금 만나는 그 놀라운 반백의 희끗희끗한 고래들은 예외다. 이놈들은 벌로 받은 통풍 때문에 약이 오른 험악한 악귀처럼 덤벼든다.

40배럴 황소 학교는 하렘 학교보다 크다. 그들은 젊은 대학생 무리처럼 싸움과 장난과 못된 짓으로 가득 차 있고, 워낙 무모하고 떠들썩하게 세상을 굴러다녀서, 신중한 보험업자라면 예일이나 하버드의 난폭한 젊은이에게 보험을 들어 주지 않듯 이들에게도 보험을 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곧 이 난동을 그만두고, 사분의 삼쯤 자라면 흩어져서 저마다 정착할 곳, 곧 하렘을 찾아다닌다.

수컷 학교와 암컷 학교 사이에는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것은 더욱더 성별의 특징을 드러낸다. 40배럴 황소 한 마리를 작살로 찔렀다고 하자. 가엾은 녀석! 동무들이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난다. 그러나 하렘 학교의 한 마리를 찌르면 동무들이 온갖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그 둘레를 헤엄쳐 돈다. 때로는 워낙 가까이 워낙 오래 머물러서 저희마저 사냥감이 되고 만다.

제89장 매인 고래와 풀린 고래

앞앞 장에서 웨이프와 웨이프 장대를 언급했으니, 포경업의 법과 규칙에 대해 얼마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웨이프는 그 법의 커다란 상징이자 휘장으로 여길 만하다.

여러 척의 배가 함께 고래를 찾아 누빌 때, 한 배가 작살을 꽂은 고래가 달아났다가 마침내 다른 배에게 죽임을 당해 잡히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간접으로 자잘한 우발적 사정이 많이 딸려 있는데, 모두 이 하나의 큰 특징을 함께 지닌다. 이를테면, 지치고 위험한 추격 끝에 고래를 잡았는데 사나운 폭풍 때문에 몸뚱이가 배에서 풀려나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멀리 떠내려가고, 그것을 두 번째 포경선이 다시 붙잡아 바람 잔 날씨에 목숨도 작살줄도 걸지 않고 편안히 배 옆에 끌고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글로 적혔든 적히지 않았든, 보편적이고 논란의 여지 없는 어떤 법이 없다면 어부들 사이에는 더없이 성가시고 격렬한 분쟁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아마 입법 기관의 제정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공식 포경 법전은 네덜란드의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서기 1695년에 네덜란드 의회가 포고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나라도 성문 포경법을 가진 적이 없지만, 미국 어부들은 이 문제에서 스스로 입법자이자 변호사였다. 그들은 간결하면서도 모든 것을 아우르기로는 유스티니아누스의 「학설휘찬」과 「남의 일 참견 금지를 위한 중국 협회」의 내규를 넘어서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렇다, 이 법은 워낙 짧아서 앤 여왕 시대의 파딩 동전 한 닢이나 작살의 미늘에 새겨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을 정도다.

I. 매인 고래는 그것에 매여 있는 쪽의 것이다.

II. 풀린 고래는 누구든 가장 먼저 잡는 자의 정당한 사냥감이다.

그러나 이 훌륭한 법전에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 감탄할 만한 간결함이다. 그것을 풀이하려면 엄청난 분량의 주해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매인 고래란 무엇인가?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고래가 사람이 탄 배나 보트에, 탄 사람 하나나 여럿이 조금이라도 다룰 수 있는 무엇으로든 이어져 있으면, 그 고래는 전문 용어로 매인 고래다. 돛대든 노든, 9인치 굵기의 닻줄이든 전신선이든 거미줄 한 가닥이든 다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고래에 웨이프나 그 밖에 인정받는 소유의 상징이 꽂혀 있어도, 웨이프를 꽂은 쪽이 언제든 그것을 배 옆으로 가져갈 능력과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뚜렷이 보이는 한, 그 고래는 전문 용어로 매인 고래다.

이것은 학문적인 주해다. 그러나 포경선원들 자신의 주해는 때로 험한 말과 더 험한 주먹질, 곧 주먹으로 쓴 「코크의 리틀턴 주해」로 이루어진다. 사실 더 올곧고 명예로운 포경선원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늘 참작한다. 다른 쪽이 먼저 쫓았거나 죽인 고래를 한쪽이 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도덕적 불의가 될 경우 말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결코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다.

한 쉰 해 전 잉글랜드에서 고래 횡령을 두고 기묘한 소송이 벌어졌다. 원고들은 이렇게 진술했다. 북쪽 바다에서 고래를 힘들게 쫓은 끝에, 그리고 실제로 그들(원고들)이 그 고래에 작살을 꽂는 데 성공했을 때, 그들은 결국 목숨이 위태로워 작살줄뿐 아니라 보트 자체까지 버려야 했다. 마침내 피고들(다른 배의 선원들)이 그 고래를 따라잡아 작살을

꽂고 죽이고 붙잡아, 바로 원고들의 눈앞에서 끝내 제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피고들에게 항의하자 그들의 선장은 원고들의 코앞에서 손가락을 딱 튕기며, 자기가 해낸 일을 찬양하는 송영 삼아 그 고래를 붙잡을 때 고래에 매달려 있던 그들의 작살줄과 작살과 보트도 이제 자기가 갖겠다고 장담했다. 그래서 원고들은 이제 그들의 고래와 작살줄과 작살과 보트의 값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걸었다.

어스킨 씨가 피고 측 변호인이었고, 엘런버러 경이 판사였다. 변론하는 가운데 재치 있는 어스킨은 자기 입장을 예증하려고 최근의 간통 소송 하나를 들었다. 그 사건에서 어느 신사는 아내의 방종에 고삐를 채우려고 애쓰다 헛수고로 끝나자 마침내 아내를 인생의 바다에 버렸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 그 조치를 뉘우치고 아내를 다시 차지하려고 소송을 걸었다. 어스킨은 상대편 변호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기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 신사가 처음에 그 숙녀에게 작살을 꽂았고 한때 그 숙녀를 매어 두었으며, 오직 그 숙녀가 거세게 날뛰는 방종의 큰 힘 때문에 마침내 그 숙녀를 버렸다 해도, 어쨌든 버린 것은 버린 것이어서 그 숙녀는 풀린 고래가 되었다. 그러므로 뒤의 신사가 그 숙녀에게 다시 작살을 꽂았을 때, 그 숙녀는 그 몸에 꽂혀 있었을지 모를 작살과 함께 그 뒤의 신사의 재산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어스킨은 고래의 예와 숙녀의 예가 서로를 예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변론과 반론을 제대로 다 들은 뒤, 몹시 박식한 판사는 정해진 말투로 이렇게 판결했다. 곧, 보트는 원고들에게 돌려준다. 그들은 목숨을 구하려고 그것을 버렸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툼이 된 고래와 작살과 작살줄은 피고들의 것이다. 고래는 마지막으로 붙잡힐 때 풀린 고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살과 작살줄은, 고래가 그것들을 단 채 달아났을 때 그것(고래)이 그 물건들의 소유권을 얻었고, 따라서 그

뒤에 그 고래를 잡는 사람은 누구든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그 뒤에 그 고래를 잡았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물건들은 그들의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이 몹시 박식한 판사의 판결을 보면 어쩌면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 암반까지 갈아엎어 보면, 앞서 인용한 쌍둥이 포경법에 정해지고 위에 든 사건에서 엘런버러 경이 적용하고 밝힌 두 가지 큰 원칙, 곧 매인 고래와 풀린 고래에 관한 이 두 법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모든 법학의 기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조각의 무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법의 신전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처럼 받치고 설 기둥이 둘뿐이기 때문이다.

점유는 법의 절반이라고, 곧 그 물건이 어떻게 점유되었는지는 상관없다고, 누구나 입에 올리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점유는 흔히 법의 전부다. 러시아 농노와 공화국 노예의 힘줄과 영혼은, 점유가 법의 전부인 매인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탐욕스러운 지주에게 과부의 마지막 동전 한 닢은 매인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문패를 웨이프 삼아 단, 들키지 않은 저기 저 악당의 대리석 저택, 그것은 매인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고리대금업자 모르드개가 파산한 가엾은 비탄 씨에게 그 식구가 굶어 죽지 않도록 돈을 빌려주며 떼는 파멸적인 선이자, 그 파멸적인 선이자는 매인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등뼈가 흰 수십만 노동자의 보잘것없는 빵과 치즈에서 거두어들인 영혼구원 대주교의 10만 파운드 수입은(그 노동자들은 모두 영혼구원 대주교의 도움 없이도 천국에 가리라고 확신한다), 그 둥글둥글한 10만 파운드는 매인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얼간이 공작이 대대로 물려받은 읍과 마을 들은 매인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이름 높은 작살잡이 존 불에게 가엾은 아일랜드는 매인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사도 같은 창잡이 조너선

형제에게 텍사스는 매인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점유는 법의 전부가 아닌가?

그러나 매인 고래의 원리가 꽤 두루 적용된다면, 그것과 짝을 이루는 풀린 고래의 원리는 더욱더 널리 적용된다. 그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 적용된다.

1492년의 아메리카는, 콜럼버스가 그의 왕과 여왕을 위해 웨이프를 꽂는 셈으로 스페인 깃발을 꽂은 풀린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차르에게 폴란드는 무엇이었는가? 튀르크 사람에게 그리스는 무엇이었는가? 잉글랜드에게 인도는 무엇이었는가? 끝내 미국에게 멕시코는 무엇이 될 것인가? 모두 풀린 고래다.

인간의 권리와 세계의 자유는 풀린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모든 사람의 정신과 의견은 풀린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안에 깃든 종교적 믿음의 원리는 풀린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떠벌리며 남의 말을 밀수하는 말재주꾼들에게 사상가들의 생각은 풀린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거대한 지구 자체는 풀린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독자여, 그대는 풀린 고래이자 매인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제90장 머리냐 꼬리냐

"고래에 관해서는, 왕이 머리를 갖고 왕비가 꼬리를 가지면 족하다(De balena vero sufficit, si rex habeat caput, et regina caudam)." (브랙턴, 제3권 제3장)

이것은 잉글랜드 법률서에서 따온 라틴어로, 앞뒤 문맥과 함께 읽으면, 그 나라 해안에서 누가 잡았든 모든 고래는 명예 대작살잡이인 왕이 머리를 가져야 하고, 왕비에게는 공손히 꼬리를 바쳐야 한다는 뜻이다. 고래에게 이런 나눔은 사과를 반으로 가르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가운데 남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법은 모양을 조금 바꾸어 오늘날까지도 잉글랜드에서 효력이 있고, 또 매인 고래와 풀린 고래에 관한 일반 법에 비추어 여러모로 기이한 변칙을 보여 주므로, 여기서 따로 한 장을 두어 다룬다. 잉글랜드 철도가 왕족을 모시려고 특별히 비워 둔 객차 한 칸을 따로 마련하느라 비용을 들이는 것과 같은 정중한 원칙에서다. 먼저, 위에 말한 법이 아직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묘하게 증명하는 것으로, 지난 두 해 안에 일어난 일 하나를 그대 앞에 내놓겠다.

도버나 샌드위치, 아니면 다섯 항구 가운데 어느 한 곳의 정직한 뱃사람 몇이, 처음에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훌륭한 고래 한 마리를 힘든 추격 끝에 죽여서 해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다섯 항구는 부분적으로 또는 어떻게든 일종의 경찰관이나 교구 관리 같은 사람, 곧 장관이라 불리는 사람의 관할 아래

있다. 내가 알기로 장관은 그 직책을 왕실에서 바로 받으므로, 다섯 항구 지역에 딸린 왕실의 모든 수입이 양도에 따라 그의 것이 된다. 어떤 저술가들은 이 직책을 하는 일 없이 녹만 받는 자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관은 이따금 제 부수입을 주머니에 챙겨 넣느라 몹시 바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수입이 그의 것이 되는 것은 주로 바로 그렇게 챙겨 넣는 덕분이다.

그런데 이 가엾은 햇볕에 그을린 뱃사람들이 맨발로, 뱀장어 같은 다리 위로 바지를 높이 걷어 올린 채, 그 살찐 고래를 지친 몸으로 물 밖 높은 데까지 끌어올려 놓고, 귀한 기름과 수염에서 넉넉히 150파운드는 나오리라 기대하며, 저마다 제 몫을 믿고 상상 속에서 아내들과 귀한 차를 홀짝이고 술친구들과 좋은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한 아주 박식하고 더없이 기독교인다운 자비로운 신사가 블랙스톤 한 권을 옆구리에 끼고 다가온다. 그러고는 그 책을 고래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며 말한다. "손대지 마시오! 여보시오들, 이 고래는 매인 고래요. 나는 이것을 장관의 것으로 압류하오." 이 말에 가엾은 뱃사람들은 참으로 잉글랜드 사람답게 공손히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다들 머리를 세차게 긁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고래와 낯선 사람을 번갈아 처량하게 흘끗흘끗 본다. 그러나 그런다고 사정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블랙스톤 책을 든 그 박식한 신사의 굳은 마음도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 가운데 하나가 오랫동안 머리를 긁으며 생각을 더듬은 끝에 용기를 내어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나리, 장관이 누굽니까?"

"공작이오."

"하지만 공작님은 이 고래를 잡는 데 아무 일도 안 하셨잖습니까?"

"그분의 것이오."

"저희는 몹시 고생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돈도 얼마쯤 들였는데, 그게 다 공작님 좋은 일이 된다는 겁니까? 저희는 고생한 대가로 물집 말고는 아무것도 못 받고요?"

"그분의 것이오."

"공작님이 그렇게 가난하셔서 이런 막다른 수로 생계를 꾸리셔야 한단 말입니까?"

"그분의 것이오."

"저는 이 고래에서 받을 제 몫의 일부로 자리보전하고 누우신 늙은 어머니를 돌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분의 것이오."

"공작님께서 사분의 일이나 절반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의 것이오."

한마디로 고래는 압류되어 팔렸고, 웰링턴 공작 각하가 그 돈을 받았다. 그 동네의 어느 정직한 성직자는 어떤 특별한 관점에서 보면, 그 형편에서 이 사건은 아주 희박하나마 얼마쯤은 좀 가혹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공작 각하에게 공손히 편지를 보내 그 불운한 뱃사람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청했다. 이에 공작 나리께서 대략 이렇게 답장했다(두 편지는 모두 공개되었다). 자기는 이미 그렇게 했고 돈도 받았으니, 앞으로는 그(성직자 양반)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 주면 고맙겠다고. 이것이 세 왕국의 길모퉁이마다 서서 사방에서 거지들에게 억지로 동냥을 뜯어내는, 아직도 싸우기 좋아하는 그 노인이란 말인가?

이 사건에서 고래에 대한 공작의 권리라는 것이 군주에게서 위임받은 것임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군주가 애초에 무슨 원리로 그 권리를 부여받았는지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법 자체는 이미 내놓았다. 그러나 플라우던이 그 까닭을 알려 준다. 플라우던은 그렇게 잡힌

고래가 「그 뛰어난 탁월함 때문에」 왕과 왕비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장 건전한 주석가들은 이것을 늘 이런 문제에서 설득력 있는 논거로 여겨 왔다.

그러나 왜 왕은 머리를 갖고 왕비는 꼬리를 가져야 하는가? 법률가들이여, 그 까닭을 대라!

옛 왕좌 법원의 저술가인 윌리엄 프린이라는 사람은 「왕비 금」, 곧 왕비의 용돈에 관한 논문에서 이렇게 논한다. "꼬리는 왕비의 것이니, 왕비의 옷장에 고래수염을 대려 함이라." 그런데 이것은 그린란드고래, 곧 참고래의 검고 휘는 수염이 숙녀들의 코르셋에 많이 쓰이던 시절에 쓴 글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수염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에 있으니, 이것은 프린처럼 영리한 법률가로서는 한심한 실수다. 그러나 왕비가 인어라도 되어서 꼬리를 바쳐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는 어떤 우의적인 뜻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잉글랜드 법률 저술가들이 왕의 물고기라고 일컫는 물고기가 두 가지 있다. 고래와 철갑상어다. 둘 다 일정한 제한 아래 왕실 재산이고, 명목상 왕실 경상 수입의 열 번째 항목을 이룬다. 다른 어떤 저자가 이 문제를 넌지시 언급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미루어 보면 철갑상어도 고래와 똑같이 나누어야 할 것 같다. 왕은 그 물고기 특유의 몹시 단단하고 탄력 있는 머리를 받는다. 이것을 상징으로 보면 어쩌면 무언가 짐작되는 서로 닮은 기질에 우스꽝스럽게 근거를 두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모든 일에는, 법에조차, 까닭이 있는 것 같다.

제91장 피쿼드호, 장미꽃봉오리호를 만나다

"이 리워야단의 배 속에서 용연향을 긁어 찾으려 했으나 헛일이었으니, 견딜 수 없는 악취가 탐구를 허락하지 않았다." (토머스 브라운 경, 「통속 오류」)

앞서 이야기한 고래잡이 장면이 있고 한두 주쯤 지난 어느 날, 우리가 졸음 오는 듯 수증기 자욱한 한낮의 바다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을 때, 피쿼드호 갑판 위의 숱한 코가 돛대 위에 있는 세 쌍의 눈보다 더 날카로운 발견자임이 드러났다. 바다에서 묘하고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냄새가 났다.

"이제 뭘 걸고 내기해도 좋은데." 스터브가 말했다. "요 근처 어딘가에 저번에 우리가 간질여 놓은 그 드러그 단 고래 몇 마리가 있다. 놈들이 머잖아 배를 뒤집고 떠오를 줄 알았지."

이윽고 앞쪽의 수증기가 옆으로 미끄러지듯 걷혔다. 그러자 멀리 배 한 척이 있었는데, 접어 묶은 돛으로 보아 옆에 고래 같은 것을 매어 둔 것이 틀림없었다. 우리가 미끄러지듯 더 다가가자 그 낯선 배는 비낀 돛 활대 끝에 프랑스 깃발을 내걸었다. 그리고 배 둘레를 맴돌고 떠돌고 덮치는, 소용돌이치는 구름 같은 독수리 같은 바닷새 떼로 보아, 옆에 매인 고래는 어부들이 이른바 썩은 고래라고 부르는 것, 곧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바다에서 죽어 임자 없는 시체로 떠다니던 고래임이 분명했다. 그런 덩어리가 얼마나 고약한 냄새를 내뿜을지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산 사람들이 죽은 이들을 다 묻을 수 없을 만큼 역병이

돈 아시리아의 도시보다 더 지독하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그 냄새를 워낙 견딜 수 없어서, 어떤 탐욕으로도 그 옆에 배를 대도록 설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고래에서 얻는 기름이 아주 질이 낮고 결코 장미 향유 같은 것이 아닌데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잦아드는 미풍을 타고 더 다가가자 그 프랑스 배가 옆에 두 번째 고래도 매어 두었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고래는 첫 번째 고래보다 한층 더 고약한 꽃다발 같았다. 사실 그것은 일종의 어마어마한 소화불량, 곧 체증으로 말라 죽는 듯한 그 미심쩍은 고래 가운데 하나로 드러났다. 그런 고래는 죽은 몸뚱이에 기름 비슷한 것이라고는 거의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도 알맞은 곳에서 보게 되겠지만, 썩은 고래 일반은 아무리 피하는 어부라도, 물정에 밝은 어부라면 이런 고래만큼은 결코 코웃음 치며 외면하지 않는다.

피쿼드호가 이제 그 낯선 배에 워낙 바짝 다가갔으므로, 스터브는 이 고래들 가운데 한 마리의 꼬리에 감긴 밧줄에 엉켜 있는 해체용 삽 자루가 제 것임을 알아보았다고 맹세했다.

"저 녀석 꼴 좀 봐라." 스터브가 배 이물에 서서 놀리듯 웃었다. "저기 승냥이 한 마리 있다! 크라포, 그러니까 이 개구리 같은 프랑스 놈들이 포경에서는 그저 가엾은 녀석들이라는 건 나도 잘 안다. 부서지는 파도를 향유고래 물줄기로 잘못 보고 보트를 내리기도 하고, 그래, 기름을 얻어 봐야 선장 심지 하나 적실 만큼도 안 될 걸 내다보고 쇠기름 양초 상자와 초 심지 가위 상자를 선창 가득 싣고 항구를 떠나기도 하지. 그래, 그런 건 다들 안다. 그런데 봐라, 여기 우리가 먹다 남긴 것에 만족하는 크라포가 있다. 저기 드러그 단 고래 말이다. 그래, 게다가 저기 가진 그 귀한 다른 물고기의 마른 뼈다귀를 긁는 것에도 만족한다. 가엾은 녀석! 이봐, 누가 모자 좀 돌려라. 사랑하는 자선을 위해 저 녀석한테 기름 좀 선물하자. 저기 드러그 단 고래에서 얻을 기름은

감옥에서도 태우기 아까울 테니까. 그래, 사형수 감방에서도 말이다. 그리고 다른 고래로 말하자면, 뭐, 저 뼈다귀 묶음에서 저 녀석이 얻을 기름보다 우리 배 돛대 세 개를 잘게 쪼개서 졸여 내는 편이 기름이 더 나오겠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그 안에 기름보다 훨씬 더 값나가는 무언가가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 용연향 말이다. 우리 영감님이 그 생각을 했을까 모르겠네. 해 볼 만하다. 그래, 나는 찬성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뒷갑판으로 향했다.

이때쯤 희미하던 바람이 완전히 멎었다. 그래서 싫든 좋든 피쿼드호는 이제 그 냄새에 고스란히 갇혀, 다시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한 빠져나갈 가망이 없었다. 선장실에서 나온 스터브는 이제 자기 보트 선원들을 불러 그 낯선 배로 저어 갔다. 배 이물을 가로질러 가며, 그는 그 배의 이물 기둥 윗부분이 프랑스 사람들의 기발한 취향대로 거대하게 늘어진 줄기 모양으로 새겨져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고, 가시 대신 구리 못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으며, 그 전체가 선명한 붉은빛의 대칭으로 접힌 꽃봉오리로 끝나는 것을 보았다. 이물 판자에는 커다란 금박 글씨로 「부통드로즈(Bouton de Rose)」, 곧 장미 단추, 장미꽃봉오리라 적혀 있었는데, 그것이 이 향기로운 배의 낭만적인 이름이었다.

스터브는 그 글자 가운데 *부통*이라는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로즈*라는 낱말과 꽃봉오리 모양의 뱃머리 조각상을 한데 놓고 보니 그것으로 전부가 넉넉히 설명되었다.

"나무로 된 장미꽃봉오리라, 응?" 그가 코를 손으로 막으며 외쳤다. "그거 아주 좋군. 그런데 냄새 한번 온 천지만큼 지독하구나!"

그런데 갑판에 있는 사람들과 바로 말을 주고받으려면 그는 이물을 돌아 우현으로 저어 가서 썩은 고래에 바짝 다가가야 했다. 그래서 그 고래 너머로 말을 해야 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이르자, 그는 여전히 한 손으로 코를 막은 채 고래고래 외쳤다. "어이, 부통드로즈호! 너희 부통드로즈 가운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소?"

"있소." 뱃전에서 건지섬 사람 하나가 대답했다. 알고 보니 일등 항해사였다.

"그럼, 우리 부통드로즈 꽃봉오리 양반, 흰 고래 봤소?"

"*무슨* 고래요?"

"*흰* 고래. 향유고래요. 모비 딕, 그놈 봤소?"

"그런 고래는 들어 본 적도 없소. 카샬롯 블랑슈! 흰 고래라. 못 봤소."

"좋소, 그럼. 이제 잘 있으시오. 잠깐 있다 또 들르리다."

그러고는 재빨리 피쿼드호로 저어 돌아가, 에이해브가 뒷갑판 난간에 몸을 기대고 보고를 기다리는 것을 보자, 두 손을 나팔처럼 오므려 외쳤다. "못 봤답니다, 선장님! 못 봤답니다!" 그러자 에이해브는 물러갔고, 스터브는 프랑스 배로 돌아갔다.

이제 그는 방금 돛대 밧줄 받침에 올라가 해체용 삽을 쓰고 있던 건지섬 사람이 일종의 자루로 코를 동여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 코가 왜 그렇소?" 스터브가 말했다. "부러졌소?"

"부러졌으면 좋겠소. 아니면 아예 코가 없든지!" 하고 있는 일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건지섬 사람이 대답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 코를 왜 쥐고 있소?"

"아, 아무것도 아니오! 밀랍 코라서 붙잡고 있어야 하오. 날씨 좋지 않소? 공기가 좀 꽃밭 같다고 해야겠군. 꽃다발 하나 던져 주겠소, 부통드로즈 양반?"

"도대체 여기서 뭘 바라는 거요?" 건지섬 사람이 갑자기 불같이 성을 내며 고함쳤다.

"오! 진정하시오. 서늘하게? 그래, 바로 그 말이오! 그 고래들 일하는 동안 얼음에 재워 두지 그러오? 그건 그렇고 농담은 그만두고, 꽃봉오리 양반, 그런 고래에서 기름을 얻으려는 건 다 헛짓이라는 걸 아시오? 저기 저 말라붙은 놈으로 말하자면, 온 몸뚱이에 기름이 한 잔도 없소."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런데 보다시피 여기 선장이 그걸 믿으려 들지 않소. 이번이 첫 항해라서. 전에는 오드콜로뉴 만들던 사람이었소. 그러니 배에 올라오시오. 내 말은 안 믿어도 당신 말은 믿을지 모르오. 그러면 나도 이 지저분한 곤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지."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리다, 내 달콤하고 상냥한 친구." 스터브가 대꾸하고는 곧 갑판으로 올라갔다. 거기서는 묘한 광경이 펼쳐졌다. 붉은 털실로 짠 술 달린 모자를 쓴 선원들이 고래를 다룰 무거운 도르래 장치를 채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은 좀 느리게 하고 말은 몹시 빠르게 했으며, 기분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코는 하나같이 숱한 이물 삼각돛 활대처럼 얼굴에서 위로 튀어나와 있었다. 이따금 두 사람씩 짝지어 일손을 놓고 신선한 공기를 쐬러 돛대 꼭대기로 뛰어올라갔다. 어떤 이들은 역병에 걸릴까 봐 뱃밥을 콜타르에 적셔 이따금 콧구멍에 갖다 댔다. 또 어떤 이들은 담뱃대 줄기를 대통 바로 밑까지 거의 짧게 부러뜨려 담배 연기를 세차게 뻑뻑 빨아 대서, 그 연기가 줄곧 후각 기관을 채우게 했다.

스터브는 고물 쪽 선장의 원형 선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함과 저주의 소나기에 놀랐다. 그리고 그쪽을 보니, 안에서 빠끔히 열어 둔 문 뒤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 하나가 쑥 나와 있었다. 그것은 고통에 시달리던 선의였다. 그는 그날 벌어진 일에 헛되이 항의한 끝에 역병을 피하려고 선장의 원형 선실(그는 그것을 *카비네*라고 불렀다)로 피신했지만, 그래도 이따금 애원과 분노를 고래고래 외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본 스터브는 제 계획이 잘되리라고 내다보고 건지섬 사람 쪽으로 돌아서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사이에 낯선 배의 항해사는 자기네 선장이 모두를 이토록 고약하고 이득도 없는 곤경에 빠뜨린 자만심 강한 무식쟁이라며 몹시 미워하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조심스럽게 그의 속을 떠본 스터브는 그 건지섬 사람이 용연향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짐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더 알아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 밖에는 아주 솔직하고 터놓고 그와 이야기했다. 그래서 둘은 선장을 속이는 동시에 놀려 먹을 작은 계획을 재빨리 꾸몄다. 선장은 그들이 진심인지 의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터였다. 그들의 이 작은 계획에 따르면, 건지섬 사람은 통역을 맡는다는 핑계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스터브가 한 말인 양 선장에게 하고, 스터브는 그 자리에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무 헛소리나 하기로 했다.

이때쯤 그들의 정해진 희생자가 선실에서 나타났다. 그는 작고 거무스름했지만 바다의 선장치고는 꽤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구레나룻과 콧수염은 덥수룩했다. 그리고 옆구리에 시곗줄 도장을 늘어뜨린 붉은 무명 벨벳 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 신사에게 건지섬 사람이 이제 스터브를 정중하게 소개하고, 곧바로 짐짓 두 사람 사이에서 통역하는 시늉을 했다.

"먼저 뭐라고 할까요?" 그가 말했다.

"글쎄." 스터브가 벨벳 조끼와 시계와 도장을 훑어보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좀 애송이 같아 보인다는 말부터 해도 되겠소. 내가 사람 볼 줄 안다고 우기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무슈." 건지섬 사람이 선장에게 돌아서서 프랑스 말로 말했다. "바로 어제 자기 배가 어느 배와 말을 나누었는데,

그 배의 선장과 일등 항해사가 선원 여섯 명과 함께 배 옆에 끌어다 놓은 썩은 고래에서 옮은 열병으로 모두 죽었답니다."

이 말에 선장은 깜짝 놀라며 더 알고 싶어 안달했다.

"이번엔 뭐라고 할까요?" 건지섬 사람이 스터브에게 말했다.

"글쎄, 저 사람이 저렇게 순순히 받아들이니, 내가 찬찬히 뜯어보니 저 사람은 산티아고 원숭이만큼도 포경선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는 걸 확신한다고 전하시오. 아니, 내가 그러는데 저 사람은 개코원숭이라고 전하시오."

"이분이 맹세코 단언하시기를, 무슈, 다른 고래, 그러니까 말라붙은 놈이 썩은 놈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랍니다. 결국, 무슈, 목숨이 아깝거든 이 물고기들을 풀어 버리라고 간곡히 당부하십니다."

선장은 곧바로 앞쪽으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선원들에게 해체용 도르래 장치를 끌어올리는 일을 그만두고, 고래들을 배에 붙들어 맨 밧줄과 사슬을 당장 풀라고 명령했다.

"이번엔 뭐라고 할까요?" 선장이 돌아왔을 때 건지섬 사람이 말했다.

"글쎄, 어디 보자. 그래, 이제 이렇게 전해도 되겠소. 저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감쪽같이 속였다고, 그리고 (혼잣말로) 어쩌면 다른 누군가도 속였다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무슈,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무척 기쁘시답니다."

이 말을 듣자 선장은 고마워할 쪽은 오히려 자기들(곧 자기와 항해사)이라고 맹세하고, 끝으로 스터브에게 선실로 내려가 보르도 포도주 한 병을 들자고 청했다.

"함께 포도주 한잔 하자고 하오." 통역이 말했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해 주시오. 그러나 내가 속인 사람과 술을 마시는 건 내 원칙에 어긋난다고 전하시오. 아니, 이제 가 봐야 한다고

전하시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무슈, 자기 원칙상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무슈께서 하루라도 더 살아서 술을 드시고 싶다면 보트 네 척을 모두 내려 배를 이 고래들에게서 끌어내는 편이 좋겠답니다. 바람이 워낙 잔잔해서 고래들이 떠내려가지 않을 테니까요."

이때쯤 스터브는 뱃전을 넘어가 있었는데, 제 보트에 오르며 건지섬 사람에게 이런 뜻으로 외쳤다. 자기 보트에 긴 끄는 줄이 있으니, 두 고래 가운데 가벼운 놈을 배 옆에서 끌어내어 힘닿는 데까지 그들을 돕겠다고. 그래서 프랑스 배의 보트들이 배를 한쪽으로 끌고 가는 동안, 스터브는 자비롭게도 반대쪽으로 제 고래를 끌고 갔다. 짐짓 유난히 긴 끄는 줄을 풀어 주면서.

이윽고 바람이 일었다. 스터브는 고래에게서 줄을 푸는 시늉을 했다. 프랑스 배는 보트들을 끌어올리고 곧 거리를 벌렸고, 그 사이에 피쿼드호가 프랑스 배와 스터브의 고래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러자 스터브는 재빨리 떠 있는 몸뚱이로 저어 가서, 피쿼드호에 제 속셈을 알리는 외침을 보내고는, 곧바로 그의 의롭지 못한 꾀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 그는 날카로운 보트 삽을 움켜쥐고 옆지느러미 조금 뒤쪽의 몸뚱이를 파 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 지하 저장실이라도 파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삽이 앙상한 갈비뼈에 부딪혔을 때는, 기름진 잉글랜드 양토에 묻힌 옛 로마의 기와와 질그릇을 파헤치는 것 같았다. 그의 보트 선원들은 모두 몹시 들떠서 열심히 우두머리를 거들었고, 금을 찾는 사람들처럼 애가 타는 얼굴이었다.

그러는 내내 수없이 많은 새가 그들 둘레에서 곤두박이고, 잠기고, 꽥꽥거리고, 소리 지르고, 싸워 댔다. 스터브는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끔찍한 꽃다발 냄새가 점점 더 심해지자 더욱 그랬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이 역병 한복판에서 희미한 향기 한 줄기가 스며 나왔다. 그것은 고약한 냄새의 물결 속을 흐르면서도 거기 빨려 들지 않았다. 한 강이 다른 강으로 흘러들어 그것과 나란히 흐르면서도 한동안 조금도 섞이지 않듯이.

"찾았다, 찾았다." 스터브가 땅밑 같은 곳에서 무언가를 치며 기뻐 외쳤다. "지갑이다! 지갑이다!"

그는 삽을 떨어뜨리고 두 손을 쑤셔 넣어, 잘 숙성된 윈저 비누나 얼룩덜룩한 맛 좋은 묵은 치즈 같아 보이는 것을 한 움큼씩 꺼냈다. 그것은 아주 기름지고 향기로웠다. 엄지로 눌러 쉽게 움푹하게 만들 수 있다. 빛깔은 노란빛과 잿빛의 중간이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친구들이여, 용연향이다. 어느 약종상에게서든 1온스에 1기니 금화를 받는다. 여섯 움큼쯤 얻었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양을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잃었다. 그리고 참을성 없는 에이해브가 스터브에게 그만두고 배로 돌아오라고, 안 그러면 배가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겠다고 큰 소리로 명령하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더 많이 건졌을 것이다.

제92장 용연향

그런데 이 용연향은 무척 기이한 물질이고, 상품으로서 워낙 중요해서 1791년에는 낸터킷 태생의 코핀 선장이라는 사람이 그 문제로 잉글랜드 하원 법정에 불려 나가 심문을 받았다. 그 무렵에도, 그리고 실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용연향의 정확한 기원은 호박(琥 珀) 자체가 그렇듯 학자들에게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앰버그리스(ambergris)라는 낱말은 회색 호박을 뜻하는 프랑스어 합성어일 뿐이지만, 두 물질은 아주 다르다. 호박은 이따금 바닷가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내륙 깊숙한 땅에서도 파내는 데 비해, 용연향은 바다 말고는 결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호박은 단단하고 투명하고 잘 부서지며 냄새가 없는 물질이어서 담뱃대 물부리와 구슬과 장신구에 쓰인다. 그러나 용연향은 부드럽고 밀랍 같으며 향기가 몹시 짙고 향긋해서 향수, 향정(香錠), 값비싼 양초, 머리 분, 머릿기름에 많이 쓰인다. 튀르크 사람들은 그것을 요리에 쓰고,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유향을 가져가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메카에도 가져간다. 어떤 포도주 상인들은 보르도 적포도주에 맛을 내려고 몇 알갱이를 떨어뜨린다.

그렇다면 그런 고귀한 숙녀와 신사 들이 병든 고래의 영광스럽지 못한 창자에서 발견되는 정수로 호사를 누리리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그러나 정말 그렇다. 어떤 이들은 용연향이 고래가 앓는 소화불량의 원인이라고 보고, 어떤 이들은 그 결과라고 본다. 그런 소화불량을

어떻게 고칠지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브랜드레스 환약을 보트 서너 척 분량 먹이고는, 바위를 폭파할 때 일꾼들이 하듯 피해 없는 데로 달아나는 수밖에 없지 않다면.

이 용연향 안에서 단단하고 둥근 뼈 같은 판들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깜박 잊었다. 스터브는 처음에 그것이 선원들의 바지 단추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그렇게 방부 처리된 작은 오징어 뼛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더없이 향기로운 이 용연향의 썩지 않음이 그런 부패의 한복판에서 발견된다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 바울이 썩음과 썩지 않음에 대해 한 말, 곧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기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말을 생각하라.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사향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파라켈수스의 말도 떠올려 보라. 또한 고약한 냄새가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오드콜로뉴가 그 초기 제조 단계에서 가장 고약하다는 기이한 사실도 잊지 말라.

나는 위의 호소로 이 장을 맺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포경선원들에게 자주 가해지는 한 가지 비난을 물리치고 싶어서 안달이 나기 때문이다. 이미 편견에 사로잡힌 몇몇 사람의 판단으로는, 그 비난이 프랑스 배의 두 고래에 대해 한 이야기로 간접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이 책의 다른 곳에서 나는 포경이라는 직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저분하고 칠칠치 못한 일이라는 중상모략을 반박했다. 그러나 반박할 것이 또 하나 있다. 그들은 모든 고래가 언제나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고 넌지시 말한다. 그렇다면 이 가증스러운 오명은 어디서 생겼을까?

내 생각에 그것은 분명 두 세기도 더 전에 그린란드 포경선들이 처음 런던에 들어온 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포경선원들은 남쪽

배들이 늘 해 온 것처럼 바다에서 기름을 졸여 내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싱싱한 지방층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큰 통의 마개 구멍으로 밀어 넣고,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실어 간다. 그 얼음 바다는 철이 짧고 갑작스럽고 사나운 폭풍을 자주 맞으므로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린란드 부두에서 선창을 열고 이 고래 공동묘지 하나를 부릴 때면, 산과 병원의 기초를 놓으려고 도시의 옛 묘지를 파헤칠 때 나는 냄새와 얼마쯤 비슷한 냄새가 풍겨 나온다.

또 나는 포경선원들에 대한 이 고약한 비난이, 옛날 그린란드 해안에 스메렌뷔르흐, 또는 스메렌베르흐라는 네덜란드 마을이 있었던 탓으로도 돌릴 수 있으리라고 얼마쯤 짐작한다. 뒤의 이름은 박식한 포고 폰 슬랙이 냄새에 관한 그의 대작, 곧 그 분야의 교과서에서 쓴 이름이다. 그 이름이 뜻하듯이(스메르는 지방, 베르흐는 넣어 둔다는 뜻), 이 마을은 네덜란드 포경 선단의 지방층을 그 일 때문에 네덜란드 본국까지 실어 가지 않고 졸여 낼 곳을 마련하려고 세워졌다. 그것은 화덕과 지방 솥과 기름 창고를 모아 놓은 곳이었으니, 일이 한창 돌아갈 때는 틀림없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냄새를 풍겼을 것이다. 그러나 남쪽 바다의 향유고래 포경선은 이 모든 것과 아주 다르다. 이 배는 아마 네 해에 걸친 항해에서 선창을 기름으로 가득 채우면서도 기름을 졸여 내는 일에 아마 쉰 날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통에 담긴 상태의 기름은 거의 냄새가 없다. 사실은, 살았든 죽었든 제대로만 다루면 고래는 하나의 종으로서 결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짐승이 아니다. 그리고 중세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섞인 유대인을 냄새로 알아낸다고 우겼듯이 포경선원을 코로 알아볼 수도 없다. 고래는 대개 그토록 튼튼하고, 운동을 넉넉히 하며, 늘 집 밖에 나와 있으니, 사실 바깥 공기 속에 있는 일은 드물지만, 향기롭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단언하건대,

향유고래의 꼬리지느러미가 물 위로 움직이면 향기가 퍼진다. 사향 냄새를 풍기는 숙녀가 따뜻한 응접실에서 옷자락을 사락거릴 때처럼. 그렇다면 그 덩치를 생각할 때 향유고래를 향기로 무엇에 견주어야 할까? 보석 박은 상아를 달고 몰약 향기를 풍기며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기리려고 인도의 한 도시에서 끌려 나온 그 이름난 코끼리에 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93장 표류자

프랑스 배를 만나고 불과 며칠 뒤, 피쿼드호의 선원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더없이 의미심장하고 더없이 슬픈 일이 닥쳤는데, 그 일은 끝내, 때로 미친 듯 흥겹던 이 운명 지어진 배에게, 배 자신의 것이 될지 모를 산산조각 난 결말이 무엇이든 그것을 알리는, 살아서 늘 곁을 따라다니는 예언 하나를 안겨 주었다.

그런데 포경선에서는 누구나 보트를 타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배지기라 불리는 몇 사람은 남겨 두는데, 이들은 보트가 고래를 쫓는 동안 배를 부리는 일을 맡는다. 대개 이 배지기들도 보트 선원들만큼 억센 사내들이다. 그러나 배에 유난히 몸이 가냘프거나 굼뜨거나 겁 많은 녀석이 있으면, 그 녀석은 틀림없이 배지기가 된다. 피쿼드호에서는 별명은 피핀, 줄여서 핍이라 부르는 어린 흑인이 그랬다. 가엾은 핍! 그대는 전에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극적인 한밤에, 그토록 어둡고도 흥겹던 그의 탬버린을 기억할 것이다.

겉모습으로는 핍과 도우보이가 짝을 이루었다. 빛깔은 다르지만 덩치는 같은 검은 조랑말과 흰 조랑말이 별난 한 쌍으로 마차를 끄는 것 같았다. 그러나 불운한 도우보이는 타고나기를 머리가 둔하고 굼떴던 데 비해, 핍은 마음이 지나치게 여리기는 해도 바탕은 아주 영리했다. 그의 종족 특유의 유쾌하고 상냥하고 흥겨운 영리함이었다. 그 종족은 다른 어떤 종족보다 더 멋지고 더 거리낌 없는 흥으로 모든 명절과 잔치를 언제나 즐긴다. 흑인들에게는 한 해의 달력에 365일 내내 7월 4일과

설날만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어린 흑인이 빛났다고 내가 쓴다고 해서 그렇게 웃지 말라. 검은빛에도 그 나름의 광채가 있기 때문이다. 왕들의 장식장에 판으로 박아 넣은 저 윤기 흐르는 흑단을 보라. 그러나 핍은 삶을, 그리고 삶의 온갖 평화로운 안전을 사랑했다. 그래서 어쩌다 영문도 모르게 말려든 이 공포에 질리게 하는 일 때문에 그의 영리함은 몹시 슬프게도 흐려져 있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보게 되듯, 이렇게 그 안에서 잠시 억눌린 것은 끝내 기이하고 사나운 불길에 섬뜩하게 비추어질 운명이었다. 그 불길은 그가 고향인 코네티컷주 톨랜드 군에서 풀밭 위 바이올린 장단의 흥겨운 놀이를 숱하게 신명 나게 하고, 노랫소리 그윽한 저녁이면 흥겨운 하하! 웃음으로 둥근 지평선을 별 방울 단 탬버린 하나로 바꾸어 놓던 그 타고난 광채의 열 배로 그를 거짓되이 빛나 보이게 했다. 그렇게, 맑은 낮 공기 속에서 파란 핏줄이 비치는 목에 걸린, 물 맑은 다이아몬드 귀고리는 건강하게 빛난다. 그러나 노련한 보석상이 다이아몬드를 가장 인상 깊은 광채로 보여 주려 할 때는, 그것을 어두운 바탕에 놓고 해가 아니라 어떤 부자연스러운 가스 불로 비춘다. 그러면 지옥처럼 화려한 불같은 광휘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한때 수정 같은 하늘의 가장 신성한 상징이던, 사악하게 이글거리는 그 다이아몬드는 지옥의 왕에게서 훔쳐 온 왕관 보석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런데 용연향 일 때 스터브 보트의 맨 뒤 노잡이가 공교롭게도 손을 삐어서 한동안 손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임시로 핍이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스터브가 처음 핍을 데리고 보트를 내렸을 때 핍은 몹시 떨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때는 고래에게 바짝 다가갈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다지 망신을 당하지 않고 돌아왔다. 그래도 그를 지켜본 스터브는

나중에 그에게 용기를 최대한 아끼라고 일러두었다.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자주 있을 테니까.

그런데 두 번째 보트 내리기 때 보트는 고래에게 노를 저어 다가갔다. 그리고 고래가 날아온 작살을 맞자, 고래는 늘 하듯 보트 밑바닥을 탁 쳤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마침 가엾은 핍의 자리 바로 밑이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질겁한 핍은 노를 손에 쥔 채 보트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바람에 느슨한 작살줄 일부가 그의 가슴에 걸렸고, 그는 그것을 가슴으로 밀며 함께 뱃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마침내 물에 풍덩 빠졌을 때 그 줄에 엉키고 말았다. 그 순간 작살 맞은 고래가 사납게 내달리기 시작했고, 작살줄이 재빨리 팽팽해졌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가엾은 핍은 온통 거품을 뒤집어쓴 채 보트의 줄받이까지 끌려 올라왔다. 그의 가슴과 목을 여러 번 감은 작살줄이 그를 거기까지 무자비하게 끌어당긴 것이다.

태시테고는 이물에 서 있었다. 그는 사냥의 불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핍을 겁쟁이라고 미워했다. 그는 칼집에서 보트 칼을 뽑아 그 날카로운 날을 작살줄 위에 들고서, 스터브 쪽으로 돌아서며 묻듯이 외쳤다. "끊을까요?" 그러는 동안 숨이 막혀 새파래진 핍의 얼굴이 제발, 끊어 주세요! 하고 뚜렷이 말하고 있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3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빌어먹을 녀석, 끊어라!" 스터브가 고함쳤다. 그래서 고래는 놓쳤고 핍은 살았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가엾은 어린 흑인에게 선원들의 고함과 욕설이 쏟아졌다. 스터브는 이 제멋대로의 욕설이 잠잠해지도록 차분히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는 수수하고 사무적인, 그러나 여전히 반쯤은 익살맞은 투로 핍을 공식적으로 꾸짖었다. 그 일이 끝나자 비공식적으로 그에게 이로운 충고를 잔뜩 해 주었다. 그 요지는 이랬다. 절대 보트에서

뛰어내리지 마라, 핍, 다만……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흐릿했다. 가장 건전한 충고가 늘 그렇듯이. 그런데 대개 포경에서는 *보트에 붙어 있어라*가 참된 좌우명이다. 그러나 때로는 *보트에서 뛰어내려라*가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생긴다. 게다가 핍에게 물 타지 않은 양심적인 충고를 해 주면 앞으로 그가 뛰어내릴 여지를 너무 넓게 남겨 주게 되리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기라도 한 듯, 스터브는 갑자기 충고를 다 집어치우고 단호한 명령으로 맺었다. "보트에 붙어 있어라, 핍. 맹세코 네가 뛰어내리면 다시는 안 건져 준다. 명심해라. 너 같은 녀석 때문에 고래를 놓칠 여유는 없다. 앨라배마에서라면 고래 한 마리가 너보다 서른 배는 비싸게 팔린다, 핍. 그걸 명심하고 다시는 뛰어내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스터브는 아마 간접적으로 이런 뜻을 비쳤을 것이다. 사람은 제 이웃을 사랑하지만 사람은 돈 버는 동물이기도 하고, 그 성향이 너무나 자주 그의 자비심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신들의 손안에 있다. 그리고 핍은 또 뛰어내렸다. 첫 번째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작살줄을 가슴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고래가 내달리기 시작하자 핍은 서두르는 나그네의 트렁크처럼 바다 위에 남겨졌다. 아아! 스터브는 제 말을 너무나 잘 지켰다. 아름답고 너그러운 파란 날이었고, 반짝이 박힌 바다는 잔잔하고 서늘하게, 금박장이가 더할 수 없이 얇게 두들겨 편 금박 가죽처럼 사방으로 수평선까지 판판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바다 위에서 까딱까딱 오르내리는 핍의 흑단 같은 머리는 정향 한 송이 같아 보였다. 그가 그토록 빠르게 고물 뒤로 처질 때 보트 칼은 들리지 않았다. 스터브의 냉혹한 등은 그를 향해 돌려져 있었다. 그리고 고래에게는 날개가 돋쳐 있었다. 3분 만에 기슭 없는 대양의 꼬박 1마일이 핍과 스터브 사이에 놓였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가엾은 핍은

바삭바삭하게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를 해 쪽으로 돌렸다. 또 하나의 외로운 표류자였다. 가장 높고 가장 밝은 표류자이기는 했지만.

그런데 잔잔한 날씨에 너른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은, 익숙한 헤엄꾼에게는 뭍에서 용수철 달린 마차를 타는 것만큼이나 쉽다. 그러나 그 지독한 외로움은 견딜 수가 없다. 그토록 무정하고 끝없는 넓이 한가운데서 자아가 강렬하게 한 점으로 오그라드는 것, 맙소사!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으랴? 보라, 바람 한 점 없을 때 선원들이 너른 바다에서 멱을 감을 때면, 보라, 그들이 얼마나 바짝 배에 붙어서 배 옆구리를 따라서만 헤엄치는지.

그러나 스터브가 정말로 가엾은 어린 흑인을 그의 운명에 내맡겨 버렸을까? 아니다. 적어도 그럴 생각은 없었다. 그의 뒤에 보트 두 척이 따라오고 있었고, 그는 틀림없이 그 보트들이 당연히 곧 핍에게 다가가 그를 건져 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기야 제 겁 때문에 위험에 빠진 노잡이를 그렇게 배려하는 일을 모든 비슷한 경우에 사냥꾼들이 늘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포경업에서는 이른바 겁쟁이가 거의 어김없이, 해군과 육군 특유의 바로 그 무자비한 혐오의 낙인을 받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보트들은 핍을 보지 못한 채 갑자기 한쪽 가까이에서 고래들을 발견하고 방향을 돌려 쫓아갔다. 그리고 스터브의 보트는 이제 워낙 멀리 가 있었고, 그와 그의 선원들은 모두 제 고래에 워낙 정신이 팔려 있어서, 핍을 둘러싼 지평선의 고리는 그의 둘레에서 비참하게 넓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순전한 우연으로 배 자신이 그를 구해 냈지만, 그때부터 그 어린 흑인은 바보가 되어 갑판을 돌아다녔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다. 바다는 비웃듯이 그의 유한한 몸은 떠받쳐 두었지만, 그의 영혼의 무한은 물에 빠뜨려 버렸다. 그러나 완전히 빠뜨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산 채로 놀라운 깊은

곳까지 데려갔다고 해야 하리라. 거기서는 뒤틀리지 않은 태초 세계의 기이한 형상들이 그의 넋 나간 눈앞을 이리저리 미끄러져 다녔고, 지혜라는 구두쇠 인어가 쌓아 둔 보물 더미를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기쁘고 무정하고 영원히 젊은 영원들 사이에서 핍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호충들이 물의 창공에서 거대한 천체들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베틀의 발판을 밟는 하나님의 발을 보았고, 그것을 말했다. 그래서 그의 동무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그렇게 인간의 광기는 하늘의 분별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승의 모든 이성에서 벗어나 헤매다가 마침내 이성에게는 터무니없고 미친 것인 그 천상의 생각에 이르고, 복이든 화든, 그때 그는 굽힘 없이, 그의 하나님처럼 무심하게 느낀다.

그 밖의 일로는 스터브를 너무 심하게 탓하지 말라. 그 포경업에서는 흔한 일이다. 그리고 이야기의 뒷부분에 이르면, 그때 나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버림받음이 닥쳤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제94장 손을 쥐다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스터브의 고래는 제대로 피쿼드호 옆에 끌려왔고, 앞서 자세히 적은 해체하고 끌어 올리는 작업이 모두 순서대로 치러졌다. 하이델베르크의 큰 술통, 곧 머릿기름통을 퍼내는 일까지 빠짐없이.

몇몇이 이 마지막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경랍이 차는 대로 큰 통들을 끌어다 옮기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로 이 경랍을 기름 솥에 넣기 전에 정성껏 손으로 주물렀다. 기름 솥 이야기는 곧 하겠다.

경랍은 어찌나 식어서 굳었던지, 내가 다른 몇 사람과 함께 그것이 담긴 콘스탄티누스의 욕조만 한 큰 통 앞에 앉았을 때 보니, 경랍은 이상하게 엉겨 덩어리가 져서 묽은 부분 여기저기를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 덩어리들을 다시 짜서 액체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 일이었다. 달콤하고 미끈한 일이었다! 옛날에 이 경랍이 그토록 사랑받는 화장품이었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얼마나 맑게 해 주고, 이 얼마나 향긋하게 해 주고, 이 얼마나 부드럽게 해 주는가! 이 얼마나 감미롭게 누그러뜨려 주는가! 고작 몇 분 손을 담그고 있었을 뿐인데 내 손가락은 뱀장어가 된 듯했고, 말하자면 뱀처럼 꿈틀거리고 배배 꼬이기 시작했다.

양묘기에서 고되게 용을 쓴 뒤라 갑판에 편히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을 때, 파랗고 고요한 하늘 아래 배가 게으르게 돛을 달고 그토록

평온하게 미끄러져 갈 때, 거의 한 시간 안에 짜이다시피 한, 스며든 조직의 그 부드럽고 순한 알갱이들 사이에 손을 담그고 있을 때, 잘 익은 포도가 포도주를 쏟아 내듯 알갱이들이 내 손가락에 닿아 기름지게 터지며 제 풍요를 모두 쏟아 낼 때, 문자 그대로 참으로 봄 제비꽃 향기 같은 그 더럽혀지지 않은 향기를 들이마실 때, 단언하건대 그동안 나는 사향 풀밭에 사는 듯했다. 나는 우리의 그 끔찍한 맹세를 까맣게 잊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경랍 속에서 나는 그 맹세로부터 내 손과 내 마음을 씻어 냈다. 경랍이 분노의 열을 가라앉히는 데 드문 효험이 있다는 파라켈수스의 옛 미신을 나는 거의 믿기 시작했다. 그 욕조에 손을 담그고 있는 동안 나는 온갖 악의와 짜증과 앙심, 그 어떤 종류의 것으로부터도 거룩하게 풀려난 기분이었다.

짜라! 짜라! 짜라! 아침 내내. 나 자신이 거의 그 속에 녹아들 때까지 나는 그 경랍을 짰다. 이상한 광기 같은 것이 나를 덮칠 때까지 나는 그 경랍을 짰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동료 일꾼들의 손을 쥐어짜고 있었다. 그들의 손을 그 순한 알갱이로 잘못 안 것이다. 이 일은 어찌나 넘치도록 다정하고 정답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불러일으켰던지, 마침내 나는 줄곧 그들의 손을 쥐어짜며 감상에 젖어 그들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이렇게 말하려는 듯이. 오! 사랑하는 나의 동포들이여, 우리가 어째서 더는 사회의 쓰라린 앙금을 품고, 아주 작은 언짢음이나 시샘이라도 알아야 한단 말인가! 자, 다 함께 서로 손을 쥐자. 아니, 우리 모두 서로의 몸속으로 짜 넣자. 인정이라는 바로 그 젖과 경랍 속으로 우리 자신을 남김없이 짜 넣자.

영원히 그 경랍을 짜고 있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제 나는 오래 되풀이된 숱한 경험으로, 사람은 어느 경우에나 결국 손에 넣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제 생각을 낮추거나 적어도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성이나 공상 어디에도 두지 말고, 아내,

마음, 잠자리, 식탁, 안장, 난롯가, 시골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지금, 나는 영원히 머릿기름통을 짤 준비가 되어 있다. 밤의 환상을 생각하다가, 나는 낙원에 길게 줄지어 선 천사들을 보았다. 저마다 경랍 단지에 두 손을 담그고 있었다.

이제 경랍 이야기를 하는 김에, 향유고래를 기름 솥에 넣을 채비를 하는 일에서 경랍과 비슷한 다른 것들도 이야기해 두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이른바 흰 말이라는 것이 있다. 고래의 몸이 가늘어지는 부분과 꼬리지느러미의 두꺼운 부분에서 얻는다. 엉긴 힘줄로 질기고, 근육 뭉치인데도, 여전히 기름이 얼마쯤 들어 있다. 흰 말은 고래에서 잘라 낸 뒤 저미는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들고 다닐 만한 길쭉한 덩이로 썬다. 그것들은 버크셔 대리석 덩이와 무척 닮았다.

자두 푸딩은 고래 살의 어떤 조각들에 붙인 이름이다. 지방층 담요 여기저기에 들러붙어 있고, 흔히 그 기름기를 꽤 많이 나눠 가진다. 바라보기에 더없이 상쾌하고 흥겹고 아름다운 물건이다. 이름이 말해 주듯 빛깔이 지극히 풍성하고 얼룩덜룩하다. 눈처럼 희고 금빛 나는 바탕에 줄무늬가 지고, 가장 짙은 진홍과 자줏빛 점이 박혀 있다. 시트론 그림 속의 루비 자두다. 이성을 거슬러서라도 먹지 않고 참기는 어렵다. 고백하건대 한번은 앞돛대 뒤로 몰래 숨어 들어가 맛을 보았다. 뚱보왕 루이의 넓적다리에서 떼어 낸 왕의 커틀릿이 이런 맛이었으리라고 나는 상상한다. 그 왕이 사슴 사냥 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잡혔고, 그 사슴 사냥 철이 마침 샹파뉴 포도밭에 유난히 좋은 포도주가 난 해와 겹쳤다고 친다면 말이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나오는 또 다른 물질이 있는데, 아주 별난 것이어서 제대로 묘사하기가 무척 곤란하다. 슬롭골리언이라고 한다. 포경선원들이 처음 지어낸 이름인데, 그 물질의 본성도 그만큼 별나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질척하고 실처럼 늘어지는 물건으로, 경랍을 오래

짜고 나서 따라 낸 뒤의 경랍 통에서 가장 자주 발견된다. 나는 그것을 머릿기름통의 놀랍도록 얇은 막이 터져서 한데 엉긴 것으로 본다.

이른바 거리는 본디 참고래 포경선원들의 말이지만, 향유고래 잡는 이들도 이따금 어쩌다 쓴다. 그린란드고래, 곧 참고래의 등에서 긁어 낸 검고 끈적한 물질을 가리킨다. 그 천한 리워야단을 사냥하는 열등한 영혼들의 갑판은 대부분 그것으로 덮인다.

니퍼.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고래 어휘에서 태어난 말이 아니다. 그러나 포경선원들이 쓰면 고래 말이 된다. 포경선원의 니퍼는 리워야단의 꼬리가 가늘어지는 부분에서 잘라 낸, 힘줄 많은 짧고 단단한 띠다. 두께는 평균 1인치쯤이고, 나머지는 괭이의 쇠 부분만 하다. 기름투성이 갑판 위에서 모서리로 밀고 가면 가죽 갑판 밀대처럼 일하고, 마법 같은 이름 없는 아양으로 온갖 더러운 것을 함께 꾀어 간다.

그러나 이 알쏭달쏭한 일들을 죄다 알고 싶다면, 가장 좋은 길은 당장 지방층 방으로 내려가 거기 사는 이들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곳은 고래에서 벗겨 끌어 올린 담요 조각들을 넣어 두는 곳으로 앞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 안의 것을 썰 때가 오면, 이 방은 모든 풋내기에게, 특히 밤에는, 공포의 무대가 된다. 한쪽에는 흐릿한 등잔이 비추는 가운데 일꾼들을 위해 빈자리를 남겨 둔다. 일꾼들은 대개 둘씩 짝을 짓는다. 창과 갈고리를 쥔 사람 하나, 삽을 쥔 사람 하나. 포경 창은 프리깃함에서 적선에 오를 때 쓰는 같은 이름의 무기와 비슷하다. 갈고리는 보트 갈고리와 좀 닮았다. 갈고리잡이는 갈고리로 지방층 한 장을 걸어, 배가 앞뒤로 기우뚱거리고 옆으로 휘청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려 애쓴다. 그동안 삽잡이는 그 지방층 위에 올라서서, 그것을 들고 다닐 만한 말 조각으로 수직으로 내리찍어 썬다. 이 삽은 숫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날카롭다. 삽잡이의 발은 맨발이다. 그가 딛고 선 것은

이따금 썰매처럼 어쩔 도리 없이 그에게서 미끄러져 달아난다. 그가 제 발가락 하나를, 아니면 조수의 발가락 하나를 잘라 낸다 한들, 몹시 놀라겠는가? 지방층 방의 고참들에게는 발가락이 귀하다.

제95장 사제복

고래를 이렇게 사후 해부하던 어느 대목에 피쿼드호에 올라 양묘기 가까이 앞쪽으로 거닐어 보았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적잖은 호기심을 품고 아주 이상하고 수수께끼 같은 물건 하나를 살펴보았으리라. 바람 불어 가는 쪽 배수구에 길게 누워 있는 그 물건을. 고래의 거대한 머리에든 놀라운 저수조도, 경첩이 풀린 아래턱의 경이도, 좌우가 꼭 맞는 꼬리의 기적도, 그 어느 것도 그 알 수 없는 원뿔을 반쯤 언뜻 보는 것만큼 당신을 놀라게 하지는 못하리라. 그것은 켄터키 사람의 키보다 길고, 밑동 지름이 1피트 가까우며, 퀴퀘그의 흑단 우상 요조처럼 새까맸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우상이다. 아니, 옛날에는 그것을 본뜬 것이 우상이었다. 유다의 마아가 왕비의 은밀한 숲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우상 말이다. 그 우상을 섬긴 탓에 왕비의 아들 아사왕은 왕비를 폐위하고, 그 우상을 부수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가증한 것으로 불살랐다. 열왕기상 15장에 어둡게 적혀 있는 그대로.

저미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선원을 보라. 그는 지금 다가와서 두 동료의 도움을 받아 뱃사람들이 그랜디시머스라고 부르는 그것을 무겁게 등에 지고, 어깨를 구부린 채 비틀거리며 떠나간다. 마치 싸움터에서 죽은 전우를 업어 나르는 척탄병 같다. 그는 그것을 앞갑판 위에 길게 펼쳐 놓고, 이제 아프리카 사냥꾼이 보아뱀의 가죽을 벗기듯 원통째로 그 검은 가죽을 벗겨 낸다. 그러고 나면 그 가죽을 바짓가랑이처럼 뒤집어, 지름이 거의 두 배가 되도록 한껏 잡아 늘이고,

마침내 잘 펴서 삭구에 걸어 말린다. 얼마 뒤 그것을 걷어 내리면, 뾰족한 끝 쪽으로 3피트쯤을 잘라 내고 다른 쪽 끝에 팔을 낼 구멍 두 개를 짼 다음, 그 속으로 온몸을 세로로 미끄러뜨려 넣는다. 이제 저미는 사람은 제 직분의 정식 제의를 갖춰 입고 당신 앞에 선다. 그의 계층에게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온 이 서품의 옷만이 그가 제 직무의 특별한 소임을 다하는 동안 그를 제대로 지켜 준다.

그 직무란 지방층의 말 조각들을 가마솥에 넣도록 저미는 일이다. 이 일은 뱃전에 한쪽 끝을 대고 세운 기묘한 나무 말 위에서 한다. 그 밑에는 널찍한 통이 있어서, 저민 조각들이 열변을 토하는 연설가의 책상에서 원고가 떨어지듯 빠르게 그 속으로 떨어진다. 점잖은 검은 옷을 차려입고, 눈에 띄는 설교단을 차지하고, 성경 책장에 골몰하고 있으니, 이 저미는 사람이야말로 대주교 후보감이요, 교황감인 젊은이가 아니겠는가![1]

---

1. 성경 책장! 성경 책장! 항해사들이 저미는 사람에게 늘 외치는 소리다. 조심해서 되도록 얇게 썰라는 다그침이다. 그렇게 하면 기름을 끓여 내는 일이 훨씬 빨라지고 기름의 양도 꽤 늘며, 어쩌면 질까지 좋아지기 때문이다.

제96장 기름 솥

미국 포경선은 매달아 올린 보트 말고도 기름 솥으로 겉모습이 남다르다. 가장 단단한 벽돌 쌓기가 참나무와 삼밧줄과 어울려 한 척의 배를 이룬다는, 기묘하게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마치 들판의 벽돌 가마를 통째로 떠다가 배의 널빤지 위에 옮겨 놓은 것 같다.

기름 솥은 앞돛대와 큰돛대 사이, 갑판에서 가장 넓은 자리에 앉혀 있다. 그 밑의 목재는 유난히 튼튼해서, 가로세로 10피트에 8피트, 높이 5피트쯤 되는, 거의 통짜인 벽돌과 회반죽 덩어리의 무게를 견디도록 되어 있다. 기초는 갑판을 뚫고 들어가지 않지만, 벽돌 쌓기는 육중한 쇠 무릎판들로 갑판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무릎판들이 사방에서 버티며 그것을 목재에 나사로 죄어 붙인다. 옆구리는 나무로 싸여 있고, 위는 커다란 비탈진 널빤지 승강구 뚜껑이 온통 덮고 있다. 이 뚜껑을 걷어 내면 커다란 기름 가마솥 두 개가 드러나는데, 저마다 몇 배럴씩 들어간다. 쓰지 않을 때에는 놀랄 만큼 깨끗하게 둔다. 이따금 활석과 모래로 문질러 닦아, 안쪽이 은으로 된 펀치 사발처럼 반짝이게 한다. 밤 당직 동안에는 세상을 비웃는 늙은 뱃사람 몇이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가 몸을 사리고 한잠 잔다. 그것들을 닦는 동안, 가마솥마다 한 사람씩 나란히 들어가서, 쇠 입술 너머로 은밀한 이야기를 숱하게 주고받는다. 그곳은 또 깊은 수학적 명상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내가 처음으로, 기하학에서 사이클로이드를 따라 미끄러지는 모든 물체는, 이를테면 내 활석은,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든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내려온다는 놀라운

사실에 에둘러 깨우침을 얻은 것도 피쿼드호의 왼쪽 기름 가마솥 안에서였다. 활석이 내 둘레를 부지런히 돌고 있을 때였다.

기름 솥 앞쪽의 화덕 가림판을 떼어 내면 그쪽 면의 맨 벽돌이 드러나고, 가마솥 바로 밑으로 화덕의 쇠 아가리 두 개가 뚫려 있다. 이 아가리에는 무거운 쇠문이 달려 있다. 불의 맹렬한 열기가 갑판으로 옮겨 가지 않도록, 기름 솥의 둘러싸인 바닥 전체 밑으로 얕은 물탱크가 뻗어 있다. 뒤쪽에 꽂은 관을 통해 이 물탱크에는 물이 증발하는 대로 곧바로 다시 채워진다. 바깥으로 낸 굴뚝은 없다. 연기는 뒷벽에서 곧장 빠져나간다. 그럼 여기서 잠시 되돌아가 보자.

피쿼드호의 기름 솥에 이번 항해에서 처음 불을 붙인 것은 밤 아홉 시쯤이었다. 그 일을 감독하는 것은 스터브의 몫이었다.

"거기 다 됐나? 그럼 뚜껑 열고 시작해라. 요리사, 화덕에 불 붙여." 이것은 쉬운 일이었다. 항해하는 내내 목수가 대팻밥을 화덕에 쑤셔 넣어 두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해 두자면, 포경 항해에서 기름 솥에 처음 피우는 불은 한동안 나무로 지펴야 한다. 그 뒤로는 본 연료에 불을 빨리 붙이는 데 말고는 나무를 쓰지 않는다. 한마디로, 기름을 끓여 낸 뒤의 바삭하게 쪼그라든 지방층, 이제는 찌꺼기나 튀김이라 부르는 그것에도 기름기가 꽤 남아 있다. 이 튀김이 불길을 먹여 살린다. 피가 넘치는 몸으로 불타는 순교자처럼, 아니면 저 자신을 태워 없애는 염세가처럼, 고래는 한번 불이 붙으면 제 연료를 스스로 대며 제 몸으로 탄다. 제 연기까지 스스로 삼켜 주면 좋으련만! 그 연기는 들이마시기 끔찍한데, 들이마시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은 그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연기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납고 힌두교도다운 냄새가 난다. 화장터 장작더미 가까이에 감돌 법한 냄새다. 최후 심판의 날 왼쪽 날개 같은 냄새가 나니, 그것은 지옥 구덩이가 있다는 논증이다.

자정 무렵에는 기름 솥이 한창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고래 시체에서 떨어져 나왔고, 돛을 올렸고, 바람이 거세지고 있었으며, 사나운 바다의 어둠은 짙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사나운 불길이 핥아 삼켰다. 불길은 그을음 낀 연통에서 이따금 갈래져 뻗어 나와, 저 이름난 그리스 불처럼 삭구의 높다란 밧줄을 하나하나 환히 비추었다. 불타는 배는 무슨 복수라도 하러 무자비하게 보내진 것처럼 내달렸다. 대담한 히드라 섬 사람 카나리스의 역청과 유황을 실은 쌍돛배들도 그렇게, 넓은 불꽃 자락을 돛 삼아 한밤의 항구에서 나와 튀르크 프리깃함들에 덮쳐 들어 불길로 감싸 버렸다.

기름 솥 꼭대기에서 걷어 낸 뚜껑은 이제 그 앞에 넓은 화덕 바닥이 되어 주었다. 그 위에 이교도 작살잡이들의 지옥 같은 모습이 서 있었다. 그들은 늘 포경선의 화부였다. 그들은 커다란 갈래 진 장대로 쉭쉭거리는 지방층 덩어리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거나 밑의 불을 휘저었고, 그러면 뱀 같은 불길이 화덕 문에서 굽이치며 튀어나와 그들의 발을 낚아채려 했다. 연기는 시무룩한 무더기로 굴러갔다. 배가 기우뚱할 때마다 끓는 기름도 기우뚱했는데, 기름은 그들의 얼굴로 뛰어오르고 싶어 안달하는 듯했다. 기름 솥 아가리 맞은편, 넓은 나무 화덕 바닥 저쪽에는 양묘기가 있었다. 이것이 바다의 소파 노릇을 했다. 따로 할 일이 없을 때면 당직 선원들이 여기 늘어져서 불의 붉은 열기를 들여다보았다. 눈이 머릿속에서 그을리는 것 같을 때까지. 이제 연기와 땀으로 온통 꾀죄죄해진 그들의 황갈색 얼굴, 엉겨 붙은 수염, 그와 대조되는 야만스러운 이의 번쩍임, 이 모든 것이 기름 솥의 변덕스러운 불빛 속에 기이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서로에게 불경한 모험담을, 웃음 섞인 말로 하는 공포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들의 문명되지 않은 웃음이 화덕의 불길처럼 갈래져 그들에게서 솟아오를 때, 그들 앞에서 작살잡이들이 커다란 갈래 진 쇠스랑과 국자를 들고 이리저리 사납게

몸짓할 때, 바람이 울부짖고 바다가 뛰어오르고 배가 신음하며 곤두박질치면서도 붉은 지옥을 바다와 밤의 어둠 속으로 더 멀리, 더 멀리 꿋꿋이 쏘아 보내고, 입에 문 흰 뼈를 비웃듯 씹으며 사방으로 사납게 침을 뱉을 때, 그때 야만인들을 싣고 불을 싣고 시체를 태우며 그 캄캄한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질주하는 피쿼드호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 그 배 선장의 영혼이 물질로 나타난 짝처럼 보였다.

키를 잡고 서서, 오랜 시간 말없이 이 불붙은 배의 바닷길을 이끌던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동안 나 자신은 어둠에 싸여 있었기에, 다른 이들의 붉음, 광기, 끔찍함을 그만큼 더 잘 보았다. 반은 연기 속에서 반은 불 속에서 날뛰는 내 앞의 악마 같은 형상들을 줄곧 보고 있자니, 마침내 내 영혼에도 그와 닮은 환영들이 생겨났다. 한밤에 키를 잡고 있으면 늘 나를 덮치던 그 알 수 없는 졸음에 내가 굴복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러나 특히 그날 밤, 이상한(그리고 그 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 선 채로 잠깐 잠들었다가 퍼뜩 깨어났을 때, 나는 무언가 치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끔찍하게 느꼈다. 고래 턱뼈로 만든 키 손잡이가 거기 기대고 있던 내 옆구리를 쳤다. 귀에는 바람에 막 흔들리기 시작한 돛들의 낮은 웅웅거림이 들렸다. 나는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다. 손가락을 눈꺼풀에 대고 기계적으로 더 크게 벌리고 있다는 것을 반쯤 의식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는 보고 키를 잡을 나침반이 보이지 않았다. 나침반을 비추는 흔들림 없는 나침함 등불 아래서 방위판을 지켜보고 있던 것이 겨우 1분 전 같았는데도. 내 앞에는 새카만 어둠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듯했고, 그 어둠은 이따금 붉은 번쩍임으로 끔찍해졌다. 무엇보다 강한 느낌은, 내가 딛고 선 이 무엇인지 모를 재빠르게 질주하는 것이 앞쪽의 어느 항구를 향해 가는 것이라기보다 뒤쪽의 모든 항구로부터 달아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죽음 같은, 앙상하고 얼떨떨한 느낌이 나를 덮쳤다. 내 손은 경련하듯 키 손잡이를 움켜쥐었지만, 키 손잡이가 어찌 된 셈인지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듯 거꾸로 뒤집혔다는 미친 생각이 들었다. 맙소사!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생각했다. 보라! 그 짧은 잠결에 나는 몸을 돌려, 뱃머리와 나침반을 등지고 배의 고물을 마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순식간에 다시 몸을 돌렸다. 배가 바람 쪽으로 머리를 쳐들고 날아올라 십중팔구 뒤집히기 직전에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 밤의 이 부자연스러운 환각과, 바람 아래로 돌려져 버릴 뻔한 치명적인 사고에서 놓여나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마웠던지!

사람아, 불의 얼굴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말라! 키에 손을 얹은 채 결코 꿈꾸지 말라! 나침반에 등을 돌리지 말라. 키 손잡이가 덜컥거리는 첫 기미를 받아들여라. 인공의 불이 그 붉음으로 모든 것을 끔찍하게 보이게 할 때 그 불을 믿지 말라. 내일 자연의 해 아래서는 하늘이 맑으리라. 갈래 진 불길 속에서 악마처럼 눈을 부라리던 자들도, 아침이 오면 아주 다른, 적어도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리라. 영광스럽고 금빛 나는 기쁜 해, 유일한 참된 등불이여. 다른 것은 모두 거짓말쟁이일 뿐!

그렇지만 해는 버지니아의 음침한 늪도, 로마의 저주받은 캄파냐도, 너른 사하라도, 달 아래 펼쳐진 수백만 마일의 사막과 슬픔도 모두 감추지 못한다. 해는 바다를 감추지 못한다. 바다는 이 지구의 어두운 쪽이고, 이 지구의 3분의 2다. 그러므로 제 안에 슬픔보다 기쁨이 더 많은 유한한 인간, 그런 인간은 참될 수 없다. 참되지 않거나, 아니면 덜 자란 것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참된 이는 슬픔의 사람이었고,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참된 책은 솔로몬의 책이며, 전도서는 잘 두드려 벼린 비애의 강철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이 고집 센 세상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솔로몬의 지혜를 붙잡지 못했다.

그러나 병원과 감옥을 피해 다니고, 묘지를 지날 때면 걸음을 재촉하며, 지옥보다는 오페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쿠퍼, 영, 파스칼, 루소를 모두 병든 가엾은 인간들이라 부르며, 걱정 없는 평생 동안 라블레를 더없이 지혜롭고 그래서 유쾌한 사람이라고 떠받드는 자, 그런 자는 묘비에 걸터앉아 헤아릴 길 없이 경이로운 솔로몬과 함께 축축한 푸른 곰팡이를 헤쳐 볼 자격이 없다.

그러나 솔로몬마저도 말한다. "슬기의 길에서 벗어나 헤매는 사람은" (곧 살아 있는 동안에도) "죽은 자들의 무리 가운데 머물리라." 그러니 너 자신을 불에 내맡기지 말라. 불이 너를 뒤집고 너를 죽은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그때 불이 내게 그랬듯이. 비애인 지혜가 있다. 그러나 광기인 비애도 있다. 그리고 어떤 영혼에는 캐츠킬의 독수리가 있어서, 가장 캄캄한 골짜기로 똑같이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다시 솟아올라 햇빛 가득한 허공에서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영원히 골짜기 안에서만 날아다닌다 해도, 그 골짜기는 산속에 있다. 그러니 가장 낮게 덮쳐 내려갈 때조차, 산의 독수리는 평원의 다른 새들보다 여전히 더 높다. 그 새들이 아무리 높이 솟아오른다 해도.

제97장 등잔

피쿼드호의 기름 솥에서 피쿼드호의 앞갑판 선원실로, 당직이 아닌 선원들이 잠든 그곳으로 내려가 보았다면, 당신은 단 한순간 시성(諡聖)된 왕들과 고문관들을 모신 불 밝힌 사당에 서 있다고 거의 생각했으리라. 거기 그들은 세모난 참나무 납골실에 누워 있었다. 선원 하나하나가 끌로 새긴 침묵이었고, 스무 개의 등잔이 그의 두건 쓴 눈 위에 번쩍였다.

상선에서는 선원에게 등잔 기름이 왕비의 젖보다 귀하다.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어둠 속에서 먹고,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제 짚자리로 가는 것이 그의 흔한 처지다. 그러나 포경선원은 빛의 양식을 찾아다니듯 빛 속에서 산다. 그는 제 침상을 알라딘의 등잔으로 만들고 그 속에 몸을 눕힌다. 그래서 가장 캄캄한 밤에도 배의 검은 선체는 여전히 불빛을 품고 있다.

보라, 포경선원은 얼마나 거리낌 없이 한 움큼의 등잔을, 그나마 흔히는 낡은 병과 약병일 뿐인 것들을 들고 기름 솥의 구리 냉각통으로 가서, 술통에서 에일 잔을 채우듯 거기서 그것들을 다시 채우는지. 게다가 그는 가장 순수한 기름을 태운다. 가공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의 기름, 뭍의 태양등, 월광등, 성광등 같은 장치들은 알지 못하는 액체다. 그것은 4월에 갓 돋은 풀을 먹고 짠 버터처럼 달다. 대초원의 나그네가 제 저녁거리 사냥감을 손수 잡듯이,

그는 기름이 싱싱하고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몸소 나가서 제 기름을 사냥한다.

제98장 기름 싣기와 뒷정리

거대한 리워야단을 어떻게 돛대 꼭대기에서 멀리 알아보는지, 어떻게 물로 된 황야를 가로질러 쫓아가 깊은 바다의 골짜기에서 도살하는지, 어떻게 그다음 배 옆으로 끌어와 목을 베는지, 그리고 (옛날 망나니가 목 베인 자가 죽을 때 입고 있던 옷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다는 원칙에 따라) 어떻게 놈의 두툼하게 솜 둔 큰 외투가 그 처형자의 차지가 되는지, 어떻게 때가 되면 놈이 가마솥에 처해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놈의 경랍과 기름과 뼈가 상처 하나 없이 불을 지나가는지는 이미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이 묘사 대목의 마지막 장을 맺는 일이다. 놈의 기름을 통에 따라 담아 선창으로 내려 싣는 낭만적인 과정을 되풀이해 들려주는 일,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노래하는 일 말이다. 그곳에서 리워야단은 다시 한 번 제 고향의 깊은 곳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수면 밑으로 미끄러져 다닌다. 그러나 아아! 다시는 떠올라 물을 뿜지 못하리라.

기름은 아직 따뜻할 때 뜨거운 펀치처럼 6배럴짜리 통에 받아 담는다. 그리고 한밤의 바다에서 배가 아마 이리저리 앞뒤로 기우뚱거리고 옆으로 구르는 동안, 그 거대한 통들을 빙 돌리고 끝과 끝을 뒤집어 엎는다. 통들은 이따금 미끄러운 갑판을 가로질러 산사태처럼 아슬아슬하게 내달리다가, 마침내 사람들 손에 붙들려 멈춘다. 그리고 테두리마다 빙 둘러 망치가 칠 수 있는 대로 많이 달려들어 탕, 탕 두드린다. 이제는 *직무상* 모든 선원이 통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마지막 한 파인트까지 통에 담기고 모든 것이 식으면, 커다란 승강구가 열리고 배의 창자가 활짝 드러나며, 통들은 바다 속 마지막 안식처로 내려간다. 이 일이 끝나면 승강구 뚜껑을 다시 덮고, 벽으로 막은 벽장처럼 꼭 봉한다.

향유고래 포경에서 이것은 아마 포경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장면의 하나일 것이다. 어느 날은 널빤지 위로 피와 기름이 큰물처럼 흐르고, 신성한 뒷갑판에는 고래 머리의 거대한 덩어리들이 불경스럽게 쌓여 있고, 녹슨 커다란 통들이 양조장 마당처럼 여기저기 뒹굴고, 기름솥의 연기가 뱃전을 온통 그을음투성이로 만들고, 선원들은 온몸에 기름기가 배어 돌아다니고, 배 전체가 거대한 리워야단 자신처럼 보이며, 사방에서 귀가 먹먹하도록 소란스럽다.

그러나 하루 이틀 뒤, 바로 이 배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귀를 기울여 보라. 고자질하는 보트들과 기름 솥만 없다면, 당신은 지극히 꼼꼼하고 깔끔한 선장이 모는 어느 조용한 상선을 밟고 있다고 거의 맹세하리라. 가공하지 않은 향유고래 기름에는 남다르게 깨끗이 씻어 내는 힘이 있다. 이른바 기름 치르기를 끝낸 직후만큼 갑판이 하얗게 보이는 때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고래의 타고 남은 찌꺼기 재로 독한 잿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고래 등에서 묻은 끈적한 것이 뱃전에 들러붙어 남아 있으면 그 잿물이 금세 없애 버린다. 일꾼들이 부지런히 뱃전을 따라 다니며 물 양동이와 걸레로 뱃전을 말끔하게 되돌려 놓는다. 아래쪽 삭구의 그을음도 솔로 털어 낸다. 써 온 수많은 연장도 모두 마찬가지로 꼼꼼히 닦아 치운다. 커다란 승강구 뚜껑을 문질러 닦아 기름 솥 위에 얹으니 가마솥이 완전히 가려진다. 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도르래 장치는 모두 보이지 않는 구석에 사려 둔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선원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 마침내 이 양심적인 일을 모두 마치면, 그때 선원들은 저마다 제 몸을 씻으러 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갈아입고, 마침내 티 없이 깨끗한 갑판으로 나온다. 가장 고운 네덜란드 아마포 속에서 막 뛰쳐나온 신랑들처럼 산뜻하고 온통 환하게.

이제 그들은 두셋씩 짝을 지어 들뜬 걸음으로 널빤지 위를 거닐며, 응접실과 소파와 양탄자와 고운 캠브릭 천 이야기를 우스개 삼아 나눈다. 갑판에 돗자리를 깔자고 하고, 돛대 망루에 휘장을 늘어뜨릴까 생각하고, 앞갑판 베란다에서 달빛 아래 차를 마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향 냄새 풍기는 선원들에게 기름이니 뼈니 지방층이니 하는 말을 비치는 것은 거의 무엄한 짓이나 다름없으리라. 당신이 멀리서 넌지시 가리키는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썩 물러가서 냅킨이나 가져오게!

그러나 보라. 저 위 세 돛대 꼭대기에 세 사람이 서서 고래를 더 찾아내려고 골똘히 살핀다. 그 고래들은 잡히기만 하면 어김없이 다시 이 오래된 참나무 가구를 더럽히고, 적어도 작은 기름 얼룩 하나쯤은 어딘가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다. 밤도 모르고 아흔여섯 시간을 내리 이어지는 가장 혹독한 쉼 없는 노동 끝에, 적도에서 온종일 노를 젓느라 손목이 퉁퉁 부은 채 보트에서 갑판으로 올라와서는 거대한 쇠사슬을 나르고 무거운 양묘기를 돌리고 자르고 베고, 그래, 땀을 흘리는 그 와중에 적도의 해와 적도의 기름 솥이 함께 지피는 불에 새로 그을리고 데고, 그 모든 일에 뒤이어 마침내 몸을 일으켜 배를 씻고 티 없는 우유 저장실로 만들어 놓은 때, 그럴 때 가엾은 친구들이 깨끗한 작업복 목단추를 막 채우다가 "저기 물을 뿜는다!" 하는 외침에 깜짝 놀라, 또 다른 고래와 싸우러 날듯이 달려가서 그 지긋지긋한 일을 처음부터 다시 치르는 일이 숱하게 많다. 오! 친구들이여, 이건 사람 잡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삶이다. 우리 유한한 인간들은 오랜 수고 끝에 이 세상의 거대한 몸뚱이에서 작지만 값진 경랍을 뽑아내고, 그다음 지친 인내로 그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씻어 내고, 여기 영혼의 깨끗한 장막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운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치자마자 *저기 물을 뿜는다!* 하고 유령이 물을 뿜어 올리고, 우리는 또 다른 세상과 싸우러 돛을 올려 떠나서, 젊은 삶의 해묵은 틀에 박힌 일을 다시 치르기 때문이다.

오! 윤회여! 오! 피타고라스여, 이천 년 전 빛나는 그리스에서 그토록 선하고 그토록 지혜롭고 그토록 온화하게 죽은 이여. 지난 항해에서 나는 그대와 함께 페루 해안을 따라 항해했다. 그리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나는, 순진한 풋내기 소년인 그대에게 밧줄 잇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제99장 금화

에이해브가 나침함과 큰돛대를 양쪽 끝으로 삼아 뒷갑판을 규칙적으로 오가곤 했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야기할 다른 일이 하도 많아서 덧붙이지 못한 것이 있다. 이렇게 거닐다가 제 기분에 가장 깊이 빠져 있을 때면, 그가 이따금 그 두 자리에서 번갈아 걸음을 멈추고 서서 눈앞의 그 물건을 이상하게 바라보곤 했다는 것이다. 나침함 앞에 멈추어 나침반의 뾰족한 바늘에 눈길을 붙박을 때면, 그 눈길은 그의 목적의 날카로운 강렬함을 싣고 투창처럼 날아갔다. 그리고 다시 걷다가 큰돛대 앞에 멈추어, 그 똑같이 못 박힌 눈길이 거기 못 박힌 금화에 붙박일 때도, 그는 여전히 못 박은 듯한 그 굳은 모습 그대로였다. 다만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나운 갈망이 거기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어느 아침, 금화 옆을 지나려고 몸을 돌리다가, 그는 금화에 새겨진 이상한 형상과 글자들에 새삼 끌리는 듯했다. 마치 이제야 처음으로, 그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뜻이 무엇이든,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 제 나름으로 혼자 풀어 보기 시작한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은 거의 아무 값어치도 없고, 둥근 세계 자체도 텅 빈 영(零)에 지나지 않는다. 보스턴 근처의 언덕들을 그러듯 수레 단위로 팔아 은하수의 어느 늪이나 메우는 데 쓴다면 모를까.

그런데 이 금화는 더없이 순수한 처녀 금이었다. 휘황한 언덕들의 심장 어딘가에서 긁어낸 것이었는데, 그 언덕들에서는 숱한

팍톨로스강의 원류가 동쪽과 서쪽으로 금모래 위를 흘러내린다. 그리고 지금은 녹슨 쇠 볼트와 구리 못의 녹청 한가운데 못 박혀 있었지만, 그 어떤 더러움도 닿지 않고 티 하나 없이 여전히 키토의 광채를 지니고 있었다. 무자비한 선원들 사이에 놓여 시간마다 무자비한 손들이 그 옆을 지나갔고, 기나긴 밤 내내 어떤 도둑의 접근이라도 가려 줄 짙은 어둠에 싸여 있었지만, 그래도 해가 뜰 때마다 금화는 해 질 녘에 마지막으로 남겨 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은 경외를 자아내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뱃사람다운 버릇으로는 아무리 방자해도, 선원들은 하나같이 그것을 흰 고래의 부적으로 우러렀다. 그들은 이따금 지루한 밤 당직 때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며, 결국 누구의 차지가 될지, 그 사람이 그것을 써 볼 만큼 살아남을지 궁금해했다.

남아메리카의 그 고귀한 금화들은 태양의 메달이요 열대의 증표다. 거기에는 야자나무, 알파카, 화산, 해의 원반과 별, 황도, 풍요의 뿔, 펄럭이는 화려한 깃발이 넘치도록 아낌없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 귀한 금은 그토록 스페인답게 시적인 그 공상의 조폐소를 거치면서 귀함을 더하고 영광을 드높이는 것만 같다.

마침 피쿼드호의 금화는 이런 것들을 더없이 풍성하게 갖춘 본보기였다. 둥근 가장자리에는 「REPUBLICA DEL ECUADOR: QUITO」(에콰도르 공화국: 키토)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니 이 빛나는 동전은 세계의 한가운데, 거대한 적도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적도를 따서 이름 지은 나라에서 왔고, 가을을 모르고 이울지 않는 기후 속에서 안데스산맥 중턱에서 주조되었다. 그 글자들이 띠처럼 두른 안쪽에는 안데스의 봉우리 셋을 본뜬 모습이 보였다. 한 봉우리에서는 불꽃이, 다른 봉우리에는 탑이, 셋째 봉우리에는 울어 대는 수탉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아치처럼 덮고 칸칸이 나뉜 황도대의 한

부분이 있었는데, 별자리마다 흔히 쓰는 신비한 기호가 표시되어 있었고, 아치의 이맛돌인 해가 천칭자리의 춘추분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 적도의 동전 앞에,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에이해브가 지금 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산꼭대기와 탑, 그리고 그 밖의 웅대하고 높은 모든 것에는 언제나 무언가 제 잘난 맛이 있다. 여기를 보라. 루시퍼만큼 오만한 봉우리 셋. 굳센 탑, 그것은 에이해브다. 화산, 그것은 에이해브다. 용감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새, 그것도 에이해브다. 모두가 에이해브다. 그리고 이 둥근 금은 더 둥근 지구의 형상일 뿐이다. 지구는 마술사의 거울처럼 사람마다 차례로 그 사람 자신의 알 수 없는 자아만을 되비춰 준다. 세상더러 자기를 풀어 달라고 하는 자들은 애만 많이 쓰고 얻는 것은 적다. 세상은 저 자신도 풀지 못한다. 지금 보니 이 주조된 해는 불그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보라! 그렇다, 해는 폭풍의 별자리, 추분점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고작 여섯 달 전에는 양자리에서 이전의 춘분점을 돌아 나왔다! 폭풍에서 폭풍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되라지. 진통 속에 태어났으니, 사람이 고통 속에 살다가 괴로움 속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라지! 비애가 주무를 튼실한 재료가 여기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라지."

"요정의 손가락이 이 금을 누를 리는 없으니, 어제부터 악마의 발톱이 거기 제 자국을 남긴 게 틀림없다." 스타벅이 뱃전에 기대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노인은 벨사살의 그 무서운 글씨를 읽는 것 같군. 나는 그 동전을 꼼꼼히 살펴본 적이 없다. 그가 아래로 내려간다. 나도 읽어 보자. 하늘에 사는 듯한 우뚝한 봉우리 셋 사이의 어두운 골짜기. 봉우리들은 희미한 지상의 상징으로 나타난 삼위일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 지키시고,

우리의 온갖 어둠 위로 의로움의 해가 여전히 등대처럼, 희망처럼 비친다. 우리가 눈을 내리깔면 어두운 골짜기는 제 곰팡내 나는 흙을 보여 준다. 그러나 눈을 들면 밝은 해가 우리의 눈길을 중간에서 맞아 주며 힘을 북돋운다. 그러나 아, 거대한 해는 붙박이가 아니다. 그래서 한밤에 해에게서 달콤한 위안을 얻고 싶어도 우리는 헛되이 해를 찾아 바라본다! 이 동전은 내게 지혜롭게, 온화하게, 참되게, 그러나 여전히 슬프게 말한다. 이만 떠나자. 진리가 나를 그릇되게 뒤흔들지 않도록."

"저기 늙은 무굴 황제가 있군." 스터브가 기름 솥 옆에서 혼잣말을 했다. "저 양반이 그걸 뜯어보고 있었지. 그리고 저기 스타벅도 같은 데서 떠나가는데, 둘 다 얼굴이 아홉 패덤쯤은 길게 빠졌다고 해야겠군. 그게 다 금 한 닢 쳐다본 탓이라니. 내가 그걸 지금 니그로 언덕이나 콜레어스 훅에서 손에 쥐고 있다면 그리 오래 쳐다보지도 않고 써 버렸을 텐데. 흠! 하찮고 보잘것없는 내 소견으로는 이게 괴상하다고 본다. 나도 이제껏 항해하면서 금화를 봐 왔지. 옛 스페인 금화, 페루 금화, 칠레 금화, 볼리비아 금화, 포파얀 금화. 금으로 된 모이도르, 피스톨, 조, 반 조, 4분의 1 조도 숱하게. 그런데 이 적도 금화에 사람 잡게 놀라운 게 대체 뭐가 있다는 거지? 골콘다에 걸고! 어디 한번 읽어 보자. 어이쿠! 여기 참말로 표적과 기사가 있구먼! 이건 바로 보디치 영감이 「요약」에서 황도대라고 부르는 거고, 아래층 내 달력도 똑같이 부르는 거지. 달력을 가져와야겠다. 데이볼의 산술책으로 악마도 불러낼 수 있다고 들었으니, 나도 매사추세츠 달력으로 여기 이 괴상한 꼬불꼬불한 것들에서 뜻을 불러내 볼란다. 여기 책이 있다. 어디 보자. 표적과 기사라. 그리고 해, 해는 늘 그것들 사이에 있지. 흠, 흠, 흠. 여기 있구먼, 여기 간다, 다들 살아 있어. 아리에스, 곧 양. 타우루스, 곧 황소. 그리고 이런 맙소사! 여기 제미니 본인, 곧 쌍둥이가 있다. 그래, 해는 그것들 사이를 돌아가지. 그렇지, 여기 동전 위에서 해는 빙 둘러 있는

열두 거실 가운데 두 거실 사이의 문턱을 막 넘고 있다. 책아! 너는 거기 누워 있어라. 사실 너희 책들은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 너희는 맨 낱말과 사실만 주면 되고, 생각은 우리가 들어와서 채운다. 매사추세츠 달력이랑 보디치의 항해술 책이랑 데이볼의 산술책에 관한 한 그게 내 작은 경험이다. 표적과 기사라, 응? 표적에 기이한 게 없고 기사에 뜻이 없다면 안된 일이지! 어딘가에 실마리가 있다. 잠깐, 쉿, 쉿! 제우스에 걸고, 알았다! 이봐, 금화야, 여기 네 황도대는 둥근 한 장에 담은 인간의 일생이로구나. 이제 책에서 곧장 읽어 주마. 자, 달력아! 시작하자. 먼저 아리에스, 곧 양이 있다. 음탕한 개 같은 놈, 놈이 우리를 낳는다. 그다음 타우루스, 곧 황소. 놈이 맨 먼저 우리를 들이받는다. 그다음 제미니, 곧 쌍둥이, 그러니까 미덕과 악덕이다. 우리가 미덕에 닿으려고 하면, 보라! 게, 캔서가 와서 우리를 뒤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여기, 미덕에서 떠나가는 길에는 레오, 포효하는 사자가 길에 누워 있다. 놈은 사납게 몇 번 물어뜯고 앞발로 심술궂게 몇 번 할퀸다. 우리는 달아나서 비르고, 처녀에게 인사한다! 그게 우리의 첫사랑이지. 우리는 장가를 들고 영원히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펑 하고 리브라, 곧 천칭이 나타난다. 행복을 달아 보니 모자라더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몹시 슬퍼하고 있는데, 맙소사! 스코르피오, 곧 전갈이 우리 엉덩이를 쏘아서 우리는 얼마나 갑자기 펄쩍 뛰는지. 우리가 그 상처를 고치고 있는데, 휙휙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온다. 사기타리우스, 곧 궁수가 장난을 치는 거다. 우리가 화살을 뽑고 있으면, 비켜라! 여기 공성 망치, 카프리코르누스, 곧 염소가 온다. 놈이 전속력으로 돌진해 오고, 우리는 거꾸로 내동댕이쳐진다. 그러면 아쿠아리우스, 곧 물 긷는 이가 큰물을 통째로 쏟아부어 우리를 빠뜨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스케스, 곧 물고기들과 함께 우리는 잠든다. 자, 이게 높은 하늘에 쓰인 설교다. 해는 해마다 그걸 거쳐 가는데도, 그 모든 걸 빠져나와서도 멀쩡하게 쌩쌩하다. 저

위에서 해는 수고와 고생을 거치며 유쾌하게 돌아가고, 여기 아래서는 유쾌한 스터브가 그렇게 한다. 오, 유쾌, 그게 영원한 말이지! 잘 있어라, 금화야! 그런데 잠깐. 저기 꼬마 킹포스트가 온다. 이제 기름 솥 뒤로 돌아 숨어서 녀석이 뭐라고 하나 들어 보자. 저기, 녀석이 금화 앞에 섰다. 곧 무슨 말을 꺼내겠지. 옳지, 옳지, 시작한다."

"여기엔 금으로 만든 둥근 것밖에 안 보이는데. 어떤 고래를 맨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이 둥근 걸 차지하는 거고. 그러니 이렇게들 쳐다보는 게 다 무슨 소용이람? 16달러짜리라는 건 사실이지. 그리고 시가 한 대에 2센트면 시가 960대다. 나는 스터브처럼 더러운 파이프는 안 피우지만 시가는 좋아하고, 여기 그게 960대나 있다. 그러니 이 플래스크는 그것들을 찾아내러 돛대 위로 올라간다."

"자, 저걸 지혜롭다고 할까, 어리석다고 할까. 정말 지혜로운 거라면 어리석어 보이는 구석이 있고, 정말 어리석은 거라면 어딘가 지혜로운 듯한 구석이 있다. 그런데 멈춰라. 저기 우리 맨섬 노인이 온다. 늙은 영구차 마부였겠지, 그러니까 바다로 나오기 전에는. 노인이 금화 앞에서 바람을 받듯 멈춰 선다. 어이쿠, 돛대 저쪽으로 돌아가네. 아니, 그쪽엔 말굽이 못 박혀 있잖아. 그러더니 이제 다시 돌아온다. 저게 무슨 뜻일까? 쉿! 중얼거리는군. 낡아 빠진 커피 분쇄기 같은 목소리다. 귀를 세우고 들어 보자!"

"흰 고래가 나타난다면, 그건 한 달 하고 하루 뒤, 해가 이 별자리들 가운데 하나에 들어서 있을 때일 게다. 나는 별자리를 공부해서 그 표시를 안다. 마흔 해 전에 코펜하겐의 늙은 마녀가 가르쳐 주었지. 그럼 그때 해는 어느 별자리에 있을까? 말굽 별자리다. 저기, 금화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그럼 말굽 별자리는 뭐냐? 사자가 말굽 별자리다. 포효하며 집어삼키는 사자. 배야, 늙은 배야! 너를 생각하니 내 늙은 머리가 흔들리는구나."

"또 다른 풀이가 나왔군. 그래도 본문은 하나다. 한 가지 세상에 온갖 사람이 있다는 거지. 또 숨어라! 저기 퀴퀘그가 온다. 온통 문신투성이라 녀석 자신이 황도대의 별자리 같다. 식인종은 뭐라고 할까? 맹세코, 녀석이 대조해 보고 있구먼. 제 넓적다리뼈를 들여다보네. 해가 넓적다리에 있다고, 아니면 장딴지나 창자에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시골 노파들이 외과 의사의 천문학을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제우스에 걸고, 녀석이 제 넓적다리 근처에서 뭘 찾아냈다. 아마 사기타리우스, 곧 궁수겠지. 아니다, 녀석은 금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른다. 어느 왕의 바지에서 떨어진 낡은 단추로 아는구먼. 그런데 다시 비켜라! 저기 그 유령 악마, 페달라가 온다. 여느 때처럼 꼬리는 사려서 안 보이게 하고, 여느 때처럼 신발 발끝에는 뱃밥을 채웠다. 저런 표정으로 뭐라고 할까? 아, 표시에다 표시를 해 보이고 절을 할 뿐이군. 동전에 해가 있으니까. 불을 섬기는 자다, 틀림없다. 호! 점점 더 오네. 이쪽으로 핍이 온다. 가엾은 녀석! 녀석이 죽었더라면, 아니면 내가 죽었더라면. 녀석은 내게 반쯤 끔찍하다. 녀석도 이 풀이꾼들을, 나까지 포함해서 죄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보라, 저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바보 얼굴을 하고 읽으러 온다. 다시 비켜서서 들어 보자. 쉿!"

"나는 본다, 너는 본다, 그는 본다. 우리는 본다, 너희는 본다, 그들은 본다."

"맹세코, 녀석이 머리의 문법책을 공부하고 있었구나! 머리를 닦고 있다니, 가엾은 녀석! 그런데 이번엔 뭐라는 거지? 쉿!"

"나는 본다, 너는 본다, 그는 본다. 우리는 본다, 너희는 본다, 그들은 본다."

"아니, 외우고 있잖아. 쉿! 또."

"나는 본다, 너는 본다, 그는 본다. 우리는 본다, 너희는 본다, 그들은 본다."

"거참, 우습군."

"그리고 나, 너, 그, 그리고 우리, 너희, 그들은 다 박쥐야. 그리고 나는 까마귀야. 특히 여기 이 소나무 꼭대기에 서 있을 때는. 까악! 까악! 까악! 까악! 까악! 까악! 나 까마귀 아니야? 그럼 허수아비는 어디 있지? 저기 서 있네. 낡은 바지 한 벌에 뼈 두 개를 꽂고, 낡은 윗옷 소매에 두 개를 더 쑤셔 넣었어."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거참 칭찬도 하셔라! 가엾은 녀석! 목이라도 매고 싶군. 아무튼 지금은 핍 곁을 떠나야겠다. 나머지 녀석들은 머리가 멀쩡하니 견딜 만하지만, 이 녀석은 너무 미친 듯이 재치가 있어서 내 정신이 버티질 못한다. 그래, 그래, 중얼거리게 두고 가자."

"여기 이 금화는 배의 배꼽이야. 그리고 다들 그걸 돌려 빼고 싶어 안달이 났어. 그런데 배꼽을 돌려 빼면 어떻게 되지? 그렇다고 그게 여기 그대로 있어도 흉해. 무엇이든 돛대에 못 박히면 일이 막다른 데까지 갔다는 표시니까. 하, 하! 에이해브 영감님! 흰 고래, 그놈이 영감님을 못 박을 거야! 이건 소나무야. 우리 아버지는 옛날 톨런드 카운티에서 한번 소나무를 베었는데, 그 속에 은반지가 하나 묻혀 자라 있었대. 어느 늙은 흑인의 결혼반지였지. 그게 어떻게 거기 들어갔을까? 부활의 날에도 다들 그렇게 말할 거야. 이 낡은 돛대를 건져 올려서, 털북숭이 나무껍질 대신 굴이 박힌 돛대 속에 금화가 하나 들어 있는 걸 보면. 오, 금! 귀하고, 귀한 금! 푸른 구두쇠가 곧 너를 쌓아 두겠지! 쉬! 쉬! 하나님은 블랙베리를 따러 세상들 사이를 돌아다니셔. 요리사! 어이, 요리사! 우리를 요리해! 제니!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제니, 제니! 옥수수빵이나 다 구워 놔!"

제100장 다리와 팔

낸터킷의 피쿼드호, 런던의 새뮤얼 엔더비호를 만나다.

"어이, 그 배! 흰 고래를 보았소?"

에이해브는 그렇게 외쳤다. 영국 국기를 내건 배 한 척이 고물 쪽으로 다가오자 또 한 번 소리쳐 부른 것이다. 노인은 확성 나팔을 입에 대고, 매달아 올린 고물 보트에 서 있었다. 그의 고래뼈 의족이 낯선 배의 선장에게 훤히 드러났다. 그 선장은 제 보트의 이물에 아무렇게나 기대 누워 있었다. 그는 짙게 그을리고 건장하며 사람 좋고 잘생긴 사내로, 예순 살쯤 되어 보였다. 품이 넉넉한 짧은 웃옷을 입었는데, 푸른 선원용 모직 천이 꽃줄처럼 그의 몸에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웃옷의 빈 소매 하나가 경기병 겉옷의 수놓은 소매처럼 그의 뒤로 나부꼈다.

"흰 고래를 보았소?"

"이게 보이시오?" 그러고는 그것을 가리고 있던 옷 주름에서 빼내어, 향유고래 뼈로 만든 흰 팔 하나를 들어 보였다. 팔 끝에는 나무망치처럼 생긴 나무 머리가 달려 있었다.

"내 보트에 타라!" 에이해브가 다급하게 외치며 곁에 있던 노들을 이리저리 집어 던졌다. "내릴 준비!"

1분도 안 되어, 그와 그의 선원들은 작은 보트를 떠나지 않은 채 물로 내려졌고, 곧 낯선 배 옆에 닿았다. 그러나 여기서 기묘한 어려움이 하나 생겼다. 흥분한 나머지, 에이해브는 다리를 잃은 뒤로 바다에서 제 배 말고는 어느 배에도 한 번도 올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나마 그때마다 피쿼드호에만 있는 교묘하고 아주 편리한 기계 장치를 썼는데, 그것은 다른 배에 순식간에 설치해 실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른 바다에서 보트에서 배 옆구리를 기어오르기란 누구에게나, 포경선원들처럼 거의 시간마다 그 일에 익숙한 사람들 말고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큰 너울이 보트를 뱃전 쪽으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순식간에 내용골 쪽으로 반쯤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잃었고, 낯선 배에는 물론 그 고마운 발명품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으므로, 에이해브는 이제 비참하게도 다시 서투른 뭍사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는 도저히 오를 가망이 없는,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바뀌는 그 높이를 절망적으로 쳐다보았다.

아마 앞서 넌지시 비친 적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닥친 사소한 언짢은 일들, 그의 불운한 사고에서 간접적으로 비롯된 일들은 거의 어김없이 에이해브를 짜증 나게 하거나 화나게 했다. 그리고 지금은 낯선 배의 항해사 두 사람을 보자 그 모든 것이 더 심해졌다. 두 사람은 거기 못 박아 단 발판으로 된 수직 사다리 곁에서 뱃전 너머로 몸을 기울이고, 멋지게 장식한 손잡이 밧줄 한 쌍을 그를 향해 흔들어 보였다. 처음에 그들은 다리가 하나뿐인 사람은 너무 불구여서 그들의 바다 난간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듯했다. 그러나 이 어색함은 1분밖에 가지 않았다. 낯선 선장이 한눈에 사정을 알아보고 이렇게 외쳤기 때문이다. "알겠소, 알겠소! 거기 당기기 그만! 얘들아, 뛰어라. 해체용 도르래 장치를 이리로 돌려라."

운 좋게도 그들은 하루 이틀 전에 고래를 배 옆에 매어 둔 적이 있어서, 큰 도르래 장치가 아직 높이 걸려 있었고, 묵직한 굽은 지방층 갈고리도 이제 깨끗하고 마른 채로 여전히 그 끝에 달려 있었다. 그것이 재빨리 에이해브에게 내려졌다. 에이해브는 단번에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뿐인 넓적다리를 갈고리의 굽은 데 밀어 넣었다(닻의

갈고리 날이나 사과나무 가지 사이에 앉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신호를 하고 몸을 단단히 붙든 채, 동시에 도르래 장치의 움직이는 밧줄 하나를 손을 번갈아 당기며 제 몸무게를 끌어 올리는 일도 거들었다. 곧 그는 높은 뱃전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져 캡스턴 꼭대기에 살며시 내려졌다. 다른 선장이 환영하는 뜻으로 고래뼈 팔을 시원스럽게 내밀며 다가왔고, 에이해브는 고래뼈 의족을 내밀어 그 고래뼈 팔과 엇걸고(두 마리 황새치의 칼처럼) 해마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렇지, 그렇지, 친구! 우리 뼈끼리 악수합시다! 팔 하나와 다리 하나! 결코 움츠러들 수 없는 팔, 알겠소? 그리고 결코 달아날 수 없는 다리. 흰 고래를 어디서 보았소? 얼마나 되었소?"

"흰 고래라." 영국인은 고래뼈 팔로 동쪽을 가리키며, 그것이 망원경이라도 되는 듯 그 팔을 따라 서글프게 겨누어 보았다. "저기서 놈을 보았소. 지난철 적도에서."

"그래서 놈이 그 팔을 떼어 갔소?" 에이해브가 캡스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영국인의 어깨에 몸을 기대며 물었다.

"그렇소. 적어도 놈이 그 원인이었지. 그 다리도 그렇소?"

"이야기를 풀어 보시오." 에이해브가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이오?"

"내 평생 적도를 처음 돌아다닌 때였소." 영국인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나는 흰 고래를 몰랐소. 그런데 어느 날 고래 너덧 마리 무리를 보고 보트를 내렸는데, 내 보트가 그중 한 마리에 작살을 꽂았소. 그놈이 또 영락없는 곡마단 말이라, 빙빙 빙빙 어찌나 돌아 대는지, 내 보트 선원들이 엉덩이를 죄다 바깥쪽 뱃전에 걸치고 앉아야 겨우 보트 균형을 잡을 수 있었소. 그러는데 바다 밑바닥에서 펄쩍펄쩍 뛰는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몸을 솟구쳐 올라오는데, 머리와 혹은 우윳빛으로 하얗고, 온통 눈가 주름투성이였소."

"그놈이오, 그놈이오!" 에이해브가 참고 있던 숨을 갑자기 내뱉으며 외쳤다.

"그리고 우현 지느러미 가까이에 작살들이 꽂혀 있었소."

"그렇소, 그렇소. 그건 내 것이었소. *내* 작살이었소." 에이해브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러나 계속하시오!"

"그럼 말할 틈 좀 주시오." 영국인이 사람 좋게 말했다. "그런데 머리와 혹이 하얀 이 늙은 증조할아버지가 온통 거품을 일으키며 무리 속으로 달려들더니, 내 고래에 매인 작살줄을 미친 듯이 물어뜯기 시작했소!"

"그렇지, 알겠소! 줄을 끊으려 한 거요. 매인 고래를 풀어 주려고. 늙은 수법이지. 나는 놈을 아오."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는," 외팔이 선장이 말을 이었다. "나도 모르오. 그런데 줄을 물어뜯다가 그게 놈의 이빨에 엉켜서 어떻게 거기 걸려 버렸소.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걸 몰랐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줄을 당기자, 펄쩍 하고 우리는 다른 고래가 아니라 놈의 혹 위로 털썩 올라앉고 말았소! 다른 고래는 꼬리를 휘두르며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달아나 버렸고. 사정이 그렇고, 또 그게 얼마나 훌륭하고 커다란 고래인지, 선장, 내 평생 본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고래인지 보고서, 놈이 펄펄 끓도록 노한 듯했지만 나는 놈을 잡기로 마음먹었소. 그리고 우연히 걸린 그 줄이 풀리거나, 줄이 엉킨 이빨이 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작살줄을 당기는 데는 내 보트 선원들이 악마 같은 놈들이라서 말이오), 이 모든 걸 보고, 그러니까, 나는 일등 항해사의 보트로 뛰어올랐소. 여기 있는 마운트톱 씨의 보트 말이오(그건 그렇고, 선장, 이쪽은 마운트톱. 마운트톱, 이쪽은 선장). 아까 말하던 대로, 나는 마운트톱의 보트로 뛰어올랐는데, 그 보트가 그때 내 보트와 뱃전을 맞대고 있었거든. 그리고 첫 작살을 잡아채서 이 늙은 증조할아버지에게 한 방 먹였소. 그런데 맙소사, 보시오, 선장, 이런 세상에, 바로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새에, 나는 박쥐처럼 눈이 멀었소. 두 눈 다. 검은 거품에 온통 흐려지고 멍해졌소. 그 속에서 고래 꼬리가 대리석 첨탑처럼 공중에 꼿꼿이 솟아올랐소. 그때는 뒤로 저어 봐야 소용없었지. 그런데 대낮에, 눈을 멀게 하는 해가 온통 왕관 보석 같은데 내가 더듬거리며, 그러니까 둘째 작살을 배 밖으로 던지려고 더듬고 있는데, 리마의 탑 같은 꼬리가 내리쳐서 내 보트를 두 동강 내고 두 쪽을 다 산산조각 내 버렸소. 그리고 흰 혹이 꼬리지느러미를 앞세우고, 그 잔해가 다 대팻밥이라도 되는 듯 뒷걸음질 쳐서 그 속을 헤치고 나갔소. 우리는 모두 헤엄쳐 나왔소. 놈의 끔찍한 도리깨질을 피하려고 나는 놈에게 꽂힌 내 작살 자루를 붙잡고, 잠깐 빨판상어처럼 거기 매달렸소. 그런데 부서지는 파도가 나를 떨어뜨렸고, 바로 그 순간 고래가 앞으로 힘껏 한 번 내닫더니 번개처럼 가라앉았소. 그러자 근처에 끌려가던 그 저주받은 둘째 작살의 미늘이 나를 여기를 꿰었소." (그는 어깨 바로 아래를 손바닥으로 쳤다.) "그렇소, 바로 여기를 꿰었소. 그리고 나를 지옥 불까지 끌고 내려가는구나 싶었는데, 그때, 그때, 갑자기, 선하신 하나님 고맙게도, 미늘이 살을 따라 찢고 나갔소. 내 팔 전체를 따라 쭉 손목 근처로 빠져나갔고, 나는 떠올랐소. 나머지는 저기 저 신사가 말해 줄 거요(그건 그렇고, 선장, 이쪽은 벙어 선의, 배의 외과 의사요. 벙어, 이 친구야, 이쪽은 선장이다). 자, 벙어, 네 몫의 이야기를 풀어 봐라."

이렇게 허물없이 지목된 전문가 신사는 내내 그들 곁에 서 있었지만, 배 안에서 그의 신사다운 지위를 나타내는 뚜렷한 표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굴은 무척 둥글었지만 진지했다. 바랜 푸른 모직 작업복인지 셔츠인지를 입었고, 기운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 손에 쥔 밧줄 송곳과 다른 손에 쥔 알약 상자에 번갈아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따금 불구가 된 두 선장의 고래뼈 팔다리에

비판하는 눈길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윗사람이 그를 에이해브에게 소개하자 그는 공손히 절을 하고, 곧바로 선장의 분부대로 이야기를 이어 갔다.

"지독하게 고약한 상처였습니다." 고래 외과 의사가 말을 꺼냈다. "그래서 제 충고를 받아들여, 여기 부머 선장님은 우리 늙은 새미를……"

"새뮤얼 엔더비가 내 배의 이름이오." 외팔이 선장이 에이해브에게 말하며 끼어들었다. "계속해라, 얘야."

"우리 늙은 새미를 북쪽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적도의 그 이글거리는 더위에서 벗어나려고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밤마다 선장님 곁을 지켰고, 음식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오, 아주 엄격했지!" 환자 본인이 맞장구를 쳤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었다. "밤마다 나랑 뜨거운 럼 토디를 마셔 대서 붕대를 감으려고 해도 눈이 안 보일 지경이 되고, 새벽 세 시쯤 얼큰하게 취한 나를 잠자리에 쑤셔 넣었지. 오, 하늘의 별들이여! 이 친구는 참말로 내 곁을 지켰고, 내 음식에 아주 엄격했소. 오! 벙어 선의는 대단한 간병인이고, 식단에 아주 엄격하지. (벙어, 이 개 같은 놈아, 크게 웃어라! 왜 안 웃냐? 네가 끝내주게 유쾌한 악당인 걸 너도 알잖아.) 그건 그렇고, 계속해라, 얘야. 다른 놈 손에 살아남느니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게 낫다."

"존경하는 선장님,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저희 선장님은" 흔들림 없고 경건해 보이는 벙어가 에이해브에게 살짝 절을 하며 말했다. "이따금 우스갯소리를 잘하십니다. 그런 재치 있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숱하게 풀어놓으시지요.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 말마따나 *앙 파상*, 지나가는 말로 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저 자신은, 그러니까 전에 성직에 몸담았던

잭 벙어는, 술을 딱 끊은 엄격한 금주가입니다. 저는 결코 마시지 않습니다……"

"물을!" 선장이 외쳤다. "이 친구는 물을 결코 안 마시오. 물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지. 맹물을 마시면 공수병에 걸린다오. 그건 그렇고, 계속해, 팔 이야기나 계속해."

"네,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외과 의사가 태연하게 말했다. "부머 선장님이 우스갯소리로 끼어드시기 전에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만, 선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 아주 엄격하게 애썼는데도 상처는 자꾸만 더 나빠졌습니다. 사실은, 선장님, 외과 의사가 일찍이 본 적이 없을 만큼 흉하게 벌어진 상처였습니다. 길이가 2피트 하고도 몇 인치가 넘었습니다. 측연줄로 재 보았지요. 요컨대 상처가 시커메졌습니다. 무엇이 닥칠지 알았기에, 팔을 잘라 냈습니다. 그러나 저기 저 고래뼈 팔을 다는 데에는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건 모든 규칙에 어긋나는 물건입니다." 그는 밧줄 송곳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저건 선장님 작품이지, 제 작품이 아닙니다. 선장님이 목수에게 그걸 만들라고 하셨고, 끝에 저 몽둥이 망치를 달게 하셨지요. 누구 골통을 깨부수려고 그러셨겠지요. 한번은 제 골통도 깨려고 하셨으니까요. 선장님은 이따금 악마처럼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이 움푹 팬 데가 보이십니까, 선장님?" 그는 모자를 벗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두개골에 난 사발 같은 움푹한 데를 드러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흉터 자국도, 상처였던 흔적도 조금도 없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여기 생겼는지는 저기 선장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선장님이 아시니까요."

"아니, 나는 모르오." 선장이 말했다. "그러나 이 친구 어머니는 알았지. 이 친구는 그걸 달고 태어났소. 오, 이 엄숙한 악당 같으니, 이 벙어 녀석! 물의 세상에 이런 벙어가 또 있었을까? 벙어, 너는 죽거든

소금물에 절여 죽어야 한다, 이 개 같은 놈아. 너는 후세를 위해 보존되어야 해, 이 악당아."

"흰 고래는 어떻게 되었소?" 그제야 에이해브가 외쳤다. 그는 그때까지 두 영국인이 주고받는 이 곁가지 장난을 조바심치며 듣고 있었다.

"오!" 외팔이 선장이 외쳤다. "오, 그렇지! 그러니까, 놈이 잠수한 뒤로 우리는 한동안 놈을 다시 보지 못했소. 사실 아까 비쳤듯이, 그때 나는 내게 그런 짓을 한 고래가 어떤 고래인지 몰랐소. 얼마 뒤 적도로 돌아왔을 때 모비 딕 이야기를, 어떤 이들은 놈을 그렇게 부르더군,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게 놈이었다는 걸 알았소."

"놈의 항적을 다시 가로지른 적이 있소?"

"두 번."

"그러나 작살을 꽂지는 못했소?"

"꽂아 볼 생각도 없었소. 팔다리 하나면 충분하지 않소? 이 남은 팔마저 없으면 내가 어쩌겠소? 그리고 내 생각에 모비 딕은 물어뜯는다기보다 삼키는 놈이오."

"그렇다면," 벙어가 끼어들었다. "오른팔을 얻으려면 왼팔을 미끼로 주십시오. 아십니까, 신사분들." 그는 아주 엄숙하게, 수학처럼 정확하게 두 선장에게 차례로 절을 했다. "아십니까, 신사분들, 고래의 소화기관은 하나님의 섭리로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 팔 하나도 완전히 소화하기란 고래에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고래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 흰 고래의 악의로 여기시는 것은 실은 놈의 서투름일 뿐입니다. 놈은 팔다리 하나도 삼킬 생각이 결코 없고, 그저 시늉으로 겁을 주려는 것뿐이니까요. 그러나 이따금 놈은 늙은 요술쟁이 같습니다. 전에 실론에서 제 환자였던 사람인데, 접칼을 삼키는 시늉을 하다가 옛날 한번은 정말로 하나를 배 속으로

떨어뜨렸지요. 그게 열두 달인가 그 넘게 거기 있었는데, 제가 구토제를 주었더니 작은 압정으로 토해 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접칼을 소화해서 제 몸 전체에 온전히 받아들일 길은 도무지 없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머 선장님, 서두르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한 팔을 점잖게 묻어 줄 특권을 얻으려고 다른 팔을 저당 잡힐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럴 경우 그 팔은 선장님 것입니다. 머지않아 고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아니, 됐다, 벙어." 영국 선장이 말했다. "어쩔 수 없었고 그때는 놈을 몰랐으니, 놈이 가져간 팔은 놈 가지라지. 그러나 또 하나는 안 된다. 내게 흰 고래는 이제 그만이다. 나는 놈을 쫓아 한 번 보트를 내렸고, 그거면 됐소. 놈을 죽이면 큰 영광이 되리라는 건 나도 아오. 그리고 놈 속에는 귀한 경랍이 배 한 척분은 들어 있지. 하지만 잘 들으시오, 놈은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선장?" 그는 고래뼈 의족을 흘끗 보았다.

"그렇소. 그래도 놈은 여전히 쫓기리라.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인 것, 그 저주받은 것이 언제나 가장 덜 꾀는 것은 아니오. 놈은 온통 자석이오! 마지막으로 놈을 본 게 얼마나 되었소?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소?"

"내 영혼에 복을, 더러운 마귀의 영혼에 저주를." 벙어가 몸을 구부리고 에이해브 둘레를 돌며 개처럼 이상하게 킁킁거렸다. "이 사람의 피가…… 온도계를 가져와라! 끓는점이다! 맥박이 이 널빤지를 뛰게 한다! 선장님!" 그는 주머니에서 피 뽑는 칼을 꺼내 에이해브의 팔로 다가갔다.

"물러서라!" 에이해브가 고함치며 그를 뱃전에 내동댕이쳤다. "보트에 타라!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소?"

"맙소사!" 질문을 받은 영국 선장이 외쳤다. "왜 이러시오? 동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소. 당신네 선장이 미쳤소?" 그는 페달라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페달라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뱃전을 미끄러져 넘어가 보트의 키잡이 노를 잡았고, 에이해브는 해체용 도르래 장치를 제 쪽으로 끌어당기며 그 배의 선원들에게 내릴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순식간에 그는 보트의 고물에 서 있었고, 마닐라 사람들이 노로 뛰어들었다. 영국 선장이 그를 소리쳐 불렀지만 헛일이었다. 낯선 배에 등을 돌리고, 제 배를 향해 부싯돌처럼 굳은 얼굴로, 에이해브는 피쿼드호 옆에 닿을 때까지 꼿꼿이 서 있었다.

제101장 술병

영국 배가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여기 적어 두자. 그 배는 런던에서 왔고, 그 도시의 상인이었던 고(故) 새뮤얼 엔더비의 이름을 땄다. 그는 이름난 포경 회사 엔더비 부자 상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포경선원인 내 생각에, 그 회사는 진짜 역사적 흥미로 따지자면 튜더 왕가와 부르봉 왕가를 합친 것에 그리 뒤지지 않는다. 서기 1775년 이전에 이 위대한 포경 회사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내가 모은 숱한 고래 문서로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해(1775년)에 이 회사는 향유고래를 정규로 사냥한 최초의 영국 배들을 꾸려 내보냈다. 물론 그보다 스무 해쯤 앞서(1726년부터 줄곧) 낸터킷과 마서스비니어드의 용감한 코핀 집안과 메이시 집안 사람들이 큰 선단을 이루어 그리워야단을 쫓았지만, 북대서양과 남대서양에서만 그랬고 다른 데서는 아니었다. 여기 분명히 적어 두자. 문명의 강철로 거대한 향유고래에 작살을 꽂은 것은 인류 가운데 낸터킷 사람들이 처음이었고, 반세기 동안 온 지구에서 그렇게 작살을 꽂은 사람들은 그들뿐이었다.

1778년, 오로지 그 목적으로 기운찬 엔더비 집안이 혼자 비용을 대어 꾸린 훌륭한 배 아멜리아호가 과감하게 혼곶을 돌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거대한 남양에 포경 보트를, 어떤 종류의 것이든, 내렸다. 그 항해는 솜씨 좋고 운도 좋았다. 아멜리아호가 귀한 경랍을 선창 가득 싣고 제 정박지로 돌아오자 영국과 미국의 다른 배들이 곧 그 본을 따랐고, 그렇게 태평양의 광대한 향유고래 어장이 활짝 열렸다.

그러나 이 선행에 만족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그 회사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새뮤얼과 그의 모든 아들이, 몇 명인지는 그들 어머니만 알 테지만, 직접 나서서, 그리고 일부는 그들의 비용으로, 내 생각에는, 영국 정부를 움직여 소형 전함 래틀러호를 포경 탐험 항해에 나서게 하여 남양으로 보냈다. 해군 대령이 지휘한 래틀러호는 그 이름처럼 덜거덕거리며 요란한 항해를 했고, 얼마쯤 공을 세웠다. 얼마나인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1819년에 같은 회사는 일본의 먼 바다로 맛보기 항해를 하러 갈 탐험 포경선을 자기네 손으로 꾸렸다. 「사이렌」 호라고 잘도 이름 붙인 그 배는 훌륭한 시험 항해를 했고, 거대한 일본 포경 어장이 처음 널리 알려진 것은 그렇게 해서였다. 이 이름난 항해에서 사이렌호를 지휘한 것은 낸터킷 사람인 코핀 선장이었다.

그러므로 엔더비 집안에 모든 영예를! 그 회사는 내 생각에 오늘날까지 있다. 물론 맨 처음의 새뮤얼은 틀림없이 오래전에 닻줄을 풀고 저승의 거대한 남양으로 떠났겠지만.

그의 이름을 딴 배는 그 영예에 걸맞았다. 무척 빠른 배였고, 어느 모로 보나 훌륭한 배였다. 나는 언젠가 한밤에 파타고니아 해안 앞바다 어딘가에서 그 배에 올라, 앞갑판 선원실에서 좋은 플립을 마셨다. 우리가 나눈 갬은 멋졌고, 배에 탄 사람은 하나하나 다 으뜸패 같은 사내들이었다. 그들에게 짧은 삶과 유쾌한 죽음을! 그리고 내가 나눈 그 멋진 갬은, 늙은 에이해브가 고래뼈 발꿈치로 그 배의 널빤지를 딛고 나서 한참, 아주 한참 뒤의 일이지만, 그 배의 고귀하고 듬직한 색슨식 환대를 떠올리게 한다. 내가 그것을 잊는 날에는 우리 목사가 나를 잊고 악마가 나를 기억하기를. 플립? 우리가 플립을 마셨다고 했던가? 그렇다. 우리는 시간당 10갤런씩 플립을 들이켰다. 그리고 돌풍이 불어오자(그쪽 파타고니아 앞바다는 돌풍이 잦다) 손님이고 뭐고 모두 불려 나가

중간돛을 줄여야 했는데, 우리는 머리가 어찌나 무거웠던지 서로를 고리 밧줄에 매달아 위로 흔들어 올려야 했다. 그리고 모르는 새에 웃옷 자락까지 돛에 말아 넣는 바람에, 우리는 울부짖는 강풍 속에 단단히 접혀 매달린 채 술 취한 모든 뱃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도 돛대들은 배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허둥지둥 기어 내려왔는데, 어찌나 술이 깼던지 플립을 다시 돌려야 했다. 앞갑판 선원실 승강구로 사납게 쏟아져 내린 짠 물보라가 내 입맛에는 플립을 너무 묽게 하고 너무 짜게 절여 놓았지만.

쇠고기는 훌륭했다. 질겼지만 씹는 맛이 있었다. 황소 고기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 단봉낙타 고기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게 어땠는지는 나도 확실히 모른다. 경단도 있었다. 작지만 실하고, 좌우가 꼭 맞게 동그랗고, 부서지지 않는 경단이었다. 삼킨 뒤에도 그것이 몸속에서 느껴지고 이리저리 굴려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몸을 너무 앞으로 구부리면 그것들이 당구공처럼 몸 밖으로 튀어나올 위험이 있었다. 빵은, 그건 어쩔 수 없었다. 게다가 괴혈병을 막아 주었다. 한마디로 그 빵에 그들이 가진 유일한 신선한 먹을거리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앞갑판 선원실은 그리 밝지 않았고, 그 빵을 먹을 때는 어두운 구석으로 비켜서기가 아주 쉬웠다. 그러나 대체로, 돛대 꼭대기부터 키까지 통틀어, 요리사의 솥단지 크기를, 그 자신의 살아 있는 양피지 솥단지까지 셈에 넣어 생각하면, 이물부터 고물까지, 그러니까, 새뮤얼 엔더비호는 유쾌한 배였다. 먹을거리는 좋고 넉넉했으며, 플립은 훌륭하고 독했고, 사내들은 모두 일류였으며, 구두 뒤축부터 모자 띠까지 그만이었다.

그런데 새뮤얼 엔더비호와 내가 아는 다른 몇몇 영국 포경선이, 다는 아니지만, 쇠고기와 빵과 술잔과 농담을 돌리며 먹고 마시고 웃는 일에 쉽게 물리지 않는, 그토록 이름난 환대의 배가 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말해 주겠다. 이 영국 포경선들의 넘치는 융숭함은 역사 연구의 거리다. 그리고 나는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면 역사적 고래 연구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포경업에서 영국인들보다 먼저 나선 것은 홀란트 사람, 제일란트 사람, 덴마크 사람이었다. 영국인들은 그들에게서 포경업에 아직 남아 있는 많은 용어를 물려받았고, 더 중요하게는,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해야 한다는 그들의 기름진 옛 풍습을 물려받았다. 대체로 영국 상선은 선원들에게 인색하지만, 영국 포경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국인에게서 포경의 이 융숭함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연하고 특별한 것이며, 따라서 어떤 특별한 기원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 기원을 여기 짚어 보고, 더 나아가 밝혀 보겠다.

리워야단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나는 우연히 오래된 네덜란드 책 한 권을 만났는데, 고래잡이의 곰팡내 나는 냄새로 보아 포경선원에 관한 책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다. 제목은 「단 코프만」 이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포경선은 통 만드는 사람을 태워야 하므로, 이것은 포경업에 종사한 암스테르담의 어느 통 만드는 사람이 남긴 더없이 귀한 회고록이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이 「 피츠 스왁해머 」 라는 사람의 저작이라는 것을 보고 이 생각은 더 굳어졌다. 그러나 내 친구 스노드헤드 박사는, 산타클로스와 성 포트 대학의 저지 네덜란드어와 고지 독일어 교수인 아주 박식한 사람인데, 내가 수고비로 경랍 양초 한 상자를 주고 번역을 맡기자, 바로 이 스노드헤드 박사가 책을 보자마자, 「단 코프만」 은 「통 만드는 사람」 이 아니라 「상인」 이라는 뜻이라고 나를 일깨웠다. 요컨대 이 오래되고 박식한 저지 네덜란드어 책은 홀란트의 상업을 다루었고, 여러 주제 가운데 그 나라 포경업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스메르」, 곧 「기름기」 라는 제목이 붙은 바로 이 장에서, 나는 네덜란드 포경선

180척의 식료품 창고와 술 창고에 갖춘 물품을 길고 자세하게 적은 목록을 찾아냈다. 스노드헤드 박사가 옮긴 그 목록에서 다음을 베껴 적는다.

쇠고기 40만 파운드. 프리슬란트 돼지고기 6만 파운드. 말린 대구 15만 파운드. 비스킷 55만 파운드. 부드러운 빵 7만 2,000파운드. 버터 2,800퍼킨. 텍설과 레이던 치즈 2만 파운드. 치즈 14만 4,000파운드(아마 질 낮은 물건). 진 550앵커. 맥주 1만 800배럴.

대개 통계표는 읽기에 바싹 메마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독자는 좋은 진과 좋은 음식이 큰 통으로, 배럴로, 쿼트로, 질로 넘쳐흐르는 데 흠뻑 잠기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 맥주와 쇠고기와 빵을 공들여 소화하는 데 사흘을 바쳤다. 그동안 초월적이고 플라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깊은 생각들이 덤으로 숱하게 떠올랐다. 게다가 나는 그 옛 그린란드와 스피츠베르겐 포경업에서 저지 네덜란드의 작살잡이 한 사람이 먹어 치웠을 법한 말린 대구 따위의 양에 관해 나 나름의 보충표를 만들었다. 우선 먹어 치운 버터와 텍설과 레이던 치즈의 양이 놀라워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그들의 타고난 기름진 체질 탓으로 돌린다. 그 체질이 그들의 생업의 성격 때문에 더 기름지게 되었고, 특히 그들이 저 차디찬 극지의 바다에서, 흥겨운 원주민들이 고래기름을 잔 가득 채워 서로 건배하는 바로 그 에스키모 땅의 해안에서 사냥감을 쫓았기 때문이다.

맥주의 양도 1만 800배럴로 아주 많다. 그런데 그 극지 포경은 그곳 기후의 짧은 여름에만 할 수 있었으므로, 이 네덜란드 포경선 한 척의 항해 전체는 스피츠베르겐 바다를 오가는 짧은 뱃길을 포함해도 석 달을 크게 넘지 않았다고 하자. 그리고 180척으로 된 선단의 배마다 30명씩 잡으면 저지 네덜란드 선원은 모두 5,400명이 된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열두 주 몫으로 맥주가 꼭 두 배럴씩 돌아간다.

그 진 550앵커 가운데 그 사람의 정당한 몫은 빼고도 말이다. 그런데 진과 맥주를 마신 이 작살잡이들이, 짐작건대 그토록 곤드레가 되었을 텐데도, 보트 이물에 우뚝 서서 날듯이 달아나는 고래를 잘 겨눌 만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좀 미덥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그들은 고래를 겨누었고 맞히기도 했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것은 맥주가 체질에 잘 맞는 아주 먼 북쪽의 일이었다. 적도에서, 우리의 남쪽 포경에서라면 맥주는 작살잡이를 돛대 꼭대기에서 졸게 하고 보트에서 곤드레가 되게 하기 십상이리라. 그러면 낸터킷과 뉴베드퍼드에 통탄할 손실이 따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만하자. 두세 세기 전의 옛 네덜란드 포경선원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 그리고 영국 포경선원들이 그 훌륭한 본보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는 넉넉히 말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빈 배로 돌아다닐 때,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없거든, 적어도 좋은 저녁 한 끼는 얻어 내라. 그리고 이것으로 술병이 빈다.

제102장 아르사키데스 제도의 정자

지금까지 향유고래를 묘사하면서 나는 주로 놈의 바깥 모습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하거나, 몸속 구조의 몇 가지 특징을 따로 자세히 다루었다. 그러나 놈을 크고 철저하게 아울러 이해하려면, 이제 놈의 단추를 더 풀고, 바지 끈의 쇠고리를 빼고, 대님 고리를 끄르고, 가장 깊은 뼈마디의 갈고리와 고리를 풀어서, 놈의 마지막 모습, 말하자면 아무 조건 없는 뼈대로 당신 앞에 세워 놓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슈메일? 포경업에서 한낱 노잡이일 뿐인 네가 어떻게 고래의 땅속 부분에 관해 무엇이든 안다고 나서느냐? 박식한 스터브가 너희 캡스턴에 올라앉아 고래목(目)의 해부학을 강의하고, 양묘기의 힘을 빌려 견본 갈비뼈를 들어 올려 보여 주기라도 했느냐? 해명해 보라, 이슈메일. 요리사가 통돼지 구이를 접시에 담아내듯, 너는 다 자란 고래를 살펴보려고 너희 갑판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분명 그럴 수 없다. 이슈메일, 너는 지금까지 참된 증인이었다. 그러나 요나만의 특권을 함부로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리워야단의 뼈대를 이루는 장선과 대들보, 서까래, 마룻대, 굄목, 밑받침에 관해, 그리고 어쩌면 놈의 창자 속의 수지 통, 우유 저장실, 식료품실, 치즈 창고에 관해 이야기하는 특권 말이다.

고백하건대, 요나 이후로 다 자란 고래의 가죽 밑으로 아주 깊이 파고든 포경선원은 몇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놈을 축소판으로 해부할 기회를 누리는 복을 얻었다. 내가 탔던 어느 배에서, 한번은 작은

새끼 향유고래 한 마리를 통째로 갑판에 끌어 올린 적이 있다. 작살 미늘과 창날에 씌울 칼집을 만들려고 놈의 주머니, 곧 자루를 얻으려던 것이다. 내가 보트 손도끼와 접칼을 쓰지 않고, 그 어린 새끼의 봉인을 뜯어 그 속을 죄다 읽어 보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쳤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거대하게 다 자란 리워야단의 뼈에 관해 내가 아는 정확한 지식, 그 드문 지식은 아르사키데스 제도의 하나인 트랑크의 왕, 지금은 고인이 된 내 왕족 친구 트랑코의 덕이다. 몇 해 전 나는 「알제의 태수」호라는 무역선에 딸려 트랑크에 있다가, 트랑크의 영주가 푸펠라에 둔 외딴 야자나무 별장에서 아르사키데스의 휴일 한때를 함께 보내자는 초대를 받았다. 푸펠라는 우리 선원들이 대나무 마을이라고 부르던 그의 수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닷가 골짜기였다.

다른 많은 훌륭한 자질 가운데서도 내 왕족 친구 트랑코는 야만스러운 진귀품이라면 무엇이든 경건하게 사랑하는 천품을 타고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솜씨 좋은 이들이 고안해 낼 수 있는 진귀한 것은 무엇이든 푸펠라에 모아들였다. 주로 놀라운 무늬를 새긴 나무, 끌로 다듬은 조가비, 상감한 창, 값비싼 노, 향기로운 카누 따위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이를 싣고 와서 공물을 바치는 파도가 그의 해안에 던져 놓은 갖가지 자연의 경이들 사이사이에 벌여 놓았다.

그 자연의 경이 가운데 으뜸은 거대한 향유고래 한 마리였다. 유난히 오래 사납게 불던 강풍 뒤에, 그 고래는 야자나무 한 그루에 머리를 대고 죽어서 뭍에 얹혀 있었다. 깃털 같은 그 나무의 술 진 늘어진 잎들이 놈의 푸른 물줄기처럼 보였다. 거대한 몸뚱이에서 한 패덤 깊이로 겹겹이 싼 것들을 마침내 다 벗겨 내고 뼈가 햇볕에 바싹 마르자, 뼈대를 조심스럽게 푸펠라 골짜기 위쪽으로 옮겼고, 이제는 위풍당당한 야자나무들로 된 웅장한 신전이 그 뼈대를 감싸 주었다.

갈비뼈에는 전리품이 걸렸다. 등뼈에는 아르사키데스의 연대기가 기이한 상형 문자로 새겨졌다. 두개골 속에는 사제들이 꺼지지 않는 향불을 피워 두어서, 그 신비한 머리는 다시 김 서린 물줄기를 내뿜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매달린 무시무시한 아래턱이 모든 신도의 머리 위에서 흔들렸다. 다모클레스를 그토록 겁에 질리게 한, 머리카락 한 올에 매달린 칼처럼.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숲은 얼음 골짜기의 이끼처럼 푸르렀다. 나무들은 살아 있는 수액을 느끼며 높고 거만하게 서 있었다. 그 밑의 부지런한 땅은 휘황한 양탄자를 얹은 베틀 같았는데, 땅을 기는 덩굴손이 그 날실과 씨실이었고, 살아 있는 꽃들이 그 무늬였다. 열매를 단 가지를 모두 거느린 모든 나무, 모든 덤불과 고사리와 풀, 소식을 나르는 공기, 이 모든 것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잎사귀들의 얽힘 사이로, 거대한 해는 지칠 줄 모르는 푸르름을 짜는 날아다니는 북 같았다. 오, 바쁜 직공이여! 보이지 않는 직공이여! 멈추라! 한마디만! 그 천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느 궁전을 꾸미려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쉼 없이 수고하는가? 말하라, 직공이여! 손을 멈추라! 그대와 꼭 한마디만! 아니다, 북은 날아가고, 무늬는 베틀에서 떠나 흘러가며, 큰물처럼 쏟아지는 양탄자는 영원히 미끄러져 간다. 직공인 신, 그는 짠다. 그리고 그 베 짜는 소리에 귀가 먹어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리고 베틀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 웅웅거림에 귀가 먹는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때에야 비로소 그 베틀을 통해 말하는 천 개의 목소리를 듣게 되리라. 모든 물질의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날아다니는 물레 가락 사이에서는 들리지 않는 말소리, 바로 그 말이 열린 창문에서 터져 나와 담장 밖에서는 또렷이 들린다. 그렇게 해서 악행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 인간이여! 그러니 조심하라. 그렇게, 이

거대한 세상의 베틀이 내는 온갖 소음 속에서도, 너의 가장 은밀한 생각을 멀리서 누가 엿들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 아르사키데스 숲의 푸르고 생명으로 쉴 새 없는 베틀 한가운데, 그 거대하고 흰, 숭배받는 뼈대가 느긋하게 누워 있었다. 어마어마한 게으름뱅이였다! 그러나 끝없이 짜이는 푸른 날실과 씨실이 그의 둘레에서 뒤섞이며 웅웅거릴 때, 그 힘센 게으름뱅이는 교활한 직공처럼 보였다. 그 자신은 온통 덩굴로 휘감겨, 달마다 더 푸르고 더 싱그러운 푸르름을 입었지만, 그 자신은 뼈대였다. 삶이 죽음을 감쌌고, 죽음이 삶을 받쳐 주는 시렁이 되었다. 음울한 신이 젊은 삶을 아내로 맞아 고수머리의 영광들을 낳았다.

그런데 내가 트랑코왕과 함께 이 경이로운 고래를 찾아가, 두개골이 제단이 되고 진짜 물줄기가 뿜어 나오던 자리에서 인공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왕이 예배당을 진귀품으로 여긴다는 데 놀랐다. 왕은 웃었다. 그러나 사제들이 그 연기 나는 물줄기가 진짜라고 맹세한다는 데 나는 더 놀랐다. 나는 이 뼈대 앞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덩굴을 옆으로 헤치고, 갈비뼈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아르사키데스 노끈 한 뭉치를 들고 굽이굽이 그늘진 숱한 열주와 정자 사이를 오래 헤매며 맴돌았다. 그러나 곧 노끈이 다 풀렸다. 그래서 노끈을 따라 되돌아가 들어갔던 구멍으로 나왔다. 그 안에서 나는 살아 있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 거기에는 뼈밖에 없었다.

나는 푸른 나뭇가지를 잘라 잣대를 만들어 들고 다시 한 번 뼈대 속으로 뛰어들었다. 두개골의 화살 구멍으로 사제들이 내가 마지막 갈비뼈의 높이를 재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들이 소리쳤다. "감히 우리의 이 신을 재려 드느냐! 그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소, 사제님들. 그럼 당신들은 그의 길이를 얼마로 잡소?" 그러자 그들 사이에 피트와 인치를 두고 사나운 다툼이 일었다. 그들은 야드

자로 서로의 머리통을 갈겼고, 거대한 두개골이 메아리쳤다. 나는 그 행운의 기회를 붙잡아 내 치수 재기를 재빨리 끝냈다.

이제 그 치수를 당신 앞에 내놓으려 한다. 그러나 먼저 적어 두자. 이 문제에서 나는 내 멋대로 꾸며 낸 치수를 아무렇게나 늘어놓을 수 없다. 내가 정확한지 시험하려고 당신이 참고할 수 있는 뼈대의 권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듣자 하니 잉글랜드의 포경항 가운데 하나인 헐에 리워야단 박물관이 있어서, 훌륭한 지느러미고래와 다른 고래의 표본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박물관에는 그 주인들이 「미국에 하나뿐인 그린란드고래, 곧 강고래의 완전한 표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게다가 잉글랜드 요크셔의 버턴 콘스터블이라는 곳에서는 클리퍼드 콘스터블 경이라는 사람이 향유고래 뼈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크기는 웬만할 뿐이고, 내 친구 트랑코왕의 것처럼 다 자란 크기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

두 경우 모두, 이 두 뼈대의 주인이었던 뭍에 얹힌 고래들은 처음에 비슷한 근거로 그 소유자들이 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랑코왕은 갖고 싶었기 때문에 제 고래를 차지했고, 클리퍼드 경은 그 일대 영지의 영주였기 때문이다. 클리퍼드 경의 고래는 마디마디 다 이어 맞춰 놓았다. 그래서 커다란 서랍장처럼 그 모든 뼈의 빈 데를 열고 닫을 수 있고, 갈비뼈를 거대한 부채처럼 펼칠 수 있으며, 아래턱에 매달려 온종일 그네를 탈 수도 있다. 그 고래의 뚜껑 문과 덧문 몇 군데에는 자물쇠를 달 예정이고, 장차 하인 하나가 열쇠 꾸러미를 허리에 차고 방문객들을 안내하게 된다. 클리퍼드 경은 등뼈 속의 속삭임 회랑을 한번 들여다보는 데 2펜스, 소뇌의 빈 데에서 메아리를 듣는 데 3펜스, 이마에서 바라보는 견줄 데 없는 경치에 6펜스를 받을 생각이다.

이제 적어 나갈 뼈대 치수는 내 오른팔에서 글자 그대로 베낀 것이다. 그때 나는 그 치수를 오른팔에 문신으로 새겨 두었다. 그 무렵의 거친

방랑 속에서는 그런 귀한 통계를 안전하게 보존할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리가 비좁았고, 그때 짓고 있던 시를 위해 몸의 다른 부분은, 적어도 문신이 없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백지로 남겨 두고 싶었기에, 자질구레한 인치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실은 고래의 치수를 그에 걸맞게 잴 때 인치 따위가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제103장 고래 뼈대 재기

우선 이제 간단히 그 뼈대를 보여 줄 이 리워야단이 살아 있을 때의 덩치에 관해 자세하고 분명한 진술을 당신 앞에 내놓고 싶다. 그런 진술이 여기서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

내가 공들여 해 본 계산에 따르면, 그리고 그 계산은 몸길이 60피트인 가장 큰 그린란드고래가 70톤이라는 스코스비 선장의 추정에 일부 기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꼼꼼한 계산에 따르면, 가장 큰 향유고래, 몸길이가 85피트에서 90피트 사이이고 가장 굵은 둘레가 40피트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고래는 적어도 90톤은 나갈 것이다. 그러니 1톤에 사람 열세 명으로 치면, 그 고래는 주민 천백 명이 사는 마을 하나의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뭍사람의 상상 속에서 이 리워야단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려면, 멍에 멘 소들처럼 머리를 여럿 매어 끌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여러 모로 놈의 두개골, 숨구멍, 턱, 이빨, 꼬리, 이마, 지느러미, 그 밖의 여러 부분을 당신 앞에 보여 주었으니, 이제는 그저 놈의 거칠 것 없는 뼈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만 짚어 보겠다. 그러나 거대한 두개골이 뼈대 전체 길이에서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단연 가장 복잡한 부분이며, 이 장에서는 그에 관해 아무것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가 나아가는 동안 당신은 그것을 마음에, 아니면 겨드랑이에 꼭 끼고 다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보려는 전체 구조를 온전히 알 수 없으리라.

길이로 보면, 트랑크에 있는 향유고래 뼈대는 72피트였다. 그러니 살아서 살을 다 입고 몸을 쭉 폈을 때는 90피트였음에 틀림없다. 고래의 뼈대는 산 몸에 비해 길이가 5분의 1쯤 줄기 때문이다. 이 72피트 가운데 두개골과 턱이 20피트쯤을 차지했고, 남은 50피트쯤이 그냥 등뼈였다. 이 등뼈에, 그 길이의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데까지, 한때 놈의 급소들을 감싸던 거대하고 둥근 갈비뼈 바구니가 붙어 있었다.

고래뼈 갈비가 달린 이 거대한 가슴과 거기서 곧게 멀리 뻗어 나간 길고 밋밋한 등뼈는, 내게는 조선대 위에 갓 놓인 커다란 배의 선체와 적잖이 닮아 보였다. 이물 쪽에 맨 늑재가 스무 개쯤만 박혀 있고, 용골은 그때로서는 그 밖에는 길고 이어지지 않은 목재 하나일 뿐인 배 말이다.

갈비뼈는 한쪽에 열 개씩이었다. 목에서부터 세면 첫째 것은 길이가 6피트 가까이 되었다. 둘째, 셋째, 넷째는 차례로 점점 길어져서, 가운데 갈비뼈 가운데 하나인 다섯째에서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8피트 하고 몇 인치였다. 그다음부터 남은 갈비뼈들은 줄어들어서, 열째이자 마지막 것은 5피트 하고 몇 인치에 지나지 않았다. 굵기는 대체로 모두 길이에 걸맞았다. 가운데 갈비뼈들이 가장 휘어 있었다. 아르사키데스 제도의 몇몇 섬에서는 그것을 작은 시내에 놓는 오솔길 다리의 들보로 쓴다.

이 갈비뼈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 책에서 여러 모로 되풀이한 사정, 곧 고래의 뼈대가 결코 살을 입은 모습의 틀이 아니라는 사정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트랑크 갈비뼈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갈비뼈 하나는 살아 있을 때 몸통이 가장 두꺼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살을 입은 이 고래 몸통의 가장 두꺼운 데는 적어도 16피트는 되었음에 틀림없는데, 그에 해당하는 갈비뼈는 8피트를 조금 넘을 뿐이었다. 그러니 이 갈비뼈는 그 부분이 살아 있을 때의 참된

크기를 절반밖에 전해 주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 맨 등뼈밖에 보이지 않는 곳 얼마쯤은, 한때 살과 근육과 피와 창자로 몇 톤이나 되는 덩치가 더해져 온통 감싸고 있던 곳이었다. 더구나 넉넉한 지느러미 대신 여기서 내가 본 것은 흐트러진 마디 몇 개뿐이었다. 그리고 무겁고 위풍당당하지만 뼈가 없는 꼬리지느러미 대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했다, 겁 많고 세상 구경 못 한 인간이 이 평화로운 숲에 누운 죽어서 앙상해진 뼈대를 들여다보기만 해서 이 경이로운 고래를 제대로 이해하려 들다니,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가. 아니다. 가장 빠른 위험의 한복판에서만, 성난 꼬리지느러미가 일으키는 소용돌이 속에서만, 깊고 끝없는 바다 위에서만, 살을 다 입은 고래를 참으로, 살아 있는 그대로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등뼈. 그것을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중기로 등뼈의 뼈들을 똑바로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다. 빨리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다 쌓고 보니, 폼페이우스 기둥과 무척 닮았다.

등뼈는 모두 마흔 몇 개인데, 뼈대에서는 서로 맞물려 있지 않다. 대개는 고딕 첨탑의 커다란 혹 달린 돌덩이들처럼 놓여서, 무거운 석조의 단단한 층을 이룬다. 가장 큰 것은 가운데 있는 것인데, 너비는 3피트가 조금 못 되고 높이는 4피트가 넘는다. 가장 작은 것은 등뼈가 꼬리로 가늘어지는 데 있는데, 너비가 2인치밖에 안 되고 흰 당구공과 좀 닮았다. 그보다 더 작은 것들도 있었지만 사제의 아이들인 어린 식인종 꼬마 몇이 구슬치기를 하려고 훔쳐 가서 잃어버렸다고 들었다. 그러니 보라, 살아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거대한 것의 등뼈조차 마침내는 그저 아이들 장난으로 가늘어져 끝나는 것이다.

제104장 화석 고래

그 어마어마한 덩치 때문에, 고래는 늘이고 부풀리고 두루 장황하게 늘어놓기에 더없이 알맞은 주제가 되어 준다. 줄이려 해도 놈을 줄일 수는 없다. 마땅히 놈은 황제판 이절판으로만 다루어야 한다. 숨구멍에서 꼬리까지 놈의 몸길이가 몇 펄롱인지, 허리둘레가 몇 야드인지 다시 늘어놓지 않더라도, 놈의 창자가 거대하게 똬리 튼 모습만 생각해 보라. 창자는 전열함의 땅속 같은 맨 아래 갑판에 사려 둔 커다란 닻줄과 굵은 밧줄들처럼 놈의 몸속에 놓여 있다.

이 리워야단을 맨손으로 다루겠다고 나선 이상, 나는 이 일에서 모든 것을 아는 듯 빠짐없이 다룬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마땅하다. 놈의 피속의 가장 작은 씨앗 하나도 놓치지 않고, 놈의 창자의 마지막 굽이까지 놈을 풀어내야 한다. 놈의 오늘날 사는 곳과 해부학의 특징은 이미 대부분 묘사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고고학적, 화석학적, 대홍수 이전의 관점에서 놈을 크게 그려 보이는 일이다. 리워야단이 아닌 다른 생물, 이를테면 개미나 벼룩에 이런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인다면 터무니없이 호언장담한다고 여겨도 마땅하리라. 그러나 리워야단이 본문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나는 기꺼이 사전에서 가장 무거운 낱말들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이 장한 일에 나서련다. 그리고 여기 말해 두자면, 이 논설을 써 오면서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편리할 때면, 나는 언제나 바로 그 목적으로 사들인 존슨 사전의 커다란 사절판을 썼다. 그 이름난 사전

편찬자의 유난한 몸집이, 나 같은 고래 저자가 쓸 사전을 엮기에 더 걸맞았기 때문이다.

주제가 평범해 보여도 그 주제와 함께 솟아오르고 부풀어 오르는 작가들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그렇다면 이 리워야단에 관해 쓰는 나는 어떻겠는가? 나도 모르게 내 글씨는 벽보의 대문자만큼 커진다. 콘도르의 깃펜을 다오! 베수비오의 분화구를 잉크병으로 다오! 친구들이여, 내 팔을 붙들어 다오! 이 리워야단에 관한 생각을 글로 옮기기만 해도, 그 생각들은 넓게 뻗어 나가 아우르는 범위 때문에 나를 지치게 하고 아찔하게 하기 때문이다. 마치 학문의 온 테두리와, 지나간, 지금의, 앞으로 올 고래와 인간과 마스토돈의 모든 세대를, 지상과 온 우주에서, 그 변두리까지 빼놓지 않고, 돌고 도는 제국의 모든 파노라마와 함께 아우르려는 듯이. 크고 너그러운 주제의 힘이란 이와 같고, 이토록 사람을 크게 만든다! 우리는 그 주제의 덩치만큼 부푼다. 장대한 책을 지으려면 장대한 주제를 골라야 한다. 벼룩에 관해서는 위대하고 오래 남을 책을 결코 쓸 수 없다. 그것을 시도한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화석 고래라는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지질학자로서 내 신임장을 내보이겠다. 이런저런 일을 하던 시절에 나는 석공이었고, 도랑과 운하와 우물, 포도주 저장고, 지하실, 온갖 물탱크를 크게 파는 사람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서두 삼아 독자에게 일깨워 두고 싶다. 더 이른 지질 시대의 지층에서는 이제 거의 완전히 사라진 괴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이른바 제삼기층에서 발견되는 그 뒤의 유물들은 시대를 거스른 생물들과, 그 먼 후손이 방주에 들어갔다고 하는 생물들 사이를 잇는, 아니면 적어도 중간에 끊긴 고리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고래는 모두 표층 바로 앞의 마지막 시대인 제삼기에 속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오늘날 알려진 어느 종과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 종들과 충분히 닮아서 고래목 화석의 반열에 들 자격이 있다.

아담 이전 고래들의 떨어져 부서진 화석, 그 뼈와 뼈대의 조각들이 지난 서른 해 동안 이따금 알프스 기슭에서, 롬바르디아에서, 프랑스에서,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 미국의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주에서 발견되었다. 그런 유물 가운데 더 기이한 것으로는 1779년 파리의 도핀 거리에서 파낸 두개골 일부가 있다. 도핀 거리는 튈르리궁 거의 바로 앞으로 이어지는 짧은 거리다.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에 안트베르펜의 큰 부두를 팔 때 파낸 뼈들도 있다. 퀴비에는 이 조각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리워야단 종의 것이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모든 고래목 유물 가운데 단연 가장 놀라운 것은 1842년 앨라배마의 크리 판사 농장에서 발견된, 멸종한 괴물의 거의 완전한 거대한 뼈대였다. 근처에 살던 겁에 질려 쉽게 믿는 노예들은 그것을 타락한 천사의 뼈로 여겼다. 앨라배마의 학자들은 그것이 거대한 파충류라고 선언하고 바실로사우루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그 뼈 몇 개를 견본으로 바다 건너 영국의 해부학자 오언에게 가져가자, 이른바 이 파충류는 사라진 종이기는 해도 고래로 밝혀졌다. 이 책에서 거듭거듭 되풀이한 사실, 곧 고래의 뼈대는 살을 다 입은 몸의 모양에 관해 거의 실마리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뜻깊게 보여 주는 예다. 그래서 오언은 그 괴물에게 제우글로돈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런던 지질학회에서 읽은 논문에서 그것은 지구의 변천이 지워 없앤 가장 놀라운 생물 가운데 하나라는 뜻의 판정을 내렸다.

이 거대한 리워야단의 뼈대와 두개골과 엄니와 턱과 갈비뼈와 등뼈 사이에 서면, 그것들은 모두 오늘날 살아 있는 바다 괴물 종족들과 부분적으로 닮았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나이 많은

그 선배들, 곧 멸종한 시대를 거스른 리워야단들과도 비슷하게 닮아 있다. 그럴 때 나는 큰물에 실려 시간 자체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전의 그 경이로운 시대로 떠밀려 간다. 시간은 인간과 함께 시작되었으니까. 여기서 사투르누스의 잿빛 혼돈이 나를 덮치며 굴러가고, 나는 저 극지의 영원을 희미하게, 몸서리치며 언뜻 본다. 쐐기처럼 박힌 얼음의 보루가 지금의 열대를 세게 짓누르고, 이 세상 둘레 2만 5,000마일 어디에도 사람이 살 만한 땅은 한 뼘도 보이지 않던 때를. 그때는 온 세상이 고래의 것이었다. 그리고 창조의 왕인 고래는 지금의 안데스산맥과 히말라야산맥의 줄기를 따라 제 항적을 남겼다. 누가 리워야단 같은 족보를 내보일 수 있으랴? 에이해브의 작살은 파라오의 피보다 더 오래된 피를 흘리게 했다. 므두셀라도 학교 다니는 아이 같다. 나는 셈과 악수하려고 주위를 둘러본다. 모세 이전부터, 근원도 모르게 존재해 온 고래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에 나는 소름이 끼친다. 그것은 모든 시간보다 먼저 있었으니, 인간의 모든 시대가 끝난 뒤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리워야단은 자연의 연판(鉛版)에 아담 이전의 자취를 남기고, 석회암과 이회토에 제 옛 흉상을 물려주었을 뿐만이 아니다. 거의 화석이라 할 만큼 오래된 이집트의 석판에서도 우리는 놈의 지느러미 자국을 틀림없이 찾아낸다. 쉰 해쯤 전, 덴데라의 큰 신전의 한 방에서 화강암 천장에 새기고 칠한 천구도가 발견되었는데, 오늘날 천구의의 기괴한 형상들처럼 켄타우로스와 그리핀과 돌고래가 가득했다. 그것들 사이를 미끄러지며 늙은 리워야단은 옛날처럼 헤엄쳤다. 솔로몬이 요람에 눕기 몇 세기 전에 그 천구도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또 고래가 대홍수 이후에도 뼈를 지닌 실체로 있었음을 오래된 것으로 증언하는 기이한 기록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바르바리를 여행한

옛 여행가인 존경할 만한 요한 레오가 적어 둔 것이다.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의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서까래와 들보가 고래뼈로 되어 있다. 그 해안에는 괴물 같은 크기의 고래들이 흔히 죽은 채 밀려 올라오기 때문이다. 일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신전에 내리신 은밀한 힘 때문에 어떤 고래도 그 앞을 지나면 곧바로 죽는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실상은 신전 양쪽에 바위들이 바다 속으로 2마일이나 뻗어 있어서, 고래가 거기 부딪치면 다친다는 것이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긴 고래 갈비뼈 하나를 기적으로 모셔 두는데, 그것이 볼록한 쪽을 위로 하고 땅에 놓여 아치를 이루고 있어서, 낙타 등에 올라탄 사람도 그 꼭대기에 손이 닿지 않는다. 이 갈비뼈는 (요한 레오가 말하기를) 내가 보기 백 년 전부터 거기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들의 역사가들은 마호메트를 예언한 어느 선지자가 이 신전에서 나왔다고 단언하고, 어떤 이들은 서슴없이 선지자 요나가 이 신전 기슭에서 고래에게 토해졌다고 주장한다."

독자여, 고래의 이 아프리카 신전에 당신을 남겨 두고 떠난다. 그리고 당신이 낸터킷 사람이고 포경선원이라면, 당신은 거기서 말없이 경배하리라.

제105장 고래는 작아지는가? 사라질 것인가?

그렇다면 이 리워야단이 영원의 상류에서 우리에게로 허우적거리며 내려오는 만큼, 놈이 기나긴 세대를 거치는 동안 조상들의 본디 덩치에서 쪼그라들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나 조사해 보면, 오늘날의 고래가 제삼기층(인간 이전의 뚜렷한 지질 시대를 아우르는 지층)에서 화석 유해가 발견되는 고래들보다 덩치가 클 뿐 아니라, 그 제삼기층에서 발견되는 고래들 가운데서도 나중 지층에 속하는 고래들이 앞선 지층의 고래들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파낸 아담 이전의 고래 가운데 단연 가장 큰 것은 앞 장에서 말한 앨라배마의 고래인데, 그것은 뼈대 길이가 70피트가 안 되었다. 그런데 이미 보았듯이, 오늘날의 큰 고래 뼈대는 줄자로 재면 72피트가 나온다. 그리고 포경선원들의 말에 따르면, 잡았을 때 길이가 100피트 가까운 향유고래도 잡힌 적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고래가 이전의 모든 지질 시대 고래보다 덩치가 커졌다 해도, 아담 시대 이후로는 쪼그라든 것은 아닐까?

플리니우스 같은 신사들과 옛 박물학자들 대개의 기록을 믿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렇게 결론지어야 한다. 플리니우스는 살아 있는 덩치가 몇 에이커에 이르는 고래 이야기를 하고, 알드로반디는 길이가 800피트인 다른 고래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밧줄 공장만 한, 템스 강 밑 터널만 한 고래들이라니! 그리고 쿡의 박물학자들인 뱅크스와

솔란데르 시대에도 학술원의 덴마크 회원 한 사람이 아이슬란드의 어떤 고래들(레이단시스쿠르, 곧 주름배)을 120야드, 곧 360피트로 적어 두었다. 그리고 프랑스 박물학자 라세페드는 공들여 쓴 고래의 역사에서, 그 책의 맨 첫머리(3쪽)에 참고래를 100미터, 곧 328피트로 적어 두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것은 겨우 서기 1825년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믿을 포경선원이 있을까? 없다. 오늘날의 고래는 플리니우스 시대의 조상만큼 크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플리니우스가 있는 곳에 가게 되면, 포경선원인 나는(그보다는 더 포경선원이니까) 그에게 대담하게 그렇게 말해 주리라.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플리니우스가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에 묻힌 이집트의 미라들이 관 속에서 재어 보면 양말 신은 오늘날의 켄터키 사람만큼도 되지 않고, 가장 오래된 이집트와 니느웨 석판에 새긴 소와 다른 짐승들이, 그려진 상대적 비례로 보아, 스미스필드의 혈통 좋고 외양간에서 길러 상 받은 소가 파라오의 살진 암소 가운데 가장 살진 놈과 맞먹을 뿐 아니라 덩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똑같이 분명하게 증명하는데, 이 모든 것을 앞에 두고, 모든 짐승 가운데 고래만이 쪼그라들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물음이 남아 있다. 낸터킷 사람들 가운데 생각이 깊은 이들이 자주 들추는 물음이다. 포경선의 돛대 꼭대기에서 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망꾼들이 이제는 베링 해협까지, 세상의 가장 외진 비밀 서랍과 벽장 속까지 파고들고, 대륙의 모든 해안을 따라 천 개의 작살과 창이 날아가는 탓에, 논란거리는 이것이다. 리워야단이 이토록 널리 쫓기고 이토록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것을 오래 견딜 수 있을까? 결국 물에서 씨가 말라, 마지막 고래가 마지막 인간처럼 마지막 파이프를 피우고는 마지막 한 모금과 함께 저 자신도 김이 되어 사라지지 않을까?

혹 달린 고래 떼를 혹 달린 버펄로 떼에 견주어 보라. 마흔 해도 안 된 옛날, 그 버펄로 떼는 수만 마리씩 일리노이와 미주리의 대초원을 뒤덮고, 쇠 같은 갈기를 흔들며 천둥이 엉긴 이마를 찌푸리고, 사람 많은 강가 대도시들의 터를 노려보았다. 지금 그곳에서는 점잖은 중개인이 땅을 1인치에 1달러씩 판다. 이렇게 견주어 보면, 쫓기는 고래도 이제 빠른 멸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 나오는 듯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모든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 그토록 짧은 시간 전, 사람 한평생도 안 되는 시간 전에 일리노이의 버펄로 수는 지금 런던의 인구보다 많았는데, 오늘날 그 일대 어디에도 그들의 뿔 하나 발굽 하나 남아 있지 않고, 이 놀라운 몰살의 원인은 인간의 창이었다. 그렇지만 고래 사냥의 아주 다른 성격은 리워야단에게 그토록 영광스럽지 못한 최후를 단호히 허락하지 않는다. 배 한 척에 탄 마흔 명이 마흔여덟 달 동안 향유고래를 사냥해서 마침내 고래 마흔 마리의 기름을 싣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아주 잘했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서부의 옛 캐나다 사냥꾼과 원주민 사냥꾼, 덫 사냥꾼의 시절, 아득한 서부가(그 서부의 해 지는 곳에서 아직도 해가 뜬다) 황야이자 처녀지였을 때에는, 모카신을 신은 같은 수의 사람들이 같은 달수 동안 배를 타는 대신 말을 타고 다니며 버펄로를 마흔 마리가 아니라 4만 마리도 넘게 죽였으리라. 필요하다면 통계로 밝힐 수 있는 사실이다.

또 제대로 따져 보면, 이를테면 지난날(지난 세기 후반이라고 하자) 이 리워야단들을 작은 무리로 지금보다 훨씬 자주 마주쳤고, 그래서 항해가 그리 길지 않았으며 벌이도 훨씬 좋았다는 것이 향유고래가 점점 사라진다는 논증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른 데서 이야기했듯이, 그 고래들은 어떤 안전을 생각해서 이제 거대한 대상(隊商)을 이루어 바다를 헤엄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 흩어져 다니던 외톨이와 짝과

무리와 학교가 이제는 상당 부분 거대하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드물게 나타나는 군대로 모였다. 그것뿐이다. 그리고 이른바 수염고래가 예전에 득실거리던 여러 어장에 더는 나타나지 않으니 그 종도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도 똑같이 그릇된 듯하다. 그들은 그저 이 곶에서 저 곶으로 쫓겨 갈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해안이 더는 그들의 물줄기로 활기를 띠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어딘가 더 먼 다른 물가가 아주 최근에 그 낯선 광경에 깜짝 놀랐으리라.

더욱이 마지막에 말한 이 리워야단들에게는 튼튼한 요새가 두 곳 있는데,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한 그 요새들은 영원히 함락되지 않으리라. 그리고 서리 낀 스위스 사람들이 골짜기를 침략당하자 제 산으로 물러갔듯이, 중간 바다의 사바나와 숲 속 빈터에서 쫓겨난 수염고래들은 마침내 극지의 성채로 물러가, 그곳의 마지막 유리 같은 방벽과 성벽 밑으로 잠수했다가 얼음 벌판과 유빙 사이로 떠오를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12월의 마법의 원 안에서 인간의 모든 추격을 비웃을 수 있다.

그러나 카샬롯 한 마리에 이 수염고래가 아마 쉰 마리씩 작살을 맞으므로, 앞갑판 선원실의 철학자 몇몇은 이 확실한 학살이 이미 그들의 대대를 아주 심각하게 줄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이 고래 가운데 적어도 1만 3,000마리가 해마다 북서 해안에서 미국인들 손에만 죽어 왔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 사정마저도 반대 논증으로서 거의, 아니 전혀 쓸모없게 만드는 고려 사항들이 있다.

지구에서 더 거대한 생물일수록 그 수가 많다는 것을 좀 미심쩍어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고아의 역사가 하르토가 시암의 왕이 한 번 사냥에 코끼리 4,000마리를 잡았다고, 그 지역에서는 코끼리가 온대 지방의 소 떼만큼 많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어라 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수천 년 동안 세미라미스에게, 포로스에게, 한니발에게, 동방의 잇따른

모든 군주에게 사냥당해 온 이 코끼리들이 아직도 그곳에 많이 살아남아 있다면, 거대한 고래는 더더욱 모든 사냥을 견뎌 내리라는 것을 의심할 까닭이 없어 보인다. 고래가 거닐 목장은 아시아, 두 아메리카, 유럽과 아프리카, 뉴홀랜드, 바다의 모든 섬을 다 합친 것의 꼭 두 배나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래는 수명이 무척 길어서 아마 백 살이 넘게 사는 것으로 짐작되므로, 어느 한 시기에나 다 자란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창조 세계의 모든 무덤과 공동묘지와 가족 납골당이 일흔다섯 해 전에 살아 있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의 산 몸을 내놓고, 이 셀 수 없는 무리를 지금 지구의 인구에 보탠다고 상상해 보면 곧 얼마쯤 짐작이 가리라.

그러므로 이 모든 까닭으로, 우리는 고래가 개체로는 아무리 죽어 없어질 수 있다 해도 종으로는 불멸이라고 여긴다. 고래는 대륙들이 물 위로 솟기 전에 바다를 헤엄쳤다. 한때는 튈르리궁과 윈저성과 크렘린궁터 위를 헤엄쳤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노아의 방주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쥐를 몰살하려고 세상이 네덜란드처럼 다시 물에 잠기는 날이 온다 해도, 그때도 영원한 고래는 살아남아, 적도의 큰물 가장 높은 물마루에 몸을 일으키고 하늘을 향해 거품 이는 도전의 물줄기를 뿜으리라.

제106장 에이해브의 다리

에이해브 선장이 런던의 새뮤얼 엔더비호를 허겁지겁 떠나면서 그의 몸에 작은 탈이 없지 않았다. 보트의 가로장 위로 어찌나 세차게 내려섰던지, 고래뼈 의족이 반쯤 쪼개질 만큼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제 배 갑판에, 거기 있는 제 의족 구멍에 이르고 나서, 키잡이에게 다급한 명령을 내리려고(늘 그렇듯, 키를 충분히 꿋꿋하게 잡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그토록 격렬하게 몸을 홱 돌렸을 때, 이미 흔들린 그 고래뼈는 또 한 번 비틀리고 뒤틀렸다.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멀쩡하고 겉보기에는 튼튼했지만, 에이해브는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온몸에 배어 있는 그 미친 무모함에도 불구하고, 에이해브가 이따금 반쯤 딛고 서 있는 그 죽은 뼈의 상태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쓴 것은 놀랄 일이 아닌 듯했다. 피쿼드호가 낸터킷을 떠나기 그리 오래지 않은 어느 밤, 그가 땅바닥에 엎어진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을 듯한 어떤 사고로, 그의 고래뼈 의족이 어찌나 격렬하게 빠져 버렸던지, 말뚝처럼 그의 사타구니를 쳐서 거의 꿰뚫을 뻔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상처를 말끔히 낫게 하기까지는 무척 애를 먹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리 없었다. 그때 겪고 있던 고통의 모든 괴로움은 이전의 비애가 곧바로 낳은 결과일 뿐이라는 생각이. 그리고 늪의 가장 독한

파충류도 숲의 가장 고운 명금(鳴禽)만큼이나 어김없이 제 족속을 이어 가듯이, 온갖 비참한 일도 모든 행복과 똑같이 저절로 저와 닮은 것을 낳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뚜렷이 보는 듯했다. 그렇다, 똑같이보다 더하다고 에이해브는 생각했다. 슬픔의 조상과 후손은 기쁨의 조상과 후손보다 더 멀리까지 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는 넌지시 비치지도 않겠다. 어떤 정경(正經)의 가르침에서 끌어낸 추론에 따르면, 이승의 어떤 자연스러운 즐거움은 저승에 태어날 자식을 하나도 두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의 온갖 절망이라는, 기쁨 없는 자식 없음이 뒤따르는 반면, 어떤 죄 많은 인간의 비참은 무덤 너머에서도 영원히 늘어 가는 슬픔의 후손을 여전히 풍성하게 낳으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도 넌지시 비치지 않더라도, 이 일을 더 깊이 분석해 보면 여전히 불균형이 있는 듯하다. 에이해브는 생각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행복에도 늘 어떤 하찮은 시시함이 숨어 있지만, 마음의 모든 비애에는 밑바닥에 신비한 뜻이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대천사 같은 장엄함이 있다. 그러니 그것들을 부지런히 더듬어 찾아보아도 그 뻔한 추론은 어긋나지 않는다. 이 고귀한 인간의 비참의 족보를 더듬어 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근원도 없는 신들의 장자 상속권 사이에 이른다. 그래서 건초 말리기 좋은 기쁜 해와 부드럽게 심벌즈를 울리는 둥근 추수의 달을 다 앞에 두고서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신들 자신도 영원히 기쁘지는 않다는 것을. 인간의 이마에 찍힌 지울 수 없는 슬픈 점은, 거기 서명한 이들이 찍은 슬픔의 도장일 뿐이다.

여기서 나도 모르게 비밀 하나를 털어놓고 말았다. 어쩌면 앞에서 정해진 차례대로 밝혔어야 더 마땅했을 비밀이다. 에이해브에 관한 다른 많은 사정과 함께,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늘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피쿼드호가 떠나기 전후의 어느 기간 동안, 그가 어째서 그토록 대라마 같은 배타심으로 몸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동안 말하자면 죽은 자들의

대리석 원로원 사이에서 말없는 피난처를 찾았는지. 펠레그 선장이 퍼뜨린 그 까닭은 결코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하기야 에이해브의 더 깊은 부분에 관해서는, 무엇이 드러나든 설명해 주는 빛이라기보다 뜻깊은 어둠에 가까웠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다. 적어도 이 한 가지 일은 드러났다. 그 끔찍한 사고가 그가 한동안 숨어 지낸 밑바탕이었다. 그뿐 아니라, 무슨 까닭에서든 그에게 덜 막힌 채 다가갈 특권을 누리던, 뭍에서 점점 좁아지고 줄어드는 몇몇 사람들, 그 겁 많은 사람들에게는 앞서 넌지시 비친 그 사고가, 에이해브가 끝내 침울하게 아무 해명도 하지 않은 채로 남았기에, 유령과 통곡의 나라에서 아주 비롯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는 공포를 두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위하는 열성에서, 저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일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모두 공모했다. 그래서 꽤 시간이 지나서야 이 일이 피쿼드호 갑판에 새어 나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야 어떻든, 허공의 보이지 않는 애매한 공회(公會)나 복수심에 찬 불의 군주와 권세들이 지상의 에이해브와 상관이 있든 없든, 그의 다리에 관한 이번 일에서 그는 분명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목수를 부른 것이다.

그리고 그 일꾼이 그의 앞에 나타나자, 그는 지체 없이 새 다리를 만들기 시작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항해사들에게, 가장 튼튼하고 결이 가장 맑은 재료를 꼼꼼히 골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항해에서 지금까지 모아 둔 (향유고래) 턱뼈의 기둥감과 장선감을 모두 목수에게 대 주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목수는 그날 밤 안에 다리를 다 만들라는 명령과, 지금 쓰고 있는 믿을 수 없는 다리에 딸린 것과는 따로 모든 부속품을 갖추라는 명령을 받았다. 게다가 배의 대장간 화덕을 선창에서 한동안 놀고 있던 데서 끌어 올리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일을 서두르려고, 대장장이에게 필요할지 모를 쇠 장치는 무엇이든 당장 벼리기 시작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제107장 목수

술탄처럼 토성의 달들 사이에 자리 잡고 앉아, 높이 추상해 낸 인간 하나만을 떼어 보라. 그는 경이요, 장엄이요, 비애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인류를 덩어리로 보라. 그들은 대개 같은 시대에도, 대를 이어서도 쓸데없는 복제품 떼로 보인다. 그러나 피쿼드호의 목수는 더없이 보잘것없었고 고귀하고 인간다운 추상의 본보기가 되기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복제품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몸소 이 무대에 나선다.

바다를 다니는 모든 배의 목수가 그렇듯, 특히 포경선에 딸린 목수가 그렇듯, 그는 대충대충 실용적인 정도로나마 제 일에 곁들인 숱한 직업과 기술에 두루 익숙했다. 목수의 일은 나무를 보조 재료로 많든 적든 다루는 그 숱한 수공예의 오래되고 가지를 뻗은 줄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일반적인 말이 그에게 들어맞는 데 더해, 피쿼드호의 이 목수는 미개하고 머나먼 바다로 서너 해씩 항해하는 큰 배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름 없는 천 가지 기계적인 위급 상황에 남달리 능했다. 박살 난 보트를 고치고, 금 간 원재를 손보고, 날이 투박한 노의 모양을 다시 다듬고, 갑판에 채광 유리를 박고, 옆 판자에 새 나무못을 박는 일처럼, 그의 특별한 직무에 더 직접 딸린 여러 잡다한 일상 업무에 재빨랐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는 쓸모 있는 것이든 변덕스러운 것이든 서로 어긋나는 온갖 재주에 서슴없이 능숙했다.

그가 그토록 갖가지 여러 배역을 다 해낸 하나의 큰 무대는 그의 바이스 작업대였다. 크고 작은 쇠 바이스와 나무 바이스 여러 개를 갖춘, 길고 투박하고 육중한 탁자였다. 고래를 배 옆에 매어 두었을 때 말고는 언제나 이 작업대는 기름 솥 뒤쪽에 가로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밧줄걸이 핀이 너무 커서 구멍에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목수는 늘 준비된 바이스 하나에 그것을 물리고 곧바로 줄로 깎아 작게 만든다. 깃털이 낯선 길 잃은 뭍새 한 마리가 배에 날아들어 사로잡힌다. 그러면 목수는 깨끗이 깎은 참고래 수염 막대와 향유고래 뼈 가로대로 그 새를 위해 탑처럼 생긴 새장을 만든다. 노잡이 하나가 손목을 삔다. 그러면 목수는 진정시키는 바르는 약을 지어낸다. 스터브는 제 노의 날마다 주홍빛 별을 그려 넣고 싶어 했다. 그러자 목수는 노를 하나씩 커다란 나무 바이스에 죄어 놓고 좌우가 꼭 맞게 별자리를 그려 주었다. 선원 하나가 상어 뼈 귀고리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목수는 그의 귀를 뚫어 준다. 또 하나가 이가 아프다. 그러면 목수는 집게를 꺼내 들고 한 손으로 작업대를 탁 치며 거기 앉으라고 한다. 그러나 가엾은 친구가 수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움찔거린다. 그러자 목수는 나무 바이스의 손잡이를 빙글빙글 돌리며, 이를 뽑아 주기를 바란다면 거기 턱을 물리라는 시늉을 한다.

이렇게 이 목수는 모든 점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모든 것에 똑같이 무심하고 경의도 없었다. 그는 이를 고래뼈 조각으로 여겼고, 머리를 그저 꼭대기 도르래 덩이로 생각했으며, 사람 자체를 가볍게 캡스턴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토록 넓은 분야에서 이렇게 갖가지 재주를 갖추었고 그 숙련도 그토록 생기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은 어떤 남다른 지성의 활기를 말해 주는 듯하리라.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았다. 이 사람이 무엇보다 두드러진 점은 말하자면 어떤 비인격적인 둔감함이었기 때문이다.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둘레의 무한한 사물

속으로 어찌나 스며들어 흐려졌던지, 눈에 보이는 온 세계에서 알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둔감함과 하나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 세계는 셀 수 없는 갖가지 모습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도 영원히 침묵을 지키고, 당신이 대성당의 기초를 판다 해도 당신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러나 반쯤 끔찍한 그의 이 둔감함은, 겉보기에 사방으로 가지를 뻗은 무정함까지 품고 있는 듯했지만, 그런데도 이따금 기묘하게도 오래되고 목발 같고 대홍수 이전 것 같은 쌕쌕거리는 익살이 섞였다. 그 익살에는 이따금 희끗희끗한 재치가 줄무늬처럼 비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노아의 방주의 수염 덥수룩한 앞갑판에서 한밤의 당직 시간을 때우는 데 썼을 법한 재치였다. 이 늙은 목수는 평생 떠돌아다닌 사람이어서, 이리저리 숱하게 굴러다니는 동안 이끼가 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이 본디 그에게 붙어 있었을지 모를 바깥의 작은 군더더기까지 다 닳아 없어진 것일까? 그는 벗겨진 추상이었고, 쪼개지지 않은 정수였으며, 갓난아이처럼 아무것과도 타협하지 않았고, 이승이나 저승을 미리 헤아리는 일 없이 살았다. 그에게 있는 이 기묘한 타협 없음은 일종의 무지성을 품고 있었다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으리라. 그는 숱한 직업에서 이성이나 본능으로, 아니면 그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고르게든 고르지 않게든 뒤섞여서 일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저 일종의 귀먹고 말 못 하는, 저절로 일어나는 글자 그대로의 과정으로 일하는 것 같았다. 그는 순수한 손재주꾼이었다. 그의 뇌는, 그에게 뇌가 있었다면, 일찍이 손가락 근육 속으로 스며들어 갔음에 틀림없다. 그는 이성은 없지만 아주 쓸모 있는, *작은 것 속에 많은 것을* 담은 셰필드제 장치 같았다. 겉모양은 흔한 주머니칼인데 좀 불룩할 뿐이고, 그 속에는 크고 작은 칼날뿐 아니라 나사돌리개, 코르크 마개뽑이, 족집게, 송곳, 펜, 자, 손톱 줄, 접시 구멍 송곳까지 들어 있는 장치 말이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목수를 나사돌리개로 쓰고 싶으면,

그의 그 부분을 펼치기만 하면 나사가 단단히 죄어졌다. 아니면 족집게로 쓰고 싶으면 그의 다리를 잡아 올리기만 하면 거기 족집게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넌지시 비쳤듯이, 온갖 연장을 갖추고 폈다 접었다 하는 이 목수도 결국 한낱 자동인형 기계는 아니었다. 그에게 보통의 영혼은 없었다 해도, 어쩐지 이상하게도 제 할 일을 해내는 미묘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수은의 정수인지 녹각정 몇 방울인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예순 해 남짓 거기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 그의 안에 있는 바로 그 알 수 없고 교묘한 생명의 원리, 바로 그것이 그가 많은 시간 혼잣말을 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이성 없는 바퀴가 웅웅거리며 혼잣말을 하는 것과 같았다. 아니, 그의 몸이 보초막이었고, 이 혼잣말하는 이가 거기서 보초를 서며 졸지 않으려고 줄곧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해야 하리라.

제108장 에이해브와 목수

갑판. 첫 야간 당직.

(목수가 바이스 작업대 앞에 서서, 등잔 두 개의 불빛에 의지해 다리로 쓸 고래뼈 기둥을 부지런히 줄로 깎고 있다. 기둥은 바이스에 단단히 물려 있다. 작업대 둘레에는 고래뼈 판, 가죽끈, 덧대, 나사, 온갖 갖가지 연장이 널려 있다. 앞쪽으로 대장간 화덕의 붉은 불꽃이 보이고, 대장장이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

망할 놈의 줄, 망할 놈의 뼈! 물러야 할 건 단단하고, 단단해야 할 건 무르다니. 묵은 턱뼈랑 정강이뼈나 줄질하는 우리 신세가 이렇지. 다른 걸 써 보자. 그래, 이게 낫구먼. (재채기를 한다.) 어이쿠, 이 뼛가루가 (재채기를 한다.) 아니, 이게 (재채기를 한다.) 그래, 이게 (재채기를 한다.) 아이고 맙소사, 말을 못 하게 하네! 죽은 목재로 일하는 늙은이가 요즘 얻는 게 이거라니까. 산 나무를 톱질하면 이런 가루는 안 나와. 산 뼈를 잘라 내도 안 나오고. (재채기를 한다.) 자, 자, 거기 늙은 검댕이, 손 좀 빌려 다오. 그 쇠고리랑 쐼나사 좀 주게. 곧 쓸 참이니까. 다행이지 뭐야. (재채기를 한다.) 무릎 관절은 안 만들어도 되니. 그건 좀 골치 아플 수도 있거든. 하지만 그냥 정강이뼈야, 홉 덩굴 받침대 만들기만큼 쉽지. 다만 마무리는 근사하게 해 주고 싶다. 시간, 시간. 시간만 있으면, 응접실에서 귀부인에게 굽실대며 내민 어떤 다리보다도 (재채기를 한다.) 말끔한 다리를 깎아 줄 수 있을 텐데. 가게 진열창에서 본 그 사슴 가죽 다리랑 장딴지 따위는 댈 것도 아니지. 그것들은 물을 먹는다니까,

정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류머티즘에 걸리고, 산 다리처럼 씻는 약이니 바르는 약이니 하는 걸로 치료를 (재채기를 한다.) 받아야 해. 자, 이걸 톱으로 자르기 전에 무굴 황제 영감님을 불러서 길이가 맞는지 봐야겠다. 짧으면 짧았지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 저건 발뒤꿈치 소리다. 운이 좋구먼. 영감님이 오신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겠지, 그건 확실해.

에이해브 (앞으로 나서며). (이어지는 장면 내내 목수는 이따금 재채기를 한다.)

그래, 사람 만드는 이여!

마침 잘 오셨습니다, 선장님. 괜찮으시다면 이제 길이를 표시하겠습니다. 재어 보겠습니다, 선장님.

다리 하나 맞추려고 치수를 재다니! 좋다. 뭐, 처음은 아니지. 해라! 자, 거기 손가락을 대고 있어라. 목수, 여기 네 바이스가 아주 억세구나. 어디 그 무는 힘을 한번 느껴 보자. 그래, 그래, 좀 꼬집는구나.

오, 선장님, 그건 뼈도 부숩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걱정 마라. 나는 단단히 무는 게 좋다. 이 미끄러운 세상에서 붙들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느끼는 게 좋단 말이다. 저기 프로메테우스는 뭘 하고 있느냐? 대장장이 말이다. 뭘 하고 있지?

지금 죔나사를 벼리고 있을 겁니다, 선장님.

그렇지. 동업이로구나. 저자가 근육 부분을 맡는다. 저기 사나운 붉은 불꽃을 피우는구나!

예, 선장님. 이런 섬세한 일에는 백열이 있어야 합니다.

으음. 그래야겠지. 지금 보니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그 늙은 그리스인 프로메테우스가 대장장이였고, 불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니. 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마땅히 불에 속해야 하니까. 그러니 지옥도 있을 법하다. 그을음이 날리는 것 좀

보라! 그 그리스인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이것이겠지. 목수, 저자가 그 죔쇠를 다 만들거든 강철 어깨뼈 한 쌍을 벼리라고 해라. 배에 짓눌리는 짐을 진 행상이 하나 있으니까.

예, 선장님?

가만있자. 프로메테우스가 일하는 김에, 바람직한 본을 따서 완전한 인간 하나를 주문하겠다. 첫째, 양말 신고 키가 50피트. 그다음, 가슴은 템스 강 밑 터널을 본떠서. 그다음, 다리에는 뿌리를 달아 한자리에 머물게. 그다음, 팔은 손목 굵기가 3피트. 심장은 아예 없고, 이마는 놋쇠, 그리고 훌륭한 뇌가 4분의 1에이커쯤. 그리고 어디 보자, 바깥을 볼 눈을 주문할까? 아니다, 대신 머리 꼭대기에 채광창을 달아 안쪽을 비추게 하라. 자, 주문을 받아 가거라.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 누구한테 하는 거지? 알고 싶구먼. 그냥 여기 서 있어야 하나? (방백)

눈먼 둥근 지붕을 만드는 건 시원찮은 건축이다. 여기 하나 있구나. 아니, 아니, 아니다. 등이 있어야겠다.

호, 호! 그거였군요, 네?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선장님. 저는 하나면 됩니다.

이 녀석아, 그 도둑 잡는 등을 왜 내 얼굴에 들이미느냐? 들이민 불빛은 겨눈 권총보다 고약하다.

선장님, 목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목수? 아니, 그건…… 아니다. 목수, 너는 여기서 아주 깔끔하고, 말하자면 지극히 신사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흙으로 일하는 게 더 좋으냐?

예, 선장님? 흙이요? 흙 말씀입니까, 선장님? 그건 진흙이지요. 흙은 도랑 파는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선장님.

불경한 녀석이로구나! 무엇 때문에 재채기를 하느냐?

뼈가 좀 먼지가 많아서요, 선장님.

그렇다면 귀띔을 알아들어라. 죽거든 절대로 산 사람들의 코밑에 너를 묻지 마라.

예, 선장님? 오! 아! 그렇겠지요. 예. 아이고!

이봐라, 목수. 너는 제법 솜씨 좋은 일꾼다운 일꾼이라고 자부하겠지, 응? 그렇다면 내가 네가 만든 이 다리를 달았을 때, 그런데도 바로 그 같은 자리에 또 다른 다리를 느낀다면, 그게 네 솜씨를 아주 잘 말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목수, 내가 잃어버린 옛 다리 말이다. 살과 피로 된 그 다리 말이다. 너는 그 옛 아담을 몰아낼 수 없느냐?

참말로, 선장님, 이제야 좀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예, 그 일에 관해서는 신기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장님. 돛대를 잃은 사람은 그 옛 원재의 느낌을 결코 완전히 잃지 못하고, 그게 여전히 이따금 그 사람을 콕콕 찌른다더군요. 정말 그런지 외람되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장님?

그렇다, 이 녀석아. 보라, 네 산 다리를 여기, 한때 내 다리가 있던 자리에 놓아 보라. 그래, 이제 여기 눈에는 뚜렷한 다리가 하나뿐이지만, 영혼에는 둘이다. 네가 짜릿한 생명을 느끼는 곳, 거기, 바로 거기, 털끝만큼도 어긋남 없이 거기서 나도 느낀다. 수수께끼냐?

외람되지만 난제라고 하겠습니다, 선장님.

그럼 쉿. 네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어떤 온전하고 살아 있고 생각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서로 스며들지도 않은 채 서 있지 않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 너를 거슬러 거기 서 있지 않다는 걸? 그렇다면 네 가장 외로운 시간에도 엿듣는 자가 두렵지 않으냐? 가만, 말하지 마라! 그리고 짓뭉개진 내 다리가 이제 그토록 오래전에 녹아 없어졌는데도 내가 아직 그 쓰라림을 느낀다면, 목수, 너라고 몸 없이 영원히 지옥의 불타는 고통을 느끼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하!

맙소사! 참말로, 선장님, 일이 그렇게 되면 셈을 다시 해 봐야겠습니다. 작은 수 하나를 올려 주는 걸 빠뜨렸나 봅니다, 선장님.

이봐라, 푸딩 대가리는 절대로 전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다리는 언제 다 되느냐?

한 시간쯤 걸릴 겁니다, 선장님.

그럼 어설프게라도 다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너라. (돌아서서 간다.) 오, 삶이여! 나는 여기 그리스의 신처럼 오만하게 서 있는데, 그러면서도 딛고 설 뼈 하나 때문에 이 얼간이에게 빚을 지고 있구나! 장부를 없애 주지 않는 인간끼리의 그 서로 빚짐에 저주를! 나는 공기처럼 자유롭고 싶다. 그런데 온 세상의 장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다. 나는 너무도 부유해서, 로마 제국(그것이 곧 세상이었다)의 경매에서 가장 부유한 근위대원들과 호가에 호가로 맞설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큰소리치는 이 혀의 살값을 빚지고 있다. 맹세코! 도가니를 하나 구해서 그 속에 들어가, 나를 녹여 작고 간추린 등뼈 한 마디로 줄여 버리리라. 그래.

목수 (다시 일을 시작하며).

이런, 이런, 이런! 스터브가 누구보다 영감님을 잘 아는데, 스터브는 늘 영감님이 괴짜라고 하지. 다른 말은 없고 그 한마디면 되는 작은 말, 괴짜라고만 해. 영감님은 괴짜야, 스터브는 그러지. 영감님은 괴짜야, 괴짜, 괴짜. 그리고 스타벅 씨한테 줄곧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해 대지. 괴짜예요, 나리, 괴짜, 괴짜, 아주 괴짜. 그리고 여기 영감님 다리가 있다! 그래, 생각해 보니 여기 영감님 잠자리 친구가 있구먼! 고래 턱뼈 막대기 하나를 마누라로 두셨어! 그리고 이게 영감님 다리지. 영감님은 이걸 딛고 서실 거야. 아까 그건 뭐였더라, 다리 하나가 세 군데 서 있고, 그 세 군데가 다 한 지옥에 서 있다던가, 어떻게 된 거였지? 오! 영감님이 나를 그렇게 깔보는 눈으로 보신 것도 무리가

아니지! 사람들 말로는 내가 이따금 좀 엉뚱한 생각을 한다지만, 그건 그냥 어쩌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 나처럼 키 작고 쪼끄만 늙은이는 왜가리처럼 키 큰 선장들이랑 깊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갈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물이 금세 턱 밑까지 차올라서 구명보트를 찾느라 난리가 나거든. 그리고 여기 왜가리 다리가 있다! 길고 가늘구먼, 아닌 게 아니라!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다리 한 쌍이면 평생 가지. 그건 마음씨 고운 늙은 부인이 통통한 늙은 마차 말을 다루듯이 다리를 너그럽게 쓰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에이해브는, 오, 영감님은 모질게 부리는 마부야. 보라고, 다리 하나는 몰아붙여 죽게 하고, 다른 하나는 평생 절름발이로 만들고, 이제는 뼈 다리를 장작 다발처럼 한 무더기씩 닳게 하시잖아. 어이, 거기, 이 검댕이! 그 나사 좀 거들어라. 부활의 날 그 친구가 나팔을 불며 진짜고 가짜고 모든 다리를 거두러 오기 전에 이걸 끝내자. 양조장 사람들이 낡은 맥주 통을 거두어 다시 채우러 돌아다니듯이 말이야. 이 다리 좀 봐! 진짜 산 다리를 알맹이만 남기고 깎아 낸 것 같다. 영감님은 내일 이걸 딛고 서실 거야. 이걸 딛고 해의 높이를 재시겠지. 어이쿠! 작은 타원형 석판을 깜빡할 뻔했네. 매끄럽게 다듬은 고래뼈 판 말이야. 영감님이 거기다 위도를 셈하시거든. 그래, 그래. 이제 끌, 줄, 사포다!

제109장 선장실의 에이해브와 스타벅

여느 때처럼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배의 물을 퍼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물과 함께 적잖은 기름이 올라왔다. 아래쪽 통들에 심하게 금이 가서 새는 게 틀림없었다. 다들 몹시 걱정했고, 스타벅은 이 달갑지 않은 일을 보고하러 선장실로 내려갔다.[1]

그 무렵 피쿼드호는 남쪽과 서쪽에서 포르모사와 바시 제도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 사이에 중국 바다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열대의 출구 하나가 있다. 그래서 스타벅이 가 보니, 에이해브는 동양의 여러 군도를 그린 전도 한 장을 앞에 펼쳐 놓고, 또 따로 일본 열도의 길게 뻗은 동쪽 해안, 곧 니폰과 마쓰마이와 시코쿠를 그린 해도 한 장을 펼쳐 놓고 있었다. 그 경이로운 노인은 눈처럼 흰 새 고래뼈 의족을 탁자의 나사 박은 다리에 버티고, 가지치기 낫처럼 긴 접칼을 손에 쥐고, 승강구 문을 등진 채 이마를 찌푸리며 지난 항로를 다시 더듬고 있었다.

"누구냐?" 문에서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그쪽으로 돌아보지 않았다. "갑판으로! 나가라!"

"에이해브 선장님, 잘못 아셨습니다. 저입니다. 선창의 기름이 새고 있습니다, 선장님. 버턴 도르래를 올려서 짐을 헐어 내야 합니다."

"버턴 도르래를 올려서 짐을 헐어 내? 일본에 다가가고 있는 지금, 낡은 통테 한 무더기를 땜질하려고 여기서 한 주일이나 배를 세우자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한 해 걸려 벌충할 기름보다 더 많은 기름을 하루에 버리시든지 해야 합니다, 선장님. 우리가 2만 마일을 와서

얻으려는 것은 지킬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선장님."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그걸 얻는다면."

"저는 선창에 있는 기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그리고 나는 그런 건 전혀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가라! 새게 내버려 둬라! 나 자신이 온통 새고 있다. 그렇다! 새는 것 속에 또 새는 것! 새는 통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그 새는 통들이 새는 배에 실려 있다. 그건 피쿼드호의 처지보다 훨씬 고약하다, 이 사람아. 그래도 나는 내가 새는 데를 막으려고 멈추지 않는다. 짐을 깊이 실은 선체 속에서 누가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며, 찾아낸다 한들 이 삶의 울부짖는 강풍 속에서 어찌 그걸 막기를 바라겠느냐? 스타벅! 버턴 도르래는 올리지 않겠다."

"선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장님?"

"선주들더러 낸터킷 바닷가에 서서 태풍보다 크게 고함이나 지르라고 해라. 에이해브가 무슨 상관이냐? 선주, 선주? 스타벅, 너는 늘 그 인색한 선주들 이야기를 내게 지껄인다. 선주들이 내 양심이라도 되는 듯이. 그러나 잘 보라, 무엇이든 그것의 진짜 주인은 그것을 지휘하는 자뿐이다. 그리고 잘 들어라, 내 양심은 이 배의 용골 속에 있다. 갑판으로!"

"에이해브 선장님." 얼굴이 붉어진 항해사가 선장실 안으로 더 들어서며 말했다. 그 대담함은 이상하게도 공손하고 조심스러워서,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을 온갖 방법으로 피하려 할 뿐 아니라, 속으로도 저 자신을 반 넘게 믿지 못하는 듯했다. "저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젊은 사람에게서라면 금세 언짢아했을 일도 선장님에게서는 너그러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행복한 사람에게서라면요, 에이해브 선장님."

"이런 빌어먹을! 그래 네가 감히 나를 비판하는 생각이라도 한단 말이냐? 갑판으로!"

"아닙니다, 선장님, 아직은 아닙니다. 간청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참으려는 것입니다, 선장님! 에이해브 선장님,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까?"

에이해브는 총걸이에서(대부분의 남양 포경선원들의 선장실 비품에 들어 있다) 장전된 머스킷총 한 자루를 움켜쥐고 스타벅에게 겨누며 외쳤다. "땅을 다스리는 주는 한 분 하나님뿐이고, 피쿼드호를 다스리는 주인은 한 사람 선장뿐이다. 갑판으로!"

한순간 항해사의 번득이는 눈과 불타는 뺨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가 겨누어진 총구의 불꽃을 정말로 맞았다고 거의 생각했으리라. 그러나 그는 감정을 다스리고 반쯤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리고 선장실을 나서다가 잠깐 멈추어 말했다. "선장님은 저를 모욕하신 게 아니라 격분하게 하셨습니다, 선장님. 그렇다고 스타벅을 조심하시라고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웃기만 하실 테니까요. 그러나 에이해브는 에이해브를 조심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조심하십시오, 노인장."

"용감해지는구나. 그래도 복종은 한다. 그야말로 조심스러운 용기다!" 스타벅이 사라지자 에이해브가 중얼거렸다. "녀석이 뭐라고 했지? 에이해브는 에이해브를 조심하라. 거기 뭔가가 있다!"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머스킷총을 지팡이 삼아 짚고, 무쇠 같은 이마를 한 채 좁은 선장실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그러나 이윽고 이마의 두꺼운 주름이 풀렸고, 그는 총을 총걸이에 돌려놓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스타벅, 너는 너무 착한 녀석이다." 그는 항해사에게 나직이 말했다. 그러고는 선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윗돛대 돛을 걷고, 앞뒤 중간돛을 바짝 줄여라. 큰돛 활대를 거꾸로 돌려라. 버턴 도르래를 올리고 큰 선창의 짐을 헐어 내라."

스타벅에 대해 에이해브가 어째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정확히 짐작해 보는 것은 아마 헛된 일이리라. 그에게 정직함이 번득였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런 사정에서는 배의 중요한 일등 항해사가 아무리 잠깐이라도 드러내 놓고 불만을 품는 조짐을 조금도 보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단순한 신중한 계산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그의 명령은 실행되었고, 버턴 도르래가 올려졌다.

---

1. 기름을 꽤 많이 실은 향유고래 포경선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선창에 호스를 끌어들여 통들을 바닷물로 흠뻑 적시는 것이 정해진 일이다. 그 물은 나중에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배의 펌프로 퍼낸다. 이렇게 해서 통들이 축축하게 젖어 꼭 맞물려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퍼낸 물의 성질이 달라진 것을 보고 선원들은 귀한 짐이 심하게 새는 것을 쉽게 알아챈다.

제110장 관 속의 퀴퀘그

찾아보니 마지막으로 선창에 내려 실은 통들은 멀쩡했고, 새는 곳은 더 안쪽에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래서 날씨가 잔잔한 틈에 사람들은 더 깊이, 더 깊이 짐을 헐어 내려갔고, 맨 밑바닥 층에 놓인 거대한 큰 통들의 잠을 깨워, 그 거대한 두더지들을 캄캄한 한밤에서 위쪽 햇빛 속으로 올려 보냈다. 그토록 깊이 내려갔고, 맨 아래 큰 통들의 모습은 그토록 오래되고 삭고 해초투성이여서, 다음에는 노아 선장의 동전이 든 곰팡이 슨 머릿돌 통 하나가 나오리라고 거의 기대할 지경이었다. 홀린 옛 세상에 큰물을 헛되이 경고하던 벽보의 사본들과 함께 말이다. 물과 빵과 쇠고기를 담은 중간 통이 하나 또 하나, 통널 다발과 쇠 통테 묶음도 끌어 올려졌다. 마침내 짐이 쌓인 갑판은 돌아다니기도 힘들어졌다. 텅 빈 선체는 빈 지하 묘지 위를 걷는 듯 발밑에서 메아리쳤고, 공기만 실은 커다란 술병처럼 바다에서 비틀거리며 굴렀다. 배는 저녁도 못 먹고 머릿속에 아리스토텔레스를 통째로 든 학생처럼 머리가 무거웠다. 그때 태풍이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기에 망정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가엾은 이교도 동무이자 마음을 단단히 맺은 벗인 퀴퀘그가 열병에 걸려, 끝없는 끝 가까이에 이르렀다.

말해 두자면, 포경이라는 이 생업에서는 일 안 하고 먹는 자리를 모른다. 위엄과 위험은 손을 맞잡고 다닌다. 선장이 될 때까지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고되게 일한다. 가엾은 퀴퀘그도 그랬다. 작살잡이로서 그는 살아 있는 고래의 온갖 노여움에 맞서야 할 뿐 아니라, 다른 데서

보았듯이 구르는 바다에서 죽은 고래의 등에 올라타야 했고, 마침내는 선창의 어둠 속으로 내려가 그 땅속 같은 갇힌 곳에서 온종일 지독하게 땀을 흘리며 가장 다루기 어려운 통들을 굳세게 맨손으로 옮기고 싣는 일을 돌보아야 했다. 짧게 말하면, 포경선원들 사이에서 작살잡이는 이른바 선창지기다.

가엾은 퀴퀘그! 배가 반쯤 창자를 드러냈을 때 승강구에 몸을 구부리고 거기 있는 그를 내려다보았어야 했다. 모직 속바지만 입은 그 문신한 야만인은 그 축축하고 끈적한 곳을 기어 다녔다. 우물 밑바닥의 푸른 얼룩 도마뱀처럼. 그리고 가엾은 이교도인 그에게 그곳은 어쩐지 우물이, 아니면 얼음 창고가 되고 말았다. 이상하게도 그토록 땀을 흘리며 열이 났는데도 그는 거기서 지독한 오한이 들었고, 그것이 열병으로 번졌다. 그리고 며칠을 앓은 끝에 마침내 그는 해먹에 눕게 되었다.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그 며칠 동안, 오래 끄는 그 며칠 동안 그는 얼마나 여위고 또 여위었던지, 뼈대와 문신 말고는 남은 것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다른 모든 것이 여위고 광대뼈가 더 날카로워지는 동안에도, 그의 눈은 점점 더 그득해지는 것 같았다. 눈은 이상하게 부드러운 광채를 띠었고, 병 속에서 부드럽지만 깊이 당신을 내다보았다. 죽을 수도 약해질 수도 없는, 그의 안에 있는 불멸의 건강을 놀랍게 증언하는 눈이었다. 그리고 물 위의 동그라미가 희미해질수록 넓어지듯이, 그의 눈은 영원의 고리처럼 점점 더 둥글어지는 것 같았다. 스러져 가는 이 야만인 곁에 앉아 그의 얼굴에서, 조로아스터가 죽을 때 곁에 있던 이들이 본 것만큼이나 기이한 것들을 볼 때면, 이름 붙일 수 없는 경외가 당신에게 슬며시 스며들었으리라. 사람에게 있는 참으로 경이롭고 두려운 것은 무엇이든 아직 한 번도 말이나 책에 담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두를 똑같이 고르게 만드는 죽음이 다가오면, 그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마지막 계시를 새기는데, 그 계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돌아온 작가만이 제대로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 다시 말하자, 죽어 가던 갈대아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가운데 누구도, 가엾은 퀴퀘그가 흔들리는 해먹에 조용히 누워 있을 때, 구르는 바다가 그를 마지막 안식에 들도록 부드럽게 흔들어 재우는 듯하고, 바다의 보이지 않는 밀물이 그를 그의 운명 지어진 하늘을 향해 점점 더 높이 들어 올리는 듯할 때, 그의 얼굴 위로 스며드는 것이 보이던 그 신비한 그림자들보다 더 높고 더 거룩한 생각을 품지는 못했다.

선원 가운데 그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퀴퀘그 자신이 제 처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그가 청한 기묘한 부탁 하나가 힘 있게 보여 주었다. 그는 날이 막 밝아 오는 잿빛 새벽 당직 때 한 사람을 곁으로 불러 그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낸터킷에 있을 때, 자기 고향 섬의 귀한 전쟁 나무 같은 검은 나무로 만든 작은 카누 몇 척을 우연히 보았는데, 물어보니 낸터킷에서 죽은 포경선원은 모두 바로 그런 검은 카누에 눕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눕는다는 생각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그것이 그의 종족의 풍습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종족은 죽은 전사를 방부 처리한 뒤 카누에 길게 눕혀, 별이 빛나는 군도로 떠내려가게 내버려 둔다. 그들은 별들이 섬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수평선 너머 멀리에서 대륙이 없는 그들의 온화한 바다가 푸른 하늘과 서로 흘러들어 은하수의 흰 물보라를 이룬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덧붙였다. 바다의 흔한 풍습대로 해먹에 싸여 묻혀, 죽은 것을 먹어 치우는 상어들에게 무슨 더러운 것처럼 던져진다는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난다고. 아니다. 그는 낸터킷의 그것 같은 카누를 바랐다. 포경선원인 그에게는 그 관 카누가 포경 보트처럼 용골이 없다는 점이 더욱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어두운 세월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동안 키를 잡기 미덥지 않고 바람에 많이 밀려나게 되더라도.

이 기묘한 사정이 고물 쪽에 알려지자, 목수는 곧바로 퀴퀘그의 분부를 들어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무엇이 들었든 간에. 배에는 이교도 냄새가 나는 관 빛깔의 낡은 목재가 좀 있었는데, 오래전 항해 때 래커데이 제도의 원시림에서 베어 온 것이었다. 이 검은 널빤지로 관을 만들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목수는 명령을 듣자마자 자를 들고, 그다운 무심한 재빠름으로 곧장 앞갑판 선원실로 들어가 퀴퀘그의 치수를 아주 정확하게 쟀다. 자를 옮길 때마다 퀴퀘그의 몸에 꼬박꼬박 분필로 표시를 하면서.

"아! 가엾은 친구! 이제 죽어야 하는구나." 롱아일랜드 출신 선원이 소리쳤다.

목수는 바이스 작업대로 가서, 편하게 두고두고 참고하려고 관이 될 정확한 길이를 작업대 위에 옮겨 재고, 그 양 끝에 홈을 두 개 파서 그 표시를 영구히 남겼다. 이 일을 마치자 그는 널빤지와 연장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일에 들어갔다.

마지막 못을 박고 뚜껑을 제대로 대패질해 맞추자, 그는 관을 가볍게 어깨에 메고 앞쪽으로 가서, 그쪽에서는 이제 이걸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었다.

갑판의 사람들이 분개하면서도 반쯤 우스갯소리로 외치며 관을 쫓아 버리기 시작하는 소리를 엿듣고, 퀴퀘그는 모두를 아연하게 하면서 그것을 당장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모든 인간 가운데 죽어 가는 사람 몇몇이 가장 폭군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히, 머지않아 영원히 우리를 거의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그 가엾은 친구들의 뜻은 받아 주어야 한다.

퀴퀘그는 해먹에서 몸을 기울이고 오랫동안 주의 깊은 눈으로 관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작살을 가져오라고 해서 나무 자루를 빼게 하고, 쇠 부분을 제 보트의 노 하나와 함께 관 속에 넣게 했다. 또 모두 그

자신의 부탁에 따라, 비스킷을 관 안쪽 옆면을 따라 빙 둘러 늘어놓았다. 머리맡에는 맑은 물 한 병을 놓고, 발치에는 선창에서 긁어 모은 나뭇결 같은 흙 한 자루를 놓았다. 그리고 돛천 한 조각을 둘둘 말아 베개로 삼자, 퀴퀘그는 이제 자기를 그 마지막 침대에 들어 올려 달라고 간청했다. 혹시 편안한 데가 있다면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그는 몇 분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다가, 한 사람에게 제 자루로 가서 작은 신 요조를 꺼내 오라고 했다. 그러고는 요조를 사이에 두고 가슴에 팔을 엇걸고, 관 뚜껑을(그는 그것을 승강구 뚜껑이라고 불렀다) 자기 위에 덮어 달라고 했다. 머리 쪽 부분은 가죽 경첩으로 젖혀지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 퀴퀘그가 관 속에 누워 있었다. 그의 평온한 얼굴 말고는 보이는 것이 거의 없었다. "라르마이."(이거 된다. 편하다.) 그는 마침내 중얼거리고, 해먹으로 다시 옮겨 달라는 시늉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그동안 내내 몰래 근처를 맴돌던 핍이 누워 있는 그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흐느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다른 손에는 탬버린을 들고 있었다.

"가엾은 떠돌이! 이 지긋지긋한 떠돌이 짓을 영영 그만두지 않을 거야? 이번엔 어디로 가? 그런데 물살이 너를 그 달콤한 앤틸리스 제도로 데려가면, 수련만이 바닷가를 치는 그곳으로 데려가면, 내 작은 심부름 하나 해 줄래? 핍이라는 애를 찾아 줘.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애야. 그 먼 앤틸리스 제도에 있을 거야. 찾거든 위로해 줘. 그 애는 아주 슬플 테니까. 봐! 탬버린을 두고 갔잖아. 내가 주웠어. 리가딕, 딕, 딕! 자, 퀴퀘그, 죽어. 내가 장송 행진곡을 쳐 줄게."

"들은 적이 있다." 스타벅이 승강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심한 열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옛 언어로 말할 때가 있는데, 그 수수께끼를 캐어 보면, 늘 그 사람이 까맣게 잊은 어린 시절에 어떤 고매한 학자들이 그 옛 언어를 정말로 그 사람이 듣는 데서 말했던

것으로 밝혀진다고. 그러니 내 순진한 믿음으로는, 가엾은 핍은 그 광기의 이 이상한 달콤함 속에서 우리 모두의 하늘 고향에 대한 하늘의 보증서를 가져오는 것이다. 거기 말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웠겠는가? 쉿! 또 말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거칠게."

"둘씩 줄을 서! 이 사람을 장군으로 만들자! 어이, 이 사람 작살은 어디 있지? 여기 가로질러 놔. 리가딕, 딕, 딕! 만세! 아, 지금 싸움닭 한 마리가 이 사람 머리에 올라앉아 울어 주면 좋을 텐데! 퀴퀘그는 싸움닭처럼 씩씩하게 죽는다! 그걸 잊지 마. 퀴퀘그는 씩씩하게 죽는다! 그걸 잘 새겨 둬. 퀴퀘그는 씩씩하게 죽는다니까! 씩씩하게, 씩씩하게, 씩씩하게! 그런데 비겁한 꼬마 핍은 겁쟁이로 죽었어. 온통 덜덜 떨면서 죽었어. 핍 같은 건 꺼져라! 잘 들어. 핍을 찾거든 앤틸리스 제도 사람들한테 다 말해. 그 애는 도망자라고. 겁쟁이, 겁쟁이, 겁쟁이라고! 포경 보트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비겁한 핍이 한 번 더 여기서 죽어 간다 해도, 나는 그 애 위에서 탬버린을 치지도, 장군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야. 안 돼, 안 돼! 모든 겁쟁이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 포경 보트에서 뛰어내린 핍처럼 그냥 빠져 죽으라지.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

그러는 동안 내내 퀴퀘그는 꿈을 꾸듯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핍은 끌려 나갔고, 앓는 사람은 해먹으로 다시 옮겨졌다.

그러나 이제 겉보기에 죽을 채비를 모두 마치고, 관이 잘 맞는다는 것까지 확인하자, 퀴퀘그는 갑자기 기운을 되찾았다. 곧 목수의 상자는 필요 없어 보였다. 그러자 몇몇이 기뻐하며 놀라움을 나타내자, 그는 대강 이런 뜻의 말을 했다. 갑자기 회복된 까닭은 이렇다. 고비의 순간에 뭍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두고 온 작은 의무 하나가 막 떠올라서 죽을 마음을 바꾸었다. 아직은 죽을 수 없다고 그는 단언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 자신의 최고 의지와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한마디로 퀴퀘그는, 사람이 살기로 마음먹으면 한낱 병은 그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고래나 강풍이나, 그런 종류의 사납고 다스릴 수 없고 지각 없는 파괴자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야만인과 문명인 사이에는 이런 눈여겨볼 차이가 있다. 대체로 말해서 병든 문명인은 회복하는 데 여섯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병든 야만인은 하루 만에 거의 반은 다시 낫는다. 그래서 머지않아 나의 퀴퀘그는 기운을 되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을 양묘기에 게으르게 앉아 있다가(그러나 먹기는 왕성하게 먹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팔다리를 쭉 내뻗고, 기지개를 한껏 켜고, 하품을 조금 하더니, 매달아 올린 제 보트의 이물로 뛰어올라 작살을 겨누어 들고는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제 엉뚱한 변덕으로 제 관을 바다 궤짝으로 썼다. 돛천 옷 자루를 그 속에 쏟아 넣고 거기서 옷가지를 정리했다. 그는 남는 시간을 많이 들여 온갖 기괴한 형상과 그림을 관 뚜껑에 새겼다. 그렇게 해서 그는 제 몸에 새겨진 뒤틀린 문신의 일부를 투박하게나마 베끼려고 애쓰는 듯했다. 그리고 이 문신은 그의 섬의 지금은 죽은 예언자이자 선견자가 새긴 것이었다. 그 예언자는 그 상형 문자 같은 표시로 그의 몸에 하늘과 땅에 관한 완전한 이론과 진리에 이르는 기술에 관한 신비한 논문을 써 놓았다. 그래서 퀴퀘그는 그 몸 자체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였고, 한 권으로 된 경이로운 책이었다. 그러나 그 수수께끼는, 그 자신의 살아 있는 심장이 그것에 맞닿아 뛰고 있었는데도, 그 자신조차 읽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수수께끼들은 결국 그것이 새겨진 살아 있는 양피지와 함께 썩어 없어져, 끝까지 풀리지 않을 운명이었다. 어느 아침 가엾은 퀴퀘그를 살펴보다가 돌아서면서

에이해브가 그 거친 외침을 터뜨린 것도 틀림없이 이 생각 때문이었으리라. "오, 신들의 악마 같은 감질나게 하기여!"

제111장 태평양

바시 제도 옆을 미끄러져 지나 마침내 거대한 남양으로 나왔을 때, 다른 일들만 없었더라면 나는 사랑하는 태평양을 셀 수 없는 감사로 맞이할 수 있었으리라. 젊은 날의 오랜 간구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고요한 바다가 내게서부터 동쪽으로 천 리그의 푸름을 굴려 보냈다.

이 바다에는 무엇인지 모를 달콤한 신비가 있다. 부드럽고도 두려운 그 일렁임은 밑에 숨은 어떤 영혼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묻힌 복음서 저자 성 요한 위에서 에페소스의 잔디가 일렁였다는 전설처럼. 그리고 이 바다 목장 위로, 넓게 구르는 물의 대초원이요 네 대륙 모두의 나그네 묘지인 이곳 위로 파도가 쉼 없이 솟았다 가라앉고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여기에는 뒤섞인 수백만의 혼백과 그림자들이, 물에 빠진 꿈들이, 몽유와 몽상이, 우리가 삶이니 영혼이니 부르는 모든 것이, 아직도 꿈꾸고, 꿈꾸며 누워 있기 때문이다. 잠든 이들이 잠자리에서 뒤척이듯 뒤척이며. 끝없이 구르는 파도는 그들이 뒤척이는 탓에 그렇게 될 뿐이다.

명상에 잠긴 마기 같은 방랑자라면 누구에게나, 이 고요한 태평양은 한번 보고 나면 그 뒤로 영원히 그가 택한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태평양은 세계의 한가운데 물을 굴리고, 인도양과 대서양은 그 팔일 뿐이다. 같은 파도가 바로 어제 가장 최근의 인류가 세운 캘리포니아의 새 도시들의 방파제를 씻고, 아브라함보다 오래된 아시아 땅의 바랬지만 여전히 휘황한 옷자락을 적신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산호섬들의

은하수와 낮게 엎드린 끝없는 미지의 군도와 들어갈 수 없는 일본 같은 나라들이 떠 있다. 이렇게 이 신비롭고 신성한 태평양은 세계의 온 덩치를 띠처럼 두르고, 모든 해안을 저의 만 하나로 만들며, 밀물로 고동치는 지구의 심장처럼 보인다. 그 영원한 너울에 들어 올려지면, 당신은 그 유혹하는 신을 인정하고 판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판에 대한 생각은 에이해브의 머릿속을 거의 휘젓지 못했다. 그는 뒷돛대 삭구 곁 늘 서던 자리에 무쇠 조각상처럼 서서, 한쪽 콧구멍으로는 무심코 바시 제도에서 오는 달콤한 사향 냄새를 맡고(그 향긋한 숲에서는 다정한 연인들이 거닐고 있으리라), 다른 쪽 콧구멍으로는 새로 찾은 바다의 짠 숨결을 의식하며 들이마셨다. 그 미운 흰 고래가 바로 그때에도 헤엄치고 있을 그 바다였다. 마침내 거의 마지막인 이 바다에 나서서 일본 어장 쪽으로 미끄러져 가자, 노인의 목적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의 굳은 입술은 바이스의 입처럼 맞물렸다. 이마에 난 핏줄의 삼각주는 넘치도록 불어난 시내처럼 부풀었다. 잠결에도 그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둥근 천장 같은 선체 속을 울렸다. "모두 뒤로 저어라! 흰 고래가 진한 피를 뿜는다!"

제112장 대장장이

이 위도에 이제 자리 잡은 온화하고 여름답게 서늘한 날씨를 틈타, 그리고 머지않아 닥치리라 예상되는 유난히 바쁜 추격에 대비해, 검댕투성이에 물집 잡힌 늙은 대장장이 퍼스는 에이해브의 다리에 거들 일을 마친 뒤에도 들고 다니는 화덕을 선창으로 도로 내리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여전히 갑판에 두고 앞돛대 옆 고리 볼트에 단단히 묶어 두었다. 이제는 보트장과 작살잡이와 뱃머리 노잡이들이 거의 쉴 새 없이 그를 불러, 저마다의 갖가지 무기와 보트 비품을 바꾸거나 고치거나 새로 다듬는 작은 일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는 흔히 차례를 기다리는 열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빙 둘러싸였다. 그들은 보트 삽이며 창촉이며 작살이며 창을 들고, 그가 일하는 동안 검댕 묻은 그의 동작 하나하나를 시샘하듯 지켜보았다. 그렇지만 이 노인의 망치는 참을성 있는 팔이 휘두르는 참을성 있는 망치였다. 그에게서는 투덜거림도, 조바심도, 짜증도 나오지 않았다. 말없이, 느리게, 엄숙하게, 오래전부터 부러진 등을 더 구부리고 그는 일했다. 일이 곧 삶 자체이고, 망치의 무거운 두드림이 곧 심장의 무거운 고동인 것처럼. 그리고 정말 그랬다. 더없이 비참하게도!

이 노인의 걸음걸이는 남달랐다. 걸을 때 약간, 그러나 아파 보이게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했는데, 이것이 항해 초기에 선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끈질기게 캐묻는 그들의 성화에 그는 마침내

굴복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그의 비참한 운명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어느 매서운 겨울 한밤, 두 시골 읍내 사이로 난 길에서, 늦은 길을, 그것도 죄 없이 늦은 것이 아닌 길을 가던 대장장이는 치명적인 마비가 몸에 스며드는 것을 반쯤 멍하게 느끼고, 기울어진 허물어진 헛간에서 피할 곳을 찾았다. 그 결과 두 발의 끝을 잃었다. 이 털어놓음에서 조금씩 조금씩, 마침내 그의 인생극의 기쁨의 네 막과, 길고 아직 파국에 이르지 않은 슬픔의 다섯째 막이 드러났다.

그는 예순 살 가까운 나이에, 슬픔의 전문 용어로 파멸이라 부르는 것을 늦게야 맞닥뜨린 노인이었다. 그는 솜씨로 이름난 장인이었고 일거리도 넘쳤다. 집과 뜰이 있었다. 딸 같은 젊고 다정한 아내와 쾌활하고 혈색 좋은 세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일요일마다 숲 속에 앉은 밝아 보이는 교회에 다녔다. 그러나 어느 밤, 어둠을 틈타, 게다가 더없이 교활한 변장으로 몸을 숨기고, 무모한 도둑 하나가 그의 행복한 집에 숨어 들어와 그들 모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리고 말하기 더 어두운 일은, 대장장이 자신이 모르고 이 도둑을 가족의 심장부로 들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병 속의 마술사였다! 그 치명적인 코르크 마개를 열자 악마가 날아 나와 그의 집을 쪼그라뜨려 버렸다. 그런데 신중하고 더없이 현명하며 알뜰한 까닭으로 대장장이의 일터는 그의 집 지하에 있었지만, 따로 드나드는 입구가 있었다. 그래서 젊고 다정하고 건강한 아내는 늘 젊은 팔을 가진 늙은 남편의 망치가 힘차게 울리는 소리를 언짢은 신경질이 아니라 생기 있는 기쁨으로 들었다. 그 울림은 마루와 벽을 지나면서 먹먹해져 아이 방에 있는 그 여자에게까지 달갑지 않을 것 없이 올라왔다. 그렇게 힘찬 노동의 무쇠 자장가에 맞추어 대장장이의 아기들은 흔들리며 잠들었다.

오, 비애 위의 비애여! 오, 죽음이여, 너는 어찌하여 이따금이라도 때맞추어 오지 못하느냐? 그 늙은 대장장이에게 완전한 파멸이 닥치기 전에 네가 그를 데려갔더라면, 젊은 과부는 달콤한 슬픔을 누렸을 것이고, 고아들은 훗날 꿈꾸어 볼 참으로 존경할 만한 전설 같은 아버지를 가졌을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근심을 없애 줄 넉넉한 살림이 남았으리라. 그러나 죽음은 휘파람을 불며 날마다 일하는 데에 다른 어느 집안의 책임이 오롯이 걸려 있던 어느 덕 있는 맏형을 꺾어 가고, 쓸모없는 것보다 더 못한 노인은 삶의 끔찍한 썩음이 그를 거두기 쉽게 만들 때까지 서 있게 내버려 두었다.

다 말해서 무엇 하랴? 지하실 망치 소리는 날마다 사이가 점점 더 벌어졌다. 그리고 한 번 한 번 두드리는 소리는 날마다 그 앞의 것보다 희미해졌다. 아내는 창가에 얼어붙은 듯 앉아, 눈물 없는 눈을 반짝이며 우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풀무는 쓰러졌다. 화덕은 숯 찌꺼기로 막혔다. 집은 팔렸다. 어머니는 교회 묘지의 긴 풀 속으로 잠겨 들었다. 아이들이 두 번 어머니를 따라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집도 가족도 없는 노인은 상장(喪章)을 두른 떠돌이가 되어 비틀거리며 떠났다. 그의 비애는 하나같이 존중받지 못했고, 그의 희끗한 머리는 아마빛 고수머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런 생애에 바랄 만한 다음 장은 죽음뿐인 듯하다. 그러나 죽음은 낯설고 아직 겪어 보지 못한 영역으로 떠나는 출항일 뿐이다. 그것은 거대한 아득함, 거친 것, 물로 된 것, 기슭 없는 것의 가능성들에 보내는 첫인사일 뿐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바라면서도 마음속에 아직 자살을 꺼리는 가책이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는 상상할 수 없는 매혹적인 공포와 놀라운 새 삶의 모험이 펼쳐진 온 평원을 유혹하듯 펼쳐 보인다. 그리고 끝없는 태평양들의 심장에서 천 명의 인어가 그들에게 노래한다. "이리 오라,

마음이 부서진 이여. 여기 중간에 죽음이라는 죄를 거치지 않는 또 하나의 삶이 있다. 여기 그것을 위해 죽지 않아도 되는 초자연의 경이가 있다. 이리 오라! 이제 똑같이 너를 미워하고 네가 미워하는 뭍의 세상에게는 죽음보다 더 잊힌 삶 속에 너 자신을 묻으라. 이리 오라! *네* 묘비도 교회 묘지에 세워 두고, 이리 오라, 우리가 너와 혼인할 때까지!"

동쪽과 서쪽에서, 이른 해돋이와 저녁 해 질 녘에 들려오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대장장이의 영혼은 대답했다. 그래, 내가 간다! 그렇게 퍼스는 고래잡이를 떠났다.

제113장 대장간

한낮 무렵, 수염은 엉겨 붙고 거칠거칠한 상어 가죽 앞치마를 두른 퍼스는 화덕과 모루 사이에 서 있었다. 모루는 철목 토막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한 손으로는 창촉 하나를 숯불 속에 쥐고 다른 손으로는 화덕의 허파인 풀무를 잡고 있을 때, 에이해브 선장이 녹슨 듯한 작은 가죽 주머니를 손에 들고 다가왔다. 화덕에서 아직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침울한 에이해브는 걸음을 멈추었다. 마침내 퍼스가 불에서 쇠를 꺼내 모루 위에서 두드리기 시작하자, 그 붉은 덩어리에서 불티가 빽빽하게 맴도는 떼를 지어 날았고, 그 가운데 몇은 에이해브 가까이 날아갔다.

"퍼스, 이것들이 네 바다제비, 곧 '케어리 어미의 병아리들'이냐? 늘 네 뒤를 따라 날아다니는구나. 좋은 징조의 새들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다. 보라, 이것들은 태운다. 그런데 너는, 너는 그것들 사이에서 그을리지도 않고 사는구나."

"온몸이 이미 그을렸기 때문입니다, 에이해브 선장님." 퍼스가 잠시 망치에 기대며 대답했다. "저는 그을릴 대로 그을렸습니다. 흉터는 쉽게 그을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 그만해라. 쪼그라든 네 목소리는 내게 너무 차분하고 너무 멀쩡하게 서글프게 들린다. 나 자신도 낙원에 있지 않으니, 남의 비참이 미치지 않은 것이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대장장이, 너는 미쳐야 한다. 말해 보라, 너는 왜 미치지 않느냐? 미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하늘이 아직도 너를 미워해서 미칠 수조차 없게 하느냐? 거기서 뭘 만들고 있었느냐?"

"낡은 창촉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이음매가 터지고 움푹 팬 데가 있어서요."

"그렇게 험하게 쓴 걸 다시 다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느냐, 대장장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선장님."

"그리고 너는 쇠가 아무리 단단하든 거의 어떤 터진 이음매나 움푹 팬 데라도 매끄럽게 펼 수 있겠지, 대장장이?"

"예, 선장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음매와 팬 데라면 하나만 빼고 다요."

"그렇다면 여기를 보라." 에이해브가 격하게 다가서서 두 손으로 퍼스의 어깨를 짚으며 외쳤다. "여기를 보라, *여기를*. 이런 이음매를 매끄럽게 펼 수 있느냐, 대장장이?" 그는 고랑 진 제 이마를 한 손으로 쓸었다. "할 수 있다면, 대장장이, 나는 기꺼이 네 모루 위에 내 머리를 얹고, 네 가장 무거운 망치를 두 눈 사이에 맞으리라. 대답하라! 이 이음매를 펼 수 있느냐?"

"오! 그게 바로 그 하나입니다, 선장님! 하나만 빼고 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대장장이, 이게 그 하나다. 그렇다, 이 사람아, 이건 펼 수가 없다. 너는 여기 내 살에서만 보지만, 이건 내 두개골의 뼈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온통 주름투성이다! 그러나 애들 장난은 집어치우자. 오늘은 갈고리도 창도 그만이다. 여기를 보라!" 그는 가죽 주머니를 금화가 가득 든 것처럼 짤랑거렸다. "나도 작살을 하나 만들고 싶다. 퍼스, 악마 천 쌍이 멍에를 메고 끌어도 떼어 내지 못할 작살을. 고래 제 지느러미뼈처럼 고래 몸에 박혀 있을 무언가를. 재료는 여기

있다." 그는 주머니를 모루 위에 던졌다. "보라, 대장장이, 이건 경주마의 강철 편자에서 모은 못 토막이다."

"편자 못 토막 말씀입니까, 선장님? 아니, 에이해브 선장님, 그렇다면 우리 대장장이들이 다루는 것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억센 재료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알고 있다, 노인. 이 못 토막들은 살인자들의 녹은 뼈로 만든 아교처럼 한데 들러붙으리라. 빨리! 작살을 벼려 다오. 먼저 그 자루로 쓸 막대 열두 개를 벼리고, 그다음 이 열두 개를 예인줄의 실과 가닥처럼 감고 꼬고 두드려 하나로 만들어라. 빨리! 불은 내가 불겠다."

마침내 막대 열두 개가 다 만들어지자, 에이해브는 하나하나 길고 무거운 쇠 볼트에 손수 나선형으로 감아 보며 시험했다. "흠이 있다!" 그는 마지막 것을 퇴짜 놓았다. "이건 다시 만들어라, 퍼스."

이 일이 끝나고 퍼스가 열두 개를 하나로 때우기 시작하려 하자, 에이해브는 그의 손을 멈추게 하고 제 작살은 제가 때우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규칙적으로 헐떡이는 기합 소리를 내며 모루 위를 두드리고, 퍼스가 달아오른 막대를 하나씩 차례로 건네주고, 세차게 바람을 받은 화덕이 강렬한 불꽃을 곧게 쏘아 올리는 동안, 파시교도가 말없이 지나가다가 불 쪽으로 머리를 숙였다. 그 일에 무슨 저주나 축복을 비는 듯했다. 그러나 에이해브가 고개를 들자 그는 옆으로 미끄러지듯 비켜났다.

"저기 저 성냥 다발 같은 놈은 왜 저렇게 얼쩡거리지?" 스터브가 앞갑판에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 파시교도는 도화선처럼 불 냄새를 맡는단 말이야. 그리고 저 자신한테서도 달아오른 머스킷총 화약 접시 같은 냄새가 나고."

마침내 하나로 온전한 막대가 된 자루가 마지막 열을 받았다. 그리고 퍼스가 그것을 담금질하려고 옆에 있던 물통 속에 통째로 쉭쉭 소리

나게 담그자, 데일 듯한 김이 몸을 구부린 에이해브의 얼굴로 솟구쳤다.

"퍼스, 나에게 낙인을 찍으려느냐?" 그는 아픔에 잠시 움찔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낙인 찍을 쇠를 벼리고 있었던 것이냐?"

"하나님께 비오니, 그것만은 아니기를. 그래도 무언가가 두렵습니다, 에이해브 선장님. 이 작살은 흰 고래를 잡으려는 게 아닙니까?"

"흰 악마를 잡으려는 거다! 그러나 이제 미늘이다. 미늘은 네가 손수 만들어야 한다, 이 사람아. 여기 내 면도칼들이 있다. 가장 좋은 강철이다. 자, 이걸로 미늘을 얼음 바다의 바늘 같은 진눈깨비처럼 날카롭게 만들어라."

잠깐 동안 늙은 대장장이는 그 면도칼들을 쓰고 싶지 않은 듯 바라보았다.

"받아라, 이 사람아. 나는 그게 필요 없다. 이제 나는 면도도, 식사도, 기도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아니, 자, 일을 해라!"

마침내 화살 모양으로 다듬어져 퍼스의 손으로 자루에 때워지자, 그 강철은 곧 작살 끝을 뾰족하게 했다. 그리고 대장장이가 미늘을 담금질하기 전에 마지막 열을 주려다가, 에이해브에게 물통을 가까이 놓아 달라고 소리쳤다.

"아니, 아니다. 이건 물로 하지 않는다. 나는 이걸 참된 죽음의 담금질로 하고 싶다. 어이, 거기! 태시테고, 퀴퀘그, 다구! 어떠냐, 이교도들! 이 미늘을 덮을 만큼 피를 내게 주겠느냐?" 그는 그것을 높이 쳐들었다. 검은 머리들이 한 무리로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이교도의 살에 세 군데 구멍이 뚫렸고, 흰 고래를 잡을 미늘이 그렇게 담금질되었다.

"나는 너에게 성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악마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Ego non baptizo te in nomine patris, sed in nomine

diaboli!)" 사악한 쇠가 세례의 피를 지글지글 태우며 삼키자 에이해브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이제 아래에서 여분의 장대들을 끌어 모아, 아직 껍질이 덮인 히코리 장대 하나를 골라 에이해브는 그 끝을 작살의 자루 구멍에 맞추었다. 그다음 새 예인줄 한 사리를 풀어 몇 패덤을 양묘기로 가져가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밧줄이 하프 줄처럼 웅웅거릴 때까지 발로 누르고 나서, 열심히 그 위로 몸을 구부려 살펴보고 가닥이 풀린 데가 없자 에이해브는 외쳤다. "좋다! 이제 동여매기다."

밧줄의 한쪽 끝을 가닥으로 풀고, 따로 펼쳐진 실들을 모두 땋아 작살의 자루 구멍 둘레에 엮어 감았다. 그런 다음 장대를 자루 구멍 속으로 세게 박아 넣었다. 아래쪽 끝에서부터 밧줄을 장대 길이의 반쯤까지 끌어올려, 노끈을 서로 얽어 감아 단단히 고정했다. 이 일이 끝나자 장대와 쇠와 밧줄은, 운명의 세 여신처럼, 떼어 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에이해브는 그 무기를 들고 침울하게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고래뼈 의족 소리와 히코리 장대 소리가 둘 다 널빤지마다 텅 비게 울렸다. 그러나 그가 선장실로 들어가기 전에, 가볍고 부자연스럽고 반쯤 놀리는 듯하면서도 더없이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오, 핍! 너의 비참한 웃음, 하릴없지만 쉬지 않는 너의 눈, 너의 그 모든 이상한 광대짓은 그 우울한 배의 검은 비극과 뜻 없지 않게 어우러져 그 비극을 비웃었다!

제114장 도금장이

일본 어장의 한복판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면서, 피쿼드호는 곧 고래잡이로 온통 술렁였다. 온화하고 쾌적한 날씨에는 흔히 열두 시간, 열다섯 시간, 열여덟 시간, 스무 시간을 내리 보트에 매달려, 고래를 쫓아 꾸준히 노를 젓거나 돛을 달거나 짧은 노로 저었고, 아니면 60분이나 70분 동안 쉬면서 고래가 떠오르기를 차분히 기다렸다. 애쓴 데 비해 거둔 것은 적었지만.

그럴 때면 기운이 꺾인 해 아래, 매끄럽고 느릿느릿 부푸는 너울 위에 온종일 떠서, 자작나무 카누처럼 가벼운 보트에 앉아, 부드러운 파도 자체와 어찌나 다정하게 어울리는지 파도가 난롯가 고양이처럼 뱃전에 몸을 비비며 가르랑거리는 것만 같다. 이런 때는 꿈꾸는 듯한 고요의 시간이다. 바다 살갗의 고요한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바라보노라면 그 밑에서 헐떡이는 호랑이의 심장을 잊게 되고, 이 벨벳 같은 앞발이 무자비한 엄니를 감추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꺼이 떠올리려 하지 않는다.

이런 때면 포경 보트에 탄 떠돌이는 바다에 대해 자식 같고 믿음직하고 뭍 같은 어떤 느낌을 부드럽게 느낀다. 그는 바다를 꽃 핀 땅처럼 여긴다. 그리고 돛대 꼭대기만 드러낸 먼 배는 높이 구르는 파도가 아니라 구르는 대초원의 키 큰 풀을 헤치며 애써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서부로 가는 이주민들의 말이 쫑긋 세운 귀만 드러내고, 숨은 몸뚱이는 놀라운 푸른 풀숲을 넓게 헤치며 걸어갈 때처럼.

길게 뻗은 처녀 골짜기들, 온화하고 푸른 언덕 비탈들, 그 위로 고요와 웅웅거림이 스며들 때면, 당신은 어느 즐거운 5월, 숲의 꽃을 꺾고 노느라 지친 아이들이 이 외딴곳에서 잠들어 누워 있다고 거의 맹세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장 신비로운 기분과 뒤섞인다. 그래서 사실과 공상이 중간에서 만나 서로 스며들어 이음매 없는 하나가 된다.

그런 달래 주는 풍경은 아무리 잠깐이라도, 에이해브에게도 적어도 그만큼 잠깐의 효과는 주었다. 그러나 이 은밀한 황금 열쇠들이 그의 안에 있는 그 자신의 은밀한 황금 보물 창고를 여는 듯했다 해도, 그 보물 위에 닿은 그의 숨결은 그것을 흐리게 할 뿐이었다.

오, 풀 덮인 숲 속 빈터여! 오, 영혼 속에 영원히 봄인 끝없는 풍경이여. 너희 속에서, 흙의 삶의 죽은 가뭄에 오래 바싹 말랐을지라도, 너희 속에서 사람은 아직 새 아침 토끼풀 위의 어린 말들처럼 뒹굴 수 있고, 덧없는 몇 순간 동안 불멸의 삶의 서늘한 이슬을 제 몸에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 비오니, 이 축복받은 고요가 이어지기를. 그러나 삶의 뒤섞이고 뒤섞는 실은 날실과 씨실로 짜인다. 고요는 폭풍과 엇갈리고, 고요마다 폭풍이 하나씩 있다. 이 삶에는 뒷걸음질 없는 꾸준한 전진이 없다. 우리는 정해진 단계를 거쳐 나아가 마지막 단계에서 멈추지 않는다. 유년의 무의식적인 마법을, 소년 시절의 생각 없는 믿음을, 청년기의 의심을(누구나 맞는 운명이다), 그다음 회의를, 그다음 불신을 거쳐, 마침내 장년의 「만약」이라는 곰곰이 생각하는 휴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다 거치고 나면 우리는 그 고리를 다시 더듬어 간다. 그리고 영원히 아기이고, 소년이고, 어른이고, 「만약」이다. 다시는 닻줄을 풀지 않을 마지막 항구는 어디 있는가? 가장 지친 이도 결코 지치지 않을 세상은 어느 황홀한 하늘을 항해하는가? 버려진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우리의 영혼은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가

낳다가 죽어 버린 고아들과 같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의 비밀은 그 어머니들의 무덤 속에 있고,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날, 스타벅도 보트 옆에서 그 같은 금빛 바다를 멀리 내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헤아릴 길 없는 사랑스러움, 연인이 어린 신부의 눈에서 일찍이 본 것만큼이나! 이빨이 층층이 난 네 상어들 이야기는 하지 마라. 사람을 납치하는 네 식인종 같은 짓 이야기도. 믿음이 사실을 몰아내라. 공상이 기억을 몰아내라. 나는 깊이 내려다보고, 그리고 믿는다."

그리고 스터브는 물고기처럼 반짝이는 비늘을 번득이며 그 같은 금빛 속으로 뛰어올랐다.

"나는 스터브고, 스터브에게도 내력이 있지. 그러나 여기서 스터브는 맹세한다. 나는 늘 유쾌했다고!"

제115장 피쿼드호, 총각호를 만나다

에이해브의 작살을 때우고 나서 몇 주 뒤, 바람을 타고 다가온 광경과 소리는 유쾌하기 그지없었다.

그것은 낸터킷의 배 총각호였다. 총각호는 막 마지막 기름통을 쐐기 박아 채워 넣고, 터질 듯한 승강구 뚜껑을 볼트로 죄어 놓은 참이었다. 그리고 이제 즐거운 명절옷을 차려입고, 고향으로 뱃머리를 돌리기 전에 어장에 멀리 흩어져 있는 배들 사이를 기쁘게, 좀 우쭐대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돛대 꼭대기의 세 사람은 모자에 붉은 깃발 천으로 된 좁고 긴 띠를 달고 있었다. 고물에는 포경 보트 한 척이 바닥을 아래로 하고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뱃머리 기움 돛대에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죽인 고래의 긴 아래턱이 포로처럼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삭구에서는 온갖 빛깔의 신호기와 국기와 이물 깃발이 사방으로 펄럭였다. 바구니 같은 세 돛대 망루마다 경랍 기름 두 통씩이 옆으로 묶여 있었다. 그 위 중간돛대 가로대에는 같은 귀한 기름을 담은 날씬한 작은 통들이 보였다. 그리고 큰돛대 꼭대기 둥근 판에는 놋쇠 등잔이 못 박혀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총각호는 더없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같은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숱한 배들이 몇 달을 꼬박 고래 한 마리 못 잡았기에 더욱 놀라웠다. 훨씬 값진 경랍을 실을 자리를 만들려고 쇠고기와 빵 통을 남에게 내주었을 뿐 아니라, 만난 배들에서 보충할 통을 더 바꿔 오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통들을 갑판을 따라, 선장과

항해사들의 선실에 쌓아 두었다. 선장실 식탁마저 부수어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그래서 선장실 식구들은 바닥에 묶어 가운데 장식 삼아 둔 기름통의 넓은 머리 위에서 식사를 했다. 앞갑판 선원실에서는 선원들이 제 궤짝의 틈을 정말로 메우고 역청을 발라 거기에 기름을 채웠다. 우스갯소리로 덧붙이기를, 요리사는 제일 큰 솥에 뚜껑을 덮어 채웠고, 급사는 남는 커피 주전자를 막아 채웠으며, 작살잡이들은 작살의 자루 구멍을 막아 채웠다고 했다. 정말이지 선장의 바지 주머니 말고는 모든 것이 경랍으로 가득 찼다. 그 주머니는 선장이 아주 흡족하다는 것을 우쭐하게 증언하며 손을 찔러 넣으려고 남겨 둔 것이었다.

행운을 만난 이 즐거운 배가 침울한 피쿼드호 쪽으로 다가오자, 앞갑판에서 거대한 북의 야만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더 가까이 다가오자 한 무리의 선원들이 커다란 기름 가마솥 둘레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가마솥은 양피지 같은 검정고래의 *주머니*, 곧 위장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선원들이 주먹 쥔 손으로 칠 때마다 요란하게 울렸다. 뒷갑판에서는 항해사들과 작살잡이들이 폴리네시아 섬들에서 그들과 함께 달아나 온 올리브빛 살결의 아가씨들과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앞돛대와 큰돛대 사이 높이 단단히 고정한 장식된 보트에 매달린 롱아일랜드 출신 흑인 세 사람이 반짝이는 고래뼈 바이올린 활을 들고 그 흥겨운 지그 춤판을 이끌었다. 한편 배의 다른 일꾼들은 큰 가마솥들을 들어낸 기름 솥의 벽돌 쌓기를 허무느라 떠들썩하게 바빴다. 이제 쓸모없어진 벽돌과 회반죽을 바다에 내던지며 어찌나 사납게 고함을 질러 대는지, 저주받은 바스티유를 허무는 줄 알았으리라.

이 모든 광경의 주인이자 군주인 선장은 배의 높직한 뒷갑판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래서 흥겨운 연극 전체가 고스란히 그의 눈앞에 펼쳐졌고, 그 혼자의 기분 전환을 위해 꾸민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에이해브, 그도 제 뒷갑판에 서 있었다. 덥수룩하고 시커멓게, 고집스러운 침울함을 띠고. 그리고 두 배가 서로의 항적을 가로지를 때, 한 배는 지나간 일로 온통 환호하고 다른 배는 다가올 일로 온통 불길한 예감에 차 있었으니, 두 선장은 그 자신들 속에 그 광경의 두드러진 대조를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었다.

"올라오시오, 올라오시오!" 즐거운 총각호의 선장이 잔과 술병을 공중에 쳐들며 외쳤다.

"흰 고래를 보았소?" 에이해브가 이를 갈며 대답했다.

"못 보았소. 소문만 들었지. 하지만 그런 놈이 있다고는 전혀 믿지 않소." 상대가 사람 좋게 말했다. "올라오시오!"

"당신은 빌어먹을 만큼 너무 유쾌하구려. 가던 길이나 가시오. 사람을 잃은 적이 있소?"

"말할 거리도 못 되오. 섬사람 둘, 그게 다요. 그러니 올라오시오, 이 친구야, 어서. 그 이마의 먹구름을 내가 곧 걷어 주리다. 어서 오시오, 응 (즐거운 게 놀이지). 가득 찬 배요, 고향으로 가는 길이고."

"바보는 어찌 이리 놀랍도록 허물이 없을까!" 에이해브가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소리 내어 말했다. "당신은 가득 찬 배로 고향으로 간다고 했소. 그렇다면 나는 빈 배로 바깥으로 나간다고 해 두시오. 그러니 당신은 당신 길을 가시오, 나는 내 길을 가겠소. 거기 앞쪽! 돛을 모두 올려라. 바람을 안고 배를 몰아라!"

그렇게 한 배는 산들바람을 등지고 흥겹게 나아갔고, 다른 배는 고집스럽게 바람에 맞서 싸웠다. 그렇게 두 배는 갈라졌다. 피쿼드호의 선원들은 멀어져 가는 총각호를 무겁게 오래 바라보았지만, 총각호 사람들은 한창 흥겨운 잔치판에 빠져 그 눈길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에이해브는 고물 난간에 기대어 고향으로 가는 그 배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모래가 든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다. 그러고는

배에서 약병으로 눈길을 옮기며, 그것으로 멀리 떨어진 두 연상을 한데 모으는 듯했다. 그 약병에는 낸터킷 앞바다 바닥에서 건져 올린 모래가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116장 죽어 가는 고래

살다 보면 드물지 않게, 행운의 총아들이 바람 위쪽에서 우리 곁을 바싹 스쳐 지나갈 때, 그때까지 축 늘어져 있던 우리도 그 세찬 바람을 얼마쯤 얻어 받아 처진 돛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기쁘게 느낀다. 피쿼드호도 그런 것 같았다. 흥겨운 총각호를 만난 다음 날 고래가 보였고, 네 마리를 잡았는데 그중 한 마리는 에이해브가 잡았다.

오후도 한참 기운 무렵이었다. 진홍빛 싸움의 창질이 모두 끝나고, 아름다운 해 질 녘의 바다와 하늘에 떠서 해와 고래가 함께 고요히 죽어 갈 때, 그 장밋빛 대기 속으로 어찌나 달콤하고 어찌나 애처로운 기도가 화환처럼 감기며 피어오르는지, 마닐라 섬들의 짙푸른 수도원 골짜기에서부터 스페인의 뭍바람이 제멋대로 뱃사람이 되어 이 저녁 기도의 찬송을 싣고 바다로 나온 것만 같았다.

에이해브는 고래에게서 보트를 뒤로 물려 놓고, 이제 잔잔해진 보트에 앉아 고래가 마지막으로 스러져 가는 모습을 골똘히 지켜보았다. 마음이 다시 누그러졌으나, 누그러진 만큼 더 깊은 우울에 잠겼을 뿐이었다. 죽어 가는 향유고래라면 어느 놈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 기이한 광경, 곧 머리를 해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숨을 거두는 그 기이한 광경이, 이토록 평온한 저녁에 눈앞에 펼쳐지자 에이해브에게는 어쩐지 전에 몰랐던 경이로움을 전해 주었다.

"놈은 돌고 또 돌아 해 쪽을 향한다. 얼마나 느리게, 그러나 얼마나 꿋꿋하게, 마지막 죽어 가는 몸짓으로 경배를 바치며 기원하는 이마를

그리로 돌리는가. 놈도 불을 섬긴다. 해의 더없이 충직하고 너른 영지를 거느린 봉신이로구나! 오, 이 너무나 은혜 입은 눈이 이 너무나 은혜로운 광경을 보아야 한다니. 보라! 여기, 물에 겹겹이 갇혀 멀리 떨어진 곳,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웅성대는 소리가 하나도 닿지 않는 곳, 더없이 숨김없고 치우침 없는 이 바다, 전설을 새길 바위 하나 없는 곳, 기나긴 중국의 시대 내내 파도가 말도 없이, 누구의 말도 듣지 못한 채 굴러온 곳, 마치 니제르강의 알려지지 않은 근원을 비추는 별들처럼. 여기서도 생명은 믿음에 가득 차 해 쪽을 향해 죽는다. 그러나 보라! 죽자마자 죽음이 시체를 빙글 돌려 놓고, 시체는 다른 어딘가로 머리를 둔다.

"오, 자연의 어두운 힌두의 반쪽이여, 너는 이 푸른빛 하나 없는 바다의 한복판 어딘가에 익사한 뼈로 너만의 옥좌를 따로 쌓았구나. 너는 신을 믿지 않는 자, 너 여왕이여, 너는 온 세상을 도륙하는 태풍과 그 뒤에 오는 고요의 숨죽인 매장으로 내게 너무나 참되게 말한다. 그리고 너의 이 고래가 죽어 가는 머리를 해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돌아선 것도 내게 교훈을 주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다.

"오, 세 겹으로 테를 두르고 단조해 붙인 힘의 엉덩이여! 오, 높이 솟구치는 무지개 물줄기여! 하나는 애쓰고 하나는 뿜어 대지만 모두 헛되다! 오 고래여, 모든 것을 살리는 저 해에게 너는 헛되이 중재를 구한다. 해는 생명을 불러낼 뿐 다시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 더 어두운 반쪽은 더 어둡다 해도 더 자랑스러운 믿음으로 나를 흔들어 달랜다. 너의 이름 붙일 수 없는 온갖 뒤섞임이 여기 내 밑에 떠 있다. 한때 살아 있던 것들의 숨결, 공기로 내쉬어졌으나 지금은 물이 된 그 숨결이 나를 떠받친다.

"그렇다면 만세, 영원히 만세, 오 바다여, 너의 끝없는 출렁임 속에서만 들새는 유일한 쉼을 얻는다. 흙에서 태어났으나 바다의 젖을

먹고 자랐다. 언덕과 골짜기가 나를 낳아 길렀으나, 너희 파도는 나의 젖형제다!"

제117장 고래 곁 불침번

그날 저녁 잡은 고래 네 마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죽었다. 한 마리는 멀리 바람 불어오는 쪽에, 한 마리는 그보다 가까이 바람 불어 가는 쪽에, 한 마리는 앞쪽에, 한 마리는 고물 쪽에. 뒤의 세 마리는 밤이 되기 전에 뱃전으로 끌어왔지만, 바람 불어오는 쪽의 한 마리는 아침이 될 때까지 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래를 죽인 보트가 밤새 그 옆을 지켰는데, 그 보트는 에이해브의 보트였다.

죽은 고래의 분수공에는 웨이프 장대가 똑바로 꽂혀 있었고, 그 꼭대기에 매단 등불이 검고 반들반들한 등 위에, 그리고 저 멀리 한밤의 물결 위에 불안하게 깜박이는 빛을 던졌다. 물결은 바닷가에 밀려드는 부드러운 파도처럼 고래의 넓은 옆구리를 가만가만 비벼 댔다.

에이해브와 그 보트의 선원들은 모두 잠든 것 같았지만 파시교도만은 깨어 있었다. 그는 뱃머리에 웅크리고 앉아 상어들을 지켜보았다. 상어들은 유령처럼 고래 둘레를 맴돌며 놀다가 꼬리로 가벼운 삼나무 뱃전 널빤지를 툭툭 쳤다. 아스팔티테스 호수, 곧 사해 위로 용서받지 못한 고모라의 유령들이 떼 지어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오싹하게 허공을 훑고 지나갔다.

잠에서 퍼뜩 깨어난 에이해브는 바로 눈앞에 파시교도를 보았다. 밤의 어둠에 테를 두른 듯 둘러싸인 두 사람은 물에 잠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사람들 같았다. "또 그 꿈을 꾸었다." 에이해브가 말했다.

"영구차 꿈이오? 노인장, 영구차도 관도 당신 것이 될 수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그럼 바다에서 죽는 자들 가운데 누가 영구차에 실려 가느냐?"

"그러나 노인장, 내가 말하지 않았소. 당신이 이번 항해에서 죽기 전에 바다에서 영구차 두 대를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첫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마지막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나무가 아메리카에서 자란 것이어야 한다고."

"그래, 그래! 그거 참 기이한 광경이겠구나, 파시교도. 영구차가 깃털 장식을 단 채 바다 위를 떠가고, 파도가 관을 메는 일꾼 노릇을 한다니. 하! 그런 광경은 우리가 쉬이 보지 못하리라."

"믿든 안 믿든, 노인장, 그것을 보기 전에는 당신은 죽을 수 없소."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 한 그 말은 무엇이었더냐?"

"마지막이 온다 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보다 앞서 가서 당신의 길잡이가 될 것이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앞서 가고 나면, 그런 일이 언젠가 일어난다면 말이다, 내가 뒤따라가기 전에 너는 그래도 다시 내게 나타나 나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렷다?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좋다,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믿는다면, 오 나의 길잡이여! 내가 아직 모비 딕을 죽이고 살아남으리라는 담보가 여기 두 개나 있구나."

"담보를 하나 더 받으시오, 노인장." 파시교도가 말했다. 그의 눈이 어둠 속의 반딧불처럼 타올랐다.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삼밧줄뿐이오."

"교수대 말이로구나. 그렇다면 나는 죽지 않는다, 뭍에서도 바다에서도." 에이해브가 비웃음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뭍에서도 바다에서도 죽지 않는다!"

두 사람은 한 사람처럼 다시 말이 없었다. 잿빛 새벽이 밝아 오자 잠들었던 선원들이 보트 바닥에서 일어났고, 정오가 되기 전에 죽은 고래를 배로 끌어왔다.

제118장 사분의

마침내 적도 철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날마다 에이해브가 선장실에서 나와 위를 올려다볼 때면, 눈치 빠른 키잡이는 보란 듯이 키 손잡이를 만지작거렸고, 몸이 단 선원들은 재빨리 활대 줄로 달려가 거기 서서 모두 한가운데 못 박힌 금화에 눈을 박은 채, 뱃머리를 적도로 돌리라는 명령을 애타게 기다렸다. 때가 되자 명령이 떨어졌다. 정오가 다 된 때였고, 에이해브는 높이 매달아 올린 제 보트의 뱃머리에 앉아, 위도를 정하려고 날마다 하던 대로 해를 관측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 일본 바다의 여름날은 쏟아지는 빛의 홍수 같다. 눈 한 번 깜박이지 않고 이글거리는 그 일본의 해는 유리 같은 바다라는 헤아릴 수 없이 큰 볼록 렌즈의 불타는 초점처럼 보인다. 하늘은 옻칠을 한 듯하고, 구름은 한 점도 없으며, 수평선은 둥둥 떠다니고, 숨 돌릴 틈 없는 광채가 이렇게 벌거벗고 드러난 모습은 하나님의 옥좌가 내뿜는 견딜 수 없는 찬란함과 같다. 에이해브의 사분의에 색유리가 달려 있어 그것을 통해 그 태양의 불을 겨눌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다. 그래서 그는 앉은 몸을 배의 흔들림에 맞추어 흔들며, 점성술사의 도구처럼 생긴 그 기구를 눈에 대고, 해가 정확히 자오선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을 잡으려고 한동안 그 자세로 있었다. 그가 온 정신을 거기에 쏟고 있는 동안, 파시교도는 그의 아래 배의 갑판에 무릎을 꿇고서, 에이해브처럼 얼굴을 쳐들고 그와 함께 같은 해를 바라보았다. 다만 그의 눈꺼풀은 눈알을 반쯤 덮어 가렸고, 그의 사나운 얼굴은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무정함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마침내 바라던 관측을 마치자, 에이해브는 고래뼈 의족에 연필을 대고 바로 그 순간의 위도가 얼마일지 곧 계산해 냈다. 그러고는 잠깐 몽상에 빠졌다가, 다시 해를 올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너 바다의 표지여! 너 높고 힘센 길잡이여! 너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참되게 말해 준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을지* 털끝만 한 귀띔이라도 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나 말고 다른 무언가가 이 순간 어디에 살아 있는지 말해 줄 수 있느냐? 모비 딕은 어디 있느냐? 너는 이 순간 놈을 바라보고 있을 터이다. 나의 이 눈은 바로 지금 놈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다, 그리고 너의 저편, 알려지지 않은 쪽에 있는 것들을 바로 지금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들여다보고 있다, 너 해여!"

그러고는 사분의를 내려다보며 거기 달린 수많은 신비로운 장치를 하나씩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어리석은 장난감! 거만한 제독과 준장과 선장 들의 젖먹이 놀잇감! 세상은 너를, 너의 교묘함과 힘을 자랑한다. 그러나 결국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넓은 행성 위에서 너 자신과 너를 쥔 손이 마침 어디에 있는지, 그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한 점을 일러 주는 것 말고 무엇이냐. 아니다! 그보다 한 치도 더는 못 한다! 물 한 방울이나 모래 한 알이 내일 정오에 어디에 있을지 너는 말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너는 그 무력함으로 해를 모욕한다! 과학이여! 저주받아라, 너 헛된 장난감아. 그리고 사람의 눈을 저 하늘로 쳐들게 하는 것은 모조리 저주받아라. 하늘의 살아 있는 찬란함은 사람을 그을릴 뿐이다. 오 해여, 이 늙은 눈이 바로 지금 너의 빛에 그을리는 것처럼! 사람의 눈길은 본디 이 땅의 수평선과 나란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실 뜻이었던 것처럼 정수리에서 쏘아 올리게 되어 있지 않다. 저주받아라, 너 사분의야!" 그는 사분의를 갑판에 내동댕이쳤다. "이제 더는 너를

따라 이 땅의 길을 잡지 않겠다. 수평을 지키는 배의 나침반, 그리고 측정판과 측정줄로 하는 수평의 추측 항법, *이것들*이 나를 이끌고 바다 위의 내 자리를 보여 주리라. 그렇다." 그는 보트에서 갑판으로 내려섰다. "이렇게 나는 너를 짓밟는다, 높은 곳을 힘없이 가리키는 너 하찮은 물건아. 이렇게 나는 너를 쪼개고 부순다!"

미쳐 날뛰는 노인이 그렇게 말하며 산 발과 죽은 발로 그렇게 짓밟는 동안, 말 없고 꼼짝 않는 파시교도의 얼굴 위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에이해브를 향한 듯한 비웃는 승리감과, 저 자신을 향한 듯한 숙명의 절망이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 미끄러지듯 사라졌고, 그동안 선원들은 선장의 모습에 겁에 질려 앞갑판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이윽고 에이해브가 갑판을 어지러이 서성이다가 외쳤다. "활대 줄로! 키를 올려라! 활대를 바로 돌려라!"

순식간에 활대들이 휙 돌아갔다. 그리고 배가 뒤꿈치를 축 삼아 반 바퀴 돌 때, 갈빗대가 드러난 긴 선체 위에 꼿꼿이 균형을 잡고 단단히 박힌 우아한 세 돛대는 튼튼한 말 한 필 위에서 피루엣을 도는 호라티우스 삼 형제 같았다.

스타벅은 뱃머리 기둥 사이에 서서 소란스럽게 나아가는 피쿼드호를, 그리고 갑판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에이해브의 길도 지켜보았다.

"나는 빽빽한 석탄불 앞에 앉아, 그 불이 고통받는 활활 타는 생명으로 가득 차서 온통 이글거리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이 사그라져, 아래로, 아래로, 더없이 말 없는 재가 되는 것도 보았다. 대양의 노인이여! 당신의 이 불타는 생명 가운데 결국 남을 것이 작은 잿더미 하나 말고 무엇이겠는가!"

"그렇지." 스터브가 외쳤다. "하지만 바다 석탄의 재요. 그걸 명심하시오, 스타벅 씨. 바다 석탄이지, 흔해 빠진 숯이 아니란 말이오. 그래, 그래. 에이해브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들었소. '누군가 이

카드들을 내 늙은 손에 쥐여 주면서, 다른 카드 말고 이것으로 놀아야 한다고 맹세하는구나.' 그런데 빌어먹을, 에이해브, 당신 하는 짓이 옳소. 판 속에서 살고, 판 속에서 죽는 거요!"

제119장 촛불

가장 따뜻한 땅이 가장 잔인한 송곳니를 길러 낸다. 벵골 호랑이는 사철 푸르른 향긋한 숲에 웅크리고 있다. 가장 눈부신 하늘이 가장 무서운 천둥을 바구니에 담아 두니, 화려한 쿠바는 길들여진 북쪽 땅을 한 번도 휩쓴 적 없는 회오리바람을 안다. 그러니 이 찬란한 일본 바다에서 뱃사람이 모든 폭풍 가운데 가장 무서운 폭풍, 태풍을 만나는 것도 그런 이치로, 태풍은 때로 그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넋 놓고 졸고 있는 마을 위에 떨어져 터지는 포탄처럼 터져 나온다.

그날 저녁 무렵, 피쿼드호는 돛을 모두 찢기고 돛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바로 정면에서 들이친 태풍과 맞서 싸우게 되었다. 어둠이 내리자 하늘과 바다가 천둥으로 울부짖으며 갈라지고 번개로 타올랐고, 번개가 비추어 보인 망가진 돛대들에는 폭풍이 처음 날뛸 때 나중에 가지고 놀려고 남겨 둔 넝마가 여기저기 펄럭이고 있었다.

스타벅은 돛대 밧줄을 붙잡고 뒷갑판에 서서, 번개가 칠 때마다 위를 흘끗 올려다보며 그 얽히고설킨 삭구에 또 무슨 재난이 닥쳤는지 살폈고, 그동안 스터브와 플래스크는 선원들을 지휘하여 보트를 더 높이 끌어 올리고 더 단단히 묶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모두 헛것 같았으니, 보트 걸이의 맨 꼭대기까지 끌어 올렸는데도 바람 불어오는 쪽 고물의 보트(에이해브의 보트)는 화를 면하지 못했다. 크게 굴러온 파도가 휘청거리는 배의 높이 기우뚱한 뱃전에 높이 부딪치며 보트의

고물 쪽 바닥을 박살 내고는, 체처럼 온통 물이 뚝뚝 새는 꼴로 남겨 두고 물러갔다.

"고약하군, 고약해! 스타벅 씨." 스터브가 부서진 보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바다는 제 마음대로 하기 마련이오. 이 스터브만 해도 바다와 싸울 수는 없소. 보시오, 스타벅 씨, 파도란 놈은 뛰어오르기 전에 아주 멀리서부터 도움닫기를 하지. 온 세상을 빙 돌아 달려와서는 그제야 펄쩍 뛴단 말이오! 그런데 나로 말하자면, 그놈을 맞으려고 도움닫기할 거리가 고작 여기 갑판을 가로지르는 만큼이오. 하지만 상관없소. 다 장난인 걸. 옛 노래도 그렇게 말하지." (노래한다.)

오! 강풍은 흥겹고, 고래는 익살꾼이라, 꼬리를 휘휘 흔들어 대네. 우습고, 장난스럽고, 신나고, 농담 잘하고, 익살맞고, 요술쟁이 같은 녀석이라네, 대양은, 오!

물보라가 날리는 건 그저 그 녀석 술잔에 거품이 이는 거라네. 양념을 휘휘 저을 때면 말이지. 우습고, 장난스럽고, 신나고, 농담 잘하고, 익살맞고, 요술쟁이 같은 녀석이라네, 대양은, 오!

천둥이 배들을 쪼개도 그 녀석은 입맛만 쩍쩍 다시네, 이 술맛을 보면서. 우습고, 장난스럽고, 신나고, 농담 잘하고, 익살맞고, 요술쟁이 같은 녀석이라네, 대양은, 오!

"그만하게, 스터브." 스타벅이 외쳤다. "태풍더러 노래하라고 하고, 여기 우리 삭구에서 하프를 뜯으라고 하게. 하지만 자네가 용감한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 걸세."

"하지만 나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오.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없소. 나는 겁쟁이요. 그래서 기운을 내려고 노래하는 거요. 그리고 말해 두지만, 스타벅 씨, 이 세상에서 내 노래를 멈출 방법은 내 목을 따는 것밖에 없소. 그리고 목을 따고 나면, 십중팔구 마무리로 송영(頌詠)을 한 곡 불러 드리겠지."

"미친 사람! 자네 눈이 없거든 내 눈으로 보게."

"뭐요! 어두운 밤에 당신이 어떻게 남보다 더 잘 볼 수 있단 말이오, 아무리 어리석은 남이라도?"

"여길 보게!" 스타벅이 스터브의 어깨를 움켜잡고 바람 불어오는 쪽 뱃머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강풍이 동쪽에서, 바로 에이해브가 모비 딕을 쫓아 달려가려는 그 항로에서 불어오는 것이 보이지 않나? 바로 오늘 정오에 그가 뱃머리를 돌린 그 항로 말일세. 이제 저기 그의 보트를 보게. 어디가 박살 났나? 고물 자리일세, 이 사람아. 그가 늘 서 있는 곳 말이야. 그가 딛고 설 자리가 박살 났다고, 이 사람아!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 노래나 실컷 부르게, 꼭 불러야겠거든!"

"무슨 말인지 반도 모르겠소. 무슨 낌새라도 있다는 거요?"

"그래, 그래, 희망봉을 돌아가는 것이 낸터킷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다." 스타벅이 스터브의 물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득 혼잣말을 했다. "지금 우리를 박살 내려고 두들기는 이 강풍을 순풍으로 바꾸면, 우리를 고향 쪽으로 몰아다 주리라. 저기 바람 불어오는 쪽은 온통 파멸의 어둠이다. 그러나 바람 불어 가는 쪽, 고향 쪽은, 저기 밝아 오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번개로 밝아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 번갯불 뒤에 이어지는 깊은 어둠의 틈에 그의 곁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고, 거의 같은 순간에 천둥이 연달아 머리 위로 굴러갔다.

"거기 누구냐?"

"늙은 천둥이다!" 에이해브가 말했다. 그는 뱃전을 따라 의족 구멍 쪽으로 길을 더듬어 가다가, 문득 팔꿈치처럼 꺾인 불의 창들이 그의 길을 환히 밝혀 주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뭍에서 첨탑에 다는 피뢰침이 위험한 전기를 땅속으로 흘려보내려는 것이듯, 바다에서 어떤 배들이 돛대마다 다는 같은 종류의 막대는 그것을 물속으로 흘려보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도체는 그

끝이 선체에 조금도 닿지 않도록 꽤 깊이 내려가야 하고, 또 늘 거기 끌고 다니면 숱한 사고를 당하기 쉬울 뿐 아니라 삭구 몇몇에 적잖이 거치적거리고 물속에서 배가 나아가는 것을 얼마쯤 방해하기도 하므로, 이런 까닭에 배의 피뢰침 아랫부분은 늘 배 밖에 내려져 있지는 않고, 대개는 길고 가는 사슬 고리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바깥쪽 돛대 밧줄 받침으로 쉽게 끌어 올리거나 바다로 던져 내릴 수 있게 해 둔다.

"피뢰침! 피뢰침!" 스타벅이 선원들에게 외쳤다. 방금 에이해브를 제자리로 비추어 이끌려고 횃불처럼 내리꽂힌 선명한 번개를 보고 문득 정신이 바짝 든 것이다. "배 밖에 내렸느냐? 앞뒤로 내려라. 어서!"

"그만둬라!" 에이해브가 외쳤다. "우리가 약한 편이라 해도 여기서는 공정하게 겨루자. 그래도 히말라야와 안데스에 피뢰침을 세워 온 세상이 안전해지도록 하는 데는 나도 돈을 보태겠다. 그러나 특권 따위는 집어치워라! 그냥 둬라."

"위를 보십시오!" 스타벅이 외쳤다. "성 엘모의 불입니다! 성 엘모의 불입니다!"

활대 끝마다 창백한 불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세 갈래로 갈라진 피뢰침 끝마다 끝이 가늘어지는 흰 불꽃이 세 개씩 닿아, 키 큰 세 돛대가 저마다 그 유황 냄새 나는 대기 속에서 제단 앞의 거대한 밀랍 초 세 자루처럼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보트 따윈 빌어먹을! 내버려 둬!" 바로 그때 스터브가 외쳤다. 그가 묶을 밧줄을 건네던 참에 철썩이는 파도가 그의 작은 보트 밑으로 솟구쳐 올라 뱃전이 그의 손을 사납게 짓눌렀기 때문이다. "빌어먹을!" 그러나 갑판 위에서 뒤로 미끄러지며 쳐든 눈에 불꽃이 들어오자, 그는 곧바로 말투를 바꾸어 외쳤다. "성 엘모의 불이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소서!"

뱃사람에게 욕은 일상의 말이다. 그들은 바다가 넋을 잃은 듯 잔잔할 때도 욕을 하고 폭풍이 이빨을 드러낼 때도 욕을 하며, 끓어오르는 바다 위로 가장 아찔하게 기우뚱거리는 중간돛 활대 끝에서도 저주를 퍼붓는다. 그러나 내가 항해한 그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의 불타는 손가락이 배 위에 놓였을 때, 그분의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돛대 밧줄과 삭구에 짜여 들어갔을 때, 흔한 욕 한마디라도 들은 적은 드물다.

이 창백한 불이 높은 곳에서 타오르는 동안, 넋을 빼앗긴 선원들에게서는 거의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들은 앞갑판에 한 덩어리로 빽빽이 모여 서 있었고, 그 창백한 인광 속에서 그들의 눈이 모두 멀리 떨어진 별자리처럼 반짝였다. 유령 같은 빛을 등지고 칠흑같이 검은 거구의 흑인 다구가 제 키의 세 배로 우뚝 솟아 보였는데, 천둥이 쏟아져 나온 바로 그 먹구름 같았다. 벌어진 태시테고의 입에서는 성 엘모의 불이 끝에 붙기라도 한 듯 이상하게 번득이는 상어처럼 흰 이가 드러났고, 이 세상 것 아닌 빛을 받아 퀴퀘그의 문신이 그의 몸 위에서 사탄의 푸른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 활인화(活 人 畫)는 마침내 높은 곳의 창백한 불과 함께 모두 스러졌고, 다시 한번 피쿼드호와 그 갑판 위의 모든 영혼이 관을 덮는 검은 천에 휩싸였다. 한두 순간이 지나, 앞으로 가던 스타벅이 누군가와 부딪쳤다. 스터브였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아. 자네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네. 노래하던 때와는 같지 않던데."

"아니오, 아니오, 같지 않았소. 성 엘모의 불이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했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오. 하지만 그 불은 시무룩한 얼굴만 불쌍히 여긴단 말이오? 웃음에는 인정머리가 없단 말이오? 그리고 보시오, 스타벅 씨. 아니,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군. 그럼 들으시오. 나는 우리가 본 그 돛대 꼭대기 불꽃을 행운의

징조로 여기오. 저 돛대들은 향유고래 기름으로 꽉꽉 들어찰 선창에 뿌리를 박고 있으니까, 알겠소? 그러니 그 경랍이 나무에 수액이 오르듯 죄다 돛대로 차오를 거란 말이오. 그렇지, 우리 세 돛대는 언젠가 경랍초 세 자루처럼 될 거요. 그게 우리가 본 좋은 약속이오."

그 순간 스타벅은 스터브의 얼굴이 천천히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외쳤다. "보게! 보게!" 그리고 다시 한번, 끝이 가늘어지는 높은 불꽃들이 보였다. 그 창백함 속에 이 세상 것 아닌 기운이 갑절은 더해진 듯했다.

"성 엘모의 불이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소서." 스터브가 다시 외쳤다.

큰돛대 밑동, 금화와 불꽃의 바로 아래에서, 파시교도는 에이해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나 머리는 그에게서 돌린 채 숙이고 있었다. 그 가까이, 활 모양으로 굽어 늘어진 삭구에서는 방금 활대 하나를 고정하던 선원 몇 사람이 그 불빛에 붙들려 멈춘 채, 이제 서로 엉겨 붙어 늘어진 과수원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비된 말벌 떼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헤르쿨라네움에서 선 채로, 걸음을 내딛다가, 혹은 달리다가 굳은 해골들처럼 갖가지 넋 나간 자세로 갑판에 뿌리박혀 있었으나, 모두가 눈을 위로 쳐들고 있었다.

"그래, 그래, 얘들아!" 에이해브가 외쳤다. "저것을 올려다보아라. 잘 보아 두어라. 흰 불꽃은 흰 고래에게 가는 길을 밝혀 줄 뿐이다! 거기 큰돛대 피뢰침 사슬을 이리 다오. 이 맥박을 짚어 보고 싶다. 내 맥박이 거기 맞부딪쳐 뛰게 하고 싶다. 피와 불이 맞서도록! 그렇지."

그러고는 몸을 돌려, 마지막 사슬 고리를 왼손에 꽉 쥔 채 파시교도 위에 발을 올려놓고, 눈을 위에 박고 오른팔을 높이 쳐든 채, 높이 솟은 세 갈래 불꽃의 삼위일체 앞에 꼿꼿이 섰다.

"오! 맑은 불의 맑은 영이여, 나는 일찍이 이 바다에서 페르시아 사람처럼 너를 섬겼다. 그러다 성스러운 예식 중에 너에게 데어 지금까지 그 흉터를 지니고 있다. 이제 나는 너를 안다, 너 맑은 영이여.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올바로 섬기는 길이 반항임을 안다. 사랑에도 공경에도 너는 다정하지 않으리라. 미움에게조차 너는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 그리고 모두가 죽임을 당한다. 이제 너를 마주하는 것은 겁 없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말 없고 자리 없는 너의 힘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진 같은 내 삶의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내 안에서 너의 그 무조건의, 온전치 못한 지배와 다투리라. 인격을 입은 비인격의 한가운데에 한 인격이 여기 서 있다. 기껏해야 한 점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디서 왔든, 어디로 가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왕 같은 인격이 내 안에 살아 있고 제 왕권을 느낀다. 그러나 전쟁은 고통이고 미움은 비통이다. 가장 낮은 사랑의 모습으로 오라, 그러면 나는 무릎을 꿇고 너에게 입 맞추리라. 그러나 가장 높은 모습으로, 그저 하늘 위의 힘으로 온다면, 네가 짐을 가득 실은 세계들의 함대를 띄워 보낸다 해도, 여기 내 안에는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다. 오, 너 맑은 영이여, 너는 너의 불로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 참된 불의 자식답게 나는 그 불을 너에게 도로 내쉰다."

[갑자기 번개가 거듭 번쩍인다. 아홉 불꽃이 길게 솟구쳐 전보다 세 배나 높아진다. 에이해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눈을 감고, 오른손으로 눈을 꽉 누른다.]

"나는 말 없고 자리 없는 너의 힘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억지로 짜낸 것도 아니었고, 나는 지금도 이 사슬을 놓지 않는다. 너는 눈을 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나는 더듬어 갈 수 있다. 너는 태워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나는 재가 될 수 있다. 이 가련한 눈과 덧문 같은 손의 경배를 받아라. 나라면 받지 않겠다.

번개가 내 두개골을 꿰뚫고 번쩍인다. 내 눈알이 쑤시고 또 쑤신다. 두들겨 맞은 내 뇌 전체가 목이 잘려 어느 아찔한 땅바닥을 굴러가는 것 같다. 오, 오! 그래도 눈을 가린 채로, 그래도 나는 너에게 말하리라. 너는 빛이지만 어둠에서 뛰쳐나온다. 그러나 나는 빛에서 뛰쳐나온 어둠, 너에게서 뛰쳐나온 어둠이다! 투창이 멎는다. 눈을 떠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저기 불꽃이 타오른다! 오, 너 너그러운 자여! 이제 나는 나의 혈통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너는 나의 불같은 아버지일 뿐이다. 나의 다정한 어머니를 나는 모른다. 오, 잔인한 자여! 너는 그 여자를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나의 수수께끼가 있다. 그러나 너의 수수께끼는 더 크다. 너는 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른다. 그래서 너 자신을 낳아지지 않은 자라 부른다. 너는 틀림없이 너의 시작을 모른다. 그래서 너 자신을 시작이 없는 자라 부른다. 오, 너 전능한 자여, 나는 너 자신이 너에 대해 모르는 것을 나에 대해 안다. 너 맑은 영이여, 너 너머에 무언가 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에게는 너의 영원도 시간일 뿐이고, 너의 창조하는 힘도 모두 기계 장치일 뿐이다. 너를 통해, 불타는 너를 통해, 그을린 내 눈이 그것을 희미하게 본다. 오, 너 버려진 아이 같은 불이여, 너 아득한 옛날부터의 은자여, 너에게도 남에게 전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슬픔이 있구나. 여기서 다시 나는 오만한 고뇌로 나의 아비를 읽는다. 뛰어올라라! 뛰어올라 하늘을 핥아라! 나도 너와 함께 뛰어오른다. 너와 함께 불탄다. 너와 하나로 단조되어 붙고 싶다. 반항하며 나는 너를 섬긴다!"

"보트! 보트!" 스타벅이 외쳤다. "선장님 보트를 보십시오, 노인장!"

퍼스의 불에서 벼린 에이해브의 작살은 눈에 띄는 작살 받침에 단단히 묶인 채 그대로 있어서 그의 포경 보트 뱃머리 너머로 비죽 나와 있었다. 그러나 보트 바닥을 박살 낸 파도에 헐거운 가죽 칼집이 벗겨져 떨어졌고, 이제 날카로운 강철 미늘에서 창백하게 두 갈래로 갈라진

불꽃이 한 줄로 뻗어 나왔다. 소리 없는 작살이 뱀의 혀처럼 거기서 타오를 때, 스타벅이 에이해브의 팔을 움켜잡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장님을 거스르십니다, 노인장. 그만두십시오! 이건 불길한 항해입니다! 시작부터 불길했고 이어 가면서도 불길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활대를 바로 돌리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 이 바람을 고향 가는 순풍으로 삼아, 이번보다 나은 항해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스타벅의 말을 엿들은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곧바로 활대 줄로 달려갔다. 위에는 돛 한 장 남아 있지 않았는데도. 그 순간에는 기겁한 항해사의 생각이 모두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았다. 그들은 반쯤 반란 같은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에이해브는 덜그럭거리는 피뢰침 사슬을 갑판에 내동댕이치고 불타는 작살을 낚아채더니, 그것을 횃불처럼 그들 사이에서 휘두르며 밧줄 끝 하나라도 풀어 놓는 첫 선원은 이것으로 꿰뚫어 버리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모습에 돌처럼 굳고, 그가 쥔 불타는 창에 더더욱 움츠러든 선원들은 기가 꺾여 물러섰다. 그리고 에이해브가 다시 말했다.

"흰 고래를 사냥하겠다는 너희의 맹세는 모두 나의 맹세만큼 너희를 묶는다. 그리고 심장도, 영혼도, 몸도, 허파도, 목숨도, 늙은 에이해브는 묶여 있다. 그리고 이 심장이 어떤 가락에 맞추어 뛰는지 너희가 알도록, 여기를 보아라. 이렇게 나는 마지막 두려움을 불어 끈다!" 그리고 그는 숨 한 번으로 불꽃을 꺼 버렸다.

들판을 휩쓰는 허리케인 속에서 사람들이 홀로 선 거대한 느릅나무 근처에서 달아나는 것은, 그 나무가 높고 튼튼할수록 그만큼 더 벼락의 과녁이 되어 그만큼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처럼 에이해브의 그 마지막 말에 많은 선원들이 기겁하여 그에게서 달아났다.

제120장 첫 야간 당직이 끝나 갈 무렵의 갑판

에이해브가 키 곁에 서 있다. 스타벅이 그에게 다가간다.

"큰중간돛 활대를 내려야겠습니다, 선장님. 띠쇠가 헐거워지고 있고, 바람 불어 가는 쪽 활대 들보 줄은 반쯤 가닥이 끊어졌습니다. 내릴까요, 선장님?"

"아무것도 내리지 마라. 묶어라. 내게 맨 꼭대기 돛 장대가 있다면 지금 끌어 올리겠다."

"선장님! 제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장님?"

"뭐냐."

"닻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장님. 배 안으로 끌어들일까요?"

"아무것도 내리지 말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모든 것을 묶어라. 바람이 거세지지만 아직 나의 높은 고원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다. 어서, 가서 살펴라. 돛대와 용골에 맹세코! 저자는 나를 어느 연안 고깃배의 곱사등이 선장쯤으로 아는구나. 내 큰중간돛 활대를 내리라니! 어이, 아교 단지 같은 놈들아! 가장 높은 돛대 꼭대기 둥근 판은 가장 사나운 바람을 맞으라고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내 이 머리의 꼭대기 판은 지금 구름 조각 사이를 항해한다. 그것을 내리란 말이냐? 오, 폭풍이 칠 때 머리의 꼭대기 판을 내리는 것은 겁쟁이들뿐이다. 저 위가 어찌나 요란한지! 배앓이가 요란한 병인 줄 몰랐다면 장엄하다고 여길 뻔했다. 오, 약을 먹어라, 약을 먹어라!"

제121장 한밤, 앞갑판 뱃전

스터브와 플래스크가 뱃전 위에 올라서서, 거기 매달린 닻에 밧줄을 더 감아 묶고 있다.

"아니야, 스터브. 거기 그 매듭은 얼마든지 두들겨도 좋아. 하지만 네가 방금 한 말을 나한테 두들겨 박지는 못할걸. 그리고 네가 정반대 말을 한 게 얼마나 됐다고 그래? 에이해브가 타는 배는 어떤 배든 보험료를 따로 더 내야 한다고, 꼭 고물에는 화약 통을, 이물에는 성냥 상자를 실은 것처럼 그래야 한다고 언젠가 네가 말하지 않았어? 잠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글쎄, 그랬다 치자. 그래서 뭐? 그때부터 내 살도 얼마쯤 바뀌었는데 생각이라고 못 바뀌겠어? 게다가 우리가 정말 고물에는 화약 통을, 이물에는 성냥을 *실었다* 치자고. 여기 이렇게 흠뻑 젖는 물보라 속에서 대체 무슨 수로 성냥에 불이 붙겠냐? 이봐, 꼬마야, 네 머리털은 예쁘장하게 빨갛지만 지금은 너한테도 불이 안 붙을 거다. 몸을 털어 봐. 넌 물병자리, 물 긷는 사람이야, 플래스크. 네 옷깃에서 물주전자를 채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해상 보험 회사들도 이런 남다른 위험에는 남다른 보증이 있다는 걸. 여기 소화전이 있잖아, 플래스크. 하지만 다시 잘 들어, 다른 얘기에도 대답해 줄 테니까. 그 전에 여기 닻 머리에서 발 좀 치워라, 밧줄을 넘기게. 자, 들어 봐. 폭풍 속에서 돛대의 피뢰침을 붙잡고 있는 것과, 폭풍 속에서 피뢰침이 아예 없는 돛대 바로 곁에 서 있는 것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냐? 이 말뚝 대가리 같은

녀석아, 돛대가 먼저 벼락을 맞지 않으면 피뢰침을 쥔 사람한테는 아무 해도 닥칠 수 없다는 걸 모르겠어? 그러니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피뢰침을 다는 배는 백 척에 한 척도 안 돼. 그리고 에이해브는, 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 짧은 생각으로는, 지금 바다를 누비는 만 척의 배에 탄 모든 선원들보다 그때 조금도 더 위험하지 않았어. 이봐, 킹포스트, 너 말이다, 넌 아마 세상 모든 사람이 모자 귀퉁이를 타고 올라가는 작은 피뢰침을 달고 다니기를 바라겠지. 민병대 장교 모자에 꽂은 깃털처럼, 그리고 그 장교의 장식 띠처럼 뒤로 질질 끌면서. 왜 좀 분별이 없냐, 플래스크? 분별 있게 구는 건 쉬운 일이야. 그런데 왜 안 그래? 눈이 반쪽만 있는 놈도 분별은 있을 수 있다고."

"그건 모르겠다, 스터브. 너도 가끔은 그게 꽤 어려워 보이던데."

"그래, 사람이 흠뻑 젖으면 분별 있게 굴기 어렵지,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난 이 물보라에 거의 다 젖었어. 상관없다. 거기 한 바퀴 감아서 넘겨. 보아하니 우리는 지금 이 닻들을 다시는 쓰지 않을 것처럼 묶고 있구먼. 여기 이 닻 두 개를 묶는 건, 플래스크, 꼭 사람 손을 뒤로 묶는 것 같다. 게다가 정말 크고 너그러운 손이로구나. 이게 네 무쇠 주먹이냐, 응? 붙잡는 힘도 대단하지! 플래스크, 세상도 어딘가에 닻을 내리고 있을까? 그렇다면 세상은 엄청나게 긴 닻줄에 매달려 흔들리는 거겠지. 됐다, 그 매듭을 두들겨 박아. 이제 끝났다. 그렇지. 뭍에 닿는 것 다음으로는 갑판에 내려서는 게 제일 흐뭇하단 말이야. 이봐, 내 웃옷 자락 좀 짜 줄래? 고맙다. 사람들은 긴 옷을 그렇게 비웃지, 플래스크. 하지만 내 보기엔 바다에서 폭풍이 칠 때는 언제나 꼬리 긴 웃옷을 입어야 해. 그렇게 아래로 가늘어지는 옷자락이 물을 흘려보내 주거든, 알겠어? 귀를 접어 올린 모자도 마찬가지야. 접어 올린 귀퉁이가 박공지붕의 처마 홈통 노릇을 하지, 플래스크. 이제 짧은 선원 웃옷이나 방수모는 그만이다. 연미복을 걸치고 비버 모자를 깊이 눌러써야지.

이렇게. 어이쿠! 휴! 내 방수모가 바다로 날아가는구나. 주여, 주여, 하늘에서 오는 바람이 이렇게 버릇이 없다니! 고약한 밤이다, 얘야."

제122장 한밤, 돛대 위, 천둥과 번개

큰중간돛 활대. 태시테고가 활대에 새 밧줄을 감아 묶고 있다.

"음, 음, 음. 천둥 그쳐라! 여기 위에 천둥 너무 많다. 천둥이 무슨 소용이냐? 음, 음, 음. 우리는 천둥 필요 없다. 우리는 럼주가 필요하다. 럼주 한 잔 다오. 음, 음, 음!"

제123장 머스킷총

태풍이 가장 사납게 몰아칠 때, 피쿼드호의 고래 턱뼈 키 손잡이를 잡은 사람은 그 발작 같은 움직임에 몇 번이나 비틀거리며 갑판에 내동댕이쳐졌는데, 키 손잡이에 보조 도르래 줄을 매어 두었는데도 그랬다. 키 손잡이에는 얼마쯤 놀 여유가 꼭 있어야 했기에 그 줄을 느슨하게 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나운 강풍 속에서 배가 돌풍에 이리저리 튕기는 배드민턴 공에 지나지 않을 때, 나침반의 바늘이 이따금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피쿼드호의 나침반도 그래서, 거의 매번 충격이 올 때마다 키잡이는 바늘이 나침반 판 위에서 맴도는 그 어지러운 속도를 놓치지 않고 보았다. 그것은 누구라도 어떤 낯선 감정 없이는 바라보기 어려운 광경이다.

자정이 지나고 몇 시간 뒤 태풍이 많이 잦아들자, 한 사람은 앞쪽에서, 또 한 사람은 고물 쪽에서 애쓴 스타벅과 스터브의 고된 수고 덕분에, 갈가리 찢긴 뱃머리 삼각돛과 앞중간돛과 큰중간돛의 남은 조각들을 활대에서 잘라 냈고, 조각들은 소용돌이치며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날아갔다. 폭풍에 시달리는 앨버트로스가 날갯짓하는 동안 이따금 바람에 흩뿌리는 깃털 같았다.

이제 그에 맞는 새 돛 세 장을 달아 줄여 매고, 더 고물 쪽에는 폭풍용 세로돛을 펼쳐서 배는 곧 다시 얼마쯤 제대로 물을 헤치고 나아갔으며, 할 수만 있다면 따라 몰아야 할 항로, 당분간은 동남동이 다시

키잡이에게 주어졌다. 강풍이 사납게 몰아치는 동안에는 키잡이가 그저 바람의 변덕을 따라 배를 몰았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나침반을 지켜보며 이제 배를 되도록 항로 가까이 붙여 몰고 있을 때, 보라! 좋은 징조였다! 바람이 고물 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렇다, 역풍이 순풍이 되었다!

곧바로 활대를 바로 돌렸다. "*어이! 순풍이다! 어여차, 힘내라, 얘들아!*" 하는 흥겨운 노랫소리에 맞추어. 선원들은 그토록 희망찬 일이 그토록 빨리 앞서 나타난 불길한 징조를 거짓으로 만든 것이 기뻐 노래했다.

갑판의 사정에 뚜렷한 변화가 생기면 하루 스물네 시간 가운데 어느 때든 곧바로 보고하라는 선장의 상시 명령에 따라, 스타벅은 활대를 바람에 맞추어 돌리자마자, 몹시 내키지 않고 침울했지만, 기계적으로 아래로 내려가 에이해브 선장에게 그 사정을 알리려 했다.

선장의 침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는 저도 모르게 잠깐 그 앞에서 멈추었다. 선장실 등잔이 이쪽저쪽으로 길게 흔들리며 들쭉날쭉 타올라, 위쪽 판자 대신 고정된 덧살을 끼운 얇은 문, 노인의 빗장 걸린 그 문 위에 들쭉날쭉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선장실은 땅속처럼 따로 떨어져 있어서, 비바람의 온갖 울부짖음에 테처럼 둘러싸여 있었는데도 거기에는 어떤 웅웅거리는 정적이 감돌았다. 총 받침대에 꽂힌 장전된 머스킷총들이 앞쪽 칸막이벽에 기대어 똑바로 선 채 번들번들하게 드러나 보였다. 스타벅은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었지만, 그 머스킷총들을 본 순간 스타벅의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악한 생각 하나가 피어올랐는데, 그 생각이 그와 함께 따라온 무덤덤하거나 선한 생각들과 어찌나 뒤섞여 있었는지 그는 그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한때 나를 쏘려 했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래, 바로 저기, 그가 나를 겨눈 그 머스킷총이 있다. 징을 박은 개머리판, 바로 저것. 만져 보자. 들어 보자. 이상하다, 그토록 숱한 죽음의 창을 다뤄 온 내가,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떨다니. 장전되었나? 봐야겠다. 그렇군, 그래. 약실에 화약까지 있다. 좋지 않다. 쏟아 버리는 게 낫겠나? 잠깐. 이 떨림을 고쳐야겠다. 생각하는 동안 대담하게 총을 쥐고 있겠다. 나는 그에게 순풍을 알리러 왔다. 그러나 어떻게 순하단 말인가? 죽음과 파멸에 순한 바람, *그것은* 모비 딕에게 순한 바람이다. 오직 그 저주받은 물고기에게만 순한 순풍이다. 그가 나를 겨눈 바로 그 총신! 바로 그것, *이것*을 내가 여기 쥐고 있다. 그는 지금 내가 쥔 바로 이것으로 나를 죽이려 했다. 그렇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선원 모두를 죽이려 한다. 어떤 강풍에도 활대를 내리지 않겠다고 그가 말하지 않았나? 그가 하늘을 재는 사분의를 내동댕이치지 않았나? 그리고 바로 이 위험한 바다에서 오류투성이 측정판으로 하는 추측 항법만으로 길을 더듬어 가지 않나? 그리고 바로 이 태풍 속에서 피뢰침은 내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미친 노인이 배의 모든 사람을 저와 함께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을 고분고분 참고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 이 배가 무슨 끔찍한 화를 당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그를 서른 명 넘는 사람을 일부러 죽인 살인자로 만들리라. 그리고 에이해브가 제 뜻대로 한다면 이 배는 끔찍한 화를 당하리라고 내 영혼이 맹세한다. 그렇다면 만일 그가 이 순간 치워진다면, 그 죄는 그의 것이 되지 않으리라. 하! 자면서 중얼거리고 있나? 그렇다, 바로 저기, 저 안에서 그는 자고 있다. 자고 있다고? 그렇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 있고, 곧 다시 깨어나리라. 그렇다면 노인이여, 나는 당신을 당해 낼 수 없다. 이치를 따져도, 타일러도, 애원해도 당신은 귀 기울이지 않는다. 당신은 그 모두를 비웃는다. 당신 자신의 단호한 명령에 단호히 복종하라는 것, 당신이

내뿜는 것은 그것뿐이다. 그렇다, 그리고 당신은 선원들이 당신의 맹세를 맹세했다고, 우리가 모두 에이해브라고 말한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일은 없게 하소서! 그러나 다른 길은 없나? 법에 맞는 길은? 그를 포로로 만들어 고향으로 데려간다면? 뭐라고! 이 노인의 살아 있는 힘을 그 자신의 살아 있는 손에서 비틀어 빼앗기를 바란다고? 바보나 그런 짓을 해 보려 하리라. 그를 꽁꽁 묶었다 치자. 밧줄과 굵은 닻줄로 온몸을 칭칭 매고, 이 선장실 바닥의 고리 볼트에 사슬로 묶어 두었다 치자. 그러면 그는 우리에 갇힌 호랑이보다 더 끔찍하리라. 나는 그 모습을 견딜 수 없으리라. 그의 울부짖음을 도저히 피할 수 없으리라. 그 길고 견딜 수 없는 항해 동안 모든 위안도, 잠 자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성도 나를 떠나리라.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뭍은 수백 리그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것은 문을 걸어 잠근 일본이다. 나는 여기 탁 트인 바다 위에 홀로 서 있고, 나와 법 사이에는 두 대양과 한 대륙이 통째로 가로놓여 있다. 그렇다, 그렇다, 그런 것이다. 살인을 하려는 자가 침대에 누웠을 때 하늘의 번개가 그를 내리쳐 이불과 살갗을 한데 불살라 버린다면, 하늘이 살인자인가? 그렇다면 나도 살인자가 될까, 만일……" 그리고 천천히, 몰래, 반쯤 옆을 보며, 그는 장전된 머스킷총의 끝을 문에 갖다 댔다.

"이 높이에, 안에서 에이해브의 해먹이 흔들린다. 머리는 이쪽이다. 한 번 건드리기만 하면, 스타벅은 살아남아 다시 아내와 아이를 끌어안을 수 있다. 오, 메리! 메리! 아가! 아가! 아가! 그러나 노인이여, 내가 당신을 죽음으로 깨우지 않는다면, 다음 주 오늘 스타벅의 몸이 선원 모두와 함께 바닥을 잴 수 없는 어느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지 누가 알겠는가! 위대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까? 할까? 바람이 잦아들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선장님. 앞중간돛과 큰중간돛을 줄여 달았습니다. 배는 항로대로 나아갑니다."

"모두 뒤로 저어라! 오, 모비 딕, 마침내 네 심장을 움켜쥐는구나!"

그런 소리가 이제 노인의 괴로운 잠 속에서 휙휙 날아왔다. 마치 스타벅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말이 없던 꿈을 말하게 한 것 같았다.

여전히 겨누어진 머스킷총이 술꾼의 팔처럼 문짝에 대고 떨렸다. 스타벅은 천사와 씨름하는 것 같았으나, 이윽고 문에서 몸을 돌려 그 죽음의 총신을 받침대에 꽂아 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너무 깊이 잠드셨네, 스터브. 자네가 내려가서 깨우고 말씀드리게. 나는 여기 갑판을 살펴야 하네. 무슨 말을 할지는 자네가 알 걸세."

제124장 나침반 바늘

이튿날 아침, 아직 가라앉지 않은 바다는 엄청난 덩치의 길고 느린 큰 물결로 굴러왔고, 피쿼드호가 남기는 꾸르륵대는 항적 속에서 애쓰며 거인들이 활짝 편 손바닥처럼 배를 밀어 주었다. 비틀거림 없는 센 바람이 어찌나 넘치게 불어 대는지, 하늘과 대기가 바깥으로 불룩하게 부푼 거대한 돛처럼 보였고, 온 세상이 바람을 받아 우르릉거리며 달려 나갔다. 아침 햇빛이 가득한 데 싸여 해는 보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 넓게 퍼진 빛의 세기로만 해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해의 총검 같은 빛살들이 무더기로 나아갔다. 왕관을 쓴 바빌론의 왕과 왕비들의 문장 같은 찬란한 무늬가 모든 것 위에 군림했다. 바다는 빛과 열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녹은 금을 담은 도가니 같았다.

에이해브는 넋을 빼앗긴 듯한 침묵을 오래 지키며 혼자 떨어져 서 있었다. 그리고 기우뚱거리는 배가 뱃머리 기움 돛대를 내리꽂듯 숙일 때마다 몸을 돌려 앞쪽으로 뻗어 나간 밝은 햇살을 바라보았고, 배가 고물 쪽으로 깊숙이 가라앉을 때면 뒤로 돌아서서 고물 쪽에 있는 해의 자리를, 그리고 그 노란 햇살이 한결같이 곧게 뻗은 배의 항적과 어떻게 섞여 드는지를 보았다.

"하, 하, 나의 배여! 이제 너를 해의 바다 전차로 여겨도 좋겠구나. 호, 호! 내 뱃머리 앞에 있는 모든 나라들아, 내가 너희에게 해를 가져간다! 저 너머 큰 물결들에도 멍에를 메워라. 어이! 줄줄이 말을 매어, 나는 바다를 몬다!"

그러나 무언가 거스르는 생각에 문득 고삐를 잡아채인 듯, 그는 서둘러 키 쪽으로 가서 배가 어디로 향하느냐고 쉰 목소리로 다그쳤다.

"동남동입니다, 선장님." 겁먹은 키잡이가 말했다.

"거짓말!" 에이해브가 움켜쥔 주먹으로 그를 내리쳤다. "아침 이 시간에 동쪽으로 가는데 해가 고물 쪽에 있다고?"

이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에이해브가 방금 알아챈 현상을 다른 사람은 모두 어찌 된 영문인지 놓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눈이 멀 만큼 너무나 뻔했던 것이 바로 그 까닭이었으리라.

에이해브는 나침반 함에 머리를 반쯤 들이밀고 나침반들을 한 번 흘끗 보았다. 쳐들었던 그의 팔이 천천히 떨어졌다. 한순간 그는 거의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 뒤에 서 있던 스타벅이 들여다보니, 보라! 두 나침반은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고, 피쿼드호는 그만큼 틀림없이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첫 소스라치는 놀라움이 선원들 사이에 퍼지기도 전에, 노인이 굳은 웃음을 지으며 외쳤다. "알았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스타벅, 어젯밤 천둥이 우리 나침반을 뒤집어 놓은 거다. 그뿐이다. 너도 이런 일을 전에 들어 본 적이 있을 테지."

"예. 하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은 건 처음입니다, 선장님." 낯빛이 하얗게 질린 항해사가 침울하게 말했다.

여기서 꼭 말해 두어야 할 것은, 이런 사고가 사나운 폭풍 속의 배들에서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뱃사람의 나침반 바늘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힘은, 누구나 알다시피, 본디 하늘에서 보이는 전기와 하나다. 그러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번개가 실제로 배를 내리쳐 활대 몇 개와 삭구를 쓰러뜨린 경우에는 바늘에 미치는 영향이 때로 훨씬 더 치명적이어서, 자석의 힘이 모조리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전에는 자기를 띠었던 강철이 늙은

아낙의 뜨개바늘만큼도 쓸모가 없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바늘은 그렇게 망가지거나 잃어버린 본디의 힘을 결코 저 혼자 되찾지 못한다. 그리고 나침반 함의 나침반들이 영향을 받으면, 배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나침반들에도 같은 운명이 미친다. 가장 밑에 있는 것을 내용골 속에 박아 두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노인은 침착하게 나침반 함 앞에 서서 뒤집힌 나침반들을 바라보다가, 이제 쭉 뻗은 손의 날로 해의 방위를 정확히 재었다. 그리고 바늘들이 정확히 거꾸로 되었음을 확인하자, 그에 맞추어 배의 항로를 바꾸라는 명령을 소리쳐 내렸다. 활대를 힘껏 돌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피쿼드호는 굽힐 줄 모르는 뱃머리를 맞바람 속으로 들이밀었다. 순풍인 줄 알았던 바람이 배를 속이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타벅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필요한 명령을 모두 조용히 내렸고, 그때 그의 기분을 얼마쯤 함께 느끼는 듯했던 스터브와 플래스크도 마찬가지로 투덜거리지 않고 따랐다. 선원들로 말하자면, 그들 가운데 몇몇은 낮게 웅얼거렸지만, 운명보다 에이해브를 더 두려워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이교도 작살잡이들은 거의 아무런 감흥도 받지 않았다. 감흥을 받았다 해도, 굽힐 줄 모르는 에이해브의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에 맞는 마음으로 쏘아 보낸 어떤 자기(磁氣) 같은 힘에서 받았을 뿐이었다.

한동안 노인은 출렁이는 몽상에 잠겨 갑판을 걸었다. 그러다 고래뼈 의족 뒤축이 우연히 미끄러지는 바람에, 전날 자기가 갑판에 내동댕이친 사분의의 찌그러진 구리 조준관이 눈에 들어왔다.

"너 가련하고 오만한, 하늘을 우러러보던 해의 길잡이여! 어제는 내가 너를 부수었고, 오늘은 나침반들이 나를 부수려 했구나. 그래, 그래. 그러나 에이해브는 아직도 수평의 자석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스타벅,

자루 없는 창 하나, 큰 쇠망치 하나, 그리고 돛 만드는 사람의 바늘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 어서!"

그가 지금 하려는 일을 시키는 충동에는 어쩌면 어떤 신중한 동기들이 거들었을지도 모른다. 뒤집힌 나침반처럼 그토록 놀라운 일에서 자신의 교묘한 솜씨를 한 번 보여 줌으로써 선원들의 기운을 되살리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을지 모른다. 게다가 노인은 거꾸로 된 바늘로 배를 모는 일이 서툴게나마 할 수는 있어도, 미신을 믿는 뱃사람들이 몸서리를 치고 불길한 징조를 떠올리지 않고서는 그냥 넘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얘들아." 항해사가 그가 달라고 한 물건들을 건네주자, 그는 선원들 쪽으로 침착하게 돌아서며 말했다. "얘들아, 천둥이 늙은 에이해브의 바늘을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이 강철 조각으로 에이해브는 제 바늘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어느 바늘 못지않게 참되게 가리킬 바늘을."

그 말이 떨어지자 선원들은 비굴한 경이에 찬 무안한 눈길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리고 홀린 눈으로, 뒤따를 마법이 무엇이든 기다렸다. 그러나 스타벅은 눈길을 돌렸다.

에이해브는 큰 쇠망치로 한 번 내리쳐 창의 강철 머리를 떼어 내고는, 남은 긴 쇠막대를 항해사에게 건네주며 그것이 갑판에 닿지 않게 똑바로 세워 들고 있으라고 했다. 그러고는 쇠망치로 이 쇠막대의 위쪽 끝을 거듭 내리친 다음, 끝을 무디게 한 바늘을 그 꼭대기에 세로로 세워 놓고 그것을 조금 덜 세게 몇 번 두드렸다. 항해사는 여전히 아까처럼 막대를 들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것으로 작고 이상한 몸짓 몇 가지를 해 보이더니, 그것이 강철에 자기를 띠게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인지 그저 선원들의 두려움을 키우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리넨 실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리고 나침반 함으로 가서 거기 있던 거꾸로 된 바늘 두 개를 빼내고, 돛 바늘의 한가운데를 실로 매달아 나침반 판 하나 위에

수평으로 늘어뜨렸다. 처음에 강철은 양 끝을 파르르 떨며 빙글빙글 돌았지만, 마침내 제자리에 멈추었다. 그러자 이 결과를 골똘히 지켜보던 에이해브가 나침반 함에서 거리낌 없이 뒤로 물러서더니, 팔을 쭉 뻗어 그것을 가리키며 외쳤다.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아라, 에이해브가 수평의 자석을 다스리는 주인이 아닌지! 해는 동쪽에 있고, 저 나침반이 그것을 맹세한다!"

그들은 하나씩 차례로 들여다보았다. 그들처럼 무지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눈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씩 차례로 슬그머니 물러갔다.

그때 경멸과 승리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 속에서, 그대는 치명적인 오만을 고스란히 드러낸 에이해브를 보았으리라.

제125장 측정판과 측정줄

운명의 피쿼드호가 이번 항해에서 그토록 오래 바다에 떠 있는 동안, 측정판과 측정줄은 아주 드물게만 쓰였다. 배의 위치를 정하는 다른 수단을 자신 있게 믿는 탓에, 몇몇 상선과 많은 포경선은, 특히 어장을 돌아다닐 때는, 측정판을 던지는 일을 아예 내버려 두면서도, 배가 몰아온 항로와 시간마다 짐작한 평균 속력은 늘 쓰는 석판에 꼬박꼬박 적어 두는데, 그것도 다른 무엇보다 형식을 차리려고 그럴 때가 많다. 피쿼드호도 그랬다. 나무 얼레와 거기 매단 세모꼴 측정판은 뒤쪽 뱃전 난간 바로 아래에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채 매달려 있었다. 비와 물보라가 그것을 적셨고, 해와 바람이 그것을 뒤틀었으며, 그렇게 하릴없이 매달린 물건을 썩히려고 온갖 비바람이 힘을 합쳤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석 장면이 있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에이해브가 우연히 그 얼레를 흘끗 보았을 때 그의 기분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자기 사분의가 이제 없다는 것을 떠올렸고, 수평의 측정판과 측정줄에 대해 했던 미친 맹세를 되새겼다. 배는 곤두박질치듯 항해하고 있었고, 고물 쪽에서는 큰 물결이 소란스럽게 굴러갔다.

"거기 앞쪽! 측정판을 던져라!"

선원 둘이 왔다. 금빛 살결의 타히티 사람과 백발이 희끗한 맨섬 노인이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얼레를 잡아라. 던지는 건 내가 하겠다."

그들은 배의 바람 불어 가는 쪽 맨 고물로 갔다. 그곳은 비스듬히 미는 바람의 힘 때문에 갑판이 크림처럼 희뿌옇게 옆으로 내달리는 바다에 거의 잠길 듯했다.

맨섬 노인이 얼레를 받아 들었다. 그는 측정줄 타래가 감겨 도는 굴대 손잡이 끝이 비어져 나온 곳을 잡고 얼레를 높이 쳐든 채, 세모꼴 측정판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에이해브가 다가올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에이해브는 그의 앞에 서서, 바다에 던질 첫 손 타래를 만들려고 서른 바퀴나 마흔 바퀴쯤을 가볍게 풀어내고 있었다. 그때 그와 측정줄을 골똘히 지켜보던 늙은 맨섬 노인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선장님, 저는 이걸 못 믿겠습니다. 이 줄은 많이 낡아 보입니다. 오랜 더위와 습기에 상했습니다."

"버틸 거다, 영감. 오랜 더위와 습기가 너를 상하게 했느냐? 너는 버티는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이게 더 참말일지 모르겠다. 삶이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 네가 삶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다."

"저는 타래를 붙들고 있습니다, 선장님. 그래도 선장님 말씀대로입니다. 이 백발로 따져 봐야 소용없는 일이지요. 특히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윗사람과는 말입니다."

"뭐라고? 여기 자연 여왕의 화강암 위에 세운 대학에 누더기 기운 교수가 한 분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 보기엔 너무 굽실거리는군. 너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바위투성이 작은 맨섬입니다, 선장님."

"훌륭하다! 그걸로 너는 세상을 맞혔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선장님. 하지만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맨섬이라, 응? 글쎄, 거꾸로 해도 좋구나. 여기 맨섬에서 온 사내가 있다. 한때 독립했던 맨섬에서 태어나, 이제는 맨섬을 빼앗기고 맨몸이

된 사내. 그 맨섬은 빨려 들어갔다. 무엇에? 얼레를 들어라! 죽은 듯 눈먼 벽이 마침내 묻고 따지는 머리를 모조리 들이받는다. 들어라! 그렇지."

측정판을 던졌다. 느슨한 타래가 고물 쪽으로 길게 끌려가는 줄로 재빨리 곧게 펴지더니, 곧바로 얼레가 휙휙 돌기 시작했다. 굴러가는 큰 물결에 덜컥덜컥 들렸다 내려앉았다 하며 측정판이 끌려가는 힘에, 늙은 얼레잡이는 이상하게 비틀거렸다.

"꽉 잡아라!"

툭!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길게 한 번 꽃줄처럼 축 늘어졌다. 끌려가던 측정판은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사분의를 부수고, 천둥이 바늘을 뒤집더니, 이제는 미친 바다가 측정줄을 끊는구나. 그러나 에이해브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 타히티 사람, 여기 줄을 끌어당겨라. 맨섬 사람, 얼레를 감아라. 그리고 알아두어라, 목수에게 측정판을 하나 새로 만들게 하고, 너는 줄을 고쳐라. 그렇게 해라."

"저기 가는구나. 그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나한테는 세상 한가운데 박힌 꼬챙이가 빠져나가는 것 같단 말이지. 끌어당겨, 끌어당겨, 타히티! 이 줄들은 성하게 휙휙 풀려 나가서 끊어진 채 느릿느릿 끌려 들어온다. 하, 핍? 도우러 왔냐, 응, 핍?"

"핍? 누굴 핍이라고 불러요? 핍은 포경 보트에서 뛰어내렸어요. 핍은 없어졌어요. 어디 봐요, 어부 아저씨, 아저씨가 여기서 핍을 낚아 올린 건 아닌지. 무겁게 끌려오네요. 핍이 매달려 있나 봐요. 털어 내요, 타히티! 털어 내 버려요. 우리는 겁쟁이는 안 끌어 올려요. 호! 저기 핍의 팔이 막 물 위로 올라와요. 도끼! 도끼! 잘라 버려요. 우리는 겁쟁이는 안 끌어 올려요. 에이해브 선장님! 선장님, 선장님! 여기 핍이 다시 배에 오르려고 해요."

"조용히 해라, 이 미친 얼간이야." 맨섬 노인이 핍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다. "뒷갑판에서 썩 물러나!"

"더 큰 바보가 언제나 덜한 바보를 꾸짖는 법이지." 에이해브가 다가오며 중얼거렸다. "그 거룩한 것에서 손을 떼라! 핍이 어디 있다고 했느냐, 얘야?"

"저기 고물 쪽이요, 선장님, 고물 쪽! 봐요! 봐요!"

"그럼 너는 누구냐, 얘야? 네 텅 빈 눈동자에는 내 모습이 비치지 않는구나. 오, 하나님! 사람이 불멸의 영혼들이 걸러져 빠져나가는 체 같은 것이어야 한다니! 너는 누구냐, 얘야?"

"종 치는 아이예요, 선장님. 배의 알림꾼이요. 땡, 동, 땡! 핍! 핍! 핍! 핍을 찾으면 흙 100파운드를 상으로 드려요. 키는 5피트, 겁쟁이처럼 보임, 그걸로 제일 빨리 알아볼 수 있어요! 땡, 동, 땡! 겁쟁이 핍 본 사람?"

"설선(雪 線) 위에는 심장이 있을 수 없다. 오, 너희 얼어붙은 하늘이여! 여기를 내려다보아라. 너희가 이 불운한 아이를 낳아 놓고 버렸구나, 너희 만들기만 하는 난봉꾼들아. 이리 오너라, 얘야. 에이해브가 살아 있는 동안 이제부터 에이해브의 선장실이 핍의 집이다. 너는 내 가장 깊은 한가운데를 건드리는구나, 얘야. 너는 내 심금(心琴)으로 꼰 끈으로 내게 매여 있다. 자, 내려가자."

"이게 뭐예요? 여기 비로드 같은 상어 가죽이 있네요." 핍이 에이해브의 손을 골똘히 바라보며 만져 보았다. "아, 가엾은 핍이 이렇게 다정한 걸 만져 보기만 했어도 어쩌면 길을 잃지 않았을 텐데! 선장님, 이건 꼭 붙잡는 밧줄 같아요. 약한 영혼들이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요. 오, 선장님, 이제 퍼스 영감님을 불러 이 두 손을 한데 리벳으로 박아 달라고 해요. 검은 손과 흰 손을요. 저는 이걸 놓지 않을 거니까요."

"오, 얘야, 나도 너를 놓지 않으마. 여기보다 더 끔찍한 곳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된다면 몰라도. 그럼 내 선장실로 가자. 보아라! 신들은 온통 선하고 사람은 온통 악하다고 믿는 너희여, 보아라! 괴로워하는 사람을 잊어버린 전지(全知)한 신들을 보아라. 그리고 바보이고 제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사랑과 고마움이라는 달콤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을 보아라. 가자! 황제의 손을 잡을 때보다 너의 검은 손을 잡고 이끄는 것이 더 자랑스럽구나!"

"저기 얼빠진 사람 둘이 가는구먼." 늙은 맨섬 노인이 중얼거렸다. "하나는 힘 때문에 얼빠졌고, 하나는 약함 때문에 얼빠졌지. 그런데 여기 썩은 줄의 끝이 있네. 물도 뚝뚝 떨어지고. 고치라고? 아예 새 줄로 바꾸는 게 제일 낫겠다. 스터브 항해사님께 말씀드려야지."

제126장 구명부표

이제 에이해브가 수평으로 맞춘 강철 바늘을 따라 남동쪽으로 배를 몰고, 오직 에이해브의 수평 측정판과 측정줄로만 나아간 거리를 정하며, 피쿼드호는 적도를 향해 제 길을 이어 갔다. 그토록 사람의 발길이 드문 바다를 지나는 그토록 긴 항해, 배 한 척 보이지 않는 가운데, 머지않아 한결같은 무역풍에 옆으로 떠밀려 단조롭게 잔잔한 물결 위를 가는 항해, 이 모든 것이 무언가 소란스럽고 필사적인 장면을 앞둔 기이하게 고요한 전주곡 같았다.

마침내 배가 이를테면 적도 어장의 변두리에 가까워지고, 새벽을 앞둔 깊은 어둠 속에서 바위투성이 작은 섬 무리 곁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 플래스크가 이끌던 당직 선원들은 어찌나 애처롭고 사납고 이 세상 것 같지 않은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모든 무고한 아기들의 유령이 반쯤 말을 이루어 울부짖는 것 같은 외침에 소스라쳐 놀랐다. 그래서 하나같이 모두 몽상에서 퍼뜩 깨어나, 그 사나운 외침이 들리는 동안 한동안 서거나 앉거나 기댄 채 조각된 로마 노예처럼 꼼짝 않고 귀를 기울였다. 선원 가운데 기독교도나 문명인 쪽은 인어라고 말하며 몸서리쳤다. 그러나 이교도 작살잡이들은 겁먹지 않았다. 그런데 백발의 맨섬 노인은, 모든 선원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뱃사람인 그는, 들려온 그 사납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바다에 막 빠져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단언했다.

아래 해먹에 있던 에이해브는 잿빛 새벽이 되어 갑판에 올라올 때까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그때 플래스크가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무언가 어두운 뜻이 있다는 암시가 없지 않았다. 그는 공허하게 웃더니, 그 기이한 일을 이렇게 풀어 주었다.

배가 지나온 그 바위섬들은 엄청나게 많은 바다표범이 모여드는 곳이어서, 어미를 잃은 새끼 바다표범 몇 마리나 새끼를 잃은 어미 바다표범 몇 마리가 배 가까이 떠올라 배를 따라오며 사람 같은 울음으로 울고 흐느낀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몇몇 선원을 더욱 동요하게 했을 뿐이었는데, 대부분의 뱃사람은 바다표범에 대해 아주 미신적인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 그 감정은 바다표범이 괴로울 때 내는 독특한 소리뿐 아니라, 뱃전 옆 물에서 기웃거리며 솟아오르는 그 둥근 머리와 반쯤 지혜로워 보이는 얼굴의 사람 같은 모습에서도 생겨난다. 바다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바다표범을 사람으로 잘못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선원들의 불길한 예감은 그날 아침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운명으로 더없이 그럴듯하게 확인될 참이었다. 해가 뜰 때 이 사람은 해먹에서 나와 앞돛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가 아직 잠에서 반도 깨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뱃사람들은 때로 잠과 깸 사이의 상태로 돛대에 오르기도 한다), 그가 정말 그랬는지는 이제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그가 망보는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외침 소리가 들렸다. 외침과 무언가 휙 내닫는 소리였고,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보니 허공에서 떨어지는 환영이 보였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다의 푸른빛 속에 흰 거품이 작게 무더기로 일렁이고 있었다.

구명부표, 곧 길고 가느다란 통이 고물에서 떨어뜨려졌다. 그 통은 늘 교묘한 용수철에 매여 고분고분 거기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으려고 솟아오르는 손은 하나도 없었고, 해가 오랫동안 이 통을

내리쬔 탓에 통이 쪼그라들어 있어서, 통 속으로 천천히 물이 찼고, 바싹 마른 나무에도 구멍마다 물이 스며들었다. 그래서 징을 박고 쇠테를 두른 통은 그 선원을 따라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마치 그에게 베개를 내주려는 것처럼. 실은 딱딱하기 짝이 없는 베개였지만.

그리하여 흰 고래만의 독특한 어장에서 흰 고래를 찾으려고 돛대에 오른 피쿼드호의 첫 사람, 그 사람은 깊은 바다에 삼켜졌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생각한 사람은 아마 드물었으리라. 사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적어도 징조로서는, 이 일을 슬퍼하지 않았으니, 이 일을 앞으로 올 불행의 전조가 아니라 이미 예고된 불행의 실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간밤에 들은 그 사나운 비명의 까닭을 이제 알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늙은 맨섬 노인은 이번에도 아니라고 말했다.

잃어버린 구명부표를 이제 새로 갖추어야 했다. 스타벅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러나 충분히 가벼운 통을 찾을 수 없었고, 항해의 위기가 다가오는 듯한 그 들뜬 열기 속에서 모두가 그 마지막 목적에 곧장 이어지는 일이 아니면 어떤 수고도 참지 못했기에, 그 목적이 무엇으로 드러나든 간에, 그래서 그들은 배의 고물에 부표 없이 그냥 두려던 참이었다. 그때 퀴퀘그가 어떤 이상한 손짓과 넌지시 하는 말로 자기 관에 대해 귀띔해 주었다.

"관으로 구명부표를!" 스타벅이 흠칫 놀라며 외쳤다.

"좀 별나긴 하오, 내 생각엔." 스터브가 말했다.

"그만하면 쓸 만한 부표가 될 거요." 플래스크가 말했다. "여기 목수가 쉽게 꾸밀 수 있소."

"가져오게. 다른 수가 없군." 스타벅이 침울하게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그걸 꾸미게, 목수. 나를 그렇게 보지 말고. 관 말일세. 내 말 들리나? 꾸미게."

"그럼 뚜껑에 못을 박을까요, 항해사님?" 목수가 망치질하듯 손을 움직였다.

"그래."

"그럼 이음매에 뱃밥을 메울까요, 항해사님?" 목수가 뱃밥 메우는 쇠를 쥔 듯 손을 움직였다.

"그래."

"그럼 그 위에 역청을 바를까요, 항해사님?" 목수가 역청 단지를 든 듯 손을 움직였다.

"썩 가게! 대체 뭐에 씌어서 이러나? 관으로 구명부표를 만들게, 그뿐일세. 스터브, 플래스크, 나와 함께 앞으로 가세."

"발끈해서 가 버리시는군. 통째로는 견디면서, 부분에서는 꽁무니를 뺀단 말이야. 거참,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에이해브 선장님한테 다리를 만들어 드리면 선장님은 그걸 신사답게 달고 다니신다. 그런데 퀴퀘그한테 모자 상자를 만들어 주면 퀴퀘그는 거기 머리를 넣으려 하지 않는다. 그 관에 들인 내 수고가 모두 헛것이 되어야 하나? 그리고 이제 그걸로 구명부표를 만들라는 명령이다. 헌 웃옷을 뒤집어 짓는 거나 같지. 이번엔 살을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 내놓을 판이다. 나는 이런 땜질 같은 일이 싫다. 아주 질색이다. 품위가 없다. 내 할 일이 아니다. 땜장이 자식 놈들이나 땜질을 하라지. 우리는 그놈들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는 깨끗하고, 손때 묻지 않고, 반듯반듯한 수학 같은 일만 맡고 싶다. 처음에서 꼬박꼬박 시작해서, 중간쯤 가면 중간에 있고, 끝날 때 끝에 이르는 일 말이다. 중간에서 끝나 버리고, 끝에 가서야 처음에 서 있는 신기료장수의 일은 싫다. 땜질 일을 맡기는 건 늙은 아낙들의 수작이야. 주여! 늙은 아낙들은 어쩌면 그리 하나같이 땜장이를 좋아하는지. 예순다섯 살 먹은 노파가 대머리 젊은 땜장이와 눈이 맞아 달아난 걸 나는 하나 알지. 그래서 내가 바인야드에서 일감 가게를 할 때 뭍에 사는

외로운 늙은 과부 일은 절대 하지 않았던 거다. 그 외로운 늙은 머리에 나와 함께 달아날 생각이라도 떠오르면 어쩌나 싶어서. 하지만 아이고! 바다에는 모자 쓴 아낙은 없고 흰 물마루 모자뿐이지. 어디 보자. 뚜껑에 못을 박는다. 이음매에 뱃밥을 메운다. 그 위에 역청을 바른다. 단단히 널빤지를 대어 막고, 튕김 용수철을 달아 배의 고물에 매단다. 관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한 적이 전에도 있었나? 미신을 믿는 늙은 목수라면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삭구에 묶이고 말 거다. 하지만 나는 옹이 많은 아루스투크 솔송나무로 만든 몸이라 꿈쩍도 하지 않는다. 관을 꽁무니 끈처럼 매달다니! 묘지 쟁반을 달고 항해하다니! 하지만 상관없다. 우리 나무 다루는 일꾼들은 관과 영구차뿐 아니라 신혼 침대와 카드 탁자도 만든다. 우리는 달로 일하기도 하고, 일감으로 일하기도 하고, 이익을 보고 일하기도 한다. 우리 일의 이유와 까닭을 묻는 건 우리 몫이 아니다. 너무 빌어먹을 땜질 같은 일이라면 몰라도. 그럴 땐 할 수만 있으면 집어치우지. 흠! 이제 그 일을 정성껏 해야겠다. 어디 보자, 배에 탄 사람이 모두 몇이더라? 잊어버렸군. 아무튼 터크스헤드 매듭을 단 구명줄을 따로따로 서른 개, 저마다 3피트 길이로 관 둘레에 빙 둘러 매달아야겠다. 그러면 선체가 가라앉을 때 팔팔한 친구 서른 명이 모두 관 하나를 차지하려고 싸우겠지. 해 아래에서 그리 자주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자, 망치야, 뱃밥 쇠야, 역청 단지야, 밧줄 바늘아! 시작해 보자."

제127장 갑판

바이스 작업대와 열린 승강구 사이, 작살줄 통 두 개 위에 관이 놓여 있다. 목수가 그 이음매에 뱃밥을 메우고 있고, 꼬아 놓은 뱃밥 가닥이 그의 작업복 앞섶에 넣어 둔 커다란 뭉치에서 천천히 풀려 나온다. 에이해브가 선장실 통로에서 천천히 나오고, 핍이 뒤따라오는 소리를 듣는다.

"돌아가거라, 얘야. 곧 다시 너에게 가마. 가는구나! 이 손도 저 아이만큼 다정하게 내 기분을 따르지는 않는다. 교회의 한가운데 통로로구나! 이건 뭐냐?"

"구명부표입니다, 선장님. 스타벅 항해사님의 명령입니다. 오, 보십시오, 선장님! 승강구를 조심하십시오!"

"고맙다, 이 사람아. 네 관이 묘혈 바로 곁에 놓여 있구나."

"예, 선장님? 승강구 말씀입니까? 오! 그렇군요, 선장님, 그렇군요."

"너는 다리 만드는 사람이 아니냐? 보아라, 이 그루터기가 네 작업장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선장님. 쇠고리는 잘 버팁니까, 선장님?"

"그만하면 됐다. 그런데 너는 장의사이기도 하지 않느냐?"

"예, 선장님. 여기 이것을 퀴퀘그의 관으로 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럼 말해 보아라. 너는 하루는 다리를 만들고, 이튿날은 그 다리를 처넣을 관을 만들고, 또 그 관으로 구명부표를 만드니, 지독하고,

무엇이든 움켜쥐고, 남의 일에 끼어들고, 혼자 다 차지하는, 이교도 같은 늙은 악당이 아니냐? 너는 신들만큼이나 절조가 없고, 신들만큼이나 무엇이든 다 하는 재주꾼이다."

"하지만 저는 아무 뜻도 없습니다, 선장님.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할 뿐입니다."

"또 신들이로구나. 들어 보아라, 너는 관을 다루며 일할 때 노래를 부르지 않느냐? 거인 티탄들은 화산의 분화구를 깎아 낼 때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연극에 나오는 무덤 파는 사람도 삽을 손에 쥐고 노래한다. 너는 한 번도 안 부르느냐?"

"노래요, 선장님? 제가 노래를 하느냐고요? 오, 그런 데는 제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선장님. 하지만 그 무덤 파는 사람이 음악을 만든 까닭은 그의 삽에 음악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선장님. 그런데 뱃밥 메우는 나무망치에는 음악이 가득합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렇지. 그건 거기 그 뚜껑이 울림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에서든 울림판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 그 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체가 든 관도 거의 똑같이 울린다, 목수. 너는 상여를 메는 일을 거든 적이 있느냐? 그리고 관이 교회 묘지 문을 들어가다 문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

"믿어 주십시오, 선장님, 저는……"

"믿음? 그게 뭐냐?"

"아니, 믿음이라니요, 선장님, 그건 그냥 감탄사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선장님."

"음, 음. 계속해라."

"제가 말씀드리려던 것은, 선장님, 그게……"

"너는 누에냐? 네 몸에서 네 수의를 자아내느냐? 네 앞섶을 보아라! 서둘러라! 그리고 이 잡동사니를 눈에 안 띄게 치워라."

"고물 쪽으로 가시는구나. 이번엔 갑작스러웠지만, 더운 위도에서는 돌풍도 갑작스레 오는 법이지. 갈라파고스 제도의 하나인 앨버말섬은 적도가 정확히 한가운데를 가른다고 들었다. 내 보기엔 저 노인도 무슨 적도 같은 것이 정확히 몸 한가운데를 가르는 것 같다. 늘 적도 바로 아래에 있다니까. 불같이 뜨겁단 말이다! 이쪽을 보신다. 자, 뱃밥아, 어서. 다시 시작이다. 이 나무망치는 코르크 마개고, 나는 유리잔 악기를 연주하는 교수다. 톡, 톡!"

(에이해브 혼잣말.)

"볼 만한 광경이구나! 들을 만한 소리구나! 머리가 센 딱따구리가 속 빈 나무를 쪼는구나! 지금은 눈멀고 귀먹은 자가 부러울 만하다. 보아라! 저것이 작살줄 통 두 개 위에 놓여 있다. 끄는 줄이 가득 든 통이다. 참으로 고약한 익살꾼이로구나, 저 녀석은. 똑똑! 그렇게 사람의 초침이 째깍거린다! 오! 물질이란 모두 얼마나 덧없이 비물질적인가! 무게를 달 수 없는 생각 말고 무엇이 실재하는가? 여기 바로 무시무시한 죽음의 두려운 상징이, 순전한 우연으로, 가장 위태로운 생명을 도와주고 희망을 주는 뚜렷한 표지가 되었다. 관으로 구명부표라니! 그보다 더 나아가는가? 어떤 영적인 뜻에서 관은 결국 불멸을 지키는 부표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리라. 그러나 아니다. 나는 이 땅의 어두운 쪽으로 너무 멀리 들어와 버려서, 그 다른 쪽, 이론으로만 밝은 쪽은 내게 그저 미덥지 않은 어스름으로만 보인다. 그 저주받은 소리를 끝내 그치지 않겠느냐, 목수? 나는 아래로 내려간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저것이 여기 보이지 않게 해라. 자, 그럼, 핍, 이 일을 함께 이야기해 보자. 나는 너에게서 더없이 놀라운 철학을 빨아들인다!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서 오는 알려지지 않은 수로가 너에게로 쏟아져 드는 것이 틀림없다!"

제128장 피쿼드호, 라헬호를 만나다

이튿날, 큰 배 한 척, 라헬호가 피쿼드호를 향해 곧장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 배의 활대마다 사람들이 빽빽이 매달려 있었다. 그때 피쿼드호는 물을 가르며 꽤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날개를 넓게 편 바람 위쪽의 낯선 배가 가까이 쏜살같이 다가오자, 뽐내던 돛들이 터진 빈 오줌보처럼 한꺼번에 축 처졌고, 얻어맞은 선체에서 모든 생기가 달아났다.

"나쁜 소식이야. 저 배가 나쁜 소식을 싣고 온다." 늙은 맨섬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저쪽 배의 선장이 확성 나팔을 입에 대고 보트 위에 일어서서 희망에 차서 부르기도 전에, 에이해브의 목소리가 들렸다.

"흰 고래를 보았소?"

"보았소, 어제. 떠내려가는 포경 보트를 보았소?"

에이해브는 기쁨을 억누르며 이 뜻밖의 물음에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낯선 배에 오르고 싶어 했는데, 그때 낯선 배의 선장이 몸소 배를 멈추게 하고 뱃전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몇 번 힘차게 노를 젓자 그의 보트 갈고리가 곧 피쿼드호의 큰돛대 밧줄 받침을 꽉 물었고, 그는 갑판으로 뛰어올랐다. 에이해브는 곧바로 그가 아는 낸터킷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격식을 갖춘 인사는 오가지 않았다.

"놈이 어디 있었소? 죽이지 않았지! 죽이지 않았지!" 에이해브가 바싹 다가서며 외쳤다. "어떻게 된 거요?"

이야기는 이랬다. 전날 오후 꽤 늦게, 낯선 배의 보트 세 척이 고래 떼를 쫓느라 배에서 4, 5마일쯤 멀어졌고, 아직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을 때, 그리 멀지 않은 바람 불어 가는 쪽에서 모비 딕의 흰 혹과 머리가 갑자기 물 위로 솟아올랐다. 그러자 넷째로 장비를 갖춘 보트, 곧 예비 보트를 곧바로 내려 추격하게 했다. 바람을 등지고 날렵하게 달려간 뒤, 모든 보트 가운데 용골이 가장 빠른 이 넷째 보트는, 적어도 돛대 꼭대기의 사람이 무언가 알아볼 수 있었던 데까지는, 작살을 박는 데 성공한 것 같았다. 그는 멀리서 점처럼 작아진 보트를 보았고, 이어 거품이 이는 흰 물이 재빨리 번득이는 것을 보았으며, 그 뒤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작살에 맞은 고래가, 흔히 그러듯이, 쫓는 사람들을 끌고 어디까지인지 모를 만큼 달아난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다. 걱정은 얼마쯤 있었으나 아직 뚜렷한 경계심은 없었다. 돌아오라는 신호를 삭구에 내걸었다. 어둠이 내렸다. 그리고 정반대 방향에 있는 넷째 보트를 찾으러 가기 전에 멀리 바람 불어오는 쪽에 있는 보트 세 척을 먼저 거두어들여야 했으므로, 배는 자정 가까이까지 그 보트를 제 운명에 맡겨 둘 수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당분간 그 보트와의 거리를 더 벌려야 했다. 그러나 나머지 선원들이 마침내 무사히 배에 오르자, 배는 사라진 보트를 찾아 보조돛에 보조돛을 겹쳐 모든 돛을 활짝 폈다. 기름 가마솥에 불을 피워 봉화로 삼고, 한 사람 걸러 한 사람씩 돛대에 올라 망을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라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보였을 법한 자리에 이를 만큼 충분히 달려간 뒤 배를 멈추고 예비 보트들을 내려 사방을 저어 다니게 했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다시 내달렸다가 또 멈추고 보트를 내렸으며, 그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되풀이했는데도, 사라진 용골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를 마치자 낯선 선장은 곧바로 피쿼드호에 오른 목적을 털어놓았다. 피쿼드호가 자기 배와 함께 수색에 나서 주기를 바랐다. 4, 5마일쯤 떨어져 나란한 선을 따라 바다를 달리며, 이를테면 수평선을 두 겹으로 훑자고 했다.

"이제 내기를 걸어도 좋아." 스터브가 플래스크에게 속삭였다. "저 사라진 보트에 탄 누군가가 저 선장의 제일 좋은 웃옷을 입고 가 버린 거야. 어쩌면 시계일지도 모르고. 그걸 되찾으려고 저리 빌어먹게 애를 태우는 거지. 고래잡이가 한창인 철에 경건한 포경선 두 척이 잃어버린 포경 보트 한 척을 찾아다닌다는 말을 누가 들어 봤어? 봐, 플래스크, 저 얼굴이 얼마나 창백한지 좀 봐. 바로 눈알 단추까지 창백하다고. 봐, 웃옷이 아니었어. 틀림없이 그건……"

"내 아들이, 내 친아들이 그들 가운데 있소. 제발, 하나님을 봐서라도, 부탁하오, 간청하오." 그때까지 그의 청을 얼음처럼 차갑게 받기만 하던 에이해브에게 낯선 선장이 이렇게 외쳤다. "마흔여덟 시간만 당신 배를 빌려주시오. 기꺼이 값을 치르겠소, 넉넉히 치르겠소. 다른 길이 없다면 말이오. 마흔여덟 시간만, 그것만. 당신은 해야 하오, 오, 해야 하오, 그리고 당신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오."

"아들이라니!" 스터브가 외쳤다. "오, 저 사람이 잃어버린 건 아들이로구나! 웃옷이니 시계니 한 말은 거두겠다. 에이해브는 뭐라고 하려나? 우리가 그 아이를 구해야지."

"그 아이는 간밤에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빠져 죽었어." 그들 뒤에 서 있던 늙은 맨섬 선원이 말했다. "내가 들었지. 너희도 모두 그들의 넋이 내는 소리를 들었잖아."

그런데 곧 드러난 일이지만, 라헬호의 이 사건을 더욱 서글프게 만든 사정이 있었다. 선장의 아들 하나가 사라진 보트의 선원들 가운데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은 때에 다른 보트의 선원들 가운데, 그러나

반대편에서 추격의 어두운 혼란 속에 배와 떨어져 버린 보트에, 또 다른 아들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그 가련한 아버지는 더없이 잔인한 갈피 못 잡음의 밑바닥으로 내던져졌는데, 일등 항해사가 그런 위급한 때에 포경선이 늘 하는 대로, 곧 위험에 빠졌으나 서로 떨어진 보트들 사이에 놓였을 때는 언제나 수가 많은 쪽을 먼저 거두어들이는 관례를 본능적으로 따름으로써 비로소 그에게서 그 갈피 못 잡음이 풀렸다. 그러나 선장은 알 수 없는 어떤 타고난 까닭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고, 에이해브의 얼음 같은 태도에 떠밀리고서야 아직 사라진 채인 아들 하나에 대해 넌지시 비쳤다. 겨우 열두 살 된 어린 소년이었다. 그 아버지는 낸터킷 사람다운 아버지의 사랑, 간절하되 거리낌 없이 대담한 사랑으로, 그 아이의 종족 모두가 아득한 옛날부터 거의 숙명으로 삼아 온 직업의 위험과 경이에 이토록 일찍 아이를 입문시키려 했던 것이다. 낸터킷 선장들이 그렇게 어린 아들을 자기 배가 아닌 다른 배에 태워 서너 해 걸리는 긴 항해로 떠나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포경선원의 길을 처음 알게 될 때, 아버지가 어쩌다 드러낼 수 있는 자연스럽지만 때 아닌 편애나, 지나친 걱정과 염려로 아이가 기운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낯선 선장은 여전히 에이해브에게 그 가엾은 은혜를 애원했고, 에이해브는 여전히 모루처럼 서서 모든 충격을 받아 내면서도 저 자신은 털끝만큼도 떨지 않았다.

"당신이 *그러마*고 말할 때까지 나는 가지 않겠소." 낯선 선장이 말했다. "같은 처지라면 당신이 내게 바랄 일을 내게 해 주시오. *당신*에게도 아들이 있지 않소, 에이해브 선장. 아직 어린아이이고 지금은 고향에서 안전하게 둥지에 들어 있지만, 그 아이도 늘그막에 얻은 자식이 아니오. 그렇지, 그렇지, 마음이 누그러지는구려. 보이오. 달려라, 달려, 얘들아, 이제 활대를 바로 돌릴 채비를 해라."

"그만둬라." 에이해브가 외쳤다. "밧줄 한 가닥도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는 낱말 하나하나를 길게 빚어내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디너 선장,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소. 지금도 나는 시간을 잃고 있소. 잘 가시오, 잘 가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 사람아.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그러나 나는 가야 하오. 스타벅, 나침반 함의 시계를 보고, 바로 이 순간부터 3분 뒤에 낯선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라. 그런 다음 다시 활대를 앞으로 돌려, 배가 아까처럼 나아가게 해라."

그는 서둘러 몸을 돌려 얼굴을 외면한 채 선장실로 내려갔고, 낯선 선장은 그토록 간절한 청이 이렇게 조건 없이 송두리째 거절당한 데 넋이 나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러나 가디너는 넋 나간 데서 퍼뜩 깨어나 말없이 서둘러 뱃전으로 갔고, 걸어 들어갔다기보다 굴러떨어지듯 제 보트에 올라 제 배로 돌아갔다.

곧 두 배의 항적이 갈라졌다. 그리고 낯선 배가 보이는 동안 내내, 그 배가 바다 위의 어두운 점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에도 이리저리 뱃머리를 트는 것이 보였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활대를 돌렸고, 우현으로 좌현으로 계속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 맞물결에 부딪쳐 나아가는가 하면, 다시 물결이 배를 앞으로 밀어 주기도 했다. 그동안 내내 그 배의 돛대와 활대에는 사람들이 빽빽이 매달려 있었다. 사내아이들이 가지 사이에서 버찌를 따고 있는 키 큰 벚나무 세 그루 같았다.

그러나 여전히 머뭇거리는 항로와 구불구불한 슬픈 길을 보면, 그렇게 물보라로 울고 있는 이 배가 여전히 위로받지 못한 채임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 배는 라헬이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자식들을 위해 울고 있는 라헬이었다.

제129장 선장실

(에이해브가 갑판으로 올라가려고 움직인다. 핍이 따라가려고 그의 손을 붙잡는다.)

"얘야, 얘야, 지금은 에이해브를 따라오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느냐. 에이해브가 너를 겁주어 쫓아 버리지는 않겠지만 곁에 두지도 않을 때가 다가온다. 가엾은 아이야, 네게는 내 병을 너무나 잘 고쳐 주는 무언가가 있다. 같은 것이 같은 것을 고친다. 그런데 이번 사냥에서는 나의 병이 내가 가장 바라는 건강이 된다. 너는 여기 아래에 있어라. 사람들이 너를 선장처럼 받들 것이다. 그렇다, 얘야, 너는 여기 나사로 박아 놓은 내 의자에 앉아 있어라. 너는 그 의자에 박힌 나사가 하나 더 되어야 한다."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선장님은 몸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선장님. 잃어버린 다리 대신 가엾은 저를 쓰세요. 그냥 저를 밟고 다니세요, 선장님. 더는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선장님의 한 부분으로 남으니까요."

"오! 백만 악당이 있다 해도, 이 아이 때문에 나는 사람의 바래지 않는 충직함을 굳게 믿는 광신자가 되는구나! 그것도 흑인이고! 미치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같은 것이 같은 것을 고친다는 말이 이 아이에게도 들어맞는 것 같다. 이 아이가 다시 이토록 제정신이 되어 가니."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선장님, 스터브가 한번은 가엾은 꼬마 핍을 버렸대요. 핍의 산 살갗은 그렇게 검었는데, 이제 빠져 죽은 뼈가 하얗게

보인대요. 하지만 저는 스터브가 핍을 버렸듯이 선장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선장님. 선장님, 저는 선장님과 같이 가야 해요."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더 많이 하면 에이해브의 뜻이 그 안에서 뒤집혀 버린다. 안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럴 수는 없다."

"오, 좋은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그렇게 울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 조심해라, 에이해브도 미쳤으니. 귀기울여라. 그러면 갑판 위에서 내 고래뼈 발소리를 자주 듣고,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늘 알 것이다. 이제 나는 너를 떠난다. 네 손을! 맞잡았다! 너는 참되구나, 얘야, 원둘레가 그 중심에 참되듯이.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기를. 그리고 일이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닥치든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구해 주시기를."

(에이해브가 나간다. 핍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바로 이 순간 그분이 여기 서 계셨는데. 나는 그분의 공기 속에 서 있어. 하지만 나는 혼자야. 가엾은 핍이라도 여기 있으면 견딜 수 있을 텐데, 핍은 없어졌어. 핍! 핍! 땡, 동, 땡! 핍 본 사람? 핍은 여기 위에 있을 거야. 문을 열어 보자. 뭐야? 자물쇠도 빗장도 가로대도 없는데 열리지가 않네. 마법 때문인가 봐. 그분이 나더러 여기 있으라고 했지. 그래, 그리고 이 나사 박은 의자가 내 거라고 했어. 그럼 여기 앉아야지, 고물 들보에 기대어, 배의 한가운데에, 용골 전체와 세 돛대를 내 앞에 두고. 우리 늙은 선원들이 그러는데, 검은 74문 전함에서는 위대한 제독들이 가끔 여기 식탁에 앉아 줄줄이 늘어선 함장과 부관 들을 호령한대. 하! 이게 뭐야? 견장이다! 견장이다! 견장들이 모두 우르르 몰려와! 술병을 돌려요. 만나서 반가워요. 잔을 채워요, 무슈들! 이거 참 묘한 기분이네, 흑인 아이가 웃옷에 금줄을 단 백인들을 대접하는 주인이라니! 무슈들, 핍이라는 아이를 보셨어요? 키 5피트에 풀 죽은 얼굴을 한 겁쟁이 흑인 꼬마예요! 한번은 포경 보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보셨어요? 못 봤다고요! 그럼 다시 잔을 채워요, 함장님들, 그리고 모든 겁쟁이에게 망신을 주는 건배를 해요! 이름은 대지 않을게요. 그들에게 망신을! 한 발을 식탁에 올려요. 모든 겁쟁이에게 망신을. 쉿! 저 위에서 고래뼈 소리가 들려. 오,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이 제 위를 걸어 다니시면 저는 정말 풀이 죽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 고물이 바위에 부딪쳐서, 바위가 고물을 뚫고 불룩 들어오고, 굴들이 저한테 놀러 온다 해도요."

제130장 모자

그토록 길고 넓은 예비 항해 끝에, 알맞은 때와 곳에서, 다른 모든 포경 바다를 다 훑고 난 에이해브가 원수를 더 확실히 죽이려고 대양의 한 우리 속으로 몰아넣은 것 같은 지금, 그 괴로운 상처를 입은 바로 그 위도와 경도 가까이에 와 있는 지금, 바로 전날 실제로 모비 딕을 만난 배와 말을 나눈 지금, 그리고 여러 배와 잇따라 만난 일이 모두 저마다 대조를 이루면서도 한결같이, 흰 고래가 죄를 지었든 죄를 당했든 저를 사냥하는 자들을 얼마나 악마 같은 무관심으로 찢어발기는지 보여 준 지금, 바로 지금 노인의 눈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어 마음 약한 사람은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다. 여섯 달 동안 이어지는 기나긴 북극의 밤 내내 꿰뚫는 듯 흔들림 없이 한가운데서 내려다보는, 지지 않는 북극성처럼, 에이해브의 뜻은 이제 침울한 선원들의 끝없는 한밤 위로 꼼짝 않고 번득이며 내리비쳤다. 그 뜻이 그들 위에 어찌나 위압적으로 군림했는지, 그들의 불길한 예감과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모두 영혼 밑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고, 창끝 같은 싹 하나, 잎 하나 내밀지 못했다.

이 전조 같은 사이에는 억지로 짜낸 것이든 절로 나온 것이든 익살이 모두 사라졌다. 스터브는 더는 웃음을 자아내려 애쓰지 않았고, 스타벅은 더는 웃음을 막으려 애쓰지 않았다. 기쁨과 슬픔도, 희망과 두려움도 똑같이, 당분간은 에이해브의 무쇠 영혼이라는 꽉 죈 절구 속에서 가장 고운 가루로 빻여 부서진 것 같았다. 그들은 기계처럼

말없이 갑판 위를 오갔고, 노인의 폭군 같은 눈이 자기들 위에 있음을 늘 의식했다.

그러나 그가 남모르게 속을 터놓는 시간, 단 한 사람의 눈길 말고는 아무 눈길도 자기에게 와 있지 않다고 여기는 시간에 그를 깊이 살펴보았다면, 에이해브의 눈이 선원들의 눈을 그토록 두렵게 하는 것과 똑같이, 속을 알 수 없는 파시교도의 눈길이 에이해브의 눈을 두렵게 한다는 것을, 아니면 적어도 어딘가 사납게 이따금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대는 보았으리라. 이제 깡마른 페달라에게는 무언가 미끄러지듯 덧붙은 기이함이 감돌기 시작했고, 쉴 새 없는 몸서리가 그를 뒤흔들어서, 선원들은 그를 미심쩍게 바라보았다. 그가 정말 죽을 운명의 실체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의 몸이 갑판 위에 드리운 떨리는 그림자인지 반쯤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늘 거기 맴돌았다. 페달라가 밤에조차 잠을 자거나 아래로 내려간 것을 똑똑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몇 시간이고 가만히 서 있곤 했다. 그러나 앉거나 기대는 법은 결코 없었다. 핏기 없으나 경이로운 그의 눈은 똑똑히 말했다. 우리 두 파수꾼은 결코 쉬지 않는다고.

이제 선원들은 밤이든 낮이든 언제 갑판에 올라서도 에이해브가 앞에 있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는 의족 구멍에 서 있거나, 큰돛대와 뒷돛대라는 어김없는 두 경계 사이의 갑판 널빤지를 정확히 오가거나, 아니면 선장실 승강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거기 선 그는 살아 있는 발을 금방이라도 내디딜 듯 갑판 위로 내밀고, 모자를 눈 위로 무겁게 푹 눌러쓰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꼼짝 않고 서 있어도, 그가 해먹에서 흔들리지 않은 날과 밤이 아무리 쌓여 가도, 그 푹 눌러쓴 모자 밑에 가려진 탓에, 그래도 그의 눈이 정말로 이따금 감기는지, 아니면 여전히 골똘히 자기들을 살피고 있는지 선원들은 어김없이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가 승강구에 그렇게 꼬박 한 시간을 서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밤이슬이 돌에 새긴 듯한 그 웃옷과 모자 위에 이슬방울로 맺혀도 마찬가지였다. 밤이 적신 옷은 이튿날 햇볕이 그의 몸 위에서 말려 주었다. 그렇게 날마다, 밤마다, 그는 더는 갑판 널빤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선장실에서 무엇이 필요하면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같은 바깥 공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곧 단 두 끼, 아침과 점심이었다. 저녁은 손도 대지 않았다. 수염도 깎지 않았다. 수염은 바람에 쓰러져 흙 밖으로 드러난 나무뿌리처럼 온통 비틀리고 엉켜 거무스름하게 자랐다. 그런 뿌리는 위의 푸른 잎은 다 시들어 죽었는데도 드러난 밑동에서 하릴없이 계속 자란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삶 전체가 갑판 위의 한 번의 당직이 되었고, 파시교도의 신비로운 당직도 그의 당직처럼 쉼 없이 이어졌는데도, 이 두 사람은 오랜 간격을 두고 무언가 하찮은 일이 지나가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아니면, 서로 말을 나누는 것 같지 않았다. 어떤 강력한 마법이 남몰래 두 사람을 이어 주는 것 같았으나, 드러난 데서는, 그리고 두려움에 질린 선원들에게는, 두 사람이 남극과 북극처럼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낮에 어쩌다 한마디를 주고받는다 해도, 밤에는 아주 사소한 말을 주고받는 데서도 둘 다 벙어리였다. 이따금 기나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두 사람은 별빛 속에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에이해브는 승강구에, 파시교도는 큰돛대 곁에. 그러나 여전히 서로를 꼼짝 않고 바라보았다. 마치 에이해브는 파시교도에게서 앞으로 던져진 제 그림자를, 파시교도는 에이해브에게서 제가 버린 실체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어쩐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에이해브 본연의 모습에서는, 에이해브는 독립한 군주 같았고 파시교도는 그의 노예일 뿐인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멍에를 메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폭군이

둘을 몰고 있는 것 같았다. 여윈 그림자가 단단한 갈빗대 옆에 붙어서. 이 파시교도가 무엇이든 간에, 갈빗대와 용골은 모두 단단한 에이해브였기 때문이다.

새벽빛이 처음으로 가장 희미하게 비칠 때면 고물 쪽에서 그의 무쇠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리고 온종일,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진 뒤까지, 키잡이가 종을 칠 때마다 시간마다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무엇이 보이느냐? 똑똑히! 똑똑히!"

그러나 자식을 찾아 헤매는 라헬호를 만난 뒤 사나흘이 미끄러지듯 지나도록 물줄기 하나 보이지 않자, 그 편집광 노인은 선원들의 충성을 미덥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적어도 이교도 작살잡이들을 뺀 거의 모든 사람을. 그는 스터브와 플래스크조차 자기가 찾는 광경을 일부러 못 본 체 넘기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정말 그런 의심을 품었다 해도, 그의 행동이 아무리 그것을 암시하는 듯 보였더라도, 그는 그것을 말로 드러내는 일을 슬기롭게 삼갔다.

"고래는 내가 맨 먼저 보겠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 금화는 에이해브가 차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제 손으로 밧줄 고리를 엮어 바구니 같은 둥지를 꾸몄다. 그리고 선원 하나를 홑도르래 하나와 함께 위로 올려 보내 큰돛대 꼭대기에 단단히 매게 하고, 아래로 꿰어 내린 밧줄의 두 끝을 받아 한 끝은 바구니에 매고 다른 끝은 난간에 매려고 말뚝을 하나 마련했다. 그 일을 마치자 그는 그 끝을 아직 손에 쥔 채 말뚝 곁에 서서, 선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둘러보았다. 다구와 퀴퀘그와 태시테고에게서 오래 눈길을 멈추었으나 페달라는 피했다. 그러고는 굳게 믿는 눈길을 일등 항해사에게 머물게 하며 말했다. "밧줄을 받아라. 네 손에 맡기겠다, 스타벅." 그러고는 바구니 안에 몸을 자리 잡고, 자기를 망보는 자리로 끌어 올리라고 명령했다. 마지막에 밧줄을 단단히 맨 사람은 스타벅이었고, 그 뒤로 그는 밧줄 곁에 서

있었다. 그리하여 에이해브는 한 손으로 맨 꼭대기 돛대를 휘감아 붙든 채, 그토록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넓게 펼쳐진 원 안에서 앞으로, 뒤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몇 마일이고 몇 마일이고 바다를 둘러보았다.

바다에서 뱃사람이 삭구 가운데 높고 거의 외따로 떨어져 어쩌다 발 디딜 데가 없는 곳에서 손으로 일을 할 때는, 그를 그 자리까지 끌어 올려 밧줄로 매달아 받쳐 둔다. 이럴 때 갑판에 매어 둔 밧줄 끝은 언제나 그것을 따로 지키는 사람 하나에게 엄하게 맡긴다. 그렇게 얽히고설킨 움직이는 삭구 속에서는 위에서 저마다 다르게 이어진 밧줄들을 갑판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늘 틀림없이 가려낼 수는 없고, 이 밧줄들의 갑판 쪽 끝을 몇 분마다 매어 둔 데서 풀어 내던지는 판이니, 늘 지키는 파수꾼을 두지 않으면 끌어 올린 뱃사람이 선원들의 어떤 부주의로 줄이 풀려 바다로 곤두박질쳐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숙명일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일에서 에이해브가 한 처사는 별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 처사에서 기이해 보인 점은 이것뿐이었다. 스타벅은 조금이라도 결단에 가까운 무언가로 감히 그에게 맞선 거의 단 한 사람이었고, 망보기의 충실함을 그가 얼마쯤 의심하는 것 같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을 그가 자기 파수꾼으로 골랐다는 것, 다른 때 같으면 믿지 않았을 그런 사람의 손에 제 목숨을 통째로 선뜻 맡겼다는 것이 기이했다.

그런데 에이해브가 처음 돛대 위에 올라앉았을 때, 거기 있은 지 10분도 되기 전에, 이 위도에서 사람이 오른 포경선의 돛대 꼭대기 둘레를 그토록 자주 성가시게 바싹 날아다니는 붉은 부리의 사나운 바다매 한 마리가, 그런 새 한 마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어지러이 원을 그리며 그의 머리 둘레를 맴돌고 날카롭게 울었다. 그러더니 1,000피트를 곧장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가, 나선을 그리며 내려와 다시 그의 머리 둘레를 소용돌이치며 맴돌았다.

그러나 흐릿하고 아득한 수평선에 눈길을 박은 에이해브는 이 사나운 새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사실 다른 누구라도 그것을 그리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이다. 흔치 않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는 가장 무심한 눈조차 거의 모든 광경에서 무언가 교활한 뜻을 보는 것 같았다.

"모자요, 모자, 선장님!" 갑자기 시칠리아 선원이 외쳤다. 그는 뒷돛대 꼭대기에 배치되어 에이해브 바로 뒤에 서 있었는데, 에이해브보다 얼마쯤 낮은 데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허공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미 검은 날개가 노인의 눈앞에 있었고, 길게 굽은 부리가 그의 머리에 닿아 있었다. 날카로운 울음과 함께 검은 매는 노획물을 채어 날아가 버렸다.

독수리 한 마리가 타르퀴니우스의 머리 둘레를 세 번 날며 그의 모자를 벗겼다가 다시 씌워 주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 타나퀼은 타르퀴니우스가 로마의 왕이 되리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 징조가 길하다고 여겨진 것은 오직 모자를 다시 씌워 주었기 때문이었다. 에이해브의 모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나운 매는 그것을 물고 계속 날아갔다. 뱃머리 훨씬 앞쪽으로. 그리고 마침내 사라졌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 그 지점에서, 아주 작은 검은 점 하나가 그 아득한 높이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제131장 피쿼드호, 기쁨호를 만나다

온 힘을 다한 피쿼드호는 계속 나아갔다. 굴러가는 물결과 날들이 지나갔고, 관 구명부표는 여전히 가볍게 흔들렸다. 그리고 또 한 척의 배, 기쁨호라는 참으로 비참하게 잘못 붙인 이름의 배가 보였다. 그 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모든 눈이 그 배의 넓은 들보에 쏠렸다. 셰어스라고 부르는 그 들보는 어떤 포경선에서 뒷갑판 위 8, 9피트 높이로 가로질러 걸려, 예비 보트나 장비를 떼어 낸 보트나 망가진 보트를 얹어 두는 데 쓰인다.

낯선 배의 들보 위에는 한때 포경 보트였던 것의 산산조각 난 흰 갈빗대와 쪼개진 널빤지 몇 장이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잔해 사이로, 가죽이 벗겨지고 반쯤 관절이 빠져 하얗게 바래 가는 말의 해골 사이로 보듯 훤히 건너다보였다.

"흰 고래를 보았소?"

"보시오!" 볼이 홀쭉하게 팬 선장이 고물 난간에서 대답했다. 그리고 확성 나팔로 그 잔해를 가리켰다.

"놈을 죽였소?"

"놈을 죽일 작살은 아직 벼리지도 않았소." 상대가 대답하며 갑판 위의 둥글게 만 해먹을 슬프게 흘끗 보았다. 소리 없는 선원 몇이 그 해먹의 모은 가장자리를 바삐 꿰매고 있었다.

"벼리지 않았다고!" 에이해브는 작살 받침에서 퍼스가 벼린 수평의 작살을 낚아채어 내밀며 외쳤다. "보시오, 낸터킷 사람. 여기 이 손에

나는 놈의 죽음을 쥐고 있소! 이 미늘들은 피로 담금질하고 번개로 담금질했소. 그리고 흰 고래가 저의 저주받은 생명을 가장 깊이 느끼는 지느러미 뒤의 그 뜨거운 자리에서 세 번째로 담금질하겠다고 맹세하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 주시기를, 노인장. 저것이 보이오?" 그는 해먹을 가리켰다. "어제만 해도 살아 있었으나 밤이 되기 전에 죽은 튼튼한 사내 다섯 가운데 한 사람만 나는 묻소. *저* 사람만 묻는 거요. 나머지는 죽기도 전에 묻혔소. 당신은 그들의 무덤 위를 항해하고 있소." 그러고는 선원들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거기 준비됐느냐? 그럼 널빤지를 난간에 걸쳐 놓고 시신을 들어 올려라. 그래, 그럼. 오! 하나님." 그는 두 손을 쳐들고 해먹 쪽으로 다가갔다.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분께서……"

"활대를 앞으로 돌려라! 키를 올려라!" 에이해브가 번개처럼 선원들에게 외쳤다.

그러나 갑자기 내달린 피쿼드호도 시신이 바다에 떨어지며 낸 첨벙 소리를 피할 만큼 빠르지는 못했다. 날아오른 물거품 몇 방울이 그 유령 같은 세례를 피쿼드호의 선체에 뿌렸을지도 모를 만큼, 정말 빠르지 못했다.

에이해브가 이제 낙심한 기쁨호에게서 미끄러지듯 멀어져 갈 때, 피쿼드호의 고물에 매달린 이상한 구명부표가 또렷이 드러났다.

"하! 저기! 저기 봐라, 얘들아!" 피쿼드호의 항적에서 불길한 목소리 하나가 외쳤다. "오, 낯선 사람들아, 너희가 우리의 슬픈 장례를 피해 달아나도 헛일이다. 너희는 고물을 돌려 우리에게 너희 관을 보여 줄 뿐이다!"

제132장 교향곡

맑은 강철빛 푸른 날이었다. 온 누리에 스민 그 쪽빛 속에서 대기의 창공과 바다의 창공은 거의 가를 수가 없었다. 다만 생각에 잠긴 대기는 투명하게 맑고 부드러워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억세고 사내다운 바다는 잠든 삼손의 가슴처럼 길고 힘차게 머뭇거리는 너울로 오르내렸다.

높은 곳에서는 얼룩 하나 없는 작은 새들의 눈처럼 흰 날개가 이리저리 미끄러지듯 날았다. 그것은 여성인 대기의 다정한 생각들이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바닥 모를 푸른빛 속 저 아래에서는, 거대한 리워야단과 황새치와 상어 들이 이리저리 내달렸다. 그것은 남성인 바다의 억세고 어지럽고 살기 띤 생각들이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도, 겉으로 드러난 대조는 그저 빛깔의 짙고 옅음과 그림자에만 있었다. 그 둘은 하나로 보였다. 이를테면 그 둘을 가르는 것은 성(性)뿐이었다.

높은 곳에서 해는 위엄 있는 차르이자 왕처럼, 이 다정한 대기를 이 대담하게 굴러가는 바다에게 내주는 것 같았다. 신부를 신랑에게 내주듯이. 그리고 수평선의 허리띠 같은 선에서는, 부드럽게 떨리는 움직임이, 이곳 적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 움직임이, 가엾은 신부가 제 가슴을 내줄 때의 애틋하게 두근거리는 믿음과 사랑에 찬 두려움을 드러냈다.

꽁꽁 묶이고 비틀리고, 주름살로 마디지고 옹이 지고, 수척하게 굳세어 굽힐 줄 모르고,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여전히 이글거리는 석탄처럼 두 눈이 이글거리는, 비틀거림 없는 에이해브가 아침의 맑음 속으로 나와 섰다. 그리고 쪼개진 투구 같은 이마를 하늘의 아름다운 소녀 같은 이마를 향해 쳐들었다.

오, 쪽빛 하늘의 불멸하는 어린 시절과 순진함이여! 우리 둘레에서 온통 뛰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 달린 것들이여! 대기와 하늘의 달콤한 어린 시절이여! 너희는 늙은 에이해브의 칭칭 감긴 비통을 어쩌면 그리도 까맣게 몰랐더냐! 그러나 나도 그렇게 보았다. 웃음 띤 눈의 요정 같은 꼬마 미리암과 마르다가 늙은 아버지 둘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뛰놀며, 다 타 버린 분화구 같은 그의 뇌 가장자리에 자란 그을린 고수머리 테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에이해브는 승강구에서 천천히 갑판을 가로질러 가서 뱃전 너머로 몸을 기울이고, 물속에 비친 제 그림자가 그 깊은 곳을 꿰뚫어 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의 눈앞에서 점점 더 깊이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마법 같은 대기 속의 사랑스러운 향기가 마침내 그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좀먹는 것을 잠깐이나마 걷어 내는 것 같았다. 그 기쁘고 행복한 대기, 그 매혹적인 하늘이 마침내 그를 쓰다듬고 어루만졌다. 그토록 오래 잔인하고 매정했던 계모 같은 세상이 이제 그의 고집 센 목을 다정한 팔로 끌어안고, 아무리 제멋대로이고 그릇되었어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두고 그러듯이, 그를 안고 기쁘게 흐느끼는 것 같았다. 푹 눌러쓴 모자 밑에서 에이해브는 눈물 한 방울을 바다에 떨어뜨렸다. 온 태평양도 그 작디작은 한 방울만 한 보물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

스타벅은 노인을 보았다. 그가 뱃전 너머로 얼마나 무겁게 기대어 있는지 보았다. 그리고 그는 둘레의 고요 한가운데에서 새어 나오는

끝없는 흐느낌을 자신의 참된 마음속에서 듣는 것 같았다. 노인의 몸에 닿지 않도록, 노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그는 노인 가까이 다가가 거기 섰다.

에이해브가 돌아섰다.

"스타벅!"

"예, 선장님."

"오, 스타벅! 바람이 부드럽구나, 부드러워. 하늘도 부드러워 보인다. 이런 날, 이것과 아주 비슷하게 달콤한 날에 나는 첫 고래를 찔렀다. 열여덟 살 소년 작살잡이였지! 마흔, 마흔, 마흔 해 전에! 전에! 마흔 해 동안 쉬지 않은 고래잡이! 마흔 해의 궁핍과 위험과 폭풍의 나날! 마흔 해를 무정한 바다 위에서! 마흔 해 동안 에이해브는 평화로운 뭍을 버렸다. 마흔 해 동안 깊은 바다의 공포와 싸우려고! 그렇다, 정말이다, 스타벅, 그 마흔 해 가운데 나는 뭍에서 세 해도 보내지 않았다. 내가 살아온 이 삶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황량한 고독이었는지, 바깥 푸른 시골의 어떤 공감도 좀처럼 들여보내지 않는 선장의 배타성이라는, 돌로 쌓고 성벽을 두른 도시였는지, 오, 지겨움이여! 무거움이여! 홀로 명령하는 기니 해안의 노예살이여!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전에는 반쯤만 짐작했을 뿐 이토록 뼈저리게 알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마흔 해 동안 내가 어떻게 바싹 마른 소금 절인 음식만 먹고 살았는지, 내 땅이 주는 메마른 양식에 꼭 맞는 상징이로구나! 가장 가난한 뭍사람도 날마다 손에 싱싱한 과일을 쥐고 세상의 갓 구운 빵을 뜯는 동안 나는 곰팡이 핀 빵 껍질을 뜯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쉰이 넘어 혼인하고 이튿날 혼곶으로 떠나며 혼인 베개에 움푹 팬 자국 하나만 남겨 둔 그 젊은 아내에게서 멀리, 온 대양을 몇 개나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서, 아내라고? 아내라고? 차라리 남편이 살아 있는 과부지! 그렇다, 나는 그 가엾은 아이와 혼인하면서 그 아이를 과부로 만들었다,

스타벅. 그리고 그 광기, 그 열광, 그 끓는 피와 연기 나는 이마로, 늙은 에이해브는 천 번이나 보트를 내려 미친 듯이, 거품을 물고 먹이를 쫓았다. 사람이라기보다 악마였지! 그래, 그래! 늙은 에이해브는 마흔 해 동안 얼마나 바보였더냐, 바보, 늙은 바보였더냐! 왜 이렇게 쫓으며 싸우는가? 왜 노와 작살과 창을 쥔 팔을 지치게 하고 마비시키는가? 그래서 에이해브가 지금 얼마나 더 부유해졌고 얼마나 더 나아졌느냐? 보아라. 오, 스타벅! 내가 지고 가는 이 지친 짐에다, 가엾은 다리 하나마저 내 밑에서 낚아채였다니, 가혹하지 않으냐? 여기, 이 늙은 머리털을 옆으로 쓸어 다오. 앞을 가려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구나. 이토록 센 머리털은 어떤 잿더미에서가 아니면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아주 늙어 보이느냐, 아주, 아주 늙어 보이느냐, 스타벅? 나는 죽을 듯이 기운이 없고, 허리가 굽고, 등이 흰 것 같다. 낙원 이후로 쌓인 수많은 세기 밑에서 비틀거리는 아담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 심장을 쪼개다오! 내 뇌를 박살내다오! 조롱이로구나! 조롱이로구나! 센 머리털의 쓰라리고 물어뜯는 조롱이로구나. 너희를 쓰고 다닐 만큼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살았더냐? 그런데도 이렇게 견딜 수 없이 늙어 보이고 늙었다고 느껴야 하느냐? 가까이! 가까이 서 다오, 스타벅.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게 해 다오. 그것이 바다나 하늘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보다 낫다. 푸른 땅에 걸고, 환한 난롯가에 걸고! 이것이 마법의 거울이로구나, 이 사람아. 네 눈에서 내 아내와 내 아이가 보인다. 아니다, 아니다. 배에 남아 있어라, 배에! 내가 보트를 내릴 때 너는 내리지 마라. 낙인찍힌 에이해브가 모비 딕을 쫓을 때. 그 위험은 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다, 아니다! 그 눈 속에 보이는 머나먼 고향을 두고서는!"

"오, 나의 선장님! 나의 선장님! 고귀한 영혼이여! 그래도 위대한 늙은 마음이여! 왜 누군가가 그 미운 물고기를 쫓아야 합니까! 저와 함께 떠나십시다! 이 죽음의 바다에서 달아나십시다! 고향으로 가십시다! 스타벅에게도 아내와 아이가 있습니다. 형제 같고 누이 같고 소꿉동무 같은 젊은 날의 아내와 아이입니다. 선장님에게 아내와 아이가 다정하고 그리움 많은 아버지의 늘그막에 얻은 아내와 아이이듯이요! 떠나십시다! 떠나십시다! 지금 이 순간 항로를 바꾸게 해 주십시오! 오, 나의 선장님, 낡은 낸터킷을 다시 보러 가는 길을 우리가 얼마나 흥겹게, 얼마나 신나게 달려가겠습니까! 선장님, 낸터킷에도 바로 이런 부드럽고 푸른 날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있지, 있어. 나도 보았다. 여름날 아침이면 몇 번. 이맘때쯤, 그래, 지금은 그 아이가 한낮 낮잠을 잘 때다. 아이가 기운차게 깨어 침대에 일어나 앉는다. 그러면 그 어미가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해 준다. 식인종 같은 늙은 나에 대해. 내가 어떻게 깊은 바다 위에 나가 있는지, 그러나 언젠가 돌아와 다시 아이를 어르며 춤추게 해 주리라는 것을."

"제 메리 같습니다, 제 메리 그대로입니다! 메리는 아침마다 제 아들을 언덕으로 데려가 아버지의 돛을 맨 먼저 보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다 됐습니다! 우리는 낸터킷으로 갑니다! 자, 나의 선장님, 항로를 짜 보십시오. 그리고 떠나십시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창가에 아이의 얼굴이! 언덕 위에 아이의 손이!"

그러나 에이해브의 눈길은 돌려져 있었다. 그는 병든 과일나무처럼 몸을 떨더니, 재가 된 마지막 사과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름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이 세상 것 아닌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속이는 숨은 군주이자 주인, 잔인하고 무자비한 황제가 무엇이기에 내게 명령하느냐. 자연의 모든 사랑과 그리움을 거슬러, 내가 이렇게 줄곧 나 자신을 떠밀고 몰아대고 처넣어, 나 본연의

자연스러운 마음으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무모하게 하려 들게 하느냐? 에이해브가 에이해브냐? 이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은 나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누구냐? 그러나 저 위대한 해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하늘의 심부름꾼 아이 같을 뿐이라면, 별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하지 않고서는 돌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작은 심장 하나가 어떻게 뛰고, 이 작은 뇌 하나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뛰는 일을 하시고, 그 생각하는 일을 하시고, 그 사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늘에 걸고 말하지만, 이 사람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기 저 양묘기처럼 빙글빙글 돌려지고, 운명이 그 손잡이 막대다. 그리고 그동안 내내, 보라! 저 웃는 하늘과 이 깊이 모를 바다를! 보라! 저기 날개다랑어를 보아라! 누가 그놈에게 저 날치를 쫓아 이빨로 물어뜯을 마음을 넣어 주었느냐? 살인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아! 재판관 자신이 피고석으로 끌려 나가는데 누가 판결을 내리겠느냐? 그러나 바람이 부드럽구나, 부드러워. 하늘도 부드러워 보인다. 그리고 지금 대기에서는 머나먼 풀밭에서 불어오는 듯한 냄새가 난다. 안데스산맥 비탈 아래 어딘가에서 건초를 만들고 있구나, 스타벅. 그리고 풀 베는 사람들은 갓 벤 건초 사이에서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고?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 일해도 결국에는 모두 들판에서 잠든다. 잠든다고? 그렇다, 그리고 푸름 속에서 녹슨다. 반쯤 베어 놓은 풀 이랑에 내던져 버려진 지난해의 낫처럼. 스타벅!"

그러나 절망으로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항해사는 이미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없었다.

에이해브는 갑판을 가로질러 반대쪽 뱃전 너머를 들여다보다가, 거기 물속에 비친 꼼짝 않는 두 눈에 흠칫 놀랐다. 페달라가 같은 난간에 꼼짝 않고 기대어 있었다.

제133장 추격, 첫째 날

그날 밤 한밤 당직 때, 노인이 이따금 하던 버릇대로 기대어 서 있던 승강구에서 나와 의족 구멍으로 갔을 때, 그는 갑자기 얼굴을 사납게 내밀고 바다 공기를 킁킁 들이마셨다. 영리한 뱃개가 어느 야만스러운 섬에 다가갈 때 그러듯이. 그는 고래가 가까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단언했고, 곧 살아 있는 향유고래가 때로 아주 먼 곳까지 풍기는 그 독특한 냄새를 당직 선원 모두가 뚜렷이 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에이해브가 나침반을 살피고, 다음에 풍향기를 살피고, 다음에 그 냄새가 오는 방위를 되도록 정확히 확인한 뒤, 배의 항로를 조금 바꾸고 돛을 줄이라고 재빨리 명령했을 때 놀란 뱃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움직임을 시킨 날카로운 판단이 옳았음은 새벽녘에 충분히 입증되었다. 바로 앞쪽에 길게 뻗은 슬릭이 바다 위에 보였던 것이다. 기름처럼 매끄러웠고, 그 가장자리에 주름처럼 잡힌 물결은 깊고 빠른 강어귀에서 거센 조류가 맞부딪치는 자리에 생기는 금속처럼 반들반들한 무늬를 닮았다.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라! 모두 불러 모아라!"

다구가 손잡이 막대 세 개를 몽둥이처럼 움켜쥐고 그 끝으로 앞갑판을 우레같이 두들겨, 최후의 심판 같은 그 소리로 잠든 사람들을 깨웠는데, 그들이 옷을 손에 든 채 어찌나 순식간에 나타났는지 승강구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무엇이 보이느냐?" 에이해브가 얼굴을 하늘로 쳐들며 외쳤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선장님!" 위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내려왔다.

"윗돛대 돛을 올려라! 보조돛도! 아래위로, 양쪽 모두!"

돛을 모두 펴자 그는 큰돛대 맨 꼭대기로 자기를 끌어 올리려고 따로 마련해 둔 구명줄을 풀었다. 그리고 몇 순간 뒤 사람들이 그를 그리로 끌어 올리고 있을 때, 아직 3분의 2쯤밖에 오르지 않았을 때, 그는 큰중간돛과 윗돛대 돛 사이로 가로로 트인 빈 데로 앞을 내다보다가 갈매기 같은 외침을 허공에 질렀다. "저기 물을 뿜는다! 저기 물을 뿜는다! 눈 덮인 언덕 같은 혹이다! 모비 딕이다!"

세 망꾼이 동시에 받아 외치는 듯한 그 외침에 불이 붙은 갑판 위의 선원들은, 그토록 오래 쫓아온 그 이름난 고래를 보려고 삭구로 달려갔다. 에이해브는 이제 마지막 망보는 자리에 이르렀는데, 다른 망꾼들보다 몇 피트 위였고, 태시테고는 그 바로 아래 윗돛대의 모자 같은 덮개 위에 서 있어서 그 인디언의 머리가 에이해브의 발뒤꿈치와 거의 같은 높이에 있었다. 이 높이에서 보니 고래는 1마일쯤 앞에 있었고, 바다가 굴러갈 때마다 반짝이는 높은 혹을 드러내며 소리 없는 물줄기를 꼬박꼬박 허공으로 뿜어 올렸다. 쉽게 믿는 뱃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토록 오래전 달빛 비치는 대서양과 인도양에서 보았던 그 소리 없는 물줄기와 같은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저것을 먼저 보지 못했느냐?" 에이해브가 둘레에 올라앉은 사람들을 부르며 외쳤다.

"저도 에이해브 선장님과 거의 같은 순간에 보고 외쳤습니다, 선장님." 태시테고가 말했다.

"같은 순간이 아니다. 같지 않았다. 아니다, 금화는 내 것이다. 운명이 금화를 나를 위해 남겨 두었다. *나*만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흰 고래를 맨 먼저 찾아낼 수는 없었다. 저기 물을 뿜는다! 저기 물을 뿜는다! 저기

물을 뿜는다! 또 저기! 또 저기!" 그는 눈에 보이는 고래의 물줄기가 차츰 길게 이어지는 데 맞추어, 길게 끌며 머뭇거리는, 꼬박꼬박 박자를 맞춘 소리로 외쳤다. "놈이 잠수하려 한다! 보조돛을 걷어라! 윗돛대 돛을 내려라! 보트 세 척 준비해라. 스타벅, 명심해라, 너는 배에 남아 배를 지켜라. 거기 키! 바람 쪽으로, 바람 쪽으로 한 점만! 그렇지. 그대로, 이 사람아, 그대로! 꼬리지느러미가 넘어간다! 아니다, 아니다. 검은 물일 뿐이다! 거기 보트들 다 됐느냐? 준비해라, 준비해라! 나를 내려라, 스타벅. 내려라, 내려라, 빨리, 더 빨리!" 그리고 그는 허공을 미끄러져 갑판으로 내려왔다.

"놈은 곧장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장님." 스터브가 외쳤다. "우리한테서 곧장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배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입 다물어라, 이 사람아! 활대 줄에 붙어라! 키를 끝까지 내려라! 활대를 당겨라! 돛을 떨게 해라! 떨게 해라! 그렇지. 그만하면 됐다! 보트, 보트!"

곧 스타벅의 보트를 뺀 모든 보트가 내려졌다. 보트의 돛을 모두 올리고 손노를 모두 저으며, 물결을 가르는 빠르기로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쏜살같이 나아갔고, 에이해브가 돌격의 선두에 섰다. 창백한 죽음의 빛이 페달라의 움푹 꺼진 눈을 밝혔고, 흉측한 움직임이 그의 입을 갉아 댔다.

소리 없는 앵무조개 껍데기처럼 가벼운 뱃머리들이 바다를 헤치고 내달렸다. 그러나 원수에게는 천천히 다가갈 뿐이었다. 그들이 다가갈수록 바다는 한층 더 매끄러워졌다. 물결 위에 융단을 끌어 덮는 것 같았고, 한낮의 풀밭 같았다. 그토록 평온하게 펼쳐져 있었다. 마침내 숨죽인 사냥꾼이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먹이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자, 눈부신 혹 전체가 뚜렷이 보였는데, 혹은 따로 떨어진 무엇인 양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가며, 더없이 곱고 양털 같은 푸르스름한 거품의 고리에 쉬지 않고 둘러싸여 돌았다. 그는 그 너머로 조금 비어져 나온 머리의 거대하고 얽힌 주름을 보았다. 그 앞으로, 부드러운 터키 융단 같은 물 위 멀리, 넓고 젖빛 나는 이마에서 번들거리는 흰 그림자가 나아갔고, 음악 같은 잔물결이 장난스럽게 그 그림자를 따라갔다. 그리고 뒤로는 푸른 물이 번갈아 그의 한결같은 항적이 이룬 움직이는 골짜기로 흘러넘쳤으며, 양쪽에서는 반짝이는 거품이 솟아 그의 곁에서 춤추었다. 그러나 그 거품은 바다를 사뿐히 깃털로 스치며 변덕스럽게 날다 앉다 하는 수백 마리 흥겨운 새들의 가벼운 발가락에 다시 부서졌다. 그리고 채색한 큰 상선의 선체에서 솟은 깃대처럼, 최근에 꽂힌 창의 길지만 부러진 자루가 흰 고래의 등에서 비죽 솟아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물고기 위에 닫집처럼 맴돌며 이리저리 스치듯 나는 발가락 부드러운 새 떼 가운데 한 마리가 소리 없이 이 자루에 내려앉아 흔들렸고, 긴 꽁지깃이 장대 끝 깃발처럼 나부꼈다.

다정한 즐거움이, 빠름 속에 깃든 휴식의 엄청난 부드러움이 미끄러져 가는 고래를 감쌌다. 빼앗은 에우로페가 우아한 뿔에 매달린 채로 헤엄쳐 가던 흰 황소 유피테르도, 사랑스럽게 곁눈질하는 눈을 옆으로 처녀에게 쏟으며, 매끄럽고 홀리는 빠르기로 크레타의 신방을 향해 잔물결을 일으키며 곧장 나아가던 그도, 유피테르도, 그 위대하고 지고한 위엄도 그렇게 신처럼 헤엄치는 영광에 싸인 흰 고래를 넘어서지 못했다.

부드러운 양 옆구리마다, 갈라진 너울이 한 번 그를 떠나면 그토록 멀리 넓게 흘러가 버리는 데 맞추어, 반짝이는 양 옆구리마다, 고래는 유혹을 흘려보냈다. 사냥꾼들 가운데 이 모든 평온에 이름 모를 황홀과 유혹을 느껴 감히 덤벼들었다가, 그 고요가 회오리바람이 입은 옷일 뿐임을 치명적으로 깨달은 이들이 있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래도

고요하게, 유혹하는 고요로, 오 고래여! 너는 너를 처음 보는 모든 이에게 미끄러져 다가간다. 전에 네가 그렇게 같은 수로 몇이나 속이고 죽였든 상관없이.

그리하여 열대 바다의 평온한 고요 속을, 지극한 황홀에 겨워 손뼉 치기를 멈춘 물결 사이를, 모비 딕은 여전히 물에 잠긴 몸통의 온전한 공포를 보이지 않고, 비틀린 턱의 흉측함을 송두리째 감춘 채 나아갔다. 그러나 곧 몸 앞부분이 천천히 물 위로 솟았다. 한순간 대리석 무늬의 몸 전체가 버지니아의 자연교처럼 높은 아치를 이루었고, 깃발 같은 꼬리지느러미를 경고하듯 허공에 흔들며 그 위대한 신은 모습을 드러냈다가 잠수하여 시야에서 사라졌다. 흰 바닷새들은 맴돌며 멈추었다가 날개를 기울여 내려앉으며, 그가 남긴 출렁이는 웅덩이 위에 아쉬운 듯 머물렀다.

노를 곧추세우고 손노를 내려놓고 돛 아딧줄을 풀어 둔 채, 세 보트는 이제 고요히 떠서 모비 딕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한 시간이다." 에이해브가 제 보트의 고물에 뿌리박힌 듯 서서 말했다. 그리고 고래가 있던 자리 너머, 바람 불어 가는 쪽의 흐릿한 푸른 공간과 넓게 손짓하는 빈 곳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한순간뿐이었다. 그가 물의 원을 훑어보자 다시 그의 눈알이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제 바람이 거세졌다. 바다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새다! 새다!" 태시테고가 외쳤다.

왜가리가 날아오를 때처럼 길게 한 줄로 늘어서서, 흰 새들이 이제 모두 에이해브의 보트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고, 몇 야드 안까지 오자 거기 물 위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기쁘고 기대에 찬 울음을 울며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다. 새들의 눈은 사람의 눈보다 날카로웠다. 에이해브는 바다에서 아무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바다

깊은 곳을 자꾸만 내려다보다가, 문득 그 깊은 데서 흰 족제비보다 크지 않은 살아 있는 흰 점 하나가 놀랍도록 빠르게 솟아오르며 솟을수록 커지다가 마침내 뒤집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찾을 수 없는 밑바닥에서 떠오르는 희고 번들거리는 이빨 두 줄이 길고 구불구불하게 또렷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모비 딕이 벌린 입과 두루마리처럼 말린 턱이었다. 그늘진 거대한 몸뚱이는 아직 반쯤 바다의 푸른빛에 섞여 있었다. 번득이는 입이 문이 열린 대리석 무덤처럼 보트 밑에서 쩍 벌어지자, 에이해브는 고물 조종 노를 한 번 옆으로 휘둘러 이 무시무시한 환영에게서 보트를 휙 비켜 돌렸다. 그러고는 페달라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하고 뱃머리로 가서, 퍼스의 작살을 움켜쥐고 선원들에게 노를 잡고 뒤로 저을 채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이렇게 때맞추어 보트를 제자리에서 빙글 돌린 덕에, 고래의 머리가 아직 물속에 있을 때 미리 뱃머리를 그 머리 쪽으로 향하게 해 둘 수 있었다. 그러나 모비 딕은 이 계략을 알아챈 듯, 저에게 있다고들 하는 그 악의 어린 지혜로, 이를테면 순식간에 몸을 옆으로 옮겨 놓더니, 주름진 머리를 보트 밑으로 길게 쑥 들이밀었다.

속속들이, 모든 널빤지와 갈빗대 하나하나를 꿰뚫고, 한순간 떨림이 지나갔다. 고래는 물어뜯는 상어처럼 비스듬히 몸을 뒤집고 누워, 천천히 맛보듯이 보트의 뱃머리를 입안 가득 물었고, 그래서 길고 좁고 두루마리처럼 말린 아래턱이 바깥 허공으로 높이 휘어 올랐고, 이빨 하나가 노걸이에 걸렸다. 턱 안쪽의 푸르스름한 진주빛 흰색이 에이해브의 머리에서 6인치 안에 있었고, 그보다 더 높이 솟아 있었다. 이런 자세로 흰 고래는 이제 순하게 잔인한 고양이가 쥐를 흔들듯 그 가벼운 삼나무 보트를 흔들었다. 페달라는 놀라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며 팔짱을 끼었으나, 호랑이처럼 누런 선원들은 맨 고물에 닿으려고 서로의 머리 위로 엎치락뒤치락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고래가 운이 다한 보트를 이렇게 악마처럼 가지고 노는 동안 탄력 있는 양쪽 뱃전이 안팎으로 휘청휘청 튀었고, 고래의 몸이 보트 밑에 잠겨 있었기에, 이를테면 뱃머리가 거의 고래 몸속에 들어가 있었기에 뱃머리에서 작살을 던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보트들이 맞설 수 없는 급박한 위기 앞에서처럼 저도 모르게 멈춰 서 있는 동안, 바로 그때 편집광 에이해브는, 원수가 이렇게 애태우며 바싹 다가와 저 미운 턱 속에 산 채로 꼼짝 못 하게 저를 들이밀어 놓은 데 격분하여, 이 모든 것에 미쳐 날뛰며, 맨손으로 그 긴 뼈를 움켜잡고 그것을 비틀어 떼어 내려고 사납게 애썼다. 그가 그렇게 헛되이 애쓰는 동안 턱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그리고 두 턱이 거대한 가위처럼 고물 쪽으로 더 미끄러지며 보트를 완전히 두 동강으로 물어 끊고는, 떠다니는 두 잔해 사이 한가운데 바닷속에서 다시 꽉 맞물리자, 연약한 뱃전이 안으로 휘어지고 무너져 뚝 부러졌다. 두 잔해는 부러진 끝을 늘어뜨린 채 옆으로 떠갔고, 고물 쪽 잔해의 선원들은 뱃전에 매달려 노를 꽉 붙잡고 가로질러 묶으려 애썼다.

보트가 아직 부러지기 전, 그 서막 같은 순간에, 고래가 교활하게 머리를 쳐들어, 그 움직임 때문에 잠시 무는 힘이 풀리는 것을 보고 맨 먼저 고래의 속셈을 알아챈 에이해브는, 그 순간 그의 손으로 보트를 물린 데서 밀어내려고 마지막으로 한 번 애썼다. 그러나 보트는 고래의 입속으로 더 미끄러져 들어가며 미끄러지는 대로 옆으로 기울었고, 그 바람에 턱을 붙잡은 그의 손을 떨어내고, 그가 밀려고 몸을 기울인 참에 그를 보트 밖으로 쏟아 버렸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바다에 처박으며 엎어졌다.

모비 딕은 이제 먹이에게서 잔물결을 일으키며 물러나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 기다란 흰 머리를 큰 물결 속에서 위아래로 꼿꼿이 내밀었다 넣었다 했다. 그와 동시에 방추 같은 몸 전체를 천천히 돌렸다. 그래서

그 거대한 주름진 이마가 물 위로 20피트 넘게 솟을 때면, 이제 솟아오르는 너울이 합쳐진 온갖 물결과 함께 그 이마에 눈부시게 부서지며, 산산이 부서진 물보라를 앙심을 품은 듯 더 높이 허공으로 내던졌다.[1] 그렇듯 강풍 속에서 반쯤만 꺾인 영국 해협의 큰 물결은 에디스톤 등대의 밑동에서 물러났다가 의기양양하게 물보라로 그 꼭대기를 뛰어넘는다.

그러나 곧 다시 몸을 가로로 누인 모비 딕은 부서진 보트의 선원들 둘레를 빠르게 빙글빙글 돌며 헤엄쳤는데, 앙갚음하려는 항적 속에서 옆으로 물을 휘저으며, 또 한 번의 더 치명적인 습격을 하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 같았다. 산산조각 난 보트를 보자 놈은 미쳐 날뛰는 것 같았다. 마카베오서에서 안티오코스의 코끼리들 앞에 던져 준 포도와 오디의 피가 코끼리들을 미치게 했듯이. 그동안 에이해브는 고래의 오만한 꼬리가 일으킨 거품 속에서 반쯤 숨이 막혔고, 헤엄치기에는 너무 불구였다. 그래도 그런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도 아직 떠 있을 수는 있었으니, 어쩔 도리 없는 에이해브의 머리가, 아주 작은 우연한 충격에도 터질 것 같은 이리저리 튕기는 거품처럼 보였다. 보트의 부서진 고물에서 페달라는 무심하고 온화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떠가는 다른 쪽 끝에 매달린 선원들은 그를 구할 수 없었다. 저희 몸을 돌보기에도 벅찼다. 흰 고래의 모습은 빙빙 돌며 그토록 오싹했고, 놈이 그리는 쉼 없이 좁혀 드는 원은 행성처럼 그토록 빨라서, 놈이 그들을 향해 가로로 덮쳐 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친 데 없는 다른 보트들이 아직 바로 곁에서 맴돌고 있었으나, 그들은 감히 소용돌이 속으로 저어 들어가 작살을 박지 못했다. 그것이 에이해브를 비롯해 위험에 빠진 표류자들을 순식간에 몰살하는 신호가 될까 두려웠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빠져나가기를 바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핏발을 세운 채 그 무시무시한 테두리의 바깥 가장자리에 머물렀는데, 그 테두리의 한가운데는 이제 노인의 머리가 되어 있었다.

그동안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배의 돛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이고 있었으므로, 배는 활대를 바로 돌려 현장으로 내려왔고, 이제 아주 가까이 와 있어서 물속의 에이해브가 배를 불렀다! "배를 몰아……" 그러나 그 순간 모비 딕에게서 부서지는 파도가 그를 덮쳐 잠시 삼켜 버렸다. 그러나 다시 몸부림쳐 빠져나와 마침 높이 솟은 물마루 위로 떠오르자, 그는 외쳤다. "배를 몰아 고래에게 들이대라! 놈을 쫓아 버려라!"

피쿼드호의 뱃머리가 그리로 향했다. 그리고 그 마법의 원을 깨뜨리며 흰 고래를 그 희생자에게서 효과 있게 떼어 놓았고, 고래가 뿌루퉁하게 헤엄쳐 멀어지자 보트들이 구조하러 날듯이 달려갔다.

핏발 서고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주름살마다 흰 소금물이 말라붙은 채 스터브의 보트로 끌려 올라오자, 오래 팽팽하게 버티던 에이해브의 육신의 힘이 정말로 탁 끊어졌다. 그는 어쩔 도리 없이 육신의 운명에 몸을 내맡긴 채, 한동안 코끼리 떼의 발에 짓밟힌 사람처럼 스터브의 보트 바닥에 온통 짓뭉개진 듯 누워 있었다. 먼 내륙에서, 골짜기에서 나오는 황량한 소리처럼, 이름 모를 신음이 그에게서 새어 나왔다.

그러나 육신이 이토록 격렬하게 쓰러졌기에 그만큼 그 쓰러짐은 더 짧았다. 위대한 마음은 때로 더 약한 사람들의 온 생애에 걸쳐 다행히 엷게 퍼져 있는 얕은 고통들의 총합을 한순간의 테두리 안에 깊은 아픔 하나로 응축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고통 하나하나는 짧게 치르지만, 신들이 그렇게 정하면, 평생에 걸쳐 오로지 순간순간의 격렬함으로만 이루어진 한 시대의 비통을 모두 모아 쌓는다. 그런 고귀한 천성은 넓이 없는 한가운데에조차 열등한 영혼들의 온 둘레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작살은." 에이해브가 반쯤 몸을 일으켜, 구부린 한 팔에 힘겹게 기대며 말했다. "작살은 무사하냐?"

"예, 선장님, 던지지 않았으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스터브가 그것을 보여 주며 말했다.

"내 앞에 놓아라. 없어진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노가 다섯이었습니다, 선장님. 그리고 여기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좋다. 나를 거들어라, 이 사람아. 일어서고 싶다. 그래, 그래, 놈이 보인다! 저기! 저기! 아직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저 펄쩍 솟는 물줄기 좀 보아라! 손을 놓아라! 영원한 수액이 에이해브의 뼈에 다시 차오른다! 돛을 올려라. 노를 내밀어라. 키를!"

보트 한 척이 박살 나면 그 선원들이 다른 보트에 건져 올려져 그 둘째 보트의 일을 거드는 일이 흔한데, 그렇게 해서 이른바 겹노를 저으며 추격을 이어 간다. 이번에도 그랬다. 그러나 보트에 더해진 힘은 고래에게 더해진 힘에 미치지 못했다. 고래는 지느러미 하나하나에 세 겹으로 노를 단 것 같았다. 놈은 이런 사정에서 지금 추격을 밀어붙인다면 끝없이 길어지는 추격이 될 것이 뻔한, 가망 없는 추격까지는 아니라 해도 그럴 것이 뻔한 빠르기로 헤엄쳤다. 그리고 어떤 선원도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쉼 없이 혼신을 다해 노를 저을 수는 없었으니, 그것은 어느 한 번의 짧은 고비에서나 겨우 견딜 만한 일이었다. 그래서 때로 그렇듯이, 배 자체가 추격을 따라잡을 가장 가망 있는 중간 수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보트들은 배로 향했고, 부서진 보트의 두 동강을 미리 배에 거두어 둔 뒤 곧 보트 걸이로 끌어 올려졌다. 그리고 모든 것을 뱃전으로 끌어 올리고 돛을 높이 쌓아 올려, 앨버트로스의 이중 관절 날개처럼 보조돛으로 옆으로 활짝 펴서, 피쿼드호는 모비 딕의 바람 불어 가는 쪽 항적을 따라 내려갔다. 잘 아는

대로 꼬박꼬박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람이 오른 돛대 꼭대기에서 고래의 번득이는 물줄기를 어김없이 알려 왔다. 그리고 고래가 방금 잠수했다고 알려 오면, 에이해브는 시각을 재고, 나침반 함 시계를 손에 들고 갑판을 서성이다가, 정해진 한 시간의 마지막 초가 다하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금화는 이제 누구 것이냐? 놈이 보이느냐?" 그리고 대답이 "안 보입니다, 선장님!"이면 곧바로 자기를 망보는 자리로 끌어 올리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다. 에이해브는 한동안은 위에서 꼼짝 않다가, 또 한동안은 쉬지 않고 갑판 널빤지를 서성였다.

그는 그렇게 걸으며, 위의 사람들을 부르거나 돛 하나를 더 높이 올리라고, 하나를 더 넓게 펴라고 이를 때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렇게 푹 눌러쓴 모자 밑에서 이리저리 서성이며, 돌 때마다 그는 뒷갑판에 내려놓아 거기 뒤집힌 채 놓여 있는 자기의 부서진 보트를 지나쳤는데, 부러진 뱃머리와 산산조각 난 고물이 맞닿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그 앞에서 멈추자, 이미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 새 구름 떼가 때로 가로질러 흘러가듯, 그와 같은 덧붙은 어둠이 노인의 얼굴 위로 슬며시 번졌다.

스터브는 그가 멈추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꺾이지 않은 굳셈을 보여 주어 선장의 마음속에 용감한 자리를 지키려는 뜻이었는지, 그것이 헛된 뜻은 아니었지만, 그는 앞으로 나서서 잔해를 바라보며 외쳤다. "당나귀가 마다한 엉겅퀴로군요. 입을 너무 아프게 찔렀거든요, 선장님. 하! 하!"

"부서진 배 앞에서 웃다니 이 무슨 영혼 없는 것이냐?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네가 겁 없는 불처럼 용감하다는 것을(그리고 불처럼 기계적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다면 너를 겁쟁이라고 맹세할 뻔했다. 부서진 배 앞에서는 신음도 웃음도 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선장님." 스타벅이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엄숙한 광경입니다. 징조입니다. 불길한 징조입니다."

"징조? 징조라고? 사전이나 찾아보아라! 신들이 사람에게 대놓고 말할 생각이라면 떳떳하게 대놓고 말하리라. 고개를 저으며 늙은 아낙들처럼 어두운 귀띔이나 하지는 않으리라. 물러가라! 너희 둘은 한 사물의 맞은편 두 극이다. 스타벅은 뒤집은 스터브이고 스터브는 스타벅이다. 그리고 너희 둘이 온 인류다. 그리고 에이해브는 사람이 사는 땅의 수백만 사이에 홀로 서 있다. 신들도 사람들도 그의 이웃이 아니다! 춥다, 춥다. 몸이 떨린다! 어떠냐? 거기 위! 놈이 보이느냐? 물줄기마다 소리쳐 알려라, 놈이 1초에 열 번을 뿜더라도!"

하루가 거의 다 저물었다. 해의 황금 옷자락 끝만이 바스락거렸다. 곧 거의 어두워졌지만 망꾼들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이제 물줄기가 안 보입니다, 선장님. 너무 어둡습니다." 허공에서 한 목소리가 외쳤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어디로 향하더냐?"

"아까와 같습니다, 선장님. 곧장 바람 불어 가는 쪽입니다."

"좋다! 이제 밤이니 놈은 더 천천히 가리라. 맨 윗돛과 윗돛대 보조돛을 내려라, 스타벅. 아침이 되기 전에 놈을 지나쳐 달려서는 안 된다. 놈은 지금 먼 길을 가는 중이고, 잠시 멈추어 쉴지도 모른다. 거기 키! 바람을 등지고 돛을 가득 채워 나아가라! 위에! 내려오너라! 스터브, 앞돛대 꼭대기에 새 사람을 올려 보내고, 아침까지 사람이 지키게 해라." 그러고는 큰돛대에 박힌 금화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얘들아, 이 금은 내 것이다. 내가 벌었으니까. 그러나 흰 고래가 죽을 때까지 여기 그대로 두겠다. 그리고 놈이 죽임을 당하는 날, 너희 가운데 누구든 놈을 맨 먼저 찾아내는 자, 이 금은 그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내가 다시

놈을 찾아낸다면, 이 금의 열 배를 너희 모두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제 물러가라! 갑판은 네게 맡긴다, 스타벅!"

그렇게 말하고 그는 승강구 안으로 몸을 반쯤 들여놓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이따금 몸을 일으켜 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살필 때 말고는 새벽까지 거기 서 있었다.

---

1. 이 움직임은 향유고래만의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창 날리기」라는 기술에서 고래 창을 던지기 전에 위아래로 겨누는 동작에 빗대어 그런 이름(창 날리기)이 붙었다. 이 움직임으로 고래는 저를 둘러싼 것이 무엇이든 가장 잘, 가장 두루 살펴볼 수 있음이 틀림없다.

제134장 추격, 둘째 날

날이 밝자 세 돛대 꼭대기에 어김없이 새 망꾼들이 올라갔다.

"놈이 보이느냐?" 에이해브가 빛이 퍼질 틈을 잠깐 준 뒤 외쳤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선장님."

"모두 깨워 돛을 올려라! 놈은 내 생각보다 빨리 간다. 윗돛대 돛을 올려라! 그래, 밤새 그 돛을 달아 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상관없다. 돌진하려고 쉬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말해 두어야 할 것은, 이렇게 한 마리 고래를 끈질기게 쫓아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추격을 이어 가는 것이 남태평양 포경에서 결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낸터킷 선장들 가운데 타고난 위대한 천재 몇몇이 얻은 놀라운 솜씨와 경험에서 오는 앞을 내다보는 눈과 꺾이지 않는 자신감은 대단해서, 고래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의 모습을 그저 관찰한 것만으로도,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동안 고래가 한동안 계속 헤엄쳐 갈 방향과 그동안 나아갈 법한 속력을 꽤 정확히 미리 알아맞힌다. 그리고 이런 때 그들은 수로 안내인과 얼마쯤 비슷하게 한다. 수로 안내인은 대체로 어떻게 뻗어 있는지 잘 아는 해안, 그러나 머지않아 더 먼 지점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해안을 막 시야에서 놓치려 할 때, 나중에 찾아가야 할 멀고 보이지 않는 곳을 더 확실히 바로 맞히려고 나침반 곁에 서서 지금 보이는 곳의 방위를 정확히 잰다. 그와 같이 고래잡이도 나침반 곁에서 고래를 두고 그렇게 한다. 낮 동안 몇 시간에 걸쳐 쫓으며 부지런히 지켜본 뒤에는,

밤이 그 물고기를 가려도, 어둠을 지나가는 그 짐승이 앞으로 남길 항적이 슬기로운 사냥꾼의 머리에는 수로 안내인에게 해안이 그렇듯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냥꾼의 놀라운 솜씨에는, 물 위에 쓴 글처럼 덧없기로 소문난 것, 곧 항적도 바라는 목적에는 굳건한 땅만큼이나 거의 믿을 만하다. 그리고 오늘날 철도라는 무쇠로 된 거대한 리워야단은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어찌나 낯익게 알려져 있는지, 사람들은 의사가 아기의 맥박을 재듯 손에 시계를 들고 그 속력을 재고, 상행 열차나 하행 열차가 몇 시에 어디어디에 닿으리라고 가볍게 말한다. 그와 거의 같이, 이 낸터킷 사람들도 깊은 바다의 그 다른 리워야단을 두고 관찰한 그 속력의 기분에 따라 시간을 재고, 지금부터 몇 시간 뒤면 이 고래는 200마일을 갔을 것이고 대략 이러저러한 위도나 경도에 이르렀으리라고 혼잣말을 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런 날카로움이 끝내 성공을 거두려면 바람과 바다가 포경선원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 바람이 자서 꼼짝 못 하거나 맞바람에 갇힌 뱃사람에게, 항구에서 정확히 93과 4분의 1리그 떨어져 있다고 확신시켜 주는 솜씨가 당장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에서 고래 추격에 관한 여러 곁가지의 미묘한 일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배는 찢어발기듯 내달렸다. 잘못 쏘아 보낸 포탄이 쟁깃날이 되어 평평한 들판을 갈아엎을 때 같은 고랑을 바다에 남기며.

"소금과 삼밧줄에 걸고!" 스터브가 외쳤다. "갑판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니 다리를 타고 기어올라 심장이 짜릿짜릿하구나. 이 배와 나는 용감한 친구 둘이다! 하, 하! 누가 나를 들어다가 등뼈부터 바다에 띄워 줘라. 참나무에 걸고 말하지만 내 등뼈는 용골이니까. 하, 하! 우리는 먼지 하나 뒤에 남기지 않는 걸음으로 간다!"

"저기 물을 뿜는다, 뿜는다! 뿜는다! 바로 앞입니다!" 이제 돛대 꼭대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래!" 스터브가 외쳤다. "그럴 줄 알았다. 넌 못 달아난다. 실컷 뿜어서 물줄기가 쪼개지도록 뿜어라, 오 고래여! 미친 악마가 몸소 너를 쫓는다! 나팔을 불어라, 허파가 부르트도록! 방앗간 주인이 개울에 수문을 닫듯 에이해브가 네 피를 둑으로 막아 버릴 테니!"

그리고 스터브는 거의 모든 선원의 마음을 대신 말했을 뿐이었으니, 이 무렵 추격의 광란은 다시 발효하는 묵은 포도주처럼 그들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이 전에 어떤 창백한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을 느꼈든, 그것은 에이해브에 대한 점점 커 가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졌을 뿐 아니라, 뛰어 달리는 들소 앞에서 흩어지는 겁 많은 초원 산토끼처럼 산산이 깨져 사방으로 쫓겨났다. 운명의 손이 그들의 영혼을 모두 낚아챘다. 그리고 전날의 들끓는 위험, 간밤의 고문 같은 마음 졸임, 그들의 사나운 배가 날아가는 과녁을 향해 곤두박질쳐 나아가는 꼼짝 않고 두려움 없고 눈멀고 무모한 모습, 이 모든 것에 그들의 마음은 굴러가듯 휩쓸려 갔다. 그들의 돛을 커다란 배처럼 부풀리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팔로 배를 몰아 내닫게 하는 바람, 그 바람은 그들을 그토록 경주에 얽매어 노예로 만든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상징 같았다.

그들은 서른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 그들을 모두 실은 하나의 배는 참나무와 단풍나무와 소나무, 쇠와 역청과 삼처럼 온갖 서로 다른 것들로 짜 맞추어졌지만, 그 모든 것이 한데 녹아들어 하나로 굳은 선체가 되었고, 그 선체는 길게 한가운데를 지르는 용골로 균형을 잡고 방향을 잡으며 제 길을 쏜살같이 나아갔다. 그와 같이 선원들의 모든 개성도, 이 사람의 용맹과 저 사람의 두려움도, 죄와 죄지음도, 온갖

다름이 단조되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하나뿐인 군주이자 용골인 에이해브가 가리키는 그 치명적인 목표를 모두 향했다.

삭구가 살아 움직였다. 돛대 꼭대기들은 키 큰 야자나무 우듬지처럼 팔과 다리가 다발로 활짝 퍼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한 손으로 활대에 매달려 다른 손을 내밀며 조바심치듯 흔들었고, 다른 이들은 눈부신 햇빛을 손으로 가리고 흔들리는 활대 위에 멀리 나가 앉아 있었으며, 모든 활대에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 열매처럼 가득 달려, 제 운명을 맞을 채비가 되어 무르익어 있었다. 아! 그들은 그 끝없는 푸름 속에서 저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를 그것을 찾아내려고 어찌나 애를 썼던가!

"놈이 보이면 왜 소리쳐 알리지 않느냐?" 에이해브가 외쳤다. 첫 외침이 있고 몇 분이 지나도록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나를 끌어 올려라, 얘들아. 너희는 속았다. 모비 딕이라면 저쪽으로 별난 물줄기 하나만 뿜고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말 그랬다. 곧 일 자체가 증명했듯이, 선원들은 앞뒤 가리지 않는 열성에 다른 무언가를 고래의 물줄기로 잘못 보았던 것이다. 에이해브가 망보는 자리에 이르자마자, 밧줄을 갑판의 말뚝에 매자마자, 그는 관현악의 으뜸음을 울렸고, 그 소리에 대기가 소총을 한꺼번에 쏘아 대는 듯 떨렸다. 사슴 가죽 같은 서른 개의 허파가 지르는 승리의 함성이 들렸다. 상상 속 물줄기가 있던 자리보다 배에 훨씬 가까이, 1마일도 안 되는 앞쪽에서, 모비 딕이 온몸을 드러내며 터져 나왔던 것이다! 흰 고래는 이제 고요하고 느긋하게 물을 뿜어서도 아니고, 머릿속 그 신비로운 샘이 평화롭게 솟구쳐서도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현상인 몸 솟구치기로 제가 가까이 있음을 드러냈다. 향유고래는 가장 깊은 데서부터 있는 힘껏 빠르게 솟아올라 그 몸뚱이 전체를 순수한 대기 속으로 쾅 하고 내던지고, 눈부신 거품의 산을 쌓아 올려, 7마일 넘는 먼 데까지 제 자리를 보여 준다. 그런 순간에 놈이 털어 내는

찢기고 성난 파도는 놈의 갈기처럼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이 몸 솟구치기가 놈의 도전의 몸짓이다.

"저기 몸을 솟구친다! 저기 몸을 솟구친다!" 흰 고래가 헤아릴 수 없는 허세를 부리며 연어처럼 하늘로 제 몸을 내던지자 그런 외침이 터졌다. 바다의 푸른 벌판에서 그토록 갑자기 보이고, 한층 더 푸른 하늘 가장자리를 배경으로 또렷이 드러나, 놈이 일으킨 물보라가 잠깐 빙하처럼 견딜 수 없이 번득이며 눈부시게 빛났다. 그리고 물보라는 거기 서서, 처음의 반짝이는 강렬함에서 골짜기로 다가오는 소나기의 흐릿한 안개처럼 차츰차츰 바래 갔다.

"그래, 해를 향해 마지막으로 몸을 솟구쳐라, 모비 딕!" 에이해브가 외쳤다. "너의 시간과 너의 작살이 가까이 왔다! 내려와라! 모두 내려와라, 앞돛대에 한 사람만 남기고. 보트를! 준비해라!"

선원들은 지루한 돛대 밧줄 줄사다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따로 떨어진 뒷버팀줄과 돛 올림줄을 타고 별똥별처럼 갑판으로 미끄러져 내려왔고, 그동안 에이해브는 그만큼 쏜살같지는 않아도 여전히 빠르게 망보는 자리에서 내려졌다.

"내려라." 그는 전날 오후에 장비를 갖춘 예비 보트인 자기 보트에 이르자마자 외쳤다. "스타벅, 배는 네 것이다. 보트들에서 떨어져 있되, 가까이 있어라. 모두 내려라!"

마치 그들에게 재빨리 공포를 안겨 주려는 듯, 이번에는 모비 딕이 몸소 먼저 공격하는 쪽이 되어 몸을 돌려 이제 세 보트의 선원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에이해브의 보트가 가운데 있었고, 그는 선원들을 북돋우며 고래와 머리 대 머리로, 곧 놈의 이마를 향해 곧장 저어 가 맞붙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느 거리 안에 들어가면 그런 항로가 다가오는 공격을 고래의 옆으로 보는 시야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까운 거리에 이르기도 전에,

그리고 세 보트가 모두 아직 놈의 눈에 배의 세 돛대만큼이나 뚜렷이 보이는 동안, 흰 고래는 몸을 휘저어 맹렬한 속력을 내더니, 이를테면 거의 순식간에 입을 벌리고 꼬리를 휘두르며 보트들 사이로 돌진해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싸움을 걸어왔다. 그리고 보트마다 던지는 작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보트들을 이루는 널빤지 하나하나를 모조리 없애 버리는 데만 마음을 쏟는 것 같았다. 그러나 솜씨 있게 움직이며 싸움터에서 길들인 군마처럼 쉴 새 없이 방향을 트는 보트들은 때로는 널빤지 한 장 너비 차이로 겨우 피하면서도 한동안 놈을 피했고, 그동안 내내 에이해브의 이 세상 것 아닌 함성이 그의 것 말고 다른 모든 외침을 갈가리 찢어 놓았다.

그러나 마침내 흰 고래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몸놀림으로 이리저리 가로지르고 또 가로질러, 이제 놈에게 박힌 세 작살줄의 느슨한 부분을 천 가지로 얽어 놓았다. 그래서 줄들이 짧아지며 저절로 그 운 다한 보트들을 놈의 몸에 박힌 작살 쪽으로 끌어당겼는데, 이제 잠깐 고래가 더 무시무시한 돌격을 하려고 기운을 모으는 듯 조금 옆으로 비켜났다. 그 틈을 잡아 에이해브는 먼저 줄을 더 풀어 주었다가, 그렇게 해서 얽힌 데를 얼마쯤 풀어 보려고 다시 재빨리 줄을 당기고 잡아채고 있었다. 그때 보라! 상어들이 진을 친 이빨보다 더 사나운 광경이었다!

작살줄의 미로 속에 걸려 비틀리고 코르크 마개뽑이처럼 꼬인 채, 헐거운 작살과 창들이 곤두선 미늘과 날끝을 모두 드러내고 번득이며 물을 뚝뚝 흘리며 에이해브 보트 뱃머리의 줄받이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보트 칼을 움켜쥐고, 강철 살대 사이로, 그 안으로, 그것을 뚫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 아슬아슬하게 손을 뻗어, 그 너머의 줄을 끌어당겨 보트 안쪽의 뱃머리 노잡이에게 넘겨주었다. 그러고는 줄받이 가까이에서 밧줄을 두 번 끊어, 가로채인 강철 다발을 바다에 떨어뜨리고 다시 단단히 매였다. 그 순간 흰 고래가 다른 줄들의

남은 엉킴 사이로 갑자기 돌진했고, 그렇게 해서 더 깊이 얽혀 있던 스터브와 플래스크의 보트를 거스를 수 없이 제 꼬리지느러미 쪽으로 끌어당겨, 파도가 두들기는 바닷가에서 굴러다니는 겉껍질 두 개처럼 서로 맞부딪치게 했다. 그러고는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끓어오르는 큰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졌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동안 잔해의 향긋한 삼나무 조각들이, 재빨리 휘저은 펀치 사발 속의 갈아 넣은 육두구처럼 빙글빙글 춤추었다.

두 보트의 선원들이 아직 물속에서 맴돌며 빙빙 도는 작살줄 통과 노와 그 밖의 떠다니는 집기에 손을 뻗고 있는 동안, 꼬마 플래스크가 비스듬히 빈 약병처럼 위아래로 까딱거리며, 무시무시한 상어 이빨을 피하려고 다리를 위로 움찔움찔 끌어 올리는 동안, 스터브가 누가 자기를 국자로 떠 올려 달라고 힘차게 소리쳐 부르는 동안, 그리고 이제 끊어진 노인의 작살줄 덕분에 노인이 크림처럼 희뿌연 웅덩이로 저어 들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된 동안, 수천 가지 위험이 한데 엉겨 굳은 그 사나운 동시성 속에서, 아직 얻어맞지 않은 에이해브의 보트가 보이지 않는 철사에 끌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 같았다. 흰 고래가 화살처럼 바다에서 수직으로 솟구치며 넓은 이마로 보트 바닥을 들이받아, 보트를 허공으로 빙글빙글 뒤집히며 날아가게 했던 것이다. 마침내 보트는 뱃전을 아래로 하고 다시 떨어졌고, 에이해브와 선원들은 바닷가 동굴에서 기어 나오는 바다표범처럼 그 밑에서 몸부림쳐 빠져나왔다.

고래가 처음 솟구친 기세는 물 위에 부딪치며 방향이 바뀌어, 저도 모르게 고래를 물 위로 미끄러지게 해 놈이 만든 파괴의 한가운데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내보냈다. 그리고 그곳을 등지고, 놈은 이제 잠깐 누워 꼬리지느러미로 이쪽저쪽을 천천히 더듬었으며, 떠도는 노나 널빤지 조각이나 보트의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도 제 살갗에 닿을 때마다

꼬리를 재빨리 뒤로 당겼다가 옆으로 바다를 내리쳤다. 그러나 곧 이번에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흡족해하는 듯 주름진 이마로 대양을 밀어 헤치며, 서로 얽힌 작살줄들을 뒤에 끌고 나그네처럼 꼬박꼬박 같은 걸음으로 바람 불어 가는 쪽 길을 계속 갔다.

전과 마찬가지로 싸움 전체를 지켜본 주의 깊은 배가 다시 구조하러 내려왔고, 보트 한 척을 내려 떠다니는 선원들과 통과 노와 그 밖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건져 올려 무사히 갑판에 내려놓았다. 삔 어깨와 손목과 발목, 시퍼런 멍, 비틀린 작살과 창, 풀 수 없이 얽힌 밧줄, 산산조각 난 노와 널빤지, 이 모든 것이 거기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화는 닥치지 않은 것 같았다. 전날의 페달라처럼, 이번에는 에이해브가 제 보트의 부서진 반쪽에 굳은 얼굴로 매달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 반쪽은 비교적 쉽게 떠 있게 해 주었으므로 그는 전날의 사고 때만큼 지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부축을 받아 갑판에 올라오자 모든 눈이 그에게 박혔다. 그가 제 힘으로 서지 못하고, 그때까지 맨 앞장서서 그를 거든 스타벅의 어깨에 여전히 반쯤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고래뼈 의족이 부러져 나가고 짧고 날카로운 조각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래, 그래, 스타벅. 기대는 사람이 누구든 때로는 기대는 것이 달콤하구나. 늙은 에이해브가 지금까지보다 더 자주 기댔더라면 좋았을 것을."

"쇠고리가 버티지 못했군요, 선장님." 이제 다가온 목수가 말했다. "그 다리에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요."

"그래도 뼈가 부러진 데는 없으시겠지요, 선장님." 스터브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다.

"부러졌다! 그것도 산산조각으로 쪼개졌다, 스터브! 보이느냐. 그러나 뼈가 부러져도 늙은 에이해브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나는 내 살아

있는 뼈 어느 것도 잃어버린 이 죽은 뼈보다 털끝만큼이라도 더 나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흰 고래도, 사람도, 악마도 늙은 에이해브 본연의, 다가갈 수 없는 존재를 스치지조차 못한다. 측연이 저 바닥에 닿을 수 있느냐, 돛대가 저 지붕을 긁을 수 있느냐? 거기 위! 어느 쪽이냐?"

"바로 바람 불어 가는 쪽입니다, 선장님."

"그럼 키를 올려라. 다시 돛을 쌓아 올려라, 배지기들아! 남은 예비 보트를 내려 장비를 갖추어라. 스타벅, 가서 보트 선원들을 불러 모아라."

"먼저 뱃전까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선장님."

"오, 오, 오! 이 쪼가리가 이제 나를 어찌나 찌르는지! 저주받은 운명이여! 영혼 속의 정복할 수 없는 선장에게 이토록 비겁한 항해사가 딸려 있다니!"

"예, 선장님?"

"내 몸 말이다, 이 사람아. 너 말고. 지팡이로 쓸 것을 다오. 저기, 저 부서진 창이면 되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분명 나는 아직 그를 보지 못했다. 하늘에 걸고, 그럴 리가 없다! 없어졌다고? 어서! 모두 불러라."

노인이 넌지시 비친 생각이 맞았다. 선원들을 불러 모아 보니 파시교도가 거기 없었다.

"파시교도가!" 스터브가 외쳤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걸려서……"

"흑토병에나 걸려 뒤틀려 버려라! 모두 위로, 아래로, 선장실로, 앞갑판 선원실로 달려가라. 그를 찾아라. 없어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곧 돌아와 파시교도는 어디에도 없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렇습니다, 선장님." 스터브가 말했다. "선장님 작살줄에 엉켜 걸렸습니다. 끌려 들어가는 걸 본 것 같습니다."

"*내* 작살줄! *내* 작살줄이라고? 없어졌다고? 없어졌다고? 그 작은 낱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에 무슨 조종이 울리기에 늙은 에이해브가 종탑처럼 흔들리느냐. 작살도! 저기 저 잡동사니를 뒤집어 보아라. 보이느냐? 벼린 작살 말이다, 얘들아, 흰 고래를 위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부르튼 바보로구나! 이 손이 그것을 던졌다! 그것은 그 물고기 몸에 박혀 있다! 거기 위! 놈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어서! 모두 보트 장비를 갖추어라. 노를 모아라. 작살잡이들! 작살, 작살! 맨 윗돛을 더 높이 올려라. 아딧줄을 모두 당겨라! 거기 키! 그대로, 그대로, 목숨을 걸고! 잴 수도 없는 이 지구를 열 번이라도 돌리라. 그렇다, 지구를 곧장 꿰뚫고 잠수하더라도, 그래도 놈을 죽이고야 말리라!"

"위대하신 하나님! 단 한순간만이라도 모습을 드러내 주소서." 스타벅이 외쳤다. "노인장, 선장님은 결코, 결코 놈을 잡지 못하실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건 악마의 광기보다 더 고약합니다. 이틀을 쫓았고, 두 번이나 박살 나 산산조각이 났고, 선장님의 그 다리마저 또 한 번 밑에서 낚아채였고, 선장님의 사악한 그림자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선한 천사들이 경고를 들고 선장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이 살인 고래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라앉힐 때까지 계속 쫓아야 합니까? 놈에게 끌려 바다 밑바닥까지 가야 합니까? 놈에게 끌려 지옥까지 가야 합니까? 오, 오, 놈을 더 사냥하는 것은 불경이고 신성모독입니다!"

"스타벅, 요즈음 나는 이상하게 네게 마음이 움직였다. 우리 둘이 서로의 눈 속에서, 너도 알지, 그것을 본 그 시간부터. 그러나 이 고래의 일에서는 네 얼굴 앞면이 내게는 이 손바닥 같아야 한다. 입술도 생김새도 없는 빈 바닥 말이다. 에이해브는 영원히 에이해브다, 이 사람아. 이 모든 행위는 바꿀 수 없게 정해져 있다. 이 대양이 굴러가기 십억 년 전에 너와 내가 미리 연습한 일이다. 바보야! 나는 운명의

여신들의 부관이다. 나는 명령을 받고 움직인다. 너 아랫사람아, 너는 내 명령에 복종하도록 해라. 내 둘레에 서라, 얘들아. 너희는 그루터기까지 잘려 나간 늙은이를 본다. 부서진 창에 기대어, 외발로 겨우 버티고 선 늙은이를. 이것이 에이해브다. 그의 몸의 부분이다. 그러나 에이해브의 영혼은 백 개의 다리로 움직이는 지네다. 나는 강풍 속에서 돛대 잃은 프리깃함을 끄는 밧줄처럼 팽팽히 당겨지고 반쯤 가닥이 끊어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끊어지기 전에 너희는 내가 우지끈하는 소리를 들으리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에이해브의 굵은 밧줄이 아직도 그의 뜻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라. 얘들아, 너희는 징조라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소리 내어 웃고 한 번 더를 외쳐라! 물에 빠지는 것은 빠져 죽기 전에 두 번 물 위로 떠오르고, 다시 한 번 떠올랐다가 영원히 가라앉는다. 모비 딕도 그렇다. 놈은 이틀을 떠올랐다. 내일이 셋째 날이 되리라. 그렇다, 얘들아, 놈은 한 번 더 떠오르리라. 그러나 마지막 물을 뿜으려고 떠오를 뿐이다! 너희는 용감하다고 느끼느냐, 얘들아, 용감하다고?"

"겁 없는 불처럼요." 스터브가 외쳤다.

"그리고 불처럼 기계적이지." 에이해브가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선원들이 앞으로 가자 계속 중얼거렸다. "징조라는 것! 그리고 어제 나는 내 부서진 보트를 두고 저기 저 스타벅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오! 내 마음에 그토록 단단히 박힌 것을 남의 마음에서는 어찌나 용감하게 몰아내려 하는지! 파시교도. 파시교도! 없어졌다, 없어졌다고? 그리고 그는 앞서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보이기로 되어 있었다.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수수께끼가 있구나. 줄줄이 내려온 모든 재판관의 유령을 등에 업은 변호사들이라도 갈피를 잡지 못할 수수께끼다. 매의 부리처럼 내 뇌를 쪼아 댄다. 그래도 *나는*, *나는* 그것을 풀고야 말리라!"

땅거미가 내렸을 때 고래는 아직 바람 불어 가는 쪽에 보였다.

그래서 다시 돛을 줄였고, 모든 것이 간밤과 거의 같이 지나갔다. 다만 거의 날이 샐 때까지 망치 소리와 숫돌 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선원들이 등불을 켜 놓고 예비 보트의 장비를 완전히 꼼꼼하게 갖추고 내일을 위해 새 무기를 벼리느라 애썼기 때문이다. 그동안 목수는 에이해브의 부서진 보트의 부러진 용골로 그에게 또 하나의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에이해브는 간밤처럼 여전히 모자를 푹 눌러쓰고 승강구 안에 꼼짝 않고 서 있었으며, 감추어진 그의 해바라기 같은 눈길은 해를 미리 맞으려고 그 시계판을 거꾸로 돌아가, 가장 이른 해를 향해 정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제135장 추격, 셋째 날

셋째 날 아침은 맑고 상쾌하게 밝았고, 다시 한번 앞돛대 꼭대기에서 홀로 밤을 지킨 사람은 돛대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활대마다 점점이 박힌 낮 망꾼들 무리와 교대했다.

"놈이 보이느냐?" 에이해브가 외쳤다. 그러나 고래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어김없는 놈의 항적 안에 있다. 그 항적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거기 키, 가던 대로, 지금까지 가던 대로 그대로 가라. 오늘도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냐! 이것이 새로 만든 세상이고, 천사들의 여름 별장으로 만든 것이고, 오늘 아침이 천사들에게 처음 문을 여는 날이라 해도, 그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밝을 수는 없으리라. 에이해브에게 생각할 겨를이 있다면 여기 생각할 거리가 있다. 그러나 에이해브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느끼고, 느끼고, 느낄 뿐이다. 죽을 운명의 인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짜릿하다! 생각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하나님만이 그 권리와 특권을 지니신다. 생각이란 서늘함이고 고요함이다. 아니, 그래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가엾은 심장은 너무 두근거리고, 우리의 가엾은 뇌는 그러기에는 너무 고동친다. 그런데도 나는 이따금 내 뇌가 아주 고요하다고, 얼어붙은 듯 고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늙은 두개골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니, 담긴 것이 얼음으로 변해 잔을 깨뜨려 버린 유리잔처럼. 그런데도 이 머리털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다. 그러니 열이

그것을 길러 내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아니다. 이것은 그린란드 얼음의 흙 틈새에서든 베수비오 화산의 용암 속에서든 어디서나 자라는 흔해 빠진 풀 같은 것이다. 사나운 바람이 그것을 얼마나 휘날리는지. 바람은 쪼개진 돛의 찢긴 조각들이 저희가 매달린 흔들리는 배를 후려치듯 그것으로 내 몸을 후려친다. 이 비열한 바람은 틀림없이 여기 오기 전에 감옥의 복도와 감방, 병원의 병실을 지나며 그곳의 공기를 갈아 주고, 이제 양털처럼 순진한 얼굴로 이리로 불어오는 것이다. 집어치워라! 더럽혀진 바람이다. 내가 바람이라면 이렇게 사악하고 비참한 세상에는 더는 불지 않으리라. 어딘가 동굴로 기어들어 거기 숨어 버리리라. 그런데도 바람이란 고귀하고 영웅다운 것이다! 누가 바람을 정복한 적이 있느냐? 모든 싸움에서 바람은 마지막의, 가장 쓰라린 일격을 날린다. 창을 겨누고 덤벼들면 그저 바람을 꿰뚫고 지나갈 뿐이다. 하! 벌거벗은 사람은 후려치면서 단 한 대도 맞으려고 버티고 서지 않는 겁쟁이 바람이로구나. 에이해브조차 *그것*보다는 더 용감한 것이다. 더 고귀한 것이다. 이제 바람에 몸이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죽을 운명의 인간을 가장 화나게 하고 가장 모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모두 몸이 없다. 그러나 대상으로서만 몸이 없을 뿐, 행위자로서는 그렇지 않다. 거기에 가장 특별하고, 가장 교활하고, 오, 가장 악의에 찬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나는 다시 말하고 지금 맹세한다. 바람에는 온통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무언가가 있다. 적어도 이 따뜻한 무역풍은 그렇다. 무역풍은 맑은 하늘에서 힘차고 한결같은 기운찬 부드러움으로 곧장 불어 간다. 바다의 더 천한 해류들이 아무리 방향을 바꾸고 이리저리 틀어도, 뭍의 가장 힘센 미시시피강들이 결국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아무리 빠르게 굽이치며 휘돌아도, 무역풍은 제 과녁에서 빗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두 극에 걸고! 내 좋은 배를 그토록 곧장 몰아 주는 바로 이 무역풍이, 이 무역풍이, 아니면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그토록 변함없고 그만큼 센 무언가가 용골 단 내 영혼을 몰아 간다! 가자! 거기 위!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선장님."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 정오가 가까운데! 금화가 임자를 찾아 구걸하고 다니는구나! 해를 보아라! 그래, 그래, 그렇게 된 게 틀림없다. 내가 놈을 지나쳐 와 버렸다. 어떻게 놈이 앞질렀지? 그래, 이제는 놈이 *나*를 쫓고 있다. 내가 *놈*을 쫓는 게 아니라. 고약하다. 그것도 진작 알았어야 했다. 바보로구나! 줄들, 놈이 끌고 가는 작살들. 그래, 그래, 간밤에 내가 놈을 앞질러 달렸다. 배를 돌려라! 돌려라! 정해진 망꾼만 남기고 모두 내려와라! 활대 줄을 잡아라!"

피쿼드호가 지금까지 몰아 온 대로라면 바람은 고물 비스듬히 뒤쪽에서 얼마쯤 불어오고 있었으므로,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리자, 활대를 당긴 배는 제가 남긴 흰 항적의 크림을 다시 휘저으며 바람에 바싹 맞서 나아갔다.

"이제 바람을 거슬러 그는 벌린 아가리로 배를 몬다." 스타벅이 새로 당긴 큰돛대 활대 줄을 난간에 사려 감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소서. 벌써 내 뼈가 속에서 축축하게 느껴지고, 안에서부터 살이 젖어 든다.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내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 아닌지 두렵다!"

"나를 끌어 올릴 채비를 해라!" 에이해브가 삼밧줄 바구니로 다가가며 외쳤다. "곧 놈을 만나리라."

"예, 알겠습니다, 선장님." 스타벅은 곧바로 에이해브가 시킨 대로 했고, 다시 한번 에이해브는 높이 매달려 올라갔다.

이제 한 시간이 꼬박 지나갔다. 금박처럼 두드려 펴져 몇 세대나 되는 듯한 한 시간이었다. 이제 시간 자체가 날카로운 긴장 속에서 긴 숨을 참았다. 그러나 마침내 바람 불어오는 쪽 뱃머리에서 세 점쯤 벗어난

곳에서 에이해브가 다시 물줄기를 찾아냈고, 그러자 곧바로 세 돛대 꼭대기에서 불의 혀가 소리 낸 듯한 세 개의 비명이 솟았다.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 너를 만난다, 이 세 번째로, 모비 딕! 거기 갑판! 활대를 더 바싹 당겨라. 배를 바람의 눈 속으로 밀어 넣어라. 아직 보트를 내리기에는 놈이 너무 멀다, 스타벅. 돛이 떤다! 저 키잡이 곁에 큰 쇠망치를 들고 서 있어라! 그래, 그래. 놈은 빨리 간다. 나는 내려가야겠다. 그러나 여기 위에서 바다를 한 번 더 잘 둘러보자. 그럴 시간은 있다. 오래된, 아주 오래된 광경인데 어쩐지 이토록 젊구나. 그렇다, 소년 시절 낸터킷의 모래 언덕에서 처음 보았을 때와 눈 한 번 깜박일 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다! 같다! 같다! 노아에게나 나에게나 같다. 바람 불어 가는 쪽에 부드러운 소나기가 내린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바람 아래 쪽이라니! 그 쪽은 어딘가로 이어지는 게 틀림없다. 흔한 뭍 말고 다른 무언가로, 야자나무보다 더 야자나무 같은 곳으로. 바람 불어 가는 쪽! 흰 고래는 그쪽으로 간다. 그렇다면 바람 불어오는 쪽을 보아라. 더 쓰라린 쪽일수록 더 좋은 쪽이다. 그러나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늙은 돛대 꼭대기여! 이게 뭐냐? 초록? 그렇다, 이 뒤틀린 틈새에 작은 이끼가 끼었구나. 에이해브의 머리에는 그런 초록빛 비바람 얼룩이 없다! 여기에 이제 사람의 늙음과 물질의 늙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래, 늙은 돛대여, 우리 둘은 함께 늙어 간다. 그래도 우리는 몸통은 튼튼하지, 그렇지 않으냐, 나의 배여? 그래, 다리 하나가 없을 뿐이다, 그뿐이다. 하늘에 걸고, 이 죽은 나무가 모든 점에서 나의 산 살보다 낫구나. 나는 이것과 견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죽은 나무로 만든 배가, 생명력 넘치는 아버지들의 가장 생생한 것으로 만든 사람들의 목숨보다 오래 사는 것을 보았다. 그가 뭐라고 했더라? 나의 길잡이인 그는 그래도 내 앞에 가야 하고, 그래도 다시 보여야 한다고? 그러나 어디서? 내가 그 끝없는 계단을 내려간다 치면, 바다 밑바닥에서 내게 눈이 있을까?

그리고 밤새 나는, 그가 어디로 가라앉았든, 그에게서 멀어지며 항해했다. 그래, 그래, 다른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진실을 말했다, 오 파시교도여. 그러나 에이해브에 대해서는 네 화살이 못 미쳤다. 잘 있거라, 돛대 꼭대기여. 내가 없는 동안 고래를 잘 지켜보아라. 내일, 아니, 오늘 밤, 흰 고래가 머리와 꼬리가 묶인 채 저 아래 누워 있을 때 이야기하자."

그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여전히 둘레를 둘러보며, 갈라진 푸른 허공을 지나 갑판으로 꾸준히 내려졌다.

때가 되자 보트들이 내려졌다. 그러나 에이해브는 제 작은 보트의 고물에 서서 막 내려가려는 참에, 갑판에서 도르래 밧줄 하나를 쥐고 있는 항해사에게 손짓하여 잠깐 멈추라고 했다.

"스타벅!"

"예, 선장님?"

"내 영혼의 배가 이 항해에 나서는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다, 스타벅."

"예, 선장님. 선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요."

"어떤 배들은 항구를 떠난 뒤로 영영 소식이 끊긴다, 스타벅!"

"맞는 말씀입니다, 선장님.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썰물 때 죽고, 어떤 사람은 물이 다 빠졌을 때 죽고, 어떤 사람은 밀물이 가득 찼을 때 죽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온통 하나의 물마루로 솟구친 큰 물결 같다, 스타벅. 나는 늙었다. 나와 악수하자, 이 사람아."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두 사람의 눈이 서로에게 박혔다. 스타벅의 눈물이 그것을 붙이는 아교였다.

"오, 나의 선장님, 나의 선장님! 고귀한 마음이여,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용감한 사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리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려라!" 에이해브가 항해사의 팔을 뿌리치며 외쳤다. "선원들은 준비해라!"

순식간에 보트는 고물 바로 아래를 돌아 저어 나갔다.

"상어다! 상어다!" 거기 낮은 선장실 창문에서 한 목소리가 외쳤다. "오, 주인님, 나의 주인님, 돌아오세요!"

그러나 에이해브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때 그 자신의 목소리가 높이 솟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트는 펄쩍 뛰듯 나아갔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참말을 했다. 그가 배에서 밀고 나가자마자, 선체 밑의 검은 물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상어 떼가 노가 물에 잠길 때마다 노깃을 악의에 차서 덥석덥석 물어 대며, 그렇게 물어뜯으며 보트를 따라왔다. 그것은 상어가 우글거리는 그 바다에서 포경 보트들에게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로, 동방에서 행군하는 연대의 깃발 위에 독수리들이 맴돌듯, 상어들도 때로 그렇게 앞일을 내다보는 듯 보트를 따라오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상어들은 흰 고래를 처음 본 뒤로 피쿼드호가 처음 본 상어들이었다. 그리고 에이해브의 선원들이 모두 그토록 호랑이처럼 누런 야만인들이어서 그들의 살 냄새가 상어의 감각에 더 사향처럼 진하게 느껴졌기 때문인지, 그것은 때로 상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잘 알려진 일이지만, 어찌 되었든 상어들은 다른 보트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 한 보트만 따라가는 것 같았다.

"벼려 만든 강철 같은 심장이로구나!" 스타벅이 뱃전 너머로 멀어져 가는 보트를 눈으로 좇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그 광경에 대담하게 울릴 수 있느냐? 굶주린 상어 떼 속으로 용골을 내리고, 입을 벌리고 추격에 나서는 그놈들에게 쫓기면서, 그것도 고비가 되는 셋째 날에? 사흘이 하나로 이어진 맹렬한 추격으로 흘러갈 때, 틀림없이 첫날은 아침이고, 둘째 날은 한낮이고, 셋째 날은 저녁이며 그 일의 끝이다. 그 끝이 무엇이든. 오! 나의 하나님! 나를 꿰뚫고 지나가며 나를 이토록

죽은 듯 고요하게,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기다리게, 몸서리의 꼭대기에 못 박힌 채로 남겨 두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올 일들이 텅 빈 윤곽과 뼈대처럼 내 앞에서 헤엄친다. 지나간 일은 모두 어쩐지 흐릿해졌다. 메리, 여보! 당신은 창백한 영광 속에 내 뒤에서 희미해져 가는구려. 아가! 이상하게 파래진 네 눈만 보이는 것 같구나. 삶의 가장 기이한 문제들이 풀려 가는 것 같다. 그러나 구름이 그 사이를 휩쓸고 지나간다. 내 여정의 끝이 다가오는가? 다리에 힘이 없다. 온종일 걸어온 사람의 다리처럼. 네 심장을 짚어 보아라. 아직 뛰느냐? 정신 차려라, 스타벅! 떨쳐 버려라. 움직여라, 움직여라! 소리 내어 말해라! 거기 돛대 꼭대기! 언덕 위에 내 아이의 손이 보이느냐? 미쳤구나. 거기 위! 보트들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을 떼지 마라. 고래를 잘 지켜보아라! 어이! 또! 저 매를 쫓아라! 보라! 쪼아 댄다. 풍향기를 찢는다." 그는 큰돛대 꼭대기 둥근 판에 나부끼는 붉은 깃발을 가리켰다. "하! 그걸 물고 날아오른다! 노인은 지금 어디 있지? 저 광경이 보입니까, 오 에이해브 선장님! 몸서리가 난다, 몸서리가!"

보트들이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때, 돛대 꼭대기에서 보낸 신호, 곧 아래를 가리키는 팔을 보고 에이해브는 고래가 잠수했음을 알았으나, 다음에 떠오를 때 놈 가까이 있으려고 배에서 조금 옆으로 비껴 계속 나아갔다. 넋을 빼앗긴 선원들은 더없이 깊은 침묵을 지켰고, 맞받아치는 물결이 맞선 뱃머리를 두들기고 또 두들겼다.

"박아라, 너희 못을 박아라, 오 너희 파도여! 대가리 끝까지 박아 넣어라! 너희는 뚜껑 없는 것을 칠 뿐이다. 그리고 관도 영구차도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삼밧줄뿐이다! 하! 하!"

갑자기 그들 둘레의 물이 넓은 원을 그리며 천천히 부풀어 오르더니, 물에 잠긴 빙산에서 옆으로 미끄러져 나와 수면으로 재빨리 솟아오르는 듯 빠르게 들썩였다. 낮게 우르릉거리는 소리, 땅속에서 나는 듯한 웅웅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모두 숨을 죽였다. 끌고 다니는 밧줄과 작살과 창에 엉망으로 휘감긴 거대한 형체가 바다에서 길게, 그러나 비스듬히 솟구쳐 나왔던 것이다. 가늘게 늘어진 안개의 너울에 휩싸인 채 그것은 무지개 걸린 허공에 잠깐 머물렀다가, 첨벙 물을 뒤덮으며 깊은 바다로 다시 떨어졌다. 30피트 위로 짓눌려 솟구친 물은 한순간 샘을 무더기로 쌓아 놓은 듯 번득였다가, 눈송이 같은 물방울의 소나기가 되어 부서지며 가라앉으며, 고래의 대리석 몸통 둘레의 원을 그리는 수면을 갓 짠 우유처럼 크림빛으로 남겨 두었다.

"저어라!" 에이해브가 노잡이들에게 외쳤다. 그리고 보트들은 공격하러 쏜살같이 나아갔다. 그러나 어제 박힌 새 작살들이 몸속에서 부식하는 데 미쳐 날뛰는 모비 딕은, 하늘에서 떨어진 모든 천사에게 한꺼번에 쓴 것 같았다. 넓고 흰 이마를 뒤덮은 단조해 붙인 듯한 힘줄의 넓은 층이 투명한 살갗 밑에서 한데 뜨개질한 것처럼 보였다. 놈은 머리를 앞세우고 보트들 사이로 꼬리를 휘저으며 다가와 다시 한번 보트들을 도리깨질하듯 흩어 놓으며, 두 항해사의 보트에서 작살과 창을 쏟아 버리고 그 뱃머리 윗부분 한쪽을 박살 냈으나, 에이해브의 보트는 거의 흠집 하나 없이 남겨 두었다.

다구와 퀴퀘그가 뒤틀린 널빤지를 막고 있는 동안, 그리고 고래가 그들에게서 헤엄쳐 나갔다가 돌아서서 다시 그들 곁을 쏜살같이 지나가며 한쪽 옆구리를 통째로 드러낸 그 순간, 날카로운 외침이 솟았다. 물고기의 등에 칭칭 감겨 묶인 채, 간밤에 고래가 제 몸 둘레에 작살줄을 감아 들인 그 겹겹의 고리 속에 꽁꽁 묶인 채, 파시교도의 반쯤 찢긴 몸이 보였는데, 검은 옷은 갈가리 해어졌고, 부릅뜬 눈은 늙은 에이해브를 똑바로 향해 있었다.

작살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속았다, 속았다!" 그는 길고 가냘픈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파시교도! 너를 다시 보는구나. 그래, 그리고 너는 앞서 간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것*이 네가 약속한 영구차로구나. 그러나 나는 네 말의 마지막 글자까지 너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 둘째 영구차는 어디 있느냐? 항해사들, 배로 가라! 그 보트들은 이제 쓸모가 없다. 제때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내게 돌아와라. 그러지 못하면 에이해브 혼자서도 죽기에 넉넉하다. 앉아라, 얘들아! 내가 서 있는 이 보트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늉만 하는 것이 있으면 맨 먼저 그것에 작살을 박겠다.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팔이고 나의 다리다. 그러니 내게 복종해라. 고래는 어디 있느냐? 다시 잠수했느냐?"

그러나 그는 보트에서 너무 가까운 데를 보았다. 모비 딕은 저가 짊어진 시체를 데리고 달아나려고 작정한 듯, 그리고 지난번 맞붙은 그 자리가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가는 제 항해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았던 듯, 이제 다시 꾸준히 앞으로 헤엄쳐 가고 있었고, 배를 거의 지나쳐 가 있었다. 배는 지금까지 고래와 반대 방향으로 항해해 왔으나, 당분간은 나아가기를 멈추고 있었다. 고래는 있는 힘껏 빠르게 헤엄치며, 이제 바다에서 저만의 곧은 길을 따라가는 데만 마음을 쏟는 것 같았다.

"오! 에이해브 선장님." 스타벅이 외쳤다. "지금이라도, 셋째 날인 지금이라도 그만두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모비 딕은 선장님을 찾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놈을 찾는 것은 선장님, 바로 선장님입니다!"

거세지는 바람에 돛을 올린 외로운 보트는 노와 돛 양쪽으로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빠르게 밀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에이해브가 배 곁을 미끄러지듯 지나갈 때,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인 스타벅의 얼굴을 똑똑히 알아볼 만큼 가까웠을 때, 그는 스타벅에게 배를 돌려 너무 빠르지 않게 알맞은 간격을 두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외쳤다. 위를 흘끗 올려다보니 태시테고와 퀴퀘그와 다구가 세 돛대 꼭대기로 열심히

오르고 있었고, 그동안 노잡이들은 막 뱃전으로 끌어 올린 박살 난 보트 두 척 안에서 흔들리며 바삐 그것을 고치고 있었다. 그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동안 현창 너머로 스터브와 플래스크가 새 작살과 창 다발 사이에서 갑판 위를 바삐 오가는 모습도 하나씩 차례로 휙휙 스쳐 보였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부서진 보트에서 망치 소리를 들었을 때, 그와는 전혀 다른 망치들이 그의 심장에 못을 박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기운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 큰돛대 꼭대기에서 풍향기, 곧 깃발이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막 그 망보는 자리에 이른 태시테고에게 다시 내려가 다른 깃발과 망치와 못을 가지고 올라가 그것을 돛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사흘을 내리 쫓긴 데다 짊어진 얽힌 짐 때문에 헤엄치기가 힘겨워 지쳤기 때문인지, 아니면 놈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속임수와 악의 때문인지, 어느 쪽이 참이든, 흰 고래의 걸음은 이제 다시 한번 그토록 빠르게 다가오는 보트에서 보기에 느려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사실 고래가 마지막으로 내달린 거리는 전처럼 길지는 않았다. 그리고 에이해브가 파도 위를 미끄러져 가는 동안에도 무자비한 상어들은 여전히 그를 따라왔다. 그리고 어찌나 끈질기게 보트에 달라붙고 어찌나 쉬지 않고 움직이는 노를 물어 대는지, 노깃이 들쭉날쭉 깨물려 거의 물에 담글 때마다 작은 부스러기를 바다에 남겼다.

"신경 쓰지 마라! 저 이빨들은 너희 노에 새 노걸이를 만들어 줄 뿐이다. 계속 저어라! 내맡기는 물보다 상어 아가리가 더 나은 받침이다."

"하지만 한 번 물릴 때마다, 선장님, 얇은 노깃이 자꾸자꾸 작아집니다!"

"그만하면 충분히 버틴다! 계속 저어라! 그러나 누가 알겠느냐." 그는 중얼거렸다. "이 상어들이 고래를 먹으려고 헤엄쳐 오는지, 에이해브를

먹으려고 헤엄쳐 오는지? 그래도 계속 저어라! 그래, 이제 모두 기운을 내라. 놈에게 다가간다. 키를! 키를 잡아라! 나를 지나가게 해라." 그렇게 말하자 노잡이 둘이 그를 거들어 아직 날듯이 달리는 보트의 뱃머리로 데려갔다.

마침내 보트가 한쪽으로 틀어져 흰 고래의 옆구리를 따라 나란히 달렸을 때, 고래는 이상하게도 보트가 다가오는 것을 잊은 듯했는데, 고래는 때로 그러기도 한다. 그리고 에이해브는 고래의 물줄기에서 내뿜어져 모나드녹산 같은 거대한 혹 둘레에 감도는 연기 같은 산안개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다. 그토록 놈에게 가까이 있었다. 그때 그는 몸을 뒤로 활처럼 젖히고 두 팔을 길게 높이 쳐들어 겨눈 채, 그 사나운 작살을,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사나운 저주를 미운 고래에게 던졌다. 강철과 저주가 늪에 빨려 들듯 자루 구멍까지 깊숙이 박히자, 모비 딕은 옆으로 몸을 비틀었다. 그리고 경련하듯 가까운 쪽 옆구리를 뱃머리에 대고 굴려, 구멍 하나 내지 않고도 보트를 어찌나 갑자기 기울였는지, 그때 매달린 뱃전의 높은 부분이 없었다면 에이해브는 또 한 번 바다로 내던져졌으리라. 실제로는 노잡이 셋이, 작살을 던지는 정확한 순간을 미리 몰라 그 결과에 대비하지 못했던 그 셋이 밖으로 내던져졌다. 그러나 떨어진 자리가 좋아서 그 가운데 둘은 순식간에 다시 뱃전을 움켜쥐었고, 솟구치는 물결을 타고 뱃전 높이까지 올라와 몸째로 보트 안으로 다시 뛰어들었고, 셋째 사람은 어쩔 도리 없이 고물 쪽으로 처졌으나 아직 떠서 헤엄치고 있었다.

거의 같은 순간, 흰 고래는 단계 없이 단숨에 터져 나오는 엄청난 의지의 빠르기로 뒤끓는 바다를 쏜살같이 헤치고 나아갔다. 그러나 에이해브가 키잡이에게 작살줄을 새로 감아 그대로 붙들고 있으라고 외치고, 선원들에게 자리에서 몸을 돌려 보트를 과녁까지 끌어당기라고

명령하자, 배신하는 작살줄은 그 두 겹의 팽팽함과 잡아당김을 느끼는 순간 텅 빈 허공에서 뚝 끊어졌다!

"내 안에서 무엇이 끊어지느냐? 어느 힘줄이 툭 끊어진다! 다시 온전해졌다. 노를! 노를! 놈에게 들이닥쳐라!"

바다를 박살 내며 달려오는 보트의 엄청난 기세를 듣고, 고래는 몸을 휙 돌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밋밋한 이마를 들이댔으나, 그렇게 도는 사이에 다가오는 배의 검은 선체를 보았다. 거기서 저를 괴롭혀 온 모든 것의 근원을 본 듯, 어쩌면 그것을 더 크고 더 고귀한 적으로 여긴 듯, 놈은 갑자기 다가오는 배의 뱃머리를 향해 내리달렸다. 불꽃 튀는 거품의 소나기 속에서 턱을 맞부딪치며.

에이해브가 비틀거렸다. 그의 손이 이마를 쳤다. "눈이 먼다. 손들아! 내 앞으로 뻗어라. 그래도 길을 더듬어 갈 수 있도록. 밤이냐?"

"고래가! 배가!" 움츠러든 노잡이들이 외쳤다.

"노를! 노를! 너의 깊은 곳으로 비탈져 내려가라, 오 바다여, 영영 너무 늦기 전에 에이해브가 이 마지막, 마지막으로 과녁에 미끄러져 닿을 수 있도록! 보인다. 배다! 배다! 돌진해라, 얘들아! 내 배를 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노잡이들이 쇠망치처럼 내리치는 파도를 뚫고 사납게 보트를 밀어붙이자, 앞서 고래에게 얻어맞은 널빤지 두 장의 뱃머리 쪽 끝이 터져 나갔다. 그리고 거의 순식간에, 잠시 쓸 수 없게 된 보트가 파도와 거의 같은 높이로 내려앉았고, 반쯤 물에 잠겨 첨벙거리는 선원들은 터진 데를 막고 쏟아져 드는 물을 퍼내려고 애썼다.

그동안, 바라보던 그 한순간, 태시테고의 돛대 꼭대기 망치는 그의 손에 쳐든 채 멈추어 있었고, 붉은 깃발은 격자무늬 어깨걸이처럼 반쯤 그를 감쌌다가, 앞으로 흘러가는 그 자신의 심장처럼 그에게서 곧게

뻗어 나부꼈다. 그동안 그 아래 뱃머리 기움 돛대에 서 있던 스타벅과 스터브도 그와 거의 같은 때에 덮쳐 오는 괴물을 보았다.

"고래다, 고래다! 키를 올려라, 키를 올려라! 오, 대기의 모든 다정한 힘이여, 이제 나를 꼭 껴안아 주소서! 스타벅이 죽어야 한다면, 여자처럼 기절하여 죽게 하지는 마소서. 키를 올리라니까. 이 바보들아, 턱이다! 턱이다! 이것이 내 온갖 터질 듯한 기도의 끝이냐? 평생 지켜 온 내 온갖 충직함의 끝이냐? 오, 에이해브, 에이해브, 보십시오, 선장님이 한 일을. 그대로! 키잡이, 그대로. 아니다, 아니다! 다시 키를 올려라! 놈이 우리를 맞으려고 돌아선다! 오, 놈의 달랠 수 없는 이마가 한 사람을 향해 달려온다. 의무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나의 하나님, 이제 제 곁에 서 주소서!"

"내 곁에 서지 말고 내 밑에 서 다오, 이제 스터브를 도와줄 이가 누구든. 스터브도 여기 꼼짝없이 박혀 있으니. 너를 보고 이를 드러내고 웃어 주마, 이를 드러내고 웃는 고래야! 스터브의 깜박이지 않는 눈 말고 누가 스터브를 도와준 적이 있으며, 누가 스터브를 깨워 준 적이 있더냐? 그리고 이제 가엾은 스터브는 너무나 푹신한 요 위에 잠자리를 펴는구나. 차라리 덤불이나 채워 넣었으면 좋으련만! 너를 보고 이를 드러내고 웃어 주마, 이를 드러내고 웃는 고래야! 보아라, 해와 달과 별들아! 너희를 일찍이 제 넋을 물줄기로 뿜어 올린 그 누구 못지않게 좋은 녀석을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부르겠다. 그래도 너희가 잔을 건네주기만 한다면 너희와 잔을 부딪쳐 주겠다! 오, 오! 오, 오! 이를 드러내고 웃는 고래야, 하지만 곧 실컷 꿀꺽꿀꺽 들이켜게 되겠지! 왜 달아나지 않습니까, 오 에이해브 선장님! 나로 말하자면, 신발과 웃옷을 벗어 던지자. 스터브는 속옷 바람으로 죽게 해라! 그래도 더없이 곰팡내 나고 지나치게 짠 죽음이로구나. 버찌! 버찌! 버찌! 오, 플래스크, 죽기 전에 빨간 버찌 한 알만!"

"버찌? 나는 버찌가 자라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오, 스터브, 가엾은 우리 어머니가 지금쯤 내 몫의 일부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 아니라면 이제 어머니한테 갈 동전은 몇 푼 안 되겠지. 항해가 끝났으니까."

배의 뱃머리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선원이, 저마다 하던 일에서 쏜살같이 뛰쳐나온 그대로 망치와 널빤지 조각과 창과 작살을 기계적으로 손에 쥔 채, 넋 놓고 매달려 있었다. 넋 나간 그들의 눈은 모두 고래에게 쏠려 있었는데, 고래는 운명을 정하는 머리를 이상하게 좌우로 흔들며, 돌진하는 앞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넓게 퍼지는 거품의 띠를 보냈다. 응보와 재빠른 복수와 영원한 악의가 놈의 온 모습에 서려 있었다. 그리고 죽을 운명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놈의 이마라는 단단하고 흰 버팀벽이 배의 우현 뱃머리를 들이받아 사람도 목재도 휘청거렸다. 몇몇은 얼굴을 처박고 엎어졌다. 높은 곳의 작살잡이들의 머리가 황소 같은 목 위에서 뽑혀 나간 돛대 꼭대기 둥근 판처럼 흔들렸다. 그들은 뚫린 데로 물이, 산골짜기의 급류가 수로를 타고 쏟아지듯 쏟아져 드는 소리를 들었다.

"배다! 영구차다! 둘째 영구차다!" 에이해브가 보트에서 외쳤다. "그 나무는 아메리카 것일 수밖에 없다!"

고래는 가라앉는 배 밑으로 잠수하여 떨면서 용골을 따라 달렸다. 그러나 물속에서 몸을 돌려, 배의 반대쪽 뱃머리에서 멀리 떨어졌으나 에이해브의 보트에서는 몇 야드 안 되는 곳으로 다시 재빨리 솟구쳤다. 거기서 놈은 한동안 잠잠히 누워 있었다.

"나는 해에게서 몸을 돌린다. 어이, 태시테고! 네 망치 소리를 들려다오. 오! 끝내 항복하지 않은 나의 세 돛대여, 금 가지 않은 용골이여, 오직 신에게만 시달린 선체여, 굳건한 갑판이여, 오만한 키여, 북극을 가리키는 뱃머리여, 죽음으로 영광을 얻는 배여! 너희가 끝내 죽는단 말이냐, 그것도 나 없이? 가장 보잘것없는 난파선 선장도 마지막으로

품는 그 애틋한 자부심마저 나는 끊겨 나가는가? 아, 외로운 삶에 외로운 죽음이여! 아, 이제야 알겠다. 나의 가장 높은 위대함은 나의 가장 높은 슬픔 안에 있다. 하, 하! 지나간 내 온 생애의 대담한 물결들아, 너희가 닿은 가장 먼 끝에서부터 이제 모두 쏟아져 들어와, 내 죽음이라는 이 산더미 같은 큰 물결 위에 너희를 얹어라! 너를 향해 나는 굴러간다, 모든 것을 부수되 정복하지는 못하는 고래여. 마지막까지 너와 맞붙으리라. 지옥의 한복판에서 너를 찌르리라. 증오를 위하여 내 마지막 숨을 네게 뱉으리라. 모든 관과 모든 영구차는 한 웅덩이로 가라앉아라!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으니, 차라리 너에게 묶인 채 너를 쫓으며 갈가리 찢기도록 끌려가게 하라, 이 저주받은 고래야! *이렇게*, 나는 창을 내던진다!"

작살이 던져졌다. 작살에 맞은 고래가 앞으로 내달렸고, 불이 붙을 듯한 빠르기로 작살줄이 홈을 타고 풀려 나가다가 엉켰다. 에이해브가 그것을 풀려고 몸을 숙였고, 정말로 그것을 풀었다. 그러나 날아가는 고리가 그의 목을 휘감았고, 터키의 벙어리 형리들이 활시위로 희생자의 목을 조르듯 소리 없이, 선원들이 그가 사라진 줄도 알기 전에 그는 보트 밖으로 쏘아져 나갔다. 다음 순간, 밧줄 맨 끝의 무거운 고리 매듭이 텅 빈 통에서 튀어나와 노잡이 하나를 쓰러뜨리고 바다를 때리며 그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한순간 넋을 잃은 보트의 선원들은 꼼짝 않고 서 있다가 돌아섰다. "배는? 위대하신 하나님, 배는 어디 있습니까?" 곧 그들은 흐릿하고 어지러운 매질을 통해, 기체 같은 신기루 속에서처럼, 옆으로 기울며 스러져 가는 배의 환영을 보았는데, 맨 위의 돛대들만 물 밖에 나와 있었다. 그리고 홀린 탓인지, 충직함 때문인지, 운명 때문인지, 한때 높았던 망보는 자리에 붙박인 채 이교도 작살잡이들은 가라앉아 가는 망루에서 여전히 바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동심원들이 그

외로운 보트까지, 그 선원 모두와 떠다니는 노 하나하나와 창 자루 하나하나까지 사로잡았고,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모두 하나의 소용돌이 속에 빙글빙글 돌리며, 피쿼드호의 가장 작은 부스러기까지 시야 밖으로 실어 가 버렸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덮쳐 오는 물결이 한데 뒤섞이며 큰돛대에 있던 인디언의 가라앉은 머리 위로 쏟아져, 곧게 선 돛대가 몇 인치만, 그리고 길게 나부끼는 깃발이 몇 야드만 아직 보이게 남겨 두었을 때, 그 깃발은 거의 닿을 듯한 파괴의 큰 물결 위에서 얄궂게 그 물결과 박자를 맞추며 고요히 너울거렸는데, 그 순간 붉은 팔 하나와 망치 하나가 허공에 뒤로 쳐든 채 떠 있었다. 가라앉는 돛대에 깃발을 더 단단히, 더욱 단단히 못 박으려는 몸짓이었다. 별들 사이의 제 본디 집에서부터 큰돛대 꼭대기 둥근 판을 비웃듯이 따라 내려오며 깃발을 쪼고 거기 있는 태시테고를 성가시게 하던 하늘의 매 한 마리가, 이제 마침 그 넓게 퍼덕이는 날개를 망치와 나무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떨림을 느낀 바로 그 순간, 물에 잠긴 야만인은 죽음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망치를 거기 꽉 얼어붙은 듯 붙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하늘의 새는 대천사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제왕 같은 부리를 위로 내민 채, 사로잡힌 온몸을 에이해브의 깃발에 싸인 채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 그 배는 사탄처럼, 하늘의 살아 있는 한 부분을 함께 끌고 내려가 그것으로 투구를 삼기 전에는 지옥으로 가라앉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 작은 새들이 아직 입을 벌리고 있는 깊은 구렁 위로 울부짖으며 날았고, 음울한 흰 파도가 그 가파른 벽에 부딪쳤다. 그러고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바다의 거대한 수의는 오천 년 전에 굴러가던 대로 굴러갔다.

에필로그

"나 홀로 살아남아 너에게 이 일을 알리러 왔다." 욥기.

연극은 끝났다. 그렇다면 왜 여기 누군가가 앞으로 나서는가? 한 사람이 난파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파시교도가 사라진 뒤, 에이해브의 뱃머리 노잡이가 그 빈자리로 옮겨 가자 운명의 여신들은 그 노잡이의 자리에 나를 앉혔다. 마지막 날 세 사람이 흔들리는 보트에서 내동댕이쳐졌을 때 고물 쪽으로 떨어져 뒤에 남은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래서 나는 뒤이은 장면의 가장자리에 떠서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고, 가라앉은 배가 남긴 반쯤 힘이 빠진 빨아들이는 물살이 내게 닿았을 때 천천히, 닫혀 가는 소용돌이 쪽으로 끌려갔다. 내가 거기 이르렀을 때 소용돌이는 잦아들어 크림처럼 희뿌연 웅덩이가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천천히 도는 그 동그라미의 축에 박힌 단추 같은 검은 물거품을 향해 끝없이 좁혀 들며, 또 하나의 익시온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다 그 생명의 한가운데에 이르자 검은 물거품이 위로 터졌다. 그리고 이제 교묘하게 만든 용수철 덕에 풀려나, 엄청난 부력으로 힘차게 솟구친 관 구명부표가 바다에서 길쭉하게 튀어올랐다가 쓰러져 내 곁에 떴다. 나는 그 관에 몸을 맡긴 채 거의 꼬박 하루 낮과 밤을, 부드럽고 만가(挽歌) 같은 바다 위에 떠 있었다. 해치지 않는 상어들은 입에 자물쇠라도 채운 듯 미끄러져 지나갔고, 사나운 바다매들은 부리를 칼집에 꽂은 채 날아갔다. 둘째 날, 돛 하나가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와 마침내 나를 건져 올렸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 지나온 뱃길을 되짚으며 헤매던 라헬호였고, 라헬호가 찾아낸 것은 또 하나의 고아뿐이었다.

판권면

모비 딕

원제 · Moby-Dick; or, The Whale

지은이 · 허먼 멜빌 (Herman Melville, 1819~1891)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 1851년 10월 런던 리처드 벤틀리 출판사(『The Whale』, 전 3권), 1851년 11월 뉴욕 하퍼 앤드 브러더스 출판사(『Moby-Dick; or, The Whale』).

저본 · 1851년 미국판 계열의 본문을 옮겨 적은 퍼블릭도메인 영어 전자 텍스트. 영어 원전에서 옮겼다.

분량 · 원문 211,394단어 · 어원·발췌, 135장, 에필로그 · 2,498문단(원문과 같음) · 원주 22개 · 옮긴이 주 1개

저작권 · 지은이가 1891년에 사망해 원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1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